朝鮮時代 文集(鵝洲申氏編 上)

아주신씨 종친회(鵝洲申氏 宗親會)
아주신씨 시조바로세우기 협의회

목 록

朝鮮時代 文集(鵝洲申氏編) 01

성호전집(星湖全集) 이익(李瀷) ----------1
송암집(松巖集) 권호문(權好文) ----------15
약포집(藥圃集) 정탁(鄭琢) ----------33
여헌집(旅軒集) 장현광(張顯光) ----------45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이긍익(李肯翊) ----------98
우복집(愚伏集) 정경세(鄭經世) ----------102
월천집(月川集) 조목(趙穆) ----------123
응천일록 3(凝川日錄三) ----------131
입재집(立齋集) 정종로(鄭宗魯) ----------134
학봉전집(鶴峯全集) 김성일(金誠一) ----------167
간송집(澗松集) 조임도(趙任道) ----------182
간재집(艮齋集) 이덕홍(李德弘) ----------233
갈암집(葛庵集) 이현일(李玄逸) ----------246
구사당집(九思堂集) 김낙행(金樂行) ----------272
난중잡록(亂中雜錄一) 조경남(趙慶男) ----------285
대산집(大ft集) 이상정(李象靖) ----------290
동명집(東溟集) 정두경(鄭斗卿) ----------334
동주집(東州集) 이민구(李敏求) ----------353
목재집(木齋集) 홍여하(洪汝河) ----------368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허균(許筠) ----------392

朝鮮時代 文集(鵝洲申氏編) 02

감호선생문집(鑑湖先生文集) 여대로(呂大老) ----------398
강고선생문집(江皐先生文集) 유심춘(柳尋春) ----------405
경정선생집(敬亭先生集) 이민성(李民宬) ----------415
고산선생문집(孤ft先生文集) 이유장(李惟樟) ----------439

구봉선생문집(九峯先生文集) 김수인(金守訒) ----------447
근시재선생문집(近始齋先生文集) 김해(金垓) ----------454
낙재선생문집(樂齋先生文集) 서사원(徐思遠) ----------459
노암선생문집(魯庵先生文集) 김종일(金宗一) ----------467
눌은선생문집(訥隱先生文集) 이광정(李光庭) ----------480
대암선생집(大菴先生集) 박성(朴惺) ----------507
동계문집(東溪文集) 조형도(趙亨道) ----------513
둔헌선생집(遯軒先生集) 이홍유(李弘有) ----------526
망우선생문집(忘憂先生文集) 곽재우(郭再祐) ----------531
매산선생문집(梅ft先生文集) 정중기(鄭重器) ----------539
매창선생문집(梅窓先生文集) 정사신(鄭士信) ----------552
명고선생문집(鳴皐先生文集) 정간(鄭榦) ----------557
백암선생문집(栢巖先生文集) 김륵(金玏) ----------574
서계선생문집(西溪先生文集) 이득윤(李得胤) ----------583
서담선생문집(西潭先生文集) 홍위(洪瑋) ----------590
성재선생문집(惺齋先生文集) 금난수(琴蘭秀) ----------602
소산선생문집(小ft先生文集) 이광정(李光靖) ----------608
소암선생문집(所菴先生文集) 이병원(李秉遠) ----------617
송소선생문집(松巢先生文集) 권우(權宇) ----------629
송정선생문집(松亭先生文集) 하수일(河受一) ----------634
오한선생문집(聱漢先生文集) 손기양(孫起陽) ----------642
유헌선생문집(遊軒先生文集) 장석룡(張錫龍) ----------652
이계선생문집(伊溪先生文集) 남몽뢰(南夢賚) ----------661
인재선생문집(訒齋先生文集) 최현(崔晛) ----------681
임여재선생문집(臨汝齋先生文集) 유규(柳규) ----------695
자암집(紫巖集) 이민환(李民寏) ----------709
장암선생집(丈巖先生集) 정호(鄭澔) ----------722
제암집(濟庵集) 김종섭(金宗燮) ----------733

척암선생문집(拓菴先生文集) 김도화(金道和) ----------747
청대선생문집(淸臺先生文集) 권상일(權相一) ----------767
하음선생문집(河陰先生文集) 신즙(申楫) ----------779
학고선생문집(鶴皐先生文集) 김이만(金履萬) ----------788
학사선생집(鶴沙先生集) 김응조(金應祖) ----------794
학서선생문집(鶴棲先生文集) 유태좌(柳台佐) ----------808
학송집(鶴松集) 전유형(全有亨) ----------819
후계집(後溪集) 이이순(李頤淳) ----------831
후산선생문집(后ft先生文集) 이종수(李宗洙) ----------840

성호전집(星湖全集)

1. 머리말

이 책은 성호(星湖) 이익(李瀷)의 문집으로 1922년에 중간된 원집 68권, 부록 2권의 《성호 선생 전집(星湖先生全集)》을 국역한 것이다. 1917년에 초간된 원집 50권, 부록 2권의 《성호 선생 문집(星湖先生文集)》이 있으나 이익의 저작이 양적으로 더 풍부하게 실린 중간본을 번역의 대본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초간본도 간행되지 못한 필사분(筆寫分) 17권이 《성호 선생 속집(星湖先生續集)》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문집》과 《속집》을 합하면 거의 완벽하게 바로 중간본 자체의 내용과 양이 된다. 이것은 초간이나 중간이 다 같이 이익의 조카 이병휴(李秉休)가 수집・정리해 둔 원고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익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1681년(숙종7)~1763년(영조39)의 기간에 재세했던 실학의 선구자로 알려진 역사적 명인(名人)이다. 그러므로 새삼 여기에서 그의 생애・업적 등을 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의 《전집》에 실린 저작의 개략을 중심으로 그의 문집이 그의 저작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먼저 살펴보고, 문집과 관련해서 그를 해석하는 시각에 대해 뒤에 잠깐 논의해 볼까 한다.

2. 이익의 저작에서 문집의 위치

이익의 모든 저작은 조카 이병휴가 수집・정리하고, 그중 문집을 제외한 주요 저작에 대해서는 가장(家狀)에 대략 설명까지 해 두었다. 먼저 제경질서(諸經疾書)를 들 수 있다. 이익은 《맹자질서(孟子疾書)》를 위시하여 《대학(大學)》, 《소학(小學)》, 《논어(論語)》, 《중용(中庸)》, 《근사록(近思錄)》, 《심경(心經)》, 《주역(周易)》, 《서경(書經)》, 《시경(詩經)》, 《가례(家禮)》에 대해 차례대로 《질서》를 찬술했다. '질서'란 경문(經文)과 주설(註說)에 대한 의문을 사색해 터득함이 있으면 '재빨리 써둔다'는 뜻이다. 재빨리 써둔다고 해서 반드시 여과되지 않은 일과성(一過性) 기록이라고 할 수는 없다. 《역경질서(易經疾書)》와 《시경질서》는 만년에 그 전고(前稿)를 버리고 다시 개찬했고, 《가례질서》의 경우 '질서'라고 이름했지만 10여 년이나 걸려서 이룩했다. 요컨대 제경질서는 '질서'라는 이름과는 달리 제경에 대한 이익의 일정하게 정리된 견해가 피로(披露)되어 있는 셈이다.

다음은 《사칠신편(四七新編)》이다. 사단칠정론(四端七情論)은 우리나라 도학사(道學史)의 일대 공안(一大公案)이다. 이익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진지한 사색을 했다. 그래서 16편의 본편(本編)을 저작하고 부록으로 이황(李滉), 기대승(奇大升), 이이(李珥)의 관련 저작을 읽고 문제점을 적출해 이에 대한 해명을 해두었다. 그러고도 문집에는 만년에 다시 문인들과 《신편》에서 못다 한 논의를 정세하게 추궁해 간 서한(書翰)이 상당량 실려 있다.

다음은 《곽우록(藿憂錄)》이다. 이익은 학문을 하던 초기부터 세무(世務)에 마음을 두어 국정의 허물어짐과 민생의 간고(艱苦)함에 대해 그 원인과 대책을 사색했다. 그 결과가 이 책이다. 말하자면 포의(布衣)로서 경세(經世)의 방략을 내놓지 않을 수 없는 우국의 저작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 19편 2권의 분량으로 권1이 10편이고 권2가 9편인데, 권2의 4편은 독자적인 저작이고 나머지 5편은 문집 중 잡저(雜著)의 일

부와 중복된다.

다음은 《사설(僿說)》이다. 책을 읽거나 실재의 일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견문을 통해 얻거나 사색하여 터득하면 그때마다 즉시 기록하여 그것이 쌓여 이룩된 책이다. 당초 일정한 의도와 목표 아래 저술되지는 않았지만 이익 자신이 〈천지편(天地篇)〉, 〈인사편(人事篇)〉, 〈경사편(經史篇)〉, 〈만물편(萬物篇)〉, 〈시문편(詩文篇)〉 등 5대편(大篇)으로 나누고 매 편 아래에 다시 여러 소강(小綱)으로 나눈 것을 제자 안정복(安鼎福)이 5대편과 소강들 사이에 다시 20문(門)으로 분류하고 내용 가운데 중복되는 부분 등을 산삭했다. 그만큼 이 책에서 다루어진 문제는 다종다양하고 광범하다. 이병휴의 표현에 의하면 공간적으로는 화이(華夷)의 세계, 시간적으로는 원고(遠古)에서 이익 자신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천지만물의 문제에 걸쳐 있는 책이다. 우리가 이익을 백과전서파적(百科全書派的) 학자로 보는 것은 주로 이 《사설》 때문임은 말할 것도 없다.

다음은 〈관물편(觀物篇)〉과 〈백언해(百諺解)〉이다. 이 두 책자는 소량(小量)으로, 전자는 70여 조의 단장(斷章)으로 이루어졌는데 주로 주변의 초목·금수·곤충에 관한 관찰 결과를 자신의 신상(身上)이나 인간 일반에 비추어 반사(反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후자는 360개 가량의 우리나라 속담을 8언(言)으로 한역(漢譯)한 것이다.

이 밖에 이익의 저작으로서 이병휴의 《성호전집》 후지(後識)에 서명(書名)이 보이는 〈자복편(自卜篇)〉, 그리고 벼의 품종에 관한 찬술인 《도보(稻譜)》는 현재 찾을 길이 없다. 짐작건대 이 책들은 비중이 그리 무겁지 않은 문제를 다룬, 1권 내외의 소량의 저작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익의 기존 저작, 즉 《전집》과 《사설》에서 이병휴가 예설(禮說)만을 뽑아 편차(編次)한 《성호선생 예설유편(星湖先生禮說類編)》 6권과 그 《속편》이 있다. 《전집》 가운데 주로 문인 등의 상제(喪祭)에 관한 질의(質疑)에 답한 편지 등에서 소정(所定)의 예의 절차, 의물(儀物), 축사(祝辭) 등에 해당하는 내용을 발췌하여 6권으로 하고, 다음으로 안정복의 관혼상제(冠婚喪祭)에 관한 질의에 답한 편지와 《사설》에서 예를 논한 편(篇)들을 뽑아 따로 《속편》으로 꾸몄다.

이 밖에 이익의 편서로,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예설을 엮은 《이 선생 예설(李先生禮說)》과 이황의 여러 저작에서 도학에 관계되는 요어(要語)를 채록하여 편집한 《이자수어(李子粹語)》가 있다. 후자는 본래 《도동편(道東編)》이라 이름했던 것을 안정복과 윤동규(尹東奎)가 첨삭을 가하여 주희(朱熹)의 《근사록》의 정례(定例)를 따라 〈도체(道體)〉, 〈위학(爲學)〉, 〈궁격(窮格)〉 등 13편으로 나누고 제목을 바꾼 것이다. 모두 4권이다.

과거 대부분의 학자들은 문집 단 1종에다 자신의 학문과 사상을 집주(集注)해 넣었다. 이는 대개 비교적 학문의 범위가 좁고 사상의 폭과 깊이가 덜 찬 때문이다. 그런데 이익의 경우 방대한 제경질서를 위시하여 5, 6종의 별도의 저작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도 문집이 58권이나 된다. 양적으로 많을 뿐 아니라 내용의 완성도에 있어서도 으뜸에 속한다. 문집과 같은 완성도를 가진 그의 별저(別著)로는 《사칠신편》과 《곽우록》을 들 수 있다. 저작 내용의 완성도를 따지는 것은 이것이 학자·사상가의 학설과 사상의 가장 유력한 전거(典據) 능력에 대한 우선순위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저작 중 《전집》과 《사칠신

편》, 《곽우록》이 그의 학설・사상의 전거로서 선차성(先次性)을 가진다. 제경질서와 《사설》 등은 상대적으로 2차적이다.

문집은 내용의 완성도가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별저로 표출된 그의 다방면의 문제의식을 포함하여 그 이상을 종합한 책이다. 《사칠신편》과 《곽우록》도 문집과 같이 내용의 완성도가 높아 1차적 전거로서의 가치는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특정한 한 방면의 주제에 국한된 책들이다. 반면에 문집은 별저들과 내용상 현재적으로나 잠재적으로 연관을 가지고 그 이상을 포함하므로 이익의 저작 전체에서 가장 으뜸인 책임이 분명하다. 이익의 문집은 그러니까 그의 많은 별저의 내용을 귀납하거나, 별저의 내용으로 발전될 생각의 싹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책이다.

3. 《성호전집》의 내용 개략

《성호전집》은 22종의 문체로 이루어져 있다. 사환(仕宦)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소(上疏), 차자(箚子) 따위의 관변에 관계되는 문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많이 저작된 문체로는 서한을 들 수 있는데 58권 중 28권이나 되고, 다음으로 많이 저작된 문체로는 잡저(雜著)를 들 수 있는데 10권 반에 이른다. 서한과 잡저가 많이 저작된 것은 이익의 학자로서의 깊이와 넓이를 반영하고 있다. 서한과 잡저의 대부분은 오늘날의 논문・논설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100여 편의 제발(題跋)은 그의 광범한 독서 이력을 말해 주고, 혁혁한 권세가가 아님에도 9권의 묘도문자(墓道文字)를 썼다는 것은 그의 근기 남인(近畿南人) 안에서의 위상을 말해 준다. 아래에 문체별 개략을 보인다.

○ 부(賦) : 〈석민부(釋憫賦)〉를 위시한 4편의 부가 책머리를 장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문집의 부는 대체로 과부(科賦)가 많아 내용의 진정성에 회의가 드는 예가 많은데, 이익의 경우 진정성을 회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 시(詩) : 대략 1200여 수의 시를 남겼는데, 위의 부와 함께 권1~권8에 실려 있다. 이익의 시는 대체로 질실(質實)한 감각과 내용의 '학자의 시'이지 '문인의 시'가 아니다. 이는 현실적 효용을 강조한 그의 문학관이 뒷받침된 결과이다. 그 가운데서도 〈해동악부(海東樂府)〉 119수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조 광해군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에서 특이한 사건에 관계된 사물・인물 등을 시제(詩題)로 내세워 사건의 내용과 감상을 묘서(描敍)한 영사시(詠史詩)이다. 이익의 우리 역사에 대한 애착과 지식이 돋보이는, 그리고 그의 국사관(國史觀)의 대략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한국의 영사 악부 중에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일정한 지보(地步)를 점하고 있다.

○ 서(書) : 모두 400여 통으로 권9~권37에 실려 있다.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 외암(畏庵) 이식(李栻) 등 몇몇 선배에게 올린 편지를 제하고는 모두 연하의 문인(門人)・지인(知人)・자질(子姪)들에게 보낸 여답서(與答書)이다. 그런데 선배에게 올린 편지를 위시하여 그 많은 편지에서 그저 안부를 주고받은 편지는 드물고, 대부분의 편지가 학문적인 논의로 내용이 이루어져 있다. 그런 만큼 답문목서(答問目書) 등 장편 거폭의 서한이 적지 않다. 그 학문적인 논의 가운데는 심(心)・사단칠정 같은 도학적인 문제, 상제례(喪祭禮)와 《주자가례(朱子家禮)》 등의 예(禮)에 관한 문제, 그리고 역사에 관한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이제까지 이익에 관한 해석 시각은 다분히 일방적인 자료에 의한 일방적인 해석에 가깝다는 사실이

이 도학 관계, 예 관계의 서한에서 드러난다.

○ 잡저 : 모두 170여 편으로 권38~권48에 실려 있다. 잡저에서도 예설이 70여 편으로 압도적인 숫자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경세 관계로서 25, 6편에 이르는데 이 중 5편은 《곽우록》과 중복된다. 나머지는 경학(經學) 관계, 역사 관계가 각각 10여 편, 그리고 천문 관계에서 자설(字說)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이다.

○ 잠(箴)・명(銘)・찬(贊)・송(頌) : 잡저 일부와 함께 권48에 실려 있다. 잠이 2편, 명이 23편, 찬이 11편, 그리고 송이 1편이다. 특히 명은 《연갑명(硯匣銘)》, 《애체경명(靉靆鏡銘)》 등이 있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신변의 자잘한 기물(器物)에 대해서 거의 다 명이 있을 정도이다. 16세기 도학자들의 잠명(箴銘)이 가진 시적(詩的)이고 응축적인 표현과는 다른, 말하자면 산문적인 데 가깝다.

○ 서(序) : 100여 편으로 권49~권52에 실려 있다. 먼저 첩서(帖序) 3편을 포함하여 책서(冊序)가 48편이다. 이익 자신의 저작 가운데 《곽우록》, 〈관물편〉, 〈백언해〉, 〈자복편〉을 제외한 모든 책의 서문, 이익이 편찬한 《이 선생 예설유편》, 《이자수어》의 서문을 위시하여 〈반계수록서(磻溪隧錄序)〉 등이 실려 있다. 《곽우록》의 짤막한 서문은 필사로 《곽우록》에 붙어 전함에도 수록되지 못했고, 《도보》의 본문은 없어졌으나 서문만은 전해져 책의 편찬 취지와 내용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다음으로 경하서(慶賀序)・송서(送序)가 25편, 암(庵)・재(齋)・정(亭) 등 사대부의 거처에 관한 서가 23편, 그리고 기타가 7편이다. 서의 문체를 매우 다채롭게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 기(記) : 35편으로 권53에 실려 있다. 〈유청량산기(遊淸凉山記)〉 등 유기(遊記)가 7편, 〈임강서원 강당 중수기(臨江書院講堂重修記)〉 등 공적 건물에 관련된 기가 4편, 〈순암기(順菴記)〉 등 사대부의 거처에 관련된 기가 16편, 그리고 기타가 8편이다. 이익의 글은 감성적 내용이건 이지적 내용이건 하나같이 밀도 높게 써졌는데 기도 예외가 아니다.

○ 제발(題跋) : 104편으로 권54~권56에 실려 있다. 제발에는 〈도산도발(陶山圖跋)〉, 〈발미수선생전례삼첩(跋眉叟先生篆隸三帖)〉 등 도첩(圖帖)을 대상으로 하여 쓴 것이 32편으로 가장 많고, 〈발서전(跋書傳)〉, 〈발근사속록(跋近思續錄)〉 등 경자(經子) 관련 서책을 대상으로 한 것이 20여 편이나 된다. 그리고 〈발직방외기(跋職方外記)〉, 〈발천주실의(跋天主實義)〉, 〈발천문략(跋天問略)〉은 서학서(西學書)를 대상으로 쓴 것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흔히 제발은 단문으로 쓰는 것이 관례이나 이익의 제발은 편폭(篇幅)이 큰 것이 많은데, 〈발종묘고(跋宗廟攷)〉, 〈발악률서(跋樂律書)〉, 〈사칠신편 후설(四七新篇後說)〉, 〈중용질서 후설(中庸疾書後說)〉, 〈발이외암당실명(跋李畏庵堂室銘)〉 같은 제발이 대표적이다. 이익의 저작인 〈백언해〉의 서문은 없으나 간략한 제발이 여기에 있다.

○ 축문(祝文)・제문(祭文)・애사(哀辭) : 권57에 실려 있다. 축문이 〈정조고가묘축문(正朝告家廟祝文)〉 등 5편, 제문이 〈제자형매호조공문(祭姊兄梅湖曹公文)〉 등 36편, 애사가 〈애이동자사(哀李童子辭)〉 1편이다. 이익이 서울 근처에서 살았음에도 제문의 주인공 가운데 벼슬한 사람이 극히 드물어 당시 남인 학자로서 이익의 생애의 한 단면을 말해 준다.

○ 비명(碑銘)・묘표(墓表)・묘갈명(墓碣銘)・묘지명(墓誌銘) : 묘도문자에 속하는 이들 문체는 양적 차이가 있을 뿐이지 체제는 거의 비슷하다. 〈미수 허 선생 신도비명 병서(眉叟許先生神道碑銘幷序)〉를 위시

한 6편의 신도비명이 권58에, 〈임피현령 증이조참의 이공 묘표(臨陂縣令贈吏曹參議李公墓表)〉를 위시한 7편의 묘표가 권59에, 〈추연우 선생 묘갈명 병서(秋淵禹先生墓碣銘幷序)〉를 위시한 60편의 묘갈명이 권59~권62에, 〈취오처사 윤공 묘지명 병서(翠梧處士尹公墓誌銘幷序)〉를 위시한 36편의 묘지명이 권63~권65에 실려 있다. 묘도문자는 흔히 '유묘문자(諛墓文字)'라 할 만큼 무덤의 주인공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과장된 표현이 심하다. 이익도 당색(黨色)을 아주 초월하지는 못했지만, 이익의 묘도문자를 통독해 보면 학자로서 자기 지성(知性)의 가치에 대한 자존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유묘의식'에서 벗어나 가급적 객관적으로 신실하게 쓰려는 자세를 견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묘도문자는 주로 17~18세기 전반에 걸쳐 기호(畿湖) 지방의 남인과 소북인 지식인의 행적과 의식을 파악하는 데 요긴한 자료이다.

○ 행장(行狀)·행록(行錄) : 〈공조 판서 죽창윤공 행장(工曹判書竹窓尹公行狀)〉을 위시한 18편의 행장이 권66~권67에, 〈우도옹 유공 행록(憂道翁柳公行錄)〉을 위시한 5편의 행록이 권67에 실려 있다. 행장은 근본적으로 묘도문자와 같은 성격인 전기류(傳記類)에 속하기 때문에 위의 묘도문자에 관한 논평이 여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행록 역시 전기류에 속하기는 마찬가지이나 행장과는 달리 주로 비격식적(非格式的)이다. 그런데 〈종조숙부 태호공 행록(從祖叔父太湖公行錄)〉 등 한두 편은 거의 행장에 가깝다. 이익보다 먼저 죽은 아들 맹휴(孟休)의 행록도 〈망자 정랑 행록(亡子正郎行錄)〉이라는 이름으로 실려 있다.

○ 유사(遺事)·전(傳)·소전(小傳) : 〈남파 홍 선생 유사(南坡洪先生遺事)〉 1편, 〈반계 유 선생 전(磻溪柳先生傳)〉을 위시한 전 9편, 〈고암 정 선생 소전(顧菴丁先生小傳)〉을 위시한 소전 12편, 그리고 눈먼 닭과 우애가 지극한 닭을 묘사한 〈할계전(瞎鷄傳)〉과 〈우계전(友鷄傳)〉이 권68에 실려 있다. 이들 문체도 근본적으로 전기류에 속하나 비격식적이고 비전관적(非全觀的)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 공통점 위에 유사는 한 인물이 행한 특정한 사건을 부각시키는 문체이고, 전은 한 인물에 대해 소묘적(素描的)으로 접근하는 문체이다. 전과 소전은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다. 12편의 소전은 모두 이황의 급문 제자(及門弟子)로 기존의 이황의 문인록에서 빠졌거나 행적 서술이 부실한 사람들에 대한 약전(略傳)이다.

4. 이익에 대한 시각 문제

실학이나 실학파에 대해 특수한 견해를 가진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 학계에서는 대체로 이익을 실학자로 인식하고 있다. 이익을 실학자로 인식하는 견해가 학설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그 공통된 근거로 하나같이 들고 있는 것은 종래 도학의 내면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당시 사회경제적인 현실에 대응하여 일정한 경세의 방략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실증적이고 비교적 합리적인 사유 방식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지구 구체설(球體說), 《만국전도(萬國全圖)》 등 서양 지식에 대한 견문으로 종래의 중국 중심의 세계관·화이관(華夷觀)·성인관(聖人觀)에서 일정하게 벗어나 문제를 사유했다는 것이다. 이익의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특히 '경세의 방략'에 대해서는 "유년(幼年)에 배우는 것은 장년(壯年)에 행하고자 함이다. 평소에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들 하는데,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세무(世務)에 대응할 수 있는 재구(材具)를 준비해야 하니 이것이 바로 실학(實學)이다.〔夫幼學欲壯行居則曰不吾知 求爲可知 必有材具準備 方是實學〕"(《성호전집》 권17 〈답조정숙(答趙正叔) 계유(癸酉)〉)라고 해서 자신의 학문이 실학임을 간접적으로 천명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이익의 저작에는, 앞에서 그의 문집 개관에서 이미 시사되었듯이 그것이 '실학'이라거나 '실학적'

이라고 하기에는 현재까지의 실학에 대한 인식 수준으로는 동떨어져 보이는 듯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그의 사단칠정에 관한 학설과 예에 관한 학설이 그것인데, 이런 부류의 학설이 《사칠신편》, 《성호선생 예설유편》의 별저와 함께 문집에서 특히 서한문 부분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사단칠정에 관한 문제와 예에 관한 문제는 말할 것도 없이 정통 도학 내의 문제이다. 이익은 이와 같이 정통 도학 내의 문제에 여전히 자신의 학문적 열정을 쏟아 부었다. 단순히 저작의 양적 비중으로만 보면 '이익은 도학자이다'라는 명제도 성립될 수 있을 정도이다. 더구나 이익 자신뿐 아니라 조카 병휴, 아들 맹휴도 예학으로 일가를 이루었다. 예학이야말로 이익 일가의 가학을 이루었다고 할 만하다.

바로 여기에 이익에 대한 새로운 시각, 곧 도학적인 측면과 실학적인 측면을 아우른 포괄적인 새로운 시각이 요구되는 까닭이 있다. 종래에는 주로 이익의 실학적인 측면이 도학적인 측면을 배제한 가운데 강조되고 부각되거나 또는 그의 도학적인 측면이 실학적 측면을 배제한 가운데 논의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물론 이 양자의 결합, 다분히 종적인 결합을 드러내는 시각으로 이익의 실학은 '도학의 발전으로서의 실학'이라는 명제가 진작 학계에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이 명제의 내용을 채우는 작업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더구나 '이익에게서 실학과 도학은 궁극적으로 횡적인 상호 포섭의 관계이다'라는 유의 명제에 이르러서는 말할 것도 없다. 다시 말하면 그의 사상에서 실학적인 요소와 도학적인 요소가 종적으로뿐만 아니라 횡적으로 얼크러진 유기적인 구조가 밝혀져야 드디어 이익 사상에 대한 본격적인 인식이 시작될 것이다. 이익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성과들을 일단 괄호 안에 묶어 두고 허심탄회하게 원점에서 새로 출발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난 뒤에 괄호를 제거하고 보면 기존 성과 중 더욱 힘을 얻을 것과 도태될 것이 변별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리라. 이 문집은 이익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이해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저작이다.

이익(李瀷)

정의

조선후기 『성호사설』, 『곽우록』, 『이자수어』 등을 저술한 유학자. 실학자.

요약문

이익은 조선후기 『성호사설』, 『곽우록』, 『이자수어』 등을 저술한 유학자이자 실학자이다. 1681년(숙종 7)에 태어나 1763년(영조 39)에 사망했다. 부친이 유배지에서 사망하고, 과거 응시가 거절되고, 형마저 옥사하자 성호에 은거하며 학문에 정진했다. 정치·경제·사회·문화·사상·신문물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체계를

이룬 그의 학문은 유학에 기본을 두었지만 개혁을 지향하고 경세실용에 중점을 둔 사상이었다. 후손으로 이맹휴·이중환·이가환, 문인 안정복·권철신 등이 성호학파를 형성하여 그의 학문을 이었고 정약용 등에게 영향을 끼쳤다.

개설

본관은 여주(驪州). 자는 자신(子新), 호는 성호(星湖). 팔대조 이계손(李繼孫)이 성종 때 병조판서·지중추부사를 지내는 등 명문 가문의 후손이다.

증조부 이상의(李尙毅)는 의정부좌찬성, 할아버지 이지안(李志安)은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아버지 이하진(李夏鎭)은 사헌부대사헌에서 사간원대사간으로 환임(還任)되었다가 1680 년(숙종 6) 경신대출척 때 진주목사로 좌천, 다시 평안도 운산에 유배되었다.

1681 년 10 월 18 일에 아버지 이하진과 후부인 권씨(權氏) 사이에 운산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1682 년 6 월에 전부인 이씨(李氏) 사이의 3 남 2 녀와 후부인 권씨 사이의 2 남 1 녀를 남긴 채 55 세를 일기로 유배지 운산에서 사망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아버지를 여읜 뒤에 선영이 있는 안산의 첨성리(瞻星里)로 돌아와, 어머니 권씨 슬하에서 자라나 조고다질 (早孤多疾)의 생애가 시작된 셈이다.

첨성리는 행정적으로 경기도 광주부에 속해 광주 첨성리로 일컬어졌으나, 이른바 비래지(飛來地)로서 광주에서 과천·금천을 거쳐 있는 안산군내에 있어 흔히 안산의 첨성리로 불려졌다.

10 세가 되어서도 글을 배울 수 없으리만큼 병약했으나, 더 자라서는 둘째 형 이잠(李潛)에게 글을 배웠다. 25 세 되던 1705 년 증광시에 응했으나, 녹명(錄名)이 격식에 맞지 않았던 탓으로 회시에 응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다음해 9 월에 둘째 형 이잠은 장희빈(張禧嬪)을 두둔하는 소를 올렸다는 이유로, 역적으로 몰려 17, 18 차의 형신(刑訊) 끝에 47 세를 일기로 옥사하였다.

이익은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에 응할 뜻을 버리고 평생을 첨성리에 칩거하였다. 바다에 가까운 그 고장에는 성호(星湖)라는 호수가 있어서 이익의 호도 여기에 연유되었고, 그 고장에 있던 이익의 전장(田莊)도 성호장(星湖莊)이라 일컬어졌다.

이익은 여기에서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토지와 노비, 사령(使令)과 기승(騎乘)을 이어, 재야의 선비로서 일평생 은둔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 뒤로는 셋째 형 이서(李潊)와 사촌형 이진(李溍)과 종유(從遊)하며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35 세 되던 1715 년에 어머니 권씨마저 여의어 복상(服喪)을 마치고서는 노비와 집기를 모두 종가(宗家)로 돌려보냈으나, 형제자질에 대한 은애(恩愛)가 지극해 실제로는 일가의 지주가 되었다. 47 세 되던 해에 조정에서 이익의 명성을 듣고 선공감가감역(繕工監假監役)을 제수했으나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세는 퇴락되었고, 이익 부자의 오랜 질역(疾疫)은 쇠운을 재촉하였다. 64, 65 세 때에 이미 뒷잔등의 좌달(痤疸)이 악화되었고, 70 세가 넘어서는 일찍이 괴과(魁科)로 급제해

예조정랑·만경현감을 지낸 외아들 이맹휴(李孟休)마저 오랜 병고 끝에 죽었으며, 70 세 후반기에 들어서는 반신불수가 되어 기거마저 불편할 지경이었다.

그 동안에 가산도 탕진되어 만년에는 한 명의 고노(雇奴) 외에는 송곳을 세울 만한 전지도 없으리만큼 영락하였다. 83 세 되던 1763 년(영조 39) 조정에서는 우로예전(優老例典)에 따라 이익에게 첨지중추부사로서 승자(陞資)의 은전을 베풀었으나, 그 해 12 월 17 일 오랜 병고 끝에 죽었다.

유해는 선영이 있는 첨성리(현재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에 안장되었다.

타고난 성품은 기신(氣神)이 정랑(精朗)하고 성모(性貌)는 준결(峻潔)하며, 눈에는 정기가 넘쳐흘러서 영채(英彩)가 사람을 쏘는 듯했다 한다. 또한 조그마한 긍지도 가진 듯싶지 않으면서도 중정간중(中正簡重)해 하나의 덕성을 갖추어, 집안에서는 법을 세워 예절을 엄히 하고 사치한 생활을 금했다 한다.

문인 안정복(安鼎福)은 이익의 인품에 대해 "강의독실(剛毅篤實) 이것은 선생의 뜻이요, 정대광명(正大光明) 이것은 선생의 덕이요, 선생의 학은 정심굉박(精深宏博)하고, 그 기상은 화풍경운(化風景雲)이요, 그 금회(襟懷)는 추월빙호(秋月氷壺)이다."라고 술회하였다.

이익의 학문은 일문에 이어져서 준재가 많이 배출되어, 아들 이맹휴는 『예론설경(禮論說經)』·『춘관지(春官志)』·『접왜고(接倭考)』 등을 남기고, 손자 이구환(李九煥)은 조업(祖業)을 계승하였다.

그 위에 종자(從子) 이병휴(李秉休)는 예학으로, 종손(從孫) 이중환(李重煥)은 인문지리로 이름을 남기고, 이가환(李家煥)은 정조의 은총을 받아 벼슬이 공조판서에 이르렀으나, 천주교를 신앙해 1801 년(순조 1)의 신유사옥 때에 옥사하였다.

문인으로 두드러진 자로는 윤동규(尹東奎)·신후담(愼後聃)·안정복·권철신(權哲身) 등이 있어, 당대의 학해(學海)를 이루어 그 흐름을 정약용(丁若鏞)에게까지 미쳤다.

증조부 이상의는 일찍이 이수광(李睟光)과 더불어 주청사(奏請使)로 중국에 다녀온 일이 있고, 이익의 딸이 이수광의 후손과 결혼한 것으로 보아 이익·이수광의 양가는 세교집안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익이 첨성리에 칩거하며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이하진이 1678 년에 진위 겸 진향사(陳慰兼進香使)로 연경(燕京)에 들어갔다가 귀국할 때에 청제(淸帝)의 궤사은(饋賜銀)으로 사 가지고 온 수천 권의 서적 때문이었다.

이익은 선현의 언행을 샅샅이 기억하고 일찍부터 시나 문을 잘 외었다. 『맹자』·『대학』·『소학』·『논어』·『중용』·『근사록』 등을 읽고, 다시 『심경(心經)』·『역경』·『서경』·『시경』을 거쳐 정주(程朱)와 이황(李滉)의 학문을 탐독해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이익의 학문은 이렇듯 철저한 유교적 기반 위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여러 경서(經書)에 대한 질서(疾書)를 지어내고, 주자(朱子)의 『근사록』 처럼 이황의 언행록인 『이자수어(李子粹語)』를 찬저(撰著)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허목(許穆)·윤휴(尹鑴) 등의 뒤를 이어 주자에게로만 치우치는 폐풍에서 벗어나 수사학적 (洙泗學的)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의 학의 부흥을 기하였다. 그것은 단순한 부흥이 아니라 부흥이 바로 혁신을 의미하였다.

이익은 이이(李珥)와 유형원(柳馨遠)의 학풍을 존숭해, 당시의 사회실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세무(世務)에 실효를 거둘 수 있는 재구(材具)의 준비가 있어야만 실학이라고 보았다.

그것은 사장(詞章)·예론(禮論)에 치우치거나 주자의 집전(集傳)·장구(章句)에만 구애되는 풍조, 그리고 종래의 주자학적으로 경화된 신분관·직업관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한편,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고 난 뒤의 사회변동과 당시의 세계관·역사의식의 확대 및 심화에 따른 자기 나라에 대한 재인식·자각에서 일어난 조선 후기 실학의 기본성격을 나타낸 것이다.

이익은 불씨(佛氏)의 이단(異端), 술가(術家)의 소기(小技)와 패관잡설(稗官雜說) 등 세가지 서(書)를 혐오하였다. 그러나 당시 중국을 통해 전래된 서학(西學)에는 학문적인 관심을 기울여, 천문(天文)·역산(曆算)·지리학과 천주교서 등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를 널리 열람하고 만국전도(萬國全圖)·시원경(視遠鏡)·서양화(西洋畵) 등 서양문물에 직접 접하면서 세계관·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킬 수 있었다.

그것은 이익으로 하여금 종래 중국 중심의 화이관(華夷觀)·성인관(聖人觀)에서 탈피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시야를 지닐 수 있게끔 하였다. 정통적인 유학자이면서도 노불(老佛)의 학이나 새로 전래된 천주교와 같은 이른바 이단에 대해서도 윤리면에서 남다른 관심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불교의 윤회설이나 천주교의 천당지옥설·야소부활설(耶蘇復活說)과 같은 것은 황탄한 설로 간주하였다. 종래의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도 사물의 존재원리로서의 이(理)는 인정하지만 존재 자체는 기(氣) 아닌 것이 없다고 생각해, 현실적으로는 존재 원리보다도 기로서의 인간존재를 보다 더 중시하였다.

문학론(文學論)도 경세실용적(經世實用的)인 면에서 교화와 풍간(諷諫)에 보다 더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 화론(畵論)과 같이 형(形)·신(神)의 일치로써 '사진(寫眞)', 즉 전신사영(傳神寫影)의 원칙을 중시하였다.

시에 있어서도 마치 두보(杜甫)나 이태백(李太白) 같이 색태(色態)를 돋보이게 하여 사실적이면서도 회화적인 묘사를 귀히 여기는 한편, 황새·소리개·지렁이·개미와 같은 동물의 생태를 빌린 우의적·풍자적인 시작과 현실적인 좌절·갈등에서 오는 은일적(隱逸的)인 시작을 많이 남겼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단잡설과 훈고(訓詁)·사부(詞賦)는 물론, 이기(理氣)의 논의도 당시 사회의 현실문제에 비추어서는 아무런 실익을 주지 못한다고 보고, 그러한 의미에서 예학이나 이기설 같은 것이 당시에는 긴요하고 절실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익의 학문·사상은 내외적으로 당시 조선이 처한 사회현실로 보아 경세실용이라는 면에 중점이 두어졌다.

역사인식도 종래의 주관적이고 의리·시비위주의 인식태도를 벗어나 객관적이며 비판적·실증적인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믿었다. 문헌에 대한 충분한 고증과 비판이 없이 주관적인 억측이나 요량으로 역사를 서술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시조난생설(始祖卵生說)이나 신인하강설(神人下降說)과 같은 설화를 그대로 사실시(史實視)하지 않았다. 또 역사서술에 있어서 권선·징악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도 안된다고 하였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같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통찰, 서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가(史家)가 무엇보다도 먼저 파악할 것은 '시세(時勢)', 즉 역사적 추세이며, 시비를 앞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익은 이른바 붕당은 쟁투(爭鬪)에서 일어나고 쟁투는 이해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라 하였다. 또한 이해가 절실하면 그 당이 뿌리깊고, 이해가 오래 계속되면 그 당이 견고하게 되는 것은 세(勢)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다.

즉, 이(利)가 하나이고 사람이 둘이면 두 당이 생기고 이가 하나인데 사람이 넷이면 네 당이 생기게 마련이나, 이(利)는 고정되어 변함이 없는데 사람만 더욱 늘어나면 십붕팔당(十朋八黨)으로 분열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양반사회와 관료제도의 모순을 지적하였다.

즉, 양반들은 실제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오로지 관작을 얻는 일만을 목표로 삼으니, 그것은 관작을 얻어 관리가 되면 부(富)가 따르기 때문이라 하였다. 따라서, 양반이라면 누구나 먼저 관리되기에만 열중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정된 정치기구 밑에서 관리등용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반면에 양반의 신분은 세습되므로 그들의 수는 늘어나서 관리후보자의 수도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례적인 과거시험에 합격되는 사람의 수만을 따져도 한정된 관리자리에 그들 모두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한 사람이 관직을 차지하는 평균연한을 30 년으로 본다면, 그 30 년 동안에 정기적인 과거합격자의 수만도 2, 330 명이나 되며, 그 밖의 여러 가지 명목의 특별시험의 합격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많아진다.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관직수는 500 을 넘지 못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관직수는 하나인데 이를 뚫고 들어가려는 사람이 8, 9 명에 이르므로 분붕분당(分朋分黨)이 될 수밖에 없는 형세라는 것이다.

따라서, 고질화된 붕당의 폐풍을 고치고 나라와 사회를 안정시키려면, 한편으로 인재등용의 방법을 고쳐서 문벌이나 당색 중심의 정치를 타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관료기구를 개편하는 동시에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사치한 소비생활을 하는 양반들의 생리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익은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관작이나 부귀를 몸에 지니고 나오는 것은 아니며, 천자로부터 일반서민에 이르기까지 애초에 빈천하기는 매양 일반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양반들도 무위도식하지 말고 농토로 돌아가 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사농합일(士農合一)을 주장하였다. 양반이라도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 한 상업에 종사해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실제로 생업에 종사하는 선비 중에서 효제(孝悌)의 정신을 갖춘 인재를 뽑아서 관리로 등용하자는 것이다. 또한 그들은 문장이나 시가에만 힘쓰지 말고 사회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학문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인재 등용도 종래의 과거제도 외에 훌륭한 인재를 천거해 채용하는 공거제(貢擧制)를 아울러 시행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과거의 정기시험도 5 년에 한번씩 시행하고, 해마다 시험과목을 한가지씩 나누어 실시해 응시자가 과목마다 착실한 준비를 갖출 수 있게 하고, 조선의 역사도 과목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신분제적인 사회구조를 고쳐서 점진적으로나마 노비의 신분을 해방시켜 사농의 합일과 같이 양천(良賤)의 합일도 아울러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이익의 사상은 근대적인 직업관·신분관에 접근했음을 나타내 준다.

이익은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실현을 위해 덕치(德治)로써 인정(仁政)을 베풀어야 한다는 본원적인 유교 정치를 지표로 삼으면서도, 현실적으로는 17 세기이래 조선의 사회변동에 따른 개혁을 지향하였다.

그리하여 이익 역시 인정에는 형정(刑政)을 병행해야 한다 하였다. 이익의 전통적인 죄형법정주의사상에도 일반예방주의적인 사상이 들어 있어, 기강이 해이해진 당시의 세태에서는 오히려 형정을 준엄하게 하여 법의 위엄이 이(利)보다 무거워야 한다고 보았다.

이익은 엄정한 법의 실시는 강자·다수자 또는 지교(智巧)와 횡포에 대해 약자·소수자·겁자(怯者)·우자(愚者)를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하였다.

이익은 정치기강을 바로잡는 동시에 통치기구의 개편도 구상하였다. 즉, 중앙에서는 먼저 허구화된 의정부의 기능을 복구시켜 최고통섭자(最高統攝者)로서의 의정기능을 활성화해야 하고, 간직(諫職)을 확대시켜 언로를 넓혀야 한다고 믿었다.

인사행정도 그것을 총관하는 총장사(總章司)를 새로 설치해 문벌존중의 폐습을 버리고, 조상의 신분·경력에 관계없이 개인능력본위로 해야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수급계획에 의한 인사조처와 시보제(試補制)의 채용, 문무병용(文武竝用), 관리고과에서의 비례평가제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지방제에 있어서는 충역(忠逆)에 따른 주현승강제(州縣陞降制)와 이에 따른 도명개변제(道名改變制)를 폐기하고, 군현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감사(監司)의 직권을 강화, 견제하도록 하였다.

병제도 병역의무 대상자의 철저한 파악, 군포남징(軍布濫徵)의 폐단시정, 납포대립(納布代立)·고역제(雇役制) 의 폐지, 병농일치·양천합일(良賤合一)의 향병제(鄕兵制)의 확립 등 이를테면, 근대적인 징병제에 한 걸음 접근된 구상을 하였다.

군비상(軍備上)으로도 성지수축(城池修築), 군량확보, 군기(軍器)의 제조 및 공급의 원활, 도로확장, 병거(兵車)의 개발, 군마(軍馬)의 사양(飼養) 등 군정(軍政) 전반에 걸친 쇄신을 강조하였다.

이익은 과거의 역사에 비추어 인적(隣敵)에 대한 경계·무비(武備)의 긴요성과 시의(時宜)에 적절한 외교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군비강화의 목적은 문자 그대로 국가방위에 있으며 외국침공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대교린의 외교책을 적절히 쓰는 것은 목적이 환맹(歡盟)에 있지 심복(心服)에 있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남왜북로(南倭北虜)에 대한 경계를 게을리하지 말며, 당시에 이미 청나라의 쇠망과 일본의 조선침구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기도 하였다.

이익은 재부(財富)의 원천을 토지에 두었으므로 전지(田地)에서 힘써 일하는 데에서 재부가 창출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정치에 있어서도 전제(田制)에 관한 올바른 시책을 가장 중요한 분야로 생각하였다. 토지는 원천적으로 공전(公田), 즉 국유이며, 토지 사점(私占)의 확대는 사회악의 원천으로 여겼다.

관료에게 작위와 전지·녹봉을 주는 것은 그들 자신의 관작을 귀히 여겨서 생계를 부지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로 관작에는 부가 겸해 따르므로 관작에 대한 욕구가 더욱 치열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권세가에 의한 대토지점유와 재부의 독점은 인간의 덕성마저 해치게 하여 사회악을 자아낸다는 것이다. 이익의 경제사상의 근저에는 무농(務農)·절검(節儉)·모리작간(謀利作奸)의 방지라는 세 가지 조건이 깔려 있었다.

전화(錢貨)는 기본적으로 재화의 유통 및 매개를 위해 필요하지만, 당시 실정에 비추어 화폐의 유통이 농촌경제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리(射利)와 사치의 풍조를 조장하고 악화(惡貨)의 유통, 고리대 행위의 폐단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전제를 개혁하는 한편, 승려·창우(倡優)·궁비(宮婢)·액속(掖屬) 등 유식자(遊食者)와 용관(冗官)을 없애 재정을 긴축시켜서 남징(濫徵)을 없애며, 관개·수리사업을 일으키고 경지개발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토지제도는 전지측량을 철저히 하여 호세가(豪勢家)에 의한 전지광점(田地廣占)을 막도록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전지점유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전법(限田法)의 실시를 주장하였다.

즉 나라에서 일가(一家)의 기본수요전적을 1결(結)로 작정해 이것을 한 가호(家戶)의 영업전(永業田)으로 삼고, 그 이상의 전지를 차지한 자에게는 자유매매를 허용하되, 그 이하의 점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엄금하며, 일체의 전지매매는 관청에 보고해 관에서 전안(田案)을 비치하고 문권을 발급해 법적 보증이 되게끔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한다면 현재의 점유전지에 대한 감탈(減奪)이나 가수(加授)를 하지 않더라도 전지점유는 균등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전지를 많이 차지한 자는 그들의 자손에 의해 분점(分占)되거나 혹은 불초한 자의 파락(破落)으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 전지가 줄어 평민과 균등하게 된다.

반면 빈농의 전지매각을 금하면 호세가의 토지겸병이 불가능하고, 빈민은 지력(智力)을 다해 절검(節儉)·증식(增殖)에 노력한다면 조금씩이라도 전지를 사서 제한량까지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일세법(什一稅法)의 원칙을 엄수해 족징(族徵)·인징(隣徵)·백골징포(白骨徵布)·수포방번(收布放番) 등 종래에 자행되어 온 봉건적인 과징(過徵)·남징의 폐단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또 사치의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는 억말(抑末), 즉 상행위의 억제책을 주장하였다.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사치품수입은 국내 산출의 은화(銀貨)뿐만 아니라 미포(米布)로 바꾸어 유입되는 일본의 은정(銀錠)까지도 중국으로 유출되며, 그것은 또 국경에서 상역배(商譯輩)에 의한 밀무역을 유발한다고도 하였다.

특히, 빈민구제라는 원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사간의 고리대행위로 변질된 조적(糶糴)은 전제·세제의 개편과 아울러 원래의 진휼책(賑恤策)으로 환원, 실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익의 학문사상은 먼저 언급한 바와 같이 단적으로 말한다면 탈주자학적인 수사학적 수기치인의 학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한 수사학에로의 복귀 내지 부흥이 아니라, 당시 조선의 사회현실에 입각한 사회개편을 주장한 개혁사상을 의미한다.

이익의 학문의 체(體)는 어디까지나 경학에 두어졌음에도 사회현실에 비추어 보다 더 긴요하고 절실한 것은 경세치용의 학으로 간주하였다.

이익은 당시에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서학의 수용으로 세계관·역사의식을 확대, 심화시켜갔고, 보다 더 실증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방식을 체득할 수가 있었다. 이익의 여러 '이단(異端)'에 대한 자세를 볼 때 윤리면에는 너그러웠지만, 신앙 자체는 거부적인 견해를 취하였다.

그 점에서는 새로 전래, 유포되던 천주교에 대해서도 다름이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이익은 정통적인 유학자에서 벗어남이 없었다.

이익은 이교배척, 폐전론(廢錢論)·억말책(抑末策)의 제의, 남녀관 등에서 정통유학자로서의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사민평등의 인간관·신분관·직업관에서 근대적인 사회에로 한 걸음 다가섰음을 엿볼 수 있다.

저서로는
『성호사설』·『곽우록(藿憂錄)』·『성호선생문집』·『이선생예설(李先生禮說)』·『사칠신편(四七新編)』·『상위전후록(喪威前後錄)』과 『사서삼경』·『근사록』·『심경』 등의 질서, 『이자수어』 등이 있다.

제66권 / 행장(行狀)

창원 부사 오한 손공 행장〔昌原府使聱漢孫公行狀〕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一時遊從如鄭愚伏經世，曺芝山好益，李石潭潤雨，李月澗坱，若其弟蒼石埈，成芙蓉，安義，申梧峯之悌，李浣亭彦英，呂鑑湖大老，趙黔磵靖，徐樂齋思遠，李畏齋厚慶，孫慕堂某。莫非嶺外碩德名勝。至寒岡鄭先生。道義契深。書牘頻繁。垂爲儒門考信。又如安五休玳，蔣耕菴文益。終始門館。卒成宿望。武人朴畀常悅言聽講。亦能判別大義。殉節於丁卯之役。其感發人如此。

당시 종유(從遊)한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 월간(月澗) 이전(李坱) 및 그 아우 창석(蒼石) 이준(李埈), 부용(芙蓉) 성안의(成安義),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 완정(浣亭) 이언영(李彦英), 감호(鑑湖) 여대로(呂大老), 검간(黔磵) 조정(趙靖), 낙재(樂齋) 서사원(徐思遠), 외재(畏齋) 이후경(李厚慶),모당(慕堂) 손모(孫某)는 너나없이 영남(嶺南)의 덕이 높고 명망 있는 사람들이다. 한강(寒岡) 정 선생(鄭先生)의 경우는 도의(道義)로써 깊이 교분을 맺고 편지를 자주 주고받아 유문(儒門)에 고신(考信)할 자료를 남겼다. 또 오휴(五休) 안신(安玳), 경암(耕菴) 장문익(蔣文益)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의 문하에서 수업하여 마침내 숙망(宿望)을 이루었다. 무인(武人) 박유(朴畀)는 일찍이 공의 강의를 듣고 감화되어 또한 대의(大義)를 판별하여 정묘호란(丁卯胡亂) 때에 순절하였으니, 공이 사람들을 감발(感發)시킨 것이 이와 같았다.

송암집(松巖集)

1. 머리말

1972 년,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은《이조명현집(李朝名賢集)》제 3 집을 펴낸 바 있다. 그 속에 이현보(李賢輔, 1467~1555)의《농암집(聾巖集)》, 송순(宋純, 1493~1582)의《면앙정집(俛仰亭集)》, 권호문(權好文, 1532~1587)의《송암집(松巖集)》, 박인로(朴仁老, 1561~1642)의《노계집(蘆溪集)》, 윤선도(尹善道, 1587~1671)의《고산집(孤山集)》이 갈무리되어 있었다. 이들 5 인은 조선 전기를 대표하는 국문시가를 남긴 작가이다. 필자 역시 이《이조명현집》을 손에 넣으면서부터 권호문의 글을 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40 여 년 동안 틈틈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당시《이조명현집》에 해제를 쓴 분은 임하(林下) 최진원(崔珍源) 선생이다. 선생의 목소리를 잠시 빌려 본다. "이렇듯 선생(권호문 필자 주)은 전형적 처사(處士)였다. 그리하여 선생을 평하여 퇴계는 '유자(儒者)의 기상(氣像)과 소쇄산림지풍(瀟灑山林之風)이 있다.'고 하였고, 서애 유성룡은 '강호고사(江湖高士)'라고 말하였다. 은구(隱求)의 낙(樂)을 읊은 것이〈독락팔곡(獨樂八曲)〉과〈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이다. 스승 퇴계의〈도산십이곡(陶山十二曲)〉의 시경(詩境)은 온유돈후(溫柔敦厚)인데, 그것은 '성정(性情)의 순정(醇正)'으로서 상자연(賞自然)과 연학(硏學)속에서 이루어지거니와,〈독락팔곡〉과〈한거십팔곡〉'은구의 낙'도 상자연과 연학 속에서 이루어지며, 그 지표(指標) 또한 온유돈후에 있다."

이러한 언급이 있은 이래,《송암집》에 수록된 권호문의 국문시가는 다양하게 연구되었다. 그 결과 수십 편의 논저가 학계에 보고된 바 있다. 그렇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그 동안 2 편의 국문시가를 두고 진행된 활발한 연구 성과에 비해, 수천백 편에 이르는 그의 한시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했다. 이런 불행한 상황은 앞서《이조명현집》에 수록된 5 인의 작가 및 송강 정철의 경우에도 공히 적용된다. 그 이유를 따져보면, 아무래도 '번역본'의 부재와 관련되는 듯하다. 번역되지 않은 고전은 더 이상 고전으로서 생명력을 지닐 수 없다. 고전의 번역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의 번역을 통해 권호문과 독자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송암집》의 고전적 가치가 바르게 평가되길 빈다.

이번의 국역은 1990 년 한국고전번역원(구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표점, 영인한《한국문집총간》제 41 집에 수록된《송암집》을 저본으로 삼아 진행하였다.《송암집》의 서지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680 년 간행된 목판본(木版本, 규장각소장) 2 책(世系, 原集 6 권, 附錄), 원집(《송암집(松巖集)》)의 판형을 보면, 크기는 19.3×16(㎝)이고, 판심(版心)은 상하이엽(上下二葉) 화문어미(花紋魚尾)에 '松巖世系(송암세계)', '松巖集(송암집)'으로 되어 있으며, 11 행 21 자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1809 년 간행된 목판본(규장각소장) 2 책(續集 6 권, 獨樂八曲), 속집의 판형은 대체로 원집과 같으나 18.8×16.3(㎝) 크기에 판심이 '松巖續集(송암속집)' 혹은 '松巖獨樂曲(송암독락곡)'으로 되어 있어 다소 차이가 난다. 그리고 1956 년 간행된 석인본(石印本, 연세대소장) 1 책(年譜, 別集), 별집의 판형은 11 행 21 자, 22×17.3(㎝) 크기로 판심은 상이엽(上二葉) 화문어미, '松巖先生年譜(송암선생연보)', '松巖先生別集(송암선생별집)' 등으로 되어 있다.

2. 권호문의 생애

본 논의에 앞서《송암집》의 저자 권호문이 걸어간 삶의 자취를 간략히 더듬어 본다. 권호문은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5 년 전까지, 약 56 년을 살다간 조선 전기 안동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권호문은 거의 평생토록 순수처사로 살았다. 몇 차례의 사화를 거쳐 사림이 주도하는 정국이 도래하였지만, 그는 한 차례도 정치적 문제에 개입하거나 연루된 적이 없다. 뿐만 아니라 비록 거듭된 주변의 권유와 추만(推挽)이 있었지만, 초심을 잃지 않고 벼슬길에 발을 들여 놓지 않았다. 따라서 그에게서 어떠한 행공(行公) 이력도

찾을 수 없다. 이 점에서 그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일관된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다. 혹시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굴곡지고 복잡한 대목을 기대하는 독자가 있다면, 매우 싱겁고 다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권호문은 본향이 안동으로 자는 장중(章仲)이요, 호는 송암(松巖)이다. 집 남쪽에 봉우리가 솟아 있고 층층 바위가 대(臺)를 이루었는데, 그 위에 듬성듬성 소나무 몇 그루가 깃대 모양으로 서 있어, 탈속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붙인 아호가 '송암'이다.

그의 6 대조는 일찍이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 예의 판서를 지내고 고려가 망하자 송야(松夜 솔밤)에 숨어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이 누차 벼슬로 불렀으나 끝내 절조를 지킨 권인(權靭 안동 입향조(入鄕祖))이고, 조부는 숙균(叔均 진사(進士))이다. 그는 부친 육(稑 안주 교수(安州敎授))과 모친 진성 이씨(眞城李氏) 황(滉 퇴계(退溪))의 질녀(姪女) 사이에서 중종 27 년(1532) 안동부 송야리(松夜里)에서 태어났다. 권호문은 1547 년 광주 안씨(廣州安氏) 경인(景仁)의 따님과 혼인했으나 1567 년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다시 1568 년 문화 유씨(文化柳氏) 종인(宗仁)의 따님과 재혼했다. 그러나 양 부인에게서 혈손을 두지 못해, 부득이 형 선문(善文)의 둘째 아들 행가(行可, 1553~1623, 참봉)를 양자로 들여 입후했다.

권호문은 어려서부터 여타 동학들과 다르게 독서강학(讀書講學)과 자연친화(自然親和)를 선호하였고 벼슬길에는 초연하였다. 15 세(1546, 명종 원년)에 비로소 퇴계 이황의 문하에 나아가 수업하면서 도산(陶山) 의 농운정사(隴雲精舍)를 중심으로 독서와 질정을 거듭했다. 사실 권호문은 퇴계에 대해 미생(彌甥 종외손자)의 위치에 있는 친척이었다. 그는 부친의 명에 따라 퇴계에게 제일 먼저 수업을 청하게 된 것이다. 이 무렵, 퇴계가 권호문을 '유자의 기상이 있다〔有儒者氣像〕'거나 '소쇄한 산림의 풍이 있다〔有瀟灑山林之風〕'고 칭송했다고 전한다. 아마 이러한 칭송은 퇴계가 15 세 전후의 권호문에게서 그러한 요소를 발견하고 미래에 진정으로 그러한 인물로 성장해 주기를 염원하는 기대어린 표현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즈음 퇴계는 자기가 지은 시 15 운을 초서와 해서로 써서 법첩으로 만들어 권호문에 주었는데, 현재까지도 종가에 보물로 전해온다고 한다.

그는 중간에 1549 년~1551 년 부친상, 1564 년~1566 년 모친상, 그리고 1567 년 부인(初娶인 광주 안씨) 상을 연거푸 당했다. 권호문은 상중인 때를 빼고는 퇴계 및 동문들과 절차탁마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초년에서 만년에 이르도록 권호문은 성산(城山) 백운암(白雲庵)을 주된 독서공간으로 이용했다. 이를 줄여 '성산암(城山庵)'이라 한다. 백운암은 뒤로는 청성산(靑城山)이 있고 앞에는 낙동강이 흐르는, 배산임수의 조건을 잘 갖춘 산수가 뛰어난 곳이어서, 그의 처사풍류(處士風流)에 적합하였다. 때에 따라 5 대조의 묘소가 있는 마감산(麻甘山) 분암(墳庵)이나 집 남쪽에 있는 '암재(巖齋)', 곧 송암(松巖) 한서재(寒棲齋) 그리고 청량사(淸凉寺), 학가산사(鶴駕山寺) 등을 찾기도 했다.

권호문도 당시 젊은이들이 추구했던 과거업(科擧業)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과장 출입은 대체로 20 세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동안 풍기의 소수서원(紹修書院)이나 안동향교 등을 출입하면서 과거 공부의 방향을 익혔다. 〈연보〉에 따르면, 23 세에 사마시(司馬試) 초시(初試)인 향해(鄕解)에 입격했으나, 여러 차례 회시(會試)에 실패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30 세(1561)에 회시에 입격하여 진사(進士)가 되었다. 아마도 모친의 뜻을 따라서 약관 시절부터 십여 년 동안 줄곧 과문 공부에 치력했던 것 같다. 그 뒤에 문과에 뜻을 두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권호문의 산수 유람과 같은 계산(溪山) 풍류도 과거업에 종사하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25 세(1556)에 청량산(淸凉山)을 유람했고, 28 세(1559)에는 학가산(鶴駕山)을 유람한 것이 그것이다. 두 산 모두 거주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아니었지만, 동학들과 함께 독서강학 하는 가운데 모처럼 마련된 휴식과 충전의 생산적인 시간이었다. 그때 권호문은 스승 퇴계에게 108 운(韻) 장편시를 지어 올리기도 했고, 편지로 '요산요수(樂山樂水 인지(仁智))'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권호문은 학가산의 승경지에

대해 새로 명명(命名)하기도 했는데, 이는 예전에 퇴계가 청량산 승경지에 대해 새로 이름 붙였던 일을 본받은 듯하다.

권호문이 청량산을 유람하고 108 운 장시를 지어 퇴계에게 올렸을 때, 퇴계는 이렇게 질정해 주었다. "그러나 시를 자세히 보니 그 병폐가 적지 않다. 말을 반드시 길게 하고자 한 까닭에 지리하고 산만하며 박잡하게 되었으며, 운을 반드시 가득 채우고자 하여 어려운 운자를 끌어대다가 쓸데없이 길게 되었다. 전고를 인용함에 어떤 것은 타당하고 어떤 것은 그렇지 못하며, 대구를 이룬 것도 어떤 것은 적합하고 어떤 것은 군더더기이다. 많은 것에 힘쓰다가 박잡하게 되는 것이, 어찌 말이 간략하고 정당(精當)한 것만 같겠으며, 멀리 가고자 하여 자주 넘어지는 것이, 어찌 궤도를 따라서 홀로 이르는 것만 같겠는가!" 매우 친절한 질정이다. 이러한 퇴계의 훈도를 받아 권호문은 훗날 도학자로서 뿐 아니라 문장가로서도 일가를 이루게 된다.

〈연보〉는 35 세(1566)에 권호문이 모친을 위한 삼년상을 마친 후, 더 이상 과거 공부를 단념하고, 도학공부에 전념하기로 마음을 정했다고 말한다. 대과(大科)를 단념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권호문의 도학공부는, 37 세(1568)에 구봉령(具鳳齡)과 '인심도심도설(人心道心圖說)'을 논한다든가 38 세에 김부필(金富弼)・김언기(金彦璣)와 함께 가야서당(嘉野書堂)에서 《근사록(近思錄)》을 논한다든지, 39 세(1570)에 《심경(心經)》을 읽고 의문 나는 대목을 퇴계에게 묻는다든가, 44 세(1575)에는 퇴계가 엮은 《이학통록(理學通錄)》을 교정하고 발문을 짓는 등 새로운 단계로 진전되어 나아갔다. 그리하여 36 세~37 세 무렵부터 연어헌(鳶魚軒)에서 하연(河淵)・권기(權紀)・박경중(朴敬中)・진종주(秦宗周)・금관조(琴官操) 등을 위해 강학하고, 그로부터 십여 년 뒤인 48 세(1579)에는 강학의 폭을 확대하여 병산서당(屛山書堂) 제생을 위한 강회가 이루어졌으며, 50 세(1581)에는 경광서당(鏡光書堂), 52 세에는 여강서원(廬江書院)에서 제생을 위한 강회가 베풀어졌고, 54 세(1585)에는 청성정사(靑城精舍)에서 《심경(心經)》 강회가 열리는 등, 퇴계 이후 안동지역 향촌 교육자로서 자기 몫을 단단히 감당해 내었다.

조선의 관료충원방식에 의하면, 문과에 급제하지 않았어도 사마시에 입격하면 일단 예비 관료집단에 편입되어, 학행(學行)이 출중하면 지방장관의 천거, 이른바 '유일천(遺逸薦)'을 통해 벼슬길에 나갈 수 있었다. 권호문도 늦은 나이인 47 세(1578)에 집경전(集慶殿) 참봉(參奉)에 제수되었고, 50 세(1581)에는 내시교관(內侍敎官)에 제수되었지만 모두 나가지 않았다. 한번은 벼슬길로 나오라는 정탁(鄭琢)의 편지에 대해 〈독락팔곡(獨樂八曲)〉을 적어 보내 사양하였고, 만년인 53 세에 이조 참판으로 있던 구봉령이 6 품직으로 올려서 서용하려 했지만 〈한거록(閑居錄)〉을 보여 불사(不仕)의 의지를 나타낸 적도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순수처사로서 순결성을 지켜내려는 권호문의 견결한 의지를 읽어낼 수 있다. 일단 조정으로부터 일명(一命)이라도 받아 부임하면, 처사의 순결성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되는 바, 고상한 '순수처사'의 이름을 얻는 일은 이처럼 엄청난 자기절제가 요구되었던 것이다.

권호문은 40 세(1571), 퇴계를 건지산(搴芝山)에 안장한 뒤, 월천 조목 등과 스승의 유업을 계승하고 학덕을 현창하는 사업에 매진했다. 1571 년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퇴계의 유문을 수집하여 《퇴계집》을 엮고 교정하고 간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예안의 도산서원(陶山書院)과 안동의 여강서원(廬江書院) 건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사이에 권호문은 자신의 강학과 풍류의 공간인 경광서당(鏡光書堂), 관물당(觀物堂), 청성정사(靑城精舍), 연어헌(鳶魚軒) 등을 완성해 나갔다.

권호문은 55 세(1586)부터 조목 등과 여전히 미완의 《퇴계집》 간행에 대한 논의를 계속했고, 길재의 《야은집(冶隱集)》을 교정했다. 그리고 1587 년(선조 20) 7 월 24 일 관물당(觀物堂)에서 향년 56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유명(遺命)으로 '부친 묘소 아래에 묻을 것'과 '묘갈(墓碣) 앞면에 다만 〈청성산인송암권모지묘(靑城山人松巖權某之墓)〉라고 쓸 것'을 당부하고 눈을 감았다.

권호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의 일이다. 큰 가뭄이 여러 달 계속되어 열읍의 수령들이 하늘에 기도를 했으나 비가 오지 않았다. 권호문은 상산(象山) 골짜기로 나아가 마음을 모아 경건하게 기우제를 올렸다. 그런데 제사상을 치우기도 전에 비가 크게 내렸다. 그의 정성에 감동한 것이었다. 그의 갑작스런 죽음을 초래한 병명이 무엇인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혹시 기우제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본다.

병이 위독해지자 문생들이 찾아들었다. 권호문은 시인답게 '부(夫)' 자를 운으로 삼아 시를 지어 그들과 영결했다. "나에게 이런 병이 생겼다니 천명이로구나! 손과 발을 펴보니 불효는 저지르지 않았구나! 천지에 잘 왔다 잘 가니 장부로구나!〔我有斯疾命矣夫, 啓手以視知免夫, 來往天地是丈夫〕" 마치 장부의 죽음이 어떠해야 하는지, 오늘의 우리에게 묻는 것 같다.

3.《송암집》의 간행과 구성

《송암집》은 모두 5 책(원집 6 권과 부록, 속집 6 권, 연보와 별집 2 권)이다.

《송암집》의 간행경위에 대해서는 한국고전번역원 김기빈(金圻彬) 선생의 선행 해제에서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다. 여기서는 이를 참고하여 요약하는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듯하다. 아마도 임진왜란 등을 거치면서 권호문이 지은 시문이 상당수 산일되었던 것 같다. 원집(1680) 간행에 이어, 속집(1809)과 별집(1957)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나온 것을 보면 충분히 저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처음으로《송암집》을 엮은이는 양자로 들어와 권호문의 뒤를 이은 권행가(權行可)이다. 그는 일찍이 임란 이후 산일되어 집안에 남아 있던 난고(亂稿)를 수습하여 제현(諸賢)의 교정을 받아 정고본(定稿本)을 엮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간행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1679 년에 청성서원(靑城書院) 원장 유원진(柳元振)이 권이시(權以時), 김억기(金億基) 등과 간행을 다시 계획하고, 이보(李簠, 1629~1710)가 일을 주관하여 당시 안동 부사로 있던 강수학(康遂學)과 사림들의 재정적 후원에 힘입어, 마침내 1680 년 청성서원에서 목판으로 간행했다. 규장각본 권말에 '경신년(1680) 겨울 청성서원에서 인간하여 보낸다(庚申冬自靑城院印送)'라는 간기(刊記)를 통해 간행처와 간행시기를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김기빈의 해제에 의하면, 현재 "각처에 소장되어 있는 초간본을 비교해 보면 서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으며 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 "즉 규장각장본은 이현일(李玄逸, 1627~1704)이 1700 년에 증손 권이시(權以時)가 문집 약간 권을 보내오면서 서를 부탁하여 쓴다면서 문집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며, 권수의 세계도(世系圖)도 속집을 편차한 권택부(權宅孚)의 아들 권경필(權慶必)까지 실려 있고, 권 5 20 판의 경우 〈이학통록발(理學通錄跋)〉이 첨가되어 있다. 이것으로 보아 서문을 뒤늦게 받아 빠졌던 작품과 함께 추각(追刻) 후쇄(後刷)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그 시기는 아래에서 언급할 속집 간행 때였을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다소의 출입은 후인들이 문집을 보다 완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욕의 산물로 보이지만, 원형을 흔들어 결과적으로 간행연도의 확정에 혼란을 주었다는 부정적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원집 발간 후 130 여 년이 지난 1809 년에 후손 권택부(權宅孚)가 김홍규(金弘奎)와 함께 원집에서 미처 수록되지 못한 권호문의 시문을 모아 속집(6 권 2 책)을 엮어서 김굉(金坵, 1739~1816)에게 서문을 받아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속집이 나온 지 80 여년이 경과한 1889 년에는 후손 권필규(權必奎)가 다시 원집과 속집에서 빠진 작품들을 수집하고, 〈송암연보(松巖年譜)〉를 엮어서 권정하(權靖夏, 1806~1892)와 이만각(李晩慤, 1815~1874)에게 교정을 맡겼다. 아울러 오래되어 판목이 닳거나 떨어져 나간 원집과 속집도 보완하여 함께 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사정이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는데, 1956 년에 와서 후손 권영갑(權寧甲)・권영준(權寧浚)이 집안에 소장하고 있던 작품 초고를 모으고 앞서 권필규가 엮은 〈연보〉를 합하여 별집을 만들어,

권상규(權相圭, 1874~1961)의 서문을 받아 1957 년에 석인(石印)으로 간행하였다. 이때 서문을 쓴 권상규가 별집의 교열을 아울러 보았는데, 원집 및 속집과 비교하여 중복된 것은 산삭하고 미수록된 것은 삽입했다고 한다.

다음은 《송암집》의 구성과 편차에 대해 알아본다.

원집의 권 머리에 〈송암선생세계(松巖先生世系)〉가 있고, 권말에는 후손인 권태시(權泰時)의 부탁을 받고 쓴 유성룡의 후손 유세명(柳世鳴)의 발문이 있다.

권 1~권 3 은 한시 작품이 창작 연대순으로 수록되어 있다. 권 1 은 1540 년에서 1559 년 사이에 창작된 159 제 186 수(訪桃源 외), 권 2 는 1560 년에서 1570 년 사이에 창작된 169 제 179 수(孤鴈次辛上舍 외), 권 3 에는 1570 년에서 1587 년까지 지은 176 제 201 수(次覺月軸 외)가 각각 실려 있다.

권 4 는 앞부분에 1554 에서 1556 년 사이에 창작된 장편 한시, 7 제 7 수(寄南正平權子胖兩君讀書村中茅屋 외)가 실려 있고, 이어서 부(賦) 1 편(守歲), 사(詞) 1 편(效無住詞戱上具舍人), 장(狀) 4 편(司馬諸公鄕約議會賀, 謝朴忠義惠栗, 上柳正言成龍, 賀城主金汝岉), 제문(祭文) 7 편(退陶先生, 柳監司景深, 南義仲, 具栢潭, 權忠定公, 祈雨, 葛蘿山祈雨) 등이 실려 있다.

권 5 에는 녹(錄) 2 편(閑居, 遊淸凉山), 기(記) 3 편(觀物堂, 鳶魚軒, 鏡光書堂), 서(書) 4 편(答西厓, 上栢潭, 寄行可, 寄行可黌齋文會), 발(跋) 1 편(理學通錄), 설(說) 2 편(琴宮操大調字, 瘦馬), 명(銘) 4 편(屋漏, 虛室, 書堂南窓, 松巖) 등이 실려 있다. 권 6 은 잡의집록(雜儀輯錄 : 家箴, 家箴跋, 酒禮, 酒禮跋, 續錄 舊作詩四章)이다.

부록(附錄)에는 저자에 대한 추모문자로 채워져 있는데, 행장(行狀) 1 편(洪汝河), 묘지(墓誌) 1 편(金誠一), 비명(碑銘) 1 편(金應祖), 제문(祭文) 7 편(柳成龍, 金誠一, 辛乃沃, 門人四十餘人, 裴龍吉, 金隆, 權宇), 만사(挽詞) 11 수(柳成龍, 琴應夾, 高應陟, 李珙, 金誠一, 李叔樑, 柳雲龍 3, 金復一, 鄭士誠), 봉안제문(奉安祭文) 1 편(朴善長), 상향제문(常享祭文) 1 편(權暐), 만사습유(挽詞拾遺) 1 수(金農) 등이 실려 있다.

속집의 권 머리에는 김굉(金坵)의 서가 있고, 권 1~권 5 에는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권 1 에는 126 제 174 수(踏靑日偶占謹呈竹舍叔 외), 권 2 에는 144 제 181 수(初六日寓城山寺贈河應靜姪 외), 권 3 에는 134 제 180 수(偶感 외), 권 4 에는 126 제 173 수(金星州來訪吟次呈 외), 권 5 에는 122 제 170 수(謝城主徐君受 외)가 각각 실려 있다. 원집과 마찬가지로 시의 체식을 구분하지 않고 창작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속집은 그 속성상 최초 원집에 들어갈 작품을 가려 뽑을 때 빠졌던 작품들을 위주로 엮는 것이 관례이기에, 원집 수록 작품과 제목이 겹칠 때는 간혹 '一首見元集(1 수는 원집에 보인다)', '二首見元集(2 수는 원집에 보인다)' 등과 같은 주를 달아 놓았다.

권 6 에는 부(賦) 4 편(節義天下之大閑, 啓鑰玉匙, 不唾靑城池, 傷虎), 제문(祭文) 12 편(柳希范, 伯兄明甫, 後凋堂金兄富弼, 竹舍鄭敎授叔文以淸, 挹淸兄, 六代祖中郎將府君, 監察糾正權公希正, 金兵使富仁, 金察訪守一, 大成殿還安, 照骨山祈雨, 靑城精舍上樑), 기(記) 3 편(終慕庵, 松巖寒栖齋, 城山), 서(書) 1 편(上權城主文海), 설(說) 2 편(猶子行可字, 畜猫), 묘갈(墓碣) 6 편(六代祖中郎將府君, 宣敎郎江界敎授鄭公, 柳正厚妻李氏, 先妣宜人李氏, 處士柳宗仁, 安驍君雙), 묘지(墓誌) 2 편(伯兄永嘉權公, 參奉河公) 등이 실려 있다. 권 6 이 끝나고 이어서 판심이 '松巖獨樂曲(송암독락곡)'으로 된 부분이 나오는데, 한문 작품과 별도로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인 〈獨樂八曲(幷序)〉와 연시조인 〈閑居十八曲〉을 수록해 놓았다. 〈獨樂八曲〉은 제목으로 보면 8 곡으로 되어 있어야 하나 7 곡만 수록되어 있다. 말미에는 권호문의 유묵(遺墨)으로 원집 말미에 수록되었던 〈가잠발(家箴跋)〉이 보인다.

별집은 연보와 시문 2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머리에는 1955 년에 쓴 권상규(權相圭)의 별집서(別集序)가 보이고, 〈송암연보(松巖年譜)〉 및 1889 년에 쓴 권정하(權靖夏)와 김도화(金道和)의 〈후지(後識)〉가 있

다. 〈연보〉를 통해 권호문의 생애이력과 향촌활동, 여러 저작의 창작 및 저서의 간행 연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별집 권 1 에는 부(賦) 3 편(顔子春生, 灌園, 知止不殆)과 시(詩) 125 제 195 수(靑城雜題 외)가 실려 있고, 권 2 에는 시 44 제 65 수(巖角築小臺名以彈月 외), 서(書) 2 편(上觀察使, 答柳景遇), 상량문(上樑文) 1 편(廬江書院明倫堂), 제문(祭文) 4 편(退溪先生, 金舜擧, 柳公達, 金景引), 장(狀) 5 편(辛啓而, 具栢潭, 柳判書, 李都事, 鄭察訪), 서(序) 1 편(請隣親重陽會), 기(記) 1 편(點風臺) 등이 실려 있다.

4.《송암집》의 내용과 특징

권호문은 16 세기 조선 산림이 배출한 시인이었다.《송암집》에는 총 1325 제 1704 수(원집; 504 제 566 수, 속집; 652 제 878 수, 별집; 169 제 260 수)의 한시가 수록되어 있다. 16 세기에 활동한 문인들이 남긴 문집에서 이 정도의 작품량을 보여주는 예를 찾기 어렵다. 권호문 사후 370 여 년 동안, 거듭된 추가 간행을 통해 온전한《송암집》만들기에 신명을 바쳐온 후인들의 노고가 빚어낸 결과였다.

권호문의 생애에서 한시 창작은 하나의 일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였기에, 한시로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일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던 것 같다. 요컨대, 한시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 글에서 필자가 권호문 한시의 성격을 논하기에는 아직 그의 작품에 대한 감상과 분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조만간 공부가 깊어지면 다른 자리에서 '권호문 한시의 세계와 미적 특질'에 대해 침착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필자의 주관적이고 대단히 피상적인 느낌을 개괄한 것이지만, 권호문 한시가 지닌 내용적 특징을 간략히 언급해 보기로 한다. 우선 권호문 한시는 '처사의 순결성'을 극도로 부각시키는 시어로 가득 차 있다. 예를 들면, 가난함〔貧〕, 비천함〔卑〕, 졸렬함〔拙〕, 어리석음〔愚〕, 미련함〔魯〕, 완고함〔鈍〕, 게으름〔懶〕, 한가함〔閑〕, 편벽됨〔偏〕 등등이 그러한 시어를 대표한다. 권호문은 도연명의 전원시풍과 사영운의 산수시풍을 적절히 체화하여 시가 창작으로 연결하였다. 즉 전원이라는 생활공간 주변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일들, 예컨대 계절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자연현상-계절감을 형상화하거나, 변화에 순응하여 움직이는 인간의 노동을 형상화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이를 바라보는 시인의 미묘한 심리적 진동까지 담담하게 표현한 작품이 많다. 그 중에서 전원의 흥취는 계절적으로는 봄의 서정이 압도적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산수 유람을 통해 흥기된 정서를 시편으로 갈무리한 작품도 적지 않고, 부모 형제의 생일잔치와 같은 연회를 통해 생성되는 인간지락(人間之樂)을 그려낸 작품도 간혹 보인다.

두보, 이규보, 이황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보이지만, 그 영향력은 그리 크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달밤〔月夜〕, 술〔酒〕, 신선〔仙〕 등이 권호문 시의 대표적인 의상(意象)을 형성한다. 이러한 의상들은 권호문 한시의 특징적인 의경으로 연결된다. 예를 들면, '달'의 이미지가 퇴계에게서 드러나는 '도학적 청정성이나 명성(明誠)'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낭만적 정조가 우세한 이태백 류의 감성을 보인다.

권호문은 순수처사였다. 그는 유람과 산행을 통해 심미경험을 축적해 나간 시인이었다. 그는 일반인이 잘 알지 못하는 경관을 발견하는 데 익숙할 뿐더러 이를 시로 형상화하는 데도 탁월한 수완을 보였다. 아름다운 경치가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흥미 있는 전설이나 역사 그리고 인물을 삽입하여 질박하면서도 구수한 시어로 형상화한다. 그리하여 비록 범상한 물경이라도 그의 붓끝을 거치면 신선한 미적 감염력을 얻게 된다. 그 예로 총 38 구 장단구로 이루어진 〈김생굴 폭포에 쓰다〔題金生窟瀑布〕〉를 들 수 있다. 내용은 지면의 제약으로 생략하겠지만, 청량산 김생굴로 떨어지는 폭포를 노래한 작품 가운데 수작으로 꼽을 만하다. 호쾌하고 예리한 필치가 시원한 산림처사의 기상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있거니와 여산의 폭포를 두고 읊은 성당시인 이태백이나 북송의 소동파에게서 감지되던 그 호방함이 이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돋보이는 것은 자유분방한 필치의 구사이다. 이는 시어의 적절한 선택, 용사의 능숙함, 운자

안배의 자신감이 밑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권호문은 폭포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연미가 인간에게 주는 청신하고 쇄락한 미적 효과를 극대화시켰으며, 폭포에 얽힌 명필 김생의 전설이 떨어지는 폭포의 울림, 산란하는 물보라, 거울같이 앙증스런 용추의 빛과 어우러져 태고의 신비를 더해 주고 있다.

권호문 한시의 창작 공간은 학가산을 비롯한 주변의 사찰, 영호루와 같은 누정, 도산의 천연대나, 청량산, 온계(溫溪), 청성산, 그리고 절친인 신내옥(辛乃沃)의 양정재(養正齋), 혹은 경관서당(鏡光書堂)과 같은 수신 및 강학이 추구되는 곳들이다.

대부분의 한시는 풍기의 소수서원을 출입한 인물이나 퇴계의 도산을 출입한 동문들, 그리고 가까운 친족들과 수창하는 과정에서 창작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 1558 년 진사시에 합격한 뒤 출사하지 않고 도학 공부에 전념한 신내옥(辛乃沃, 1525~1595)과 수창한 작품이 가장 많다. 수창을 나눈 인물을 일일이 거론하지 않는다.

한시 작품 이외의 산문은, 대체로 가족과 향촌, 독서와 강학, 은거와 출사를 키워드로 하여, 권호문의 사상이 논리적으로 표현된 글들이다. 물론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그를 그답게 하는 처사풍류가 작동하고 있다. 대표할 만한 문예 산문으로는 역시 원집에 수록된 〈한거록(閑居錄)〉과 〈유청량산록(遊淸凉山錄)〉, 그리고 〈관물당기(觀物堂記)〉와 〈연어헌기(鳶魚軒記)〉, 〈경광서당기(鏡光書堂記)〉 그리고 속집에 보이는 〈송암한서재기(松巖寒栖齋記)〉와 〈독락팔곡서(獨樂八曲序)〉〉 등을 들 수 있다. 원집이 아닌 속집이나 별집에 수록된 산문들도 권호문의 생애와 사상을 재구성하는 데 일정한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문예성에 국한시켜 논한다면 역시 원집에 수록된 작품에 필적하거나 능가할 만한 것은 찾기 어렵다.

1551 년(20 세) 12 월에 지은 〈송암한서재기(松巖寒栖齋記)〉는, 그해 가을 한서재가 이루어지고 나서 자신의 뜻을 펴보인 글이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더구나 경륜할 능력이 있는 사람과 천자를 보필할 수 있을 만큼 현명한 사람도 물러남이 옳으면 물러나서 세상에 쓰임을 즐기지 않는데, 하물며 가죽나무같이 쓸모없는 재주와 어리석은 재질로 어찌 감히 박옥과 같이 팔리기를 구하고, 난초와 같이 향내 나기를 바라겠는가? 이런 까닭에 궁벽한 곳에 처하여 배고픔을 즐기며 도서(圖書) 속에서 명현의 자취를 궁구하고, 고금의 역사에서 사물을 추론하는 것이니, 걱정하는 바가 나 때문이 아니며 즐기는 바가 세상 때문이 아니다. 이로써 나의 수심을 너그럽게 하고, 이로써 나의 뜻을 닦으며, 이로써 알아줌을 받지 않아도 고민하지 않고, 이로써 넉넉하게 노닐다가 애오라지 생을 마친다면 송암 한서재의 즐거움이 이에 족하게 될 것이다." 약관의 나이에 장래를 향한 포부가 향기롭게 갈무리되었다. 그 매운 향기는 아마도 고상한 순수처사의 길에서 만나는 초탈과 자긍의 세계가 아니었을까 한다.

그는 벼슬하는 것보다 궁벽한 산골에서 자연을 벗하고 도를 성취하는 것이 낫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마치 현존하는 처사적 삶에 대한 자기합리화처럼 들린다. 권호문은 경륜을 갖추고 천자를 보필할 수 있는 사람 즉, 농암이나 퇴계 같은 이도 처사의 세계를 추구하는 것을 보면, 자기와 같은 못난 처사는 당연히 도체(道體)를 추구하며 '안분지족(安分知足)'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도리어 그가 '근심하는 것'은 출사와 관련한 문제가 아니라 도체에 이르지 못한 수양과 학문의 미흡함에 있다고 했다. 또한 '즐기는 것'도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자연합일을 통한 객관적 가치의 체득과 관련되어 있었다.

1570 년(39 세) 관물당에서 써내려 간 〈유청량산록(遊淸凉山錄)〉은 11 월에서 12 월에 걸쳐 총 39 일간 이루어진 청량산 유람 체험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기체로 기록한 글인데, 말미에 제시된 '기왈(記曰)'로 시작되는 부분은 다른 유록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형식이다. 마치 사서에서 논찬(論贊)부분과 같은 역할, 즉 청량산의 위치와 승경처의 명칭을 소개하고 유람을 통해 느낀 감상을 덧붙이려 했던 것 같다. 이 글을 통해 우리는 권호문의 청량산 유람 코스를 비롯하여 산행의 과정에서 일어난 사적인 활동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요즈음의 산행 관행으로 보면, 하루나 이틀이면 충분한 유람이다. 그런데 권호문은 수

십 일 동안 산에 머물렀다. 말하자면 등산이 목적이 아니라 유람을 빙자한 지인 방문, 시가 수창, 독서 사색, 학설 문답 등등 다양한 체험이 수행되고 있음을 알게 한다. 인상적인 대목은 유람 도상에서 퇴계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도산으로 내려와 동문들과 퇴계의 임종을 지킨 뒤 귀가하는 정경이다. 이 유록은 앞으로 퇴계학단의 산수유람, 특히 청량산 유람과 그 의식을 궁구할 때 반드시 읽어야 할 자료이다.

1571 년(40 세) 지은 〈관물당기(觀物堂記)〉는 이치를 통하여 사물을 관찰하는 '이리관물(以理觀物)'의 중요성을 설파한 글이다. 그는 말하기를 "한 가지 사물을 관찰하면 한 가지 사물의 이치가 있고, 만 가지 사물을 관찰하면 만 가지 사물의 이치가 있으며, 하나의 근본으로부터 흩어져 만 가지로 달라지고, 만 가지 다름을 미루어 하나의 근본에 이르니, 그 유행(流行)하는 묘리가 어찌 그리도 지극한가! 그러므로 물을 관찰하는 자가 대상을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만 못하며, 마음으로 보는 것은 이치로 보는 것만 못하다. 만약 능히 이치로 본다면 명확하게 만물이 다 내게 갖추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자신의 주된 거주공간을 '관물'의 터전으로 삼았다는 것에서, 권호문의 일상화된 성찰적 자의식에 관심을 갖게 된다.

1572 년(41 세)에 지은 〈경광서당기(鏡光書堂記)〉에서는 '경광(鏡光)의 의미를 주자가 '고요한 물에는 물결이 일지 않고 밝은 거울에는 티끌이 없다〔止水不波 明鏡無塵〕'는 것에서 유래했다고 하여, 마음의 본체를 깨끗이 유지하는 공부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1569 년 당시 남형(南衡)・권덕윤(權德潤)・신내옥(辛乃沃) 등이 학생들을 가르칠 장소를 물색하여 1570 년 그곳에 서당을 지었다고 한다. 관물당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던 경광서당은 훗날 여러 차례 후진을 가르치는 중요한 강학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1574 년(43 세)에 지은 〈연어헌기(鳶魚軒記)〉는 청성산에 자리 잡은 연어헌을 완성하고 나서 '연어'의 의미를 부각시킨 글이다. 《시경》의 '솔개가 날아 하늘로 오르고,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어오른다〔鳶飛戾天, 魚躍于淵〕'는 구절에서 '연어' 두 자를 취했음을 밝히고, "아아! 하늘의 도리를 알아냄에 꼭 솔개가 날아오름을 기다릴 필요가 없고 땅의 이치를 알아냄에 꼭 고기가 뛰어오름을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도는 본래 형상이 없어 언어로 형용할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형체가 있어 쉽게 드러나는 것으로 형체가 없어 규명하기 어려운 이치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천지의 현묘한 기운(機運)으로 하여금 일용행사에서 밝게 드러나도록 하여 눈을 가진 자는 다 볼 수가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곧 주자가 말한 '천기유동(天機流動)의 활발발(活潑潑)한 경계'를 체득함으로써 '이치(理)'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은 〈독락팔곡서(獨樂八曲序)〉이다. 〈연보〉에 의하면, 1581 년(50 세), 동문인 정탁(鄭琢)이 출사를 권유하자 〈독락팔곡〉을 가지고 사양했다고 한다. 〈독락팔곡서〉는 단순히 경기체가 형식의 〈독락팔곡〉의 창작배경을 밝힌 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호문의 문학관과 문체의식이 처세관과 잘 어우러져 나타나 있어, 비평사적으로도 반드시 읽을 만한 자료이다. 권호문은 이렇게 말한다. "마음의 득실을 잊고 그 뜻을 즐기니, 원헌(原憲)이 가난을 달게 여기고 자장(子張)이 벼슬을 경멸하게 된다. 희황(羲皇)의 북창에 누워서 낮잠을 즐기나 부귀가 어찌 마음을 동요시키겠으며, 위무(威武)가 어찌 내 뜻을 빼앗을 수 있을까? 대저 일상의 기쁨・성냄・슬픔・쾌락의 표출과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기뻐하는 일들을 다 여기서 풀어 버릴 수 있다. 더러운 찌꺼기와 때가 씻기고, 사악함과 더러움이 없어지는 것은 기약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노래는 근심스런 생각에서 많이 나왔다〔歌多出於憂思〕.'고 했으니, 이것 역시 내 마음이 편치 않은 데서 나온 것이다〔此亦發於余心之不平〕. 또 주문공(朱文公 주희)이 말하기를, '그 품은 뜻을 읊조리고 노래하여 성정을 기른다〔詠歌其所志, 以養性情〕.'하였으니, 지극하도다! 그 말씀이여. 마음이 평온하지 못할 때, 이런 노래를 짓게 되니 노래로 뜻을 펼쳐내어, 그 성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아, 소나무 창에서의 몇 마디 노래일지라도 어찌 바람 부는 아침 달 뜨는 저녁에 정신을 동탕하게 하는 데 조그마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벼슬을 경멸한다고 말하면서 위무가 어찌 내 뜻을 굽힐 수 있겠느냐고 맹자의 '대장부론(大丈夫論)'을 연상시킬 정도로 호기를 부렸다. 그리고, '희로애락(喜怒哀樂)'이나 '우감비환(憂憾悲歡)'과 같은 정감〔七情〕의 발산을 시가에 끌어들였다. 이는 이법〔四端〕을 중시하는 퇴계의 '온유돈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권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의 표출'을 노래의 본성으로 보고, 그러한 정감의 발산과 표출을 통해 '성정을 기른다'는 주자의 말을 이끌어와 자신의 시가관을 정당화시켰다. 무언가 퇴계의 문학관과 부분적으로 충돌하는 파열음을 들리지 않는가?

권호문도 퇴계가 〈도산십이곡발〉에서 말한 시가의 심성 정화기능에 동의한다. 그러나 퇴계의 〈도산십이곡〉이 교학의 현장에서 도덕적인 징창감발(懲創感發)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권호문은 자아의 심리적 평형을 회복하기 위한 의도 아래 독자적 서정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독락(獨樂)'이라는 말 자체가 대중과의 공유를 거부하는 고독한 처사의 고민을 내면화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이다. 퇴계는 권호문에게 경고한다. "이백과 원결은 유자의 표준이 아니며, 장구(章句)나 풍월(風月)도 역시 학자가 힘쓸 것이 아니니, 이것은 진실로 잘못된 것이다.〔李白元結, 固非儒者之標準, 章句風月, 亦非爲學之急務, 此誠誤矣.〕" 이는 정감의 세계에 치우치는 문학을 추구하지 말고 절대가치인 의리, 즉 도학의 세계를 지향하라는 주문이다. 퇴계의 경고를 권호문이 선선히 수용했을까는 분명치 않다.

권호문은 이어서 자신이 부르는 〈팔곡〉이 절주가 없는 밋밋한 노래임을 고백하면서도 그 속에서 사상〔意〕과 지향〔指〕을 담아내었음을 밝혔다. 이는 '서정적 처사 풍류형' 시가가 지닌 자연친화와 내면지향성을 권호문 식으로 설명한 것이다. '좋은 날의 흥취'란 자연(自然)을 지적한 것이고, '읊을 만한 사물'이란 인사(人事)를 가리킨다. 즉 자연과 인사가 일정 지점에서 만나 이루어진 것이 시가라는 논리다. 다만 가감 없이 그대로 감흥이 표출된 것이 '가(歌)'이고 음조를 가한 것이 '곡(曲)'이며, 문자로 재배열해 옮겨 적은 것이 '악부(樂府)'일 뿐이다. '가'→'곡'→'악부'의 차례로 인공의 정도가 더해졌는 바, 이는 모두 사대부의 시가문학에 속하는 것이어서 민간의 자연스런 '요(謠)'와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여기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노래〔歌〕'와 '악부(樂府)'와 '민요(民謠)'에 대한 권호문의 인식이다. 이 세 가지 향유방식의 공통점은 입으로 노래한다는 것인데, 구태여 이렇게 세분해서 말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노래는 국문시가를 말하고 악부란 한문학에서 말하는 '악부시'이고 민요는 구비 전승되는 서민들의 노래를 지칭한다. 그가 이렇게 서문에서 언급한 것은 이 세 가지의 효능이 별 차이가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는 '은자의 노래〔考槃之歌〕와 나무꾼의 노래〔負薪之謠〕 중에서 어느 것이 낫고 어느 것이 못한지 모르겠다.〔考槃之歌, 負薪之謠, 不知孰優孰劣也.〕'라고 하여, 청자로 하여금 감발(感發), 흥탄(興嘆)하게 할 수 있다는 면에서 〈독락팔곡〉과 같은 처사의 노래와 나무꾼의 노래가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문학양상으로 볼 때 권호문은 분명 퇴계와는 다른 구석이 있다. 적어도 이념적인 관점에서는 철저히 퇴계를 체현하려 하고 있지만, 잠재된 내면의 정서는 그와 궤를 달리하고 있다. 조심스럽게 말한다면, 퇴계의 이상적인 미의식은 '온유돈후'였지만 권호문의 그것은 좀 달랐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퇴계는 '완세불공(玩世不恭)'을 부정하고 '온유돈후'를 지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완세불공이 목적하는 바를 더 효과적으로 성취할 수 있다는 변증법적 신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온유돈후의 문학세계는 작자가 사사로운 인욕을 지양하고 존심양성(存心養性)하여 성정의 바름에 도달하고자 하거나 그러한 방식을 통해 성취된 '성정지정(性情之正)'의 경계를 긍정할 때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었다. 권호문은 그렇지 못했다. 그에게 있어서 문학은 자신의 절실한 현실문제들에 대한 진솔한 자기고백으로 마음이 평탄하지 못할 때 요구되는 것이었다.

1584 년(53 세)에 지어진 〈한거록(閑居錄)〉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거니와, 일찍이 동문인 구봉령의 출사 권유를 물리치기 위해 그 대응 논리를 제시한 글이다. 여기서 '한거(閑居)'란 거듭 말하거니와 벼슬길에 초연한 처사가 자연을 관조하며 격물궁리(格物窮理)함으로써 자연의 무심(無心 순수성)을 체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의미한다. 즉 처사적 삶이 지니는 도학적 지향점을 분명히 하여 출사 권유의 대

응논리로 활용했다. 그래서 〈한거록〉에서 "나는 이른 나이부터 과거 공부를 게을리하고 뜻을 오로지 계산(溪山)에 붙여서, 산수를 찾아다님에 즐겁지 않은 바가 없었고, 노을에 깃들고 구름에 누움에 편안하지 않은 곳이 없었다.〔余自蚤歲, 學懶科程, 志癖溪山, 尋山訪水, 無所不樂, 棲霞臥雲, 無處不安〕"고 하여, 일찍부터 자연과의 합일을 통해 심리적 쾌락과 평안을 체험했음을 고백했다. 이 대목은 권호문의 처사풍류가 자연산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켜 준다.

속편에 수록된 〈성산기(城山記)〉는 성산이 성산으로 불리는 이유를 변론하고 주변의 산수와 비교하여 성산의 미학적 탁월함을 평론한 글이다. 안동이 산수향(山水鄕)이라고 하면서 낙동강 상류에 포치한 청량산과 여산(廬山)과 성산 3 자를 비교하여 성산이 양산이 지닌 기상을 아우르고 있다고 함으로써 성산의 우수성을 부각시켰다. 자기와 같은 '소인은자(騷人隱者)'가 고상하게 서식(棲息)하기에 알맞은 곳이라고 했다. 이조 판서를 역임한 권예(權輗, 1495~1549)가 일찍이 성산에서 폐사(廢寺)를 중신(重新)하여 선조의 묘역을 수호하는 재실로 삼아 한동안 유식(遊息)의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한다. 권호문은 권예 이후 잊힌 성산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하여, 자신의 유식(遊息)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글에서 권호문은 공자의 '요산요수론'을 빌려서 자신의 산수미학관을 전개하였고, 청성정사(靑城精舍) 주변의 승경처를 골라 일일이 명명하였다. 이 작품은 퇴계가 자신의 은거방식을 해명하고, 은거공간인 도산서당 주변의 승경처를 배치하고 명명한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도산기(陶山記)〉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다고 하겠다.

역시 속편에 들어 있는 〈종모암기(終慕庵記)〉는 선조의 묘역을 수호하는 '종모암'의 중수 전말을 기술하고 암자의 명칭을 설명한 글로 권호문의 추원보본(追遠報本) 정신이 잘 드러나 있다. 종모암은 마감산(麻甘山)에 있는 선조의 묘역을 수호하는 재실이었다. 일찍이 1547 년 권호문은 부친을 모시고 종모암에 머물러 독서한 적도 있다. 부친은 퇴락한 재실을 유감으로 여겨 학가산 산승 신은(信誾)을 불러 중수를 맡겼다. 도중에 부모가 모두 세상을 떠나자, 이 마감산에 묻고 종모암 옆에서 두 차례 시묘하며 삼년상을 마친 바 있다. '종모'란 "예로부터 부모를 그리는 마음은 반드시 죽을 때까지 이어져야 한다〔自古慕父母之情, 必至終身矣〕"라는 구절에서 취한 것이다.

그밖에 유의해야 산문 자료로는, 퇴계 사후 《이학통록》 간행 경위를 밝힌 〈이학통록발(理學通錄跋)〉이 있고, 가축을 소재로 인간사를 대비시켜 말한 〈수마설(瘦馬說)〉이나 〈축묘설(畜猫說)〉도 우의적(寓意的) 산문으로 읽어볼 만한 글이다.

원집 권 6 말미에 붙어 있은 〈잡의집록(雜儀輯錄)〉은 실생활과 연관된 여러 잡문을 모아 놓은 것인데, 가족과 향촌을 중심으로 전개된 권호문의 생활미학을 잘 드러낸 글이다. 가족에 관한 글과 그림으로는 〈가잠(家箴)〉과 〈내외유별지도(內外有別之圖)〉가 있고, 향촌에 관한 글과 그림으로는 〈동감(洞鑑)〉과 〈주례(酒禮)〉가 있다. 〈가잠(家箴)〉은 자손들이 꼭 지켜야 할 덕목을 제시한 글인데, 6 가지 조목(夫婦之道, 父子之道, 兄弟之道, 使奴婢, 奉祭祀, 睦族隣)으로 구체화되었다. 즉 부부・부자・형제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노비를 부리는 도리, 제사를 받드는 도리, 친척이나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도리 등을, 《사서》・《삼경》・《주자가례(朱子家禮)》 및 기타 역사서를 인용하여,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1584 년 지은 〈가잠발(家箴跋)〉을 통해, 여섯 가지 도리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이를 후손들이 외우고 마음에 새겨 잘 지켜나가기를 바라고 있다.

향촌의 윤리를 주례를 중심으로 설파한 〈동감(洞鑑)〉은 향음주례(鄕飮酒禮)를 16 세기 현실에 맞게 재정립한 글이다. 〈동감〉이란 동리에서 지켜야 할 법도인 '동린지감(洞隣之鑑)'을 줄인 말이다. 16 세기 당시에는 관혼상제와 같은 통과의례가 그런대로 예법에 맞게 시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술 마시는 법도인 '연음지의(燕飮之儀)'가 다소 문란한 모습을 보였다. 권호문은 술이 지니는 사회통합적 성격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기에, 주례의 옛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힘썼다. 그가 주례를 상세히 규정한 절목을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의례(儀禮)》와 《예기(禮記)》 등을 참작하고 전래의 격언(格言)을 인용해서 실정에 맞는 주율(酒律)을 만들었다. 〈별초향음주의(別抄鄕飮酒義)〉는 《예기(禮記)》 〈향음주의(鄕飮酒義)〉에서 본문

과 주소(註疏)를 발췌해 놓은 것이고, 〈주례발(酒禮跋)〉은 '주례'를 논의하게 된 동기와 내용을 요약한 글이다.

권호문은 〈주례발〉에서 말하기를 "예로부터 성인의 예는 그 당시 상황에 따라 마땅하게 정해진 것이어서 그 형식과 내용이 적중함을 얻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를 따랐기에 덜고 보탠 바를 알 수 있으며, 주나라는 은나라의 예를 따랐기에 덜고 보탠 바를 일 수 있으니, 그 아마도 주나라를 이을 자라면 백대 후라도 알 수 있다. '이는 그 덜고 보태어 때에 따라 알맞게 사용하지만 그 대체(大體)는 백대를 내려가더라도 변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隨時適用, 而其大體, 則百世不可變也.〕' 지금 내가 '주례'를 세운 것도 이러한 의도인 것이다."라고 했다. 이는 시대변화에 따라 제도나 예절도 바뀌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그의 진보적 사상의 일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어서 속록(續錄)으로, 1584 년 엮은 〈구작시사장(舊作詩四章)〉이 실려 있다. 주례와 관련해서 예전에 지어 놓았던 시 4 편을 제시한 것으로, '자작(自酌)'을 논한 칠언배율 1 수, '주계(酒誡)'를 논한 칠언율시 1 수, '고연례(古宴禮)'를 논한 칠언절구 2 수로 되어 있다. 순수처사로 일관한 권호문에게 과연 '술'이 어떠한 위상을 차지했을지, 앞으로 일정한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송암집》을 읽으면서 조금 이상하다 싶은 점이 하나 있다. 왜 《송암집》에 편지글이 적은가이다. 《송암집》에는 총 7 편의 편지가 실려 있다. 원집에 4 편의 편지가 보이는데, 유성룡에게 답하거나 구봉령에게 올린 글, 그리고 아들 권행가에게 부친 2 편의 편지가 그것이다. 그리고 속집에는 안동 부사(재임 1573~1574)로 있던 권문해(權文海, 1534~1591)에게 올린 글 1 편만 있고, 별집엔 경상도 관찰사에게 올린 편지와 유경우(柳景遇)에 답한 편지가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편지의 내용도 동문들에게는 안부를 묻거나 자신의 심사를 토로하거나 서책을 빌려달라는 정도로 매우 심상하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 역시 독서의 요령을 알려주거나 공부할 때의 태도 등을 교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다. 다만 권문해는 안동 향론을 중간에서 조정하여 관찰사의 조력을 구하는 입장에 서 있었는데, 실제로 1573 년 권호문을 유일로 천거했고, 1574 년 《이학통록》의 간행을 관찰사에게 청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권문해는 안동 부사로서 퇴계를 추모하고 현창하는 사업, 예컨대 묘비석을 세우는 일, 안동 여강서원과 예안 도산서원을 창설하는 일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로 보면, 권호문과 권문해는 어느 누구보다도 서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인데, 남아 있는 편지 1 통에는 그러한 정보가 들어 있지 않다. 편지내용을 보면 당시 향중의 주요 관심사는 빠져 있고 단지 도약정(都約正)이 실상과 다른 말로 아무 쓸모가 없는 자신을 지나치게 칭송하여 유일로 천거하도록 작용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하고, 옛날 송나라 매성유(梅聖兪)의 일을 이끌어 와서 천거를 거절했다. '끝내 송암에 사는 하나의 한사(寒士)'로 남겠노라는 의지를 확고하게 표명한 것이다. 별집에 있는 경상 감사에게 올린 편지는, '성산사(城山寺)'를 서당(書堂)으로 만들어 달라고 청하는 글이고, 유경우에게 답한 편지는 돌아가신 어버이로 인해 슬픔에 잠긴 유경우를 위로하는 글이다.

앞으로 교유가 있던 인물의 문집이나 흩어진 간찰집에 수록된 권호문의 편지를 찾아내어 《송암집》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1587 년 관물당에서 눈을 감은 지 25 년이 지난 1612 년(광해군 4), 권호문의 위패가 안동 청성서원(靑城書院)에 봉안되었다. 이 일을 주도한 이는 그의 문도 용만(龍巒) 권기(權紀, 1546~1624)이다. 권기는 안동읍지인 《영가지(永嘉誌)》 편찬자로도 유명하다. 권기는 1612 년 〈청성서원초향기사(靑城書院初享記事)〉라는 글을 썼다. 이 글을 통해, 권기는 권호문을 제향하는 청성서원의 건립배경과 과정, 그리고 건물의 규모와 명칭, 최초 제향 시의 상황 등을 상세히 밝혔다. 권기는 청성산에 석문정사와 연어헌이 가까운 거

리에 위치해 있음을 들어, 권호문과 김성일이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그는 두 분을 함께 향사하는 서원을 세우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김성일을 모신 임천서원이 건립되어 있으니 중설(重設)할 필요가 없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할 수 없이 권호문만 제향할 수밖에 없었다. 이 해제에서는 김성일과 권호문의 교유에 대해 언급하지 못했다. 앞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권기는 권호문이 머물렀던 청성산을 퇴계의 청량산에 비기기도 했다. 퇴계의 학통이 권호문에게 전수되었음을 암암리에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권호문과 퇴계 이황은 과거나 현재나 바늘과 실처럼 따라다닌다. 양인 사이의 학문적 수수관계는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이제는 둘 사이의 변별점도 아울러 파악해야 할 시점이 되었다. 예컨대, 권호문의 국문시가 향유 양상은 '처사풍류형'이 우세하다. 〈한거십팔곡〉은 퇴계의 〈도산십이곡〉에서 보여 준 연시조 형식을 계승한 것이지만 내용은 전혀 방향을 달리한다. 주로 '뜻을 말하기[言志]' 위해서 창작된 것이다. 퇴계의 〈도산십이곡〉은 그 동기가 이별의 〈육가〉가 지닌 결점을 보완하는 데 있었다면, 권호문의 〈한거십팔곡〉은 출사를 권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철석같은 자신의 처사의지를 나타내고자 하는 데 있다.

권호문은 안동 출신이고 선배인 농암 이현보와 퇴계 이황은 예안 사람이다. 근자의 연구에 따르면, 예안은 은거구지(隱居求志)하는 처사형 인물이 많았고 안동은 좌군택민(佐君澤民)하는 출사형 인물이 많았다고 한다. 비교해서 논하면 그렇다는 것이다. 그런데 벼슬길에서 끊임없이 귀거래를 동경했으나 노년에 와서야 뜻을 이룬 농암이나 만년에 이르러 은거를 실현한 퇴계는 권호문에게 있어 어쩌면 하나의 '오래된 미래'일 수도 있었겠지만, 도리어 '실패한 과거'로 인식된 듯하다. 때문에 그는 사마시 입격 후 철저하게 고독한 순수처사의 길을 갔다. 그리하여 마침내 농암이나 퇴계가 감당해내지 못한 순수처사의 풍류를 시범해 보였다.

권호문은 〈독락팔곡서〉에서 "소나무에 비치는 달이 뜰을 가득 채우고 봄꽃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 때, 때맞추어 반가운 친구가 찾아오면 술통을 비우고 나란히 송암 서재 헌함에 기대어 소리 높여 노래 부르니 손발이 저절로 움직여 은자의 즐거움을 충족시켜 준다.[有時松月滿庭, 春花撩人, 佳朋適至, 則酌罷芳樽, 共憑巖軒, 高歌若干章, 手之舞足之蹈, 幽人之樂足矣.]"고 했다. 이처럼 권호문의 처사 풍류는 자연친화로 실천되었거니와, 거기에는 가을 달처럼 투명한 서정이 있는가 하면 봄의 복사꽃처럼 질탕한 파격이 있다. 이러한 풍류로 인해, 그는 주변 인사들로부터 '청고(淸高)한 유자의 운치'가 있다거나 '시원한 산림의 풍모[瀟灑山林之風]'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권호문은 더 이상 퇴계일 수 없었다. 그가 비록 퇴계를 존숭했지만, 자신이 지닌 소양이나 기질이 그에게 견줄 수 없었고, 그렇다고 퇴계의 형상을 본떠 따라가기에는 그가 지닌 문인으로서의 내면적 열정이 너무나 뜨거웠다. 그는 퇴계처럼 '고인의 가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처럼 권호문의 처사풍류는 농암에게서 살짝 드러났던 호방성과 낭만성이 훨씬 큰 폭으로 운동하고 있으며, 퇴계가 경계했던 '긍호방탕(矜豪放蕩)'하거나 '완세불공(玩世不恭)'에 근사한 모습도 간간이 엿보인다.

권호문에 대해서는 국문시가 창작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권호문의 본색은 어디까지나 탁월한 한시 창작에서 찾아야 한다. 16 세기 안동의 처사문학 뿐 아니라 조선중기 한문학사에서 권호문의 위치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권호문은 필자가 검토한 16 세기 안동의 문인 중 한시 방면에서 가장 탁월한 성취를 보인 시인이라고 생각한다. 아마 문예 방면에서 스승인 퇴계 이황의 의발을 제대로 계승한 인물로 보아도 손색이 없다.

종래에는 권호문의 한시나 국문시가를 출사의 실패에서 오는 처사의 분만을 달래는 '자위의 문예'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출사와 은둔 사이의 갈등'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관점

에서 벗어나 '처사의 풍류'라는 시각, 즉 산수자연을 매개로 한 처사의 미적 활동에 주목해서 새롭게 권호문의 문학을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

끝으로 이번의《송암집》번역을 계기로 하여, 권호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퇴계학단의 교유 양상이 보다 정합성을 지닌 연구로 이어졌으면 한다. 그러한 시도를 통해 우리는 퇴계학단 안에서 차지하는 권호문의 위상을 보다 선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권호문(權好文)

정의

조선전기「독락팔곡」,「한거십팔곡」,『송암집』등을 저술한 유학자.

개설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장중(章仲), 호는 송암(松巖). 안주교수(安州敎授) 권규(權硅)의 아들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549 년(명종 4) 아버지를 여의고 1561 년 30 세에 진사시에 합격했으나, 1564 년에 어머니상을 당하자 벼슬을 단념하고 청성산(靑城山) 아래에 무민재(無悶齋)를 짓고 그곳에 은거하였다.

이황(李滉)을 스승으로 모셨으며, 같은 문하생인 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 등과 교분이 두터웠고 이들로부터 학행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만년에 덕망이 높아져 찾아오는 문인들이 많았다.

집경전참봉(集慶殿參奉)·내시교관(內侍敎官) 등에 제수되었으나 나가지 않았다. 56 세로 일생을 마쳤으며, 묘지는 안동부 서쪽 마감산(麻甘山)에 있다.

안동의 송암서원(松巖書院)에 제향되었다. 그는 평생을 자연에 묻혀 살았는데, 이황은 그를 소쇄산림지풍(瀟灑山林之風)이 있다고 하였고, 벗 유성룡도 강호고사(江湖高士)라 하였다. 저서로는『송암집』이 있으며, 작품으로는 경기체가의 변형형식인「독락팔곡(獨樂八曲)」과 연시조인「한거십팔곡(閑居十八曲)」이『송암집』에 전한다.

선성 현감 신순부 지제 가 시를 요구하기에 급히 지어 보답하다 을미년(1595, 선조28)〔宣城倅申順夫 之悌 索詩走草以報之 乙未〕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有美宣城倅。黃庭見謫來。玉成由切琢。天秀自胚胎。朗鑑明秋水。淸姿映雪梅。謝家稱寶樹。陳氏擅高臺。鴈塔題名早。鵬程騁步恢。人期當大用。時賀得英材。乞縣要榮養。莅民若保孩。陶溪風淡蕩。易洞月徘徊。勝地堪爲主。師門更作媒。尋眞探靜寂。訪道問崔嵬。餘事詩章籍。冥心理趣回。邑中多士子。嶺外仰賢才。琴靜簾垂地。園空砌滿苔。相逢春乙未。披蘊酒三杯。沃野同羈苦。凝川共旅灾。傷時愁不耐。憂國恨難裁。滿目荊茅慘。聞聲鴻鴈哀。皇華向海汎。使節供醻催。幔幕連雲擧。杯盤似嶽頹。茫茫天底意。漠漠命逾摧。獨立悲時晩。雙吟喜韻諧。斷金斯密勿。介石豈調詼。壯志期呑海。機心類死灰。虛名喧鬼鼓。謗口鬧蚊雷。逐臭君何誤。慕羶我自咍。前途宜射隼。末契柰咸脢。洛社靑雲陸。淸河白日崔。誰知和璞祕。爭笑魏瓠傀。暮境疇吾與。孤懷賴子開。能來一醉否。霜菊亦憐哉。

아름답구나 선성 현감이여 / 有美宣城倅
황정이 귀양 온 줄 알았네 / 黃庭見謫來
옥을 이룸은 자르고 쪼는 데서 말미암고 / 玉成由切琢
천품의 빼어남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이네 / 天秀自胚胎
환한 지감(知鑑)은 가을 물보다 밝고 / 朗鑑明秋水
맑은 자태는 눈 속의 매화에 비치네 / 淸姿映雪梅
사씨 집안의 보배로운 나무이고 / 謝家稱寶樹
진씨는 높은 대를 멋대로 하였네 / 陳氏擅高臺
안탑에 이름 올린 것 빠르고 / 鴈塔題名早
붕정의 빠른 행보 크기도 하네 / 鵬程騁步恢
사람은 마땅히 크게 쓰이기를 기대하고 / 人期當大用
시대는 뛰어난 인재 얻었음을 기뻐하네 / 時賀得英材
걸현하여 어버이 봉양하게 되었고 / 乞縣要榮養
백성 다스리기를 어린아이 보살피듯 하였네 / 莅民若保孩
도계에서 부는 바람은 따사롭고 / 陶溪風淡蕩
역동에 뜬 달은 서성거리네 / 易洞月徘徊
빼어난 곳의 주인 되기에 넉넉하고 / 勝地堪爲主
사문으로 더욱 길을 안내하네 / 師門更作媒
진경을 찾아 고요한 곳을 찾아다니고 / 尋眞探靜寂
도를 찾아 우뚝 솟은 봉우리 방문하네 / 訪道問崔嵬

시 읊고 글 짓는 것은 여사이니 / 餘事詩章籍
마음 가라앉혀 사리와 정취를 돌아보네 / 冥心理趣回
고을에는 선비가 많으니 / 邑中多士子
영남에서 어진 인재를 우러러보네 / 嶺外仰賢才
거문고 소리 조용하니 주렴은 땅에 드리우고 / 琴靜簾垂地
정원 텅 비니 섬돌에는 이끼만 가득하네 / 園空砌滿苔
을미년 봄에 서로 만나서 / 相逢春乙未
속마음 드러내고 석 잔의 술 마셨지 / 披蘊酒三杯
옥야에서 객지의 고통을 함께했고 / 沃野同羈苦
응천에서 나그네의 고생을 같이 했네 / 凝川共旅灾
시운에 상심하니 시름을 견디기 힘들고 / 傷時愁不耐
나라를 걱정하니 한을 가누기 어렵네 / 憂國恨難裁
참혹한 초가집은 눈에 가득한데 / 滿目荊茅慘
구슬픈 기러기 소리 들리네 / 聞聲鴻鴈哀
중국 사신 바다를 향해 급히 갔고 / 皇華向海迅
사절은 보답을 재촉하였네 / 使節供醻催
장막은 구름이 일어나는 듯 이어졌고 / 幔幕連雲擧
술상은 산이 무너지는 듯하였네 / 杯盤似嶽頹
아득하게 하늘은 무슨 뜻인가 / 茫茫天底意
막막하게 운수는 더욱 꺾이네 / 漠漠命逾摧
홀로 서서 때가 늦었음을 슬퍼했으나 / 獨立悲時晩
둘이 시를 지어 읊으니 기쁘네 / 雙吟喜韻諧
단금은 이에 친밀해지고 / 斷金斯密勿
개석은 어찌 조롱하는가 / 介石豈調詼
굳건한 뜻은 바다 삼키기를 기약하고 / 壯志期呑海
기심은 불 꺼진 재와 비슷하구나 / 機心類死灰
헛된 명성은 귀신의 북처럼 시끄럽고 / 虛名喧鬼鼓
헐뜯는 말은 모기떼처럼 소란스럽네 / 謗口鬧蚊雷
냄새 좇는 일 그대가 어찌 그르겠는가 / 逐臭君何誤
누린내 좋아하니 나 스스로 조소하네 / 慕羶我自咍
앞길은 송골매를 쏘아 잡기에 마땅하니 / 前途宜射隼
말계와 어찌 아무런 관련이 없겠는가 / 末契柰咸胺
낙사에서 청운의 꿈 피어올랐고 / 洛社靑雲陸
황하 맑아지는 것은 백일하에 무너졌네 / 淸河白日崔
박옥에 숨겨진 좋은 옥 누가 알았고 / 誰知和璞祕
위나라 박이 크다고 어찌 비웃으랴 / 爭笑魏瓠傀
늘그막에 누가 나와 함께하겠는가 / 暮境疇吾與
외로운 마음 그대를 의지해 여네 / 孤懷賴子開

능히 와서 한 번 취하지 않겠는가 / 能來一醉否
서리 맞은 국화 또한 어여쁘네 / 霜菊亦憐哉

[주-D001] 선성(宣城) : 현 경상북도 안동 지역의 옛 이름이다.

[주-D002] 신순부(申順夫) : 신지제(*申之悌*, 1562~1624)로, 본관은 아주(鵝洲), 자는 순부・순보(順甫), 호는 오봉(梧峰)・오재(梧齋)이다. 1589 년(선조 22) 증광 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여 예조 좌랑, 성균관 직강 등을 역임하였다. 예안 현감 재직 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대를 모집하여 왜적을 토벌하였다. 저술로 《오봉집》이 있다.

[주-D003] 황정(黃庭) : 신선(神仙)의 장생법(長生法)을 말한 《황정경(黃庭經)》으로, 여기서는 신선을 말한다.

[주-D004] 사씨(謝氏) …… 나무이고 : 훌륭한 자손이란 뜻이다. 진(晉)나라 때 사안(謝安)이 그의 조카 사현(謝玄)에게 어떤 자제가 되고 싶으냐고 묻자, 그가 대답하기를 "비유하자면, 지란(芝蘭)과 옥수(玉樹)가 뜰에 나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한 데서 유래된 말이다. 《晉書 卷 79 謝玄列傳》

[주-D005] 안탑(鴈塔)에 …… 빠르고 : 대과(大科)에 급제한 것을 말한다. 안탑은 당(唐)나라 때 현장(玄奘)이 세운 자은사(慈恩寺)의 대안탑(大鴈塔)을 가리키는데, 당나라 때 과거 급제자들이 여기에 이름을 써 넣었다고 한다. 《唐摭言 慈恩寺題名游賞賦詠雜記》

[주-D006] 붕정(鵬程) : 붕정구만리(鵬程九萬里)의 준말이다.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붕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삼천 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서야 쉰다.〔鵬之徙於南冥也 水擊三千里 摶扶搖而上者九萬里 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주-D007] 걸현(乞縣) : 문과 출신의 관원으로서 늙은 부모가 계실 때 그 봉양을 위하여 수령이 될 것을 주청하는 일이다.

[주-D008] 도계(陶溪) : 현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로, 이황이 살던 곳이다.

[주-D009] 역동(易洞) : 현 경상북도 안동시 예안면 부포리에 있는 마을이다. 고려 말의 학자인 우탁(禹倬)이 벼슬에서 물러나 이곳에서 《주역》을 강론하였다.

[주-D010] 석 잔의 술 : 이백(李白)의 시 〈월하독작(月下獨酌)〉에 "석 잔의 술에 대도를 통달하고, 한 말의 술에 자연과 합해진다.〔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라는 구절이 나온다. 《李太白集 卷 22》

[주-D011] 옥야(沃野) : 현 경상남도 창녕군 이방면 일대이다.

[주-D012] 응천(凝川) : 현 경상남도 밀양의 옛 이름이다.

[주-D013] 단금(斷金) : 쇠라도 끊을 정도로 굳은 교분을 말한다. 《주역》 〈계사전 상(繫辭傳上)〉에 "두 사람이 마음을 함께하면 그 날카로움이 쇠를 끊을 수 있다.〔二人同心 其利斷金〕"라고 하였다.

[주-D014] 개석(介石) : 바위처럼 확고부동한 마음을 말한다. 《주역》 〈예괘(豫卦) 육이(六二)〉에 "견고함이 돌과 같아서, 과거의 잘못을 하루가 지나지 않아 제거해 버리나니, 정하고 길하니라.〔介于石 不終日 貞吉〕"라고 하였다.

[주-D015] 냄새 좇는 일 : 괴벽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씨춘추(呂氏春秋)》 〈우합(遇合)〉에 "몸에서 고약한 냄새가 많이 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친척이며 형제, 아내, 친구들이 아무도 그와 함께 지내려 하는 자가 없으므로 스스로 고민한 나머지 바닷가로 나가 혼자 살았다. 그런데 바닷가 사람 중에 그 냄새를 좋아하는 자가 있어 밤낮으로 그를 따라다니며 떠나지를 못했다."라고 한 데서 나온 것이다.

[주-D016] 누린내 좋아하니 : 《장자》 〈서무귀(徐无鬼)〉에 "양고기는 개미를 좋아하지 않아도 개미들이 좋아서 달려드는 것처럼〔蟻慕羊肉〕 순 임금이 노린내 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舜有羶行〕 백성들이 좋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D017] 송골매를 쏘아 잡기에 : 《주역》 〈해괘(解卦) 상육(上六)〉에 "상육은 공이 높은 담장 위의 송골매를 쏘아 잡으니, 이롭지 않음이 없다.〔上六 公用射隼于高墉之上 獲之 无不利〕"라고 한 데서 온 말인데, 여기서는 곧 왜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D018] 말계(末契)와 …… 없겠는가 : 말계는 하교(下交)와 같은 말로 나이 많은 사람이 나이 적은 사람과 사귐을 뜻하는데, 서로 교제하는 사이에 상대방을 높일 때 쓰인다. 원문의 '함매(咸脢)'는 《주역》 〈함괘(咸卦) 구오(九五)〉 본의(本義)에 "매(脢)는 등살이니, 심장의 위에 있어 서로 등져서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사사로이 매임이 없는 것이다.〔脢 背肉 在心上而相背 不能感物而无私係〕"라고 하였다.

[주-D019] 황하 맑아지는 것 : 태평 시대를 가리키는 말이다. 황하가 천년에 한 번 맑아지는데, 바로 그때 성군(聖君)이 출현하여 세상을 태평하게 한다는 전설이 있다. 《易緯乾鑿度 卷下》

[주-D020] 박옥에 …… 옥 : 변화(卞和)의 박옥(璞玉)으로, 좋은 옥을 말한다. 초(楚)나라 사람인 변화가 옥덩이 하나를 얻어 여왕(厲王)과 무왕(武王)에게 바쳤으나 거짓말을 하였다고 하여 두 다리를 잘렸다. 그 뒤에 문왕(文王)이 즉위하자 변화가 또다시 옥덩이를 안고 형산(荊山) 아래에서 통곡하자, 문왕이 사람을 시켜서 그 옥덩이를 쪼개 보라고 하였는데, 과연 아름다운 옥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韓非子 和氏》

[주-D021] 위나라 박 : 쓸모 없는 물건을 비유한 것이다. 《장자》 〈소요유(逍遙遊)〉에 "혜자(惠子)가 장자에게 '위왕(魏王)이 나에게 큰 박씨를 주므로, 심어서 큰 박이 열렸다. 이를 쪼개 표주박을 만들었는데 넓기는 하나 얕아서 물건을 담을 수 없었다. 텅 비고 크지 않은 것은 아니나 쓸모가 없으므로 깨버렸다.'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있다.

옥야역에서 신순부의 시에 차운하다 3수〔沃野站次申順夫韻 三首〕

皇華萬里揀名官。聖帝神威要定難。漢月燕雲紆北極。妖氛腥雨暗南關。流星有赫芒猶動。路草無情色更班。天若祚之應見泰。吾儕何事苦潸潸。

悲凉宇宙獨盤桓。蹇拙瞿塘步步難。三戶荒墟衙似院。數文矮印客呼官。秋深南紀吟魂苦。霜凜西風病骨寒。物色如今渾不賴。重重萬恨向誰刪。

擬從莊叟學鯤桓。更覺前頭步步難。蘇起自知吾蔑策。職衙人謂爾爲官。槐安一夢豪華足。江左三秋氣象寒。落日楓林喉政喝。白衣誰遣任愁刪。

먼 길 온 중국 사신은 이름난 관리 뽑고 / 皇華萬里揀名官
황제의 신령한 위엄은 난을 평정하네 / 聖帝神威要定難
한나라 달과 연나라 구름은 북극성 맴돌고 / 漢月燕雲紆北極
요망한 구름과 비린 비는 남쪽 궁궐 가리네 / 妖氛腥雨暗南關
유성은 밝아서 꼬리 여전히 움직이고 / 流星有赫芒猶動
길가의 풀은 무정하나 빛깔은 더욱 아롱지네 / 路草無情色更班
하늘이 복을 내린다면 편안해지리니 / 天若祚之應見泰
우리들 무슨 일로 괴로이 눈물 흘리랴 / 吾儕何事苦潸潸

슬프고 처량하게 세상을 홀로 배회하고 / 悲凉宇宙獨盤桓
굼뜨고 둔하여 구당 길 걸음걸음 어렵네 / 蹇拙瞿塘步步難
세 집의 황량한 터 관아는 서원 같은데 / 三戶荒墟衙似院
문서 몇 장 짧은 도장으로 객이 관원 부르네 / 數文矮印客呼官
가을 깊은 남쪽 땅에서 시 읊으니 넋이 괴롭고 / 秋深南紀吟魂苦
서풍에 내리는 찬 서리 한기가 뼈에 사무치네 / 霜凜西風病骨寒
물색은 지금도 의지함이 모두 없으니 / 物色如今渾不賴
겹겹이 쌓인 만 가지 한 누구를 향해 깎을까 / 重重萬恨向誰刪

장자를 따라 고래 헤엄 배우려 하였으나 / 擬從莊叟學鯤桓
앞 길 가는 걸음마다 어려움을 더욱 깨닫겠네 / 更覺前頭步步難
살아남아 나의 욕된 계책을 스스로 아는데 / 蘇起自知吾蔑策
관아의 사람들이 그대 더러 벼슬하라 말하네 / 職衙人謂爾爲官
괴안의 한 꿈은 호화스러움에 만족하고 / 槐安一夢豪華足
강좌의 가을은 날씨가 매우 차갑네 / 江左三秋氣象寒
해 지는 단풍 숲에서 정히 외치니 / 落日楓林喉政喝
흰 옷 누가 보냈는가 멋대로 근심 더네 / 白衣誰遣任愁刪

寄贈李德輝令公
有美英英金玉姿貞篁冰雪夏瓌奇神交已洽如蘭臭契合仍同折桂枝扈駕西關裘(二字破)接華南紀佩委蛇天涯此夕開青眼應笑支離白髮垂
沃野站次申順夫韻三首
皇華萬里揀名官聖帝神威要定難漢月燕雲紆北極妖氛腥雨暗南關流星有赫芒猶動路草無情色更班天若祚之應見泰吾儕何事苦潛潛
悲涼宇宙獨盤桓蹇拙躍塘步步難三戶荒墟衙似院數文矮印客呼官秋深南紀吟魂苦霜凜西風病骨寒物色如今渾不賴重重萬恨向誰刪
擬從莊叟學鯤桓更覺前頭步步難蘇起自知吾蔑策職衙人謂爾爲官槐安一夢豪華足江左三秋氣象寒落日楓林喉政喝白衣誰遣任愁刪
和龜城倅李子新二首
促膝蝸廬側矮床清譚中夜共凄凉腰間劒彩干天動囊裏虹光駕海長歲目時艱雙虎戰傷心世路百羊腸喧驚紫府神應悚踽踽吾儕奈後凶
憑凌當日總桓桓逼側腐儒進退難曉月竹軒拚一醉暮雲龜邑碍三官同留沃野情還密共警弸

약포집(藥圃集)

1. 머리말 應凱

임란의 영웅 이순신을 사지(死地)에서 구원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여 정승의 반열에 오른 퇴계 이황의 제자가 있다. 정탁(鄭琢, 1526~1605)이란 인물이 바로 그다. 지금부터 '해제'라는 이름을 빌려 '정탁의 문집,《약포집(藥圃集)》을 어떻게 읽어 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려 한다.

지금까지 정탁을 둘러싼 이러저러한 논의들이 이어져 온 줄 안다. 해제 형식의 글도 여러 편 나와 있어 새삼스레 앵무새처럼 동어 반복할 필요가 있을는지 걱정이 앞선다. 이 글에서 부족한 부분은 말미에 부록한 〈참고문헌〉을 찾아서 보충하기 바란다.

정탁의 본색이 경세(經世)에 있다면 그의 문학적 입장이나 시문의 특질을 상세하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더구나 특정 작품을 인용하여 감상하는 일이 독자의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장차 번역본을 읽을 독자들의 자유로운 상상력을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가급적 그만두기로 한다.

먼저 정탁의 생애를《연보》에 근거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 그리고 이어서 문집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간행되었고 체제와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아본다. 구성은 목차를 중심으로 각 문체별 작품 수효를 헤아려 보고, 관련 인물이나 키워드를 괄호 안에 제시하여 그 성격을 일별할 수 있게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한 작품의 수효가 정확하다고 믿지만, 혹시 기존 해제와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어느 것이 정확한지 독자들이 판단하기 바란다.

끝으로 문집의 내용과 특징을 논해 본다. 크게 한시작품과 산문작품으로 나누어 살핀다. 작품과 관련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설명은 일부러 피한다. 문집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체로 선행 연구가 이루어져 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거니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손쉽게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제가 길어지면 딱딱한 논문이 될 수 있다. 줄타기 하듯 해제와 논문 사이를 오갈 것인데, 잘못된 부분에 대한 독자들의 질정을 기다린다.

정탁

생애

정탁은 본관이 청주(淸州), 자(字)가 자정(子精), 약포(藥圃)가 그의 호이다. 청주 정씨의 안동 입향(入鄕)은 14 세기 고려 말 정오(鄭頫)가 외가인 김방경(金方慶)의 별업으로 내려와 안동 동면 가구촌(佳邱村)에 거주하면서 시작되어, 그의 아들 정침(鄭寖) 대에 이르러 이주함으로써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안동읍지인《영가지(永嘉誌)》에 따르면, 정침의 후손들은 대부분 안동의 서부인 회곡촌, 저전촌, 동부인 지내동, 도기촌, 도답촌 등지에 세거했다고 한다.

정탁은 아버지 이충(以忠)과 어머니 평산 한씨 사이에 둘째 아들로, 외가인 금당실〔金堂谷〕 삼구동, 현재 예천군 북쪽에 있는 용문면 하금곡리, 버들밭에서 1526 년(중종 21) 10 월 8 일 태어났다.《연보》에 의하면, 정탁의 외조부는 진사 한종걸(韓終傑)인데 상주에 있다가 예천으로 이거하여 금당실 삼구동에 터를 잡고 살았다고 한다. 처부(妻父)는 거제 반씨(巨濟潘氏)로 관물당(觀物堂)이라 자호한 충(沖)이다. 정탁은 23 세에 거제 반씨를 부인으로 맞아 슬하에 3 남 1 녀를 두었다. 그 가운데 막내아들인 윤목(允穆, 1571~1629)은 청풍자(淸風子)로 불리며 문학과 서법에 뛰어나 유명인사가 되었다.

정탁은 중간에 잠시 안동 본가에 머물렀으나 이내 외가와 처가가 있는 예천으로 나와 지냈다. 예천의 유력한 가문인 외가와 처가에서 분급받은 전장과 노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바, 안동 출신이지만 정탁은 이를 기반으로 예천에서 재지(才智)를 갖춘 사족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문호를 흥기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출생지를 기준하면 정탁을 분명 예천 출신으로 불러야겠지만 선향(先鄕)을 따른다는 전통적 관념에 입각해 보면 안동 가구촌이 그의 향장(鄕莊)이 되므로 응당 안동 사람이라 해도 무방하다.

정탁은 9 세에 어머니, 21 세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 외롭게 성장했다. 당초에는 숙부 정이흥(鄭以興)에게 수업하다가 17 세 무렵 이황(李滉) 문하에 출입하면서 동문인 조목(趙穆), 금난수(琴蘭秀) 등과 종유하였다.

27 세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되었고, 33 세에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들어선 뒤 1599 년(선조 32)인 74 세에 예천으로 내려갈 때까지 40 여 년 동안 중앙 관료로서 분주한 나날을 보냈다. 36 세에 진주 교수(晉州敎授)로 있을 때 잠시 조식(曺植)의 문하에 출입했으며, 40 세 이후에는 승승장구하여 이조정랑, 홍문관 수찬, 도승지, 이조 판서 등 중앙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뒤 정승 반열에 들어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에까지 올랐다.

중간에 1582 년(선조 15) 진하사(進賀使), 1589 년 사은사(謝恩使)의 임무를 띠고 2 차에 걸쳐 명나라를 다녀오면서 명나라 인사들과 교유함으로써 중국 사정에 정통하게 되었다. 임란시 영위사(迎慰使)로 명나라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을 영접하는 등 원병으로 온 명의 장수나 지식인들과 우호적인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사행 시절 다져놓은 중국 인맥과 지식이 일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탁은 임진왜란 7 년 동안 왕을 영변까지 호종하였고, 분조(分朝) 후에는 전장에서 세자 광해군을 호종하였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정탁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몸소 전장에 나가 조선군의 사기를 돋우려 했으나, 그의 연로함을 걱정한 왕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또한 대신으로서 언론활동을 펼쳐 기축옥사(己丑獄事)의 억울함을 논하거나 황정욱(黃廷彧, 1532~1607)의 옥사를 구하려 했고, 김덕령(金德齡, 1567~1596)을 신구(伸救)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나국(拿鞫)에 처한 옥중의 이순신(李舜臣, 1545~1598)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여 백의종군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법 지식을 응용하여 수륙병진협공책 등 여러 가지 계책을 제안하여 국난 극복과 전란 종식에 기여했다.

1599 년 정탁은 치사(致仕)할 나이가 지났으므로 일찍부터 벼슬을 버리고 돌아갈 뜻이 있었으나 당시의 사정이 안정되지 않아서 감히 떠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해 가을 노년을 마칠 생각으로 선영에 성묘하러 간다는 이유로 휴가를 받아 남쪽 예천 땅으로 내려갔다.

1600 년에 좌의정으로 승진했는데 상소를 올려 소명(召命)에 부응하지 않으니, 왕이 그의 뜻을 돌리지 못할 줄을 알고 마지못해 따라주었다. 이어서 관리를 보내어 안부를 묻게 하고 음식물을 더 내려 주도록 하였다.

1603 년(선조 36) 78 세의 나이로 또다시 치사를 요청하자 왕이 부득이 허락하고 사관을 보내 선유하면서 포상을 극진히 내렸다. 이어 임란에 어가를 호종한 공으로 호성 공신(扈聖功臣) 3 등에 녹훈되고 '충근정량(忠勤貞良)'이라는 호가 내려졌으며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졌다. 이를 기념하여 당시 충훈부(忠勳府)에서 화공을 보내 그의 화상(畫像)을 만들게 하였다.

정탁은 그로부터 2 년 뒤인 1605 년 9 월 19 일 고평리(高坪里) 자택에서 80 세로 세상을 떠났다. 1635 년(인조 13)에 '정간(貞簡)'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1640 년에 예천의 향현사(鄕賢祠)에 제향되었다가 1700 년(숙종 26)에 예천의 도정서원(道正書院)으로 위패가 옮겨졌다.

정탁의 품성과 학문에 대해 몇 마디 첨언해 본다. 젊은 시절 정탁이 남명을 만났는데, 떠나올 때 남명이 "내 집에 소 한 마리가 있는데 자네가 끌고 가시게."라고 했다. 정탁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 어리둥절했다. 남명이 웃으며 "자네의 말투가 너무 민첩하고 날카로우니, 날랜 말은 실패하기 쉬운지라 더디고

둔한 것을 참작해야 비로소 멀리 갈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소를 준 것이네.〔君辭氣太敏銳 歷塊之足 易於一蹶 參以遲鈍 乃能致遠 吾所以贈牛也〕"라고 했다. 이기옥(李璣玉, 1566~1604)은 자신의 일기(日記)에서 이 일화를 전하면서 "그 후 정탁이 수십 년 동안 다행히 큰 잘못 없이 지낸 것은 선생의 충고 덕분이다."라고 했다. 이 일화는 《연려실기술》 권 18 〈선조조고사본말〉에 재인용되어 있다. 《약포집》에는 이기옥과 주고받은 편지 4 통이 보이는데, 이기옥은 스승 김우옹(金宇顒, 1540~1603)이 죽은 직후 사제 사이에 지켜야 할 상례(喪禮)에 대해 자문을 구할 정도로 정탁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었다. 따라서 그의 위와 같은 발언은 매우 신빙성이 높다 하겠다.

당초에 정탁은 말씨가 '민첩하고 날카로웠던' 모양이다. 나중에 남명의 충고에 힘입어 '더디고 둔한' 말씨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듯하다. '더디고 둔하게' 말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다. 먼저 진득하니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경청해야 하고, '실천'을 염두에 두고 깊이 생각한 끝에 말을 입 밖으로 내는 말투를 몸소 익힌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말이 빠르고 날카롭다는 것은 그만큼 언어중추가 발달했다는 말인데, 정탁이 명민한 두뇌를 타고났음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정탁이 남명의 충고 덕분에 큰 탈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했을 때, '큰 탈'은 벼슬살이 도중에 '구설로 인한 큰 화'를 말한다. 얼마나 정탁이 상대의 말을 잘 듣고 신중하게 대응했는지 알 수 있다. 다만 이런 대응 방식을 좋아하지 않는 이에게는 정탁이 매우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지닌 인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독자들은 《약포집》을 통해 정탁의 말씨가 과연 어떠한 특질을 보여 주고 있는지 잘 챙겨 보시기 바란다.

정탁은 30 여 년 동안 국왕을 시종하며 경연(經筵)을 지켰다. 이는 그가 당대 최고의 엘리트 관료였던 기대승, 김우옹, 유성룡 등과 어깨를 견줄 만한 학문 수준을 보여 주었음을 알게 한다. 정온(鄭蘊, 1569~1641)은 《묘지명》에서 정탁의 학문을 이렇게 요약했다.

퇴계(退溪) 선생과 남명(南冥) 선생을 스승으로 모셔 많은 훈도를 받았다. 그리하여 위기지학(爲己之學)이 무엇인지를 알아 실천하는 공부를 하였으며 구이지학(口耳之學)은 손대지 않았다. 경전(經傳)과 사서(史書)를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고, 특히 《중용(中庸)》과 《대학(大學)》을 좋아하여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암송하는 것을 그만두지 않았다. 《소학(小學)》을 독실하게 믿고, 항상 허노재(許魯齋)의 '공경하기를 신명(神明)과 같이 하고 높이기를 부모(父母)와 같이 한다.'라는 말을 들어서 말하기를 '학자가 진실로 이와 같이 한다면 성현(聖賢)의 경지에 이르지 못할 것을 어찌 걱정하겠는가.' 하였다. 여러 글에서 초록(抄錄)하여 《소학연의(小學衍義)》를 만들어서 입교(立敎), 명륜(明倫), 경신(敬身)의 뜻을 넓히고자 하였으나 완성하지는 못하였다. 천문(天文)과 지리(地理)와 상수(象數)와 병가(兵家)에 관한 서적들을 두루 섭렵하여 그 귀추를 터득하였으며, 선비가 병법(兵法)을 알지 못하면 큰 임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고 팔진법(八陣法)과 육화법(六花法) 등에 더욱 관심을 두었다.

과연 정탁이 경학, 천문, 지리, 역수, 병법 등에 관해 얼마나 해박하였는지 문집을 통해서는 가늠하기 어렵다. 그러나 그가 '팔진', '육화' 등 병법에도 조예가 깊었다는 정온의 지적에서 문약(文弱)에 흘렀던 당시 유교 지식인과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점필재(佔畢齋) 김종직(金宗直) 이래 조선사림들은 시문(詩文)이나 경사(經史) 이외의 학문을 잡학(雜學)으로 치부하여 경시하였다. 18 세기 이후 실학 시대에 오면 그 잡학이 바로 실용적인 학문으로 수용되기도 하지만, 16 세기 유교 지식인에겐 여전히 순수하지 않은 잡된 지식 나부랭이에 불과했다.

한편 《소학》과 '위기지학'을 중시했다는 정온의 말을 신뢰한다면, 정탁은 주자학의 형이상학적 관념론에 매몰되지 않고 실천성을 담보하는 도덕 수양에 치력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지리한 성리학적 논변이나 번쇄한 주석학적 논증을 《약포집》에서 찾고자 한다면 아마 도로(徒勞)에 그치지 않을까 한다.

오히려 《약포집》에서는 전장에서 바로 운용할 수 있는 병법이나 지리와 같은 잡학적 지식으로 무장된 정탁의 혜안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해 본다.

정탁은 《중용》과 《대학》, 《소학》에 내재한 '경(敬)'과 '의(義)'를 독서와 실천을 통해 함양하고 성찰하여 도덕성이 작동되기 어려운 전쟁의 와중에서도 인간에게 내재한 도덕적 합리성을 신뢰하고 이를 변함없이 지켜내려 했다. 그는 하급관료로 있었지만 명종(明宗)이 건강이 좋지 않자 불공을 드리려고 향실에서 향을 취해 오라는 문정왕후(文定王后)의 명을 받고, 교제사(郊祭祀)에 쓰는 향으로 불공을 드릴 수 없다고 거부함으로써 문정왕후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임란시절 조정에서 부도덕한 일본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단호히 반대한 바 있으며, 노구를 이끌고 위험한 전장을 누비며 어떠한 고난도 참아내면서 국왕의 대가와 세자의 분조를 수호했다. 이러한 정탁의 신념에 찬 말과 행동은 모두 그가 평소에 퇴계와 남명의 가르침대로 '경과 의'로 심성을 확고히 단련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3. 《약포집》 간행과 구성

《약포집》은 정탁 사후 150 여 년 만에 간행을 보았다. 이는 정승을 역임한 동료이자 후배인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서애집(西厓集)》이 사후 27 년 만인 1633 년(인조 11) 아들 류진(柳袗)에 의해 간행을 본 경우에 비하면 매우 늦은 편이다. 아마 간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저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우선 정탁의 유고를 수습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듯한데, 임란을 경과하면서 40 대 이전 초년 및 중년의 저작들이 상당수 일실되지 않았을까 한다. 게다가 후손들의 경제적 형편도 여의치 못해 문집간행이 수 대를 내려오도록 천연(遷延)되고 만 것 같다. 그러다가 《약포집》의 간행은 뜻밖에 국왕 영조의 배려에 힘입어 이루어지게 된다.

1756 년(영조 32) 정탁의 5 대손인 정옥(鄭玉, 1694~1760)이 좌승지로 입시하였을 때의 일이다. 영조는 홍문관에서 베껴 올린 정탁의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과 유상(遺像)을 살펴보고 나서 "화상이 참으로 거룩하거니, 선조 임금의 명재상이었지.〔厥像偉然, 穆廟名相〕"라는 구절이 들어간 화상찬(畫像贊)을 지어 주며, 정옥에게 두루마리 머리에다 쓰도록 했다. 사모관대의 정장관복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의 좌상(全身椅坐像) 약포영정(藥圃影幀) 두루마리가 오늘날까지 전해 오거니와 그 때 영조는 자신이 그토록 예찬해 마지않았던 정탁의 문집이 아직 간행을 보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영조는 정옥을 지방관으로 내보내 《약포집》을 간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1759 년 정옥은 황해도 관찰사로 나가게 되자 집안에 갈무리해 둔 초고를 바탕으로 유문을 수집, 편차하고 권정택(權正宅) 등과 교정하여 1760 년에 해주(海州)에서 목판으로 간행하였다. 《약포집》 원집 7 권 4 책은 이렇게 하여 마침내 간행을 보게 된다. 그리고 청렴하다고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고 영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정옥은 임지에서 세상을 떠나고 만다. 결국 정옥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선조의 문집을 간행하는 데 여력을 다 바침으로써 후손의 도리를 다하였다.

비록 정옥이 《약포집》을 간행했지만 완성도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했다. 원집 간행 후 정탁의 후손들은 50 여 년 동안 계속해서 흩어진 선조의 글을 수집해 나갔다. 미처 원집에 수록하지 못한 정론 문자라든가 중간에 수소문하여 찾아낸 시편들, 그리고 정탁을 추모하는 후인들의 글도 적지 않았다. 이를 한데 모으면 원집을 보완할 만한 속집(續集)을 엮을 수 있었다. 후손 정광익(鄭光翊)과 정필규(鄭必奎)가 유문을 수집하고 편차하는 등 속집 간행을 주도하여 1818 년(순조 18) 도정서원(道正書院)에서 목판으로 속집 4 권 2 책을 간행했다. 그때 족손인 정창운(鄭昌運)은 선사(繕寫)하는 일을 거들었고, 유범휴(柳範休, 1744~1823)와 황용한(黃龍漢, 1744~1818)은 교정하는 수고를 감당했다.

《약포집》 원집의 구성을 보면, 권두에 연보(年譜)와 목록(目錄)이 보이고, 권 1 은 시(詩)・서(書), 권 2 는 서(書)・소(疏)・차(箚), 권 3 은 계(啓)・헌의(獻議)・제문(祭文)・기(記) 등, 권 4~5 는 잡저(雜著)와 〈피난

행록(避難行錄)〉, 권 6~7 은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과 부록(附錄)으로 되어 있다. 속집은 권 1 시(詩), 권 2~3 은 소(疏)・차(箚)・계(啓)・서(書), 권 4 는 부록으로 되어 있다.

원집에 실린 시(詩)는 모두 150 수, 서(書)는 42 편(李滉, 趙穆 12, 柳成龍 3, 金誠一, 金富弼・趙穆・金富儀・琴應夾・金富倫, 明儒 胡煥, 鄭士誠 2, 鄭崑壽, 權好文, 兵曹判書, 宋福基 3, 李璣玉 4, 琴蘭秀 2, 아들 允偉 2, 允穆 4, 손자 孝生 2, 조카 允諧), 소(疏) 5 편(斥和, 辭右議政再, 辭左議政, 乞致仕, 辭奉朝賀祿), 차(箚) 11 편(條陳事宜, 請停拜陵, 請自行巡邊 2, 論救李舜臣, 請勿再下王世子攝政之命, 請寢內禪之命, 決策討賊, 留都條目啓稟, 計開, 請勿禁朝報), 계(啓) 10 편(請堅守平壤, 上東宮 2, 李彤獄事, 請許用降倭酒叱其謀, 十條取士單子, 社稷壇奉審後 2, 金德齡獄事啓, 論中宮殿玄宮改卜), 의(議) 6 편(1596 년 金德齡獄事, 1597 년 竄國弼咨文, 其人, 李舜臣獄事, 1600 년 朝堂牓示, 1599 년 高麗大將軍鄭顗立祠), 제문 9 편(李滉賜祭, 李滉, 權橃, 柳仲郢, 具鳳齡, 裵三益, 李構, 金宇顒, 李殷卿), 기(記) 4 편(松月軒, 景濂齋, 可一齋, 玉洞書院記), 서(序) 2 편(高坪洞契更定約文, 紀效新書節要), 발(跋) 1 편(宣祖御筆 '再造藩邦' 4 자), 묘지(墓誌) 2 편(潘冲, 潘冲妻 星州李氏), 잡저(雜著) 7 편(趙穆, 沈忠謙, 吳健, 梁大樸, 南應周, 避難行錄: 1592~1593 년), 용만견문록(龍灣聞見錄) 1 편(1593 년), 서(書) 1 편(明人 胡煥)이고, 부록은 정탁에 대한 후인들의 추모 문자인데 행장(行狀) 1 편(1606 년 黃暹), 시장(諡狀) 1 편(1635 년 李敏求), 묘표(墓表) 1 편(申翊聖), 묘지명(墓誌銘) 1 편(鄭蘊), 신도비명(神道碑銘) 1 편(趙顯命), 유사(遺事) 1 편(金時讓의 《涪溪記聞》, 《曺南冥師友錄》, 具鳳齡의 《柏潭集》 등에서 인용)이 보이고, 이어서 교서(敎書) 2 편(1603 년, 1604 년), 비답(批答) 3 편(1595 년, 1604 년, 1605 년), 제문(祭文) 7 편(宣祖, 東宮, 柳成龍, 鄭逑, 金玏, 曺友仁, 金涌), 봉안문(奉安文) 1 편(1700 년 道正書院: 洪相民), 상향축문(常享祝文) 2 편(鄕賢祠: 金廷, 道正書院: 權斗經), 만사(輓詞) 25 수(柳成龍, 李德馨, 尹承勳, 李元翼, 沈喜壽, 李好閔, 柳根, 洪進, 李光庭, 韓應寅, 姜紳, 許筬, 盧稷, 申欽, 朴弘老, 李廷龜, 洪履祥, 金玏, 吳億齡, 崔岦, 鄭經世, 黃暹, 洪慶臣, 李埈, 曺友仁), 증행시(贈行詩 증별시) 5 수(1582 년 具鳳齡, 1599 년 尹斗壽, 1599 년 崔岦, 1600 년 李埈, 1603 년 丁景蘭), 추록(追錄) 1 편(《退溪門人錄》 인용)이 있고, 말미에 정옥의 발문(1760 년)이 붙어 있다.

속집에는 시(詩) 251 수, 소(疏) 6 편, 차(箚) 1 편, 계(啓) 6 편, 전(箋) 3 편, 서(書) 108 편(趙穆 32, 趙穆金誠一 2, 權好文 3, 鄭崑壽, 金富倫 4, 琴應夾, 琴蘭秀 4, 沈喜壽, 韓百謙, 答人問目, 領左相, 李領府事, 右相, 權暐, 申應凱, 李閱道, 李時發, 李光胤, 鄭士誠, 조카 允諧 3, 아들 允偉 12, 允穆 26, 손자 時亨 8), 시고후소지(詩稿後小識) 1 편(부친 鄭以忠), 제문 4 편(金應南, 鄭以興, 鄭惟一, 安霳)이 수록되어 있고, 부록으로 후인들의 추모문자인 행장(行狀) 1 편(黃汝一), 가장(家狀) 1 편(아들 鄭允穆), 묘표후서(墓表後敍) 1 편(李象靖), 사우들의 제문(祭文) 3 편(黃汝一, 權春蘭, 權任), 만사(輓詞) 12 수(趙穆, 李恒福, 李山海, 尹根壽, 金睟, 琴應壎, 尹昉, 吳百齡, 申之悌, 金允安, 鄭榏, 安崇儉), 증행시(贈行詩 증별시) 2 수(李滉, 金宇顒)가 있으며, 말미에는 정필규의 속집 발문이 붙어 있다.

초간본으로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목판본 《약포집》이 있는데, 그 규모와 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약포집》은 전체가 11 권 6 책(원집 7 권 4 책, 속집 4 권 2 책)으로 책판수는 총 451 판이다. 판심에 원집은 '약포선생문집(藥圃先生文集)'이라 했고, 속집은 '약포선생속집(藥圃先生續集)'이라 했다. 모두 반엽(半葉)은 10 행 20 자이고, 반곽(半郭)의 크기는 21.3×16(㎝)이며, 상하이엽(上下二葉) 화문어미(花紋魚尾)를 새겼다. 《약포집》은 현재 규장각을 비롯하여 성암고서박물관, 고려대도서관 등 여러 곳에 소장되어 전한다.

《약포집》 연구자나 일반인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세아문화사에서 1982 년 《약포집》을 비롯한 퇴계 문도들의 문집을 모아 영인한 《도산급문제현문집(陶山及門諸賢文集)》이 발간되면서부터이다. 그 후 1989 년 민족문화추진회(현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원집과 속집을 합한 《약포집》 원문에 표점을 가한 《한국문집총간》 39 를 간행하여 정탁에 대한 연구를 촉진시켰다. 근래 정탁 연구자들이 《약포집》 원문을 인용하거나 번역할 때, 대부분 이 문집총간본을 이용한다.

4.《약포집》의 내용과 특징

《약포집》에 수록된 정탁의 시 작품은 대체로 창작 시기에 따라 배열한다는 원칙에 충실하여 시체(詩體)에 따른 분류방식을 취하지 않았다. 때문에 시기별 창작경향을 살피는 데 도움을 주지만 형식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시 시체별로 재분류해 내야 하는 수고로움이 따른다. 원집에는 69 제 150 수가 실려 있고, 속집에 94 제 253 수가 실려 있는데, 속집 가운데 9 제는 원집에서 누락된 동일한 제목의 작품이다. 중복되는 시제 수를 제하면 정탁이 남긴 시는 모두 154 제 403 수가 된다.

《약포집》에는 40 대 이전에 지은 시가 보이지 않는다. 모두가 40 대 이후 특히 1592 년 임진왜란 이후 만년에 지은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형식 면에서 보면, 오언고시로 된 〈난후기행(亂後紀行)〉과 〈배민시우생(排憫示友生)〉, 〈민기(憫饑)〉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언과 칠언으로 된 율시와 절구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에서도 절구로 된 작품이 절반이 넘는다.

정탁은 16 세기 후반에 활동한 까닭에 당시 중앙시단을 풍미했던 성당시풍(盛唐詩風)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문집에 남아 전하는 시들이 임진왜란 이후에 지어진 것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대체로 낭만성이 강한 이백보다는 현실성이 농후한 두보의 시풍에 접근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임란 이전의 작품으로는 조목이나 김부륜 등 퇴계 문인들과 나눈 수창시와 조식(曺植, 1501~1572), 김취문(金就文, 1509~1570), 김부인(金富仁, 1512~1584), 유중영(柳仲郢, 1515~1573), 오건(吳健, 1521~ 1574), 이준(李寯, 1523~1583), 구봉령(具鳳齡, 1526~1586), 이안도(李安道, 1541~ 1584) 등 망자를 조문하는 만시(輓詩)가 여러 편 보인다.

임란 이후 작품으로 8 제 18 수로 된 〈용만록(龍灣錄)〉이 있다. 1593 년(선조 26) 11 월 의주 동성(東城) 민가에서 쓴 서문에 의하면, 용만으로 가서 명나라 원병을 전송하라는 왕명을 받고 전별사로 나가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감회를 시편에 담았다. 정탁은 가을부터 엄동설한까지 여러 달 머물면서, 명나라 장수 가운데 유격장(遊擊將) 이상에 대해 차례차례 연회를 베풀어 전별했다. 아직 왜적 잔당을 소탕하지 못한 상황이라 백성들의 고통이 그치지 않았는데, 서관(西關) 땅 한 모퉁이에 발이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걱정과 울분으로 병이 날 지경이었다. 이때 북받쳐 오르는 애통하고 절박한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쏟아낸 것이 〈배민(排憫)〉이다. 종래의 한시에서 '배민'이라는 제목은 종종 등장하고 있지만, 전란으로 인해 생성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시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말년에 지은 〈난후기행(亂後紀行)〉은 임진 전쟁이 끝난 뒤 당시를 회상하며 1592 년부터 1605 년(80 세)이 되던 해까지의 회포를 차례로 담담하게 그려낸 고시이다. 1605 년 6 월 상순에 예천 고평의 망호당에서 쓴 이 작품은 길이가 장편으로 5 언 162 구(810 자)에 이른다. 중간에 행적, 인명, 지명에 대한 주(212 자)가 붙어 있다. 작품 말미에서 "기해년(1599) 말에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돌아와 조상의 묘소를 살피고 병으로 인해 조정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계묘년(1603)에 노쇠하고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치사했다. 이때 병으로 오래 고생을 하는 가운데 문적을 보다가 초기(草記)를 얻었고, 인하여 이어서 노후의 일까지 적어 마침내 전말을 완성했다. 그때 내 나이가 80 이었다. 이에 아들 윤목에게 수정하고 위와 같이 베껴 쓰도록 했다."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정탁이 남긴 마지막 작품으로 보인다.

정탁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초기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선을 누비며 전장을 직접 목도한 관료였다. 정탁의 한시는 대부분 임란 체험으로부터 산생된 것이다. 요컨대 정탁의 한시는 임란 극복 의지의 시적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 정탁은 전장의 체험에 기초하여 왜란의 전말을 생생하게 증언하였고, 한편으로는 굶주리는 백성을 향한 뜨거운 연민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으며, 전시 명군 막부에서 진행되고 있던 외교 현실을 묘사하면서 전장의 고통에서 오는 전시 관료로서의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다. 또한 정탁은 전란이 남긴 상흔을 직시하고 빠른 치유를 통해 백성들이 안집(安集)할 수 있기를 희구했는데, 다른 한

편에서는 유교 지식인으로서 도학적 이념을 강조하거나 남명・퇴계 양 문하를 출입한 동문들과 수창을 통해 도타운 우정을 교환하고자 했다.

《약포집》에는 동시대를 살아간 인물들과 정감이나 사상을 교류한 151 통의 편지가 남아 있다. 《약포집》에서 온정 어린 사승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글을 찾기란 쉽지 않다. 남명 조식에게 올린 만시나 퇴계 이황을 위한 제문 정도가 전할 뿐이다. 정탁은 1569 년(선조 2) 문소전 신위 봉안 문제를 두고 자신의 견해를 밝힌 편지를 퇴계에게 올린다. 이 〈상퇴계선생서(上退溪先生書)〉가 《약포집》에 제일 먼저 나오는 편지글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약포집》은 1760 년(영조 36)에 간행을 보았는데, 1728 년 일어난 무신란(이인좌의 난, 정희량, 조성좌의 난)의 결과가 문집 편찬에 일정 정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한다. 무신란으로 남명 계열 인사들은 막대한 타격을 입었거니와 남명과 사제의 연을 맺었던 정탁의 후손들도 그 여파를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설혹 남명이나 그 문도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이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문집에 넣기를 꺼려했을 개연성이 있다. 이 대목을 염두에 두고 《약포집》을 읽어 간다면, 남명 계열과 연계된 예기치 않은 오해나 의혹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남명계 인물이 보이지 않게 됨에 따라 자연 정탁과 편지를 왕래한 인물로 안동(유성룡, 김성일, 권호문, 정사성)과 예안(월천의 조목, 부포의 금난수, 오천의 김부필・김부의・김부륜・금응협)에 포진해 있던 퇴계 문도들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특히 월천의 조목과 가장 빈번한 서신 왕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약포집》에는 1561 년(명종 16)부터 1601 년(선조 34)까지 조목에게 보낸 47 통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정탁(鄭琢, 1526~1605)은 두 살 위인 조목(趙穆, 1524~1606)에 대해 "월천은 나의 노형이시다.〔月川 吾老兄也〕"라고 할 정도로 서로 호형호제하며 격의 없이 지내는 사이였다. 더구나 조목은 퇴계 사후 문장(門丈)으로서 스승 추모 사업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서로 부단한 소통이 필요했다. 대체로 예안의 퇴계 문도는 처사 지향이 강하여 출사에 급급해하지 않으면서 퇴계의 유업을 계승하려는 의지가 남달랐고 그 중심에 언제나 조목이 있었다. 정탁은 편지에서 주로 조목의 안부를 묻고 출사를 권유하며 현실 문제에 대해 상호관심사를 토론했다.

정탁은 조목에게 퇴계 사후 추모 사업에 대해 의논했는바, 비석 세우는 일, 관상감에 부탁하여 퇴계의 수적(手跡)을 등사하는 일, 문집을 발간하는 일, 예장 문제, 행장 및 묘지명 찬술 문제 등을 거론했다. 편지 가운데서 조목이 정탁을 두고 육학(陸學)을 흠모한다고 평한 것에 대해 오해라고 해명하는 내용도 있다. 정탁이 1582 년 진하사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하면서 북경 서사에서 육상산(陸象山)의 문집을 구입해 왔는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조목이 정탁의 육왕학(陸王學) 추향을 의심하여 비난한 바 있었기 때문이었다. 1597 년(선조 30) 보낸 편지에서는 명군의 남하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명군의 남하를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그에 따른 접대 비용 마련과 명나라 장수들이 끼칠 폐해로 인해 요동칠 영남 민심에 대해 크게 우려했다.

《약포집》에는 조카 정윤해(鄭允諧), 둘째 아들 윤위(允偉), 셋째 아들 윤목(允穆), 손자 시형(時亨) 등에게 보낸 편지가 퇴계 문도 그룹에 이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를 가서(家書)라고 하거니와 그 가운데 셋째 아들 정윤목에게 보낸 편지가 30 통에 달한다. 1589 년 사은사(謝恩使)로 북경에 갈 때 수행하도록 했을 정도로 정탁은 남다른 자질을 지닌 셋째 아들 윤목을 신뢰하여 벌목 문제 등 집안의 대소사를 그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했다. 특히 정윤목이 글씨와 제술에 능했기에 대신 필사를 시키거나 만사와 제문 등 자기가 지은 시문을 첨삭하도록 당부하는 내용도 편지에 보인다.

정탁의 편지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으로 1594 년 명나라 유학자 호환(胡煥)에게 보낸 〈여명유호환(與明儒胡煥)〉이 있다. 정탁이 위난에 처한 조국을 구하기 위해, 편지로 막부(幕府) 외교를 전개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가 명과 왜의 강화 회담이 진행되고 있을 때,

정탁은 적군의 정황과 적을 제압할 대책을 상세하게 적은 장문의 편지를 만들어 호환 편에 부쳐 영남에 주둔하고 있던 명군 총병(總兵) 유정(劉綎)에게 보일 요량이었다. 정탁은 편지에서 "이 적은 천하에서 강한 왜구입니다. 그 화가 더욱 심해져 만일 동쪽 모퉁이(부산지역)를 잃으면 바로 영남을 잃게 되고 만일 영남을 잃게 되면 바로 왕경(서울)을 잃게 되며 만일 왕경을 잃으면 바로 조선을 잃게 되며, 조선을 잃고 나면 요·계 지역의 근심이 곧 다음 차례가 될 것입니다. 피부의 병을 고치지 못하여 바로 심복에 이른 다음에 비로소 죽음을 구하자고 의논한다면 아무리 위태롭지 않게 만들려 한들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이에 호환은 "보여 준 상세한 말씀이 대체로 지당하여 가서 총병을 만나는 날 삼가 마땅히 낱낱이 고유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간단히 적어 답했다.

이때 호환은 명군 막부(幕府)에 있는 제자 유정을 만나 보러 가는 길이었다. 호환에게 보낸 편지에는 정탁이 그동안 축적해 온 병법지식을 동원하여 구상해 낸 화전(火箭)의 운용과 같은 무기 체계의 정비, 공격 및 방어를 위한 전략 전술이 총망라되어 있다. 그 가운데 중국 남방인 천주(川州 사천성)와 절주(浙州 절강성)의 병사가 왜군과의 전투에 강하므로 이들을 파병하게 도와 달라고 요청한 대목은 음미할 만하다.

정탁의 산문에서 주목할 문체는 상소(上疏), 차자(箚子), 계(啓), 의(議) 등과 같은 정론 문자(政論文字)이다. 신하가 국왕에게 건의하거나 설득하는 통로는 다양했지만 상소가 가장 일반적이었다. 차자는 상소에서 의례적인 표현을 생략하고 본론만을 적은 것을 말한다. 상소는 제도적으로 보장된 신하의 언론 활동이지만 국왕에게 올리는 글이기에 언어 구사를 매우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국왕의 노여움을 불러 자신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표면적으로 조선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참전했던 명의 이여송 군대는 평양성 대첩으로 전세를 반전시키고 도성 탈환의 발판을 구축했지만 벽제 패전과 함께 전의를 상실한 후부터 더 이상 왜군을 공격할 생각이 없었다. 그 후 명군의 소극적인 임전 태도는 결국 왜군을 화의(和議)의 파트너로 만들고 말았다. 강화(講和)하자는 의론이 제기되면서부터 조선은 전쟁의 당사국이면서도 정작 명과 일본 사이의 교섭 과정에서는 소외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주전론이 일본과의 강화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된다고 여겼던 송응창 등 명군 지휘부는 아예 조선군에게 일본과 전투를 벌이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1584 년(선조 17) 조정에서도 일본과 화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탁의 생각은 달랐다. 정탁은 〈척화소(斥和疏)〉를 초하여 당시 조정에서 제기된 화의론이 항전(抗戰) 의식을 저하시킨다고 비판하고, 이순신과 아울러 김덕령, 권인룡 등 뛰어난 장재(將材)들을 찬양하면서, 이러한 장재들을 앞세워 온 나라가 항전 체제를 강화한다면 명나라 원병이 다시 오지 않더라도 우리 힘으로 왜적을 충분히 물리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즉 정탁은 〈척화소〉에서 외국의 원조에 기대지 않고 민족의 내재적 역량을 개발하여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조목도 결코 왜와 화의를 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유성룡이 명군의 화친 제안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주화오국(主和誤國)'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유성룡과 조목이 강화론과 주전론으로 대립하자 양인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정탁의 입장도 난처해졌을 것이다. 유성룡은 전시 상황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다 거국적인 안목으로 강화론에 관심을 두었거니와 1598 년 주전론자들인 북인들은 '주화오국'이라는 명분으로 그를 탄핵했다. 그리하여 유성룡은 끝내 실세하고 낙향하게 된다.

정탁은 곽재우 등 장재(將材)가 있는 이들을 천거하기도 했지만 아울러 억울한 일로 곤경에 처한 인재를 구원하는 데도 적극적이었다. 1596 년(선조 29) 역모사건을 공초하던 중 김덕령이 자주 거론되었는데, 이를 왜적이 김덕령을 제거하려고 꾸민 계책이라고 하면서 김덕령의 무고함을 변호한 〈김덕령옥사계(金德

齒獄事啓)〉, 사형의 위기에 처한 이순신을 신구(伸救)하기 위해 작성한 〈이순신옥사의(李舜臣獄事議)〉는 문예적으로도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정론(政論) 산문이다.

'이순신옥사'란 1597 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을 때, 원균의 모함과 왜군의 모략으로 인해 이순신이 옥에 갇힌 사건을 말한다. 이순신을 모함하는 원균의 상소가 올라가자 선조는 당시 사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상소 내용만을 믿고 비망기를 내려 이순신에게 조정을 속이고 임금을 무시한 죄, 적을 놓아주고 공격하지 않아 나라를 배반한 죄, 남의 공을 가로채고 모함한 죄 등을 적용하여 투옥시켜 심문하게 했다. 이윽고 이순신은 파직되어 서울로 압송되었고, 죽음 직전에 이르는 1 차 형신을 받았다.

정탁은 〈논구이순신차(論救李舜臣箚)〉를 올려 이순신이 많은 군공을 세웠으며 수군과 육군을 통틀어 최고의 장수라고 역설했다. 정탁은 무엇보다도 이순신이 사형을 당하면 수군세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하여, 장수 신분 보장론, 인재론, 국왕 선처론 등을 들어 선조에게 사형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청했다. 정탁의 구명 노력에 감명 받은 선조는 이순신에게 사형을 덜어 주어 백의종군하도록 했다. 풀려나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은 원균이 칠천량에서 패하자 다시 수군통제사에 복귀하여 명량해전과 노량해전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마침내 지루한 7 년 전쟁이 끝나게 된다. 그로 인해 정탁이 올렸던 차자는 일명 〈신구차(伸救箚)〉로 명명되어 유명세를 타고 많은 이들에게 읽혔다.

이 밖에 1592 년(선조 25) 6 월 11 일 일본군의 북진으로 평양에 있던 선조가 요동으로 넘어가는 것에 반대하고 평양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한 〈청견수평양계(請堅守平壤啓)〉나 1597 년 영국필(甯國弼)이 가져온 자문(咨文)에 적힌 '조선 3 경(京)에 순무(巡撫)를 두고 8 도에 사도(司道)를 설치하자'는 대목에 대해, 후폐(後弊)를 염려하여 전란 후 민력이 탕갈된 상황을 아뢰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영국필자문의(甯國弼咨文議)〉도 정탁의 자주정신을 엿보는 데 도움을 주는 자료이다.

〈피난행록(避難行錄)〉(상하)은 임진왜란 당시 왕과 세자를 호종하면서 쓴 일기로 1592 년 4 월 30 일 서울을 떠나 대가(선조)가 궁을 나서 의주로 피난 가던 시절부터 1593 년 1 월 20 일 분조했던 세자(광해군)가 대가와 합류한 직후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상편은 1592 년 4 월부터 8 월까지, 하편은 1592 년 9 월부터 1593 년 1 월까지를 기록했는데, 피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인사, 행재소와 분조 사이에 왕복된 문서 등도 모두 갈무리해 놓았다. 피난 기간 돌아다닌 행로를 보면, 4 월 30 일 대가가 돈화문을 나온 뒤 벽제-임진-개성-평산-봉산-황주-평양-숙천-안주-영변 등을 지나갔고, 분조한 뒤 왕은 의주로 향하고 세자는 강계로 향했는데, 정탁은 세자를 호종하여 성천-숙천-안주-영유-증산-용강(산성)-증산-영유-안주-영변 등지를 돌아다닌 것으로 나와 있다.

〈용만문견록(龍灣聞見錄)〉은 임진왜란 때, 의주에서 왕을 호종하다가 이듬해 영위사(迎慰使)로 명나라 경략 송응창, 도독 이여송 등을 영접했는데 그 전말을 적어 왕에게 바친 보고서이다. 머리에서 이 글을 기록하게 된 동기를 간단히 밝혔고 이어 동정(東征)에 참가한 명나라 사신 및 장군인 송응창・이여송・장삼외(張三畏)・호환(胡煥) 등을 접대한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다. 〈피난행록〉과 〈용만견문록〉은 정탁이 직접 왜란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르포르타주나 다큐멘터리와 같은 일종의 기록문학으로 볼 수 있다.

1596 년(선조 29) 정탁이 거주하던 예천 고평동에서 시행한 동계의 서문과 동계약조의 후지(後識)인 〈고평동계갱정약문서(高坪洞契更定約文序)〉와 1602 년 안동부에서 다시 간행을 본 《기효신서절요》의 서문인 〈기효신서절요서(紀效新書節要序)〉도 조선의 향촌 자치사나 병법 연구사를 이해하는 데 요긴한 자료이다.

조선 후기 병법 연구의 토대가 된 《기효신서》는 '남왜북로(南倭北虜)'의 외환(外患)을 극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워 명나라 사람들에게 항왜(抗倭)의 아이콘으로 각인된 척계광(戚繼光, 1528~1588)이 1560 년 절강현(浙江縣) 참장(參將)으로 있을 때 왜구를 소탕하기 위하여 편찬한 병법 전술서이다. 바로 그 《기효신서》

의 전체 내용에서 요점을 간추린 것이 《기효신서절요》이다. 선조는 1594 년 훈련도감을 설치하고 유성룡을 도제조로 삼으면서 밀명을 내려 《기효신서》를 도입하여 훈련도감에서 간행하도록 했다. 이때 이시발(李時發, 1569~1626)은 유성룡의 휘하에서 종사관으로 간행의 실무를 맡았고, 한교(韓嶠, 1556~1627)는 훈련도감 낭청(訓練都監郎廳)으로서 주해(註解)를 달아 조선에서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했다.

그 후 《기효신서》는 조선 군제에 큰 영향을 끼쳤으니, 《기효신서》에서 말한 속오법(束伍法)과 삼수기법(三手技法)을 적용하여 훈련도감 등 5 군영과 속오군(束伍軍)으로 재편한 것이 바로 그 사례이다. 임란 후 이시발은 경상 감사로 있을 때 안동부에서 《기효신서절요》를 다시 간행하면서 정탁에게 서문을 부탁한 것으로 보인다. 서문에서 정탁은 위와 같은 《기효신서》의 도입 과정을 설명하기는 했으나 유감스럽게도 《기효신서절요》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남기지 않아 여전히 후인들의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5. 맺음말

달리는 말 위에서 꽃구경하는 식으로 《약포집》의 체제와 내용을 대강 살펴보았다. 《약포집》은 일본의 침략으로 7 년간 이어진 임진왜란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어떠한 고난을 받았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민족이 어떻게 분투했는지 그 속살을 여실히 보여 주는 실록이다.

결과적으로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삼국(조선, 중국, 일본)의 역사를 바꾸어 놓고 말았다. 중국은 명청 왕조 교체기로 들어서고 일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에도막부가 성립되었으며 조선은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는 과제를 안고 변혁을 통해 업그레이드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과업을 부여받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정탁은 16 세기 말 동아시아 역사 변동기를 의미 있게 살다 간 인물이다. 그가 동아시아 역사 변동을 추동한 임진왜란의 한복판에서 쇠망의 기로에 선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 발휘했기 때문이다.

《약포집》에서 우리는 조선, 중국, 일본의 부끄러운 모습들과 만나게 된다. 정탁은 전장에 투입된 삼국의 수많은 인물들의 추하게 일그러진 모습을 실명을 적시해 가며 하나하나 그려내었다. 아울러 평화를 희구하는 각개 민중의 요구를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유지에 혈안이 되어 야합과 기만, 폭력과 살육을 일삼는 지배자 그룹의 반문명적 야만행위를 낱낱이 고발했다. 구원병으로 온 명군이 어느새 점령군으로 변해 가는 현실, 강화를 요구하면서 뒤로는 분탕질을 자행하며 무수히 조선민중을 짓밟아 갔던 왜군의 두 얼굴을 들추어내어 조선인이 감내해야 할 이중 고통을 환기시켰다. 우리가 《약포집》에서 길어 올려야 할 가치는 바로 전쟁을 명분삼아 자행되는 온갖 폭력과 반인간적 야만성에 대한 정탁의 강렬한 저항과 비판정신이다.

또한 《약포집》에서 우리는 모든 사태를 직시하고 의리에 따라 판단하되 결코 편당하지 않는 정탁의 정치적 평형감각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신구차〉에서 정탁은 원균과 이순신에 대해 평가하면서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거니와 관용이야말로 난세의 대의에 부합하는 절대적 진리임을 일깨우면서 고전에서 '호생지덕(好生之德)'을 이끌어 와 이순신에게서 점점 멀어져 갔던 선조의 마음을 돌려세웠다. 난세의 대의는 '나라의 존립'이다. 그는 선조에게 말했다. "일개 이순신의 죽음은 실로 아깝지 않으나, 나라에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습니다. 어찌 거듭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一某之死 固不足惜 於國家所關非輕 豈不重可爲之慮乎〕" 결국 선조는 정탁이 말한 대의에 동의하고 관용을 통해 이순신을 부활시켜 조선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다.

사림이 정국의 주도세력이 되면서부터 붕당정치는 예고되어 있었다. 따라서 정탁도 어느 한편에 몸을 맡겨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존재감을 드러내야 했다. 그는 지역이나 학통으로 보아 정치적 입장이 동인에 가깝거나 밀착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임란으로 위태로운 상황에서 작은 정책과 노선의 차이로

동인과 서인, 다시 남인과 북인으로 공론이 분열되어 허구한 날 쟁투를 일삼는 행태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서로 작은 차이(당파적 이해관계)를 극복하고 마음을 합쳐 나라를 구하는 일을 급선무로 삼았으며, 오직 지공무사(至公無私)한 의리에 따라 처신하였다. 그러했던 정탁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어떠한가?

다음은《선조실록》38 년 10 월 2 일 조에 보이는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 정탁(鄭琢)의 졸기(卒記)에 "탁은 인품이 유순하고 온후한 사람인데, 등과했을 당시에는 명망이 없어 오랫동안 교서관(校書館)에 머물러 있었다. 일찍이 향실(香室)에 직숙(直宿)하던 날 문정 왕후(文定王后)가 향(香)을 가져다가 불공을 드리려고 하자, 탁이 불가한 일이라고 고집하면서 끝내 향을 올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당세에 중시되고 이어 현로(顯路)에 통하게 되었으며, 뒤에 호성공(扈聖功)으로 숭품(崇品)에 오르고 얼마 후에 재상으로 발탁되었다. 이에 상소하여 물러가기를 청하였으니 고인들의 치사(致仕)하던 기풍이 있었다. 작위를 탐하여 늙어도 물러가지 않는 자에 비하면 차이가 크다."라고 했는 데 반해,《선조수정실록》은 "정탁은 예천(醴泉) 사람으로 유성룡(柳成龍)과 친해서 재상이 되었으나 매사 우유부단하였다. 그러다가 성룡이 조정에서 떠나자 탁도 해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나이가 차서 치사(致仕)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집에서 병으로 죽었다."라고 했다. '우유부단했다'는 대목을 보면서 문득 '민예(敏銳)'와 '지둔(遲鈍)'을 적절하게 섞어 가며 말해야 좋다는 남명의 충고가 떠오른다. 왠지 '지둔'과 '우유부단'이 서로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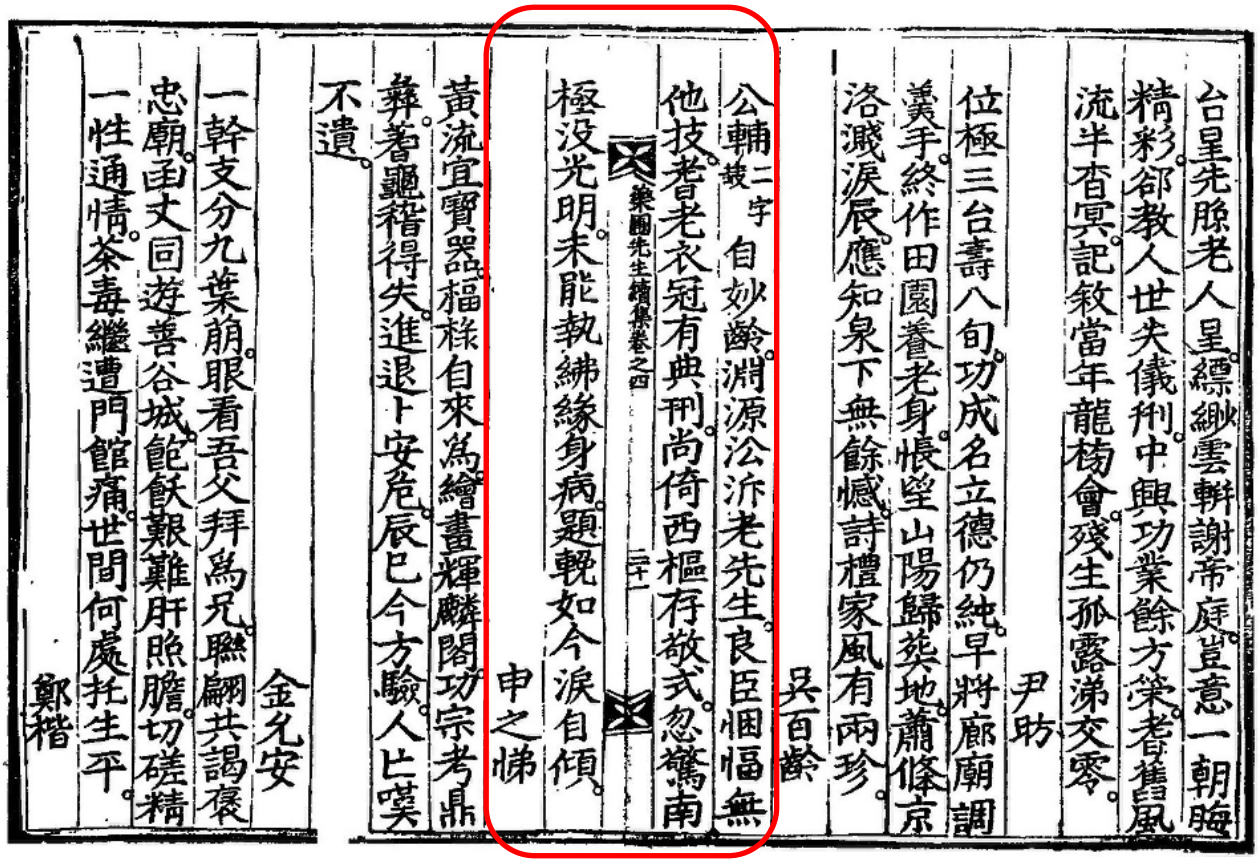
어찌되었든 동일인물에 대한 사관의 평어가 사뭇 다르다. 인조반정을 전후로 실록이 엮어졌기에 편찬자의 당색에 따라 포폄을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한다. 북인 쪽에서 다소 호의적으로 기록했다면 서인 쪽에서는 매우 탐탁지 않은 기색을 보인 것 같다. 4 백여 년 전 만들어진 사적의 진실을 정확히 검증할 길 없는 후인으로서는 그저 답답할 뿐이다. 어느 편 기록을 신빙해야 할까? 잠시 망설임을 멈추고 정탁이 남긴《약포집》을 읽어 볼 일이다. 그 속에 우리의 의혹을 눈 녹듯 풀어 줄 열쇠가 있지 않을까?

이를 예견해서였을까?《약포집》은《퇴계문인록》을 다음과 같이 추록해 놓았다. 참고로 인용한다. "정탁은 자가 자정이고 호가 약포이다. 화락하고 돈후하고 확고하며 순수한 정금(精金)과 같고 우뚝한 교악(喬嶽)과 같았다. 젊어서 퇴계 선생의 문하에 유학하여 진실로 '내면을 향하는 공부[向裏工夫]'를 들음이 있었다. 또 남명 선생을 종유하여 도리를 지키고 벽처럼 우뚝한 면을 본 것이 있다. 진퇴(進退)는 한결같은 의리로 했고 이험(夷險)에 한결같은 절개로 지켰다. 겸허하고 공손하여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착한 일을 즐겨하며 남을 함부로 따르지 않고 남과 갈등 빚는 일이 없었다. 경세(經世)에 뜻을 두어 일을 당해서는 대체를 우선하여 명분을 바로잡았고 말을 올릴 때는 사기를 진작시켜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았다. 마음가짐은 공정하고 충성스럽고 언론은 올바르고 공평하였다. 당의(黨議)가 분열됨을 만나서는 피차를 막론하고 선하기만 하면 함께했다. 선조에게 신임을 받고 난리에 진력했으며 정승의 지위에 올랐으나 조용히 물러나 한가로이 지내며 노년을 온전히 보냈다."

만사 신지제〔輓詞 申之悌〕[신지제(申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공은 젊은 시절부터 – 두 글자 원문 빠짐 - 보필했으니 / 公輔□□自妙齡
연원은 퇴계 선생으로 거슬러가네 / 淵源沿泝老先生
양신의 일편 단충 다른 재주 없고 / 良臣悃愊無他技
기로의 의관은 전형이 있네 / 耆老衣冠有典刑
중추부에 기대어 모범을 남기더니 / 尙倚西樞存敬式
갑자기 놀랍게도 남극성이 빛을 잃었네 / 忽驚南極沒光明
병 때문에 상여 줄을 잡지 못하고 / 未能執紼緣身病
오늘 만사 쓰니 눈물이 절로 흐르네 / 題輓如今淚自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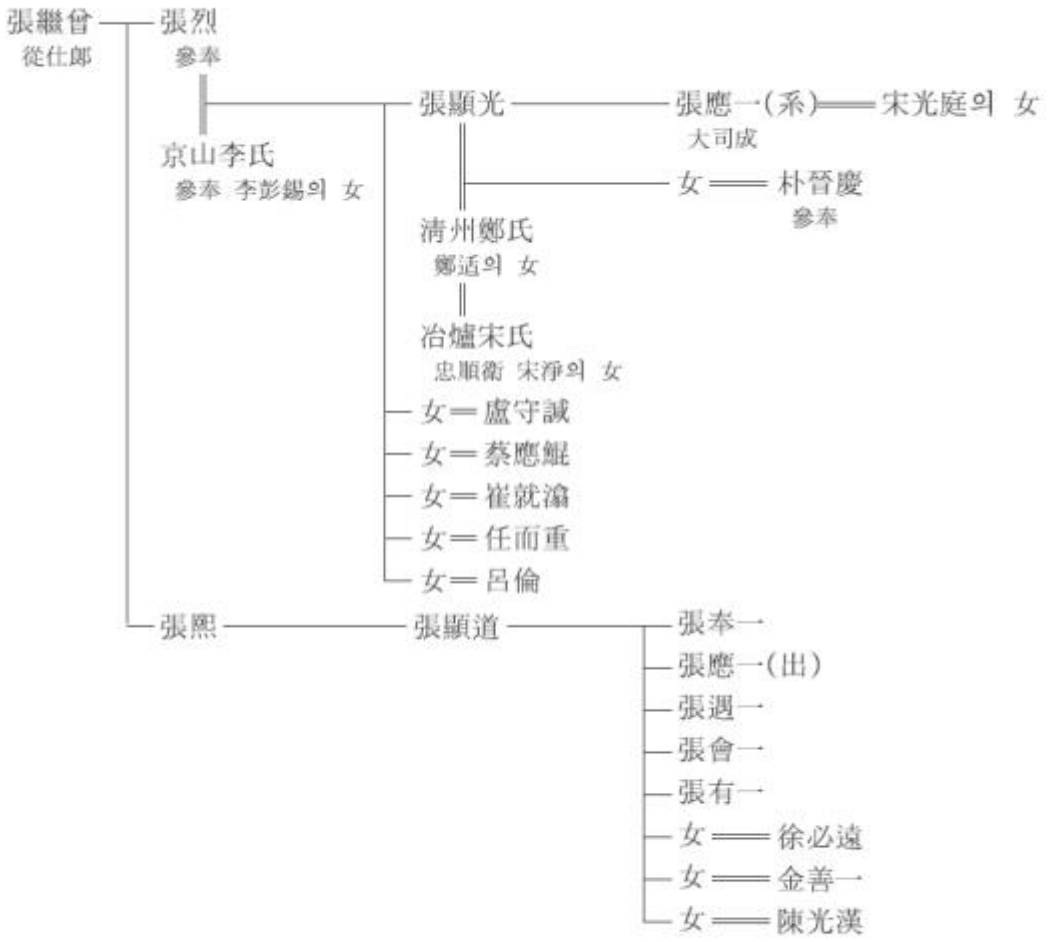

台星先隕老人星縹緲雲軿謝帝庭豈意一朝晦精彩卻教人世失儀刑中興功業餘方榮耆舊風流半杳冥記敎當年龍杭會殘生孤露涕交零。
尹昉
位極三台壽八旬功成名立德仍純早將廊廟調羹手終作田園養老身悵望山陽歸葬地蕭條京洛濺淚辰應知泉下無餘憾詩禮家風有兩珍。
吳百齡
公輔二字 自妙齡淵源泝泝老先生良臣悃愊無他技耆老衣冠有典刑尙倚西樞存敬式忽驚南極沒光明未能執紼緣身病題輓如今淚自傾。
申之悌
黃流宜寶器福祿自來爲繪畫輝麟閣功宗考鼎彝著龜稽得失進退卜安危辰已今方驗人亡嘆不遺。
金允安
一幹支分九葉朋眼看吾父拜爲兄聯綱共謁褒忠廟函丈回遊善谷城飽飫艱難肝照膽切磋精一性通情茶毒繼遭門館痛世間何處托生平。
鄭稽
藥圃先生續集卷之四 二十一
藥圃集 續集 卷四

여헌집(旅軒集)

장현광(張顯光)

장현광(張顯光) : 1554 년(명종 9)~1637 년(인조 15). 자는 덕회(德晦). 호는 여헌(旅軒). 본관은 인동(仁同). 시호는 문강(文康).

2. 가 계



3. 행 력

왕력	서기	연령	기 사
명종 9	1554	1	1 월 22 일, 인동부(仁同府) 인의방(仁義坊)에서 태어나다.
16	1561	8	6 월, 부친상을 당하다.
22	1567	14	상사(上舍) 장순(張▣)의 문하에서 배우다.
선조 4	1571	18	《우주요괄첩(宇宙要括帖)》을 짓다.
12	1579	26	청주 정씨(淸州鄭氏)와 혼인하다.
16	1583	30	봄, 향시(鄕試) 별거(別擧)에 합격하다.
18	1585	32	7 월, 부인상을 당하다.
23	1590	37	야로 송씨(冶爐宋氏)와 혼인하다.
24	1591	38	10 월, 모친상을 당하다. ○겨울, 전옥서 참봉(典獄署參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25	1592	39	4 월, 왜란이 일어나자 금오산(金烏山)으로 피난하다.
27	1594	41	봄, 예빈시 참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여름, 풍기(豊基)의 소백산(小白山)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 인동(仁同)과 성주(星州)의 선산(先山)을 찾다. ○가을, 제릉 참봉(齊陵參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28	1595	42	7 월, 보은 현감(報恩縣監)이 되다. ○《관물부(觀物賦)》를 짓다.
29	1596	43	2 월, 사직만 하고 허락을 받지 않은 채 향리로 돌아오다. 다음달 이 일로 의금부에 잡혀갔다가 곧 석방되다. ○《일식부(日食賦)》를 짓다. ○여름, 영천(永川)의 입암(立巖)에 우거하다.
30	1597	44	봄, 송생(松生)으로 대암(大庵) 박성(朴惺)을 찾아가다. ○가을,주왕산(周王山)을 유람하다. ○《여헌설(旅軒說)》을 짓다.
31	1598	45	봄, 봉화(奉化)의 도심촌(道心村)으로 들어가다. 근처의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을 방문하다.
32	1599	46	봄, 선산(善山) 월파촌(月波村)으로 이거(移居)하다. ○혼의(婚儀)를 짓다.
33	1600	47	봄, 입암을 유람하다. ○흥해(興海)에서 바다를 구경하고, 관해설(觀海說)을 짓다.
34	1601	48	경서 교정의 명을 받들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35	1602	49	2 월, 거창 현감(居昌縣監)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겨울, 주왕산을 유람하다. ○11 월, 공조 좌랑이 되어 《주역(周易)》의 교정에 참여하다. 곧 형조 좌랑이 되었으나 사직하고 환향(還鄕) 하다.
36	1603	50	2 월, 용담 현령(龍潭縣令)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9 월, 의성 현령(義城縣令)이 되어 부임하다.
37	1604	51	문묘(文廟)의 위판(位版)이 분실된 일로 파직되어 선산 월파촌으로 돌아오다. ○12 월, 순천 군수(順川郡守)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38	1605	52	종제(從弟) 현도(顯道)의 아들 응일(應一)을 후사로 삼다.
39	1606	53	봄, 인동으로 돌아오다. 모원당(慕遠堂)이 완성되다.
40	1607	54	1 월, 대암 박성을 곡(哭)하다. ○한강(寒岡) 정구(鄭逑)를 모시고 용화산(龍華山) 아래서 뱃놀이하다. ○야은죽부(冶隱竹賦)를 짓다.
41	1608	55	6 월, 합천 군수(陜川郡守)가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광해군 2	1610	57	7 월, 사헌부 지평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부지암정사(不知巖精舍)가 창건되다.
5	1613	60	오산서원(吳山書院) 봉안의식(奉安儀式)을 정하다.
7	1615	62	관의(冠儀)를 짓다. ○여름, 문인 정사진(鄭四震) 등과 부지암 아래서 뱃놀이하다.
인조 1	1623	70	4 월, 사헌부 지평으로 부르는 전지가 내렸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이후 성균관 사업, 다시 지평, 장령이 되었으나 모두 병으로 사직하다.
2	1624	71	2 월, 장령이 되다. ○3 월, 집의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곧 공조 참의가 되다. ○4 월, 원자보양관(元子輔養官)으로 강학청에 나아가다. ○8 월, 이조 참의가 되었으나 상소, 체직되다. ○정구의 행장을 짓다.
3	1625	72	8 월, 동부승지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부호군이 되다.
4	1626	73	3 월, 형조 참판이 되다. ○4 월, 대사헌이 되다. 정사(呈辭)하여 체직되고 부호군이 되다. ○6 월, 시강원에 나아가 세자를 배알하다.
5	1627	74	호란이 일어나자 영남 호소사(嶺南號召使)의 명을 받다.
6	1628	75	3 월, 이조 참판이 되었으나 상소하여 체직되다. ○만학요회(晩學要會)를 짓다.
7	1629	76	12 월, 부인상을 당하다.
8	1630	77	4 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다. ○역괘총설(易卦總說), 구설(究說)을 짓다.
9	1631	78	원종(元宗) 추숭의 논의를 정지하도록 상소하여 청하다.
10	1632	79	3 월, 대사헌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다.
11	1633	80	10 월, 응지(應旨) 상소를 올리다.
12	1634	81	지중추부사, 공조 판서가 되었으나 상소하여 사직하다.
13	1635	82	5 월, 의정부 우참찬이 되었으나 병으로 사직하다.
14	1636	83	7 월, 지중추부사로서 소명(召命)을 받고 상경(上京)하다가 병으로 사직하니, 상이 약물(藥物)을 하사하다. ○12 월, 호란이 일어나자, 주군(州郡)의 부로(父老)에게 통유(通諭)하여 의병을 일으켜 근왕(勤王)하게 하다.
15	1637	84	겨울, 항복 소식을 듣고 입암촌에 들어가 살다. ○9 월 7 일, 만욱재(晩▣齋)에서 졸하다. ○12 월, 금오산(金烏山) 아래 오산동(吳山洞)에 장사지내다.
16	1638	*	문인 조임도(趙任道)가 취정록(就正錄)을 완성하다.
17	1639	*	오산서원에 배향되다.
20	1642	*	임고서원(臨皐書院), 천곡서원(川谷書院), 금오서원(金烏書院)에 배향되다. ○아

			들 응일이 문집을 간행하다.
효종 6	1655	*	의정부 좌찬성에 추증되다. ○9 월, 부지암서원(不知巖書院)이 낙성되어 향사되다.
8	1657	*	의정부 영의정에 추증되다. ○'문강(文康)'의 시호를 받다. ○입암서원(立巖書院), 영산서원(永山書院), 송학서원(松鶴書院)에 향사되다.
숙종 2	1676	*	부지암서원이 '동락서원(東洛書院)'으로 사액되다.
영조 12	1736	*	신도비가 세워지다.〔허목(許穆) 찬〕

4. 편찬 및 간행

저자의 시문은 사후 바로 아들 응일에 의해 수습되기 시작하였으니, 응일은 1638 년 봄부터 가장(家藏) 초고를 바탕으로 유문(遺文)을 수집, 부지암에 모여 원유(院儒)들과 수교(▣校)하였다. 다음해인 1639 년에 유문은 일선(一善)의 사우들이 사출(寫出)하고 역학도설(易學圖說), 성리설(性理說) 중 경위설(經緯說) 등은 영양(永陽)의 사우들이 사출하는 등 간행 준비를 해 나갔다. 이후 응일은 조임도(趙任道), 신열도(申悅道) 등과 함께 편차를 마치고 1640 년 10 월 문인 김응조(金應祖)가 인동 부사로 부임해 오자 그의 도움을 받아 바로 간역(刊役)에 들어갔다. 김응조의 연보에도 이 해에《여헌집》을 교정하였다고 하였고, 1641 년 초에 응일이 신열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해동하면 곧 간역을 시작할 것인데 모두 성주(城主)의 혈성(血誠)어린 규획(規畫)에 힘입은 것이다.' 하였다. 응일은 성리설을 1641 년에 먼저 간행해 놓고, 평설(平說)과 구설(究說)은 속집으로 내기로 미루어 놓았다. 마침내 1642 년에 간행을 완료, 성리설 8 권 6 책과 원집 11 권 6 책(또는 5 책)의 목판본을 내놓았다.《초간본》현재 원집(11 행 22 자)은 규장각(奎 11542, 1257, 1376),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706),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204) 등에 소장되어 있고, 性理說은 규장각(奎 1794) 등에 소장되어 있다.

이후 중간은 속집의 간행과 아울러 19 세기 말경에 가서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초간된 원집에 대해서는 내용 변화 없이 11 권(11 행 22 자)의 편차를 13 권(10 행 20 자)으로 재편하고 권 1 의 〈 무제(無題)〉 시를 〉〈분포(盆蒲)〉〉 시로 교체하는 정도에 그쳤으며, 성리설은 제외시켰다. 속집은 초간 때 누락된 시문을 8 권으로 편차하고 부록 2 권을 합하여 10 권으로 만들어, 원집 13 권과 함께 목판으로 간행하였다.《중간본》간행 시기는, 먼저 1796 년에 완성된《누판고(鏤板考)》에 속집이 실리지 않았고 속집 권 10 에 '정종조 사제문'이 실린 것으로 볼 때, 1800 년대 순조 연간 이후가 될 것이다. 또한 1924 년 11 대손 기상(基相)에 의해 활자로 간행된 속부록(續附錄)이 속집의 부록을 보완하는 의미로 간행되어 속집에 빠졌던 인조조 사제문과 허목의 제문 등 300 여 수가 실렸고, 중간본으로 첫째 장에 '1932 년 4 월 8 일 장택상(張澤相)씨 기증'이라 찍혀 있는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의 판본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 등으로 볼 때, 속집의 간행은 1800 년대 말에서 1900 년대 초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현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원집:811.98-장현광-여-나, 속집:811.98-장현광-여-속)에 소장되어 있고,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707),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7) 등에는 속집만 따로 소장되어 있다.

한편 연보 3 권 1 책도 간행되었다. 초간할 때부터 연보의 편정(編定)에 관해서도 많이 언급되었으나 완성을 보지 못하였는데, 1800 년대 순조 연간 이후 속집이 나오기 이전에 간행된 것으로 추측된다. '정종조(正宗朝) 사제문'이 실려 있는 데다 이미 간행되어 있어 중간 때 속집과 아울러 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규장각(奎 1315, 1316), 장서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1983 년에는 인동장씨 남산파종친회(仁同張氏南山派宗親會)에서 중간본 원집 13 권, 속집 10 권에다 연보 3 권, 성리설, 역학도설, 용사일기(龍蛇日記), 급문제현록(及門諸賢錄) 등을 합하여 《여헌선생전서(旅軒先生全書)》를 영인하였다.

5. 저 본

한국문집총간 60 집 소재 여헌집을 국역대본으로 하였다.

한국문집총간의 저본은 중간본으로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여헌선생문집(旅軒先生文集). 목판본. 19 세기 말경 간행. 목록, 원집 13 권, 속집 10 권 합 12 책. 10 행 20 자. 21.3×17.4(cm). 상하이엽화문어미(上下二葉花紋魚尾). 원집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 〈811.98-장현광-여-나〉속집 :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장본〈811.98-장현광-여-속〉.

구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집은 맨 앞에 목록이 실려 있다. 서는 없다.

권 1~3 은 사(詞), 부(賦), 시(詩), 소(疏)이다. 〈알포은선생화상사(謁圃隱先生畵像詞)〉는 정몽주(鄭夢周)가 향사된 영천 임고서원을 가보고 지은 사이다. 부 5 편 가운데 〈야은죽부(冶隱竹賦)〉는 54 세 때 금오산을 유람하고 이곳에 우거하였던 야은 길재가 심은 대나무를 읊은 것이다. 저자가 이들의 학풍을 이어 임고서원과 길재를 향사한 오산서원, 금오서원에 모두 배향된 사실의 이해에 도움을 준다. 시는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사운, 칠언사운, 오언장편, 칠언장편의 시체별 분류인데 각 시체 내의 분류 원칙은 불분명하다. 전체적으로 〈와류당십영(臥遊堂十詠)〉, 〈입암십삼영(立巖十三詠)〉 등 영천, 선산, 인동의 경치를 읊은 시가 가장 많고, 오언사운에는 문천상(文天祥)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다수이고, 정구, 유성룡, 박성 등의 만장이 실려 있다. 초간본과는 칠언사운의 〈무제(無題)〉 시가 〈분포(盆蒲)〉 시로 교체된 차이만 있다.

소는 1603 년 50 세에 올린 〈의사의성현령소(擬辭義城縣令疏)〉부터 1636 년 83 세에 올린 〈사사약물소(謝賜藥物疏)〉까지 36 편이 저작연대순으로 실려 있다. 특히 1623 년 인조 반정 이후 지평, 공조 참의 등 계속된 관직 제수를 사양하는 상소가 많다. 1633 년 80 세에 올린 〈응지진언소(應旨進言疏)〉는 진변(震變)으로 인한 응지 상소로, 뒤에 정진(貞震) 8 괘(卦)와 회진(悔震) 8 괘의 16 괘 배진(排陳)을 붙여 상의 공구수성(恐懼修省)을 촉구한 내용이다.

권 4~5 는 서인데, 권 5 에 문목에 답한 서를 따로 모아 놓았다. 정사진(鄭四震), 장광한(張光翰), 신열도(申悅道) 등의 문인, 오산, 임고, 정산, 천곡 서원 등에 답한 편지와 역시 이들의 문목에 답한 편지들이다. 문목에는 주로 상례와 제례에 대한 질문이 많다.

권 6~8 은 잡저이다. 22 편 가운데 〈학부명목회통지결(學部名目會通旨訣)〉, 〈사물론(事物論)〉, 〈인심도심설(人心道心說)〉, 〈심설(心說)〉, 〈도통설(道統說)〉 등에서는 퇴계(退溪)나 율곡(栗谷)과는 다른 면모를 지닌 저자의 이기론(理氣論)을 읽을 수 있다. 〈문설(文說)〉에서는 육경(六經)을 존중하여 고문으로 돌아갈 것을 말하였고, 〈노인사업(老人事業)〉, 〈모령인사(▣齡人事)〉는 노인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적었고, 〈좌벽소원(座壁所題)〉에는 평소 지닐 심법(心法)을 도표로 만들어 설명하였다. 〈여헌설(旅軒說)〉은 44 세에 자호를 짓고서 쓴 글이고, 〈주왕산록(周王山錄)〉도 44 세에 주왕산을 유람하고 쓴 행록(行錄)이다.

권 8~10 은 서(序), 기(記), 발(跋), 론(論), 명(銘), 상량문(上樑文)이다. 서 4 편 가운데 〈역학도설서(易學圖說序)〉는 저자가 지은 《역학도설》의 서이다. 기 7 편에는 부지암정사와 입암정사, 모원당 등 우거하며 강학한 곳의 기문이 실려 있다. 발 13 편에는 《야은집(冶隱集)》, 《고봉집(高峯集)》, 《서애집(西厓集)》의 발 등이 있다. 논 2 편 가운데 〈문무일체론(文武一體論)〉에서는 문(文)은 경(經), 리(裏)가 되고 무(武)는 위(緯), 표(表)가 되어 일체임을 강조하였다.

권 11~13 은 축문, 제문, 비명, 묘갈, 묘지, 행장이다. 오산서원 등의 축문, 정구, 성혼(成渾), 박성 등의 제문, 김굉필(金宏弼)의 신도비명, 하위지(河緯地), 장잠(張潛) 등의 묘갈, 정유(鄭瑜) 등의 묘지, 정구, 박성의 행장이다.

속집도 맨 앞에 목록이 실려 있다.

권 1 은 사(詞), 부(賦), 시(詩)이다. 시는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사운, 칠언사운, 오언장편, 칠언고시, 육언의 시체별 분류이다. 원집과 마찬가지로 문천상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많으며, 이 외에 차운시와 화운시, 만시와 증시가 원집에 비해 많이 실려 있다. 육언(六言)의 〈범주부지암(泛舟不知巖)〉은 62 세 때 문인 정사진 등과 부지암 아래서 뱃놀이하면서 지은 시이다.

권 2 는 소(疏), 서(書), 답문목(答問目)이다. 소는 의소(擬疏)와 의차(擬箚) 1 편씩이다. 의소는 1635 년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상(喪) 이후 괴변의 소식을 듣고서 지은 권면의 상소이고, 의차는 연강(筵講), 성지수원대(聖志須遠大) 등 5 조로 나누어 권면한 차자이다. 서는 원집과 마찬가지로 정사진, 신열도, 김응조 등의 문인과 임고서원 등에 답한 편지가 대부분이고, 김장생(金長生)에게 답한 편지도 있다. 답문목 가운데 〈답옥산서원(答玉山書院)〉은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문집 간행과 관련하여 옥산서원 원유(院儒)의 질문에 답한 편지로 주목된다.

권 3 은 장(狀), 축문(祝文), 제문(祭文), 뇌문(▣文), 상량문(上樑文)이다. 장은 보은 현감과 의성 현령 때 올린 글이다. 회원서원(檜原書院) 등의 축문, 김주(金澍), 김우옹(金宇▣) 등의 제문, 홍천뢰(洪天賚) 장군의 뇌문, 오산서원 충효당(忠孝堂)의 상량문이 실려 있다.

권 4~8 은 잡저(雜著)이다. 명(銘), 론(論), 기(記), 설(說), 유문(諭文) 등이 실려 있다. 또 18 세에 지은 〈우주요괄첩〉은 회진첩(會眞帖), 일원첩(一原帖), 부앙첩(俯仰帖) 등 10 첩(帖)으로 나누어 이(理), 천(天), 지(地), 인(人)의 세계를 도표로 나타내어 설명한 것이고, 〈만학요회〉는 저자의 《성리설》에 실린 〈만학요회(晩學要會)〉의 초초(初草)이다. 〈녹의사질(錄疑▣質)〉은 《대학》과 《중용》의 편차나 내용 가운데 의심나는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혀 놓은 글이다. 〈평설(平說)〉과 〈구설(究說)〉은 자신이 틈틈이 적어놓은 이기론을 함께 엮은 글이고, 〈관의(冠儀)〉와 〈혼의(婚儀)〉는 각기 그 절차를 자세히 설명해 놓은 글이다. 〈갑자추조록(甲子趨朝錄)〉은 1624 년 인조와 원자를, 〈병인추조록(丙寅趨朝錄)〉은 1626 년 인조와 세자를 만나 문답한 내용을 적어 놓았다.

권 8 뒤부분은 비갈지명(碑碣誌銘), 행장이다. 김담(金淡)의 신도비명, 이민성(李民宬)의 묘지명 등과 조호익(曺好益)의 행장, 이규문(李奎文)의 행록이다.

권 9~10 은 부록이다. 조임도의 〈취정록(就正錄)〉, 신열도의 〈배문록(拜門錄)〉장내범(張乃範) 등의 〈기문록(記聞錄)〉김경장(金慶長) 등의 〈경원록(景遠錄)〉등 문인들의 기록과 정종조(正宗朝)의 사제문, 신홍망(申弘望) 등이 지은 제문 등이 실려 있다.

6. 국 역

국역서는 1996 년부터 간행하기 시작하여 1999 년까지 해마다 1 책씩 총 4 책으로 완간되었다. 1 집은 원집 권 1 에서 원집 권 6 까지, 2 집은 원집 권 7 에서 원집 권 13 까지, 3 집은 속집 권 1 에서 속집 권 5 까지, 4 집은 속집 권 6 에서 속집 권 10 까지이다. 국역자는 성백효이다.

제 1 권 / 시(詩)

연경에 가는 신진보(申晉甫) 열도(悅道) 에게 주다. 병설(幷說)

13世 열도(悅道) 父 : 흘(仡)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난재공파(懶齋公派)

君子於道理見得透。於德性養得完。故所往無不通。所遇無不安焉。遠邇皆吾路也。夷險皆吾地也。難易皆吾事也。直可以一視之耳。顧自定者吾心。當盡者吾義而已。吾賢契价國使。今有萬里之行。衆莫不以蹈險涉海爲相慰。我獨以賀辭奉致焉。惟能靜者爲能動。能藏者爲能發。賢契之能靜能藏者雅矣。今其能動能發之秋乎。吾人參三才之中。居五倫之間。身繫偏方。生不見上國而終者。亦一長恨也。作一生壯遊。得天下大觀。非丈夫志願乎。若夫克贊奉命。臨機善應。用塞使乎之望。賁揚我君相之忠貞。則自有道焉。忠信篤敬。正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非賢契之所宿講者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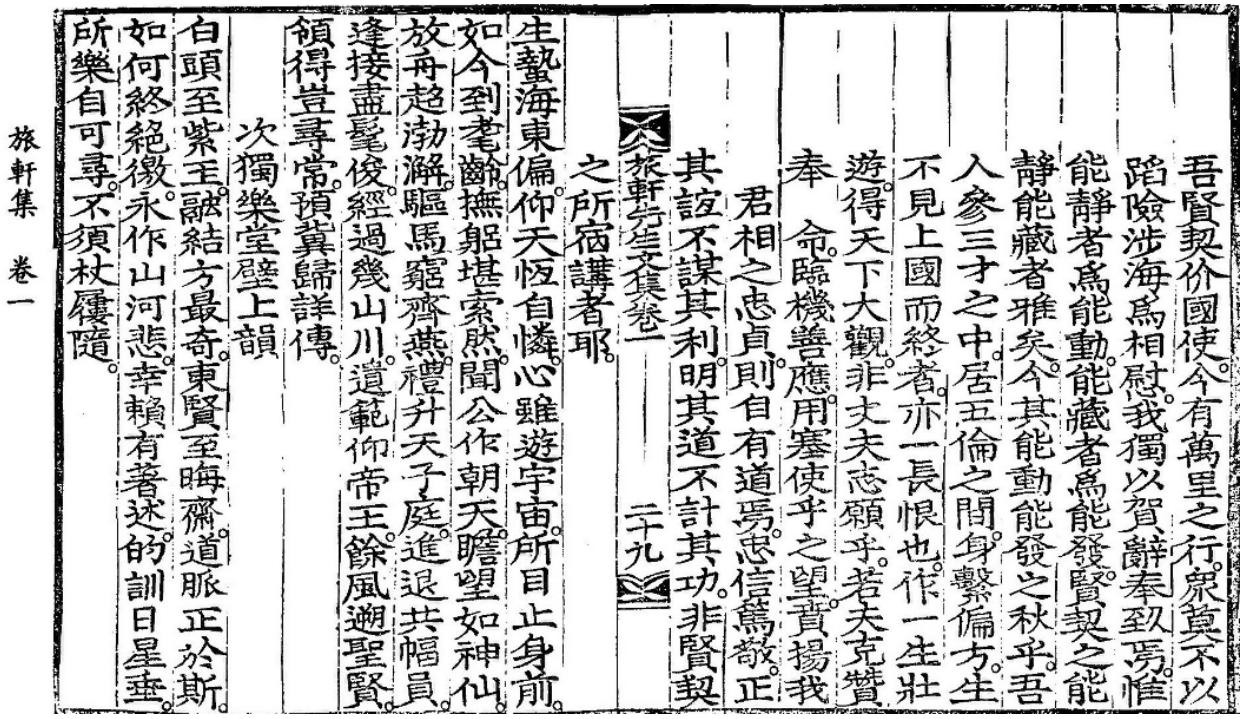
生蟄海東偏。仰天恒自憐。心雖遊宇宙。所目止身前。如今到耄齡。撫躬堪索然。聞公作朝天。瞻望如神仙。放舟超渤澥。驅馬窮齊燕。禮升天子庭。進退共幅員。逢接盡髦俊。經過幾山川。遺範仰帝王。餘風遡聖賢。領得豈尋常。預冀歸詳傳。

군자(君子)는 도리를 봄이 통투하고, 덕성(德性)을 기름이 완전하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통하지 않음이 없고 만나는 바마다 편안하지 않음이 없어 멀고 가까운 것이 모두 나의 길이요, 평탄하고 험한 것이 모두 나의 땅이며, 어렵고 쉬운 것이 모두 나의 일이니, 오직 한결같이 볼 뿐이다. 다만 스스로 정해진 것은 나의 마음이요, 마땅히 다해야 할 것은 나의 의리일 뿐이다. 나의 현계(친구를 가리킴)가 국가의 사신(使臣)으로 선발되어 만리의 길을 떠나게 되니, 사람들은 모두 험한 길을 걷고 바다를 건너는 것을 서로 위로하였으나 나만은 홀로 축하하는 말을 받들어 올리는 바이다. 오직 고요한 자만이 동할 수 있고 감추는 자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현계가 고요하고 감춘 지가 오래되었으니, 지금이 바로 동할 수 있고 발할 수 있는 시기일 것이다. 우리 인간은 삼재(三才)의 가운데에 참여하고 오륜(五倫)의 사이에 있는데, 몸이 편벽된 한 지방에 태어나 상국(上國)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 또한 유구한 한(恨)이다. 일생에 큰 유람을 하여 천하의 큰 구경을 하는 것이 대장부의 원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사명(使命)을 잘 받들어 임기응변해서 훌륭한 사신의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 군주와 정승의 충정(忠貞)을 선양하는 것으로 말하면 자연히 도리가 있으니, 말을 충신(忠信)하게 하고 행실을 독경(篤敬)하게 하며, 의(義)를 바루고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며, 도(道)를 밝히고 공을 따지지 않는 것인데, 이는 현계가 평소 강구한 바가 아니던가.

해동의 궁벽한 곳에 태어나니 / 生蟄海東偏
하늘을 우러러 항상 스스로 서글퍼하였네 / 仰天恒自憐

마음은 비록 우주에 놀고 있으나 / 心雖遊宇宙
눈은 몸 앞에 그치고 말았지 / 所目止身前
지금 늙은 나이에 이르러 如今到耄齡
몸을 어루만지며 서글퍼하네 / 撫躬堪索然
공이 연경(燕京)에 간단 말을 듣고는 / 聞公作朝天
내 신선처럼 우러러 본다오 / 瞻望如神仙
배를 띄워 발해를 뛰어넘고 / 放舟超渤澥
말을 몰아 연제(燕齊) 지방에 이르리 / 驅馬窮齊燕
예로 천자의 뜰에 오르니 / 禮升天子庭
나아가고 물러남이 폭원을 함께 하네 / 進退共幅員
훌륭한 선비들 만나 접견하고 / 逢接盡髦俊
수많은 산천을 통과하겠지 / 經過幾山川
남은 법은 제왕을 우러러보고 / 遺範仰帝王
유풍은 성현을 거슬러 올라가리 / 餘風遡聖賢
보고 배움이 어찌 보통이겠는가 / 領得豈尋常
돌아와 자세히 전해주기 기대하네 / 預冀歸詳傳

只有一言贈所貴速詬談末路風氣惡物怪生庭陛
山逕旣崎嶇陰林壓壠坻豺虎窟萬穴磨牙橫道蹊
忠信與篤敬可以消羣詆此言君能守大川當利濟
次古韻題張正甫乃範軒室
疎竹植軒前貞松擁宅後坐爲此間入托盟要永久
壁上節義字書從 高皇手
送應一入京時有免新之行
今汝此一行萬里登程初男子宇內事都自胷中儲
東西南北人如見汝庭除恭約此二字卽汝所留舍
臨遣贈丁寧汝宜紳書諸
旅軒先生文集卷一 二十八
吳山感興
駄騾來僻院半旬有餘日雞狗鬧自隔江流限塵物
排牖何所對只有松與竹松留萬古趣竹是千年色
問爾何趣色使我心神別松與竹無語隨風聲更潔
一般淸意味那得吟形出呼孫奉筆硯聊寫胷中活
贈申晉甫悅道朝京并說
君子於道理見得透於德性養得完故所
往無不通所遇無不安焉遠邇皆吾路也
夷險皆吾地也難易皆吾事也直可以一
視之耳顧自定者吾心當盡者吾義而已


吾賢契价國使。今有萬里之行。衆莫不以
跼險涉海爲相慰。我獨以賀。辭奉致焉。惟
能靜者爲能動。能藏者爲能發。賢契之能
靜能藏者雅矣。今其能動能發之秋乎。吾
入參三才之中。居五倫之間。身繫偏方。生
不見上國而終者。亦一長恨也。作一生壯
遊。得天下大觀。非丈夫志願乎。若夫克贊
奉 命。臨機善應。用塞使乎之望。實揚我
君相之忠貞。則自有道焉。忠信爲敬。正
其誼不謀其利。明其道不計其功。非賢契
之所宿講者耶。
生蟄海東。偏仰天恆。自憐心雖遊宇宙。所目止身前。
如今到老齡。撫躬堪索然。聞公作朝天瞻望。如神仙
放舟趨渤澥。驅馬窮齊燕。禮升天子庭。進退共幅員。
逢接盡髦俊。經過幾山川。遺範仰帝王。餘風遡聖賢。
領得豈尋常。預冀歸詳傳。
次獨樂堂壁上韻
白頭至紫玉。融結方最奇。東賢至晦齋。道脈正於斯。
如何終絕徼。永作山河悲。幸賴有著述。的訓日星垂。
所樂自可尋。不須杖屨隨。

제 4 권 / 서(書)
신진보(申晉甫)에게 답함 2편

數日前。已聞賢侍被赴京之命。玆奉來書。其傳果爾矣。凡人一小出入。莫非數焉。况萬里之行乎。想吾左右。知守堅定。有何絲毫之動哉。仍料得忠信素積。必賴神相之休。豈可以慮外之艱爲慮哉。第未認發行之前。或可歸辭于家廟耶。若爾則須圖奉別是計。因便示及。幸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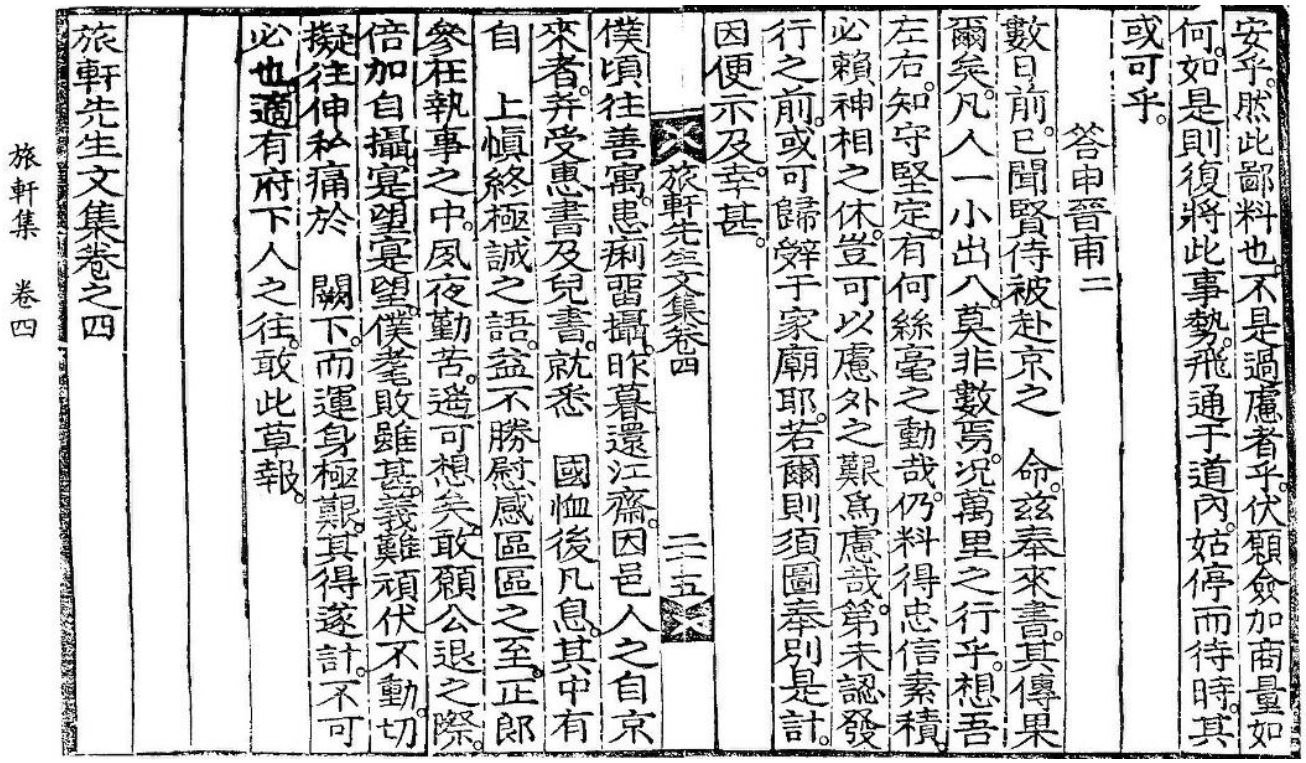
僕頃往善寓。患痢留攝。昨暮還江齋。因邑人之自京來者。幷受惠書及兒書。就悉國恤後凡息。其中有自上愼終極誠之語。益不勝慰感區區之至。正郎參在執事之中。夙夜勤苦。遙可想矣。敢願公退之際。倍加自攝。寔望寔望。僕耄敗雖甚。義難頑伏不動。切擬往伸私痛於闕下。而運身極艱。其得遂計。不可必也。適有府下人之往。敢此草報。

며칠 전에 이미 현시(賢侍)가 서울로 올라오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보내온 편지를 받들어 읽어보니, 그 소식이 과연 옳았소. 무릇 사람이 한 번 작은 출입을 하는 것도 모두가 운수인데 하물며 만리 먼길을 가는 것이겠소. 상상컨대 우리 좌우(左右)는 지식과 지킴이 굳게 정해졌으니, 어찌 털끝 만큼인들 동요함이 있겠소. 인하여 생각하니, 충신(忠信)이 평소 쌓여서 반드시 신명(神明)의 아름다운 도움을 얻을 것이니, 어찌 의외의 어려움을 염려할 것이 있겠소.

다만 출발하기 전에 혹 돌아와 가묘(家廟)에 하직인사를 드릴지 모르겠소. 만일 그렇다면 모름지기 삼가 작별을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하니, 인편에 말해주면 매우 다행이겠소.

나는 지난번 선산(善山)의 집에 갔다가 이질(痢疾)을 앓아 머물러 조리하고는 어제 저녁에 강재(江齋)로 돌아왔는데 서울로부터 내려온 고을 사람편에 보내준 편지와 아이의 편지를 함께 받아 국상(國喪) 후의 모든 소식을 자세히 알았소. 그 가운데에 성상(聖上)께서 상사(喪事)를 신중히 하여 정성을 지극히 하신다는 말이 있었으니, 더욱 구구한 마음이 위로되고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겠소.

정랑(正郎)은 집사(執事)로서 참여하고 있으니, 밤낮으로 수고롭고 괴로움을 멀리서도 상상이 되오. 감히 바라노니, 관청에서 물러나왔을 때에 더욱더 스스로 조섭하기를 참으로 바라고 바라오. 나는 노쇠함이 비록 심하나 의리상 그대로 엎드려 움직이지 않기가 어려우니, 한번 서울에 올라가 대궐 아래에서 사사로운 슬픔을 펴려 하나 몸을 움직이기가 지극히 어려우므로 이 계획을 이룰 수 있을지 기필할 수 없소. 마침 부하(府下)에서 가는 사람이 있기에 그 편에 감히 초초히 답하오.


安乎。然此鄙料也。不是過慮者乎。伏願僉加商量如何。如是則復將此事勢。飛通于道內。姑停而待時。其或可乎。

答申晉甫二

數日前。已聞賢侍被赴京之 命。玆奉來書。其傳果爾矣。凡人一小出入。莫非數焉。況萬里之行乎。想吾左右。知守堅定。有何絲毫之動哉。仍料得忠信素積。必賴神相之休。豈可以慮外之艱爲慮哉。第未認發行之前。或可歸辭于家廟耶。若爾則須圖奉別是計。因便示及幸甚。

僕頃往善甯。患痢留攝。昨暮還江齋。因邑人之自京來者。幷受惠書及兒書。就悉 國恤後凡息。其中有自 上愼終極誠之語。益不勝慰感區區之至。正郎參在執事之中。夙夜勤苦。遙可想矣。敢願公退之際。倍加自攝。是望是望。僕耄敗雖甚。義難頓伏不動。切擬往伸私痛於 闕下。而運身極艱。其得遂計。不可必也。適有府下人之往。敢此草報。

제 5 권 / 문목에 답함[答問目])
신진보(申晉甫)에게 답함 2편

問。發引時。父母喪。當何先後。而下棺時。亦何先後耶。

葬如先後其期。則先輕後重。常禮也。若同日發引。則似當尊喪在先。下棺亦如之。

陷中書式。據儀節則當書曰明故某。而今人或有書有明朝鮮故某云。當如何書耶。

陷中之題。我國人以有明朝鮮故某書之者。以別於中國也。或於朝鮮下有國字。

按家禮。司馬公曰。府君夫人。共爲一櫝云。當爲合櫝否。大小祥時。何以爲之耶。

考妣同日而葬。同時題主。則當共一櫝。至大小祥時節次。當從容講究。或問於知禮之人。如何。

按家禮祔祭條。若喪主非宗子。而與繼祖之宗異居。則宗子爲告于祖。而設虛位以祭云。當從此禮否。廬墓則亦何以爲之耶。

祔時設虛位以祭。雖於廬墓。恐當從此禮也。

按家禮。凡於忌日。只祭一位。况此初朞幷祭考妣。尤爲未安。似當奉出當次神主。行祭於別處。而廬次狹隘。無奉出行祭之所。未知何以爲之耶。小生家自祖先。每當忌日。幷祭考妣。抑可從祖先。幷祭考妣耶。若幷祭考妣。則祝文當如何書耶。妣朞似當服齊衰行祭。而若幷祭於考。則似爲未安。亦何以爲之耶。

並有喪。妣朞在考朞之先。則先練之祭。舊服新服。皆當自異。又有易服節次。以禮言之。決不可幷祭于考位。似須別用幃幕。設位於便近之所而行之。但奉出妣主時。當有告辭。孤哀子某今以顯妣某封某氏初忌之辰。敢奉神主。出就他位。

考朞若並祭於妣。則外客來奠。似難入參。未知何以處之耶。

考朞。外客爲尊位而來奠。則不可以妣主同櫝。辭而拒之。但主各有韜。則外客入奠時。妣主不去韜。如何。

按家禮有曰。設次陳練服。而退溪先生答西川君問目。有正服不可變之說。然則禮所謂練服者。指何服而言耶。今人於正服上。只去衰負版辟領。漉濯其服而服之。此可從之耶。若以正服不變之說而觀之。則漉濯亦似未安。未知何以爲之耶。又按儀節註。練服。中衣之承衰者也。所謂中衣。卽今正服裏所著之衣乎。正服旣不可變。則家禮所謂練服。亦指中衣而言耶。此衣今已弊綻。欲爲改製。無乃未安耶。

練服。乃練中衣也。正服則不練。但練時正服。升數稍細。則古人亦必用他布製之。而衰負版辟領。皆在所去矣。今人只見練服之文。以爲正服當練。遂漉舊服而仍之者。甚非矣。中衣之練。亦宜用他布改製。恐非未安也。

儀節。又有練冠葛帶繩屨之文。今人亦行否。

服旣練之。則冠必用練。非所疑也。帶屨易以葛繩。禮亦然矣。第未見今人之用之者。蓋有之矣而未之見耶。某本不能博觀禮書。今適出在江齋。無冊可考。且老昏莫記舊閱。只以今日所料及者。奉報以稟之。非敢以爲必是而可行也。伏願廣問于精博之人而用之。期無憾於自致之地則幸矣。國俗喪禮。固多疎脫。而或習常不能自別。又或貧窶不能辦得者。例且因循。惟在僉孝侍隨時酌宜從俗。而無甚妨於義理則從之。亦豈不可乎。且行衆人之所不行。至於駭俗則可懼。亦不可不慮也。

前承孝問。曾未有見於變禮之文。而只以謬見奉報。深悚。第復思之。齊衰旣壓于斬衰。凡事一以重喪之義行之。則今於先朞之日。位不別設。惟當共設殷祭如常。而盡其哀痛之情而已。不行易服之節以過之。待重喪之朞。以斬服備行練禮節目。或是從俗用簡之宜耶。如此則于先朞闕了練節。恐又未安耶。伏願與前所奉報之說。參酌如何。

今此葬時。不可無告文。而家禮遣奠告辭永訣終天四字。似當改之。何以書之耶。

遣奠告辭末終天二字。不合用於妻喪。只當曰玆焉永訣如何。

題主則世俗稱以亡室某郡某氏。此是合禮否。當如何書之耶。

題主隨俗稱亡室。似未爲不可。但於某郡上隨夫職有邦典之稱。此則須當隨時書之。不爲例耶。

告文則世俗稱以夫某官姓名。此亦合禮否。題主祝文中。如昭告尊靈等語。因存不改否。當如何書之耶。

妻喪凡事。夫皆主之。則告事之文。稱夫姓名。自當然矣。但不須言其官職。無乃可乎。蓋具官職稱之者。須稱於尊前故也。題主告文中昭告之昭字。不須書。尊靈之尊。易以明字如何。

初虞祝文。夙興夜處。哀慕不寧等語。似當改之。當如何書之耶。哀薦祫事四字。亦當改之耶。再虞而稱虞事。三虞卒哭而稱成事。皆不變文耶。

初虞告文夙興夜處哀慕不寧二句。於妻喪則去之。若祫事虞事成事等文。不可變。只當改薦字用奉字。如何。

卒哭祝文哀薦成事下云。來日隮祔于祖考某官府君。而祔祭時無告文於亡者。卒哭旣以隮祔爲告。故不爲祝文耶。抑壓於祖考妣而不爲之耶。

祔祭時。豈無告文於亡者乎。所謂祝版同前。但云薦祔事于先考某官府君。適于某考某官府君尙饗云者。非亡者前告辭乎。若喪主非宗子。而以宗子告之。則其於所祔之主及新主。皆當隨宗子所稱。

按家禮立喪主註。凡喪。父在父爲主。又曰。子孫執喪。祖父拜賓。旣曰父爲主云爾。則凡祭奠等事。似皆主之。而且曰。子孫執喪。祖父拜賓云爾。則所謂爲主者。但指拜賓一節。而不及於祭奠等事耶。

父常總領家事。故有喪亦主之。拜賓。卽其大節也。

告辭一節。無可考。以祖與父書之耶。以子孫執喪者書之耶。若以子孫書之。則子當爲初獻。祖與父雖同參其祭。而終無饋奠之禮耶。今此告辭。當何以書之耶。

子孫執喪饋奠。則執喪者。當以其名告辭。而行初獻。亞獻終獻。則服中人行之。

亡者當喪而死。則未葬前饋奠時。不用魚肉一節。昔年曾已稟質矣。葬後則至何祭而始用魚肉耶。

魚肉。恐自初虞用之爲宜也。

亡者喪服。永窆時何以處之耶。

葬日埋藏于便旁。其或可乎。

今墾日欲設練祭。告文當如何書之耶。

家長告辭曰。日月不居。奄及練朞。悲悼之懷。自不堪任。敢以淸酌庶羞。奉陳常事。此乃鄙家亡室練時所用故寫送。

朞祥家長告辭。當依練時所用。但奄及下。當曰朞祥。而常事改曰祥事耶。

日月不居。奄及周歲。朞制有限。悲悼不堪。敢以淸酌時羞。奉陳祥事。此賤家妻祥所用告辭。謄上。可用則用之。

祥禫後不徹几筵。仍行朝夕上食。旣已聞命矣。上食時當止哭。而朔望亦爲不哭耶。家長過禫。則不參朔望饋奠耶。有吊者。則喪者當依三年喪受吊之禮耶。

祥後上食。乃權設也。喪已除焉。復何得有哭乎。朔望同焉。若家長參之。未爲不可。亦不必參也。如鄙人耄病者。不能參矣。凡受吊者。家長也。家長旣除喪。則復何有受吊之禮乎。若切親喪後初來。欲拜几筵。則心喪子弟。泣謝可也。

喪者。冠用黲巾。網巾亦用黲布爲之耶。鞋則著繩屨耶。

冠用黲布。巾亦用黲。似乎可也。屨用繩。亦宜耶。

禫事當卜遠日爲之耶。

十五月之內。或丁或亥。擇其可用之日爲之。如何。告辭月及十五。奄是禫辰。朞制當終。悲悼不已。敢以淸酌時羞。玆奉禫事。

亡兄喪柩。夏月由水路下來。銘旌未免沾濕。經夏之後。塵霾色渝。欲爲改書。未知何如。

改書無妨。

悅道當初兒喪。承訃塞外。無家禮可考。因一士人指揮。服杖朞。未知如何。初朞已迫。而尙未經葬。過葬後欲爲脫服。未知如何。祭時亦欲略敍爲之。敢此仰稟。

承重家之長子。斬衰三年。其服也。若次子之長子。則朞服而已。未聞有杖。然必有詢問處。後當承喻。凡服未葬。則雖過月數。姑留之。葬後始除。乃禮也。略敍之詢。未知欲伸慈懷於亡胤耶。古人告死之文。不煩。孔聖哭鯉之辭。無傳。延陵季子瘞子之告。亦略。此可驗也。然慈情所極。何敢禁抑哉。

亡兒神主。當何以書之耶。

無傍題。粉面但題曰亡子某名神主。陷中則明朝鮮故秀才申璣字某神主。

亡兒葬時題主及虞祭。不可無告辭。告者以何人書之耶。

凡一家之喪。家長主之。當以以父告子之辭爲之。不擧父名。如延陵季子埋子之辭。其例也。

子婦舊墳。幷遷同穸。考喪禮備要。遷葬則只行虞祭於墓所靈座。前今當依此爲之耶。

若兩葬皆遷葬。則依遷墓儀可也。如或夫喪乃新穸。則當從新葬之儀。

묻습니다. 발인(發引)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을 마땅히 누구를 먼저하고 누구를 뒤에 하여야 하며, 하관(下棺)할 때에 또한 누구를 먼저하고 누구를 뒤에 하여야 합니까?

장례하는 시기를 만약 먼저하고 뒤에 한다면 가벼운 상을 먼저하고 중한 상을 뒤에 하는 것이 떳떳한 예이오. 그러나 만약 똑같은 날에 발인한다면 높은 상이 앞에 있어야 할 듯하니, 하관도 또한 이와 같이 하여야 할 것이오.

함중(陷中)의 서식(書式)을 《의절(儀節)》에 근거하면 마땅히 '명고모(明故某)'라고 써야 할 터인데, 지금 사람들은 혹 '유명조선 고모(有明朝鮮故某)'라고 쓰는 경우가 있으니, 어떻게 써야 합니까?

함중에 쓰는 것을 우리 나라 사람들이 '유명조선고모'라고 쓰는 것은 중국과 구별하기 위한 것인바, 혹은 '조선'의 아래에 국(國) 자가 있소.

《가례》를 살펴보면 사마공(司馬公)이 말하기를 "부군(府君)과 부인(夫人)을 함께 한 독(櫝)으로 만든다." 하였는데, 합독(合櫝)을 하여야 합니까? 대소상(大小祥) 때에는 마땅히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고(考)·비(妣)를 같은 날에 장례하고 같은 때에 신주를 쓰게 되면 마땅히 함께 한 독(櫝)을 써야 할 것입니다. 대상과 소상 때의 절차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자세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니, 혹 예를 아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어떻겠소.

《가례》의 부제조(祔祭條)를 살펴보면 "만약 상주가 종자(宗子)가 아니어서 할아버지를 잇는 종가(宗家)와 다른 데 살 경우에는 종자가 할아버지에게 고유(告由)하고 허위(虛位)를 설치하여 제사한다." 하였으니, 이 예를 따라야 합니까? 여묘(廬墓)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부묘(祔廟)할 때에 허위를 설치하고 제사하는 것은 비록 여묘할 때에라도 이 예를 따라야 할 듯하오.

《가례》를 살펴보면 무릇 기일(忌日)에 다만 한 위(位)를 제사하는데 더구나 이번 초기(初朞)에 고(考)·비(妣)를 함께 제사하는 것은 더욱 미안합니다. 마땅히 해당되는 신주를 받들어 내와 딴 곳에서 제사를 지내어야 할 듯한데, 여막(廬幕)이 너무 협소하고 받들어 내와 제사를 행할 만한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소생(小生)의 집은 선조(先祖) 때로부터 언제나 기일을 당하면 고·비를 함께 제사하였는바, 선조의 예를 따라 고·비를 함께 제사하여야 합니까? 만약 고·비를 함께 제사하면 축문(祝文)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선비(先妣)의 기(朞)는 마땅히 자최복(齊衰服)을 입고 제사를 지내어야 할 듯한데, 만약 함께 선고(先考)에게 제사한다면 미안할 듯하니, 또한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고·비가 모두 상이 있어서 선비(先妣)의 기(朞)가 선고(先考)의 기(朞)보다 앞에 있다면 먼저 연제(練祭)를 지내어야 할 것이니, 옛 상복과 새 상복이 다 마땅히 달라야 할 것이오. 또 옷을 갈아입는 절차가 있으니, 예(禮)로써 말하면 결코 함께 고위(考位)에 제사할 수 없소. 그러하니 모름지기 별도로 휘장이나 장막을 사용하여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신위(神位)를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어야 할 것이오. 다만 선비의 신주를 받들어 내올 때에 마땅히 고유하는 말이 있어야 하는바, '고애자모 금이현비모봉모씨 초기지진 감봉신주 출취타위(孤哀子某今以顯妣某封某氏初忌之辰敢奉神主出就他位)'라고 아뢰어야 할 것이오.

선고의 기(朞)에 만약 선비를 함께 제사하면 외객(外客)이 와서 제수를 올릴 때에 들어와 참례하기가 어려울 듯하니,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고의 기(朞)에는 외객(外客)이 높은 자리로서 와서 제수를 올리게 되면 선비의 신주와 독(櫝)을 함께 할 수가 없으니, 사양하여 거절하여야 할 것이오. 다만 신주에 각기 가리개가 있으면 외객이 들어와 제수를 올릴 때에 선비의 신주는 가리개를 제거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소.

《가례》를 살펴보면 위차(位次)를 설치하고 연복(練服)을 진설하는 조항이 있는데, 퇴계선생이 서천군(西川君)의 문목(問目)에 답한 내용에 "정복(正服)은 변할 수 없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에서 말한 연복(練服)이란 것은 어떤 복(服)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람들은 정복에서 다만 최(衰)·부판(負版)·벽령(辟領)을 떼고 그 옷을 빨아서 그대로 입고 있으니, 이것을 따라야 합니까? 만약 정복을 변할 수 없다는 말로 보면 정복을 빠는 것도 미안할 듯하니, 어떻게 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의절(儀節)》의 주(註)를 살펴보면 "연복은 최(衰)를 받드는 중의(中衣)이다." 하였으니, 이른바 중의라는 것은 바로 지금 정복 속에 입는 옷입니까? 정복을 이미 변할 수 없다면 《가례》에서 말한 연복이라는 것도 중의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이 옷이 이미 헤지고 터졌으므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데, 미안하지 않겠습니까?

연복은 바로 마전[練]한 중의이니, 정복은 마전하지 않는 법이오. 다만 연제(練祭)를 지낼 때에 입는 정복은 올이 다소 가느니, 옛사람들은 반드시 딴 베를 사용하여 만들었을 것이며, 최와 부판, 벽령은 다 제거하였소. 지금 사람들은 다만 연복이라는 글을 보고는 정복도 마땅히 마전하여야 한다고 여겨서 마침내 옛 상복을 빨아서 그대로 입고 있으니,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오. 중의를 마전하는 것도 딴 베를 사용하여 다시 만들어야 하니, 미안하지 않을 듯하오.

《의절》에 또 마전한 관과 칡으로 만든 띠와 노끈으로 만든 신이라는 글이 있으니, 지금 사람들이 또한 이것을 행합니까?

상복을 이미 마전하였으면 관을 반드시 마전한 베를 사용함은 의심할 바가 아니오. 띠와 신을 칡과 노끈으로 바꾸는 것은 예에도 또한 그러하나 다만 지금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마도 사용하는 자가 있는데 내가 아직 보지 못하였는가 보오. 나는 본래 예서(禮書)를 널리보지 못하였고, 이제 마침 강재(江齋)에 나와 있어서 상고할 만한 책이 없으며, 또 늙고 어두워서 옛날 본 것을 기억할 수 없으므로 다만 금일에 생각이 미치는 것만 가지고 받들어 답하니, 감히 반드시 옳다고 여겨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니오. 엎드려 바라오니 정밀하고 박식한 사람에게 널리 물어서 그것을 따라 스스로 지극히 하는 데에 유감이 없도록 하면 다행일 것이오. 우리 나라의 상례는 진실로 소략함이 많은바, 혹 세속에 익어서 스스로 각별히 하지 못하고 혹 가난하여 마련하지 못하므로 으레 우선 옛날 하던 것을 그대로 따르고 있소. 오직 여러 효시(孝侍)들이 하는 대로 때에 따라 마땅함을 참작하여 세속을 따라서 심히 의리에 해롭지 않으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또한 어찌 불가하겠소. 또 여러 사람들이 행하지 않는 것을 행하여 세속을 놀라게 하는 것도 두려운 일이니, 이것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오.

지난번 효시(孝侍)의 질문을 받았을 적에 일찍이 변례(變禮)의 글을 보지 못하고 단지 잘못된 소견으로 받들어 답하였으니, 매우 죄송하오. 다만 다시 생각하니 이미 참최에 눌려서 모든 일을 한결같이 중한 초상을 앞세우는 뜻으로 행한다면 이제 먼저의 기일(朞日)에 신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오직 함께 성대한 제수를 진설하여 평상시와 같이 제사하면서 애통해하는 정을 다할 뿐이며, 옷을 갈아입는 절차를 행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갔다가 무거

운 상의 기일(朞日)을 기다려 참최복을 입고 연례(練禮)의 절목(節目)을 갖추 행한다면 이것이 혹시 세속을 따라 간편함을 쓰는 것이 아니겠소. 이와 같다면 먼저의 기일에 연례의 절목이 빠지는바, 또 미안할지 모르겠소. 바라건대 앞에 받들어 답한 말과 참작함이 어떻겠소.

이제 이번 장례할 때에 고유하는 글이 없을 수 없는바, 《가례》의 견전 고사(遣奠告辭)에 '영결종천(永訣終天)'이라는 네 글자를 마땅히 고쳐야 할 듯하오니, 어떻게 써야 합니까?

견전 고사의 끝에 있는 종천(終天)이라는 두 글자는 아내의 상에 사용함은 마땅하지 않으니, 다만 '자언영결(玆焉永訣)'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소.

신주를 쓸 때에 세속에서는 '망실모군모씨(亡室某郡某氏)'라고 칭하는 바, 이것이 예에 합당합니까? 어떻게 써야 합니까?

신주를 쓸 때에 세속을 따라 '망실(亡室)'이라고 칭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을 듯하오. 단 '모군(某郡)'의 위에 남편의 직함(職銜)을 따라 나라에서 정해준 칭호가 있으니, 이것은 모름지기 그때 그때 쓰는 것이 준례(準例)가 되지 않겠소.

고유하는 글에 세속에서는 '부모관성명(夫某官姓名)'이라고 칭하니, 이 또한 예에 합당합니까? 신주를 쓰는 축문 가운데에 '소고(昭告)'와 '존령(尊靈)' 등과 같은 말을 그대로 두고 고치지 않습니까? 어떻게 써야 합니까?

아내의 상에는 모든 일을 남편이 모두 주장하니, 일을 고유하는 글에 남편의 성명을 칭하는 것은 당연하오. 다만 굳이 그 관직을 말하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소. 관직을 갖추어 자세히 칭하는 것은 모름지기 높은 분에 대한 존칭이오. 신주를 쓰는 고유문 가운데에 '소고(昭告)'라는 소(昭) 자는 굳이 쓸 것이 없으며, '존령(尊靈)'이라는 존(尊) 자는 명(明) 자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소.

초우(初虞)의 축문(祝文)에 '숙흥야처 애모불녕(夙興夜處哀慕不寧)' 등의 말은 마땅히 고쳐야 할 듯한데, 어떻게 써야 합니까? '애천협사(哀薦祫事)'라는 네 글자도 또한 고쳐야 합니까? 재우(再虞)에는 '우사(虞事)'라고 칭하고 삼우(三虞)와 졸곡(卒哭)에는 '성사(成事)'라고 칭하고 모두 글을 바꾸지 않습니까?

초우의 고유문에 '숙흥야처 애모불녕'의 두 구(句)는 아내의 상에서는 빼고 '협사', '우사', '성사' 등의 글과 같은 것은 변하지 않소. 다만 천(薦) 자를 고쳐서 봉(奉) 자로 쓰는 것이 어떻겠소.

졸곡제의 축문에 '애천성사(哀薦成事)'의 아래에 '내일제부우조고모관부군(來日隮祔于祖考某官府君)'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제(祔祭)할 때에 망자(亡者)에게 고유하는 글이 없는 것은 졸곡 때에 이미 부제하는 것을 고유하였기 때문에 축문에 쓰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조고비(祖考妣)에게 눌려서 하지 않는 것입니까?

부제할 때에 어찌 망자에게 고유하는 글이 없겠소. 이른바 축판(祝版)이란 것은 전과 같고, 다만 '천부사우선고모관부군 적우모고모관부군 상향(薦祔事于先考某官府君適于某考某官府君尙饗)'이라고 말한 것이 망자 앞에 고유하는 말이 아니겠소. 만약 상주가 종자(宗子)가 아닌데 종자로서 고유한다면 부제하는 신주와 새 신주에 모두 종자의 칭하는 바를 따라야 할 것이오.

《가례》에 상주를 세우는 주를 살펴보면 "모든 상에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아버지가 주장이 된다." 하였고, 또 이르기를 "아들과 손자는 상례를 집행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손님에게 절한다." 하였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주인이 된다고 말하였으면 모든 제사와 제수를 올리는 등의 일을 모두 주관하여야 할 듯한데, 또 아들과 손자는 상례를 집행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손님에게 절한다고 말하였으니, 이른바 주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손님에게 절하는 한 절차를 가리킬 뿐이며, 제사하고 제수를 올리는 등의 일에는 미치지 않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항상 가사(家事)를 총괄하기 때문에 상이 있으면 또한 주장하는 것이니, 손님에게 절하는 것은 바로 그중 큰 절차인 것이오.

고유하는 말의 한 절(節)은 상고할 만한 것이 없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로 써야 합니까? 상례를 집행하는 아들과 손자로 써야 합니까? 만약 아들과 손자로 쓸 경우에는 아들이 마땅히 초헌관(初獻官)이 되어야 할 것이니,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비록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더라도 끝내 궤전(饋奠)하는 예가 없는 것입니까? 이번에 고유하는 말을 어떻게 써야 합니까?

아들과 손자가 상례를 집행하고 궤전(饋奠)하면 상례를 집행하는 자가 마땅히 그 이름으로 고유하고 초헌을 행하여야 하며, 아헌(亞獻)과 종헌(終獻)은 복을 입은 사람 중에서 행하여야 하오.

망자(亡者)가 상을 당하여 죽으면 장례하기 전에 제수를 올릴 때에 어육(魚肉)을 쓰지 않는다는 한 예절은 지난해에 이미 여쭈어 본 적이 있습니다. 장례 뒤에는 어느 제사에 이르러 비로소 어육을 써야 합니까?

어육은 초우 때로부터 쓰는 것이 마땅할 듯하오.

망자의 상복을 영폄(永窆)할 때에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장사지내는 날에 근처 편리한 곳에 매장하는 것이 혹 가하지 않겠소.

이번 보름에 연제(練祭)를 지내고자 하는데, 고(告)하는 글을 마땅히 어떻게 써야 합니까?

가장(家長)의 고사(告辭 축문)에 '일월불거 엄급연기 비도지회 자불감임 감이청작서수 봉진상사(日月不居奄及練朞悲悼之懷自不堪任敢以淸酌庶羞奉陳常事)'라고 썼으니, 이는 바로 저희 집에 망실(亡室)의 연제(練祭) 때에 쓰던 것이므로 써서 보내오.

기상(朞祥)에 가장(家長)의 고사는 마땅히 연제(練祭) 때에 쓰는 것을 따라야 하겠으나 다만 '엄급(奄及)'이라는 아래에 마땅히 '기상(朞祥)'이라고 말하여야 하며, '상사(常事)'는 '상사(祥事)'라고 고쳐야 합니까?

'일월불거 엄급주세 기제유한 비도불감 감이청작시수 봉진상사(日月不居奄及周歲朞制有限悲悼不堪敢以淸酌時羞奉陳祥事)'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저희 집 아내의 대상(大祥)에 쓰던 고사이므로 등사하여 올리는 것이니, 쓸 만하면 쓰시오.

상제(祥祭)와 담제(禫祭) 이후에 궤연(几筵)을 철거하지 않고 조석에 상식(上食)을 올리는 것은 이미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상식할 때에는 곡을 그쳐야 하며, 초하루와 보름에도 곡하지 않습니까? 가장이 담제가 지났으면 초하루와 보름의 궤전(饋奠)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조문하는 자가 있으면 상주가 3 년상에 조문을 받는 예를 따라야 합니까?

대상이 지난 뒤에 상식하는 것은 바로 권도(權道)로 만든 것이니, 상복을 이미 벗었으면 다시 어찌 곡이 있을 수 있겠소. 초하루와 보름도 이와 같소. 가장이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지 않으나 또한 굳이 참여할 것이 없소. 나와 같이 늙고 병든 자는 참여하지 못하오. 무릇 조문을 받는 자는 가장이니, 가장이 이미 상복을 벗었으면 다시 어찌 조문을 받는 예가 있겠소. 만약 매우 친한 사람이 초상 뒤에 처음 와서 궤연에 참배하고자 한다면 심상(心喪) 중에 있는 자제들이 울며 인사하는 것이 가할 것이오.

상자(喪者)의 관(冠)은 참색(黲色)의 두건을 쓰니, 망건도 참색의 삼베를 사용하여 만듭니까? 신은 노끈으로 만든 신을 신습니까?

관을 참색 삼베를 사용한다면 망건 또한 참색을 쓰는 것이 가할 듯하오. 신은 노끈을 사용하는 것이 또한 마땅하겠소.

담제는 먼 날짜를 점쳐서 지내어야 합니까?

15 개월 이내에 혹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 중에 쓸 만한 날을 가려서 제사하는 것이 어떻겠소. 고(告)하는 말은 '월급십오 엄시담진 기제당종 비도불이 감이청작시수 자봉담사(月及十五奄是禫辰朞制當終悲悼不已敢以淸酌時羞玆奉禫事)' 라고 쓰면 될 것이오.

망형(亡兄)의 영구(靈柩)가 여름철 물길을 따라 내려와서 명정(銘旌)이 젖음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여름을 지난 뒤에는 먼지가 끼고 색깔이 변하였으므로 다시 쓰고자 하는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쓰는 것도 무방하오.

제가 당초 자식의 상에 변방 밖에서 부음(訃音)을 들었는데 참고할 만한 《가례》가 없었습니다. 한 선비의 지시를 따라 장기(杖朞)를 입었는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초기(初朞)가 이미 임박하였으나 아직도 장례를 치루지 못하였으므로 장례가 지난 뒤에 탈복(脫服)하고자 하는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제사지낼 때에 또한 간략히 회포를 서술하려 하는바, 이에 감히 여쭙니다.

승중가(承重家)의 장자는 참최(斬衰) 3 년복을 입는 것이 옳으며, 차자의 장자인 경우에는 기년복(朞年服)일 뿐이니, 상장(喪杖)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물을 만한 곳이 있을 것이니, 뒤에 마땅히 말씀드리겠소. 무릇 상복은 장례하지 않았으면 비록 달수가 지났더라도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장례를 치른 뒤에 비로소 벗는 것이 바로 예이오. 간략히 회포를 서술하는 것에 대한 질문은 죽은 자식에 대해 부모의 회포를 펴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소. 옛사람들은 죽은 이에게 고하는 글이 번거롭지 않았는바, 공자(孔子)께서 이(鯉)를 곡한 글이 전하지 않으며, 연릉계자(延陵季子)가 자식을 묻을 때에 고(告)한 것도 간략하니, 이것이 바로 징험할 만한 것이오. 그러나 사랑하는 정이 지극하다면 어찌 감히 금하고 억제하겠소.

망아(亡兒)의 신주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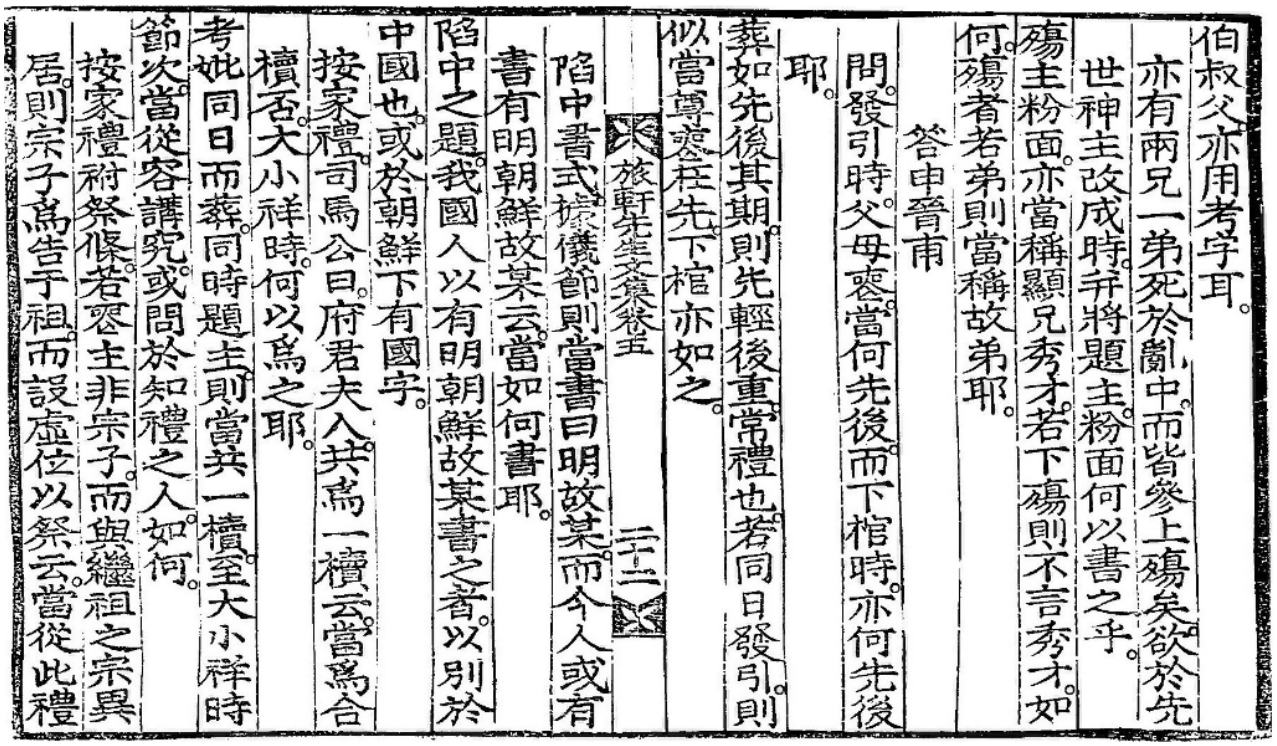
옆에 쓰는 것은 없고 분면(粉面)에 단지 '망자모명 신주(亡子某名神主)'라고 쓰며, 함중(陷中)에는 '명조선 고수재 신기자모 신주(明朝鮮故秀才申璣字某神主)'라고 쓰시오.

망아를 장례할 때에 신주를 쓰는 것과 우제(虞祭)에 고하는 말이 없을 수 없는바, 고하는 자를 어떠한 사람으로 써야 합니까?

무릇 한 집안의 상은 가장이 주관하니, 마땅히 아버지가 자식에게 고하는 말로 하여야 할 것이오. 다만 아버지의 이름을 들지 않고 연릉계자가 자식을 묻었을 때의 말과 같이 하는 것이 그 준례일 것이오.

아들과 며느리의 옛 무덤을 함께 옮겨 같이 장례하려 하는바, 《상례비요》를 상고해 보면 천장(遷葬)에는 다만 묘소(墓所)와 영좌(靈座)에 우제(虞祭)를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 하여야 합니까?

만약 두 장례가 모두 천장하는 것이면 천묘(遷墓)의 의식을 따라야 할 것이오. 그러나 만약 남편의 상이 새로 쓰는 것이라면 마땅히 새로 장례하는 의식을 따라야 할 것이오.


伯叔父亦用考字耳。
亦有兩兄一弟死於亂中。而皆參上殤矣。欲於先
世神主改成時。并將題主粉面何以書之乎。
殤主粉面。亦當稱顯兄秀才。若下殤則不言秀才。如
何。殤者若弟則當稱故弟耶。
答申嗇甫
問。發引時。父母喪當何先後而下棺時。亦何先後
耶。
葬如先後其期。則先輕後重。常禮也。若同日發引。則
似當尊喪在先下棺亦如之。
旅軒先生文集卷五 三十二
陷中書式據儀節則當書曰明故某而今人或有
書有明朝鮮故某云。當如何書耶。
陷中之題。我國人以有明朝鮮故某書之者。以別於
中國也。或於朝鮮下有國字。
按家禮。司馬公曰。府君夫人共爲一櫝云。當爲合
櫝否。大小祥時。何以爲之耶。
考妣同日而葬。同時題主。則當共一櫝。至大小祥時
節次。當從容講究。或問於知禮之人如何。
按家禮祔祭條。若妾主非宗子。而與繼祖之宗異
居。則宗子爲告于祖。而設虛位以祭云。當從此禮

속집 제 1 권 / 시(詩)

신형우(申亨雨) 달도(達道) 에 대한 만사

13世 달도(達道) 父 : 흘(仡)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溫容人所愛。恭行久彌親。正是粢盛器。堪爲班席珍。淸朝方戴獬。長道忽摧輪。此慟非私慟。邦家失吉人。

온화한 모습 사람들 사랑하였고 / 溫容人所愛

공손한 행실 오랠수록 더욱 친하였네 / 恭行久彌親

바로 종묘의 보배로운 그릇이요 / 正是粢盛器

반열의 귀중한 보배 될 만한 인물이었네 / 堪爲班席珍

깨끗한 조정에 해치관(獬豸冠)쓰고 있었는데 / 淸朝方戴獬

청운의 장도 갑자기 꺾였구려 / 長道忽摧輪

이 애통함 사사로운 애통함 아니니 / 此慟非私慟

국가에 착한 사람 잃어서라오 / 邦家失吉人

旅軒先生續集卷一 九

眞精人得會。元有自光明。不待逃倫靜。寧須廢事平。
靈源瑩自具。虛室白因生。道外何求道。功由敬字成。
和自歎賦自吟 次文文山韻
志大時逢否。寄身田社翁。吟餘眠白日。耕罷笑春風。
神逸唐虞上。心休宇宙中。窮通何適莫。惟自仰蒼空。
輓李敬亭 民宬
厚重鎭浮薄。博通兼古今。匡時懷未展。天意固難諶。
絶意紛華競。無心勢利爭。浮沈隨世路。樂道遣平生。
冰院秋初講。會同龜村半日話間中。臨分特致慇懃意。此別今成萬古終。
輓申亨甫 達道
溫容人所愛。恭行久彌親。正是粢盛器。堪爲班席珍。
淸朝方戴獬。長道忽摧輪。此慟非私慟。邦家失吉人。
輓孫季進 謙
季進今何去。雲迷日暮濱。雄詞誰與伉。直舌世爭嗔。
溪屋安窮命。江城試小仁。老夫猶未死。堪作哭君人。
輓呂陜川 大老
身世任寒暄。心胷絶怨恩。性疎繩墨地。蹤遠柄權門。
仕擬祿中隱。休同物外騫。慶昌應在後。盧下滿兒孫。
輓朴鶴巖 廷瑠

신오봉(申梧峯) 지제(之悌) 에 대한 만사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良善從初出性天。心身元不設涯邊。溫恭雅度非虛矯。樂易眞情是自然。處世未嫌藏隅角。臨民無避少鷹鸇。當年何憾靡遐福。餘慶應須嗣胤賢。

어질고 착한 성품 애당초 천성에서 나왔고 / 良善從初出性天

마음과 몸 원래부터 한계를 두지 않았다오 / 心身元不設涯邊

온화하고 공손한 큰 도량 억지로 꾸밈이 아니요 / 溫恭雅度非虛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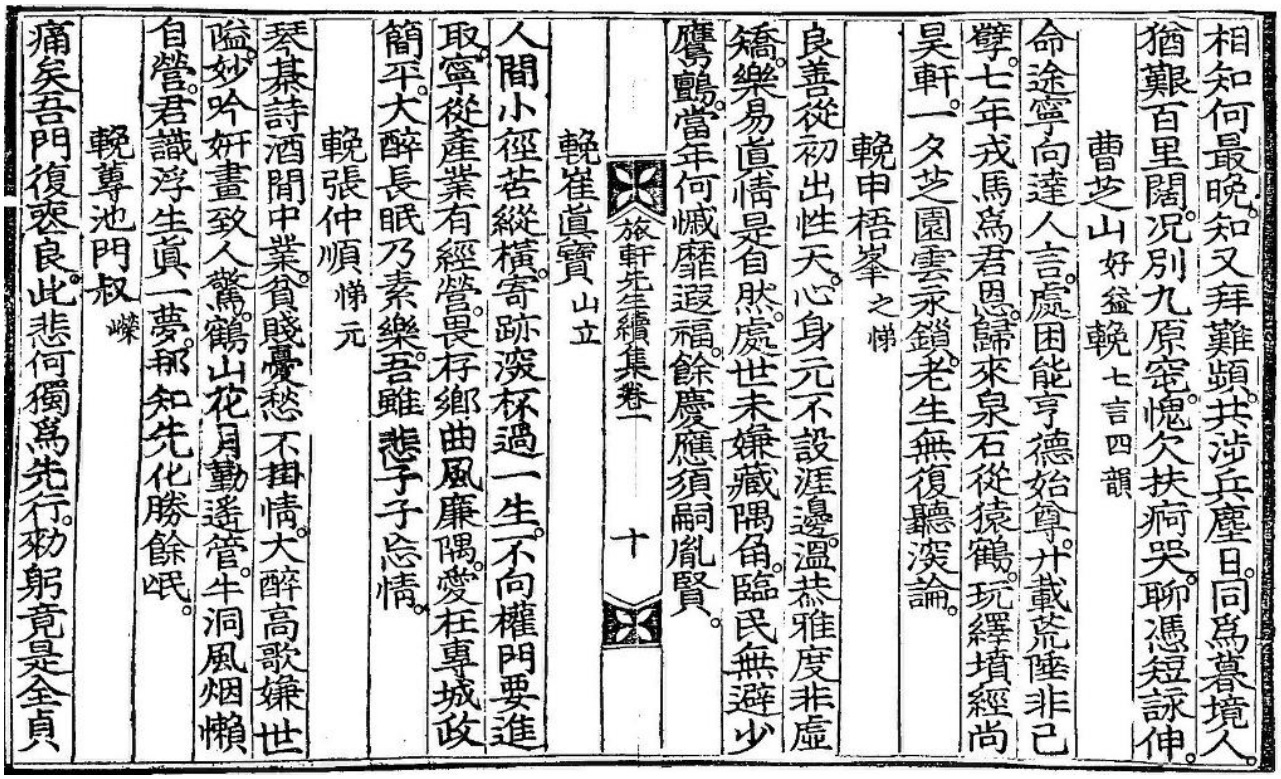
즐겁고 화평한 참다운 정 자연에서 우러나왔지 / 樂易眞情是自然

세상에 처해서는 귀퉁이에 감춰짐 혐의하지 않았고 / 處世未嫌藏隅角

백성을 대해서는 응전의 뜻 적음 피하지 않았네 / 臨民無避少鷹鸇

당년에 큰 복 누리지 못함 어이 슬퍼하랴 / 當年何憾靡遐福

남은 경사 응당 훌륭한 아들에게 있으리니 / 餘慶應須嗣胤賢


相知何最晚。知又拜難頻。共涉兵塵日。同爲暮境人。
猶艱百里闊。況別九原密。愧欠扶痾哭。聊憑短詠伸。
曹芝山好益 輓 七言四韻
命途寧向達人言。處困能亨德始尊。才載荒陲非己
擘。七年戎馬爲君恩。歸來泉石從猿鶴。玩繹墳經尚
昊軒。一夕芝園雲永鎖。老生無復聽淸論。
輓申梧峯之悌
良善從初出性天。心身元不設涯邊。溫恭雅度非虛
矯。樂易眞情是自然。處世未嫌藏隅角。臨民無避少
鷹鸇。當年何憾靡遐福。餘慶應須嗣胤賢。
旅軒先生續集卷一 十
輓崔眞寶 山立
人間小徑若縱橫。寄跡滾杯過一生。不向權門要進
取。寧從產業有經營。畏存鄉曲風廉隅。愛在專城政
簡平。大醉長眠乃素樂。吾雖悲子忘情。
輓張仲順 悌元
琴棊詩酒閒中業。貧賤憂愁不掛情。大醉高歌嫌世
隘。妙吟妍畫致人驚。鶴山花月勤遙管。牛洞風烟懶
自營。君識浮生眞一夢。那知先化勝餘哂。
輓尊池門叔 嶸
痛矣吾門復喪良。此悲何獨爲先行。勿躬竟是全貞

속집 제 2 권 / 서(書)

신진보(申晉甫) 열도(悅道) 에게 답함

13世 열도(悅道) 父 : 흘(仡)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난재공파(懶齋公派)

固知赴京之行。終不可免。則必當歸辭家廟。凡在尋常時月之別。必相敘慰。況於萬里溟海之涉乎。須計面別情實難已。而癃廢無人事。作動非所能也。所恃者。賢契志氣堅定。必不見撓於涉險。忠信素積。必能作孚於上下。今何用區區之祝哉。

진실로 북경(北京)에 가는 걸음을 끝내 면할 수 없음을 아오니, 반드시 돌아와 가묘(家廟)에 하직하여야 할 것입니다. 평상시 한 철이나 한 달의 작별이 있을 때에도 반드시 서로 만나 위로하곤 하였는데, 하물며 만 리 먼 바닷길을 건너감에 있어서이겠습니까. 모름지기 대면하여 작별하고 싶은 심정을 참으로 억제하기 어려우나 늙고 병들어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하오니, 동작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믿건대, 어진 친구의 지기(志氣)가 굳게 정해져 있으니 반드시 험한 길을 건넘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충신(忠信)이 평소에 쌓였으니 반드시 상하(上下)를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제 구구히 축원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別示奉悉。本府城主遽被意外臺論。遂自棄歸。此事實出无妄。其爲邑民。寃憫如何。竊想左右亦必想知民情。或可隨行接布。喻其不然之實耶。敢此奉懇。顯光耄委無人事宿矣。而旣聞朝家有大擧措。不可以垂死無一言。略陳耄懷。送呈于方伯。俾得轉達。殊悚出位之譴。

별도로 보여 주신 내용은 받들어 자세히 보았습니다. 본부(本府)의 성주(城主)가 갑자기 뜻밖에 사헌부(司憲府)의 논핵(論劾)을 받아 마침내 스스로 벼슬을 버리고 돌아갔으니, 이 일은 실로 터무니없는 것으로 고을 백성들의 원통하고 민망함이 어떠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건대 존공(尊公) 또한 반드시 백성들의 심정을 상상하여 아실 것이니, 혹 항렬을 따라 대하게 되시면 그렇지 않은 실제를 말해 줄 수 있겠습니까. 감히 이것을 받들어 부탁하는 바입니다.

저는 늙고 병들어 사람의 일을 하지 못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조정에서 큰 조처가 있다는 말을 이미 들었으니, 죽음에 이르렀다 하여 한 마디 말이 없을 수 없으므로 대략 노망한 소회(所懷)를 개진하여 방백(方伯)에게 올려서 전전하여 아뢰게 하였는바, 지위를 벗어난 데 대한 견책이 자못 두렵습니다.

顯光耄病方重。晝夜一睡。每念賢契遠宦朔偏。必不堪獨賢之苦。懸歎奈何。然旣作命吏。不當有厭遁之意。更須黽勉盡職。豈非忠賢分義也哉。毋以徑還爲念。

저는 늙음과 병이 심하여 밤낮으로 한결같이 잠만 자고 있습니다. 매양 어진 친구가 멀리 북쪽 변방에서 벼슬하는 것을 생각하니, 반드시 홀로 수고하는 괴로움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염려하고 탄식한들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나라의 관리가 되었으니, 싫어하여 회피하려는 뜻을 두지 마시고 모름지기 더욱 힘써 직분을 다하는 것이 어찌 충성스럽고 어진 군자의 직분과 의리가 아니겠습니까. 부디 곧바로 돌아오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積阻之苦。不須言。每想索栖寒村。豈堪無聊。卽因金訓長來。此友袖持諸圖。老病方困。雖不得詳察。惟其留意之勤。憑此可想。荷渠許留。當待病間。致閱是計。國葬。中間乍有進退之說。而不見公文。蓋是仍用卜定之期也。耄無筋力。莫遂赴哭。益切戀闕之痛。奈何奈何。應一旣自奴馬不具。頗有窘勢。擬以念五六間發程云。恐失偕行指敎之望也。賊勢不急。行由順路。不亦宜乎。貴鄕不協之勢。下示如此。豈容他人得議哉。從前知舊多員。無異共井。故妄出耄言。冀得舊知之回。而勢旣難合。則耄妄 缺 言。竟歸虛地。恨怍如何。

격조(隔阻)함이 쌓인 괴로움은 굳이 말할 것이 없습니다. 매양 빈한한 마을에 외롭게 사는 것을 생각하니, 어찌 무료한 마음을 견디겠습니까.

이제 김 훈장(金訓長)이 왔는데 이 친구가 소매에 여러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늙고 병들어 피곤해서 비록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였으나, 유념해 준 고마움은 이것을 보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머물러 두도록 허락하였으니, 병이 다소 덜하기를 기다려 한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국장(國葬)은 중간에 잠시 뒤로 물리자는 말이 있었으나 공문(公文)을 보지 못하였사오니, 아마도 택일하여 정한 날짜를 그대로 따를 듯합니다. 저는 늙어 근력이 없어서 달려가 곡할 수 없사오니, 대궐을 사모하는 애통함이 더욱 간절할 뿐입니다.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응일(應一)이 노비와 말을 갖추지 못하여 자못 곤궁한 형편에 있사온데 스무대엿새 사이에 길을 떠나려 한다 하오니, 함께 가기를 바라 지시하신 뜻을 저버릴까 두렵습니다. 외적(外賊)의 형세가 급박하지 않사오니, 순탄한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귀향(貴鄕)이 화합하지 못하는 형세를 이처럼 자세히 말씀하였는데, 어찌 타인이 함부로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종전부터 알던 친구들은 한 마을에 사는 사람과 다름이 없으므로 제

가 노망한 말을 하여 친구들이 돌아오기를 바랐으나 형세가 이미 합하기 어려우니, 노망한 원문 빠짐 말이 끝내 헛된 곳으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한스럽고 부끄러운들 어쩌겠습니까.

顯光卽於意外。召命下來。旨中辭意。有不得以安坐。不敢計路上顚仆。擬以開初登程。此豈自必於得達哉。姑有縷命。分義所不可不動於巢穴故也。

저는 이제 뜻밖에 부르는 명령을 받았사온데, 분부하신 말씀 속의 뜻이 편안히 이대로 앉아 있을 수 없사와 감히 노상에서 쓰러짐을 따지지 않고 다음 달 초에 길을 떠나고자 합니다만, 이 어찌 스스로 도달할 것을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우선 실낱 같은 목숨이 붙어 있으므로 신하가 된 의리에 살고 있는 구멍 속에서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卽因院伻。獲承惠詢。深感深感。耄蹤脫身遠來。頗有外間雜議。益悚益悚。相愛之深。累荷戒誨。敢不銘心。此後所聞。不惜通示。急傳則專人諭及。無妨。

이제 서원(書院)의 심부름꾼을 통하여 보내 주신 편지를 받자오니, 심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노망한 이 몸은 몸을 빼내어 멀리 왔사온데 외부의 이러저러한 의논들이 많사오니, 더욱 송구스럽고 더욱 송구스럽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깊어 여러 번 경계와 가르침을 받았사오니, 감히 명심하지 않겠습니까. 이 뒤로는 들리는 말씀을 아끼지 말고 알려 주시되 급하게 전할 경우에는 사람을 직접 보내시어 말씀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前後來書。是日皆得見之。就審天將領大兵。臨到我國。大擧勦滅收賊云。此乃天下第一好消息。預慰預慰。適因趙察訪任尙之偕枉相顧。方以爲峽中勝趣。時議以尊公入京不速爲咎云。望須先作洛行。以防人口。然後待秋尋見耄跡。則爲幸如何。

전후에 보내 주신 편지는 오늘 모두 보았습니다. 그 동안 천장(天將 명 나라 장수)이 대병력을 인솔하고 우리 나라에 이르러 대대적으로 왜적을 섬멸하려 한다 하오니, 이는 바로 천하에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미리 위로하고 미리 위로하는 바입니다.

마침 찰방(察訪) 조임상(趙任尙)이 함께 왕림하여 바야흐로 산중의 좋은 취미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공(尊公)이 빨리 서울로 들어오지 않는 것을 탓하고 있다 하오니, 부디 먼저 서울로 가시어 사람들의 구설(口舌)을 막은 뒤에 가을이 되기를 기다려 노망한 이 몸을 찾아와 만나 주신다면 다행함이 어떠하겠습니까.

卽奉惠問。具領至意。蘇感如何。耄躬海浴。果欲爲之者。以身上病根未除。欲以滌去。比聞海上關東漁船往來者。多以染病致隕者云。故疑慮不敢爲必動計也。勸尊侍入洛事。適因所聞。暫言未安之意。明見如是。在自酌得宜耳。耄言何足用哉。第未知天兵消息。須於後便。示以所聞如何。此中峽寓寥靜。幸賜一枉。商議大小如何。調攝之中。念及耄躬。至於倩伻以詢。情感不已。

이제 은혜로운 하문(下問)을 받들어 지극한 뜻을 자세히 아오니, 위로되고 감사함이 어떠하겠습니까. 늙은 이 몸이 해수욕(海水浴)을 하고자 했던 것은 신상(身上)에 있는 병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으므로 이것을 깨끗이 씻어버리고자 한 것이었는데, 근래에 들으니 해상(海上)에 관동(關東)의 어선(漁船)을 타고 왕래하는 자들이 염병 때문에 많이 죽었다 하므로, 의심스럽고 우려되어 감히 반드시 움직일 계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시(尊侍)에게 서울로 들어가라고 권한 일은 내 마침 소문을 듣고 잠시 미안한 뜻을 말씀드렸던 것인데, 현명한 소견이 이와 같을진대 스스로 참작하여 마땅하게 할 뿐입니다. 노망한 이의 말을 어찌 굳이 따를 것이 있겠습니까. 다만 명군(明軍)의 소식을 알지 못하오니, 부디 이후 인편에 소문을 들려 주시면 어떠하겠습니까.

여기는 산중에 들어앉은 곳이라 적막하고 고요하오니, 한번 왕림하시어 크고 작은 일을 상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조섭하는 가운데 늙은 이 몸까지 염려하시어 사람을 보내 묻기까지 하시니, 감사한 마음 그지없습니다.

苦待臨顧。而審來書。復認往過崔靑松葬事後。量勢始顧之意。此喪無人顧見者。尊左右不可不早往見。深幸深幸。顧此峽寓。豈有早晩乎。且所示瀋陽凡奇。果如所聞。則豈非天下之幸哉。

왕림하여 돌아보아 주시기를 고대했었는데, 보내 온 편지를 받자와 최청송(崔靑松)의 장례에 갔다오신 뒤에 형편을 보아 비로소 돌아보시려는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초상을 돌아볼 사람이 없으니, 존공(尊公)께서 일찍 가서 보시지 않을 수 없는바, 매우 다행스럽고

매우 다행스럽습니다. 이 산골짝에 우거하는 저를 돌아봄은 어찌 이르고 늦을 것이 있겠습니까. 또 심양(瀋陽)의 모든 소식을 적어 보여 주셨는데 과연 소문과 같다면 어찌 천하의 다행이 아니겠습니까.

何伏希量處。

與鄉校諸人

此日陰霾。念未及晴霽於明日祭辰也。就又草陳耄料。吾鄉今日之所急者。聖廟重刱事也。階砌圻裂。塡乾土以過。故每有急雨。諸生之在校者。恐恟壞陷之患。奔避下人之幕云。此豈一日在校者所得安心哉。切願明日享罷。議定重修諸執事。又於新使過行時。請助濟之訴。或可爲之耶。僉須十分酌措。幸甚。耄意都監則張乃度。議事則張慶遇。申佑德。別有司則朴胤武。李陽燦。張宗喜。耄料或有宜焉。則明日諸進。受

帖于城主。乃第一條件也。僉須不獨此一款。凡校中大小處置。萬加商量。勉不失規範。勿爲鄰官諸友之譏笑。幸甚。

答申晉甫 悅道

固知赴京之行。終不可免。則必當歸辭家廟。凡在尋常時月之別。必相敘慰。況於萬里溟海之涉乎。須計面別情實難已。而癃廢無人事。作動非所能也。所恃者。賢契志氣堅定。必不見撓於涉險。忠信素積。必能作孚於上下。今何用區區之祝哉。

答申晉甫

別示奉悉。本府城主遽被意外臺論。遂自棄歸。此事實出无妄。其爲邑民。寃憫如何。竊想左右亦必想知民情。或可隨行接布。喻其不然之實耶。敢此奉懇。顯光耄委無人事宿矣。而既聞 朝家有大舉措。不可以垂死無一言。略陳耄懷。送呈于方伯。俾得轉達。殊悚出位之譴。

與申晉甫

顯光耄病方重。晝夜一睡。每念賢契遠宦朔偏。必不堪獨賢之苦。懸歎奈何。然既作命吏。不當有厭遁之意。更須黽勉盡職。豈非忠賢分義也哉。毋以徑還爲

念。

與申晉甫

積阻之苦。不須言。每想索栖寒村。豈堪無聊。卽因金訓長來。此友袖持諸圖。老病方困。雖不得詳察。惟其留意之勤。憑此可想。荷渠許留。當待病間。致閱是計。國塟中間乍有進退之說。而不見公文。蓋是仍用卜定之期也。耄無筋力。莫遂赴哭。益切戀 闕之痛。奈何奈何。應一既自奴馬不具。頗有窘勢。擬以念五六間發程云。恐失偕行指敎之望也。賊勢不急。行由順路。不亦宜乎。貴鄉不協之勢。下示如此。豈容他人

示喩耄疏。卽欲謄寫以呈。而便忙未果。良恨。疏中果有移別廟近太廟一款者。非以別廟爲當然之擧也。其不可追崇之義。則乃是天地古今之常經也。而當初雖有擧國之爭。終不得回天。本國旣上崇號。仍設別廟奏請皇朝。則皇朝隨許之。謬命方到。在今之世。則已定之崇號。不可還降。已設之別廟。不可還掇。而自上又以爲未足焉。方擬祔太廟入禰室。則此又失禮中之十分地頭。耄料以爲所定別廟之儀。則今不可復論其非禮。而今日所望者。只是主上之失。不歸於十分地頭。故假託就近之語。以寬主上之至情也。而聞有時論之呶呶。奈何奈何。此非筆所悉。

편지에 말씀한 저의 상소문(上疏文)은 즉시 등사(謄寫)하여 올리고자 하오나 바빠서 결행하지 못하오니 자못 한스럽습니다. 상소문 가운데 과연 '별묘(別廟)를 옮겨서 태묘(太廟)와 가까이 두자'는 내용의 한 조항이 있사온데, 이는 별묘를 당연한 일로 여겨서가 아닙니다.

추숭(追崇)할 수 없는 의리는 바로 천지(天地)와 고금(古今)의 떳떳한 법칙입니다. 다만 당초에 비록 온 나라가 간쟁하였으나 끝내 성상의 뜻을 돌리지 못하여 본국(本國)에서 이미 존호(尊號)를 올렸고, 인하여 별묘를 설치한 다음 명(明) 나라 조정에 주청(奏請)하였는데, 명 나라 조정에서도 그대로 허락하여 잘못된 명령이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러하오니 지금 와서 이미 정한 존호를 다시 낮출 수 없고 이미 만든 별묘를 다시 철거할 수 없으며, 성상께서는 또 이것도 부족하다고 여기시어 바야흐로 태묘에 부묘(祔廟)하여 예실(禰室 아버지의 사당)로 신주(神主)를 들이고자하오니, 이는 또 실례(失禮)한 중에서도 십분 실례한 것입니다.

노망한 저의 생각에는, 이미 정한 별묘의 의식은 이제 그 예(禮)가 아님을 다시 논할 수 없고, 오늘날 기대하는 것은 단지 주상(主上)의 잘못이 십분 지극한 데에 돌아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태묘 부근으로 가까이 모시자는 말에 가탁하여 성상의 지극한 정을 풀어드리려 한 것이온데, 의논하는 자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다 하오니 어쩌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이것은 붓으로 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正服練布未及措。只欲練中衣。且依家禮。去首絰及衰負版辟領。未知如何。

中衣及冠巾。皆當練之正服。升數稍細。亦當改之。若窮家難措則奈何。男子首絰。婦人腰絰。亦皆去之。衰負版辟領。亦依家禮去之。是耶。

凡於大小祥前夕。例皆設奠。今亦依此爲之耶。

此奠非禮文所出。時俗或然。從俗何妨。

중의(中衣)를 마전하고자 하오며, 또 《가례(家禮)》에 따라 수질(首絰)과 최(衰), 부판(負版)과 벽령(辟領)을 제거하려 하옵는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답] 중의(中衣)와 관(冠)과 두건(頭巾)을 모두 마전하여야 하며, 정복(正服)은 승수(升數)가 다소 가는 것을 사용하여야 하니 또한 마땅히 상복(喪服)을 바꾸어야 하나, 만약 집이 가난하여 마련하기 어렵다면 어쩌겠소. 남자의 수질(首絰)과 부인의 요질(腰絰)도 모두 제거하여야 하며, 최와 부판과 벽령을 또한 《가례》에 따라 제거하는 것이 옳을 것이오.

[문] 무릇 대상(大祥)과 소상(小祥)의 전날 저녁에 으레 모두 전(奠)을 올리는데, 이제 또한 이를 따라 그대로 하여야 합니까?

[답] 이 전(奠)은 예문(禮文)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요 세속에서 혹 그렇게 하는 것이니, 세속을 따른들 어찌 나쁘겠소.

속집 제 9 권 / 부록(附錄)

배문록(拜門錄)-문인 신열도(申悅道)

13世 열도(悅道) 父 : 흘(仡)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난재공파(懶齋公派)

丁酉秋。先生來訪先君子於陶巖。余以童子。趨隅而拜。先生教以正坐。癸卯。先生莅本縣。每朔望謁聖。鷄三鳴。已到鄉校。諸生祗迎杏壇下。謁聖訖。坐明倫堂。與諸生行相揖禮。訓長及諸生。以次前坐。童蒙又次之。先生與之講論經旨。諸生有未曉者。反覆教誨。有質問者。酬答如響。語音洪暢。一座傾聽。余以童蒙。挾冊坐席末。仰見先生氣象渾厚。威儀嚴整。令人肅然有畏敬之心。先生爲政。以明倫善俗爲務。對諸生則教之以敦孝悌主忠信。遇父老則勸之以力農桑勤賦役。民風士習。庶幾有丕變之漸。不幸莅任五箇月。遽爾棄歸。邑民未克蒙至治之澤。惜哉。時有聖廟之變。先生率諸生。哭于廟庭。退處私次。屢呈辭狀。朝廷不許。遂投印徑歸。士民遮道不得挽。立碑頌淸德銘曰。莫淸者冰。莫潔者玉。嗚呼我侯。冰淸玉潔。

辛亥春。拜謁于南山。因留侍二日。竊見先生每早起盥洗。整衣冠。儼然端坐。几案必正。動靜有當。晷刻不廢看書。及其接人笑語。溫溫一以恭謹爲主。侍坐終日。雖未有諄諄之教。令人肅敬。非僻之心。自不敢萌焉。

甲寅。疊遭大故。先生致書慰問。勉以無死。葬時及練制。稟問疑禮。先生下答詳悉。

丙辰九月。先生姊氏任僉樞夫人棄世。先生聞訃卽至。望哭而入。旣入。號哭不絶聲。銘旌初以淑夫人書之。先生命只書本貫姓氏。蓋僉樞非實職故也。及葬。先生躬臨營辦。情禮備至。僉樞素無嗣。夫人養從子景尹奉祀書之。而喪畢入廟時。僉樞內外神主。以正位奉安。至其子孫親盡後遞遷爲宜云。余稟問是禮有所據否。答以義起。且以稟議於寒岡先生。爲教。

丁巳冬。與仲氏進謁于南山。崔正言戚叔晛。已在座矣。翌日。先生命駕不知巖。兄弟陪往。留侍二日。先生下示五言一絶。令各和呈。不知巖在洛江東畔。當流陡起如砥柱。可坐五六人。上有斷麓平衍而不甚高。卽巖齋主山也。西拱金烏。東揖遊鶴。十里長汀。明沙浩渺。乃洛江第一勝地也。昔有進士徐錫年居之。生涯只一張琴一漁竿云。鄉人爲先生構小齋。厥位面陽。冬月恒暖。齋西有臺。環以松竹槐柳。雖盛夏。凉氣逼人。先生有時靜棲。或經旬月。每春暖夏晴。攜冠童。臨流消遙。或駕舟沿泝。觴詠而歸。怳然有浴沂氣象。

戊午仲冬。拜謁于不知巖。袖進金孝徵書。先生覽訖。因言孝徵愼重人也。留侍二日。講質心經疑義。時爾瞻輩謀廢國母。完鰲二相。相繼竄逐。先生聞之。憂形于色。金上舍璲來言。完平謫在驪州戶長家。織席爲業。戶長妻死。指揮治喪云。先生笑曰。以領議政。治戶長妻喪。於戶長則侈矣。其於世道何。一日暮。先生散步松壇。余獨侍立。先生爲誦鰲柱擎天天妥帖。鰲柱傾折奈天何。北風吹送囚山雨。雨未多於我淚多之句曰。此挽鰲相詩。而不知誰所作也。其傷時慷慨之意。形於辭氣之間。

己未夏。與仲氏來謁于善山元堂。留侍十餘日。先生下示所著易學圖說。仍敎曰。今人開口便說理氣。其知理氣分合之義乎。仲氏對曰。理非別物。爲此氣之所以然。而在此氣之中。自不相雜。而亦不相離。旣知其不相離。又知其不相雜。則庶不悖於分合之義乎。先生曰。古之聖人。說理氣旣寡。又未有分理氣爲言者。蓋析而分之者。名目之設也。合爲一體者。理氣之常也。若因其名目之分。而遂以爲界別相對之物。則理氣便是各自爲本。雙立並行於宇宙之間也。理豈得爲氣之理。氣何得爲理之氣哉。余進曰。誠如下敎。則天下無無氣之理。亦無無理之氣。眞所謂二而一。一而二者。先生曰然。仍稟宗子三年喪內。祖先祭祀。何以爲之。答曰。喪三年內。不可祭也。又稟父母喪內。當祖父母忌辰。几筵似不可用肉。如何。答曰。葬前。象生時行素祭。葬後。從神道用肉饌。又稟外家無後。則外孫主祀否。答曰。外孫主本宗祭祀。長子勢難並行。又不可別立祠廟。次子主祭可也。又稟戰亡人虛葬如何。答曰。此於古無之。世人因金籠巖返靴虛葬。或有倣而爲之者。然不如只造主奉祭之爲得也。

庚申春。與仲氏拜謁于南山。因往弔寒岡先生喪次。還路更謁焉。仲氏稟問聖人不制師服。但使申心喪之制。近世退溪先生之喪。禹秋淵諸賢。但以布笠縞帶終三年。今日寒岡門下之服。似過重。未知如何。先生答曰。孔門弟子。弔服加麻。乃是師服。執弟子之禮者。固當如是。至於遠方未及門之人。亦爲白巾者。非禮矣。

辛酉春。先生爲省墓。駐星山巖浦。余自南山轉謁焉。李都事天封亦來。語及寒岡東岡兩先生並享一廟事。仍曰。新安人有譏侮東岡者。可痛可惡。先生答曰。二先生德行事業。雖不敢輕議。並爲廟享。似無異議。一時浮言。何足深較。

壬戌春。與仲氏來謁于南山。夕陪往不知巖。留侍二日。講質近思錄疑義十餘條。仲氏問南秋江逢可親經二姓王之句。何如。先生答曰。吾東文獻無徵。秋江想未得其詳而云爾。豈可以此而疑圃隱乎。仍問曰。世傳按廉公與吉冶隱。攜手同歸云。有諸。仲氏對曰。先祖與冶

隱。爲道義契。見麗季政亂。並轡南下。先祖居尙州。冶隱居善山。世代已遡。今無所考證。然以勝覽所載皎潔其身。能得行藏之道等語觀之。則流傳之言。似有所據矣。先生再三稱歎。余稟問金鶴峯夫人之喪。諸孫及曾孫成服者。皆爲衰負版辟領。或云三年服。當爲衰負版辟領。而如朞功以下之服。恐不當爲之。未知孰是。先生答曰。孫若曾孫。爲祖及曾祖服。雖有輕重。俱是正服。似當爲衰負版辟領矣。

是冬。與仲氏來謁于不知巖。留侍二日。余進前曰。朱子以四端爲理之發。七情爲氣之發。其所爲說。各有地頭。不可混而同之。比而合之否。先生曰。四端自是性觸便感。不犯私僞。故以理爲所發之主。七情或涉私僞。不能純善。故以氣爲所發之主。然七情固莫非四德之用。而四端亦非外七情而別自爲端者也。以四端言之。則惻隱卽七情之愛與哀也。羞惡卽七情之怒與惡也。辭讓施於喜怒哀樂愛惡之際。是非別於順逆輕重之境。則其於七情之外。別有四端乎。以七情言之。則愛哀欲。是仁之發也。怒與惡。是義之發也。喜與樂。是禮之發也。七者。隨事隨物。感應各當。是智之發也。其於四端之外。別有七情乎。仲氏對曰。四端之發。非不資於氣。而理有以主張。七情之發。非無與於理。而氣有以用事。遂就其所重而分別言之。蓋其所從來。各有苗脈。故朱子之言曰。七情不可分配四德。恐不必牽引配合而强爲一說也。先生曰。朱子不可分配之說。蓋以四端感出純善。七情或涉僞私者言之。然其釋中和之義曰。喜怒哀樂。情也。其未發卽性也。性發而爲情。則孟子豈外七情而言四端乎。特就其七情之中。擧其直從本然之性。純善無惡者而名之曰四端。苟能精究而熟察之。則所謂四端。果不出於七情之中矣。後先生自著四七分合說。

丙寅夏。先生因啓運宮喪入都。余亦追赴焉。先生舘於倉洞。余與仲氏日進謁。或陪宿。公卿大夫傾朝來謁。啓運宮發引時。大駕哭臨露梁。先生不入班。祗迎于南郊路傍。先生草疏萬餘言。極陳人君建中建極爲治化之本。命余參看淨寫以呈。上優答焉。六月初二日。先生登對于資政殿。首陳本原綱領之說。又請行鄕約。東宮引見時。亦以爲學立志等語進誡焉。旣退。有衣資色綃之賜。初三日。先生南還。上命一路護送。余及仲氏陪往。至麻田浦。經宿而還。

丁卯冬。與仲氏來謁于不知巖。仲氏袖進在圍中時所陳疏草。先生曰。士君子一生事業。盡在是矣。屢加嘆賞。

戊辰夏。余以冬至使書狀。將浮海朝天。拜辭于南山。先生出示贈行詩序。仍敎曰。吾平生不作此等文字。如崔監司赴京。亦不爲之。今不勝情切。略構拙語。愼勿示人也。又敎曰。赴京使行。每以兌換物貨。爲華人所嗤鄙云。雖書冊。亦不必貿來。又曰。能善飯否。對曰。能喫七合飯。先生笑曰。如是則無虞矣。出坐廳上。酌酒敍別。申命愼重愼重。

己巳七月。先生車馬自立巖至。余新自天朝還。遂迎謁于氷山道左。夕抵書院。先生詢問天朝事情及一行往還始終。翌朝謁廟。先生題名于尋院錄。年月日。命余細書。因與諸生講論經旨。是日駕向龜智。

是冬。拜候于南山。以朝天時日記及呈文等冊呈上。先生覽訖。仍曰。此行可謂酬男子四方之志矣。

庚午春。余遭妻喪。稟問疑禮。先生下答詳悉。十月。拜謁于南山。稟問期之喪。十五月而禫。禫後不撤几筵否。答曰。几筵三年不撤。仍行朝夕上食。可矣。問如此。無害於禮否。答曰。此是權設。所謂禮宜從厚者也。又稟今於妻喪之後。子婦几筵。欲從便移設于一廳。而但幷列未安。分設東西。間以障蔽。未知如何。答曰。如此無妨矣。又稟風水酷信。爲今世痼弊。其說果有理否。答曰。山川風氣。有聚散凝結處。氣聚則聚。氣散則散。固其理也。若一聽風水之說。至於過時不葬。則大不可。第審其風氣之聚散。山川之凝結處而用之。未爲不可矣。

辛未初夏。來謁于不知巖。留侍一日。先生出示平究說，易學圖說。翌日。陪還南山。時追崇大論方張。左相金瑬忤旨見罷。余稟問追崇如何。答曰。周之時。大王王季文王。皆有功德。周之有天下。自三王始。故周公追尊以王禮。若無周三王之功德而追崇之則非禮也。其後先生陳疏剴切。

甲戌二月。來謁于南山。與諸益語及輿地事。先生敎曰。吾東載籍不備。居在此邦。不知此邦故事。可乎。諸君各撰地誌。俾有所勸懲。可矣。因命余撰聞韶縣誌。蓋先生嘗宰聞韶。有意修輯而未就故也。七月。進拜于金烏書院。蓋先生前此與尙善諸老。約會于此。余因柳持平袗書通。赴會則先生已駕臨矣。其翌日。約會諸老。由水路至商山。則全慶州湜，金永川知復，趙參奉光璧，柳持平袗，金參奉秋任，全都事克恒。仁善則張丈乃範，金彦陽寧，金丈狐，朴憲，朴愰，朴悏，李垣也。先生出坐樓上。與諸老談話不倦。先生曰。吾欲與朋舊修講信契。以時團聚。名以講信。何人不可參哉。諸老皆以爲當。以或有意外指目爲慮。不果焉。

乙亥仲秋。來謁于南山。先生出示皓首吟一絶云。皓首猶存赤子心。此時方會一源深。眼中天地都眞界。外誘何從得我侵。因敎曰。此說盡吾老來心境也。妄意於此可想先生人欲淨盡。天理流行之妙。正孟子所謂大人者。不失其赤子之心者也。先生語及柳持平之不淑。慨歎善人之難得。余稟亡兒立後事。答曰。古者。人心淳厚。祖與父命之立後。則子孫遵行。固無異言。今則不然。須出公文。可以永久無弊矣。又稟呈禮曹出公文者。必有兩邊父母呈狀而爲之。此則旣無父母。孰爲呈狀也。答曰。然則毋令立後遺書子孫。以正位入祠廟。親盡後遞遷。可矣。

丙子春。來謁于南山。先生以不廢講學爲敎。又曰。今吾耄廢。所恃者。惟君二三子而已。益加修飭。毋負此意也。

是年仲夏。來謁于不知巖。金敎官光繼。已先到矣。日晩。返駕南山。余與金敎官陪來。是日又與金敎官及金德承，朴通彦，張仲孝諸人。因先生命。偕往不知巖。乘月泛舟。沿流而下。夜半泊吳山。盡興而歸。

七月。聞先生被安車召命。卽馳謁焉。先生因諸友餞別。連日進酒。余冒稟進食少而進酒多。恐或因此致傷。不可不慮也。先生曰。酒力之保養老人。猶小兒之飮乳。不得不爾。然君言亦佳。當致念矣。道伯沈公演。爲進餞盃。酒三行。命止之。因駕安轎發程。余陪到松津而還木城。先生行到咸昌疾作。陳疏停行。自元堂乘船而下。余自木城。出待于飛山江上。翌日迎謁于羊灘。奉候起居。命饋酒。鄭丈四勿，鄭師傅克後，金進士濬，金進士玳，朴參奉晉慶諸賢同舟。尋泊不知巖。先生出示紀行長篇。因命余和呈。翌日。駕返南山。余辭退。先生敎曰。聞倭國有秦火前書。要信行覓來可也。時金公世濂爲通信副使。路由聞韶。故有是敎。

丁丑二月。余自南漢病歸。時先生駕向立巖。留龜智有日。遂進候焉。客散後。先生歔欷發歎曰。古今天下。寧有此事。吾欲周流四方。顚死溝壑。遺命子孫。毋得厚葬。只免爲烏鳶食而已。因出示告墓文。有無天無日。有往奚適等語。因陪往立巖。留數旬而還。

仲秋。進謁于立巖。先生曉起明燭。酒數行。嘆曰。天地閉矣。彝倫斁矣。中華文物。今不可得以復見矣。因語及鄭參判蘊事。先生曰。如我耄廢。未嘗一日立朝。只合如是。從前供仕之人。似不必潔身長往也。余對曰。麗末冶隱。見幾而作。鄭公之意。無亦有見於此耶。先生曰。冶隱官微。故奉身而退。如圃隱。以社稷大臣。欲扶顚持危。而終至隕身。出處之義。難以一槩論也。時先生新製深衣幅巾。蓋用曹芝山好益，韓淸州百謙之制也。命余着而見之。又出示所命洞中巖號帖曰。此間山水之勝。何如。對曰。勝似白雲洞。可以甲乙於陶山矣。辭退時。敎曰。巖齋狹隘難容。欲築土室數架。爲遠近朋友止宿處。冬間可從容來棲可也。

季秋。先生患報至。卽趨診焉。先生疾已革。使侍者扶坐。敎曰。相間之地。此意良勤。又曰。吾病不可支。吾晩年相從。自此已矣。惟願賢契益自勉勵。毋負老夫臨訣之意也。越二日壬申。先生易簀于晩勘齋。前夕有雷雨山崩之災。是朝。又有天日晦冥。盲風震盪之變。嗚呼異哉。仍伏念小子之出入門下。殆將四十年。叨奉杖屨。不爲不久。親承提誨。不爲不切。而昏愚無狀。尙不能開發其萬一。每中夜以思。不覺憮然自悼。玆敢略敍及門以來年月始終及耳目所逮應酬答問之節。以寓西林不盡之感云爾。

悅道嘗侍坐。先生曰。凡人爲善與爲不善。各有報應。爲善者。雖無一時利益。終免於羞辱。爲不善者。雖無目前大害。終必有災殃。福善禍淫之理。信不可誣。人人可不勉於爲善哉。

先生每當夏月。聞雷震。則雖夜必衣服冠而坐。老僕相謂曰。進賜所爲。吾等亦效之云。

先生一生韜晦。人莫能窺其際。又不以師道自居。門下出入之人。待之如賓。凡所著述。人不能窺見。外人稟問疑禮。鮮爲可否。晩年始修答焉。

先生一生安貧。簞瓢屢空。而處之怡然。雖蔬食菜羹。必與學者共之。

先生遭母夫人喪。水漿不入口者累日。哭聲猶不少衰。

先生奉祭祀。事無巨細。必誠必愼。朔望參謁。四時大祭。一皆依禮。墓祭。每於三十月上旬行之。遠祖墳塋。亦不廢焉。年及大耋。猶必躬行而不攝。至於冠昏喪祭之儀。略倣家禮。參互儀禮及註疏。悉遵古禮。各著其儀。以爲家範。

정유년(1597,선조 30) 가을에 선생이 도암(陶巖)에 오시어 선군자(先君子)를 방문하였다. 내가 이 때 어린 동자(童子)로서 자리의 한쪽 귀퉁이로 나아가 배알하니, 선생은 바로 앉으라고 분부하셨다.

계묘년(1603,선조 36)에 선생이 본현(本縣 의성(義城)을 가리킴)에 부임하셨는데 매월 초하루와 보름이면 문묘(文廟)에 배알하였는바, 닭이 세 번째 울면 이미 향교(鄕校)에 이르셨는데, 제생(諸生)들은 행단(杏壇)아래에서 공경히 맞이하곤 하였다.

선생은 문묘에 배알을 마친 다음 명륜당(明倫堂)에 앉아서 제생들과 상읍례(相揖禮)를 행하시고는 훈장(訓長)과 제생들은 차례로 앞줄에 앉히고 아이들은 또 그 다음 줄에 앉힌 다음, 이들과 경전(經傳)의 뜻을 강론하였다.

제생 중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선생은 반복하여 가르쳐 주었으며 질문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대답하셨는바, 말소리가 크고 통창(通暢)하시어 온 좌중이 경청하였다.

나는 어린 나이로 책을 끼고 맨 말석(末席)에 앉아 있었는데, 선생을 우러러보니 기상(氣象)이 혼후(渾厚)하고 위의(威儀)가 엄정(嚴整)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숙연(肅然)하여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게 하였다.

선생은 정사를 시행할 적에 윤리(倫理)를 밝히고 풍속(風俗)을 좋게 하는 것을 힘썼으며, 제생들을 대하면 효제(孝悌)를 독실히 행하고 충신(忠信)을 주장할 것을 가르치시고, 부로(父老)들을 만나면 농사와 누에치기를 힘쓰고 부역을 부지런히 할 것을 권하셨다. 그리하여 백성의 풍속과 선비들의 풍습이 거의 크게 변할 조짐이 있었는데, 불행히 부임한 지 5 개월 만에 갑자기 벼슬을 버리고 돌아가시어 고을의 백성들이 지치(至治)의 혜택을 입지 못하였으니, 애석하다.

이 때 문묘(文廟)가 불타는 변고가 있었으므로 선생은 제생들을 거느리고 문묘의 뜰에서 곡하였으며, 사사로운 처소로 물러나와 여러 번 사직(辭職)하는 글을 올렸으나 조정에서 허락하지 않았다. 이에 선생은 마침내 인수(印綬)를 버리고 곧바로 돌아오니, 선비와 백성들이 길을 막았으나 만류할 수 없었다. 이에 송덕비(頌德碑)를 세워 청백(淸白)한 덕(德)을 칭송하였는데, 그 명문(銘文)에

더 맑을 수 없는 것은 얼음이요 / 莫淸者冰

더 깨끗할 수 없는 것은 옥이라오 / 莫潔者玉

아, 우리 사또여 / 嗚呼我侯

얼음처럼 맑고 옥처럼 깨끗하였네 / 冰淸玉潔

하였다.

신해년(1611,광해군 3) 봄에 나는 선생을 남산(南山)에서 배알하고 그대로 머물며 이틀 동안을 모셨다. 이 때 엎드려 선생을 뵈오니, 매일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시고는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엄연(儼然)히 단정하게 앉아서 책상을 바르게 놓고 동정(動靜)함을 합당하게 하였으며, 잠시도 책을 보는 것을 폐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에는 웃고 말씀함이 온화하여 한결같이 공손하고 삼감을 위주하였으며, 하루 종일 모시고 앉았을 적에 비록 자세히 가르쳐 주심은 없었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엄숙하고 공경하게 하여 나쁜 마음이 감히 싹틀 수가 없었다.

갑인년(1614)에 나는 거듭 큰 연고(부모상을 가리킴)를 당하였는데 선생께서는 편지를 보내어 위문하고 죽지 말라고 권면하였으며, 장례 때와 연제(練制 소상(小祥)의 제도)에 의심스러운 예(禮)를 여쭈니, 선생께서는 자세히 답해주셨다.

병진년(1616) 9 월에 선생의 자씨(姊氏)인 임 첨추부인(任僉樞夫人)이 세상을 떠나셨다. 선생은 부음(訃音)을 듣고 즉시 오셨는데, 동구 밖에서 집을 바라보고 곡하며 들어오셨고 이미 들어와서는 흐느껴 곡하여 곡소리가 끊이지 않으셨다.

명정(銘旌)을 처음에는 숙부인(淑夫人)이라고 썼었는데 선생은 단지 본관(本貫)과 성씨(姓氏)만을 쓰도록 명하셨으니, 이는 첨추(僉樞)가 실직(實職)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장례할 때에 선생이 몸소 왕림하여 일을 주관하시어 정(情)과 예(禮)가 모두 지극하였다.

첨추는 본디 아들이 없었는데 부인의 양종자(養從子)인 경윤(景尹)이 봉사(奉祀)라고 쓰고는 상(喪)을 마치자 사당에 모셔 들여갔다. 이 때 선생은 첨추의 내외분 신주(神主)를 정위(正位)로 사당에 봉안하였다가 자손들이 친진(親盡)한 뒤에 이르러 체천(遞遷)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였다. 내가 이 예(禮)가 근거가 있느냐고 여쭈었더니, 선생은 의리(義理)로 일으킨 것이라고 답하시고, 또 한강 선생(寒岡先生)에게 여쭈어 의논했다고 말씀하셨다.

정사년(1617) 겨울에 나는 중씨(仲氏)와 함께 남산(南山)으로 나아가 선생을 뵈었는데, 척숙(戚叔)인 정언(正言) 최현(崔晛)이 이미 와서 자리에 있었다. 다음 날 선생이 부지암(不知巖)에 가자고 명령하셨으므로 형제가 모시고 가서 이틀 동안을 머물며 모셨다. 선생은 오언시(五言詩) 한 절구(絶句)를 지어 내보이시고는 각기 화답하여 올리도록 하셨다.

부지암은 낙동강(洛東江) 동쪽에 있는데 강가에 바위가 우뚝이 솟아 있어서 대여섯 명이 앉을 만하였고 위에는 끊긴 산록(山麓)이 평평하여 그다지 높지 않았으니, 곧 부지암 서재(書齋)의 주산(主山)이다. 서쪽으로는 금오산(金烏山)을 향하고 동쪽으로는 유학산(遊鶴山)에 읍(揖)하였으며, 10 리의 긴 물가에 깨끗한 사장(沙場)이 너르고 아득하였으니, 바로 낙동강의 으뜸가는 명승지였다. 옛날 진사(進士) 서석년(徐錫年)이 이 곳에 살았는데 한평생 단지 거문고 하나와 낚싯대 하나로 여생을 보냈다고 한다.

지방 사람들이 선생을 위하여 작은 서재를 건축하였는데 위치가 양지바른 곳이어서 겨울철에도 항상 따뜻하였으며, 서재의 서쪽에는 대(臺)가 있었는데 소나무와 대나무, 회화나무와 버드나무가 두르고 있어서 비록 무더운 여름철이라도 서늘한 기운이 사람을 엄습하였다.

선생은 때로 이 곳에 고요히 머무시어 혹은 열흘이 지나기도 하고 한 달이 지나기도 하였는바, 언제나 봄에 날씨가 따뜻하고 여름에 날이 개면 관동(冠童)을 데리고 물가에 가서 노닐었으며, 혹 배를 타고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 술을 마시고 시를 읊고 돌아오시니, 기수(沂水)에서 목욕하는 기상과 방불한 듯하였다.

무오년(1618) 중동(仲冬)에 나는 부지암(不知巖)에서 선생을 배알하고는 소매 속에서 김효징(金孝徵)의 편지를 꺼내 올렸더니, 선생은 다 보시고는 말씀하시기를 "효징은 신중한 사람이다." 하였다.

나는 이틀을 머물러 모시면서 《심경(心經)》의 의심스러운 뜻을 강(講)하고 질문하였는데, 이 때 이이첨(李爾瞻)의 무리가 국모(國母)를 폐출(廢黜)할 것을 도모하여 완평(完平) 이원익(李元翼)과 오성(鰲城) 이항복(李恒福) 두 정승이 서로 뒤이어 귀양갔는바, 선생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근심하는 기색이 얼굴빛에 나타나셨다.

상사(上舍) 김수(金藪)가 와서 말하기를, "완평이 귀양가 여주(驪州)의 호장(戶長)의 집에 있으면서 자리를 짜는 것으로 생업(生業)을 삼고 있었는데, 호장의 아내가 죽자 지휘하여 상(喪)을 치렀다." 하였다. 선생은 웃으시며 말씀하시기를, "영의정(領議政)으로서 호장의 아내의 상을 치렀으니, 호장의 입장에서는 호화로우나 세상의 도(道)에 있어서는 어찌하겠는가." 하였다.

어느 날 저녁 선생이 소나무 아래에서 산보를 하셨는데, 내가 홀로 모시고 서 있었다. 이때 선생은 나를 위하여 "오주(鰲柱)가 하늘을 떠받드니 하늘이 편안히 있었는데, 오주가 기울어져 부러지니 하늘을 어찌할꼬. 북풍이 불어와 수산의 비를 보내니, 그 비도 내 눈물처럼 많지는 않으리라.[鰲柱擎天天妥帖 鰲柱傾折奈天何 北風吹送囚山雨 雨未多於我淚多]"라는 시구(詩句)를 외워 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오성 대감에 대한 만시(挽詩)인데 누가 지은 것인지는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리하여 세상을 걱정하고 서글퍼하는 뜻이 말씀하는 사이에 나타나셨다.

기미년(1619) 여름에 나는 중씨(仲氏)와 함께 선산(善山)의 원당(元堂)으로 와서 선생을 뵙고는 10 여 일을 머물며 모셨다. 선생은 저술하신 《역학도설(易學圖說)》을 보여주시고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람들은 입만 열면 곧 이(理)와 기(氣)를 말하는데, 그대는 이와 기가 나뉘고 합하는 뜻을 아는가?"

하자, 중씨가 대답하기를,

"이(理)는 별다른 물건이 아니요 기(氣)의 소이연(所以然)이 되면서 이 기(氣)의 가운데에 있어 자연 서로 섞이지 않고 또한 서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서로 섞일 수 없는 것을 안다면 저 이(理)와 기(氣)가 나뉘고 합하는 뜻에 어그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옛날 성인(聖人)이 이(理)와 기(氣)를 말씀한 것이 이미 드물고 또 이(理)와 기(氣)를 나누어 말씀한 경우가 없으니, 나누어서 둘로 만든 것은 명목(名目)을 설정한 것이요 합하여 일체로 만든 것은 이(理)와 기(氣)의 떳떳함이다. 만약 명목이 나누어진다 하여 마침내 한계 짓고 구별지어 상대(相對)하는 물건이라고 여긴다면, 이(理)와 기(氣)가 곧 각자 본령(本領)이 되어서 우주의 사이에 양립(兩立)하고 아울러 행할 것이니, 이(理)가 어찌 기(氣)의 이(理)가 될 수 있으며 기(氣)가 어찌 이(理)의 기(氣)가 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내가 나아가 아뢰기를,

"진실로 하교(下敎)와 같다면 천하에는 기가 없는 이가 없고 또한 이가 없는 기가 없을 것이니, 참으로 이른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겠습니다."

하니, 선생은 옳다고 말씀하셨다. 인하여 여쭙기를,

"종자(宗子)가 삼년상 안에 선조(先祖)의 제사를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하니, 선생은 답하시기를,

"삼년상 안에는 제사할 수 없을 듯하다."

하였다. 나는 또다시 여쭙기를,

"부모상(父母喪) 안에 조부모(祖父母)의 기일(忌日)을 당하면 궤연(几筵)에 고기를 올릴 수 없을 듯하오니, 어떻습니까?"

하니, 선생은 답하시기를,

"장례하기 전에는 생존했을 때를 따라 소제(素祭)를 행하고, 장례한 뒤에는 신도(神道)를 따라 고기와 찬(饌)을 써야 한다."

하였다. 나는 또다시 여쭙기를,

"외가(外家)에 후손이 없으면 외손(外孫)이 제사를 주관하여야 합니까?"

하니, 선생은 답하시기를,

"외손은 본종(本宗)의 제사를 주관하니 장자(長子)는 형편상 두 가지를 모두 행하기가 어려우며 또 별도로 사당을 세울 수가 없으니, 차자(次子)가 외조(外祖)의 제사를 주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나는 또 여쭙기를,

"싸움터에 나갔다가 전사한 사람을 허장(虛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이것은 옛날에는 없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김농암(金籠巖)이 신[靴]을 보내어 허장하게 한 것을 따라서 혹 이를 모방하여 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다만 신주(神主)를 만들어서 받들어 제사함이 옳은 것만 못하다."

하였다.

경신년(1620) 봄에 나는 중씨(仲氏)와 함께 선생을 남산(南山)에서 배알하고는, 인하여 한강 선생(寒岡先生)의 상차(喪次)로 조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선생을 뵈었다. 중씨가 여쭙기를,

"성인(聖人)이 스승의 복(服)을 따로 만들지 않고 다만 심상(心喪)의 제도를 펴도록 하였으며, 근세에 퇴계 선생(退溪先生)의 초상에 우추연(禹秋淵 우성전(禹性傳)을 가리킴) 등 여러 분들이 단지 삼베관에 흰 띠로 삼년상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강의 문하생들의 복은 너무 중한 듯하오니,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공자(孔子) 문하의 제자들이 조복(弔服)에 가마(加麻)를 한 것이 바로 스승의 복이니, 제자의 예(禮)를 집행한 자는 진실로 이와 같이 하여야 할 것이요, 미처 문하에 이르지 않은 먼 지방의 사람들까지도 백건(白巾)을 쓰는 것은 예가 아니다."

하였다.

신유년(1621) 봄에 선생은 성묘하시기 위하여 성산(星山)의 암포(巖浦)에 머물러 계셨다. 나는 남산(南山)으로부터 전전하여 선생을 뵈었는데, 도사(都事) 이천봉(李天封)도 왔다. 그리하여 한강(寒岡)과 동강(東岡) 두 선생을 한 사당에 아울러 제향(祭享)하는 일을 언급하고 인하여 말하기를,

"신안(新安) 사람 중에 동강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자가 있으니, 애통하고 증오할 만합니다."

하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두 선생의 덕행과 사업은 비록 감히 쉽게 의논할 수 없으나 아울러 한 사당에 제향함은 이론(異論)이 없을 듯하니, 한때의 근거 없는 말을 어찌 굳이 깊이 따질 것이 있겠는가."

하였다.

임술년(1622) 봄에 나는 중씨(仲氏)와 함께 남산으로 와서 선생을 뵈었으며, 저녁에는 모시고 부지암(不知巖)으로 가서 이틀 동안 머물러 모시면서 《근사록(近思錄)》의 의심스러운 부분 10 여 조항을 질문하였다. 중씨가 여쭙기를,

"남추강(南秋江 남효온(南孝溫)을 가리킴)의 글에 달가(達可 정몽주(鄭夢周)의 자(字)임)가 친히 두 성(姓)의 왕을 섬겼다는 구(句)가 있으니, 이는 어떻습니까?"

하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우리 나라에는 문헌이 없어 증거할 수가 없으니, 상상컨대 추강이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여 이렇게 말씀한 듯하다. 어찌 이것을 가지고 포은(圃隱)을 의심하겠는가."

하시고는, 인하여 물으시기를,

"세상에 전하기를 '안렴공(按廉公)이 길야은(吉冶隱)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돌아왔다' 하니, 이것이 사실인가?"

하자, 중씨가 대답하기를,

"선조(先祖)께서 야은과 도의지교(道義之交)를 맺으셨는데, 고려 말기에 정사가 혼란한 것을 보고는 함께 말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선조는 상주(尙州)에 사시고 야은은 선산(善山)에 사셨습니다. 세대가 이미 멀어서 지금은 고증할 것이 없사오나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는바, '그 몸을 깨끗이 하여 행장(行藏)의 도(道)를 얻었다.'는 등의 말로 보면 유전하는 말이 근거가 있는 듯하옵니다."

하였다. 이에 선생은 재삼 칭찬하고 감탄하셨다.

내가 여쭙기를,

"김학봉(金鶴峯 김성일(金誠一)을 가리킴)의 부인의 상(喪)에 여러 손자와 증손들로 복을 입는 자가 모두 최복(衰服)과 부판(負版)과 벽령(僻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혹자는 이르기를 '3 년복은 마땅히 최복과 부판과 벽령을 해야 하지만 만일 기년(朞年)과 대공(大功) 이하의 복이라면 하지 않아야 할 듯하다.' 하오니, 어떤 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손자와 증손이 할아버지와 증조를 위하여 복을 입는 것은 비록 경중(輕重)이 있으나 모두 정복(正服)이니, 마땅히 최복과 부판과 벽령을 만들어야 할 듯하다."

하였다.

이 해 겨울에 나는 중씨와 함께 부지암으로 와서 선생을 뵙고 이틀 동안 머물며 모셨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 여쭙기를,

"주자(朱子)가 사단(四端)을 이(理)가 발(發)한 것이라 하고 칠정(七情)을 기(氣)가 발한 것이라 하여, 그 말씀한 것이 각기 지두(地頭)가 있으니, 이것을 혼동하여 하나로 만들고 나란히 하여 합할 수 없습니까?"

하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사단은 자연 본성(本性)이 사물을 감촉하면 곧 감응(感應)되는 것이어서 사사로움과 거짓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이(理)로써 발하는 주체를 삼고, 칠정은 혹 사사로움과 거짓에 관계되어서 순선(純善)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氣)로써 발하는 주체를 삼은 것이다. 그러나 칠정은 진실로 사덕(四德)의 용(用)이 아님이 없으며, 사단 또한 칠정을 벗어나서 별도로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단을 가지고 말하면 측은(惻隱)은 곧 칠정 중에 사랑하고 슬퍼함이고,

수오(羞惡)는 곧 칠정 중에 노하고 미워함이며, 사양(辭讓)은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즈음에 베풀어지고, 시비(是非)는 순(順)·역(逆)과 경(輕)·중(重)의 자리에 구별되니, 그렇다면 어찌 칠정의 밖에 별도로 사단이 있겠는가. 그리고 칠정을 가지고 말하면 사랑하고 슬퍼하고 하고자 함은 이 인(仁)이 발한 것이요, 노여워하고 미워함은 이 의(義)가 발한 것이요, 기뻐하고 즐거워함은 이 예(禮)가 발한 것이며, 일곱 가지가 일을 따르고 물건을 따라 감응함이 각기 마땅한 것은 지(智)가 발한 것이니, 어찌 사단의 밖에 별도로 칠정이 있겠는가."

하자, 중씨가 대답하시기를,

"사단이 발함은 기운에 의뢰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이치가 주장함이 있고 칠정의 발함은 이치에 관여됨이 없지 않으나 기운이 용사(用事)하기 때문에 마침내 그 중한 바에 나아가서 분별하여 말하는 것이니, 그 소종래(所從來)가 각기 싹과 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자(朱子)의 말씀에 '칠정(七情)을 나누어 사덕(四德)에 짝할 수 없다.' 하였으니, 굳이 억지로 끌어다 배합하여 한 말을 만들 것이 없을 듯하옵니다."

하니,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주자의 '나누어 짝할 수 없다.'는 말씀은 사단은 감응되어 나옴이 순선(純善)하고, 칠정은 혹 거짓과 사사로움에 관계됨을 가지고 말씀한 것이다. 그러나 중(中)과 화(和)의 뜻을 해석하기를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즐거워함은 정(情)이요, 이것이 아직 발하지 않음은 곧 성(性)이다.' 하였으니, 성이 발하여 정이 된다면 맹자(孟子)가 어찌 칠정을 벗어나 사단을 말씀하였겠는가. 다만 칠정 가운데에 나아가 곧바로 본연지성(本然之性)을 따라서 순선(純善)하고 악함이 없는 것을 들어 이름하기를 사단이라 하신 것이니, 만일 정밀하게 연구하고 익숙히 살펴본다면 이른바 사단이라는 것은 과연 칠정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였다. 그 후 선생은 사칠분합설(四七分合說)을 지으셨다.

병인년(1626,인조 4) 여름에 선생께서 계운궁(啓運宮)의 상(喪)으로 인하여 도성에 들어오셨으므로 나 역시 뒤쫓아 달려갔다. 선생께서는 창동(倉洞)에 머물고 계셨는데, 나는 중씨와 함께 날마다 나아가 뵈었으며 혹 모시고 자기도 하였는바, 온 조정의 공경(公卿)과 대부(大夫) 들이 모두 와서 뵈었다.

계운궁을 발인(發引)할 때에 대가(大駕)께서 곡하며 노량(露梁)에 왕림하셨으나, 선생은 반열에 들어가지 않고 다만 남쪽 교외의 길가에서 공경히 맞이하였다.

선생은 만여 자(字)의 상소문을 초(草)하여 군주가 중(中)을 세우고 극(極)을 세워 치화(治化)의 근본으로 삼는 것을 지극히 아뢰시고는 나에게 명하여 참고해 보고 정사(淨寫)하여 올리도록 하였는데, 성상(聖上)께서는 우대하는 비답(批答)을 내리셨다.

6 월 2 일에 선생은 자정전(資政殿)에 올라 성상을 면대하고는 첫번째로 본원(本原)과 강령(綱領)의 말씀을 아뢰고 또 향약(鄕約)을 시행할 것을 청하였으며, 동궁(東宮)이 인견(引見)

할 때에는 또한 학문을 힘쓰고 뜻을 세우는 등의 말씀으로 경계를 올렸다. 선생이 물러나오자 성상은 옷감과 채색비단을 하사하였다.

3 일에 선생이 남쪽으로 돌아오시니, 성상께서는 일로(一路)에 명하여 호송하도록 하였다. 나는 중씨와 함께 선생을 모시고 마전포(麻田浦)로 가서 하룻밤을 자고 돌아왔다.

정묘년(1627) 겨울에 나는 중씨와 함께 부지암에 와서 선생을 뵈었는데, 중씨가 남한산성에서 포위되었을 때에 올린 상소문의 초본(草本)을 소매 속에서 꺼내어 올렸다. 선생은 이것을 보시고는 "사군자(士君子)의 일생 사업이 모두 여기에 있다." 하시고, 여러 번 감탄하고 칭찬하셨다.

무진년(1628) 여름에 내가 동지사 서장관(冬至使書狀官)으로 장차 바다를 항해하여 명(明) 나라에 가게 되었다. 그리하여 선생을 남산에서 뵙고 하직하니, 선생은 증행시(贈行詩)와 서문(序文)을 내어 보이시고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평소 이러한 문자를 짓지 아니하여 최 감사(崔監司)가 서울로 갈 때에도 짓지 않았었는데 이제 간절한 정(情)을 이기지 못하여 대략 졸렬한 말을 얽었으니, 부디 남에게 보이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또다시 분부하시기를, "연경(燕京)에 가는 사신들이 언제나 돈을 가지고 물건을 무역하여 중국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비루(鄙陋)히 여김을 당한다 하니, 비록 서책이라도 굳이 사올 것이 없다." 하셨으며, 또 물으시기를 "밥을 잘 먹는가?" 하시기에, "7 홉 밥을 먹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선생은 웃으시며 "이와 같으면 걱정이 없다." 하시고는 대청 위로 나와 앉으시어 술을 따라 주고 작별하셨는데, "부디 신중하고 신중하라."고 거듭 당부하셨다.

기사년(1629) 7 월에 선생의 거마(車馬)가 입암(立巖)으로부터 오셨는데, 나는 이 때 처음 명(明) 나라 조정에서 돌아와 마침내 빙산(氷山)의 길 왼쪽에서 선생을 맞이하여 뵈었다. 저녁에 서원에 이르렀는데 선생은 명 나라 조정의 사정과 사신 일행이 오고간 전말을 물으셨다.

다음 날 아침 문묘(文廟)에 배알하였는데, 선생께서 심원록(尋院錄)에 이름을 쓰시고 연・월・일은 나에게 명하여 작은 글씨로 쓰게 하셨다. 선생은 인하여 제생들과 경전(經傳)의 뜻을 강론하시고, 이 날 구지(龜智)로 행차하셨다.

이 해 겨울에 내가 남산(南山)에서 선생을 뵙고 안후(安候)를 여쭌 다음 명 나라에 갔을 때의 일기(日記)와 명 나라 조정에 올린 글 등을 적은 책을 올렸더니, 선생은 다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번 걸음은 사방(四方)을 경영하는 남자의 뜻을 이루었다고 할 만하다." 하였다.

경오년(1630) 봄에 내가 처(妻)의 상(喪)을 당하여 의심스러운 예(禮)를 여쭈었더니, 선생은 답서를 내리시어 자세히 대답해 주셨다.

10 월에 남산에서 배알하고 여쭙기를,

"기년상(朞年喪)에는 15 개월 만에 담제(禫祭)를 지내오니, 담제를 지낸 뒤에 궤연(几筵)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하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궤연을 3 년 동안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조석(朝夕)의 상식(上食)을 올리는 것이 옳다."

하였다. 내가 여쭙기를,

"이와 같이 하면 예에 해롭지 않습니까?"

하니, 답하시기를,

"이것은 권도(權道)로 만든 것이니, 이른바 예는 마땅히 후(厚)한 쪽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하였다. 나는 또 여쭙기를,

"지금 아내가 죽은 뒤에 자부(子婦)의 궤연을 편의대로 옮겨 한 대청에 마련하고자 하옵는바, 다만 나란히 진열하는 것은 미안하오니,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 설치하고 가리개로 막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선생은 답하시기를,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였다. 나는 또다시 여쭙기를,

"사람들이 풍수설(風水說)을 지나치게 믿어 지금 세상의 고질적인 병폐가 되옵는바, 그 말이 과연 일리가 있습니까?"

하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산천(山川)의 풍기(風氣)는 모인 곳이 있고 흩어진 곳이 있고 응집하여 맺힌 곳이 있으니, 기운이 모이면 산세가 뭉치고 기운이 흩어지면 산세가 흩어지는 것이 진실로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만약 한결같이 풍수설을 믿어서 때를 지나도 장례하지 않음에 이른다면 크게 옳지 않다. 다만 풍기의 모이고 흩어짐과 산천이 응집되어 맺혀 있는 곳을 살펴서 쓰면 불가하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신미년(1631) 초여름에 나는 부지암으로 와서 선생을 뵙고 하루를 머물며 모셨는데, 선생은 평설(平說), 구설(究說),《역학도설(易學圖說)》을 꺼내어 보여주셨다.

다음 날 선생을 모시고 남산으로 돌아왔는데, 이 때 인조(仁祖)의 생부(生父)를 추숭(追崇)하자는 의논이 크게 일어났다. 그리하여 좌상(左相) 김류(金瑬)가 임금의 뜻을 거슬러 파직당하였다.

내가 여쭙기를,

"추숭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주(周) 나라 때에 태왕(太王)과 왕계(王季)와 문왕(文王)이 다 공덕이 있어서 주 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것이 이 세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주공이 왕(王)의 예(禮)로써 이들 세 분을 추존(追尊)한 것이니, 만약 주 나라 세 왕과 같은 공덕이 없으면서 추숭한다면 예가 아니다."

하였다. 그 후 선생은 상소문을 올려 간절하게 말씀하였다.

갑술년(1634) 2 월 나는 남산에 와서 선생을 뵙고 여러 친구들과 여지(輿地)의 일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선생은 분부하시기를, "우리 나라는 전적(典籍)이 구비되지 못하였으니, 이 고을에 살면서 이 고을의 고사(故事)를 모른다면 되겠는가. 제군은 각기 지지(地誌)를 편찬하여 권하고 징계하는 바가 있게 하는 것이 좋다." 하시고는, 인하여 나에게 명하여 《문소현지(聞韶縣誌)》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는 선생이 일찍이 문소현(聞韶縣 의성현(義城縣)의 별칭)의 현령이 되시어 수집할 뜻이 있었으나 성취하시지 못한 때문이었다.

7 월에 금오서원(金烏書院)에 나아가 선생을 배알하니, 선생은 이보다 앞서 상주(尙州)와 선산(善山)의 여러 노인들과 이 곳에서 모이기로 약속하신 것이었다. 나는 지평(持平) 유진(柳袗)이 편지로 이 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모임에 달려오니, 선생이 이미 가마를 타고 왕림해 계셨다.

다음 날 여러 노인들과 모이기로 약속하여 수로(水路)를 따라 상산(商山 상주(尙州)를 가리킴)에 이르니, 모임에 참석한 분은 경주 부윤(慶州府尹) 전식(全湜)과 영천 군수(永川郡守) 김지복(金知復), 참봉(參奉) 조광벽(趙光璧), 지평(持平) 유진(柳袗), 참봉(參奉) 김추임(金秋任), 도사(都事) 전극항(全克恒)이었고, 인동(仁同)과 선산(善山)에는 장장 내범(張丈乃範)과 김 언양 영(金彦陽寧)과 김장 공(金丈狉)과 박규(朴{k 奎%心}), 박황(朴愰), 박협(朴協), 이원(李垣)이었다. 선생은 누(樓) 위로 나와 앉으시어 여러 노인들과 담소하며 지칠 줄을 모르셨다.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내 친구들과 강신계(講信契)를 만들어서 수시로 모이고 계 이름을 강신(講信)이라고 명칭하고자 하노니, 어느 사람인들 참여할 수 없겠는가." 하였다. 이에 여러 노인들은 모두 옳다고 말하였으나, 혹 의외의 지목받는 일이 있을까 우려하여 결행하지 않았다.

을해년(1635) 중추(仲秋)에 남산에 와서 뵈오니 선생은 호수음(皓首吟) 한 절구(絶句)를 내어 보여주셨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흰 머리에도 적자의 마음 그대로 보전하니 / 皓首猶存赤子心

이 때에야 비로소 한 근원이 깊은 줄 알았노라 / 此時方會一源深

눈앞의 천지가 모두 진계이니 / 眼中天地都眞界

외물의 유혹 어디로부터 나에게 침입할까 / 外誘何從得我侵

선생은 인하여 가르치시기를, "이 말이 나의 노래(老來)의 심경(心境)을 다 말했다." 하였다. 나의 망녕된 뜻으로는 이 글에서 선생의 인욕(人欲)이 깨끗이 다하여 천리(天理)가 유행하는 묘(妙)를 상상할 수 있으니, 바로 맹자(孟子)의 이른바 '대인(大人)이란 적자(赤子)의 마음을 잃지 않은 자'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선생은 유 지평(柳持平)이 일찍 죽었음을 언급하시고는 착한 사람을 얻기 어려움을 개탄하셨다.

내가 죽은 아이의 입후(立後)하는 일을 여쭈었더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옛날에는 인심이 순후(淳厚)하여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입후하라고 명령하면 자손들이 그대로 준행(遵行)하여 진실로 다른 말이 없었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 모름지기 공문(公文)을 만들어 두어야 영구히 병폐가 없을 수 있다."

하기에, 나는 또다시 여쭙기를,

"예조(禮曹)에 올려 공문을 만드는 것은 반드시 양가 부모가 글을 올려야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미 부모가 없사오니, 누가 글을 올리겠습니까?"

하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그렇다면 입후하지 말라고 자손들에게 글을 남기고 정위(正位)로 사당에 모셨다가 친진(親盡)한 뒤에 체천(遞遷)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병자년(1636) 봄에 남산에 와서 뵈오니, 선생은 강학(講學)을 폐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나는 폐인이 되었으니, 믿는 것은 오직 자네들 두서너 명뿐이다. 더욱 닦고 삼가서 이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이 해 중하(仲夏)에 부지암에 와서 뵈오니, 교관(敎官) 김광계(金光繼)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날이 저물어 남산으로 돌아올 적에 나는 김 교관과 함께 선생을 모시고 왔다. 이 날 또다시 김 교관과 김덕승(金德承), 박통언(朴通彦), 장중효(張仲孝) 등 여러 사람들과 선생의 명령을 따라 함께 부지암에 갔다. 그리하여 달밤에 배를 띄우고 강물을 따라 내려가서 한밤중에 오산(吳山)에 정박하여 흥취를 다하고 돌아왔다.

7 월에 나는 선생이 안거(安車)로 부르는 명령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 뵈었는데, 선생은 여러 친구들이 전별(餞別)함으로 인하여 연일 술을 드셨다. 나는 "식사는 적게 하시면서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 혹 이로 인하여 건강이 손상될까 두렵습니다. 이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아뢰었더니, 선생은 "술의 힘이 노인을 보양함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대의 말이 또한 좋으니, 내 마땅히 유념하겠다."고 말씀하셨다.

도백(道伯)인 심공 연(沈公演)이 전별주(餞別酒) 잔을 올렸는데, 술이 세 순배가 돌자 선생은 술잔을 멈추도록 명하시고는 편안한 가마를 타고 길을 떠나셨다. 나는 선생을 모시고 송진(松津)까지 갔다가 목성(木城)으로 돌아왔는데, 선생은 가시다가 함창(咸昌)에 이르러 병이 나셨으므로 상소를 올리고 행차를 멈추시고는 원당(元堂)으로부터 배를 타고 내려오셨다. 나는 목성으로부터 나가서 비산강(飛山江)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음 날 양탄(羊灘)에서 맞이하여 뵙고 안후를 살피니, 선생은 술을 마시라고 명하셨다.

정장 사물(鄭丈四勿)과 사부(師傅) 정극후(鄭克後), 진사(進士) 김양(金瀁), 진사(進士) 김공(金玒)과 참봉(參奉) 박진경(朴晉慶) 등 제현들이 배를 타고 부지암을 찾아 정박하니, 선생은 장편(長篇)의 기행시(紀行詩)를 내어 보이시고 나에게 명하여 화답해 올리도록 하였다.

다음 날 가마를 타고 남산으로 돌아가시므로 내가 하직 인사를 드리고 물러나오니, 선생은 당부하시기를, "왜국(倭國)에 진(秦) 나라 때 분서(焚書)하기 이전의 책이 있다 하니, 통신사(通信使)로 가는 길에 구해오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이 때 김공 세렴(金公世濂)이 통신부사(通信副使)가 되었는바, 길이 문소(聞韶 의성(義城)을 가리킴)를 경유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당부가 계신 것이었다.

정축년(1637) 2 월에 내가 병으로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돌아오니, 이 때 선생은 수레를 타고 입암(立巖)으로 향하려 하여 구지(龜智)에 여러 날 머물러 계셨다.

나는 마침내 나아가 안후(安候)를 여쭈었다. 손님들이 흩어진 뒤에 선생은 한숨을 쉬며 탄식하시기를, "고금과 천하에 어찌 이러한 일이 있단 말인가. 내 사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전전하다가 죽어서 시신이 구렁에 버려지고자 하노니, 자손들에게 유명(遺命)하여 후장(厚葬)하지 말고 다만 까마귀와 솔개의 먹이가 되지 않게 할 뿐이다." 하였다. 그리고는 인하여 선영(先塋)의 묘소에 고유(告由)하는 글을 내어 보이셨는데, 여기에 "하늘이 없고 해가 없으니, 간들 어디로 가겠습니까.[無天無日 有往奚適]" 한 말씀이 있었다. 나는 인하여 모시고 입암으로 가서 수십 일을 머물다가 돌아왔다.

중추(仲秋)에 입암으로 찾아가 뵈었는데, 선생은 새벽에 일어나시어 촛불을 밝히고 술이 몇 순배 돌자 한탄하시기를,

"천지가 단절되고 윤리가 무너졌으니, 중화(中華)의 문물(文物)을 이제 다시 볼 수 없다."

하였다. 인하여 참판 정온(鄭蘊)의 일을 언급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처럼 늙어서 폐인이 된 자는 일찍이 하루도 조정에서 벼슬하지 않았으니 이와 같이 해야 할 뿐이지만, 종전에 봉직했던 사람들은 굳이 몸을 깨끗이 하여 영영 떠나가서는 안 될 듯하다."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고려 말기에 야은(冶隱)이 기미를 보고 떠나갔으니, 정공(鄭公)의 뜻도 이러한 소견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선생은 말씀하시기를,

"야은은 관직이 낮았기 때문에 몸을 받들어 물러간 것이요, 포은(圃隱)과 같은 분은 사직(社稷)의 대신(大臣)으로 쓰러지는 나라를 붙들고 위태로운 국가를 유지하려다가 끝내 몸을 죽임에 이르셨으니, 출처(出處)의 의리는 한 가지로 논하기 어렵다."

하였다.

이 때 선생이 심의(深衣)와 복건(幅巾)을 새로 만들었으니, 이는 지산(芝山) 조호익(曺好益)과 청주(淸州) 한백겸(韓百謙)의 제도를 따른 것이었다. 선생은 나에게 명하여 입어보게 하셨으며, 또 골짝에 있는 바위의 칭호를 명명한 첩(帖)을 꺼내어 보여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사이 산수의 아름다운 경치가 어떠한가?"

하기에, 나는 대답하기를, "백운동(白雲洞)보다 나을 듯하오니, 도산(陶山)에 비견할 만합니다."

하였다.

내가 하직하고 물러나올 때에 선생은 당부하시기를,

"입암의 서재(書齋)가 너무 좁아서 용납하기 어려우므로 토실(土室) 몇 칸을 지어서 원근의 동지들이 유숙할 곳을 만들고자 하니, 겨울철에 조용히 와서 머무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계추(季秋)에 선생께서 편찮으시다는 소식이 이르렀으므로 즉시 달려가 살펴보니, 선생의 병환이 이미 위독하였다. 선생은 모시는 자로 하여금 부축하여 앉히게 하고 말씀하시기를, "서로 거리가 먼데 이렇게 와주니, 그 뜻이 참으로 고맙다." 하시고는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병세는 더 이상 지탱할 수가 없으니, 내 말년에 상종하던 것이 이로부터 끝나게 되었다. 오직 바라노니, 여러 친구들은 더욱 스스로 힘쓰고 힘써서 이 노부(老夫)가 영결(永訣)할 때의 뜻을 저버리지 말라." 하였다.

이틀이 지난 임신일에 선생은 만욱재(晩勗齋)에서 별세하였다. 전날 밤 천둥번개가 치고 폭우가 내려 산이 무너지는 재앙이 있었으며, 이 날 아침 또 하늘이 깜깜하여 해가 어둡고 사나운 바람이 일어나 진동하는 변고가 있었으니, 아, 괴이하다.

내 인하여 엎드려 생각해 보니, 소자(小子)가 선생의 문하에 출입한 지가 거의 40 년에 이른다. 그리하여 지팡이와 신발을 받든 것이 오래지 않은 것이 아니요 친히 가르침을 받은 것이 간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으나 혼우(昏愚)하기 이를 데 없어 아직도 만분의 일도 개발하지 못하였으니, 매양 한밤중 이것을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무연(憮然)히 스스로 서글퍼진다. 이에 감히 문하에 오른 이래로 연월(年月)의 시종(始終)과 귀와 눈으로 보고 들은 바의 수응(酬應)하고 문답(問答)한 일들을 대략 기술해서 서림(西林)의 무궁한 감회를 부치는 바이다.

열도(悅道)가 일찍이 선생을 모시고 앉았었는데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사람은 선행(善行)을 하든 악행(惡行)을 하든 각기 응보(應報)가 있으니, 선행을 한 자는 비록 한때의 이익은 없으나 끝내 치욕을 면하고, 악행을 한 자는 비록 목전(目前)의 큰 해는 없으나 끝내 반드시 재앙이 있다. 그리하여 선인에게 복을 내리고 악인에게 화를 내리는 이치를 진실로 속일 수 없으니, 사람마다 선행을 하는 것을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선생은 언제나 여름철을 당하여 천둥번개가 치는 것을 들으시면 비록 한밤중이라도 반드시 의관(衣冠)을 정제(整齊)하고 앉으시니, 늙은 종들이 서로 말하기를, "나리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들도 본받는다." 하였다.

선생은 일생 동안 자신을 감추고 숨기시어 사람들이 그 끝을 엿볼 수 없었으며, 또 스승으로 자처하지 아니하여 문하에 출입하는 사람을 손님처럼 대하셨다. 그리하여 무릇 저술하신 것을 사람들이 엿볼 수가 없었으며, 외인(外人)이 의심나는 예(禮)를 질문하여도 가타부타 하시는 일이 드무셨는데, 말년에야 비로소 답을 하셨다.

선생은 일생 동안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시어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음료도 부족하여 여러 번 끼니를 걸렀으나 태연히 거처하였으며,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배우는 자들과 함께 드셨다.

선생은 모부인(母夫人)의 상(喪)을 만나 물과 음료를 입에 넣지 않기를 여러 날 하셨으나 곡하는 소리는 오히려 조금도 쇠해지지 않았다.

선생은 제사를 받들 적에 크고 작은 일에 관계 없이 반드시 정성스럽게 하고 반드시 삼갔으며, 초하루와 보름에 참배(參拜)하는 것과 사시(四時)의 큰 제사를 모두 한결같이 예문(禮文)을 따랐으며, 묘제(墓祭)를 매년 3 월과 10 월 상순(上旬)에 행하고 먼 선조의 묘소에도 제사를 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나이가 80 세에 이르셨는데도 반드시 몸소 제사를 지내고 남을 시키지 않으셨다. 또한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의식에 있어서도 대략《가례(家禮)》를 따랐으며《의례(儀禮)》와 주소(註疏)를 참고하여 모두 옛날 예를 준행하시고 각각 의식(儀式)을 지어 가범(家範)으로 삼았다.

속집 제 10 권 / 제문(祭文)

사림(士林)의 제문-문인 신홍망(申弘望)

15 世 홍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恭惟先生。受天間氣。一心向道。學以爲己。眞知力踐。義精仁熟。淸純渾粹。不露圭角。德宇冲襟。充然自得。爲世師儒。遠紹正脈。操修之功。至衰彌篤。樂彼巖頭。爰構數椽。仁山智水。妙契心天。下有游魚。上有飛鳶。冥會在斯。富貴浮煙。白髮韶顔。頤養幾年。一部羲經。俯讀仰思。寤寐周孔。研深極微。沈潛涵泳。探盡天根。吟邊風月。靜裏乾坤。優游遲暮。謝絶塵紛。蒲輪屢至。鶴書斯勤。翻然一起。朝野拭目。咫尺天顔。言意懇惻。丹鳳暫儀。白駒難縶。遠辭脩門。婆娑初服。羣情缺望。聖心如失。雲龍際違。霖雨思極。雖未設施。表儀家國。云胡不淑。遽至易簀。山林寂莫。吾道誰託。邦無耆龜。士失宗師。天之將喪。慟哭何追。粤我先人。分義甚厚。肆余小子。最承恩遇。瞻仰德範。何日忘之。科場汨沒。世累奔馳。不得長侍。杖屨之側。貿貿至今。禽鹿視肉。撫躬自悼。雖悔莫及。往歲之春。天地翻覆。軒車徂東。住駕龜池。拜候牀下。承誨移時。那知一辭。便成永訣。道里阻隔。事故纏縛。歿未及斂。葬未執紼。奔赴後人。築室無因。余懷之悲。有淚霑巾。烏山峩峩。洛水汪汪。氣象森然。愈遠難忘。茫茫宇宙。荏苒流光。初朞載屆。感念益長。田園秋晩。松菊荒凉。單杯薄奠。曷罄寸心。一慟筵前。冀賜昭臨。嗚呼痛哉。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선생은 / 恭惟先生

하늘의 빼어난 기운을 받으시고 / 受天間氣

한 마음으로 도를 향하여 / 一心向道

자신을 위하는 학문을 하셨습니다 / 學以爲己

참으로 알고 힘써 실천하여 / 眞知力踐

의리가 정하고 인이 익숙하였습니다 / 義精仁熟

깨끗하고 순수하고 혼후하여 / 淸純渾粹

규각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 不露圭角

덕스러운 도량에 온화한 흉금으로 / 德宇沖襟

충만하여 스스로 즐거워하였습니다 / 充然自得

세상의 사표가 되시어 / 爲世師儒

멀리 정맥을 이으시니 / 遠紹正脈

조집(操執)하고 닦는 공부가 / 操修之功

노년에 이르러 더욱 돈독하였습니다 / 至衰彌篤

저 바위 머리를 좋아하시어 / 樂彼巖頭

몇 칸의 집을 지으니 / 爰構數椽

어진 산과 지혜로운 물에 / 仁山智水

하늘의 오묘한 이치 마음에 터득하였습니다 / 妙契心天

아래에는 뛰노는 물고기가 있고 / 下有游魚

위에는 나는 솔개가 있으니 / 上有飛鳶

마음속에 묵묵히 앎이 여기에 있어 / 冥會在斯

부귀를 뜬구름처럼 여기고는 / 富貴浮烟

홍안백발에 / 白髮韶顔

몇 년을 한가로이 수양하였습니다 / 頤養幾年

한 질의 희경을 / 一部羲經

굽어 읽고 우러러 생각하여 / 俯讀仰思

자나 깨나 주공(周公)과 공자(孔子)를 생각하며 / 寤寐周孔

깊고 은미한 진리 연구하였습니다 / 研深極微

침잠하고 함영하여 / 沈潛涵泳

하늘의 뿌리 탐구하였으며 / 探盡天根

풍월을 읊고 / 吟邊風月

조용한 가운데 세월을 보냈습니다 / 靜裏乾坤

노년에는 한가로이 노닐어 / 優游遲暮

분분한 진세(塵世)를 사절하였습니다 / 謝絶塵紛

포륜이 여러 번 이르고/ 蒲輪屢至

학서가 부지런하자 / 鶴書斯勤

번연히 한 번 일어나시니 / 翻然一起

조야에서는 눈을 씻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 朝野拭目

지척에서 성상(聖上)을 대하여 / 咫尺天顔

말씀과 뜻이 간곡하였습니다 / 言意懇惻

붉은 봉황이 잠시 춤을 추었으나 / 丹鳳暫儀

흰 망아지 잡아매기 어려웠습니다 / 白駒難縶

멀리 궁궐문을 하직하고 / 遠辭脩門

한가로이 처음의 일을 하시니 / 婆娑初服

사람들 모두 서운해하고 / 群情缺望

성상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 聖心如失
구름과 용의 만남 어그러지니 / 雲龍際違
장맛비의 생각 간절하였습니다 / 霖雨思極
비록 나라에 시행하지는 못하였으나 / 雖未設施
국가에 의표가 되었사온데 / 表儀家國
어찌 불행하여 / 云胡不淑
갑자기 별세하신단 말입니까 / 遽至易簀
산림이 적막하니 / 山林寂寞
우리 도를 누가 맡겠습니까 / 吾道誰託
나라에는 시초와 거북이 없어지고 / 邦無蓍龜
선비들은 종사를 잃었습니다 / 士失宗師
하늘이 장차 우리 도를 망하게 하니 / 天之將喪
통곡한들 어찌하겠습니까 / 慟哭何追
아, 우리 선인과는 / 粵我先人
친분과 정의(情誼)가 매우 두터웠습니다 / 分義甚厚
이에 소자는 / 肆余小子
가장 은혜로운 대우를 받았습니다 / 最承恩遇
덕스러운 모습 우러러보오니 / 瞻仰德範
어느 날인들 잊었겠습니까마는 / 何日忘之
과장에 골몰하고 / 科場汨沒
세상의 얽매임에 달려가서 / 世累奔馳
길이 선생을 모시고 / 不得長侍
지팡이와 신의 곁에 있지 못하였습니다 / 杖屨之側
무무하여 지금에 이르오니/ 貿貿至今
금록이 고기를 보듯 하였습니다 / 禽鹿視肉
몸을 어루만지며 스스로 서글퍼하오니 / 撫躬自悼
비록 후회하나 미칠 수 없습니다 / 雖悔莫及
지난해 봄에는/ 往歲之春
천지가 번복되오니 / 天地飜覆
수레를 타고 동쪽에 가시어 / 軒車徂東

구지에 머무셨습니다 / 住駕龜池

평상(平牀) 아래에서 절하옵고 / 拜候牀下

한동안 가르침을 받들었습니다 / 承誨移時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한 번의 하직이 / 那知一辭

곧 영결이 되올 줄을 / 便成永訣

도로가 아득히 멀고 / 道里阻隔

일과 연고가 얽히고 설켜서 / 事故纏縛

별세했을 때에는 염에 미치지 못하고 / 歿未及斂

장례 때에는 상엿줄을 잡지 못했습니다 / 葬未執紼

남들보다 뒤늦게 달려오고 / 奔赴後人

무덤가에 집을 짓고 거상(居喪)하지 못하오니 / 築室無因

저의 회포 슬퍼져서 / 余懷之悲

눈물이 수건을 적시옵니다 / 有淚霑巾

금오산(金烏山)은 우뚝이 높고 / 烏山峩峩

낙동강은 너르게 흐르오니 / 洛水汪汪

선생의 기상이 눈앞에 삼삼하여 / 氣象森然

더욱 멀수록 잊기가 어렵사옵니다 / 愈遠難忘

아득하고 아득한 우주에 / 茫茫宇宙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가서 / 荏苒流光

초기가 곧 이르오니 / 初朞載屆

감동하는 생각 더욱 깊사옵니다 / 感念益長

전원에 가을이 깊어가니 / 田園秋晩

소나무와 국화 황량하옵니다 / 松菊荒涼

한 잔 술에 박한 제수로 / 單杯薄奠

어찌 작은 마음 다하겠습니까 / 曷罄寸心

궤연(几筵)의 앞에 한번 통곡하오며 / 一慟筵前

밝게 강림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 冀賜昭臨

아, 애통하옵니다 / 嗚呼痛哉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종래 우리나라의 야사(野史)류에는 그 기술(記述)면에 있어 여러 양식의 것이 있다. 예를 들면, ① 사료를 연대순(年代順)으로 기재하는 편년체(編年體), ② 연대순으로 엮되, 강령(綱領)을 내세우고 거기에 구체적인 기사를 실은 편년강목체(編年綱目體), ③ 인물중심의 전기체(傳記體), ④ 기문이담(奇聞異談)식의 반설화체(半說話體), 그리고, 이 밖에, ⑤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란 방식에 의한 야사도 있다. 기사본말체는, 즉 역대의 중요 사건별로 항목을 세워 그 전말(顚末)에 관한 사료를 수록하는 것이니, 일종의 진보된 방식이라 하겠다.

근조선에 관한 기사본말체의 야사로는 서문중(徐文重)의 《조야기문(朝野記聞)》과 이긍익(李肯翊)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을 그 대표로 들 수 있는데, 이 둘 중 가장 체재가 잘 갖추어지고, 또 널리 유포된 것이 《연려실기술》인 것이다.

이 책의 편저자인 이긍익은, 영조(英祖) 12 년(1736 년)에 출생하여 순조(純祖) 6 년(1806 년)에 71 세로 돌아간, —우리나라의 문예(文藝) 부흥기라 할 수 있는— 영・정(英・正) 시대의 학자이었다. 그의 자는 장경(長卿), 호는 연려실(燃藜室), 본관은 전주(全州)요, 근세 필가(筆家)로 유명한 원교(圓嶠) 이광사(李匡師)의 아들이었다. 원교는 비단 필가로서뿐 아니라 문장가로도 이름이 있었다. 원교의 당색(黨色)은 소론(少論)에 속하였는데, 소론파의 강경분자인 그의 백부(伯父) 이진유(李眞儒)가 영조 6 년에 역모죄로 몰리자, 원교도 거기에 연좌되어, 전후 20 여 년간의 귀양살이를 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노소론(老少論) 당쟁에 있어 소론 일파의 실각을 의미하는 것이어니와, 이 까닭에 진유의 종손이요, 광사의 아들인 긍익은 처음부터 벼슬길을 단념하고 오로지 학문에만 힘썼다.

그는, 특히 국사에 비상한 관심과 취미를 갖고 널리 사서(史書)를 섭렵하였는데, 종래의 야사류가 너무도 산만하여 체계를 잃은 데 대해 큰 불만을 품었다. 그래서, 그는 근조선 태조(太祖) 이래 각 왕대(王代)의 중요한 사건(대개 정치적 사건)을 기사본말체적 방식에 의하여 편찬하되, 조금도 자기의 견해나 비평을 가하지 않고 다만 여러 사서에서 관계 기사를 초출(抄出)・기입하는 동시에, 일일이 출처를 밝히었다. 이것이, 《연려실기술》의 원집(原集)이다. 또한, 그는 따로 역대 관직을 위시하여 각종 전례(典禮)・문예(文藝)・천문・지리・변어(邊圉 대외관계) 및 역대 고전(歷代古典) 등, 크게 편목(篇目)을 나누어 그 연혁을 기재하고, 또한 출처를 밝히었다. 이것이 《연려실기술》의 별집(別集)이란 것이다. 원집을 정치편(政治篇)이라고 한다면, 별집은 분류편(分類篇)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연려실기술》의 원・별집의 전사본(傳寫本)이 편저자 이긍익의 생존시로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그 수효가 한 둘이 아닌만큼, 별도로 정본(定本)이 없이 내려왔다. 더구나, 편저자 자신이 그 의례(義例 범례)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문(本文)에 여백을 두어 수시로 새로운 사료를 발견하는 대로 기입・보충하는 방침을 취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책에 대해 그렇게 보충케 하여 완본(完本)을 이룩하도록 희망하였으므로, 종래 전사본 중에는 서로 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따라 권질(卷帙)도 서로 맞지 않은 것이 많이 있게 되었다. 편저자 자신의 최후 정본인 원고본 역시 전치 않고 있는 형편이므로, 갑자기 그 정본이 어떤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나, 지금까지의 각종 전사본 중에서 가장 권위가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제 초기에 일인(日人) 주관의 조선고서간행회(朝鮮古書刊行會) 인본(印本)의 대본(臺本)과 같은 것이 그것이요, 또 하나는 최남선(崔南善) 주관의 광문회(光文會) 인본의 대본과 같은 것이 그것이다. 전자(前者)는 원집 33 권(태조로부터 헌종까지), 속집(續集) 7 권(숙종) 및 별집(別集) 19 권, 도합 59 권임에 대하여, 후자(後者)는 단지 원집 24 권(인조까지), 별집 10 권, 도합 34 권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광문회 인본의 제언(題言)에 의하면, 그 인본의 대본[사본]은 이범세(李範世 이긍익의 후손)의 기본(寄本)으로, 이를 원본(原本)이라 하고 이 원본과 수삼 종의 전사본을 비교・대조

하여 와오(訛誤)를 정정(訂正)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른바 원본이 정말 이긍익의 최후 원고본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그것의 전사본인지 자세치 아니하나, 그것이 이씨가(李氏家) 전래의 정본이기 때문에 원본이라고 하였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여기에는 원집 중 효종・현종의 양대 고사가 빠졌다. 어떻든 고서간행회본과 광문회본을 비교해 볼 때, 전자의 대본과 같은 사본 가운데는 타인의 추보(追補)한 흔적이 많으니, 무엇보다도 속집 7 권(숙종 고사)이 그 가장 두드러진 것이라 하겠다.

속집에는 사료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는 그 점으로 보아, 그것이 원저자의 손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타인의 추보가 있다고 해서 비난할 것은 조금도 없다. 도리어 그 추보는 원편자 이긍익의 뜻에 부응(副應)하고, 계승한 미사(美事)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고서간행회본에는 와오(訛誤)가 많음에 대하여 광문회 인본은 —효종으로부터 숙종 때에 이르기까지의 속집은 들어 있지 않지만— 정정에 매우 힘썼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국역에 있어서는 광문회본과 고서간행회본에 의거하되 후자의 와오를 정정하는 한편, 전자의 미비(未備)한 부문을 보충하는 방침을 취하였다. 요컨대, 연려실기술은 종래 무체계(無體系)한 모든 야사에 대하여 한 정비된 체계를 세웠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의 추보를 많이 거친만큼, 비교적 완본을 이룬 것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다시 말하면, 본서는 우리나라의 야사 가운데 가장 체재가 정비되고, 또 내용이 풍부한 것으로, 그 전사본이 많이 유포(流布)되었던 것이다.

이긍익(李肯翊)

정의

조선후기『연려실기술』을 저술한 학자.

요약문

이긍익은 조선후기『연려실기술』을 저술한 학자이다. 1736년(영조 12)에 태어나 1806년(순조 6)에 사망했다. 신임옥사와 이인좌의 난으로 가문이 크게 화를 당했고, 20세 때 아버지 이광사도 나주괘서사건에 연루되어 죽었다. 역경과 빈곤 속에 벼슬을 단념하고 평생 야인으로 살며 학문에 매진했다. 가문은 전통적으로 소론에 속했으나 학파는 아버지 때부터 양명학을 받아들인 강화학파에 속했다. 실학을 연구한 고증학파 학자로서 조선사 연구의 선구자이다.『연려실기술』에는 고증학과 민족 주체성을 강조한 그의 역사관이 뚜렷이 드러나 있다.

개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장경(長卿). 호는 완산(完山) 또는 연려실(燃藜室). 서울 출생. 아버지는 이광사(李匡師)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연려실'이란 아버지가 손수 휘호해준 서실(書室) 이름으로, 한(漢)나라의 유향(劉向)이 옛 글을 교정할 때 태일선인(太一仙人)이 *청려장(靑藜杖)*[주 01]에 불을 붙여 비추어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다.

가문은 전통적으로 소론에 속했으며, 경종대의 신임옥사와 1728 년의 이인좌(李麟佐)의 난으로 크게 화를 당하였다. 그리고 20 세 때 아버지 이광사가 나주괘서사건에 연루, 유배되어 그 곳에서 죽었다.

그리하여 역경과 빈곤 속에서 벼슬을 단념한 채 일생을 야인으로 보냈다.
이이(李珥)·김장생(金長生)·송시열(宋時烈)·송준길(宋浚吉)·최립(崔岦) 등 서인 계열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고, 동인 및 훈구세력·영남학파와는 사상적으로 별 관련이 없었다.

집안이 가학으로서 양명학(陽明學)을 내수(內修)해왔기 때문에 이긍익 역시 특히 양명학 계열에 속하였다. 일찍이 장유(張維)·최명길(崔鳴吉)에서 비롯된 양명학은 정제두(鄭齊斗)를 통해 이긍익에게 전해졌다.

『계곡만필(谿谷漫筆)』·『학곡집(鶴谷集)』을 통해 장유를 접했고, 『지천집(遲川集)』에서 최명길과 대화했으며, 정제두를 사숙하였다.

한편, 아버지 이광사는 정제두의 학문을 접하기 위해 강화도로 이사했으며, 정제두의 손녀를 며느리로 맞기까지 하였다. 강화도에서 정제두를 중심으로 한 양명학파를 '강화학파'라고 부르기도 한다. 양명학은 이광사 이후 이충익(李忠翊)·이면백(李勉伯)·이시원(李是遠)·이상학(李象學)·이건창(李建昌)의 5 대에 걸쳐 이어져왔다.

이긍익의 역사의식은 『연려실기술』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이긍익은 고증을 역사에서 제일의 생명으로 여기고, 어디까지나 '술이부작(述而不作)'·'불편부당(不偏不黨)'의 정신으로 남인·북인·노론·소론 및 유명·무명 인사를 가리지 않고 자료들을 섭렵, 인용했으며, 거의 국내 자료에 국한하였다.

이것은 한치윤(韓致奫)이 『해동역사』를 쓸 때 외국 자료를 통해 한국사를 이해하려 한 태도와는 대조된다. 우리의 역사는 내 나라의 자료로써 이루어져야 한다는 강한 자아의식 때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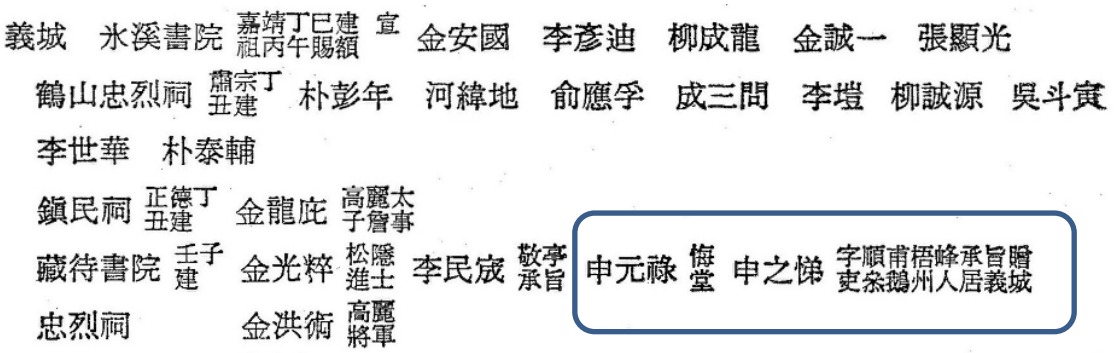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역사 서술에서 생명으로 다룬 것은 객관성·공정성·체계성·계기성 그리고 현실성이었다. 『연려실기술』의 찬술은 이러한 사관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또, 지금까지 역사 서술에서 선현을 칭할 때 본명보다는 호나 자·시호 등으로 표시해온 것을 비판하면서 공정성을 위해서도 성명을 그대로 쓸 것을 강조하였다.

글씨에도 뛰어났으며, 실학을 연구한 고증학파 학자로서 조선사 연구의 선구자이다. 저서로는 『연려실기술』이 있다.

창원 부사 오한 손공 행장〔昌原府使聱漢孫公行狀〕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의성(義城) 빙계서원(氷溪書院) 가정(嘉靖) 정사년에 세웠으며 선조 병오년에 사액하였다. : 김안국(金安國)・이언적(李彦迪)・유성룡(柳成龍)・김성일(金誠一)・장현광(張顯光)

학산충렬사(鶴山忠烈祠) 숙종 정축년에 세웠다. : 박팽년(朴彭年)・하위지(河緯地)・유응부(兪應孚)・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유성원(柳誠源)・오두인(吳斗寅)・이세화(李世華)・박태보(朴泰輔)

진민사(鎭民祠) 정덕(正德) 정축년에 세웠다. : 김용비(金龍庇) 고려조의 태자첨사(太子詹事)이다.

장대서원(藏待書院) 임자년에 세웠다. : 김광수(金光粹) 호는 송은(松隱), 진사이다. ・이민성(李民宬) 호는 경정(敬亭), 승지를 지냈다. ・신원록(申元祿) 호는 매당(梅堂)이다. ・신지제(*申之悌*) 자는 순보(順甫), 호는 오봉(梧峯), 승지를 지냈고,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본관은 아주(鵝州)요, 의성(義城)에 살았다.

충렬사(忠烈祠) : 김홍술(金洪術) 고려조의 장군(將軍)이다.

우복집(愚伏集)

1. 머리말

《국역 우복집(國譯愚伏集)》은, 16 세기 말에서 17 세기 초엽에 이르는 동안 우리나라 유학사(儒學史)에서 뚜렷하면서도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2)의 시문(詩文)을 모은 《우복집(愚伏集)》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말로 옮긴 것이다.

《우복집》은 우복이 살았던 시대가 임진왜란에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으로 이어지는 국난기(國難期)였던만큼 그 당시의 우리 역사를 증언하는 역사자료인 동시에 그 자체가 우리 민족문화의 귀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또한 우복은 우리나라의 유학사(儒學史)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우복이 활동하였던 시대는 영남학파(嶺南學派)와 기호학파(畿湖學派) 간에 정치적인 대립과 아울러 학술상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런 와중에서 우복은 영남학파의 중심적인 인물로서 퇴계(退溪)의 학설을 고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남학자들과는 달리 율곡(栗谷) 계열의 기호학파 인물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학문적으로 우복은 주자학(朱子學) 전반에 조예가 깊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예학(禮學)에 정통하여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이나 한강(寒岡) 정구(鄭逑) 등과 함께 예학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당시의 퇴계 제자들이 문장(文章)에 대해 등한시한 데 반하여 문장에도 뛰어나서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을 담당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영남 남인(嶺南南人)으로서 보기 드물게 이조 판서(吏曹判書)에 올라 전형(銓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유학사상과 정치사상에 있어서 이렇듯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우복과 《우복집》에 대한 연구는 그 당시의 정치나 학문, 사상을 논함에 있어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복집》이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는 탓에 그 동안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이의 국역(國譯)이 절실하게 요청되었다.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이러한 중요성과 시의성(時宜性)을 감안하여 이를 국역하여 학계에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는데, 필자가 마침 그 국역(國譯)을 맡게 되었다. 이에 국역에 앞서 이 책의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소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 부문으로 나누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2. 《우복집》의 간행 경위

《국역 우복집》의 저본(底本)은 민족문화추진회에서 1991 년에 표점(標點)을 찍어 영인(影印)한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68 집에 수록되어 있는 《우복집(愚伏集)》이다. 이 《우복집》은 《우복선생문집》과 《우복선생별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복선생문집》은 우복의 사위인 송준길(宋浚吉)과 사손(嗣孫)인 정도응(鄭道應)의 주관하에 가장초고(家藏草稿)를 20 권 10 책으로 편차(編次)하여 효종(孝宗) 8 년(1657)에 상주(尙州)의 도남서원(道南書院)에서 목판(木板)으로 간행한 것이고, 《우복선생별집》은 후손인 정하묵(鄭夏默)이 이미 간행되어 있던 《우복선생별집》에다가 부록(附錄)을 증보하여 1899 년에 12 권 6 책으로 중간(重刊)한 것이다.

《우복집》의 간행 과정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우복집》은 처음에 합천(陜川)에 사는 심장(沈丈)이라는 분에 의하여 산정(刪定)이 이루어졌는데, 이때에는 정밀하고 간략한 것을 위주로 해서 적은 분량을 취한 탓에 우복의 글 중 많은 부분이 누락되었다. 이에 송준길과 정도응이 목릉천장지(穆陵遷葬誌),

습독묘지(習讀墓誌), 송이창묘표(宋爾昌墓表), 경오년회시책제(庚午年會試策題), 상금초유계(上金招諭啓), 조사회첩(詔使回帖) 등의 글을 보충해서 1657 년에 처음으로 원집(原集) 20 권 10 책을 간행하였다. 이 원집(原集)에는 사문록(思問錄)이나 양정편(養正篇) 등의 글이 실리지 않았으므로, 나중에 별도로 간행할 생각을 하였다. 연보는 1633 년부터 송준길이 초하기 시작해서 1644 년경에 일단락되었으며, 행장(行狀)은 1658 년에 송시열(宋時烈)이 짓고, 신도비명(神道碑銘)은 조경(趙絅)이 지었으나, 간행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1789 년에 정조(正祖)의 명으로 인해 6 세손 정종로(鄭宗魯)가 원집과 별집, 연보를 올려 을람(乙覽)하였는데, 이때 올린 별집과 연보는 미간행 정고본(定稿本)이었다. 1821 년에 후손 정상리(鄭象履) 등이 연보와 부록을 포함한 별집을 8 권 4 책으로 편차하여 목판(木板)으로 간행하였는데, 이 별집에는 원집을 간행할 때 빠졌던 시문(詩文)과 사문록(思問錄), 양정편(養正篇), 경연일기(經筵日記), 연보(年譜), 묘지(墓誌), 신도비명(神道碑銘), 행장(行狀) 등이 수록되었다. 1844 년에 우산서원(愚山書院)에서 원집을 목판으로 중간하였는데, 이때에는 초간본(初刊本)과 내용이나 편차의 차이가 전혀 없이 판식(板式)의 형태만 바꾸어서 간행하였다. 1899 년에 다시 정하묵이 《별집》의 초간에서 빠진 시장(諡狀), 묘표(墓表), 언행록(言行錄)을 증보하고, 연보의 체재를 약간 바꾸어서 《우복선생별집》을 중간하였다.

3. 우복의 생애와 행적

우복은 정여관(鄭汝寬)과 이가(李軻)의 딸인 합천이씨(陜川李氏) 사이에서 명종(明宗) 18 년(1563)에 상주(尙州)의 율리촌(栗里村)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성장하였다. 중년에는 조정에 출사할 때 이외에는 주로 우산(愚山)에서 지냈으며, 말년에는 낙강(洛江) 가의 매호촌(梅湖村)으로 이사해 살다가 인조 11 년(1633)에 묵곡(墨谷)에서 71 세로 졸하였다. 우복의 본관(本貫)은 진주(晉州)이고, 자(字)는 경임(景任)이다. 젊은 시절의 호는 하거(荷渠), 승성자(乘成子)였고, 나이가 들어서는 우북산(于北山)에 별업(別業)을 짓고서 우북산의 이름을 우복산(愚伏山)으로 고친 다음 우복(愚伏)으로 호를 삼았으며, 석중도인(石漵道人) 또는 송록(松麓)이라고 칭하기도 하였다.

우복이 살다 간 시기는 조선조 전기와 후기의 분수령으로, 이 기간은 선조조의 당쟁(黨爭)과 임진왜란(壬辰倭亂), 광해조의 난정(亂政), 인조조의 반정(反正)과 정묘호란(丁卯胡亂) 등 커다란 사건이 연속된 시기였다. 실록(實錄)의 정경세졸기(鄭經世卒記)에 '선조조에 전랑(銓郞)이 되어 당여(黨與)를 심었다는 비난을 받았으며, 광해조 때에는 권간(權奸)들로부터 축출당하여 시골로 쫓겨나 살았다. 반정(反正) 뒤에 가장 먼저 발탁되어 주요 관직을 역임한 다음 천조(天曹)의 장(長)이 되어 문형(文衡)을 겸임하였으며, 경악(經幄)에 출입하면서는 많은 규계(規戒)의 도움을 주었다. 정원군(定遠君)을 추숭(追崇)할 때에는 임금의 뜻을 거슬러 귀향(歸鄕)하였으며, 그 뒤에 여러 차례 소명(召命)을 받았으나 출사(出仕)하지 않았다.' 한 것은 우복의 일생을 일목요연하게 평한 말이라 하겠다. 이와 같은 격변기의 삶을 산 우복의 일생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다.

첫째는 출사전기(出仕前期)로, 대략 선조조(宣祖朝)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우복이 벼슬길에 오른 24 세 때부터 45 세 때까지가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대내적으로는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분당(分黨), 남인(南人)과 북인(北人)의 대립으로 인하여 사대부들 사이에 반목(反目)이 깊어지던 시기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임진왜란이라는 미증유의 사태가 일어나 나라가 존망위급에 처한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조정에 출사한 우복 역시 이를 비켜갈 수는 없었으므로 우복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실로 '풍파(風波)의 시기'라고 할 만하였다.

우복은 24 세가 되던 해인 선조 19 년(1586)에 알성문과(謁聖文科)에 급제하여 승문원 권지부정자(承文院權知副正字),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 대교(待敎)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경연(經筵)에서 《시전(詩傳)》을 강독하다가 선조의 물음에 명쾌하게 대답하여 선조의 인정을 받았다. 선조 22 년에 홍문록(弘文錄)에 선발되었으며, 곧바로 사가독서(賜暇讀書)한 다음 선조의 특명으로 홍문관 정자(弘文館正字)에 제수되었다. 선조의 총애 속에서 순탄하게 나가는 듯했던 우복은 동인(東人)과 서인(西人)의 대립 속에서 일어난 기축옥사(己丑獄事)로 인하여 좌절을 겪게 되었다. 이때 우복은 정여립의 조카인 이진길(李震吉)을 사관(史官)으로 잘못 천거한 일로 인해 하옥(下獄)되어 파직당하였으며, 얼마 뒤에 용서를 받아 석방되고서 곧바로 향리(鄕里)로 돌아가 있던 중 임진왜란을 맞게 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나 왜구(倭寇)가 갑자기 쳐들어 오자 우복은 의병(義兵)을 일으켜 왜병들과 싸우다가 안령산(鞍嶺山)에서 대규모의 왜적들과 갑자기 맞닥뜨려 패하였다. 이때 우복의 어머니와 동생이 왜적에게 화를 당해 죽었으며, 우복 역시 화살에 맞아 까마득한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조정에서는 우복이 창의(倡義)하여 왜적을 토벌한 것을 가상히 여겨 특별히 예조 좌랑에 제수하였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그 뒤 다시 창의장(倡義將) 이봉(李逢)의 참모관(參謀官)이 되어 원근에 격문(檄文)을 보내어 군사를 모집하고 군량을 끌어모으는 등 왜적을 쳐서 복수할 뜻을 가다듬었다.

선조 26 년에 조정으로 돌아온 우복은 병조 좌랑, 홍문관 수찬, 사간원 정언 등의 직에 잇달아 제수되었다. 경연에서 우복이 《주역(周易)》을 강론하면서 명쾌하게 해설하자, 선조는 '국사(國士)'라고 칭찬하였으며, 이항복(李恒福)은 정경세야말로 참으로 시강(侍講)의 인재라고 하면서 감탄하였다. 이후 교리, 이조 좌랑 등을 역임하고, 영남 어사(嶺南御史)에 제수되어 방수(防戍)하는 여러 곳을 순시하면서 살펴보았는데, 강연(講筵)을 떠나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 선조의 특명으로 인해 곧바로 조정으로 돌아왔다.

선조 30 년에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나자 우복은 의정부 사인(議政府舍人)으로 있으면서 서울을 버리고 파천(播遷)하고자 하는 선조의 뜻에 반대하여 도성(都城)을 굳게 지키라는 내용의 차자를 올렸다. 선조 31 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승진되었다가 경상도 관찰사에 제수되었다. 우복은 도민(道民)들을 잘 다독거리고 무마하면서 양곡(糧穀)을 적기에 잘 공급하고 민풍(民風)을 교화하기에 힘써서 도내를 점차 안정시켰다. 그러던 중 조정에서 정인홍(鄭仁弘)을 필두로 한 대북파(大北派)들이 우복의 스승인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을 공격하여 조정에서 물러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때 우복까지 함께 공격하였으므로 우복 역시 사직하고 예천(醴泉)의 화장리(花庄里)에 우거(寓居)하였다가 율리(栗里)로 돌아가 우복산장(愚伏山庄)에 터를 잡고 살았다.

그 이후 우복은 광해군이 즉위하기 전까지 몇 차례의 소명(召命)을 받았으나 대북파(大北派)들의 견제로 인하여 중앙정계로 진출하지는 못하였으며, 잠시 영해 부사(寧海府使)와 대구 부사(大邱府使)로 재직한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우산(愚山)에 머물러 있었다. 우복은 우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성현(聖賢)들의 글을 읽으면서 학문연구에 몰두하였으며, 존애원(存愛院)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병을 무료로 진료하고, 《중용》을 강독하기도 하였다. 또한 도남서원(道南書院)을 세워서 정몽주(鄭夢周), 김굉필(金宏弼), 정여창(鄭汝昌), 이언적(李彦迪), 이황(李滉) 등 오현(五賢)을 종사(從祀)하여 후학들로 하여금 도학(道學)의 정통이 이들에게 있음을 알게 하였다.

둘째는 출사중기(出仕中期)로, 대략 광해조(光海朝)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우복의 나이 46 세 때부터 60 세 때까지 15 년간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대내적으로는 횡포한 광해군과 여기에 영합하는 대북파(大北派)들에 의해 조정의 정사가 주도되던 시기였으며, 대외적으로 명 나라가 점차 망해가고 청 나라가 새로이 발흥하는 시기였다. 이 시기 동안 우복은 두 차례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하옥되었다가 향리로 물러나 칩거하였는데 우복에게 있어서 이 시기는 실로 '곤욕(困辱)의 시기'라고 할 만하였다.

우복은 광해군(光海君)이 즉위하고서 전교를 내려 구언(求言)을 하자 일명 만언소(萬言疏)라고 불리는 상소를 올려 직절한 말로 바른 정사를 펴 나갈 것을 건의하였는데, 이로 인해 광해군의 노여움을 사 국문을 당할 뻔하였으나, 이항복(李恒福) 등의 구원으로 인해 삭직(削職)만 되었다. 삭직되어 우곡에 머물러 있던 우복은 광해군 1 년(1609)에 동지사(冬至使)에 차임되어 중국에 사신으로 갔다. 당시에 우리 나라가 염초(焰硝)의 수매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명 나라에서는 우리 나라가 염초를 사다가 후금(後金)에 되판다고 의심하여 수매하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우복은 첩문(帖文)을 올려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오히려 종전보다 두 배나 되는 염초를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다.

사행(使行)에서 돌아온 우복은 광해군 2 년에 성균관 대사성에 제수되었다가 외직으로 나가 전라도 관찰사에 제수되어 도정(道政)에 전념하였다. 이때 정인홍이 회재(晦齋)와 퇴계(退溪)를 헐뜯는 내용의 차자를 올리자, 우복은 종사집례계첩(從祀執禮契帖)의 서문을 지어 정인홍을 비난하였는데, 이 일로 인해 정인홍 일파의 탄핵을 받아 해직되어 다시 우곡(愚谷)으로 되돌아갔다. 광해군 4 년에 김직재(金直哉)의 옥사(獄事)에 연루되어 체포되어 삭직(削職)되었다가 얼마 뒤에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에 제수되었다. 이때 이의신(李懿信)에 의해 교하천도론(交河遷都論)이 제기되자, 이에 반대하는 의논을 올려 천도론을 폐기시켰다. 이후 강릉 부사(江陵府使)로 부임한 우복은 광해군 7 년에 심경(沈憬)의 옥사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으며, 이 뒤로 인조에 의해 등용될 때까지 향리에서 칩거하였다.

우복에게 있어서 향리에 칩거해 있는 기간은 정치적으로는 불행한 시기였으나, 학문적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시기였다. 이 시기 동안 우복은 학문을 강론하는 이외에도 여러 편의 시문을 짓고 저술활동을 하였는데, 특히 우복의 저술 가운데에서 백미로 꼽히는《주문작해(朱文酌海)》를 저술하였다.

셋째는 출사후기(出仕後期)로, 곧 인조조(仁祖朝)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우복의 나이 61 세부터 죽을 때인 71 세까지 10 년간이 이 시기에 해당된다. 이 시기는 대내적으로는 인조반정 이후 이괄(李适)의 난과 이인거(李仁居)의 난 등 내란이 거듭 일어나는 혼란기였으며, 대외적으로는 이제까지 종주국으로 섬기던 명 나라가 멸망하고 급격히 팽창하는 청 나라의 침입으로 인해 정묘호란이 일어난 어지러운 시기였다. 그러나 이처럼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복 개인에게 있어서는 인조의 전폭적인 우대 속에 양관대제학과 이조 판서 등 당시 출사자(出仕者)들의 선망의 대상이었던 여러 청현직(淸顯職)을 모두 역임하면서 자신의 뜻을 펼친 '영광(榮光)의 시기'였다.

광해군 때 대북파(大北派)에 의해 조정에서 쫓겨나 향리에 머물고 있던 우복은 61 세가 되던 해에 계해반정(癸亥反正)이 일어나 인조가 즉위하자, 인조의 소명(召命)을 받아 홍문관 부제학에 제수되었다. 이때 인조의 생부(生父)인 정원군(定遠君)에 대한 호칭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우복은 인조와 정원군은 부자관계(父子關係)로 칭하되 일반적인 부자관계로 칭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설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또한 선혜청(宣惠廳)과 호패법(號牌法)에 대한 의논을 올려 폐해를 구제하기도 하였다.

인조 2 년(1624)에 이괄(李适)의 반란이 일어나자 강도(江都)로 피해 들어가는 것이 올바른 계책이 아님을 논하였으며, 경상도로 내려가 민심을 수습하면서 군병과 군량을 모집하는 동시에 반란군을 토평할 계책을 진달하기도 하였다. 이괄의 난이 종식된 뒤 사헌부 대사헌, 승정원 도승지 등의 직에 제수되었으며, 인조 3 년에 의정부 우참찬, 형조 판서에 제수되었다.

인조 4 년에 인조의 생모(生母)인 계운궁(啓運宮) 구씨(具氏)의 상제(喪制)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는데,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귀(李貴)와 최명길(崔鳴吉) 등의 주장에 반대하여 김장생(金長生) 등과 함께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관철시켰다. 인조 5 년에 정묘호란(丁卯胡亂)이 일어나자 호소사(號召使)에 제수되어 상주(尙州)로 내려가 도내(道內)에 통유(通諭)해 군병과 군량

을 불러 모았으며, 이인거(李仁居)가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고는 난리가 난 곳으로 달려 나갔다가 이어 의정부 우참찬에 제수되었다.

인조 7 년에 예조 판서에 제수되었으며, 얼마 뒤에 이조 판서에 제수되었는데, 이조 판서로 있으면서는 공도(公道)를 확장시키고 요행(僥倖)의 길을 막으며, 인재를 널리 끌어모으고 사론(士論)을 조정하기에 힘썼다. 인조 8 년에 가도(椵島)에서 변란이 일어나 유흥치(劉興治)가 주장(主將)인 진계성(陳繼盛)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에서는 이서(李曙)와 정충신(鄭忠信) 등을 보내어 토벌하고자 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차자를 올려 중지시켰다. 인조 9 년에 의정부 좌참찬에 제수되었으며, 인조 10 년에는 낙향하여 매호(梅湖)로 옮겨가 살고 있었는데, 다음해 6 월에 묵곡(墨谷)에 있는 우사(寓舍)에서 졸하였다.

우복이 졸한 뒤 곧바로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현종 1 년(1660)에 문숙공(文肅公)이라는 시호를 하사받았고, 헌종 1 년(1835)에 우산서원(愚山書院)에 봉향(奉享)되고 기타 여러 서원에 배향(配享)되었다.

4. 우복의 학문(學問)과 사상(思想)

조선 유학(儒學)의 논리 체계는 이기론(理氣論)과 예론(禮論)의 두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기론은 성리학(性理學) 계통으로 발전되어 갔고, 예론은 사회규범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문화 바탕 위에서 활동한 우복의 학문을 논함에 있어서는 먼저 성리학과 예학의 측면에서 우복의 학설이 어떠하였는가를 고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우복은 그 당시 퇴계 계열의 영남학자들이 대부분 문장에 대해 천시하면서 힘쓰지 않았던 데 반해 양관 대제학을 맡고 있으면서 문풍(文風)을 일신시켰으므로 문학적 측면도 고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성리학, 예학, 문학으로 나누어 우복의 학문과 사상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1) 성리학(性理學)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백이정(白頤正)에 의하여 주자학(朱子學)이 전래되어 온 이후 차츰 성하게 되었으며, 권보(權溥)와 우탁(禹倬), 정몽주(鄭夢周), 김종직(金宗直), 김굉필(金宏弼) 등을 거쳐서 조광조(趙光祖)에게로 전해져 지치주의(至治主義)의 유학이 꽃피게 되었다. 그 이후 잦은 사화(士禍)를 거치면서 지치주의의 유학은 점차 성리학 중심의 유학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서경덕(徐敬德)과 이언적(李彦迪)을 지나서 퇴계(退溪)와 율곡(栗谷)에 이르러 그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우복은 퇴계의 적전(適傳)을 이어받은 서애의 뒤를 이은 학자였던만큼 기본적으로 주자학(朱子學) 전반에 걸쳐 조예가 깊은 성리학자였다. 우복의 성리학설은 당시 율곡의 적통을 계승한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과 이기설(理氣說), 격물설(格物說)에 대해 논변(論辨)한 것에서 그 대략을 살필 수가 있다.

이기설(理氣說)에 있어서 사계는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해 '이(理)와 기(氣)를 이물(二物)로 나눈 잘못을 범하였다.'고 비판하였는데, 우복은 사계의 이런 견해에 대해 '이(理)와 기(氣)는 본디 일물(一物)이 아니라 이물(二物)임이 분명하다. 율곡도 아마 일물로 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대가 아마도 잘못 기억한 듯하다.'고 반박하였다. 우복은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계승하여 이생기설(理生氣說)을 주장하면서 이(理)를 우위로 보았던 서애(西厓)의 학설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다.

또한 격물설에 있어서도 퇴계와 율곡은 서로 견해가 달랐다. 퇴계는 격물을 '물리(物理)의 극처(極處)는 내가 궁구함에 따라 이르지 않는 것이 없다.'고 본 데 비하여 율곡은 '물리('物理)가 극처에 스스로 도달하는 것이지, 나의 앎이 극처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사계는 율곡의 설을 따라 '이도(理到)'로 해석하였는데, 우복은 퇴계의 설을 좇아 '격물이물격(格物而物格)은 비유컨대 손님을 초대

하여 손님이 온 것[請客而客來]과 같다. 그러니 물리가 극처에 이른다고 하면 전혀 말이 되지 않고 의리(義理)도 이룰 수가 없어 내 마음과 서로 관련이 없게 된다.'고 하였다. 여기서 우복이 말한 '청객이객래(請客而客來)'는 퇴계의 견해에 입각하여 다시금 부연설명한 것이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성리학에 있어서 우복은 퇴계의 학설을 그대로 이어받았다. 우복은 '퇴계 선생은 한 시대 뭇 학자들의 학설을 집성(集成)하였으니 천년 전의 주자(朱子)와 같다.'고까지 하면서 극도의 존경과 흠모를 품고 있었으니, 우복의 성리학적 입장은 퇴계의 이기이물관(理氣二物觀)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예학(禮學)

우복은 기본적으로는 성리학자였으나, 우복의 학문이 빛을 발한 것은 성리학 분야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학의 측면에서였다. 우복은 예학에 조예가 깊었으므로. 국가전례(國家典禮) 등에 의례(疑禮)나 변칙(變則)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우복에게 물어서 시정할 정도였다. 사계 김장생은 우복에 대해 '예학이 퇴계보다 나아서 오늘날에 더불어 예를 논할 만한 사람은 오직 우복 한 사람밖에 없다.'고까지 평하였다. 예론에 있어서 이렇듯 추앙받았던 우복이 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당시 조정에서 일어났던 두 차례의 의례(議禮), 즉 인조의 생부(生父)인 정원군(定遠君)에 대한 호칭 문제와 인조의 생모인 구씨(具氏)에 대한 장례절차 문제를 논의할 때 우복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였는가를 규명해 보면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

조선시대에서 왕통(王統)은 종법질서(宗法秩序)의 궁극이며 대의(大義)의 근원으로서, 왕권의 권위 및 기강의 확립과도 직결되는 것이었다. 광해군의 난정에 반정을 일으켜 즉위한 인조는, 현실적으로 선조와 광해군과 인조로 이어지는 왕통(王統)을 명분론상에 있어서 어떻게 정립하느냐 하는 것이 왕권의 정당성을 확립하는 데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이것의 기폭제가 된 것이 바로 인조 원년에 일어난 인조의 소생부(所生父)인 정원군(定遠君)에 대한 호칭 문제였다.

박지계(朴知誡)를 중심으로 한 일파는 정원군을 원종(元宗)으로 추존해서 선조에서 원종을 거쳐 인조로 왕통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사계(沙溪) 김장생은 《의례(儀禮)》에 근거하여 인조는 선조(宣祖)에 대해서 고(考)라고 칭하고 정원군에 대해서는 백숙(伯叔)으로 칭하여 선조에서 곧바로 인조로 왕통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견해였다.

이에 반해 우복은 박지계의 견해는 이치에 전혀 맞지 않으며, 사계의 견해는 정론이기는 하나 중도를 얻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우복은 선조와 인조를 부자관계로 보아 선조에서 인조로 왕통이 이어지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사계와 의견을 같이하였으나, 그렇다고 해서 사계의 견해처럼 정원군을 백숙부로 칭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우복은 사계처럼 선조를 고(考)로 칭하고 정원군을 백숙(伯叔)으로 칭할 경우에는 부자 관계인 선조와 정원군을 같은 항렬에 놓는 것이 되어 불가하므로, 비록 왕통의 특수함을 인정하더라도 선조와 정원군을 같은 항렬로 대우할 수는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예론(禮論)을 전개하였다. 즉 '정원군에 대해서는 고(考)라고 칭하되 황고(皇考)라고 칭하지는 않으며, 자(子)라고 칭하되 효자(孝子)라고는 칭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우복의 견해는 인조 4 년(1626)에 계운궁(啓運宮), 즉 인조의 생모인 구씨(具氏)의 상(喪)이 났을 때에도 일관되게 유지되었다. 이때 이귀(李貴)와 최명길(崔鳴吉) 등은 인조가 상주(喪主)가 되어 삼년복(三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우복은 사계와 더불어 인조의 동생인 능원군(綾原君)을 상주(喪主)로 삼고 인조는 부장기복(不杖期服)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이상의 두 차례 전례(典禮)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우복이 사계와 똑같은 예문에 근거하였으면서도 사체(事體)를 보는 관점과 지향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사계가 예문을 절대시하고 그것으로써 인조의 위치를 규정하려는 입장이었다면, 우복은 사체(事體)에 따라서 예문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또 인조와 정원군의 관계와 같은 변례(變禮)에 대하여 사계가 형식과 명분을 중시하는 입장이었던 데 반해 우복은 명분과 실제를 조화시키려는 입장이었다. 즉 왕통(王統)에 종법(宗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인조의 경우는 특수하므로 정원군과의 부자관계를 일률적으로 부정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 요점이다. 사적(私的)인 정(情)에 의하여 종통(宗統)의 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해서는 안 되지만, 반대로 종통(宗統)을 규정한 예문에만 얽매여 현실적인 부자관계의 진정(眞情)마저 외면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우복의 예론은 천리(天理)와 인정(人情), 예(禮)와 정(情)의 적절한 조화를 통하여 실제와 명분의 적절한 균형을 취하는 데서 오는 시의적절한 예론이었으며, 바로 이러한 점이 당시 사람들의 명분의식과도 부합하였던 것이다.

3) 문학(文學)

우리나라의 사대부문학(士大夫文學)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는 '도학(道學)과 사장(詞章)의 관계' 즉 철학(哲學)과 문학(文學)의 관계 설정에 있었다. 도학과 사장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사림(士林)이 형성된 중종 때부터였다. 조광조(趙光祖) 등의 도학파(道學派)의 입장은, 사장은 기예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것을 일삼으면 부화(浮華)해진다는 이유에서 사장을 강하게 배척하는 입장이었다. 이에 반하여 사장을 옹호하고 나선 남곤(南袞) 등의 사장파(詞章派)는 도학도 존중해야 하지만 사장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장불가멸시론(詞章不可蔑視論)을 견지했다. 이후로 퇴계와 율곡을 비롯한 도학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자연 문장(文章)을 등한시하는 쪽으로 흘러갔으며, 이 두 사람의 학문을 이은 사대부들 역시 대부분 문장을 등한시하는 입장이었다.

우복 역시 당시 대부분의 도학파가 그러하듯이 시와 문장에만 힘쓰는 사장학의 잘못된 풍조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였으며, 아울러 문장을 짓는 데 있어서 크게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우복은 타고난 문장에 대한 자질로 인하여 양관 대제학을 지내면서 국가의 문서를 기초하는 일을 담당할 정도로 문학에도 뛰어난 면모를 보이었다. 우복의 시문 가운데에서 당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은 것은 대개 문장이었는데, 문장 가운데에서도 주로 주문(奏文)이나 소차(疏箚) 같은 관각문(館閣文)이었다.

우복은 양관 대제학으로 있으면서 당시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모두들 짓기 힘들어 했던 외교관계의 문서를 명문장으로 엮어 무난하게 해결하고, 임금에게 올리는 상주문(上奏文)을 직절한 말로 표현하여 임금의 심금을 울려 받아들이게 하였다. 또한 당시의 사대부들이 문장을 지을 때 기이한 문자를 즐겨 사용하였는데, 우복이 문형(文衡)을 맡은 뒤에 이런 기풍을 일신하여 전아(典雅)한 문체를 숭상하도록 하였다.

동춘(同春) 송준길(宋浚吉)은 '우복의 문장은 육경(六經)에서 나오고 성리학에 근본하여 험기한 말이나 문자를 쓰지 않았다. 특히 소차 같은 장주문(章奏文)에 능하여 문체가 혼후전아(渾厚典雅)하고 말이 명백간도(明白懇倒)하여 임금을 감동케 하였으니, 당시의 대가(大家)들 중에도 이를 따라갈 사람이 드물었다.' 하였다. 이러한 우복의 문장은, 우복이 죽은 뒤에 관각(館閣)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그의 글을 뽑아 《하거선영(荷渠選英)》이란 책을 만들어 돌려가며 읽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각문(館閣文)에 도학적 문장의 기운을 강하게 불어넣은 하나의 전범(典範)이 되었다.

시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복은 시를 짓는 데 있어서 크게 힘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것은 '시는 소기(小技)이다. 어찌 쓸데없는 데에 심력(心力)을 소비할 것인가.'라고 하거나, '나는 본래 시에 능하지 못하며 중년 이후에는 시 짓는 일을 폐하다시피 하였다.'라고 한 말에서 잘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복은 시를 잘하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만 힘쓰지 않았을 따름이었다. 또한 우복이 도학(道學)의 학맥에 속하는 인물이었던만큼, 우복의 문학관(文學觀)이나 시관(詩觀) '성정(性情)의 순정(醇正)'과 '온유돈후(溫柔敦厚)'에 있었음은 당연한 일이다. 동춘은 '시를 지음에 있어서 정교하게 다듬고 조탁하여 다른 사람이 능히 형용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해 내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시상(詩想)과 의경(意境)을 기다려서 이루어내기 때문에 가벼이 볼 수 없다.'고 평하였다.

5. 유학사(儒學史)에서의 위치(位置)

우복은 우리나라의 유학사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우리나라의 유학은 16 세기 말부터 크게 두 갈래의 학통(學統)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율곡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호학파(畿湖學派)이고, 다른 하나는 퇴계를 중심으로 형성된 영남학파(嶺南學派)이다. 이 두 학파는 당시 사대부들의 당쟁과 결부되어 기호학파는 서인(西人)으로, 영남학파는 동인(東人)으로 나누어져서 서로 맞서게 되었다. 이로부터 두 학파는 정치적인 대립과 아울러 학술상의 대립을 지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이 두 학파간에는 같은 인물에 대한 평가마저도 피차간에 극단적으로 서로 달랐다. 영남학파 쪽에서 신봉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기호학파 쪽에서 멸시하고, 기호학파 쪽에서 중시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영남학파쪽에서 비난을 가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우복은 영남학파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서인 쪽으로부터 극단적으로 배척당하지 않고 오히려 존경을 받는 특이한 위치에 있었다.

우복은 서애 유성룡의 수제자로서, 퇴계학의 정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학자이다. 우복은 18 세가 되던 해에 상주 목사(尙州牧使)로 부임한 서애에게 사사(事師)하여 서애의 큰 기대를 받으면서 퇴계학의 지결(旨訣)을 전수받았다. 그 당시 퇴계학파에는 서애와 함께 다른 두 분의 중요한 후계자가 있었는데, 바로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과 한강(寒岡) 정구(鄭逑) 두 사람이었다. 그런데 학봉은 임진란 중에 순국하였고, 한강은 학봉이나 서애보다 연배나 관직이 아래였으므로 서애가 퇴계학파의 원로이자 동인의 영수로서 학계와 정계에 지주 역할을 하고 있었다. 선조조 동안 우복은 서애와의 사제간의 인연으로 인하여 학계에 있어서는 물론 정계에 있어서도 서애와 더불어 진퇴를 같이 하였다. 동인의 영수였던 서애는 격렬한 당쟁 속에서 서인이나 북인의 표적이 되어 종종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그럴 때마다 우복은 사제간의 신뢰와 경모를 가지고 퇴계학파로서의 자세에 시종일관 충실하였다.

선조 40 년(1607)에 서애가 죽고, 광해군 12 년(1620)에 한강이 죽은 뒤에, 영남학파에서의 우복의 위치는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광해군 2 년에 정인홍(鄭仁弘)이 회재변척소(晦齋辨斥疏)를 지어 회재와 퇴계를 비난하자, 우복이 이에 대해 변무(辨誣)하면서 북인(北人)의 우두머리였던 정인홍과 날카롭게 대립하였던 일이나, 유성룡과 김성일을 여강서원(廬江書院)에 합향(合享)하는 데 따른 위차(位次) 문제로 분분했던 사림(士林)의 논의를 일축하고 유성룡을 동배위(東配位)로, 김성일을 서배위(西配位)로 결정하였던 일에서 우복의 영향력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이후 인조조에 이르러서 영남학파에서의 우복의 위치는 더욱더 중요해졌다. 인조반정을 일으켜 정권을 잡은 서인들은 사림의 여망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남인 중의 명류(名流)를 일단 등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당시에 영남학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던 인물은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과 우복이었는데, 여헌은 조정에 나가지 않은 채 향리에서 후학 양성과 학문 연구에 몰두하면서 지냈다. 이에 반해 우복

은 경악(經幄)의 구신(舊臣)으로서 조정에 나아가 정권의 소재에 관계 없이 국가가 다사다난한 때를 당하여 애민애국의 충정으로 충언가모(忠言嘉謨)를 아낌없이 올리는 동시에, 영남 유림의 대표자로서 중앙정부에서 영남사민(嶺南士民)의 고락을 대변하였으며, 나아가서는 남인 전체의 입장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복이 유학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영남학파의 영수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기호학파와 영남학파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당시의 학자로는 보기 드물게 두 학파간에 가교 역활을 하였다는 데 있다. 우복이 당시 양 학파간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는 것은, 우복의 교유(交遊) 범위와 인맥(人脈)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우복은 당대의 명사답게 교유관계가 경향(京鄕)을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었다. 유성룡(柳成龍), 정구(鄭逑), 장현광(張顯光) 등 영남학파의 중진들은 물론, 이전(李塡), 이준(李埈), 조우인(曺友仁), 조희인(曺希仁), 전식(全湜) 등 동향(同鄕)의 지우(知友)들과 각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더 나아가서는 서인계열에 속하는 김장생(金長生), 이덕형(李德馨), 장유(張維), 최명길(崔鳴吉), 신익성(申翊聖) 등 중앙의 명사들과도 두루 교유하였다. 이들 가운데에서 특히 당시 율곡학파의 중심인물인 사계 김장생과 각별한 교분을 맺으면서 예설(禮說)과 경의(經義)에 관한 잦은 논의를 통하여 기호학파와 영남학파간 학문적 견해의 간격을 좁히고자 하였다.

또한 우복의 차녀가 송준길과 통혼(通婚)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송준길은 호서의 회덕(懷德) 출신으로 송시열과 더불어 양송(兩宋)으로 불린 서인의 영수였다. 이는 지역적으로는 영남과 호서 사이에, 정파상으로는 남인과 서인 사이에 통혼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통혼을 통하여 우복의 학문은 먼저 송준길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 율곡학파인 송준길로 하여금 누구보다 먼저 퇴계학을 깊이 체득하여 항상 퇴계를 칭송하게 하였고, 그것을 인연으로 차후 율곡학파 중에서도 퇴계의 이론을 받아들이고 퇴계의 사상을 새로 평가하려는 학자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다. 퇴계학파와 율곡학파의 인적 교류, 나아가 양 학파간 상호 이해의 심화를 가능케 한 우복, 이것이 곧 우리 나라 유학사에 있어서의 우복의 위상이다.

6.《우복집》의 내용과 가치

우복은, 다른 사람들이 새 학설을 창출하여 선유(先儒)와 의견을 달리하면 '주자(朱子)께서 행한 뒤에 말하라고 하였으니 후학들은 마땅히 독실히 믿어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비슷한 것을 빌려서 필설(筆舌)을 농하는 것은 오도(吾道)의 죄인이다.'라고 꾸짖은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자신이 뛰어난 학문적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술을 그다지 즐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복의 저술은 문집에 꽤 많은 분량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이외에도《선조실록》에 몇 편의 계사(啓辭)가 들어 있고, 또한 단일 저술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문록(思問錄)과 양정편(養正篇)이 있어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다.

《우복집》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문헌적(文獻的) 가치를 논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역사적 자료로서의 가치로, 다사다난했던 시대에 국정에 참여하여 공훈을 세웠던 우복의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큰 비중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기록적 산문(散文)으로서의 가치로, 우복의 인생 역정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보고문(報告文)으로서의 가치이다. 세 번째는 사상적 자료로서의 가치로, 성리학이나 예학에서 우복이 이룩한 학문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이다.

《우복집》은 크게 원집(原集)과 별집(別集)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체재는 우리나라 문집, 특히 영남 문집의 전형적 형태를 보여준다. 원집은 사(辭)나 시(詩) 등 운문(韻文)을 가장 먼저 수록하고, 이하 주문(奏文), 교서(敎書), 자첩(咨帖) 등 공문서와 소차(疏箚), 의(議), 계사(啓辭) 등 관각문류(館閣文類)를 수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서간(書簡), 잡저(雜著), 서(序), 기(記), 발(跋), 비명(碑銘), 행장(行狀) 등을 수록하였다. 별집은 원집과 편차(編次)가 대략 비슷한데, 사문록(思問錄), 양정편(養正篇) 등 우복의 별저(別著) 성격을 가지는 글과 부록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복을 위하여 지은 연보(年譜), 언행록(言行錄), 행장(行狀), 시장(諡狀), 비문(碑文), 제문(祭文) 등이 수록되어 있다.

1) 시류(詩類 : 원집 1 권, 2 권, 별집 1 권)

원집의 1 권에는 '차귀거래사(次歸去來辭)' 1 편과 '제종정명언록(題從政名言錄)' 을 비롯하여 총 100 여 수의 시가 실려 있으며, 2 권에는 '제용인양벽당(題龍仁漾碧堂)'을 비롯하여 총 60 여 수의 시와 만시(挽詩)가 실려 있다. 별집 1 권에는 '차충주연당운유상서애옹(次忠州蓮堂韻留上西厓翁)'을 비롯하여 총 30 여 수의 시와 만시가 실려 있다. 이들 시는 오언시(五言詩)와 칠언시(七言詩)의 구분 없이 연대순(年代順)으로 실려 있는데, 그 중에는 일부 연대순에 어긋나게 실려 있는 것도 있다.

이들 시 가운데에서 '차귀거래사'는 도연명(陶淵明)의 귀거래사를 차운해 지은 것으로, 전원 속에서 살기를 희구했던 우복의 생각과 박실(樸實)을 위주로 하였던 우복의 문학관(文學觀)이 잘 나타나 있다. 아울러 시 속에 도(道)를 담고자 하였던 우복의 도학파적 입장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들도 많다. 또한 2 권에 수록된 '전가원(田家怨)'은 원망에 찬 농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이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우복의 애민의식이 표현된 작품이며, '우곡잡영이십절(愚谷雜詠二十絶)'은 우복이 선조 말년에 정인홍 등에 의해 조정에서 쫓겨나 우곡에서 지낼 때 우곡의 자연을 그려낸 연작시(連作詩)로, 이 시의 서문과 아울러 우복의 자연관(自然觀)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시이다. '우암(愚巖)'이라는 시는 우암이라는 바위를 자신에 빗대어 쓴 시로, 자신의 절의와 지조를 표현한 시이다. 또한 각권에 실려 있는 만시들은 우복의 교제 범위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2) 주자류(奏咨類 : 원집 3 권, 8 권, 16 권, 별집 1 권)

원집 3 권에는 '진위주문(陳慰奏文)' 등 2 편의 주문(奏文)과 '불윤영의정유성룡사직교서(不允領議政柳成龍辭職敎書)' 등 7 편의 교서(敎書), '정사회첩(正使回帖)' 등 8 편의 자첩(咨帖)이 실려 있다. 8 권에는 '상양경리문(上楊經理文)' 등 정문(呈文)이 8 편 실려 있다. 16 권에는 '사황제강칙면유표(謝皇帝降勅勉諭表)' 등 표문과 전문(箋文)이 15 편 실려 있으며, 별집 1 권에는 '모도독게첩(毛都督揭帖)' 등 4 편의 자첩과 '역적양경홍등복주후파고팔방교서(逆賊梁景鴻等伏誅後播告八方敎書)' 한 편이 실려 있다.

이 가운데 '진위주문'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얼마 안 되어 만주족(滿洲族)이 고개를 쳐들어 명 나라가 크게 위협을 받았던 당시의 국제 정세 하에서 명 나라와의 유대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려고 하였던 조선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다. '청복등주구로주문(請復登州舊路奏文)'은 만주족에 의해 육로(陸路)가 막히어 해상교통로를 이용해야 했던 당시에 각화도(覺華島)를 경유해 빙 돌아가지 않고 곧장 등주(登州)를 경유해 가는 편리한 해상로를 확보해야만 했던 당시의 상황을 잘 알려주는 자료이다. 또한 원집 3 권과 별집 1 권에 실려 있는 '모도독회첩' 등의 회첩, 회자(回咨), 게첩(揭帖) 등은 명 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우리나라 서해의 가도(椵島)를 점거하여 우리에게 온갖 지원을 강요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던 상황을 소상히 말해 주고 있다. 별집 1 권에 실려 있는 2 편의 '답금주첩(答金主帖)'은 청 나라와 조선 간에 평화와 우의를 다짐하는 내용의 글인데, 정묘조약 이후 청 나라에서 우리 나라가 가도와 협력하고 있음

을 항의해 옴으로써 우리의 외교적 입장이 난처하였던 상황을 잘 알려주는 것이다. 이들 주자류는 우리나라의 역사자료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동아시아의 역사 특히 조선과 명과 만주의 외교교섭사(外交交涉史)의 자료로서 값진 문헌이다.

3) 소차계사류(疏箚啓辭類 : 원집 3~8 권, 별집 1 권)

원집 3 권의 '옥당청자강차(玉堂請自强箚)'를 비롯하여 7 권까지 모두 80 여 편의 소차(疏箚)가 실려 있으며, 8 권에는 '교하치경의(交河置京議)' 등 3 편의 의(議)가 실려 있고, 별집 1 권에는 '홍문관차(弘文館箚)' 등 9 편의 소차가 실려 있다. 또 원집 8 권에 '사묘속호박고전례계(私廟屬號博考前例啓)' 등 14 편의 계사가 실려 있고, 별집 1 권에 '논진규계(論進圭啓)' 등 3 편의 계사가 실려 있다.

소차류는 서독류(書牘類)와 더불어 《우복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 모두 100 편이 넘는 소차류가 실려 있다. 이 소차류는 문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혼후전아(渾厚典雅)하고 명백간도(明白懇到)하였던 우복의 관각문(館閣文)의 전형을 보여주는 명문이 많으며, 내용적으로도 임진왜란과 정묘호란 등으로 이어지는 격변기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원집 3 권에 수록된 '옥당청자강차(玉堂請自强箚)'는 임진왜란 때 지방에서 활동을 벌였던 우복이 당시의 역사적 조건에서 무엇보다 국왕을 포함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주체의식과 철저한 전투태세가 필요한 것을 통감하고서 올린 차자이다. 이 차자에서 발현된 자강(自强) 사상은 우복의 정치와 국방 사상의 기본을 이루는 것으로, 이후 계속된 소차들은 모두 이 정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 이의 연장선에 있는 '옥당청수도성차(玉堂請守都城箚)'는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도성을 버리고 또다시 파천길에 오르려고 하였던 선조의 뜻을 되돌리기 위하여 올린 차자로, 우복은 선조에게 나라를 중흥시킬 뜻을 굳게 가져 도성을 지키라고 역설하였다.

'응구언교소(應求言敎疏)'는 광해군이 즉위하고서 구언하는 교서에 응하여 올린 상소로, 일명 만언소(萬言疏)라고 불리우는 상소이다. 이 상소에서 우복은 각 조목마다 구체적인 실례(實例)를 들어가면서 묵은 폐단을 개혁할 것을 청하였다. 이 상소는 우복의 상소 가운데에서 가장 명문으로 꼽히는 상소인데, 이로 인해 광해군의 미움을 받아 파직당하고, 그 이후 삭직(削職)과 옥고(獄苦)를 번갈아 경험하다가 다시 우산(愚山)에서 7 년간의 은거생활을 하게 되었다.

4 권에 실려 있는 '홍문관팔조차(弘文館八條箚)'는 우복의 차자 가운데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차자로, 인조반정 이후 국정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을 여덟 조목으로 나누어 논하였는데, 각 조목별로 아주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 권에 수록되어 있는 '옥당응구언차(玉堂應求言箚)'에서는 각 아문(衙門)의 군관(軍官)들이 무판(貿販)을 빙자하여 시민(市民)을 억압하는가 하면 사장(私庄)을 설치한 궁가(宮家) 및 특권층이 진(鎭)이라는 명칭 하에 농민들에게 공공연히 횡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으며, '논답노서차(論答虜書箚)'에서는 외교문서에 있어서 너무 저자세를 일삼지 말라고 논하였다.

8 권에 수록되어 있는 '교하치경의(交河置京議)'는 광해군 4 년에 이의신(李懿信)에 의해 교하천도론(交河遷都論)이 제기되자 이에 반대하여 올린 것으로, 우복은 서울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여 천도론을 폐기시켰다. '선혜호패편부의(宣惠號牌便否議)'와 '호패양전의(號牌量田議)'는 대동법(大同法) 실시와 호패법(號牌法)을 통하여 전란 이후 군비와 국가 재정에서 합리적인 체제를 갖출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이상에서 말한 몇몇 상소와 차자는 우복의 경세관(經世觀) 및 진충보국(盡忠報國)의 자세뿐만 아니라, 국방(國防)과 민생(民生)을 포함하여 국정의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살펴볼 수 있는 것으로, 역사, 정치,

국방사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4 권에 실려 있는 '의상례차(議喪禮箚)'와 5 권에 실려 있는 '의상차(擬上箚)', '청고정원호차(請姑停園號箚)', '청물주청추숭소(請勿奏請追崇疏)' 등은 우복의 예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현되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데 가장 적절한 자료들이다.

4) 서독류(書牘類 : 원집 9~13 권, 별집 1 권)

원집에는 9 권에 실려 있는 '상서애선생(上西厓先生)'를 비롯하여 총 157 편의 서간이 실려 있고 별집에는 '여장여헌(與張旅軒)' 등 22 편의 서독이 실려 있어 총 179 편의 서간이 실려 있다.

우복이 서간(書簡)을 주고 받은 대상을 살펴보면, 우복과 각별한 우의를 맺었던 이전(李塡)과 이준(李埈) 형제에게 보낸 서독이 특히 많아서 47 편이나 되며, 그 이외에 유성룡(柳成龍), 김장생(金長生), 이원익(李元翼), 한준겸(韓浚謙), 장유(張維), 장현광(張顯光), 송준길(宋浚吉) 등에게 보낸 서독이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복의 서간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예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은 것이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반면, 퇴계와 율곡의 시대를 풍미했던 사단칠정논변(四端七情論辨)이나 인심도심논변(人心道心論辨) 등 이기론(理氣論)에 대한 논변의 열기는 찾아보기가 극히 어렵다.

원집 13 권에 수록되어 있는 '답송경보문목(答宋敬甫問目)' 두 편 중 한 편은 태극(太極)과 음양(陰陽)에 관하여 동춘과 문답형식을 취한 왕복서간으로, 이 서간을 12 권에 수록된 '답김만열(答金萬悅)'이나 '답이기재주서의문(答李器哉朱書疑問)' 등과 아울러 참조해 보면 우복의 태극과 음양에 대한 설을 파악할 수 있다. 또 다른 한 편은 예설에 관해 문답형식으로 주고 받은 서간으로, 이 설을 9 권에 수록된 '답김사계문목(答金沙溪問目)'이나 10 권에 수록된 '답오여화문목(答吳汝和問目)'이나 11 권에 수록된 '답김백온문목(答金伯昷問目)' 등과 참조해서 보면 우복의 예설을 파악할 수 있다.

13 권에 수록되어 있는 '답안동사우(答安東士友)'를 살펴보면 당시 영남 유림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서애와 학봉(鶴峯)의 위차(位次) 문제에 대한 논의 과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이 이외에도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서간이 많이 있는데, 이들 서간은 우복의 학문과 사상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유현(儒賢)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확인하기에 가장 적당한 자료이다.

5) 잡저류(雜著類 : 원집 14 권, 별집 1 권)

원집 14 권에는 '우암설(愚巖說)' 등 설(說) 5 편, '김수초자사(金守初字辭)' 등 잡기(雜記) 11 편, '고사촬요고오(巧事撮要考誤)' 등 변의(辨疑) 3 편, '서중문(誓衆文)' 등 통문(通文) 10 편이 실려 있다. 별집 1 권에는 '장사부리론(藏絲付吏論)' 1 편이 실려 있다.

이 잡저류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해 볼 만한 것은 5 편의 설(說)과 3 편의 변의(辨疑)이다. '우암설(愚巖說)'은 우복의 여러 문장 가운데서 비교적 문학적인 글로서 특히 문세(文勢)의 기복(起伏)과 변화(變化)에 뛰어나므로, 창석(蒼石) 이준(李埈)은 일찍이 이 글에 대해 당 나라 유종원(柳宗元)의 우계시서(愚溪詩序)와 우열을 다툴 만큼 문학적으로 뛰어난 글이라고 평하였다. '임천설(臨川說)'과 '남헌설(南軒說)' 및 '잠실설(蠶室說)'은 성리설(性理說)에 관한 우복의 주장을 엿볼 수 있는 글로, '임천설'에서는 성(性)과 기(氣)에 대해서 논하였고, '남헌설'에서는 한퇴지(韓退之)의 인애설(仁愛說)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였으며, '잠실설'에서는 음양(陰陽)을 유행(流行)으로 말하는 경우와 대치(對峙)로 말하는 경우를 들어서 논하였다.

'이지봉채신록변의(李芝峯采薪錄辨疑)'는 우복의 이단(異端)에 대한 견해를 밝힌 것이다. 먼저 초변에서 노장사상(老莊思想)과 선학(禪學)을 비판하였고, 재변에서는 노장불선(老莊佛禪)을 비판하였고, 삼변에서

는 지인(至人)에 대해 말하였다. 이 글에서는 이단을 배격하고 유가(儒家)의 정도를 지키는 우복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김사계경서의문변론(金沙溪經書疑問辨論)'은 《소학》,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의의(疑義)를 사계와 논변한 것으로, 우복의 유학사상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된다.

6) 서기발류(序記跋類 : 원집 15 권, 별집 1 권)

원집 15 권에 '낙사합계서(洛社合稧序)' 등 8 편의 서(序)와 '일묵재기(一默齋記)' 등 3 편의 기(記), '흥양이씨가첩발(興陽李氏家牒跋)' 등 20 편의 발(跋)과 후지(後誌)가 실려 있다. 별집 1 권에 '유월봉시집서(柳月峯詩集序)' 등 2 편의 서가 실려 있다.

이들 가운데 원집 15 권에 실려 있는 '오현종사집묘정례계첩서(五賢從祀廟廷執禮契帖序)'는, 광해군 3 년(1611)에 오현(五賢)을 문묘에 종사하고 난 뒤에 정인홍이 상소를 올려 회재(晦齋)와 퇴계(退溪)를 헐뜯자, 정인홍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라고까지 하면서 극렬하게 논한 것으로, 당시 남인과 북인의 대립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또 '허백정문집서(虛白亭文集序)'나 '서지봉채신잡록후(書芝峯采薪雜錄後)' 등의 글은 온유돈후(溫柔敦厚)를 위주로 한 우복의 문학관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고, '서양정편후시계아(書養正篇後示桂兒)'는 예절교육을 중시하였던 우복의 교육관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7) 제문비지행장류(祭文碑誌行狀類 : 원집 16~20 권, 별집 1 권)

원집 16 권에는 32 편의 제문(祭文), 3 편의 상량문(上樑文), 8 편의 축문(祝文)이 실려 있고, 17 권에 7 편의 비명(碑銘)이 실려 있다. 18 권에는 10 편의 묘갈명(墓碣銘)과 7 편의 묘표(墓表)가 실려있고, 19 권에는 목릉지(穆陵誌) 등 7 편의 묘지(墓誌)가 실려 있다. 20 권에는 유성룡(柳成龍)의 행장(行狀) 등 4 편의 행장이 실려 있다. 별집 1 권에는 습유(拾遺)의 형식으로 묘갈문초기(墓碣文草記)가 1 편 실려 있다.

신도비명, 묘지, 묘표, 묘갈, 비문 등은 대상이 되는 인물의 행적을 기술하고 공덕을 기리는 글들인데, 《우복집》에는 이런 글들이 총 30 편이 넘을 정도로 많아서 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복이 당시 중망을 지녔던데다가 문장 솜씨 또한 빼어나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듯 표덕지문(表德之文)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오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대상 인물의 비중이 큰 글로는 학봉 김성일(金誠一)의 신도비명을 꼽을 수 있는데, 후대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던 김성일의 일본 사행(日本使行) 및 그 이후의 대처 방안과 관련된 내용이 소상히 기록되어 있어 학봉의 행적과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행장은 대상자의 행적을 전기적으로 상세히 서술한 양식의 글인데, 이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해 볼 것은 유성룡의 행장이다. 일찍이 우복이 창석(蒼石) 이준에게 보낸 편지에서 '서애 선생의 성덕(盛德)을 형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묘지명(墓誌銘)을 짓는 데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한 글자도 가벼이 써서는 안 된다.'고 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서애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지은 것으로, 문장에 뛰어나다고 칭해졌던 우복의 솜씨를 엿볼 수 있는 글일 뿐만 아니라, 임진왜란기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서애의 행적과 당시의 국정 및 시대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8) 사문록(思問錄 : 별집 2 권)

별집 2 권에 수록되어 있는 사문록(思問錄)은 크게 《역학계몽(易學啓蒙)》, 《예기(禮記)》, 《의례경전통해속(儀禮經傳通解續)》, 《대상복도(大祥服圖)》의 네 부문으로 나누어져 기록되어 있다.

사문록은 우복이 56 세 되던 해에 지은 것으로, 글을 읽다가 의심나는 곳이 있으면 자신의 견해를 손가는 대로 기록한 것인데, 원전(原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나 전인(前人)들의 주소(注疏)에 잘못된 내용을 변석(辨釋)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 중《역학계몽》부분을 보면, 퇴계가《역학계몽》에 대해 변석한 것 중 잘못된 부분을 다시 지적하면서 적지 않은 신설(新說)을 내놓았으며,《예기》부분에서는 중국의 여러 학자들의 설에 대해서 새로운 설을 제시하고 있는바, 우복의 학문적 깊이를 살펴보기에 좋은 자료가 된다.

9) 양정편(養正篇 : 별집 2 권)

양정편은 모두 28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조목은 자제(子弟)들이 익혀야 할 구체적인 행위 예절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양정편은 우복이 42 세 되던 해인 선조 37 년(1604)에 아들 심(忱)을 가르치기 위하여 편찬한 것으로, 명 나라의 유학자가 편찬한《향교례집(鄕校禮輯)》의 동자례편(童子禮篇) 가운데에서 중요한 내용을 뽑은 다음 약간의 손질을 가하여 어린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복이 양정편을 짓고서 아들 심에게 이 편을 익혀 기초로 삼은 다음 반드시《소학(小學)》의 학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보면, 이는《소학》보다 더 초보적인 수준의 교과서임을 알 수 있다.

10) 경연일기(經筵日記 : 별집 3 권)

경연일기는 인조 1 년(1623) 5 월 15 일부터 인조 7 년 10 월 20 일까지 7 년 동안에 조강(朝講)이나 주강(晝講), 야대(夜對)의 형식을 통하여 군신간에 문답한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경연일기에 나오는 경연 횟수는 총 42 회이고, 시강(侍講)한 책은《논어(論語)》,《대학(大學)》,《중용(中庸)》,《맹자(孟子)》,《서전(書傳)》이다.

경연(經筵)은 임금이 유교 경전(經典)을 앞에 놓고 학자 출신의 여러 문신들과 경의(經義)를 강론하는 자리이다. 여기서는 경전의 내용을 강론할 뿐만 아니라 국정 전반에 관하여 문답하고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정사(政事)를 결정하기도 하였는데, 임금의 전정(專政) 하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시강자의 학문과 사상을 파악할 수 있으며, 군신간에 비교적 격의 없는 문답이 가능했으므로 경연일기를 통하여 당시 중앙정부 지배층들의 사고와 각 지방의 민정 풍속 등 조야(朝野) 전반의 정치적 사회적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경연일기는 당시의 사회상 및 우복의 정치사상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될 중요한 자료이다.

11) 부록(附錄 : 별집 4~12 권)

별집 4 권에서 7 권까지에는 송준길이 지은 우복의 연보(年譜)가 수록되어 있다. 8 권에는 언행록(言行錄)이 수록되어 있고, 9 권에는 이준이 지은 묘지명(墓誌銘)과 조경이 지은 신도비명(神道碑銘), 권유(權愈)가 지은 묘표(墓表)가 각각 수록되어 있다. 10 권에는 송준길이 지은 행장이 수록되어 있고, 11 권에는 송시열(宋時烈)이 지은 시장(諡狀)이 수록되어 있다. 12 권에는 구봉서(具鳳瑞)가 찬(撰)한 사제문(賜祭文) 등 사제문 4 편과 25 편의 제문(祭文), 정온(鄭蘊)이 지은 만사(挽詞) 등 만사 22 편, 전식(全湜)이 지은 도남서원봉안문(道南書院奉安文) 등 봉안문(奉安文) 2 편과 축문(祝文) 1 편이 수록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암 송시열이 지은 시장(諡狀)과 여러 서책에서 우복에 대해 기록한 것을 뽑아놓은 언행록(言行錄)이다. 우복의 사위인 동춘이 우복의 연보와 행장을 지은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서인의 영수인 우암이 남인인 우복의 시장을 지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이것은 동춘과 우암의 친분관계로 인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을

짓는 일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고려해 볼 때 평소 우복의 학덕에 대하여 초당파적으로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 행장은 우복과 서인들과의 교류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영남학파와 기호학파 간의 학문적 교류도 규명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언행록은 우복의 문인(門人)인 이원규(李元圭)가 기록한 수록(手錄)이나 손자인 정도응(鄭道應)이 기록한 한거잡기(閑居雜記) 등에서 뽑아 자품지취(資稟志趣), 경례강변(經禮講辨), 거가봉선(居家奉先) 등 16 조목으로 나누어 기술한 것이다. 또 제문이나 만사 등은 우복의 교유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7. 맺음말

이상에서 17 세기 초반에 중앙정계와 영남학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우복의 일생과 학문 및 유학사에서의 위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 《우복집》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 대략 살펴 보았다.

우복의 학문적, 정치적 활동의 근본 입장은 퇴계와 서애로 이어지는 영남학파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계승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우복이 걸어온 길은 17 세기 영남학파가 조선 성리학을 이론적으로 심화시키면서 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노선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우복은 기호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사계와 격의 없는 우의를 나누면서 성리학이나 예학에 관한 끊임없는 논변을 통하여 양 학파의 이론을 심화시켜 나가는 동시에 양 학파의 간격을 좁히고자 하였으며, 동춘을 통하여 기호학파로 하여금 퇴계의 학문을 수용하여 학문적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하였다.

현재 조선왕조 전기와 후기에 관한 연구가 각각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와 후기를 연결하는 과도기(過渡期)에 관해서는 아직 공백을 메꾸지 못하고 있으며, 유학사에 있어서는 성리학과 실학에 관한 연구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리학 중심의 유학에서 실학 중심의 유학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해당되는 예학에 있어서는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우복은 우리나라 유학사에 있어서 특이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복집》은 일반유학자들 문집과는 구별되는 많은 특색을 지닌 책이다. 그런만큼 이 《우복집》의 국역은 정치적 혼란기였던 동시에 예학(禮學)의 시대로 규정되는 16 세기말 17 세기 초엽의 학문과 사상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우복에 관한 자료로는 문집 이외에도 《선조실록》에 우복이 올린 몇 편의 계사(啓辭)와 경연에서 《주역》에 대해 강론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단일 저술로는 《상례참고(喪禮參考)》와 《주문작해(朱文酌海)》가 있는데, 이 가운데 《주문작해》가 특히 중요하다. 이 책은 《주자대전》 가운데에서 특히 학문과 정치에 긴요한 내용만을 뽑아 모은 책으로, 학술적으로 주목할 만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다. 그런즉 이 두 가지 자료는 우복의 정치적 입장 및 학문과 사상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참조하여야 할 것들이다.

정경세(鄭經世)

정의

조선시대 예조판서, 이조판서, 대제학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개설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경임(景任), 호는 우복(愚伏). 아버지는 좌찬성 정여관(鄭汝寬)이며, 어머니는 합천 이씨(陜川李氏)로 이가(李軻)의 딸이다. 유성룡(柳成龍)의 문인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1578 년(선조 11) 경상도 향시(鄕試)에 응시하여 생원과 진사의 초시에 합격했다. 1582 년 회시(會試)에서 진사에 뽑히고, 1586 년 알성문과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었다. 1588 년 예문관 검열 겸 춘추관기사관이 되었다가 곧 통사랑대교로 승진되었다.

1596 년 이조좌랑에 시강원문학을 겸했으며, 잠시 영남어사의 특명을 받아 어왜진영(禦倭鎭營)의 각처를 순시하고 돌아와 홍문관교리에 경연시독관·춘추관기주관을 겸하였고, 이어서 이조정랑·시강원문학을 겸하였다. 이조정랑에 있을 때에는 인사 행정이 공정하여 현사(賢邪)를 엄선해서 임용·퇴출했으며, 특정인에게 경중을 둔 일이 없었다.

1598 년 2 월 승정원우승지, 3 월에 승정원좌승지로 승진되었고, 4 월에는 경상감사로 나갔다. 이때 영남 일대가 임진왜란의 여독으로 민력(民力)이 고갈되고 인심이 각박해진 것을 잘 다스려, 도민을 너그럽게 무마하면서 양곡을 적기에 잘 공급해 주고, 백성들의 풍습 교화에 힘써 도내가 점차로 안정을 찾게 되었다.

1600 년 영해부사가 되어 싸움을 잘하고 남을 모략하는 투서가 심한 풍습을 교화하였다. 그 해 겨울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왔다. 이후 몇 번의 소명을 받았으나 당시 당쟁의 풍랑으로 정계가 시끄러웠기에 관직을 사양하고 고향에서 학문 연구에 전념하였다. 또한 마을에 존애원(存愛院)을 설치하여 사람들의 병을 무료로 진료하였다.

정경세는 도학(道學)이 정몽주(鄭夢周)에서 시작되어 이황(李滉)에게서 집성되었으며,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 같은 여러 현인들이 나와 정학(正學)으로 더욱 깊이 연구하여 왕성한 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그리하여 정경세는 영남의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상주에 서원을 세워야 한다고 역설하고, 유생을 설득하여 도남서원(道南書院)을 창건하였으며, 이곳에 오현(五賢)을 종사(從祀)하였다.

1607 년 대구부사로 나가 치적을 올렸고, 이듬해 광해군이 즉위하여 교서를 내려 구언(求言)하자, 만언소(萬言疏)를 올려 사치의 풍습을 경계하고 인물의 전형을 공정히 하며 학문에 힘쓸 것을 강조하였다. 1609 년(광해군 1) 봄 동지사로 명나라에 갔으며, 이듬해 돌아와서는 화약(火藥)의 매입을 예년의 갑절로 하도록 병부(兵部)에 글을 올렸다. 이후 명나라와 교섭하여 그 수입에 힘썼기에 특지(特旨)로 가선대부(嘉善大夫)의 칭호를 받았다.

1610 년 4 월 성균관대사성이 되었고, 10 월에는 외직을 원해 나주목사에 임명되었으며, 12 월에는 다시 전라감사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8 월 정인홍(鄭仁弘) 일당의 사간원 탄핵으로 해직되었다. 1623 년 인조반정으로 정국이 변화하자 3 월 홍문관부제학이 제수되었다. 이후 대사헌·승정원도승지·의정부참찬·형조판서·예조판서·이조판서·대제학 등의 관직을 거치면서 공정한 도리를 확장하고 요행을 억제하며, 인재를 널리 취하고 사론(士論)을 조정하여 국정에 심혈을 기울였다.

정경세의 학문은 주자학에 본원을 두고, 이황의 학통을 계승하였다. 정경세는 주자(朱子)를 흠모하고 존경하였으며, 주서(朱書)를 편람하고 정독하여 후진 교육이나 조의(朝議)·경연에서 진강할 때 항상 주서(朱書)에 근거를 두었다. 정경세의 저서 『양정편(養正篇)』은 주자가 편찬한 『소학』과 표리가 되고, 『주문작해(朱文酌海)』는 이황이 편찬한 『주서절요(朱書節要)』와 표리가 되는 것으로 주자학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다.

정경세는 경전에 밝았으며, 특히 예학에 조예가 깊었다. 제자로는 전명룡(全命龍)·신석번(申碩蕃)·강진룡(姜震龍)·황뉴(黃紐)·홍호(洪鎬) 등이 있다. 저서로는 『우복집(愚伏集)』·『상례참고(喪禮參考)』가 있다.

상훈과 추모

의정부좌찬성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장(文莊)이다.

제1권 / 시(詩)

남쪽으로 돌아가는 신순부(申順夫) 지제(之悌) 와 이별하면서 차운하다.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가는 사람 전송하며 서울에 머물러선 / 送盡歸人滯洛中
부끄럽게 객의 눈물 서풍에다 흩뿌리네 / 羞將客淚洒西風
수심 가의 귀밑머리 가을 앞서 하얘지니 / 愁邊鬢髮先秋換
이 백발이 오는 것도 역시 아니 공평하네 / 此物年來亦不公

偶因多病得長閑。散髮披衣畫掩關。睡罷風櫺無一事。不
知身寄市廛間。

次韻別申順夫之悌南歸

送盡歸人滯洛中。羞將客淚洒西風。愁邊鬢髮先秋挨。此
物年來亦不公。

送金晦仲憲赴關東幕

玉挿晴空萬二千。秋風六馬鴈俱翩。王尊未可全忘孝。行
到危途慎下鞭。

少年意氣橫秋鶻。老去功名上竹鮎。君於五年前已經通判男子一
生多事業。仙區花酒莫傷廉。恐為豪氣所使。有遺連光景之患。故勗之。

白日柴荊古禮曹。寓居坊名清秋魂夢萬松皐。臨岐又與同心
別。涕淚無端在縕袍。

題應北庵所贈李太白醉眠圖障子。圖乃應所自
作。出關送別時持贈。

近山濃翠遠山碧。落景含山半天赤。瞢騰驢背醉眠翁。大
野迷茫何所適。猩霞滿面肩過顙。一任驢兒齧蹄癢。龍眠
心匠解奪胎。筆端幻出遊仙相。龍眠本是遊仙侶。曾任金
華學輕舉。山海關頭昔邂逅。粲然一笑相容與。當時袖裏
贈行物。半壁摩挲神怳惚。相思千里杳無期。夜向屋樑看
落月。

寓居隣。有一葬負名金柱者。以善移松名。雖夏月。
能移拱把之榦。無不活者。為余以小盆盛一老松

고려(高麗) 안렴사(按廉使) 신공 우(申公祐)의 묘표

尙之轄丹密縣傍。有小石碑立路左。刻曰孝子里。古老傳以爲按廉使申公所居也。過者敬之。謹按公諱祐。仕高麗。官至掌令。嘗爲全羅道按廉使。麗朝故事。以時分遣近侍于諸道。祭告山川。廉問民俗。黜陟守令之幽明。名之曰按廉使。蓋極一時之選也。公處昏濁之世。能皎潔持身。事父母盡孝。父版圖判書諱允濡卒。廬墓三年。朝夕號于墓。有雙竹生墓前

。人以爲孝感。事聞旌閭。以孝子名其里。事載國乘及輿地勝覽。公有二子。曰光富，光貴。光富有二子。曰士廉，士贇。士廉彦陽縣監。其玄孫元祿又以孝行趾公美旌閭。公之八世孫今侍講院文學達道氏與余友甚善。一日。以家狀示余而言曰。吾先祖歿已數百年。衣冠之藏。在所居之東十里許蛇浦兌向之原。而墓道無表。子孫又散居遠地。展省不能以時。恐久遂湮夷。樵牧或登丘壟。則雖雲仍亦不得識其處。況其卓絶之行又將泯泯無傳。則豈不悲且懼哉。族兄承旨公在世時。暨余諸同宗謀伐石具趺碣。未及樹而歿。今願得公一語而剞劂之。使先德顯於後。則爲賜大矣。敢拜以請。余惟按廉公之孝誠。旣已感鬼神而斡造化。赫赫在人耳目。奚待蕪拙而傳。顧余尙鄉之末學。而於公又外裔也。於義有不得以辭者。遂攷其狀而敍之如右。其立朝歷官次序及家居行誼。年代已遠而文籍無徵。不得以詳焉。其孫衆多。亦不能盡錄。略書于左。見今在朝者。文學君及其兄適道。祥雲察訪。弟悅道。禮曹佐郎。其所謂族兄承旨。名曰之悌。有文名取大科。爲士類所重。不幸而不克壽。有子名弘望。文學君有子名坫，丘。皆俊秀而溫雅。余所未及知者當亦不少。申氏之祿蓋未艾也。詩曰。孝子不匱。永錫爾類。又曰。君子萬年。永錫祚胤。非公之謂也耶。嗚呼休哉。

상주(尙州) 관할의 단밀현(丹密縣) 곁에 자그마한 돌비석 하나가 길 왼편에 서 있는데, 거기에는 '효자리(孝子里)'라는 마을 이름이 새겨져 있다. 고로(故老)들이 서로 전하기를 안렴사(按廉使) 신공(申公)이 살던 마을이라고 하며, 그 앞을 지나가는 자들은 경례(敬禮)를 하고 있다. 삼가 살펴보건대, 공의 휘는 우(祐)이고, 고려조에 벼슬하여 관직이 장령(掌令)에 이르렀다. 일찍이 전라도 안렴사(全羅道按廉使)가 되었는데, 고려조의 고사(故事)에 때때로 근시(近侍)의 관원을 여러 도로 내려 보내어 산천(山川)에 제사 지내고 백성들의 풍속을 탐문하고 수령들의 근만(勤慢)을 살펴 출척(黜陟)하였다. 그것을 이름하여 안렴사라고 하였는데, 대개 한때의 극선(極選)이었다.

공은 혼탁한 세상에 처하여서도 능히 깨끗함으로 몸가짐을 하였으며, 부모를 섬김에 있어서 효성을 다하였다. 아버지인 판도판서(版圖判書) 휘 윤유(允濡)가 졸하자 여막(廬幕)을 짓고 3 년 동안 여묘살이를 하면서 아침저녁으로 묘 앞에서 호곡(號哭)하였는데, 대나무 두 그루가 묘 앞에 자라나는 일이 있었다. 이에 사람들이 효성에 감응한 소치라고들 하였는데 조정에 알려져 정문(旌門)을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그 마을의 이름을 효자리라고 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사실은 국승(國乘) 및《여지승람(輿地勝覽)》에 실려 있다.

공은 아들 둘을 두었는데, 이름이 광부(光富)와 광귀(光貴)이다. 광부는 아들 둘을 두었는데, 이름이 사렴(士廉)과 사빈(士贇)이며, 사렴은 언양 현감(彦陽縣監)을 지냈다. 그의 현손인 원록(元祿)이 뒤에 또 효행으로 공의 아름다운 행실을 뒤이어 정려(旌閭)되었다. 공의 8 세손

으로 지금 시강원 문학(侍講院文學)으로 있는 달도씨(達道氏)는 나와 아주 친하게 지내는 벗이다. 어느 날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 나에게 보여 주면서 말하기를,

"우리 선조께서 돌아가신 지가 이미 몇백 년이 지나서 의관(衣冠)을 파묻은 곳이 살고 있는 데서 동쪽으로 10 리쯤 떨어진 곳인 사포(蛇浦)의 태향(兌向) 언덕에 있는데, 묘도(墓道)에 묘표가 없고 자손들이 또 먼 곳에 흩어져 살아 묘역을 살펴보는 것조차 제때에 할 수가 없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드디어 민몰되어 나무하고 꼴 베는 사람들이 묘 위에 올라가게 될 경우, 비록 후손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그곳을 알지 못하게 될까 걱정스럽다. 더구나 탁월한 선조의 행적이 장차 민몰되어 전해지지 않게 된다면, 이 어찌 슬프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족형(族兄)인 승지공(承旨公)이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때 이미 나와 여러 동종(同宗)들과 더불어 비석으로 쓸 돌을 뜨고 빗돌받침을 마련해 놓았으나, 미처 세우기도 전에 죽고 말았다. 이제 공이 해 주는 한 마디 말을 얻어 비석에 새기고자 한다. 그리하여 선조의 덕이 후세에 드러나게 해 준다면, 그 은혜가 아주 클 것이다. 이에 감히 절을 하고 청하는 바이다."

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안렴공(按廉公)의 효성은 이미 귀신을 감동시키고 천지에 퍼져서 혁혁하게 사람들의 눈과 귀에 남아 있으니, 어찌 거칠고 졸렬한 나의 글이 있어야만 전해지겠는가. 돌아보건대 나는 상주 고을의 말학(末學)이고 공에게는 외예(外裔)가 된다. 그러니 의리에 있어서 사양할 수 없는 점이 있다. 이에 드디어 가장을 상고해 보고 위와 같이 서술한다. 조정에 서서 역임한 관직의 차서 및 집안에서 거처할 적의 행의(行誼)에 대해서는 연대가 이미 멀어서 문적(文籍)을 상고해 증험할 수가 없기에 상세하게 쓰지 못한다. 그 후손들은 아주 많아서 역시 다 기록할 수가 없기에 대략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현재 조정에 있는 사람으로는, 문학군(文學君)이 있고, 그의 형인 적도(適道)는 상운도 찰방(祥雲道察訪)으로 있고, 동생인 열도(悅道)는 예조 좌랑으로 있다. 이른바 족형인 승지는 이름이 지제(之悌)로, 문명이 있어 대과(大科)에 급제해 사류(士類)들이 추중하는 바가 되었는데 불행하게도 수를 누리지 못하였다. 그의 아들은 이름이 홍망(弘望)이다. 문학군의 아들 이름은 점(坫)과 구(坵)인데, 모두 준수하고 온아하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마땅히 적지 않을 것이니, 신씨(申氏)의 복이 끊이지 않은 것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효자가 다하지 아니하니, 길이 너에게 아름다움을 주리라.〔孝子不匱 永錫爾類〕" 하였고, 또 이르기를, "군자는 만년토록 영원히 자손과 복을 주리라.〔君子萬年 永錫祚胤〕" 하였으니, 공을 두고 이른 말이 아니겠는가. 아, 아름답도다.

平君今不在。悲矣。銘曰。
仁足以澤物而局於十室。德足以遐壽而限於蒼髮。理不
當然。天果難必。靴笏滿床。 恩及窀穸。善人之徵。豈必在
即。廣石之山。其氣鬱蔕。益熾而昌。子孫千億。

墓表

先考 贈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兼判義禁府
事府君墓表

府君諱汝寬。字而栗。系出晉州。八代祖澤。判尚州牧事。留
一子于尚。自是世貫尚籍。曾祖諱蕃。祖諱繼咸。考諱銀成。
至府君四世皆隱德不顯。而鄉人咸敬重之。經世承籍餘
休。備位正卿。得蒙 恩追贈三世如式。後又錄寧 社原

從勳。封府君爵左贊成。府君降于嘉靖辛卯。壽六十而卒。
妣李氏。江陽君瑶之後。學生公軻之女。與府君同年生。後
府君二年歿。 贈貞敬夫人。府君夫人行蹟大略。承旨李
公埈實誌其竁。有攷者可徵之也。崇禎二年十月日。男吏
曹判書經世。述。

高麗按廉使申公墓表

尚之轄丹密縣傍。有小石碑立路左。刻曰孝子里。古老傳
以為按廉使申公所居也。過者敬之。謹按公諱祐。仕高麗。
官至掌令。嘗為全羅道按廉使。麗朝故事。以時分遣近侍
于諸道。祭告山川。廉問民俗。黜陟守令之幽明。名之曰按
廉使。蓋極一時之選也。公處昏濁之世。能皎潔持身。事父

母盡孝。父版圖判書諱允濡卒。廬墓三年。朝夕號于墓。有
雙竹生墓前。人以為孝感。事聞旋閭。以孝子名其里。事載
國乘及輿地勝覽。公有二子。曰光冨光貴。光冨有二子。曰
士廉士贇。士廉彥陽縣監。其玄孫元祿又以孝行趾公美
旋閭。公之八世孫今侍講院文學達道氏與余友甚善。一
日以家狀示余而言曰。吾先祖歿已數百年。衣冠之藏在
所居之東十里許蛇浦兌向之原。而墓道無表。子孫又散
居遠地。展省不能以時。恐久遂湮夷。樵牧或登丘壠。則雖
雲仍亦不得識其處。況其卓絕之行又將泯泯無傳。則豈
不悲且懼哉。族兄承旨公在世時。暨余諸同宗謀伐石具
趺碣。未及樹而歿。今願得公一語而剞劂之。使先德顯於

後。則為賜大矣。敢拜以請。余惟按廉公之孝誠。既已感鬼
神而斡造化。赫赫在人耳目。奚待蕪拙而傳。顧余尚鄉之
末學。而於公又外裔也。於義有不得以辭者。遂攷其狀而
叙之如右。其立朝歷官次序及家居行誼。年代已遠。而文
籍無徵。不得以詳焉。其孫衆多。亦不能盡錄。略書于左。見
今在朝者。文學君及其兄適道。祥雲察訪。弟悅道。禮曹佐
郎。其所謂族兄承旨。名曰之悰。有文名取大科。為士類所
重。不幸而不克壽。有子名弘望。文學君有子名坫坵。皆俊
秀而溫雅。余所未及知者。當亦不少。申氏之祿蓋未艾也。
詩曰。孝子不匱。永錫爾類。又曰。君子萬年。永錫祚胤。非公
之謂也耶。嗚呼休哉。

월천집(月川集)

1. 서언

월천(月川) 조목(趙穆, 1524~1606)은 퇴계 이황의 고제(高弟)로서 퇴계가 사는 곳과 가까운 다래[月川]에 살면서 가장 오랫동안 퇴계로부터 친자(親炙)를 받았다. 도산서원 상덕사에 종향될 정도이고, 또 퇴계 사후에 《퇴계문집》 간행을 주도하고, 퇴계의 일대기인 〈퇴계선생언행총록〉을 저술하였으니, 퇴계 문하의 대표적인 제자라 할 수 있다. 월천은 남명학파와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 남명(南冥) 조식(曺植, 1501~1572) 재세(在世) 시에 월천이 남명을 만난 일은 없지만, 남명 사후에는 남명이 생장하여 강학한 삼가(三嘉)의 인근 고을인 합천 군수로 부임하였고, 남명의 대표적인 제자인 덕계(德溪) 오건(吳健, 1521~1574)과 교분이 두터웠고, 정인홍(鄭仁弘, 1535~1623)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정인홍의 제자였던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이 월천의 제자가 되었고, 월천 사후 동계가 월천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을 지었다.

그리고 남명과 동갑으로 우리나라 유학계의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는 퇴계의 학문과 사후사업에 대한 자료로서 《월천집》 만큼 중요한 것도 드물다. 본고에서 간략하게 월천의 생평과 학문, 문집의 간행과 체재, 문집의 내용 등의 순서로 소개하고자 한다.

조목(趙穆)

생애와 그 학문

월천 조목은 1524 년(중종 19)에 경상도 예안현 월천리(지금 경북 안동시 도산면 월천리)에서 태어났다. 자는 사경, 본관은 횡성으로, 그 조상들은 본래 횡성에 살았는데, 월천의 5 대조가 문경으로 옮겨와 살다가 월천의 부친이 예안(禮安 지금 안동시 예안면, 도산면 일대)으로 장가들어 안동에 살게 되었다.

월천은 5 세에 이미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그 아버지가 품에 안고서 입으로 《대학》을 가르쳐 주었는데, 듣고서 계속 외웠다. 심지어 밤이 깊어도 자려고 하지 않고, "왜 저를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십니까?"라고 하며 계속 가르쳐 달라고 졸랐다. 가르침을 받은 내용은 반드시 백 번 이상 외웠다.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공부하여 12 세까지 사서삼경을 완전히 배웠다.

15 세(1538)부터 퇴계 문하에 나아가 가르침을 받았는데, 퇴계는 그 자질과 실력이 뛰어난 것을 보고서, 기지(耆之 월천의 부친 조대춘의 자(字))는 훌륭한 아들을 두었구나."라고 칭찬하였다. 이때부터 읽지 않은 책이 없었고, 행동은 예법에 맞지 않은 것이 없었다.

18 세에 향시에 합격하였다. 22 세에 풍기(지금의 영주시 풍기읍 일원)의 향교에 가서 공부했는데, 당시 군수로 있던 신재(愼齋) 주세붕(周世鵬, 1495~1554)이 월천이 지은 글을 보고서, "이 글은 장강대하(長江大河) 같아 끝이 없구나. 당나라의 대문장가 한유보다 못하지 않도다."라고 탄복하고는 시를 지어주며 격려하였다.

23 세에 어머니 상을 당하여 매우 슬퍼하였는데, 장례를 마친 뒤 무덤 밑에 움막을 짓고 거처하며 상주 노릇을 했다. 움막에서도 예서(禮書)를 읽었고, 글을 읽다가 의문 나는 것이 있으면 곧장 퇴계를 찾아가 질문하였다.

26 세에 다시 풍기로 가서 군수로 있던 퇴계를 만나 뵙고 그대로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에 들어가서 공부했다. 퇴계가 풍기 군수에서 물러난 이후로는 주로 고향에서 학문연구와 제자양성에 전념하였다. 계속 퇴계를 찾아뵙거나 서신 왕래를 통해서 학문에 대해서 물었다.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맹자》〈양혜왕 상편〉에 나오는 "觳觫若無罪(벌벌 떨면서 죄가 없이)"라는 구절 가운데서 '若' 자를 밑으로 붙여 "죄가 없는 것 같으면서"라고 해석했는데, 월천은 독창적으로 '약' 자를 위로 붙여 부사화 접미사로 처리하여 "죄가 없이"라고 해석하니, 퇴계가 듣고 매우 옳다고 여겼다. 이 이외에도 이전에 해 오던 경서 해석을 비판 없이 따르지 않고, 독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많았다. 그 이후로 퇴계 제자 가운데서 의문 나는 것을 질문하는 사람이 있으면, 퇴계는 반드시 "마땅히 조사경(趙士敬)에게 보여 봐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실력을 인정하였다. 가끔 퇴계를 모시고 부용산(芙蓉山) 등을 소요하면서 학문에 관한 질문을 주고받고, 심신을 수양하였다.

29 세에 생원시에 합격하였고, 이듬해에 성균관에 가서 공부하였는데, 같이 공부하던 유생들이 옛사람의 기풍이 있다고 하였다. 오래지 않아 고향에 내려와 공부하며 지냈다. 자주 도산서당으로 가서 스승을 모시고 지내며 학문을 강론하기도 하였다. 주로 사람의 심성에 대해서 깊이 다룬 《심경》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다. 그러나 벼슬하여 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부만 하니, 집이 매우 군색하였다. 때때로 양식을 잇지 못했지만, 월천은 태연하였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스승 퇴계가 도리어 양식을 보내 주기도 하였다.

43 세에 이조의 추천으로 공릉 참봉(恭陵參奉)에 제수되었지만, 자기의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고 사양하고 부임하지 않았다. 2 년 뒤 다시 집경전 참봉에 제수되자 서울로 가서 부임했지만, 당시 사람들과 뜻이 맞지 않아 4 개월 만에 사임하고 돌아와서는 다시 나가지 않았다. 고향에 있으면서 퇴계를 도와 역동(易東) 우탁(禹倬, 1263~1342)을 모실 역동서원 건립하는 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570 년 11 월 퇴계가 병으로 누웠다는 것을 알고 달려가 곁에서 약시중을 들었으나, 이해 12 월에 퇴계가 숨을 거두었다. 월천은 스승을 잃은 슬픔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슬픔 속에서도 장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주선하여 이듬해 2 월에 퇴계가 생시에 지정해 놓았던 건지산(搴芝山)에 안장하였다. 장례를 끝마치고 3 개월 만에 처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스승의 서거를 애도하여 1 년 동안 베띠를 띠고 있었고, 3 년 동안 마음으로 상주노릇하면서 부인과 한방에서 자지 않았고, 잔치에 일절 참석하지 않았다.

스승이 떠난 2 년 뒤 동문의 벗들을 모아 논의하여 1572 년 4 월에 도산서당 위에 퇴계의 신주를 모실 상덕사(尙德祠)를 건립하기로 하였다. 5 월에는 퇴계의 일생과 학덕을 상세히 기술한 〈퇴계선생언행총록〉을 지었고, 동문들과 논의하여 《퇴계연보》의 초고를 만들었다.

50 세(1573)에 부친상을 당하였는데,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뼈만 남은 것처럼 몸이 수척하였다. 무덤 밑에 움막을 짓고 거처하면서 상주노릇을 했다. 옛날부터 나이 50 이 되면 상례를 엄격히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예법이 정해져 있었지만, 월천은 철저히 예법을 지켰다.

53 세에 도산서원이 완성되어 퇴계의 위패를 상덕사에 봉안했는데, 월천이 봉안문과 상향축문을 지었다.

월천의 학덕이 높다는 것이 알려지자 조정에서 계속 관직을 내렸으나, 월천은 계속해서 사양하였다. 53 세 되던 10 월에 인근 고을인 봉화의 현감으로 제수하였다. 월천이 다시 사양했으나 선조 임금이 허락하지 않았다. 부득이 봉화 현감으로 부임한 월천은 맨 먼저 향교를 중수하는 등 교육에 힘썼다. 이후 계속해서 내외의 관직이 내려졌으나 대부분 사양했고 부임한 것으로는 충청도 도사, 공조 정랑 겸 교정청 낭청, 합천 군수 정도였다. 최후의 관작은 가선대부에까지 이르렀다.

1584 년부터 퇴계의 문집을 만들 시문을 모아 정리하여 편집해 나갔는데, 동문들을 여강서원(廬江書院)에 모아 원고를 교정하도록 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월천은 69 세의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군사를 모으고 군량미를 모아 왜적을 토벌하고자 노력하였다.

임진왜란이 끝난 1600 년 마침내 《퇴계문집》의 간행을 마쳤다. 많은 동문들이 도산서원에 모여 문집의 완성을 퇴계의 영혼에게 고했는데, 이때 월천이 문집고성문(文集告成文)을 지었다.

1606 년 11 월 83 세를 일기로 월천은 숨을 거두었다. 선조는 월천의 서거를 애도하여 사제문과 예관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고, 조정의 많은 관원들은 제문이나 만사를 지어 애도하고, 부의를 보냈다.

1614 년 유림이 월천을 퇴계를 모신 도산서원 상덕사에 종향할 것을 조정에 요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그 뒤 예천(醴泉)의 유림들이 퇴계를 모신 정산서원(鼎山書院)에 종향하였고 봉화의 유림들이 창해서원(昌海書院)에 종향하였다.

시문집 《월천집》과, 주자의 글을 뽑은 《주서초(朱書抄)》와 선현들의 훈계를 모은 《곤지잡록(困知雜錄)》 등의 책을 지었으나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월천은 벼슬에는 뜻을 두지 않고 평생 자신의 수양을 위한 학문에 전념한 참된 선비였다. 그리고 스승 퇴계의 서거 후 도산서원을 세워 향사하고 그 문집을 정리하여 출판하는 등 퇴계의 학문과 사상이 후세에 온전히 전승되게 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스승의 학문적인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고 한평생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는 임진왜란 때 화의(和義)를 반대하여 동문인 서애 유성룡을 주화오국(主和誤國)이라는 말로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이로 인하여 서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에 관해서 《선조실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전 정(正) 조목도 퇴계의 제자로서 학행이 그 문하에서 높았다. 일찍이 유성룡에게 편지를 보내 말하기를, "그대가 선생에게서 평소 배운 것이 단지 화친을 주장하여 국사를 그르치는[主和誤國] 네 글자뿐입니까? 나는 당신이 성현의 글을 알면서 이런 데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선조실록》은 광해조에 북인들이 주도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정인홍과 사이가 좋지 않은 유성룡을 의도적으로 부정적으로 서술한 면이 없지 않다. 퇴계의 제자들을 폄하하려는 의도에서 월천만을 높이려는 서술의 자세를 볼 수 있다. 《실록》을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일이다.

월천과 서애 사이에 임진왜란 때의 강화문제로 약간의 의견대립이 있었으나, 양문에 출입한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 1587~1667) 등의 노력으로 양현(兩賢) 사후 특별한 문제 없이 해결되었다.

3. 문집의 간행과 서지(書誌) 현황

1662 년에 지은 미수(眉叟) 허목(許穆, 1595~1682)의 서문에 의하면, 《월천집》은 예안 현감으로 있던 이석관(李碩寬)의 요청에 따라 월천의 아들 조석붕(趙錫朋)이 소장하고 있던 초고(草稿) 4 권을 산정(刪正)하여 편찬했다고 되어 있다. 그 뒤 1666 년에 목판으로 간행되었다. 초간본은 본집 6 권, 연보와 부록 각 1

권 모두 3 책으로 총 173 판(板)이다. 매면(每面) 10 행, 매행(每行) 20 자, 가로 16.3 ㎝, 세로 20 ㎝이고, 사주쌍변(四周雙邊)에 계선(界線)이 있고, 상하이엽화문어미(上下二葉花紋魚尾)이다. 원본은 현재 규장각 등에 소장되어 있다.

책의 첫머리에는 미수의 친필을 모각한 서문이 3 장 들어 있고, 그 뒤에 문집목록과 세계도가 들어 있고, 그 뒤에 제자 김택룡이 편찬한《월천연보》17 장이 들어 있다.

본집은 6 권인데, 제 1 권에는 시 116 수가 들어 있다. 도학자의 문집체재처럼 시를 시체별(詩體別)로 나누지 않고 지은 연대순에 따라 편집하였다. 제 2 권에는 소장(疏章) 6 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 3 권에는 23 편의 서간(書簡)이 수록되어 있다. 제 4 권에는 변의(辨疑)라 하여 경서의 내용 가운데서 의문 나는 것을 퇴계에게 질문한 글 4 편이 수록되어 있다. 제 5 권에는〈퇴계선생언행총록〉등 잡저 4 편이 들어 있다. 제 6 권에는 발(跋), 축문, 제문, 묘갈, 묘지, 논 등 22 편이 들어 있다. 문집에 수록된 산문은 모두 59 편에 불과하다.

부록에는 맨 첫머리에 동계가 지은 신도비명이 실려 있는데, 월천의 외손인 김확(金確, 1583~1665) 형제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월천의 행장이나 묘지명은 애초에 지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 다음에 선조(宣祖)의 사제문(賜祭文), 도산서원 종향시 사제문이 있다. 그다음에 정구(鄭逑, 1543~1620) 등이 지은 제문(祭文) 7 편과 이산해(李山海, 1539~1609) 등 12 명의 만사(輓詞) 15 수가 수록되어 있다. 문집 맨 뒤에 학사 김응조의 발문(跋文)이 붙어 있다.

월천은 83 년의 장수를 누렸고, 대부분 임천(林泉)에서 독서와 강학으로 일생을 보냈기에 원래 많은 시문을 남겼으나, 병화에 대부분이 산일(散逸)되어 전체의 10 분의 1 도 남지 못했다. 예를 들면 퇴계의《도산전서(陶山全書)》에는 월천과 주고받은 서신과 별지가 140 통이 수록되어 있으나,《월천집》에는 퇴계와 주고받은 서신이 5 통에 불과하니, 월천의 글이 얼마나 많이 없어졌는지 짐작할 수 있다.

4. 문집 내용 간개(簡介)

제 1 권의 시 가운데는〈만퇴계선생(挽退溪先生)〉이 있는데, 퇴계의 학맥이 송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와 낙양(洛陽)의 정자(程子)의 정맥(正脈)을 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시 가운데〈우견정인홍남명집발어(偶見鄭仁弘南冥集跋語)〉라는 것이 있는데, 그 시는 다음과 같다.

조정에서 옥처럼 우뚝하게 선 몸이시고 / 亭亭玉立廟堂身
환하게 자연 속의 자유로운 사람이라 / 皎皎烟霞自在人
우습다! 인간의 괴이한 귀신무리여 / 堪笑人間怪鬼輩
감히 걸의 개가 어진 요를 보고 짖는구나 / 敢將桀犬吠堯仁

정인홍이《남명집》을 간행하면서, 맨 뒤에 퇴계를 무훼(誣毁)하는 글을 실었다. 남명과의 시비(是非) 때문에 남명의 문인들로부터 공격을 받아 궁지에 몰린 구암(龜巖) 이정(李楨)이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하자, 퇴계가 구암에게 위로하는 서신을 보냈다. 내용 중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하지 말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퇴계가 남명을 공격한 자료로 제시하기 위해서였다. 정인홍은 이 서신을《남명집》뒤에 수록했다. 정인홍의 생각으로는, 퇴계가 자신의 스승 남명을 비난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남명을 노

장(老莊)에 물든 사람으로 간주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월천은 이 글을 보고 정인홍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겨 이 시를 지은 것이다.

세상에는 "월천은 평소에 정인홍과 가까이 지냈다. 도산서원 상덕사에 종향(從享)된 것이 북인(北人)의 덕이다"라는 요언(謠言)이 전해 내려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은 이 시에 나타나 있다. 이 시를 보면 월천이 정인홍을 걸견(桀犬)에 비유할 정도로 나쁘게 생각하였던 것이니, 월천 사후에 정인홍이 월천의 종향을 도와주는 일을 주선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권 2 에 실린 〈병술사직소(丙戌辭職疏)〉에서는, 당시 국가가 교정청(校正廳)을 설치하여 주관하던 사서(四書)와 《소학(小學)》의 번역사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직을 윤허해 주면 고향에 돌아가 스승 퇴계의 문집 발간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1586 년 당시의 《퇴계문집》 원고 수집과 편찬의 진척 정도를 알 수 있고, 월천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갑오진정소(甲午陳情疏)》는, 아무런 까닭 없이 백만의 군대를 끌고 와 우리 백성들을 도륙(屠戮)한 왜놈들과는 강화(講和)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런 주장은, 강화를 주도한 서애의 의견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권 3 에 실린 《답퇴계선생서(答退溪先生書)》에서는, 《주역(周易)》 공부의 어려움과 양명학(陽明學)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답이선위서(答李宣慰書)〉는 이산해의 사위인 선위사(宣慰使) 이덕형(李德馨, 1561~1613)에게 답하는 것으로, 이산해가 정승 자리에 있으면서 일본과 통신사를 파견하며 일본과 강화하는 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여동문제계 논주서절요간본곡절(與同門諸契論朱書節要刊本曲折)〉은, 퇴계의 편저인 《주자서절요》를 간행하면서 책의 체재와 활자의 모양 등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여동문제계 논퇴도선생갈문지문미온처(與同門諸契論退陶先生碣文誌文未穩處)〉는 고봉(高峯) 기대승(奇大升, 1527~1572)이 지은 퇴계 자명(自銘)의 후서(後序)와 역시 고봉이 지은 퇴계의 광명(壙銘)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후서의 "중년 이후에는 바깥으로 사모하는 것에 마음을 끊었다[中年以後, 絶意外慕]"라는 구절에 대해서, 월천은, "선생은 어려서부터 침정(沈靜)하여 학문을 좋아하였고, 세상의 이익과 번화한 것에 대해서는 담박(淡泊)하였는데, 중년 이후가 되기를 기다려 명리나 권세 등 바깥의 것에 뜻을 끊었겠느냐?"라고 하여, 고봉의 서술이 퇴계의 진면목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봉이 "공자 맹자 정자 주자의 말씀에 맞추어 보아 합치되지 않는 것이 적다[揆諸孔孟程朱之言, 其不合者, 寡矣.]"라고 서술한 것에 대해서, 월천은, "그렇다면 오히려 합치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이 되니, 진선(盡善)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고봉이 지은 후서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정신(精神)도 있고 기력(氣力)도 있어 선생의 일생(一生) 대요(大要)를 잘 개괄했지만, 그의 생각은 궁리 격물 논의 처사 등을 주로 하였기에, 선생이 평소의 독실한 실천과 확실한 공부방법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그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고봉의 광명에, "옛날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누구와 더불어 앞서거니 뒤 가거니 하겠는가?[視古先民, 孰與先後]"라고 한 것에 대해서, 월천은, "이 구절은 범범하여 맺힌 데가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제 4 권에는 《심경(心經)》, 《주서절요(朱書節要)》, 《상서(尙書)》, 《가례(家禮)》 등에 대해서 월천이 퇴계에게 한 질문과 퇴계의 대답을 수록해 놓았다. 월천의 원고는 이미 병화에 탕실(蕩失)했으므로, 《퇴계집》의 것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제 5 권에는 〈퇴계선생언행총록〉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는 퇴계에 관계된 전기(傳記) 문자 가운데서 가장 상밀(詳密)한 것으로서, 주로 퇴계의 성학(成學) 과정 등 정신세계에 비중을 두고 서술하였다. 〈역동서원 사실〉은, 역동 우탁을 모신 역동서원의 건립 동기와 그 과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월천은 퇴계를 도와 직접 역동서원 건립의 일을 맡아서 했다. 조선중기 서원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권 6 에 수록된 〈이학통록발〉은 퇴계가 정리한 성리학사(性理學史)라 할 수 있는 《이학통록(理學通錄)》의 체재와 명나라 학자들의 학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역동서원 상현사 상향축문(易東書院尙賢祠常享祝文)〉은 역동 우탁의 학문과 인품을 16 자로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다. 〈도산서원 상덕사 상향축문(陶山書院尙德祠常享祝文)〉은 퇴계의 학문과 사상을 16 자로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이 글을 지은 것을 볼 때, 당시 많은 제자들 가운데서 월천이 가장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이러하다.

마음은 공자 맹자로부터 전해졌고 / 心傳孔孟
도는 정자 주자를 계승했습니다 / 道紹閩洛
동쪽 나라에서 집대성했으니 / 集成大東
유학의 으뜸가는 법도이십니다 / 斯文準極

〈제퇴계선생문〉에서는 퇴계의 학문이 정주(程朱)의 적통(嫡統)을 이었다는 것과 퇴계가 서세(逝世)함에 의앙(依仰)할 데 없는 슬픔을 호소하고 있다. 〈제오자강문(祭吳子强文)〉은, 덕계 오건의 갑작스런 죽음을 애도하는 글인데, 소과(小科)에 동방급제(同榜及第)한 뒤 도산서원에서 함께 퇴계의 가르침을 듣던 옛일을 회상하고 있다. 〈도산서원 봉안문〉은 도산서원이 완공된 뒤 퇴계의 위패를 봉안할 때 고유(告由)한 글이다. 퇴계의 학문과 인격을 추앙(追仰)하고 있다. 〈제이봉원문(祭李逢原文)〉은 퇴계의 장손(長孫) 이안도(李安道, 1541~1584)의 죽음을 애도한 글이다. 퇴계의 사후사업을 맡아 해야 할 장손이 죽은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있다. 〈퇴계선생문집 고성문(告成文)〉은 1604 년 《퇴계문집》이 완성되었을 때 도산서원 상덕사에 고유한 글이다. 퇴계의 원고를 정리한 과정과 판각시(板刻時)의 과정을 서술하였다.

5. 결어

이상에서 간략하게 조목의 생평(生平)과 학문 및 《월천집》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월천은 어린 시절 퇴계를 만남으로써 학문의 바른 길을 얻을 수 있었다. 퇴계의 학문은 월천 같은 제자를 얻음으로써 정리되고 후세에 전해지게 되어, 영원히 빛을 발할 수 있게 되었다. 퇴계의 연보 작성, 퇴계 원고의 수집, 정리, 편집, 교정 등의 과정을 거쳐 《퇴계문집》 완성을 보게 되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일을 주도한 제자가 바로 월천이다.

《월천집》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갖지만, 퇴계학의 연구에도 필수불가결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성주 신순보 지제 의 시에 차운하다[次邑主申順夫 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風雨秋堂欲暮時。滿牋奎壁一筒持。波瀾起伏詞何壯。肝膽精忠鬼亦悲。自古强梁終殄滅。只今籌策儘雄奇。天心不改人思漢。重覩朝儀舊殿螭。

聞有糾旅討賊之擧故有雄奇之語

비바람에 추당이 저물려고 할 때에 / 風雨秋堂欲暮時
보내온 죽통에는 종이 가득 명편이네 / 滿牋奎壁一筒持
기복을 질탕하게 둔 글이 매우 씩씩하고 / 波瀾起伏詞何壯
순수하고 충성된 마음은 귀신도 슬퍼하네 / 肝膽精忠鬼亦悲
예로부터 흉포한 자들은 끝내 죽었으니 / 自古强梁終殄滅
지금의 계책은 모두 웅대하고 기이하네 / 只今籌策儘雄奇
천심이 바뀌지 않아 사람들이 한나라를 생각하니 / 天心不改人思漢
옛 궁궐에서 조정 의례를 다시 보리라 / 重覩朝儀舊殿螭

의병을 규합하여 왜적을 토벌하려 한다는 거사를 들었기 때문에 웅대하고 기이하다는 말을 하였다.

[주-D001] **신순보(申順夫) :** 신지제(*申之悌*, 1562~1624)로, 순보는 그의 자이다. 본관은 아주(鵝州), 호는 오봉(梧峰)·오재(梧齋)이다. 예안 현감 재직할 때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군대를 모집하여 적을 토벌하였다. 참고로 1590년 7월에 예안 현감으로 부임하여 1596년 9월에 이임하였다.

[주-D002] **추당(秋堂) :** 보통 서생(書生)이 독서하는 곳을 가리킨다.

[주-D003] **명편(名篇) :** 원문의 규벽(奎璧)은 본래 28수(宿) 가운데 규수(奎宿)와 벽수(璧宿)를 가리킨다. 두 별이 모두 문운(文運)을 주관하기 때문에 전하여 화려한 문장을 가리킨다.

[주-D004] **기복(起伏)을 …… 씩씩하고 :** 원문의 파란(波瀾)은 문장의 기복이 많은 것이 마치 물결과 같음을 이른다. 여기서는 신지제가 1592년 5월에 왜적이 안동에서 예안으로 쳐들어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병사를 규합하여 왜군을 토벌하기 위하여 보낸 글이 매우 씩씩하였다는 뜻이다.

[주-D005] **예로부터 …… 죽었으니 :** 원문의 강량(强梁)은 흉포함을 가리킨다. 《공자가어(孔子家語)》에 이르기를 "흉포한 자는 제대로 죽지 못하고, 이기기를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강한 적을 만난다.[强梁者不得其死, 好勝者必遇其敵.]"라고 하였다. 《孔子集語 卷上 六藝》

[주-D006] **한(漢)나라를 생각하니 :** 원문의 사한(思漢)은 전한(前漢)이 왕망(王莽)에 의하여 멸망한 뒤에도 한나라 유민들이 여전히 한나라의 치세를 생각하였기 때문에 광무제(光武帝) 유수(劉秀)가 후한(後漢)을 건국하게 된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왜적에 의하여 종묘사직이 위태롭게 되었으나 백성들이 조선 왕실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조선이 중흥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挽金義將遠遠

偉度英才又妙齡飛黃騰踏奮雲程時危世亂懷忠憤兵義師貞敵慨誠星隕龍營天不憖屍歸馬革志難成君家父子連三契七十年翁哭送情

感時

千古衣冠地那知困海戎君王勞遠駕邊塞正高風月帶凄涼色山含慘悛容非無李郭勇豈乏湯平功默佑瞻宗社陰扶仰昊穹書生空撫劍深恨未推鋒

挽金士純

亂世英才敵慨誠君羞未雪夢先驚同門情義那堪慟烈氣猶看萬丈橫

鄭廷罌璉來訪留示一絕仍次其韻

事業羞堅白功名愧汗青行身一諾重取義萬金輕

次邑主申順夫之悌

風雨秋堂欲暮時滿巵奎壁一筒持波瀾起伏詞何壯肝膽精忠鬼亦悲自古强梁終殄滅只今籌策儘雄奇天心不改人思漢重覩朝儀舊殿螭聞有糾旅討賊之舉故有雄奇之稱

聞車駕還都

응천일록 3(凝川日錄三)

인조 계해(1623, 인조 1) 6 월부터 인조 무진(1628, 인조 6) 3 월까지

이《응천일록》은《대동야승》권 44 에서 50 까지에 수록된 7 책본이다. 저자는 미상이다. 응천(凝川)이란 것이 저자의 아호인 듯하나 누구인지를 지금에 상고할 길이 없다. 다만 신하들의 상소문 전편이 상당수 기록된 것을 볼 때, 당시 사관이거나 기타 중요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손에서 서술된 것이라 여겨진다.

이 책이 편차된 연월을 살펴보면,

제 1 책 광해군 기유년(1603) 11 월 28 일에서

병진년(4646) 12 월 30 일까지

제 2 책 정사년(1617) 정월 2 일에서

계해년(1623) 2 월 30 일까지

제 3 책 인조 계해년(1623) 6 월 25 일에서

무진년(1628) 3 월 29 일까지

제 4 책 〃 4 월 8 일에서

경오년(1630) 9 월 29 일까지

제 5 책 〃 10 월 2 일에서

신미년(1631) 12 월 29 일까지

제 6 책 임신년(1632) 정월 3 일에서

〃 12 월 27 일까지

제 7 책 갑술년(1634) 10 월 24 일에서

을해년(1635) 8 월 13 일까지

로 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월별(月別)로 정리해 보면

제 1 책 경술년 10 월분 기사

신해년 1 월분 〃

신해년 9 월분 〃 누락되었음.

임자년 5 월 7 일분 기사가 3 월 28 일 중간에 끼어들었음.

계축년 정월분 기사

3 〃 〃 누락되었음.

을묘년 6 월분 기사가 2 중으로 기록되었는데 어느 해 6 월분에 끼어들었는지 미상임.

동 년 12 월분 기사

병진년 2 월분 〃

병진년 4 월분 〃 누락되었음.

제 2 책 무오년 2, 3, 4, 5, 6 월분 기사

경신년 1 월분 〃 누락되었음.

제 3 책 계해년 2, 3, 4, 5 월분 기사

동년 11 월에서 〃

갑자년 4 월까지 〃 누락되었음.

을축년 2 월에서 기사

병인년 10 월까지 〃 누락되었음.

정묘년 정월 17 일부터 4 월 12 일까지는 기사를 기록한 체재가 다르게 되어 있음.

정묘년 5 월분 기사 누락되었음.

제 4 책 경오년 4~5 월분 기사 누락되었음.

제 7 책 계유년 1 년분 기사

갑술년 1~9 월분 기사 누락되었음.

이상으로서 수록된 범위를 대략 알아보았거니와 장장 27 년 동안 사실을 기록한 것이어서 결코 적은 분량이 아니다.

그 동안에 큼직큼직했던 사건이 한둘이 아니었는데, 첫째 계축년(1613) 4 월에 박응서(朴應犀)·서양갑(徐羊甲) 등 조령 적도(鳥嶺賊徒)가 체포된 것을 계기로 하여, 6 월에 국구(國舅) 김제남(金悌男)을 사사(賜死)했고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서궁 유폐(西宮幽閉) 사건, 다음해 2 월에 영창대군(永昌大君) 의(璘)를 강화도에서 살해한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일련의 사건은 모두 당쟁에서 빚어진 사건이었다. 그러나 저자는 사실만을 기록했을 뿐이고 하등의 논평은 가하지 않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광해군 당시 기사도 누락된 것이 많아서 명(明)·청(淸) 양국에 대한, 조정의 이중외교(二重外交)라는 고달펐던 줄타기도 별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명·청 양국간에 분쟁 소식을 가끔 간단하게 기록했을 뿐이다. 그리고 계해년 2, 3, 4, 5 의 4 개월분 기사가 누락되어서 인조 반정 사건 전모가 완전히 제외되어 있다. 이런 것은 저자가 고의적으로 제외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후일에 분실된 것인가. 아무튼 저자는 공평된 마음으로 사건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여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 말려 들지 않도록 무척 애를 쓴 듯하다. 그러면서도 기록하기가 정 곤란한 경우에는 아예 붓을 놓고 외면했던 것인 듯하다.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제 7 책 을해년 정월 20 일에 '전 지평(前持平) 유진(柳袗)이 이달 초승에 병사했다 한다. 영남 사류(嶺南士類)가 존중하게 여기던 사람인데, 과감하게 진언하다가 시론에 배척당했고 목숨마저 갑작스럽게 마치니, 듣는 자는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하여 짤막하나마 논평을 가했는데 이런 유의 논평이 더러 보인다.

위에서도 말했거니와 27 년이라는 긴 세월의 사실을 성실하게 옮겨 놓은 것인 만큼, 비록 누락된 것이 많을지라도 또한 사료(史料)로서 제대로 가치를 지녔다고 본다.

남쪽으로 돌아가는 신순부(申順夫) 지제(之悌) 와 이별하면서 차운하다.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十一日政事。吏參鄭曄。李睟光李顯英申之悌拜承旨。李敬輿校理。李植副修撰。李棨吳翻修撰。任叔英鄭弘溟弘正。李弘胄禮參。李慶涵禮議。朴炷檢閱。

○ **11일** 정사가 있었는데, 이조참판 참석 하에, 정엽(鄭曄)・이수광(李睟光)・이현영(李顯英)・신지제(*申之悌*)를 승지에 제수하고, 이경여(李敬輿)를 교리에, 이식(李植)을 부수찬에, 이목(李棨)・오숙(吳翻)을 수찬에, 임숙영(任叔英)・정홍명(鄭弘溟)・정홍정(鄭弘正)・이홍주(李弘胄)를 예조참판에, 이경함(李慶涵)을 예조 참의에, 박정(朴炷)을 검열에 제수하였다.

입재집(立齋集)

정종로(鄭宗魯)

저자 정종로(鄭宗魯, 1738~1816)는 본관이 진양(晉陽), 자는 사앙(士仰), 호는 입재(立齋) 혹은 무적옹(無適翁)으로, 경북 상주시 외서면 우산리(愚山里) 출신이다. 영남 지역 3 대 퇴계학맥 가운데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1563~1633), 무첨재(無忝齋) 정도응(鄭道應, 1618~1667)으로 이어지는 학통을 전수하는 자리에 있었으며, 200 명이 넘는 문인을 양성하고 또 당대에 보기 드문 거질의 문집을 남김으로써 명실상부하게 당시 영남을 대표하는 학자가 되었다.

입재 집안이 상주고을에 처음 정착한 것은 고려 말 정택(鄭澤 15 대조)이 상주목(尙州牧) 판사(判事)로 부임하면서부터였다. 정택은 아들 정의생(鄭義生 14 대조)을 공민왕 때 홍건적을 격파하여 추충분의안사좌명공신(推忠奮義安社佐命功臣) 1 등에 책훈된 바 있는 상주의 명문가 상산김씨 김득제(金得齊)의 딸에게 장가들였다. 그래서 임기를 마치고 떠나게 된 이후에도 아들 정의생은 처가인 서산(西山) 상신전촌(上新田村 현재 상주시 공성면 초오리)에 그대로 남아 살았는데, 그가 곧 상주 입향조가 된다.

정의생부터 정효옹(鄭孝翁 13 대조)-정걸(鄭傑 12 대조)-정극공(鄭克恭 11 대조)까지 4 대는 최초 정착지였던 공성면 초오리(草梧里)에 살았다. 그러다가 정극공의 아들 정번(鄭蕃, 1449~1521)이 멀지 않은 율리(栗里 현재 상주시 청리면)로 이사하였으며, 정경세(鄭經世)에 이르기까지 다시 5 대를 거기에서 살았다. 정경세는 바로 율리(栗里 청리면)에서 나고 자랐는데, 그가 유성룡 문하의 동문인 창석(蒼石) 이준(李埈, 1560~1635) 형제와 친밀하게 지냈던 것도 이들이 같은 청리면(가천리)에 살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택(澤 15 대, 상주목 판사)-의생(義生 14 대, 입향조, 공성면 거주)-효옹(孝翁 13 대)-걸(傑 12 대)-극공(克恭 11 대)-번(蕃 10 대, 청리면 거주)-계함(繼咸 9 대)-은성(銀成 8 대)-여관(汝寬 7 대)-경세(經世 6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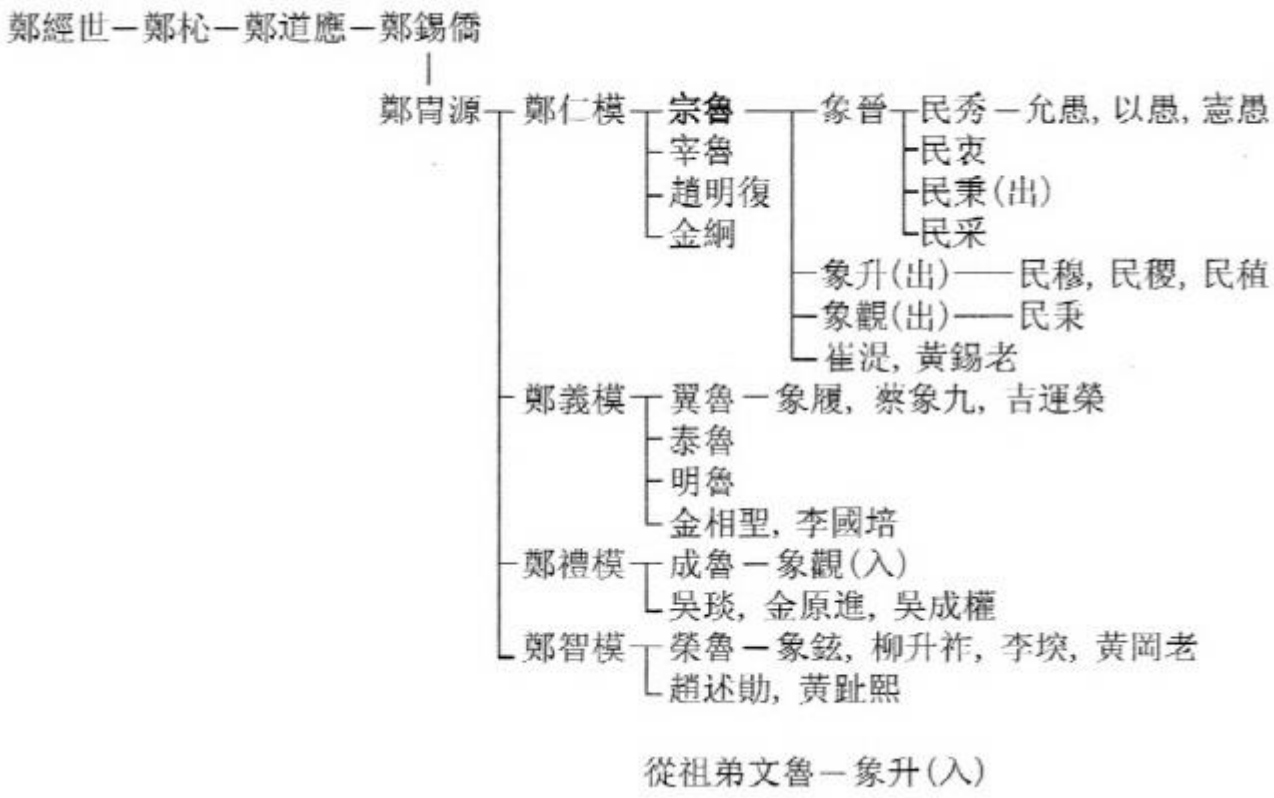
입재 집안이 현재 종가가 있는 상주시 외서면(外西面) 우산리(愚山里)에 터전을 잡은 것은 6 대조 정경세(鄭經世) 때부터였다. 정경세가 우산에 들어간 것은 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33 년(1600), 그의 나이 38 세 무렵이었다. 임진왜란 당시 정경세 집안은 모친과 동생 정흥세(鄭興世)가 모두 왜적에게 피살되는 등 심각한 화를 당하였다. 그리고 정경세 자신 또한 난이 끝난 이후 정인홍(鄭仁弘) 일파가 유성룡(柳成龍)을 탄핵하는 일에 휘말려 1600 년 2 월에 영해 부사로 좌천되었다가 파직당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새롭게 정착할 터전을 찾아 외서면 우북산(于北山) 아래로 들어갔으며, 곧이어 초당(草堂)을 지어 가족을 대동하고(1602), 계정(溪亭 청간정(聽澗亭))을 지어 강학을 시작하였다(1603). 우북(于北)을 우복(愚伏)으로 고쳐 당호(堂號)로 삼고, 〈우산잡영(愚山雜詠)〉을 지어 주변 일대를 새롭게 명명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곳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을 생각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경세는 이곳에서 끝까지 살지 못하였다. 만년에 두 아들 정심(鄭柲, 1597~1625)과 정학(鄭樘, 1601~1626)이 모두 먼저 세상을 떠나 심사가 복잡하던 터에 이런저런 옥사에까지 연루되어 고심하다가 마침내 제자 조희인(曺希仁, 1578~1660)의 권유에 따라 그의 고향인 사벌면 매호촌(梅湖村)으로 옮겨 갔으며, 결국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손자 정도응(鄭道應, 1618~1667) 이후부터는 두 번째 근거지였던 청리면 율리에서 우복의 별업(別業)이 있던 우산(愚山)을 왕래하며 생활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영조 26 년(1750) 나라에서 정경세의 덕을 기리기 위해 우산 기슭 동서 5 리 남북 10 리의 땅을 사패지(賜牌地)로 하사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정도응의 손자이자 입재의 조부이기도 한 정주원(鄭胄源, 1686~1756)이 만년에 식솔을 거느리고 청리면 율리(栗里)에서 우산으로 완전히 이주하여 세거지로

삼았던 것이다. 이때부터 우산이 비로소 상주 지역 우복 종가의 중심 터전이 되었으며, 우복 후손들이 사는 곳이라 하여 특별히 우복동천(愚伏洞天) 혹은 칠리강산(七里江山)이라 하였다.주-D001

입재는 바로 우복 정경세의 6 대 종손이다. 그는 정인모(鄭仁模, 1707~1756)와 부림홍씨(缶林洪氏) 사이의 장남으로, 영조 14 년(1738) 11 월 함창현(咸昌縣) 율리(栗里 현재 문경시 영순면) 외가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태어난 지 4 일 만에 갑자기 생모가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외조모 이씨 부인(李氏夫人)의 손에서 자랐으며, 이후 8 세가 될 때까지 줄곧 외가에서 생장하였다. 1743 년 6 세 때 잠시 우산(愚山) 본가로 돌아온 적이 있지만 바로 돌아갔으며, 외종조부[任天堂] 밑에서 공부를 하며 생활하였다.



입재가 본가로 돌아온 것은 9 세(1746) 때였다. 이때부터 입재는 조부 정주원(鄭胄源)을 모시고 공부하였다.주-D002 그리고 13 세(1750) 때부터는 중부 창주(滄洲) 정의모(鄭義模, 1709~1756)에게 수학하였다. 정의모는 그를 가학(家學)을 이어 갈 큰 인재로 기대하면서 자식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하였으며, 입재 또한 "그분 곁에 있으면 저절로 존경하고 사랑하여 잠시도 떠나고 싶지 않았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그래서 훗날 입재가 학문적으로 큰 성공을 한 것이 사실상 모두 중부 정의모의 힘이었다고 하는데,주-D003 이를 통해 어린 시절 공부에 정의모의 영향이 특히 심대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입재는 19 세(1756) 2 월에 조부상, 3 월에 중부상, 5 월에 부친상을 연이어 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떠나 공부하지는 않았다. 이듬해인 20 세 때부터 다시 숙부 성건(省愆) 정예모(鄭禮模, 1713~1788)와 계부 추간(秋澗) 정지모(鄭智模, 1716~1776)의 지도를 받았으며,주-D004 이런 공부를 정지모가 세상을 떠난 1776 년(39 세)까지 지속하였다. 이 시절 그는 정경세가 거처한 서실(書室)에서 주로 공부하였는데, 서실에는 다른 어떤 집안보다 충실한 장서 수천 권이 소장되어 있었다.주-D005 이런 책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었으니, 다른 곳에 나가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젊은 시절 입재가 어떤 공부를 주로 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조부, 중부, 숙부, 계부 등을 통해 가학을 전수한 점, 15 세 때 《상서(尙書)》를 힘써 읽고 17 세 때 《소학》 수진본(袖珍本)을 만들어 읽고 실천에 힘썼다는 점,주-D006 20 세 때 계부 정지모가 경전(經傳)의 핵심적인 뜻과 천인성명(天人性命)의 깊은 이치를 가르쳤다는 점주-D007 등을 고려하면, 그 또한 여타 학자와 마찬가지로 유가경전 중심의 공부를 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예문을 보면 그가 유가경전 공부에만 매달린 것이 아니라 역사서와 당송고문 등을 대단히 폭넓게 독서하였음을 알 수 있다.

① 선생 15 세. 열두세 살 때.....선생이 《상서(尙書)》의 표현법을 본떠 즉시 수십 마디 글을 지으니 조부 침랑공께서 크게 칭찬하셨다. 이즈음에 이르러 자못 문장(文章)에 유의하여 제가(諸家)의 글을 널리 섭렵하였고, 손수 《상서(尙書)》를 베껴 작은 책자로 만들어 전(典)·모(謨)·우공(禹貢)·고(誥)를 수천백 번 읽었다.주-D008

② 기묘년(1759) 부인 이씨를 아내로 맞아 집안일을 맡기고, 마음을 맑게 하고 일을 줄여 개연히 이 학문에 뜻을 두었다. 간혹 《좌전(左傳)》·《국어(國語)》·반고(班固)·사마천(司馬遷)·한유(韓愈)·유종원(柳宗元) 등의 여러 책을 널리 섭렵하고, 모두 수천 번을 읽어 그 법도[軌範]를 터득하였다.주-D009

③ 선생 22 세. 견일암(見日菴)에 올라가 사마천의 《사기(史記)》를 읽었다. 백이전(伯夷傳)·임안서(任安書)·유협(游俠)·화식(貨殖)·혹리(酷吏)·사군(四君) 등 여러 열전을 베껴 혹 만 번 천 번까지 읽었다. 일찍이 다른 사람에게서 팔대가문(八大家文)을 빌린 적이 있는데, 마음을 집중하여 한 번 읽고는 곧 책을 덮고 암송하여 한 글자도 어긋나지 않았다. 얼마 되지 않아 전질을 다 읽고 돌려주니, 그 주인이 이를 듣고 크게 놀라워하였다.주-D010

④ 선생 25 세. 외조부 소곡공(素谷公) 홍익귀(洪益龜)에게 편지를 올렸다.....선생이 문장(文章)에 힘을 쏟고 있다는 말을 듣고 한유(韓愈) 유종원(柳宗元)의 문장과 집안의 글[家稿] 및 자신의 글[私稿]을 손수 베껴 편지를 보내며 전부 부쳐주셨기에, 선생이 편지를 써서 촉망하시는 뜻에 답하였다.주-D011

위의 예문을 보면 입재가 가장 왕성하게 공부할 나이였던 10 대 중반부터 20 대 중반까지 유가경전 공부에만 매달리지 않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각종 역사서는 물론, 한유와 유종원을 비롯한 당송팔대가의 글을 광범위하게 섭렵하였고, 그 가운데 중요한 글은 간단한 섭렵 정도가 아니라 수천수만 번 반복해서 읽고 암송하였으며, 그 글쓰기의 법도 자체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입재가 여타 영남 지역 유학자들과 달리 수많은 시문을 창작하여 학자이면서 동시에 문장가로도 높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 바로 이런 공부에 노력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30 세(1767)를 전후하여 입재는 이제 문장 공부를 지양하고 유학 자체의 학문적 탐색에 몰두하였다. 이런 경향은 20 대 후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주요 계기는 심기당(審幾堂) 황계희(黃啓熙, 1727~1785)를 만나면서부터였다. 그는 26 세 때 처음 황계희를 찾아뵈었는데, 황계희는 문장은 잔재주[小技]이고 우복 이래의 가학(家學)이 진실로 큰 학문이라고 일깨워 주었다. 입재는 이를 두고 "내가 이 학문을 함에는 실로 심기당(審幾堂) 공이 깨우쳐 주셨다."고 말한 바 있다.주-D012 그리고 27 세(1764) 때 《소학(小學)》·《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사서(四書) 등을 정독하면서 의심스럽고 어려운 곳을 풀이하여 《보망록(補忘錄)》을 짓기 시작하였고, 28 세(1765) 때는 지난날의 공부를 뉘우치면서 〈자신문(自新文)〉을 지었다.주-D013 그러다가 마침내 30 세 때 《논어(論語)》의 '삼십 세에 정립하였다[三十而立]'는 뜻을 취하여 당호를 입재(立齋)라 하고 제대로 학문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주-D014

30 세 이후 입재는 집안에서 약 10 년 동안 유가경전의 탐구와 강론에 몰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1 세(1768) 때 고을 사람이 그를 조정에 천거하려고 하였지만 이를 극구 만류하였고,주-D015 32 세(1769) 때

정경세가 생장한 고을 남쪽 율리(栗里 청리면)에 가서 일정 기간 우거(寓居)하였지만 달리 스승을 찾지는 않았으며, 2 년 뒤 34 세(1771) 때는 다시 우산으로 돌아왔다.주-D016 그래서 39 세(1776) 12 월 계부 정지모(鄭智模)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늘 우산(愚山)에서 생활하면서 학문에 몰두하였던 것이다.주-D017

40 세가 되면서 입재는 비로소 지역의 명망 높은 학자들과 본격적인 교류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 무렵 집안에는 학문적으로 자문할 원로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새로운 사우(師友) 관계를 통해 보다 높은 학문적 성취를 이루고자 한 것인데,주-D018 먼저 주목한 인물은 사벌면(沙伐面) 두릉리(杜陵里)에 거주하고 있던 손재(損齋) 남한조(南漢朝, 1744~1809)였다. 남한조는 입재보다 6 살 아래였지만 당시 이미 명성이 높았다. 그래서 40 세 되던 해 먼저 그를 찾았고, 이후 그와 각별한 사이가 되었다. 남한조의 아들은 제자로(45 세), 딸은 셋째 며느리로(54 세) 맞이하였으며, 희양산(57 세)・속리산(58 세)・선유동(65 세) 등지의 유람과 기타 각종 강학을 위한 자리를 무수하게 함께하였다. 그리고 그때마다 수많은 글을 주고받아서 그와 관련된 글을 특별히 많이 남겼다.

가을부터 겨울에 걸쳐서는 당시 가장 명망이 높던 예천 용문(龍門)의 남야(南野) 박손경(朴孫慶, 1713~1782), 안동 소호(蘇湖)의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 대구 옻골의 백불암(百弗菴) 최흥원(崔興遠, 1705~1786) 등 이른바 영남삼로(嶺南三老)를 모두 찾아보았다. 이상정을 찾아보고는 3 일간 머무르며 강론하여 제자가 되었고, 아들 이완(李埦) 및 동생 이광정(李光靖) 등과 교유할 기회를 가졌다. 돌아오는 길에는 의성 사촌(沙村)으로 이상정의 고제(高弟) 김종덕(金宗德, 1724~1797)과 김종경(金宗敬, 1732~1785) 형제를 방문하기도 하였다. 그다음 최흥원을 찾아보고는 이후 언제나 존경하고 흠모하면서 당대 최고의 인물[當世一人]이라고 칭송해 마지않았으며,주-D019 이를 계기로 최흥원의 손자 최식(崔湜)을 사위로, 최식의 아들 최효술(崔孝述)을 제자로 맞이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40 세 이후 그가 직접 찾아본 선배 학자가 많이 있었다. 종제 정익로(鄭翼魯)의 장인이었던 경현재(警弦齋) 강세진(姜世晉, 1717~1786),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의 손자 강재(剛齋) 이승연(李承延, 1720~1806) 등이 그런 사람인데, 이들은 입재의 거처를 아예 읍성 가까운 북계(北溪)로 옮기게까지 하였다(42 세).주-D020 그리고 영양으로 누이를 찾아간 것을 계기로 조덕린(趙德鄰)의 손자 조술도(趙述道, 1729~1803)를 방문하고(50 세), 매부 조명복(趙明復)의 아들 4 형제를 제자로 받기도 하였다. 상주를 근거지로 삼아 영남 지역 여타 학맥의 많은 선후배 학자들과 폭넓게 교유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 과정을 거쳐 50 대 이후에는 영남을 대표하는 학자로 부상하였다. 50 대가 되었을 때는 입재의 중부・숙부・계부 등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자연히 집안을 대표하는 문장(門丈)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상정(李象靖. 1781), 박손경(朴孫慶. 1782), 최흥원(崔興遠. 1786) 등 영남삼로가 모두 세상을 떠났고, 조천경(趙天經. 1776), 황계희(黃啓熙. 1785), 김종경(金宗敬. 1785), 이광정(李光靖. 1789) 같은 선배 학자도 비슷한 시기에 세상을 떠났으며, 김종덕(金宗德. 1797), 이종수(李宗洙. 1797), 유도원(柳道源. 1791), 유장원(柳長源. 1796) 등 영남삼로의 핵심 제자들까지 그가 60 세가 되기 전에 대부분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그가 영남을 대표하는 학자로 자연스럽게 부각되었던 것이다.

입재가 이렇게 영남을 대표하는 학자로 부상하면서 부단히 벼슬이 내려왔다. 52 세 6 월 광릉 참봉(光陵參奉)에 임명된 이래, 그해 8 월 채제공(蔡濟恭, 1720~1799)의 추천으로 의금부 도사에 임명되었고, 이후 사포서 별제(59 세), 사헌부 지평(59 세), 강령 현감(60 세), 함창 현감(60 세), 용양위 사직(68 세), 사헌부 장령(71 세) 등에 연이어 임명되었다. 그러나 실직에 나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광릉 참봉, 의금부 도사 등에 임명되었을 때는 잠시 상경하였다가 바로 내려왔고,주-D021 사포서 별제, 사헌부 지평 등에 임명되었을 때는 3 차례 연이어 상소를 올리고 부임하지 않았다.주-D022 다만 함창 현감으로는 잠시 부임하였는데, 이 또한 약 4 개월 만에 그만두었으니,주-D023 실제로 벼슬을 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럼에도 이런 과정을 통해 명성이 날로 높아졌으며, 특히 사헌부 지평을 사양하면서 올린 〈사사헌부지평소

명소(辭司憲府持平召命疏)〉는 조정 신하들이 서세문장(瑞世文章)이라고 전송한주-D024 명문장으로 널리 알려졌다.

이 무렵에는 또 이런저런 계기로 서울을 출입하면서 근기남인 학자들과 교유하기도 하였다. 의금부 도사에 임명을 받고는 자신을 추천한 채제공에게 편지를 썼고(52 세), 내려오는 길에 안정복(安鼎福, 1712~1791)을 찾아갔다. 안정복과는 이후 여러 차례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리고 채제공의 문인으로 스승을 두둔하다가 파직당한 바 있는 이익운(李益運, 1748~1817), 채제공의 양자(養子)로 정약용(丁若鏞) 등과 죽란시사(竹蘭詩社)를 결성하여 활동한 채홍원(蔡弘遠, 1762~?), 남인 학자 오광운(吳光運, 1689~1745)의 조카인 오대익(吳大益) 등 여러 사람과 글을 주고받았다.

이렇게 명성이 드러나면서 제자 또한 많이 모여들었다. 집안 형제와 자질(子姪)은 물론이고, 친구이면서 사돈이었던 남한조(南漢朝) 집안, 매부 조명복(趙明復)과 한양 조씨(漢陽趙氏) 집안, 맏사위 최식(崔湜)의 아들 최효술(崔孝述)과 경주 최씨(慶州崔氏) 집안, 둘째 사위 황석로(黃錫老)를 비롯한 장수 황씨(長水黃氏) 집안 등 척족의 자제가 많았고, 정경세 이래 사승(師承)과 혼반(婚班)이 대를 이어 중첩된 중동면 우천리(愚川里) 풍산 유씨(豐山柳氏) 집안, 이승배(李升培)를 비롯한 원포리 흥양 이씨(興陽李氏) 집안, 기타 진주 유씨(晉州柳氏) 유식(柳栻), 진주 강씨(晉州姜氏) 강세규(姜世揆), 완산 유씨(完山柳氏) 유치명(柳致明), 여산 송씨(礪山宋氏) 송규필(宋奎弼), 파평 윤씨(坡平尹氏) 윤동야(尹東野), 성산 이씨(星山李氏) 이규진(李奎鎭) 등 참으로 다양한 집안 자제들이 입문하였다.

입재의 생활은 이런 인물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학문을 토론하고, 강학을 하거나 산천을 유람하며, 필요한 글을 짓는 일이 중심이었다. 유림을 대표하여 〈청대산이선생입사철향소(請大山李先生立祠餟享疏)〉라는 상소문을 짓고(51 세), 대구로 최흥원(崔興遠)을 정려(旌旅)하는 모임에 갔다가 팔공산을 유람하며(52 세), 도산서원(陶山書院) 원장으로 초빙되어 강론을 맡고(55 세), 남한조의 산천재(山泉齋)에 머물며 강학한(57 세) 것 등이 모두 그런 일이다. 이 가운데 특히 남한조와 희양산(曦陽山)·선유동(仙遊洞)·화양동(華陽洞)·속리산(俗離山) 등을 유람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선유동에는 남한조의 별장인 옥하정(玉霞亭)이 있었다. 그래서 57 세(1794) 3 월 선유동을 찾아가 주변 명승고적을 두루 탐방한 바 있다. 그리고 58 세(1795) 윤 2 월에도 남한조와 함께 속리산을 유람하였으며, 같은 해 또 백화산(白華山)에 들어가 냉천(冷泉) 지역을 유람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문을 지었다.

60 대 때 입재는 계모 박씨 상을 당하고(62 세 1 월), 연이어 부인 이씨가 세상을 떠나는(66 세 11 월) 등 가정적으로 불운이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학문적으로는 오히려 〈귀신론(鬼神論)〉(60 세), 〈태극권자설(太極圈子說)〉과 〈태극동정설(太極動靜說)〉(66 세), 〈오상설(五常說)〉(69 세),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70 세) 등 대표작이라고 할 만한 글을 많이 썼다. 문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백불암최선생묘갈명(百弗庵崔先生墓碣銘)〉(64 세), 〈남야박선생문집서(南野朴先生文集序)〉(65 세), 〈덕림서원중수기(德林書院重修記)〉(67 세) 등 중요한 문장을 모두 이때 지었고, 오대익(吳大益)의 시에 차운한 〈구곡시(九曲詩)〉(60 세),주-D025 〈경차선조우산이십경운(敬次先祖愚山二十景韻)〉(65 세), 88 구의 장편고시 〈성두가(聖痘歌)〉(68 세), 19 수 연작의 〈옥동제영(玉洞題詠)〉(69 세) 등을 모두 이때 지었다.

이런 활동은 70 대 고령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경상 감사 윤광안(尹光顔)이 주최한 향음주례(鄕飮酒禮)에 빈(賓)으로 참석하고(70 세), 홍여하(洪汝河)의 《휘찬려사(彙纂麗史)》(71 세), 최흥원(崔興遠)의 《백불암집(百弗庵集)》(73 세), 이만부(李萬敷)의 《식산집(息山集)》(76 세), 남한조의 《손재유고(損齋遺稿)》(76 세) 등을 교정하는 데 두루 참여하였다. 그리고 《안자(顔子)》(72 세), 《대산서절요(大山書節要)》(73 세), 《군서연의(群書演義)》(73 세), 《독관편(獨觀篇)》(74 세) 같은 저술을 이즈음에 하였고, 주자와 퇴계의 시에 차운한 〈경차운곡이십육영(敬次雲谷二十六詠)〉, 〈경차운곡잡영(敬次雲谷雜詠)〉, 〈경차도산잡영(敬次陶山雜詠)〉 등도 모두 75 세 전후에 지었다.주-D026 그러다가 순조 16 년(1816) 6 월 6 일 산수헌(山水軒)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도남서원에서 《중용》을 강론하고(1816. 3.), 생질 조언유(趙彦儒)의 《심경(心經)》 문목에 답을 하는(1816. 5.) 등 강학을 지속하였다.

이렇듯 입재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재야 학자로 충실한 삶을 살았다. 학문적으로는 퇴계 이래 유성룡, 정경세, 정도응으로 이어지는 가학에 기초하였고, 40 대 이후 여타 학맥의 선후배 학자들과 두루 교유하여 학문의 폭을 확장하였으며, 50 대 이후에는 영남을 대표하는 학자가 되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강학을 지속함으로써 학문적으로나 문학적으로 대단히 풍성한 업적을 남겼다. 현재 전하는 《입재집(立齋集)》 60 여 권은 바로 이런 성취의 내용을 다듬어 정리해 놓은 것에 다름 아니다.

2. 《입재집》의 편찬 간행 경위

《입재집》은 목록이 상하 2 권 1 책, 원집이 48 권 24 책, 별집이 9 권 4 책, 연보가 2 권 1 책, 도합 61 권 30 책이다. 이 가운데 연보 2 권 1 책은 독립 책자로 간행되었지만 판심제를 '별집권지십(別集卷之十)', '별집권지십일(別集卷之十一)' 등으로 표기하여 앞서 간행한 별집 9 권에 연속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하에서는 문집의 간행 경위를 크게 원집과 별집으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 원집의 편찬・간행

《입재집》은 서문도 없고 발문도 없다. 그래서 문집의 간행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다만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이승배(李升培)가 쓴 〈행장(行狀)〉의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 장손(長孫)에게 명하여 남긴 글을 수습하게 하였다."주-D027 는 것이 그중 하나로, 이를 통해 순조 16 년(1816) 6 월 6 일 세상을 떠나기 이틀 전인 6 월 4 일경 큰손자 정민수(鄭民秀, 1786~1843)에게 유문(遺文) 수습을 부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연보(年譜)〉 끝부분의 "헌종 을미년(1835) 문집 24 책을 간행하였다."주-D028 는 것인데, 이를 통해 사후 약 20 년이 지난 헌종 1 년(1835)에 그가 남긴 유문을 일차 정리하여 문집 24 책을 간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입재집》에는 이 외에 달리 간행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그런데 손자 정민병(鄭民秉) 주-D029 이 지은 제암(制庵) 정상리(鄭象履, 1774~1848)의 〈유사(遺事)〉에서 중요하게 참고할 만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병자년(1816) 입재 선생이 후학을 버리고 세상을 떠나자 공은 아버지를 잃은 듯 상심하여 애통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셨다.....이 당시 집안에 세 가지 미처 처리할 경황이 없었던 일이 있다. 첫째는 우복을 본원(本院)에 봉안하는 논의였고, 둘째는 우복의 별집(別集)을 간행하는 일이었으며, 셋째는 입재(立齋)가 남긴 글을 교정하는 책무였다. 나 민병(民秉)의 생가 부친 석파공(石坡公) 정상진(鄭象晉)과 양가 부친 곡구공(谷口公) 정상관(鄭象觀)께서 이 세 가지 일로 급급해하시며 못 잊어 하셨는데, 앞의 두 가지는 실로 입재가 남긴 뜻이었다. 교감하는 한 가지 사항 같은 경우, 더욱 곡구공(谷口公)께서 고심하여 정성을 들인 바였으며, 문하의 여러분들이 한결같은 말로 중시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경진년(1820)에 하늘이 목숨을 앗아가 거듭 이 도를 상실하게 하였다. 제암공(制庵公) 정상리(鄭象履)께서 깊이 애통하고 애도하시며 더욱 힘을 다하여 우리 석파공을 도울 바를 생각하시고, 십수 년 사이에 세 가지 큰일을 차례로 마치셨다. 아하, 큰일이 성취됨은 진실로 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제암공의 정성과 노력이 아니었다면 어찌 여기에 이르렀겠는가.주-D030

위를 보면 입재가 세상을 떠난 직후 집안에 당면한 과제가 세 가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우복 정경세를 본원(本院)에 봉향하는 일이었다. 정경세는 인조 11 년(1633)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 1635), 개령(開寧) 덕림서원(德林書院, 1676), 경산 고산서원(孤山書院, 1697), 대구 연경서원(研經書院, 1706) 등에 차례로 배향된 바 있다. 그러나 그를 주벽(主壁)으로 모신 서원, 곧 본원(本院)이 없어서 입재가 54 세 되던 정조 15 년(1791)부터 본원(本院) 건립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순조 7 년(1807) 서원의 전신으로 우선 수계소(修契所)를 세웠다.주-D031 그러나 끝내 본원(本院)을 건립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으니, 입재의 뜻을 받들어 이를 완수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둘째는 정경세의 《우복집(愚伏集)》 별집(別集)을 간행하는 일이었다. 《우복집》은 우복의 둘째 사위 송준길(宋浚吉)과 맏손자 정도응(鄭道應)이 효종 8 년(1657) 처음 20 권 10 책으로 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원집에는 누락된 글이 많았다. 《사문록(思問錄)》·《양정편(養正篇)》·《경연일기(經筵日記)》 등이 모두 빠졌고, 연보(年譜)·묘지(墓誌)·신도비명(神道碑銘)·행장(行狀) 등도 수록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정조 13 년(1789) 8 월 입재가 의금부 도사에 임명되어 상경하였을 때 정조가 《우복집》을 올리라고 명하였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와 원집에 누락된 글을 정서(正書)하여 필사본 별집을 만들고, 그해 12 월 이를 원집과 함께 올렸다. 이렇게 해서 별집 정고본(定稿本)이 만들어졌는데, 입재가 이것을 간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입재 사후 별집 간행이 주요 과제가 되었다.주-D032

셋째는 입재의 유문을 교정하는 일이었다. 입재 연보에는 당초 이 일을 손자 정민수에게 명하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위의 글을 보면 처음부터 이 일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인 것은 입재의 셋째 아들 곡구(谷口) 정상관(鄭象觀, 1776~1820)주-D033 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상관이 이 일을 끝내지 못하고 1820 년 세상을 떠나자, 입재의 종질인 제암(制庵) 정상리(鄭象履)가 재종제가 못 다한 일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며, 이후 입재의 맏아들이자 종손인 석파(石坡) 정상진(鄭象晉, 1770~1847)을 도와 《입재집》을 편찬·교정하고 간행하는 일을 사실상 주도하였다고 하였다.

정상리는 자가 중소(仲素), 호가 제암으로, 입재가 어린 시절 오랫동안 모시고 공부한 바 있던 중부(仲父) 정의모(鄭義模)의 맏손자이고, 정익로(鄭翼魯)의 맏아들이다. 어려서부터 입재를 모시고 공부하여주-D034 유가경전에 능통하였고, 송암서원(松巖書院)·도남서원(道南書院) 등에 강장(講長)으로 초빙되어 후학을 가르치기도 하였으며, 영남유림을 대표하여 병산서원(屛山書院) 사액을 요청하는 등 지역에서 학문적 명망이 높았다. 그리고 《제암집(制庵集)》 8 권 4 책을 남겼는데, 이 책을 보면 그가 실질적으로 《입재집》의 편찬·간행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① 《입재집》을 교정하는 모임에서 느낀 바를 읊다.

② 산루(山樓)에서 삼가 《입재집》을 편찬하며 느낀 바를 적다.

③ 도남서원에서 《입재집》을 교정하다가 율시 한 편을 지어 좌중에 올리다.

④ 종부(宗父) 입재선생의 문집 간행 일을 하던 날 문집에서 운을 뽑아 짓다.

⑤ 입재선생문집을 간행하고 고유하는 글. 종가 형[宗兄]을 대신하여 지음.

⑥ 선조 우복선생의 문집 중간을 고하는 글.

⑦ 선조 별집(別集)을 편찬하면서 그 일에서 느낀 바를 적다.

⑧ 선조 별집(別集) 간행 일을 하는 모임 자리에서 평와(平窩) 시에 차운하다.

⑨ 선조 문집을 중간하던 날 문집 속의 운을 뽑아 그 일을 읊다.

⑩ 선조 문장공(文莊公) 수간첩(手簡帖) 발문.

⑪ 내한부군(內翰府君), 자의부군(咨議府君), 입재선생(立齋先生) 3 대 필적을 합쳐 한 책으로 만든 뒤 삼가 발문을 쓰다.

⑫ 무첨재(無忝齋) 정도응(鄭道應) 부군이 편집한 《명신행적(名臣行蹟)》 뒤에 삼가 발문을 쓰다.주-D035

위의 ①~④는 그가 대산루(對山樓)·도남서원(道南書院) 등에서 《입재집》 편찬과 교감·간행의 일을 하면서 그때마다의 감회를 읊은 시 제목이고, 문집 간행을 마친 다음 마지막으로 사당에 고하는 ⑤고유문(告由文)까지 종가 맏형 정상진을 대신하여 지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⑥~⑫는 《우복집》 중간, 별집의 편찬과 간행, 기타 선대 문적의 정리와 편찬 등에 참여하면서 감회를 적은 것이다. 이를 보면 정상리가 《입재집》 편찬과 간행을 주도하였음은 물론, 여타 집안 문적을 정리·간행하는 일에 두루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집안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법한 유주목(柳疇睦, 1813~1872)은 정상리의 행장(行狀)에서 이런 그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요약하기도 하였다.

사문(斯文)에 힘쓴 것으로는, 신사(辛巳. 1821)에 문장공(文莊公) 별집(別集)을 간행하였고, 임진(壬辰, 1832)에 문장공(文莊公) 연보(年譜)를 개간(改刊)하였으며, 을미(乙未, 1835)에 숭도사(崇道祠 우산서원(愚山書院) 사우(祠宇) 이름)를 건립하여 문장공(文莊公)을 봉향하였고, 병신(丙申, 1836)에 입재를 배향하였다. 《입재집(立齋集)》이 방대함에도 문하생 여러분들과 20 여 차례 조사·교정하여 간행하였고, 무첨당(無忝堂) 정도응이 남긴 글을 정밀하게 교정하고 깨끗하게 적어 후대에 전할 계책을 삼았다.주-D036

유주목은 이 글에서 1821 년 《우복집》 별집(別集) 간행, 1832 년 우복 연보(年譜) 개간(改刊), 1835 년 숭도사 건립과 우복 봉안, 1836 년 입재의 숭도사 배향, 방대한 《입재집》 관련 자료의 교정과 간행, 정도응(鄭道應)의 유문 교정과 정서(淨書) 등을 대부분 정상리가 맡아 처리하였다고 하였다. 이것은 물론 정상리의 행장에 기록된 것이어서 정상리를 중심으로 기술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종손 정상진(鄭象晉)을 도와 집안 대소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은 분명하며, 《입재집》의 정리·편찬·간행 또한 사실상 그가 주도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주-D037

《입재집》의 편찬·간행, 특히 방대한 문집을 하나하나 교감하는 데는 문인들의 도움도 대단히 컸다. 이런 사실은 입재의 제자 유심춘(柳尋春, 1762~1834)의 연보에 수록된 아래와 같은 기록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

29 년 기축(己丑, 1829) 선생 68 세. 북장사(北長寺)에 모여 입재선생문집을 편차(編次)하였다. 수계(修溪) 이승배(李升培), 노암(魯菴) 정필규(鄭必奎), 긍암(兢菴) 강세규(姜世揆), 제암 정상리가 서로 편(篇)을 나누어 교감하였다.주-D038

1829 년 북장사(北長寺)에서 《입재집》을 편찬하였는데, 유심춘을 비롯하여 이승배, 정필규, 강세규, 정상리 등이 함께 분담하여 교감하였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모두 입재의 제자로, 유심춘은 입재의 묘지명(墓誌銘)을 지었고, 이승배는 입재의 행장(行狀)을 지었으며, 정필규는 편지와 제문이 있고, 강세규는 제문을 짓고 《언행록(言行錄)》에 입재와 관련한 많은 기록을 남겼다. 이 외에도 백하(白下) 황반로(黃磻老, 1766~1840)가 유심춘에게 보낸 편지에 《입재집》의 편찬과 교정에 힘써 줄 것을 부탁한 내용이 보이는데,주-D039 이런 기록을 통해 오랜 기간에 걸친 문집 교감에 많은 제자들의 협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입재집》 원집은 이처럼 입재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장손 정민수(鄭民秀)에게 유문(遺文)의 수습을 부탁하였고, 세상을 떠난(1816) 직후에는 셋째 아들 정상관(鄭象觀)이 유문의 정리와 교감에 특별히 애를 썼

으며, 정상관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종질이자 제자였던 정상리(鄭象履)가 다른 제자들의 협조를 얻어 간행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입재가 남긴 뜻대로 1821 년 우복집 별집(別集)을 먼저 간행하고, 1832 년 우복 연보(年譜) 개간(改刊)까지 마무리한 다음, 헌종 1 년(1835) 우산서원(愚山書院) 건립과 동시에《입재집》목록 2 권 1 책, 원집 48 권 24 책을 간행하였던 것이다.《입재집》간행에 20 여 년의 세월이 소요된 것은 우복과 관련한 일을 먼저 마무리해야 하는 사정이 있었고, 남긴 글의 규모가 방대하여 이를 수습・정리하고 교감하는 자체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하나 더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은 원집의 초판본(初版本)과 후쇄본(後刷本) 사이에 고친 부분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는 점이다. 초판본은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이 대표적이고, 후쇄본은 종가에 소장하고 있다가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한 본이 대표적인데, 양자를 대비해 보면 고친 부분이 아주 뚜렷하게 드러난다.

① 16-02(추가) : 同知中樞府事金公墓碣銘竝並序 → 同知中樞府事**觀瀾齋**金公墓碣銘竝並序

② 16-03(교체) : 其先祖**同樞公**遺事 → 其先祖**觀瀾齋**遺事

③ 16-07(삭제) : 以過因山**之期** → 以過因山

④ 16-09(변경) : 聖廟位版**埋**安于深谷 → 聖廟位版**權**安于深谷

⑤ 16-10(변경) : 及賊退**權**安於村舍 → 及賊退**移**安於村舍

⑥ 16-11(추가) : 聞卽來謁 → 聞卽來**祇**謁

⑦ 16-17(정정) : 今子之先**克允**蹈之 → 今子之先**允克**蹈之

⑧ 17-02(삭제) : 遂次**其**世系生卒及子孫如左**而**系以銘 → 遂次世系生卒及子孫如左系以銘

⑨ 17-04(정정) : 曾祖諱溫**展**力副尉 → 曾祖諱溫**効**力副尉

⑩ 17-05(보완) : 妣碧珍李氏**某**之女 → 妣碧珍李氏**參奉佑聃**之女

⑪ 17-08(정정) : 配星山李氏參奉**國彦**女 → 配星山李氏參奉**彦國**女

⑫ 17-09(추가) : 鑊鎬護軍 → 鑊**嘉善**鎬護軍

⑬ 17-10~11(추가・삭제・보완・변경) : 釴子德頤鋤子德升鑊**無后**鎬子德濟文科佐郞**德升子萬徽德濟子萬最萬光**玄**孫**以下不錄 → 釴子**德恒**德頤鋤子**德履**德升**德濟出**鑊**子德謙護軍德孚德咸**鎬子德濟文科佐郞**曾**玄以下**多**不錄**주-D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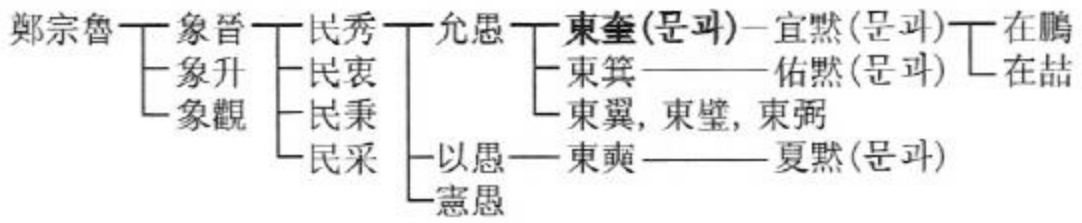
위 예시는 권 38 에 수록된 묘갈명 중 하나로, 좌측 아라비아 숫자는 권 38 의 면수와 행수이다. 이를 보면 이 한 편에 고친 부분이 13 곳이나 됨을 알 수 있다. 고친 내용은 원판에 없던 것을 새롭게 추가한 것, 원판에 있던 것을 삭제한 것,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것을 정정하고 보완한 것, 기타 문맥상 어색한 접속사나 어조사를 삭제하거나 변경한 것 등 아주 다양한데, 이 때문에 줄이 밀리고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물론 고친 내용이 가장 현저한 대표적인 예일 뿐이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이처럼 심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고쳐진 예를 적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주-D041** 이를 통해 1835 년《입재집》초간본을 간행한 이후 새롭게 발견된 문제점을 일괄 수정하고 보각(補刻)하여 간행한 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1899 년《우복집》별집 중간을 마친 다음《입재집》별집을 간행할 즈음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분명한 근거 자료는 찾지 못하였다.

2) 별집(別集)의 편찬・간행

별집(別集) 또한 서문도 없고 발문도 없으며, 편찬・간행 과정을 따로 기록해 놓은 자료도 발견하기 어렵다. 다만 〈연보(年譜)〉 끝부분에 "고종(高宗) 경술년(1910) 별집 4 책과 《안자(顔子)》 1 책을 간행하였다."주-D042 는 기록이 있어서 1910 년 입재가 저술한 《안자(顔子)》라는 책과 함께 간행한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910 년에 별집(別集)을 간행한 것은 이 무렵 입재 종가가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여 선대 문집을 보완 간행할 형편이 되었기 때문이다. 입재 집안에는 이즈음 문과 급제자가 전례 없이 많이 나왔다. 현손 정동규(鄭東奎, 1824~1854)가 문과에 급제한(1848) 이후, 정동규의 장남 정의묵(鄭宜默, 1847~1906)이 부친을 이어 급제하였고(1885), 이때를 전후하여 1882 년엔 조카 정우묵(鄭佑默, 1849~1911)이, 1892 년엔 종질 정하묵(鄭夏默, 1850~1908)이 급제하였다. 종손의 부자, 사촌, 6 촌 사이에 4 명의 급제자가 연이어 나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입재 종가는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였는데,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이전에 못 다한 문집 간행을 추진할 수 있었다. 1899 년 정하묵이 《우복집》 별집 8 권 4 책을 12 권 6 책으로 중간한 것은 이런 저간의 사정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이다.주-D043



이와 더불어 기존에 간행한 《입재집》에 미처 수록하지 못한 글이 많아서 따로 보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도 별집 간행의 근본적인 동인 중 하나였다. 《입재집》 별집은 9 권 4 책인데, 이 가운데 7 권 3 책이 모두 원집에 수록하지 못한 글이다. 그리고 원집에는 유심춘(柳尋春)이 지은 묘지명(墓誌銘), 정원선(鄭元善)이 지은 묘갈명(墓碣銘), 이승배(李升培)가 지은 행장(行狀) 등을 하나도 수록하지 못하였으며, 기타 문인들이 남긴 각종 만사(輓詞)와 제문(祭文) 및 언행록(言行錄)도 모두 누락되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두루 수습하여 원집의 편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별집을 편찬・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별집 간행을 준비한 것은 문과 급제자로 집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5 대 종손 정의묵(鄭宜默)과, 역시 문과 급제자로 《우복집》 별집 중간을 주도한 정하묵(鄭夏默)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은 별집이 간행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정의묵의 장남 정재붕(鄭在鵬, 1869~1936)과 차남 정재철(鄭在喆)이 이를 계승하여 마무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두 사람은 이후 별집 권 10~11, 즉 《입재선생연보(立齋先生年譜)》를 간행한 주체이기도 하다.

별집 가운데 권 10~11 에 해당하는 《입재선생연보(立齋先生年譜)》 2 권 1 책은 별집을 간행하고 16 년이 더 지난 1926 년 따로 간행하였다. 이 두 권은 표제를 연보라고 하였지만, 수록 내용은 연보에 국한되지 않았다. 권 10 앞부분에 세계도(世系圖)가 추가되어 있고, 권 11 은 연보가 아니라 〈봉안문(奉安文)〉・연설(筵說)・상소문(上疏文) 등이다. 전체적인 성격으로 보아 1910 년에 간행한 별집의 보유편이라고 할 만한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연보였기 때문에 표제를 임의로 연보라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입재의 연보는 그가 세상을 떠난 직후 작성한 초고본이 있었다. 정원선(鄭元善)이 입재의 묘갈명을 지으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일차 언급한 바 있으며, 6 대 종손 정재붕(鄭在鵬)이 1926 년《입재선생연보》를 간행하면서 그 초고본의 작성자가 바로 입재의 셋째 아들 정상관이라고 지목하기도 하였다.

어느 날 선생의 장자가 선릉[成宗陵] 참봉 임명에 대한 사은숙배(謝恩肅拜)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종남(終南) 우거(寓居)로 찾아와 묘갈문을 부탁하였고, 얼마 뒤 조카 편에 행장(行狀)·연보(年譜)·유사(遺事)를 보내어 보여 주었다. 예의로는 비록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인정으로는 또한 감히 거절하지도 못하겠는지라, 드디어 받아서 짓기를 마쳤다.주-D044

"연도별로 기록한 연보가 상자에 방치되어 지금 100 년이 되었지만, 간행할 경황이 없어서 후학들의 유감이 오랠수록 더욱 간절하였다. 임술년(1922) 11 월 고을 선비들이 도남서원(道南書院)에 모여 함께 간행할 계획을 세웠다. 대개 이 연보는 곧 곡구부군(谷口府君 정상관(鄭象觀))이 편찬한 것이다. 그리고 또 석파부군(石坡府君 정상진(鄭象晉))이 지은 유사(遺事)가 있는데, 모두 집안에서 가르침을 받으며 지은 믿음직한 글이고, 당시 여러 문하생들이 함께 참여하여 교정한 것이다. 연도별로 기록할 즈음에 서로 자세하고 간략한 차이가 있지만, 큰 틀이 일치하여 서로 보완하고 병행할 만하였다. 그래서 도존당(道存堂)에서 초교(初校)를 보고 북장사(北長寺)에서 재교(再校)를 보아 신중하게 살피고 충분히 의논하여 한 부를 확정하였다. 4 년이 지나서야 일을 비로소 마쳤으니, 실로 고을의 덕망 높은 어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 주시고, 집안 원로가 받들어 주선해 주신 것이다."주-D045

첫 번째 예문은 정원선(鄭元善)이 지은 묘갈명 뒷부분인데, 여기서 그는 묘갈명을 작성하는 데 입재의 장자 정상진(鄭象晉)이 보내 준〈행장(行狀)〉·〈연보(年譜)〉·〈유사(遺事)〉 등을 참고하였다고 하였다. 묘갈명을 작성할 때 이미 연보 초고가 있었다는 말이다. 두 번째 예문은 정재붕(鄭在鵬)이 쓴《입재선생연보》발문인데, 그는 여기서 연보의 최초 작성자가 입재의 셋째 아들 곡구(谷口) 정상관(鄭象觀)이었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집에서 가르침을 받은 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을 만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100 여 년 전 정상관이 처음 작성한 초고를 지역 유림과 집안 원로가 힘을 합쳐 도존당(道存堂)에서 초교(初校), 북장사(北長寺)에서 재교(再校)하는 과정을 거치고, 1922 년부터 1926 년까지 4 년에 걸쳐 충분히 논의한 다음, 마침내 내용을 확정하여 간행한다고 하였다.주-D046

이런 기록을 통하여 1926 년 간행한《입재선생연보》2 권 1 책 중〈연보〉부분은 당초 입재의 셋째 아들 정상관이 작성한 초고를 6 대 종손 정재붕 등이 집안 원로와 지역 유림의 도움을 받아 몇 차례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간행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간행 주체는 정재붕과 동생 정재철(鄭在喆)이었고, 간행 일시는 1926 년 7 월 15 일이었으며, 발행 장소는 상주군 외서면 우산리 도존당(道存堂)이었으니,《입재선생연보》뒤에 첨부된 판권에 이런 사실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주-D047

《입재집》별집은 이처럼 1899 년《우복집》별집을 중간한 이후, 5 대 종손 정의묵(鄭宜默)과, 정하묵(鄭夏默)이 간행을 진행하였는데, 이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 6 대 종손 정재붕(鄭在鵬)이 이를 계승하여 1910 년 9 권 4 책으로 간행하였다. 그리고 정재붕과 동생 정재철(鄭在喆)이 중심이 되어 입재의 셋째 아들 정상관(鄭象觀)이 100 여 년 전에 편찬한 연보 초고를 다시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여기에 세계(世系)·연설(筵說)·상소문(上疏文) 등을 추가하여 1926 년《입재선생연보》2 권 1 책, 즉 별집 권 10~11 을 간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별집 전체 11 권 5 책이 완간되었다.

3.《입재집》의 구성과 내용

1) 《입재집》의 구성

《입재집》은 1835 년에 간행한 원집이 목록 2 권 1 책, 본문 48 권 24 책, 1910 년에 간행한 별집이 목록을 포함하여 9 권 4 책, 1926 년에 간행한 연보(별집 속편)가 2 권 1 책, 도합 61 권 30 책이다. 목록은 원집의 경우 2 권 1 책 별책으로 따로 엮었고, 별집은 권 1 안에 포함시켰으며, 모두 총목록만 제시하였을 뿐 각 권별 목록은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서문은 원집과 별집 모두 없으며, 발문도 마찬가지다. 다만 마지막에 간행한 연보 2 권 1 책 끝에 입재의 6 대손 정재붕(鄭在鵬)이 쓴 발문이 있는데, 이것은 원집이나 별집 간행과 무관하며, 다만 연보 간행과 관련된 사항만 제한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 가운데 목록을 제외한 부분의 구성 내역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① 원집(原集)의 구성

권 1~권 6 : 시 481 제 1,039 수

권 7 : 만사(輓詞) 45 제 102 수

권 8 : 소(疏) 6 편

권 9~권 23 : 서(書) 284 통

권 24~권 25 : 잡저 26 편

권 26~권 28 : 서(序) 50 편

권 29 : 기(記) 20 편

권 30 : 발(跋) 14 편, 잠명(箴銘) 5 편, 상량문 5 편

권 31 : 고유문 9 편,주-D048 제문 11 편

권 32 : 제문 17 편, 애사(哀詞) 6 편

권 33 : 비명(碑銘) 13 편

권 34~권 40 : 갈명(碣銘) 102 편

권 41 : 묘표(墓表) 1 편, 묘지(墓誌) 9 편

권 42 : 묘지(墓誌) 13 편

권 43~권 47 : 행장(行狀) 48 편

권 48 : 가장(家狀) 6 편

② 별집(別集)의 구성

권 1 : 목록, 시 54 제 69 수, 만사(輓詞) 15 제 29 수

권 2~권 3 : 서(書) 51 통

권 4 : 잡저 5 편, 서(序) 14 편

권 5 : 기(記) 12 편, 발(跋) 2 편, 상량문 1 편, 봉안문(奉安文) 5 편주-D049

권 6 : 제문 6 편, 애사(哀辭) 3 편, 묘비명(墓碑銘) 1 편, 묘갈명(墓碣銘) 2 편, 묘지명(墓誌銘) 1 편, 행장(行狀) 7 편

권 7 : 부록-묘지명・묘갈명・행장

권 8 : 부록-만사・뇌문(誄文)・제문

권 9 : 부록-언행록

권 10 : 세계도(世系圖), 부록-연보

권 11 : 부록-우산서원봉안문(愚山書院奉安文), 연설(筵說), 청증소(請贈疏), 발문(跋文)

위를 보면 《입재집》은 크게 입재가 직접 지은 글을 수록한 원집(原集) 48 권, 원집에 누락된 것을 보완한 별집(別集) 권 1~6, 입재 사후 문인 혹은 후손들이 지은 글을 모은 부록(별집 권 7~11)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체별로는 원집의 경우 시(詩), 만사(輓詞), 소(疏), 서(書), 잡저(雜著), 서(序), 기(記), 발(跋), 잠명(箴銘), 상량문(上樑文), 축문(祝文), 제문(祭文), 애사(哀詞), 비명(碑銘), 갈명(碣銘), 묘표(墓表), 묘지(墓誌), 행장(行狀), 가장(家狀) 등의 순으로 구성하였는데, 이런 방식을 별집에도 그대로 적용하였다. 전체를 우선 시와 문으로 구분하고, 문에서는 다시 조정과 관련된 소(疏)를 제일 앞세웠으며, 그 다음에 학문적으로 중요한 서(書)와 잡저(雜著), 그다음에 서(序), 기(記), 발(跋) 등 일반 문장, 그다음에 사후의 애제문(哀祭文)과 묘도문자(墓道文字), 행장(行狀) 등의 순으로 배치하였다. 이는 여타 문집의 구성 방법과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몇 가지 특이한 점도 보인다. 첫째는 일반 시와 만사(輓詞)를 구분한 점이다. 만사는 절구・율시・배율・고시 등 예외 없이 모두 시이다. 그래서 일반 시와 구분하지 않고 대체로 창작 연대순으로 정리하는데, 《입재집》에서는 만사만 따로 모아서 권 7 에 별도로 정리하였다. 이것은 시가 일곱 권에 달할 정도로 많아서, 혼란을 피하는 동시에 만사의 독자적인 가치를 부각시키고자 한 편차로 판단된다. 그리고 별집의 경우 시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만사를 같은 방식으로 구분하여 시 뒤에 별도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원집의 편차 방식을 별집에 그대로 적용한 결과일 것이다.

둘째는 비명(碑銘)・갈명(碣銘)・묘표(墓表) 등을 모두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지상에 세우는 묘비(墓碑)와 지하에 묻는 묘지(墓誌), 정 2 품 이상 고관에게 적용하는 신도비(神道碑) 등은 독자적인 특징이 뚜렷하여 대부분의 경우 구분한다. 그러나 종 2 품 이하에 적용하는 묘비(墓碑)・묘갈(墓碣)・묘표(墓表)는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묘비는 본래 4 품 이상 관리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귀부이수(龜趺螭首)를 갖춘 형태에 명문(銘文)이 있는 비이고, 묘갈은 5 품 이하 관리를 대상으로 작성하여 방부원수(方趺圓首) 형태에 명문(銘文)이 없는 비이며, 묘표는 벼슬과 무관하게 작성하여 방형(方形)으로 명문(銘文) 없이 간단하게 세우는 비이다. 그런데 실제 적용 과정에서 비석의 형태나 명문(銘文)의 유무가 이런 명목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며, 이 때문에 구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재집》은 이들 사이에 소제목을 붙여 아주 분명하게 구별하였다.

셋째는 부록(附錄)에 해당하는 별집(別集) 권 7~11 의 편차가 다소 흐트러진 점이다. 부록은 보통 세계도(世系圖)를 먼저 앞세운다. 그리고 생평(生平)의 기록인 연보(年報)와 행장(行狀), 사후를 기리는 묘도문자와 만사(輓詞)・제문(祭文) 등을 배치하고, 견문이나 추숭과 관련된 언행록(言行錄)・봉안문(奉安文) 등은 마지막에 배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유성룡의 《서애집》이나 정경세의 《우복집》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묘도문자-행장-만사-제문-언행록-세계도-연보-봉안문-연설(筵說) 등으로 수록하여 이런 질서를 발견할 수 없다. 《연보》 2 권 1 책을 뒤에 추가하면서 별권 권 10~11 로 명명한 결과일 터인데, 어떻든 이렇게 함으로써 편차가 다소 혼란스러워졌다.

2) 주요 내용과 특징

① 권 1~7 은 시이다. 이 가운데 권 1~6 은 일반 시를 시체 구분 없이 대체로 저작 연대에 준하여 수록하였고, 권 7 은 만사(輓詞)만 따로 수록하였다. 일반 시가 481 제 1,039 수,주-D050 만사(輓詞)가 45 제 102 수로, 전체가 526 제 1141 수인데, 여기에 별집 권 1 에 수록된 각종 시 69 제 98 수를 감안할 경우

《입재집》에 수록된 시는 8 권 595 제 1239 수에 달한다. 비슷한 시대 영남 지역 학자는 물론, 서울・경기를 비롯한 여타 지역 학자에게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대단히 방대한 분량이다. 이를 보면 입재가 학자이면서 동시에 훌륭한 문인 혹은 문장가로 높이 평가되었던 것이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작품의 양이 많았던 만큼 활용한 시체도 매우 다양하다. 〈경차운곡이십육영(敬次雲谷二十六詠)〉(권 6) 같은 연작시, 길이가 190 구 혹은 200 구에 달하는 〈계정지전유노회……(溪亭之前有老檜……)〉(권 4), 〈용유동석형지궤기……(龍遊洞石形之詭奇……)〉(권 2) 같은 장편시(長篇詩), 〈중사암연구(中獅庵聯句)〉(권 3) 같은 짧은 연구시(聯句詩), 〈세을묘삼월……(歲乙卯三月……)〉(권 4) 같은 장편 연구시(聯句詩), 〈효유선체(效遊仙體)〉(권 2) 같은 유선시(遊仙詩), 〈육언공부(六言共賦)〉(권 5) 같은 8 수 연작 형태의 육언시(六言詩) 등이 그런 것이며, 이런 작품을 통해 입재의 한시 창작 역량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특히 연작시(連作詩)가 유난히 많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사창팔경(社倉八景)〉(권 4), 〈소리정팔경(素履亭八景)〉(권 6) 같은 팔경시 계열을 비롯하여, 〈경차무이도가(敬次武夷櫂歌)〉(권 6) 같은 구곡시(九曲詩) 계열, 〈경차운곡이십육영(敬次雲谷二十六詠)〉, 〈경차도산잡영(敬次陶山雜詠)〉 같은 잡영시(雜詠詩) 계열, 기타 〈전가잡요(田家雜謠)〉(권 1), 〈옥동제영(玉洞題詠)〉(권 4), 〈경차선조우산이십경운(敬次先祖愚山二十景韻)〉(권 3) 등 많은 작품이 있으며, 〈남종백애오백운절구……(南宗伯愛吾白雲絶句……)〉(권 2)는 34 수에 달하는 연작시이다. 《입재집》에는 이런 연작시가 156 제 757 수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주-D051

창작 방식은 기존 작품의 운자(韻字)를 그대로 따라 활용하는 차운(次韻) 형태가 많다. 차운의 대상은 두보(杜甫)・소옹(邵雍)・주희(朱熹) 같은 중국 문인이나 학자, 이황(李滉)・유성룡(柳成龍)・이상정(李象靖)・김종경(金宗敬)・유장원(柳長源) 같은 스승이나 선배 학자, 정경세(鄭經世)・계부(季父 정지모(鄭智模))・정명로(鄭明魯)・묘군(卯君 동생 정재로(鄭宰魯)) 같은 집안 어른과 형제・친척, 남한조(南漢朝)・남한호(南漢皞)・유식(柳栻)・강준흠(姜浚欽) 등 친구나 제자 등 대단히 다양하다. 그 가운데서도 절친한 벗이었던 남한조와 어울려 여행・강학 등을 하면서 함께 지은 작품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기타 6 대조인 정경세를 비롯하여 주희와 이황 등 퇴계학파의 학맥상에 있는 선현들의 작품에 차운한 시가 많다.

권 7 은 만시(輓詩) 45 제를 별도로 편찬한 것인데, 이 또한 앞에 수록된 일반 시와 마찬가지로 창작 연대순으로 편차한 듯하다. 제일 앞에 수록한 이상정(李象靖 1781)부터 김종경(金宗敬 1785), 이광정(李光靖 1789), 안정복(安鼎福 1791), 조석목(趙錫穆 1793), 남한조(南漢朝 1809), 이우(李堣 1811), 정시(鄭蓍 1811), 윤광안(尹光顔 1815) 등의 순으로 사망 연도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형식은 절대 다수가 연작시거나 장편시이다. 연작시로는 이승연(李承延)에 대한 시가 11 수 연작으로 대표적이고, 권사호(權思浩)에 대한 시가 9 수, 남한조(南漢朝)에 대한 시가 8 수, 이상정(李象靖)・조석목(趙錫穆)・이중장(李仲章) 등에 대한 시가 모두 5 수의 연작시이다. 장편시는 김종덕(金宗德)에 대한 〈만김지헌직보(輓金持憲直甫)〉가 전체 174 구로 가장 길고, 이광정(李光靖)에 대한 시가 60 구, 진은군(晉恩君)에 대한 시가 66 구, 황건중(黃建中)에 대한 시가 48 구로 비교적 긴 편이다.

② 권 8 은 소(疏) 6 편을 수록하였다. 소(疏) 가운데 앞의 3 편은 59 세(1796) 7 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임명된 뒤 이를 사직하면서 올린 소인데, 제 1 편은 그해 8 월, 제 2 편은 9 월, 제 3 편은 12 월에 올렸다. 국왕이 윤허(允許)를 하지 않아 3 차례 연이어 올린 것이다. 특히 제 1 편은 병상에 있으면서 썼는데, 그러면서도 소홀한 부분이 한 글자도 없었다. 그래서 조정 신하들이 '서세문장(瑞世文章)'이라고 전송(傳誦)한 일화가 유명하다.주-D052 네 번째 〈의부사지평소(擬復辭持平疏)〉는 61 세(1798) 되던 해 12 월 다시 사헌부지평에 임명되자 이를 사직하고자 쓴 것인데, 이듬해 1 월 모부인 박씨(朴氏) 상을 당하여 끝내 올리지 못하였다. 그래서 제목에 '의(擬)' 자를 붙였으니, 올리려고만 했다는 의미이다.

다섯 번째 〈의상소(擬上疏)〉는 77 세(1814) 만년에 작성한 것으로, 제갈공명이 유비(劉備)의 아들 유선(劉禪)에게 선왕(先王)의 덕을 잘 이어 가도록 부탁하면서 〈출사표(出師表)〉를 지었던 옛일을 환기시키면서

당시 국왕 순조(純祖)에게 선대왕 정조(正祖)의 덕을 잘 계승하도록 간절하게 당부하고자 한 글이다. 그런데 이 또한 제목에 '의(擬)' 자가 붙은 것으로 보아 올리려고 하다가 결국 올리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 여섯 번째 〈청대산이선생입사철향소(請大山李先生立祠餟享疏)〉는 이상정(李象靖)의 사당을 세워 제향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이것은 이상정의 문인과 유림을 대표해서 지은 것이어서 여타 상소문과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제일 젊은 나이인 51 세(1788) 때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끝에 편차하였으며, 6 편의 상소문 가운데 길이도 가장 길다.

③ 권 9~23 은 편지[書]이다. 편지는 교통과 통신이 원만하지 못한 전근대 시대에 학자들이 학문적 의견을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래서 명망이 높은 학자일수록 편지를 통해 경전의 해석, 철학적 개념과 원리, 수양의 방법, 예법의 적용 등에 대하여 지상토론(紙上討論)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재도 예외가 아니어서, 스승・친구・제자들과 무수하게 편지를 주고받으며 자신의 학문적 견해를 피력하였는데, 그 결과 문집 48 권 가운데 편지가 15 권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15 권 전체에 수록된 편지는 총 134 명과 주고받은 284 통이다.주-D053 모든 편지는 먼저 인물별로 분류하였고, 이를 다시 스승에 해당하는 인물, 친분이 있는 조정 관료, 학문적인 선배, 평교간의 친구, 제자 등의 순서로 정리하였으며, 친인척과 주고받은 편지는 제일 뒤로 돌렸다. 이 가운데 스승・관료・선배에 해당하는 인물의 편지를 제일 먼저 권 9 에 모아 놓았는데, 수록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 이상정(李象靖, 1711~1789) 1 통, 최흥원(崔興遠, 1705~1786) 6 통, 이광정(李光靖, 1714~1789) 1 통, 안정복(安鼎福, 1712~1791) 2 통. 이상 스승
- 승지(承旨) 김한동(金翰東, 1740~1811) 2 통, 방백(方伯) 이형원(李亨元, 1739~1798) 3 통, 방백(方伯) 윤복초(尹復初, ?~?) 2 통, 참판(參判) 이익운(李益運, 1748~1817) 1 통, 참판(參判) 오대익(吳大益 오광운(吳光運)의 손자) 1 통, 참의(參議) 채홍원(蔡弘遠, 1762~?) 1 통. 이상 관료
- 이승연(李承延, 1720~1806) 1 통, 강세진(姜世晉, 1717~?) 1 통, 조석철(趙錫喆, 1724~1799) 2 통, 황계희(黃啓熙, 1727~1785) 2 통, 김종덕(金宗德, 1724~1797) 외 4 통, 조술도(趙述道, 1729~1803) 2 통, 이만운(李萬運, 1736~1820) 1 통, 신필권(申必權, ?~?) 1 통. 이상 선배

이들 가운데 편지를 가장 많이 주고받은 사람은 최흥원(崔興遠. 6 통)인데, 별집 권 2 에도 그에게 보낸 편지 2 통이 더 있어서 특별히 긴밀한 관계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입재는 40 세(1764) 때 최흥원을 처음 찾아뵙고 당대 최고의 인물[當世一人]이라고 칭송한 바 있으며,주-D054 이후 손자 최식(崔湜)을 맏사위로, 최식의 아들 최효술(崔孝述)을 제자로 맞이하여 특별한 관계를 이어 가기도 하였다. 편지 내용이 가장 긴 사람은 안정복(安鼎福)과 김종덕(金宗德)이다. 안정복에게 보낸 편지는 2 통이 모두 서학(西學)의 배격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고, 김종덕에게 보낸 편지는 공부와 수양에서 지(知)・행(行)・궁리(窮理)・주경(主敬) 등의 선후 관계에 대한 문제가 논의의 중심이었다.

그다음 권 10~12 에는 나이가 서로 비슷하여 평교(平交)간이라고 할 만한 인물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수록해 놓았다.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손재 남한조를 비롯하여, 이상정의 아들인 이완(李埦), 이광정의 아들인 이우(李堣), 유도원(柳道源)의 아들인 유범휴(柳範休, 1744~1823), 이경유(李敬儒, 1750~1821), 최흥원(崔興遠)의 족제 최흥벽(崔興璧, 1739~1812), 이상정의 제자 이하운(李廈運, 1734~?), 우원(尤園) 이정국(李楨國, 1743~1807), 파강(巴江) 이경록(李經祿, 1736~1804) 등 여기에 수록해 놓은 인물의 면면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남한조에게 보낸 편지를 제일 앞에 가장 큰 비중으로 수록한 점이 주목된다. 남한조는 재종제 남한호(南漢皞)를 입재의 첫 제자로 추천한 인물이다. 그리고 입재 또한 그의 아들을 제자로, 그의 딸을 셋째 며느리로 맞았으며, 이후 수많은 여행과 강학을 같이하면서 특별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래서인지 남한조보다 연장자가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가장 앞세웠으며, 권 10 의 대부분을 할애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히 많은 21 통(별지(別紙) 제외)의 편지를 수록하였다.주-D055 그리고 나머지 인물은 권 11~12 에 나누어 수록하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세부 순서를 정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권 13 부터 권 22 까지는 대부분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이다. 권 13 에 칠실(漆室) 최화진(崔華鎭, 1752~1813)과 황계희의 아들 황신로(黃莘老, 1755~1792)・황암로(黃巖老, 1759~1812)・황반로(黃蟠老, 1766~1840) 등 3 형제, 권 14 에 긍암(兢菴) 강세규(姜世揆, 1762~1833), 권 15 에 강고(江皐) 유심춘(柳尋春, 1762~1834)과 노암(魯庵) 정필규(鄭必奎, 1760~1831), 권 16 에 성재(誠齋) 남한호(南漢皞, 1760~1821), 권 17 에 근와(近窩) 유식(柳栻, 1755~1822), 권 18 에 수계(修溪) 이승배(李升培, 1768~1834), 권 19 에 경옥재(景玉齋) 이연(李埏, 1758~?), 권 20 에 정원선(鄭元善), 권 21 에 유휘문(柳徽文, 1773~1817), 권 22 에 최상룡(崔象龍, 1786~1849) 등에게 보낸 편지를 수록한 데서 이를 알 수 있다.

제자들 중에 편지가 가장 많은 사람은 성재(誠齋) 남한호(南漢皞, 1760~1821)로, 권 16 에 26 통에 달하는 편지를 수록하였다. 남한호는 남한조의 재종 동생이면서 입재의 첫 제자이기도 하다. 그래서 입재가 특별히 정성을 쏟았는데, 한탁(漢濯)이었던 이름을 한호(漢皞)로 고쳐 주기도 하고, 자설(字說)을 따로 지어 주기도 하였다. 그에게 보낸 편지가 이렇듯 많은 데는 바로 이런 남다른 관계가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 다음으로 편지가 많은 사람은 13 통이 수록된 유식(柳栻, 1755~1822)이고, 그다음은 10 통이 수록된 황신로(黃莘老, 1755~1792) 3 형제이며, 그다음은 이승배(李升培) 7 통, 정희인(鄭元善) 7 통, 강세규(姜世揆) 5 통, 이연(李埏) 5 통, 유의삼(柳宜三) 5 통 등으로 모두 5 통 이상의 편지가 수록되어 있다.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는 《대학(大學)》・《중용(中庸)》・《서전(書傳)》 등의 경서, 《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주서절요(朱書節要)》 같은 성리학 관련 주요 저술, 태극설(太極說)・심리기(心理氣) 등 성리학의 핵심적인 개념과 이론, 상례(喪禮)・제례(祭禮) 등 각종 예법의 근거와 적용 문제 등에 대하여 묻고 답한 것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답하는 편지의 형식은 〈답정제훈(答鄭際勳)〉(권 14)처럼 본문과 별지를 나란히 함께 구비한 경우, 〈답강공서상례문목(答姜公敍喪禮問目)〉(권 14)처럼 본문만으로 바로 답한 경우, 〈답남자호별지(答南子皞別紙)〉(권 16)처럼 별지만으로 답한 경우 등 다양하다.

④ 권 24~25 는 잡저(雜著)이다. 잡저(雜著)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특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잡다한 글이란 뜻이다. 그러나 명목만 이렇게 허술할 뿐, 정작 저자의 중요한 학문적 성찰 결과를 가장 집약적으로 모아 놓은 것이 대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실제 다른 어떤 글보다 중요하게 간주하였으며, 이 때문에 일반 문장보다 앞부분에 배치하는 것이 보통인데, 《입재집》의 경우도 이런 편차를 그대로 준용하였다.

잡저 부분에 수록된 글은 권 24 에 14 편, 권 25 에 12 편, 전체 26 편이다. 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태극(太極)・음양(陰陽)・동정(動靜)・이기(理氣)・심성(心性)・오행(五行)・오상(五常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등 성리학과 관련한 주요 견해를 피력한 것이다. 〈태극도설(太極圖說)〉에서 태극의 형상이 외면은 둥글고 중간은 텅 빈 공간으로 그려진 까닭을 학문적으로 풀이한 〈태극권자설(太極圈子說)〉, 태극(太極)의 동정(動靜)과 이(理)와 기(氣)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피력한 〈태극동정설(太極動靜說)〉, 이(理)가 기(氣)보다 약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강한 존재라고 주장한 〈이강기약설(理强氣弱說)〉, 마음[心]의 출입을 육체의 차원이 아닌 이치의 차원에서 풀이하고자 한 〈심출입설(心出入說)〉, 기타 〈솔성설(率性說)〉과 그 속편인 〈일원설(一原說)〉, 〈이기심성설(理氣心性說)〉, 〈오상설(五常說)〉, 〈오행설(五行說)〉 상・하편 등이 다 그런 종류의 글이다.

이 외에도 입재의 학문을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글이 많다. 기후・달빛・바람 등 자연현상에 대하여 해명을 시도한 〈율관후기설(律管候氣說)〉, 〈월광설(月光說)〉, 〈풍기설(風氣說)〉이나 귀신・사령(四靈 기린[麟]・봉황[鳳]・거북[龜]・용(龍)) 등 오감으로 감지할 수 없는 신령한 존재에 대하여 설명을 시도한 〈귀신론(鬼神論)〉과 〈사령설(四靈說)〉 등이 그런 것이며, 안정복(安鼎福)의 《천학고(天學考)》를 읽고 자신의 천주교 배격 논리를 피력한 〈서천학고후(書天學考後)〉와 〈우서천학고후(又書天學考後)〉, 서당에서 강학하는 방법과 내용을 다듬어서 널리 알린 〈위강학사통고서당문(爲講學事通告書堂文)〉 등도 참고할 가치가 있다.

⑤ 권 26~30 은 서(序)・기(記)・발(跋)・잠명(箴銘)・상량문(上樑文) 등 일반 문장이다. 서(序)는 권 26~28 에 50 편을 수록하였는데, 이황과 그 제자들의 필적(筆蹟)을 모아 편집한 《계문필적첩서(溪門筆蹟帖序)》, 유성룡이 수운정(水雲亭)에 남긴 편액(扁額)을 두고 지은 《수운정서애유선생유액서(水雲亭西厓柳先生遺額序)》 등 2 편을 제일 앞세웠고, 이후부터는 특별한 순서 없이 편차하였다. 내용은 정붕(鄭鵬)의 《신당선생실기(新堂先生實記)》, 김희삼(金希參)의 《칠봉유집(七峯遺集)》, 권상일(權相一)의 《청대집(淸臺集)》, 박손경(朴孫慶)의 《남야집(南野集)》, 권문해(權文海)의 《초간집(草澗集)》 등 문집류 서문이 40 여 편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휘찬여사(彙撰麗史)》・《도동편(道東編)》・《독관편(獨觀篇)》・《인동장씨족보(仁同張氏族譜)》 등 몇 가지 저술이나 족보의 서문이다.

기(記)는 권 29 에 20 편을 수록하였는데, 앞부분 8 편은 〈도남서원일관당중수기(道南書院一貫堂重修記)〉・〈덕림서원중수기(德林書院重修記)〉 등 서원・서당・누각・정사(精舍) 등 건물의 중수(重修) 혹은 중건(重建) 관련 기문이고, 나머지는 〈심기당기(審幾堂記)〉・〈강고초려기(江皐草廬記)〉・〈산천재기(山泉齋記)〉・〈성헌기(誠軒記)〉 등 선배・친구・제자들의 생활 터전과 관련한 당(堂)・재(齋)・헌(軒) 등의 건물 기문이다. 이 중 특히 〈옥동서원당재급수석명명기(玉洞書院堂齋及水石命名記)〉는 입재가 옥동서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서원의 당(堂)・재(齋)와 마을 수석(水石)에 이름을 붙인 것으로, 주목할 만하다.

발(跋)은 권 30 에 14 편을 수록하였는데, 이상정이 편집한 〈퇴도서절요(退陶書節要)〉에 대한 발문을 제일 앞에 수록하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반간집발(槃澗集跋)〉・〈백담집발(白潭集跋)〉 등 문집 발문이며, 〈오산지발(吳山誌跋)〉 같은 저작의 발문이 3 편 있다. 잠명(箴銘)은 권 30 에 5 편을 수록하였다. 앞에 제시한 〈자경잠(自警箴)〉・〈거습잠(去習箴)〉・〈자신잠(自新箴)〉 등은 자신의 공부를 일깨우기 위해 지은 것이고, 〈긍암명(兢庵銘)〉은 제자 긍암(兢庵) 강세규(姜世揆)에게 지어 준 것으로 전체를 시경체의 8 수 연작 형태로 지은 점이 특징적이며, 마지막 〈제월찬(霽月贊)〉은 비 갠 뒤의 밝은 달을 심성(心性) 수양에 연계시켜 지은 것이다. 상량문(上梁文)은 권 30 에 5 편을 수록하였는데, 제일 앞에 제시한 것은 〈옥동서원문루상량문(玉洞書院門樓上樑文)〉이고, 그다음은 〈낙암묘우상량문(洛巖廟宇上樑文)〉이며, 나머지 3 편은 모두 재실(齋室)・서당(書堂)・재사(齋舍)의 중건 상량문이다.

⑥ 권 31~32 는 축문(祝文)・제문(祭文)・애사(哀辭)이다. 축문(祝文)은 실제 내용이 축문이 아니라 모두 고유문(告由文)으로, 특정 고유문에 딸린 상향축(常享祝) 2 편을 함께 제시하였을 뿐이다. 고유문은 모두 9 편으로, 앞부분 3 편은 사림에서 동계(桐溪) 정온(鄭蘊, 1569~1641)의 묘소에 제향을 올릴 때 지은 고유문, 도동서원(道東書院) 방사(傍祠)에 상향축문(常享祝文)을 마련한 사실을 알리는 고유문, 유림을 대신하여 도존당(道尊堂)의 터 닦기[開基] 공사를 알리는 고유문 등이다. 나머지 6 편은 모두 집안 가묘(家廟)에 고한 것인데, 광릉 참봉(光陵參奉)・의금부 도사・사헌부 지평 등 자신의 관직 임용 사실을 고한 것이 5 편이며, 1 편은 사우(祠宇)를 신축하고 신주를 봉안할 때 고유한 것이다.

제문은 권 31 에 11 편, 권 32 에 17 편, 전체 28 편이다. 권 31 에는 자신을 사헌부 지평에 추천한 채제공(蔡濟恭)을 비롯하여 최흥원(崔興遠)・이승연(李承延)・조석철(趙錫喆)・황계희(黃啓熙)・조술도(趙述道) 등 선배 학자 6 명에 대한 제문을 먼저 수록하고, 그다음에 이상정의 아들 이완(李埦)과 자신의 절친 남한조(南漢朝) 등 친구 3 명, 자신의 장인[外舅] 이민현(李民顯)에 대한 제문 등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권 32 에

는 손부의 친정 조부 권사호(權思浩), 맏아들 정상진(鄭象晉)의 장인 이동호(李東浩), 황계희(黃啓熙)의 아들이면서 자신의 제자이기도 한 황암로(黃巖老), 손부의 친정 부친 권의도(權義度 권사호(權思浩) 아들), 자신의 맏사위 최식(崔湜) 등 인척 관계 인물의 제문 6 편을 먼저 수록하고, 그 뒤에 계부(季父) 정지모(鄭智模) 이하 종숙부・고모・종형・종제・망매(亡妹)・동생・망처(亡妻) 등 친족의 제문 10 편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에는 유모(乳母)에 대한 제문 1 편이 더 있다.

권 32 뒷부분에는 애사(哀辭) 6 편을 수록하였다. 애사는 어린 나이에 요절한 사람, 혹은 재능이 있음에도 세상에 쓰이지 못하고 불운하게 죽은 사람을 애도한 글이다. 그래서 일반적 제문과 달리 제목을 대부분 '제(祭)~문(文)'이라 하지 않고 '애(哀)~사(詞)' 혹은 '도(悼)~사(詞)'라고 하며, 앞부분에 고인의 불우한 삶을 간략하게 기술한 서문(序文)을 먼저 제시한 다음 그 뒤에 운문(韻文)이나 초사(楚辭) 형식으로 사(詞)를 붙이는 것이 보통이다. 여기에 수록한 애사(哀詞)는 이충언(李忠彦)・김성호(金性浩)・권종묵(權宗默)・신치룡(申致龍)・송경일(宋敬一)・김정구(金鼎九) 등 6 명을 애도한 것인데, 이충언(李忠彦)은 29 세에, 김정구(金鼎九)는 20 세에 세상을 떠난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재능이 있으면서 불운하게 살았던 인물이다. 그리고 김성호를 애도한 〈애김상사성호사(哀金上舍性浩詞)〉를 제외한 나머지 5 편은 모두 서문과 사(詞)를 구비하여 애사의 일반적 형식을 준용하였다.

⑦ 권 33~42 는 비명(碑銘)・갈명(碣銘)・묘표(墓表)・묘지(墓誌) 등 묘도문자이다. 묘도문자는 전체가 10 권으로, 편지[書](15 권)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묘갈(墓碣)이 102 편으로 가장 많고, 묘지(墓誌)가 22 편으로 그다음이며, 신도비(神道碑)와 묘비(墓碑)가 각 5 편, 유허비(遺墟碑)가 2 편, 사적비(事蹟碑)와 묘표(墓表)가 각 1 편이다.

권 33 비명(碑銘) 조항에는 먼저 사적비・신도비・유허비・묘비 등을 모두 합쳐 놓았다. 사적비는 도산서원(道山書院)에 봉안한 권득기(權得己)와 권시(權諰) 부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신도비는 황효헌(黃孝獻)・노대하(盧大河)・이광준(李光俊)・오시수(吳始壽)・이산두(李山斗) 등 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유허비는 김득배(金得培)와 정연(鄭珚), 묘비는 최연(崔演)・박이현(朴而絢)・박영서(朴永緖)・이정규(李鼎揆)・채형(蔡泂) 등 5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인물은 고려 말부터 입재 당대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고, 편차에는 특별한 순서가 없으며, 형식상 모두 병서(幷序)와 명(銘)을 정연하게 갖추었다.

권 34 부터 권 40 까지 8 권은 모두 묘갈명(墓碣銘)이다. 시기는 여말선초의 전원발(全元發 권 34)・박성양(朴成陽 권 34)・손조서(孫肇瑞 권 34)부터 입재 당대의 이규운(李奎運, 1738~1806 권 36)・이동호(李東浩, 1735~1787 권 39)에 이르기까지 두루 분포하고, 벼슬은 종 2 품 가선대부(嘉善大夫)를 지낸 최강(崔堈 권 36)과 신후명(申厚命 권 37)부터 아무 직급이 없는 처사(處士) 유지원(柳之遠 권 35)과 이동호(李東浩 권 39), 효자(孝子) 김서귀(金瑞龜 권 35)와 이장원(李長源 권 39)에 이르기까지 제각각이다. 다만 정 2 품 이상 인물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보이지 않는데, 이를 통해 대략 정 2 품 이상은 신도비로, 종 2 품 이하는 묘갈로 구분하여 지었던 당시 사정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묘갈명의 대상이 된 인물은 권렴(權濂, 권 35)처럼 아무 관계가 없으면서 부탁을 받고 지어 준 예가 없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 입재 자신 혹은 자신의 친족・친구・제자 등과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닿는 집안 인물이다. 최흥원(崔興遠, 권 39)과 이광정(李光靖, 권 40)은 입재가 스승으로 존숭하였던 인물이고, 김종덕(金宗德, 권 40)은 이상정 문하의 동문 선배이다. 이규운(李奎運)은 친구이고, 이세형(李世珩)은 친구 이만운(李萬運)의 족조(族祖)이며, 권응탁(權應鐸, 권 36)은 제자 권현상(權顯相)의 조부이다. 강세진(姜世晉, 권 39)은 종제 정익로(鄭翼魯)의 장인이고, 황종수(黃鍾粹, 권 36)는 증조부 정주원(鄭胄源)의 사위이며, 유진(柳袗, 권 37)은 정경세(鄭經世)의 문인이면서 동시에 고조부 정도응(鄭道應)의 장인이기도 하다. 전원발(全元發, 권 34)은 정경세의 문인 전이성(全以性)의 선조이고, 홍진(洪璡, 권 36)은 그 선조 홍가신(洪可臣)이 정경세와 교분이 있었는데, 이런 사정은 다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래서 이런 여러 집안의 후손들

이 글을 부탁하고, 입재 또한 가능한 한 이를 거절하지 않고 적극 부응함으로써 이처럼 다양한 묘갈명을 남겼던 것이다.주-D056

형식은 대체로 병서(幷序)와 명(銘)을 함께 구비하였다. 그러나 이런 틀을 벗어난 경우도 없지 않다. 예컨대, 〈무민재김공묘갈명(无閔齋金公墓碣銘)〉(권 34)은 병서(幷序)가 없고, 〈자족당남공묘갈문(自足堂南公墓碣文)〉(권 37)과 〈남고처사고령박공묘갈문(南皐處士高靈朴公墓碣文)〉(권 40)은 반대로 명(銘)이 없다. 그래서 제목까지 서문과 명이 함께 있을 경우 '~묘갈명병서(~墓碣銘幷序)', 명만 있고 서문이 없을 경우 '~묘갈명(~墓碣銘)', 서문만 있고 명이 없을 경우는 '~묘갈문(~碣銘文)'이라고 구분하였다. 그리고 명(銘)을 간결한 운문이 아니라 서문과 큰 차이가 없는 예사 산문으로 제시한 예가 대단히 많은데,주-D057 이와 같은 변용이 언제 어떻게 유래하였는지는 따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권 41~42 는 묘표(墓表)와 묘지(墓誌)인데, 묘표는 1 편뿐이고, 나머지 22 편은 모두 묘지이다. 묘표는 나은(懶隱) 이동표(李東標, 1644~1700)에 대한 것이다. 그는 퇴계의 숙부 송재(松齋) 이우(李堣, 1569~1517)의 5 대 종손으로, 문과에 급제하여 호조 참판을 지냈고, 사후에 이조 판서에 추증된 인물이다. 그리고 학문이 넉넉하고 인품이 좋아서 작은 퇴계[小退溪]로 칭송되었으며, 입재 집안과도 오랜 세의가 있었다. 정경세가 이우(李堣)의 증손서일 뿐만 아니라 이동표 또한 정경세의 신도(神道)에 글씨를 쓴 주인공이기도 하였다.주-D058 그런데 명(銘)도 없는 묘표 형식으로 작성한 점이 흥미롭다.

묘지 22 편 또한 입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것이 대부분이다. 배상열(裴相說, 권 42)은 이상정 문하의 동문 후배이고, 정명로(鄭明魯, 권 42)는 중부(仲父) 정의모(鄭義模)의 아들이며, 이경록(李經祿, 권 42)은 최흥원(崔興遠)의 사위로, 입재의 사돈 최주진(崔周鎭 사위 최식(崔湜)의 부친)과 처남남매 간이다. 홍위(洪瑋, 권 41)는 우복과 서애 문하 동문이고, 전인성(全以性)은 바로 우복의 문인이며, 황덕유(黃德柔)는 부친 황뉴(黃紐)가 우복 문인이고, 조석철(趙錫喆, 권 42)은 우복의 동문인 조정(趙靖)의 6 세손으로, 동향 선배이기도 하였다. 기타 강필악(姜必岳, 권 41)은 강박(姜樸)의 아들로 선대 거주지인 상주 공성리(功成里) 사람이고, 유정원(柳正源)은 제자 유휘문(柳徽文)의 조부이며, 나머지도 이런 직간접적인 관계가 있다. 형식은 예외 없이 모두 병서(幷序)와 명(銘)을 구비하였는데, 제일 끝에 수록한 종제 정명로(鄭明魯)의 경우는 표제를 광지(壙誌)로 구분하고 명(銘)도 붙이지 않았다.

⑧ 권 43~48 은 행장(行狀)과 가장(家狀)으로, 편지(15 권)와 묘도문자(10 권) 다음으로 많은 6 권 분량이다. 권 43~47 에는 행장 48 편을 수록하였고, 자기 집안 어른들의 행장인 가장(家狀)은 권 48 에 별도로 독립시켜 수록하였다.

행장의 대상으로 삼은 인물 또한 매우 다양하다. 함창 임호서원(臨湖書院) 원유(院儒)들의 요청에 따라 서원에 봉향한 인물인 표연말(表沿沫)·홍귀달(洪貴達)·권달수(權達手)·채수(蔡壽) 등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자신에게 가학(家學)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황계희(黃啓熙, 권 47) 같은 선배, 자신을 사포서별제(司圃署別提)에 천거한 김한동(金翰東, 권 44) 같은 조정 관리, 이상정(李象靖)의 아들 이완(李埦, 권 46)이나 남한조(南漢朝) 같은 친구, 맏사위 최식(崔湜)의 부친 최주진(崔周鎭, 권 47) 같은 인척, 기타 효자 김두남(金斗南, 권 46)이나 절부(節婦) 손씨(孫氏, 권 47)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채롭다.

길이는 대개 7~10 면 내외이다. 그러나 현저히 길거나 짧은 것도 몇 편 있다. 가장 긴 것은 정탁(鄭琢)의 7 세손 정옥(鄭玉, 권 45)의 행장인데, 전체가 34 면에 달한다. 그리고 자신을 조정에 천거한 김한동(金翰東, 권 44)의 행장이 31 면으로 그다음이며, 도승지(都承旨) 이헌묵(李憲默, 권 46. 23 면), 외가 선조였던 홍귀달(洪貴達, 권 43. 16 면), 승정원 승지를 역임한 상주 출신의 선배 고유(高裕, 권 44. 16 면), 이상정의 아들 이완(李埦, 권 46. 14 면) 등의 행장이 비교적 길다. 반면 정시순(鄭時淳, 권 44)은 전체가 3 면, 김천택(金天澤, 권 43)은 3.5 면가량으로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짧고 간결하다.

하나 더 주목되는 점은 표제를 행장(行狀)이라 하지 않고 행록(行錄)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삼류공행록(三柳公行錄)〉(권 43), 〈하동정공행록(河東鄭公行錄)〉(권 44), 〈의은이군행록(依隱李君行錄)〉(권 46), 기타 효자 신호(申浩, 권 47), 이국배(李國培, 권 47), 절부(節婦) 손씨(孫氏, 권 47) 등을 대상으로 한 것이 그런 예인데, 이런 행록은 내용이 행장과 유사하면서도 길이가 훨씬 짧고 간결하다. 〈삼류공행록(三柳公行錄)〉은 3 명을 한 편의 대상으로 삼았으면서도 길이가 6 면에 불과하고, 〈하동정공행록(河東鄭公行錄)〉은 전체가 3 면이며, 신호(申浩)와 이국배(李國培)의 행록도 모두 5 면 남짓이다. 그리고 이런 행록을 모두 각 권 제일 뒤에 미루어 편차하여 행장과 일정하게 구별하고자 하였다.

권 48 에 수록한 가장(家狀)은 고조부 정도응(鄭道應), 조부 정주원(鄭冑源), 부친 정인모(鄭仁模), 중부 정의모(鄭義模), 숙부 정예모(鄭禮謨), 계부 정지모(鄭智模) 등 집안 어른 6 명의 행장으로, 연보(年譜) 68 세 조항에 "선대 행장을 지었다.[撰先世狀行]"는 기록을 보면 68 세 때 일괄해서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주-D059

⑨ 별집 권 1~6 은 원집에 누락된 글을 보완한 것이다. 먼저 권 1 은 시 69 제 98 수로, 앞부분은 일반 시 54 제 69 수이고, 뒷부분은 만사(輓詞) 15 제 29 수이다. 별집에 수록한 시도 원집과 마찬가지로 차운시(次韻詩)와 증답시(贈答詩)가 많다. 그러나 팔경시(八景詩)·구곡시(九曲詩)·잡영시(雜詠詩)·연구시(聯句詩) 등은 없으며, 연작의 경우도 장편은 없고 두세 수 간단하게 연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반면 장편시는 유의할 작품이 많다. 일반 시 가운데는 〈차증황차야(次贈黃次野)〉가 오언배율 132 구로 대표적이고, 만사 중에는 〈만경현재강공(輓警弦齋姜公)〉이 162 구에 달하는 장편고시로 대표적이며, 이 외에도 〈옥동가(玉洞歌)〉 58 구, 〈차두시운……(次杜詩韻……)〉 60 구, 〈만조학손(輓趙學孫)〉 58 구 등이 있다. 그리고 만사 가운데 〈만이윤조(輓李胤祖)〉와 〈만노자능(輓盧子能)〉은 사언팔장(四言八章) 혹은 사언십사장(四言十四章)으로 시경 시체를 준용한 흥미로운 작품이다.

권 2 와 권 3 은 모두 편지[書]로, 46 명에게 보낸 편지 51 통을 수록하였다. 편차는 원집과 마찬가지로 스승에 해당하는 최흥원(崔興遠)을 제일 앞에 제시하고, 그다음에 정승 채제공(蔡濟恭) 과 판서 이익운(李益運) 등 조정 관료, 그다음에 강세진(姜世晉)·조술도(趙述道)·황계희(黃啓熙) 등 선배 학자 순으로 제시하였으며, 남한조(南漢朝) 이후부터는 친구와 제자에게 보낸 편지를 수록하였는데, 제자에게 답한 것이 절반 이상이다. 다만 원집을 보완한 것인 만큼 특정인에게 특별히 많이 보낸 예는 없으며, 개인별 한두 편이 대부분이다. 답하는 방식은 문목(問目)에 답한 것이 21 편, 별지 형식이 9 편, 도합 30 편으로 절대 다수이고, 그 내용 또한 《서전(書傳)》·《예기(禮記)》·《역학계몽(易學啓蒙)》·《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 등 경전과 성리학 및 예법에 대하여 묻고 답한 것이 중심이다.

권 4 앞부분은 잡저(雜著) 5 편이다. 이 가운데 첫째, 〈자책(自責)〉은 자신이 어설픈 시(詩)·문(文)·학(學)·도(道) 등으로 세상을 속이려고 한 것은 아닌지 자책한 것이다. 둘째, 〈허명변(虛名辯)〉은 훌륭한 사람이 비난받고 못된 사람이 헛된 명성을 얻기도 하는 세태를 비판한 것이다. 셋째, 〈무적공자서(無適公自敍)〉는 자신의 호 무적(無適)의 의미를 문답식으로 풀이한 장문인데, 만년의 인생관을 가장 깊이 있게 드러낸 글로 주목할 만하다. 넷째, 〈요산수설(樂山水說)〉은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仁者樂山]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知者樂水]는 말의 참의미를 재해석한 것이다. 다섯째, 〈기문(記聞)〉은 제가(濟家)·효자(孝子)·열녀(烈女) 등에 대하여 들은 간단한 이야기 3 가지를 기록하였다.

권 4 뒷부분부터 권 5 까지는 서(序) 14 편, 기(記) 12 편, 발(跋) 2 편, 상량문(上樑文) 1 편, 봉안문(奉安文) 5 편 등 일반 문장을 수록하였다. 서(序)는 문집 서문이 5 편으로 가장 많고, 사람을 보내며 쓴 송서(送序)와 족보 서문이 각 3 편이며, 나머지는 저술의 서문이다. 권 5 에 수록된 기(記)는 대부분 정(亭)·헌(軒)·당(堂)·암(菴)·재(齋)·료(寮)·와(窩) 등 건물 기문이고, 임호서원중수기(臨湖書院重修記) 1 편과 벼루를 두고 쓴 연기(硯記) 1 편이 있다. 상량문은 웅연서원(熊淵書院) 상량문 1 편이다. 봉안문(奉安文)은 특정

인물을 서원과 사당에 봉안한 내용이 4 편이고, 나머지 1 편은 봉안문이 아니라 묘갈의 개수(改修)를 알린 고유문(告由文)이며, 그때마다 활용한 상향축문(常享祝文) 3 편을 부록하였다.

권 6 에는 제문(祭文) 6 편, 애사(哀辭) 3 편, 묘비명(墓碑銘) 1 편, 묘갈명(墓碣銘) 2 편, 묘지명(墓誌銘) 1 편, 행장(行狀) 7 편을 모아 놓았다. 제문 6 편은 황담(黃湛)에 대한 것 1 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숙부・외조부・외종조부・외삼촌・장모[外姑] 등 친인척에 관한 것이다. 애사(哀辭) 3 편은 조성능(趙聖能), 남택정(南宅正)과 서이모(庶姨母)에 대한 것이고, 묘비명 1 편은 박가권(朴可權), 묘갈명 2 편은 이신규(李身圭)와 정용(鄭庸), 묘지명 1 편은 이형복(李馨復)에 대한 것인데, 모두 병서(幷序)와 사(詞) 혹은 명(銘)을 제대로 갖춘 형식이다. 행장은 김녕(金寧), 정철견(鄭鐵堅), 유성림(柳聖霖), 김경헌(金景憲), 박전(朴全), 강설(姜渫) 등에 대한 것으로, 편차에 특별한 순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⑩ 별집 권 7~11 은 부록 부분으로, 입재 사후에 문인과 후손들이 지은 글을 모아 놓은 것이다. 권 7 에는 문인 유심춘(柳尋春)이 지은 묘지명(墓誌銘), 정원선(鄭元善)이 지은 묘갈명(墓碣銘), 이승배(李升培)가 지은 행장(行狀) 등을 차례로 수록하였다. 권 8 에는 만사(輓詞) 29 편, 뇌문(誄文) 1 편, 제문(祭文) 19 편을 수록하였다.

만사에서 문인(門人)・문하생(門下生)・시교생(侍敎生)・급문생(及門生) 등 제자임을 명시한 인물이 송규필(宋奎弼), 조덕(趙穗), 송규석(宋奎奭), 윤동야(尹東野), 황신로(黃莘老), 채홍운(蔡弘韻), 강시영(姜時永), 이규진(李奎鎭), 홍재(洪栽), 황인로(黃麟老), 이승배(李升培), 남한시(南漢蓍), 윤영섭(尹永燮) 등 13 명이다. 그리고 이렇게 명시하지 않은 인물이 유상조(柳相祚), 이익운(李益運), 김유헌(金裕憲), 강세백(姜世白), 박광석(朴光錫), 김희주(金熙周), 이이순(李頤淳), 변시섬(邊始暹), 이태순(李泰淳), 강세은(姜世誾), 강세흥(姜世興), 이병탁(李秉鐸), 이동벽(李東璧), 정간(鄭榦), 이상조(李尙朝), 황예희(黃禮熙) 등 16 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긴 작품은 이규진(李奎鎭, 5 언 108 구)과 송규석(宋奎奭, 5 언 92 구)이 지은 만사이고, 황인로(黃麟老, 칠언율시 4 수)와 강세백(姜世白, 5 언 80 구), 강세은(姜世誾, 7 언 66 구), 이승배(李升培, 5 언 60 구) 등이 지은 만사도 비교적 길고 사연이 많아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제문의 경우, 문인으로 명시한 사람은 유심춘(柳尋春), 강준흠(姜浚欽), 이악상(李岳祥), 윤동야(尹東野), 이노벽(李魯璧), 강세규(姜世揆), 이건기(李建基), 김양정(金養楨), 유식(柳栻), 이계양(李啓陽), 유치명(柳致明), 황반로(黃磻老), 정상리(鄭象履) 등 13 명이고, 나머지 강세림(姜世霖), 유벽조(柳璧祚), 강세백(姜世白), 유성휴(柳星休)와 유범휴(柳範休), 채시주(蔡蓍疇), 유이좌(柳台佐) 등 7 명은 이런 관계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도남서원 유생 강세림과 병산서원 유생 유벽조의 제문에 옥동(玉洞)・봉산(鳳山)・옥성(玉成)・근암(近巖)・웅연(熊淵)・지강(芝岡)・효곡(孝谷)・연악(淵嶽) 등 여러 서원과 우산(愚山)・송악(松巖)・매악(梅嶽)・백화(白華) 등 여러 서당에서 보내온 제문이 많았는데 이를 다 수록하지 못하였다는 주석이 있다.주-D060 이를 참고하면 실제 제문은 문집에 수록한 것보다 훨씬 많았음이 분명하며, 이런 사정이 만사(輓詞)의 경우에도 대체로 동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 9 는 언행록(言行錄)이다. 언행록은 수계 이승배, 성재(誠齋) 남한호(南漢皞), 근와(近窩) 유식(柳栻), 긍암 강세규, 유와(幽窩) 이계양(李啓陽), 제암 정상리, 지헌(止軒) 최효술 등 몇 사람이 평소 견문한 입재의 언행(言行)을 간단히 기록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여 편찬한 것이다. 그래서 각 개인 기록마다 호의 첫째 자를 따서 수록(修錄 수계(修溪) 기록), 성록(誠錄 성재(誠齋) 기록) 등과 같이 근거를 밝혔다. 그리고 입재의 큰아들 정상진(鄭象晉)이 이를 보고 일부 보완하였는데, 이렇게 보완한 것은 따로 보유(補遺)라고 표기하였다.주-D061 이 외에 〈도남강의록(道南講義錄)〉과 〈매산잡록(梅山雜錄)〉에 근거한 기록도 몇 조항 있어, 직접 견문한 사항 외에 다른 책자에 기록된 것까지 참고하여 편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는 입재의 어린 시절 일화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학문・교육・처신・벼슬 등에 관한 언행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기록보다 입재의 생각과 삶의 자세를 살펴보는 데 중요한 자료로 판단된다.

권 10 은 세계도(世系圖)와 연보이다. 세계도는 입재 선대의 경우에는 직계 선조에 한하여 성명과 관직 및 배위(配位 아내) 등을 갖추어 기록하였고, 입재 후대는 자손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성명과 관직만 간단히 제시하였다. 연보는 셋째 아들 정상관(鄭象觀)이 편찬한 초고를 1922 년부터 4 년간 수정・보완한 것인데, 영조 14 년(1738) 출생부터 순조 16 년(1816) 별세까지는 연도별로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그 뒤에는 1826 년 묘소 이장, 1835 년 문집 간행, 1910 년 별집 간행 사실만 간단히 적었다.

권 11 은 제일 앞에 황반로(黃磻老)가 지은 〈우산서원배향시봉안문(愚山書院配享時奉安文)〉을 수록하였다. 그다음에 〈청증연설(請贈筵說)〉을 수록하였는데, 이것은 1816 년 6 월 입재가 세상을 떠난 그해 8 월에 당시 경연 검토관(經筵檢討官)으로 있던 강세륜(姜世綸)이 경연(經筵)에서 입재의 관직 추증(追贈)을 요청하면서 언급한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 그 뒤에는 유태좌(柳台佐), 송규필(宋奎弼), 황반로(黃磻老), 이승배(李升培) 등이 증직(贈職)을 요청하면서 올린 상소문 4 편을, 제일 끝에는 입재의 6 세손 정재붕(鄭在鵬)이 별집 권 10~11 을 추가로 간행하면서 쓴 발문(跋文)을 수록하였다.

입재가 지은 글은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27 세(1764) 때 《소학(小學)》・《심경(心經)》・《근사록(近思錄)》・사서(四書) 등을 풀이하여 기록한 《보망록(補忘錄)》, 73 세(1810) 때 이것을 다시 정리한 《군서연의(群書衍義)》, 67 세(1804) 때 편찬한 《우산지(愚山誌)》, 72 세(1809) 때 안연(顔淵)과 관련한 기록을 모아 정리한 《안자(顔子)》, 73 세(1810) 때 교재용으로 편찬한 《대산서절요(大山書節要)》(7 권), 74 세(1811) 때 이황의 〈성학십도(聖學十圖)〉와 이상정의 〈중용수장도(中庸首章圖)〉에 대한 검토 내용을 기록한 《독관편(獨觀篇)》 등이 모두 그런 것이다. 손자 정민병(鄭民秉)이 고종 13 년(1876) 독자적으로 편찬한 《입재선생문인록(立齋先生門人錄)》주-D062 또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저술은 모두 《입재집》에 수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자(顔子)》 1 종을 제외한 나머지 책은 아직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본고의 검토 대상에서는 모두 제외하였다.

[주-D001] : 입재 집안이 우산(愚山)에 입향(入鄕)하기까지와 관련된 정보는 《고문서집성》 88 책 상주진주정씨우복종택편(尙州晉州鄭氏愚伏宗宅篇)에 수록된 김학수의 〈상주 진주정씨 우복종택 소장 전적류의 내용과 성격〉,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종가문화총서로 간행된 정우락의 《상주 우복 정경세 종가》(예문서원, 2012)를 참고하였다.

[주-D002] : 《立齋先生年譜》, 9 세 조항, "先生九歲 歸本第受學于寢郎公 先生志氣英逸 在外家 被諸長者愛賞 及侍寢郎公 公性嚴峻 不假之辭色 先生一意洞屬 不敢須臾放心"

[주-D003] : 《立齋先生年譜》, 13 세 조항, "先生十三歲 受學于仲父滄洲先生 滄洲公 以學問行誼敎於家 每期先生於遠大諄諄以家學付託 先生愛慕聽受 未嘗少懈 常曰 每在吾仲父側 自然敬愛 不欲暫離也 蓋公之愛護先生 視己子有加 凡患亂險阨 無不曲加保全 先生之卒至成就者 皆公之力也"

[주-D004] : 《立齋集》 卷 48, 〈季父通訓大夫行陰城縣監秋澗府君家狀〉, "宗魯事府君二十餘年 執經受業固無幾 而獲被薰陶誘掖之化 至無窮焉". 《立齋先生年譜》, 20 세 조항, "先生二十歲 每進謁季父秋澗先生 稟質疑義 秋澗公學富德厚 以經傳要義 從容敎詔 以至天人性命 探頤靡遺". 51 세 조항, "省愆公 保養先生之功 不下於滄洲公"

[주-D005] : 《立齋先生年譜》, 10 세 조항, "先生十歲 在書室讀書 書室 愚伏先生所居 藏書屢千卷 先生自幼不好弄 酷好看書 不隨羣輩遊逐 課讀之外 又以他書披覽 或食時 家人失所在 遍訪之 則兀然在藏書中"

[주-D006] : 《立齋先生年譜》, 15 세 조항, "先生十五歲 讀尙書 先生世篤經行 未嘗治擧業 先生益絶意外慕 潛心於內…… 手謄尙書爲小冊 典謨貢誥 讀至屢千百焉". 17 세 조항, "先生十七歲 手爲小冊寫小學……嘗愛讀小學 以觀古人言行而常自檢省 至是爲寫小冊 常袖之而便讀焉"

[주-D007] : 《立齋先生年譜》, 20 세 조항, "先生二十歲 每進謁季父秋澗先生 稟質疑義 秋澗公學富德厚 以經傳要義 從容敎詔 以至天人性命 探頤靡遺"

[주-D008] : 《立齋先生年譜》, 15 세 조항, "先生十五歲 十二三歲時……先生效尙書語 立草數十言 寢郎公大加稱賞 至是頗留意文章 汎濫諸家 手謄尙書爲小冊 典謨貢誥 讀至屢千百焉"

[주-D009] : 《立齋集》 別集 卷 7, 附錄, 李升培가 지은 〈行狀〉, "己卯聘夫人李氏 屬以家務 淸心省事 慨然有志於此學 間或汎濫於左國斑馬韓柳諸書 而讀皆累千遍 得其軌範"

[주-D010] :《立齋先生年譜》, 22 세 조항, "先生二十二歲 上見日菴 讀馬史 抄伯夷傳 任安書 游俠貨殖酷吏四君諸傳 或讀至萬千 嘗借人八大家文 潛心一覽 卽掩卷誦 不錯一字 未幾盡帙而還之 其主聞之大驚焉"

[주-D011] :《立齋先生年譜》, 25 세 조항, "先生二十五歲 上外王父素谷公書……聞先生肆力文章 以手寫韓柳文及家稿私稿 貽書全付 先生爲書 以答屬望之意"

[주-D012] :《立齋先生年譜》, 26 세 조항, "先生二十六歲 訪審幾堂黃公啓熙 黃公聞先生聲名 常稱許之 至是先生往訪焉 黃公爲留與語 因以文章小技而家學爲大 娓娓期勉之 先生嘗曰 某於斯學 實自審幾公發之"

[주-D013] :《立齋先生年譜》, 27 세 조항, "先生二十七歲 作補忘錄 先生潛心斯學 先自小學心近 以至四書 皆極深研幾 凡所疑難 隨解卽書 名曰補忘錄 後因爲羣書衍語". 28 세 조항, "先生二十八歲 立春作自新箴 先生少時 以枉費工夫爲歎 其於此學 孜孜進修 有一日而兼二日之工者 至是作箴 皆以新爲句 大要演盤銘之旨 而法天地日新之意也"

[주-D014] :《立齋集》 別集 卷 7, 附錄, 〈行狀〉, "年三十 遂以立齋自號 專用力於居敬窮理之工 進學門路 以朱晦庵李文純爲準的"

[주-D015] :《立齋先生年譜》, 31 세 조항, "先生三十一歲 時朝廷令郡邑 擧學行有道之士 塾人將以先生上報 先生聞之 卽草書與塾人 詞理懇至 塾人遂止焉"

[주-D016] :《立齋先生年譜》, 32 세 조항, "先生三十二歲 移居州南之栗里 栗里本愚伏先生舊居 先生移居焉". 34 세 조항, "先生三十四歲 還居山中"

[주-D017] :《立齋先生年譜》, 33 세 조항, "先生三十三歲 會契家于存愛院 存愛院本愚伏先生與鄕內諸賢所刱建 先生爲會同契諸家而講修焉". 37 세 조항, "先生三十七歲 設童蒙朔望講 村秀多來學 先生因令與群弟同學者 行朔望講 村下有一大槐樹 每講于其下 習揖讓焉"

[주-D018] :《立齋集》 別集 卷 7, 附錄, 〈行狀〉, "嘗曰 學貴自得 然不曰從師取友云乎 以朱子之大賢 而猶云自古無關門獨學之聖賢 況吾輩乎 丁酉拜大山李先生"

[주-D019] :《立齋先生年譜》, 40 세 조항, "先生四十歲……冬拜百弗庵崔先生 崔先生學問行誼著聞 與大山南野 時稱爲嶺中三老 至是往拜請益 以誠篤二字勉之 先生常尊慕之 以爲當世一人"

[주-D020] :《立齋先生年譜》, 42 세 조항, "先生四十二歲 正月 移居州之北溪 先生每以山中多虎豹 非奠居貽後之地爲憂 時警弦齋姜公剛齋李公承延與 年輩諸勝友 多在州近 欲致先生於其間而相從 招邀甚至 先生遂決意移居 有移居諸作". 그러나 다음 기록을 보면 읍내에 오래 살지는 않고 약 두 달 만에 다시 우복 산소 부근인 함창(咸昌) 검호(儉湖, 현재 공검면 부곡리) 옆으로 옮겨 갔으며, 그곳에서 약 2 년을 거주하다가 43 세 겨울 우산으로 되돌아왔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책 42 세 조항, "三月移寓咸昌之儉湖上 儉湖愚伏先生墓下也 先生在近城 不樂囂塵 取以水榭之勝 寓以楸梧之感 遂移居焉 有詩篇見文集". 같은 책 43 세 조항, "冬還山中 山中諸至親 皆力請先生還歸 先生且不忘叢桂之樂遂還山焉"

[주-D021] :《立齋先生年譜》, 52 세 조항, "先生五十二歲 六月除光陵參奉 七月入都謝恩 因入直 八月初六日 承旨詣闕下之命 同日陞六品 授義禁府都事 初九日承命入城 十六日入侍 卽日發歸"

[주-D022] :《立齋先生年譜》, 59 세 조항, "先生五十九歲……七月十三日 除司圃署別提 十九日 擢受朝奉大夫司憲府持平 下別諭召之 八月奉辭疏 付縣道 下溫批不允 九月十九日 祗受致祭 上疏謝恩典兼控辭不允 十二月 又上疏辭不允"

[주-D023] :《立齋先生年譜》, 60 세 조항, "先生六十歲 六月傳敎命補郡 閏月初三日 特陞通訓大夫康翎縣監 以親年老 援法典呈辭 七月初五日 發西行 初八日 換授咸昌縣監 十九日上任……九月呈辭狀 十月呈辭狀 十一月朔 棄官歸"

[주-D024] :《立齋先生年譜》, 60 세 조항, "先生五十九歲……十九日 擢受朝奉大夫司憲府持平 下別諭召之 八月奉辭疏 付縣道……疏旣上 朝紳傳誦之曰 瑞世之文章也"

[주-D025] :《立齋集》 卷 3 에 수록된 〈次雲巖吳侍郎大益寄贈韻並步其九曲十絶奉呈〉(丁巳)를 말한다.

[주-D026] :《立齋先生年譜》, 75 세 조항, "先生七十五歲 次雲谷雜詠陶山雜詠 手書成帖"

[주-D027] : 鄭宗魯, 《立齋集》 別集 卷 7, 附錄, 〈行狀〉, "屬纊前二日 命長孫 收拾遺文"

[주-D028] : 鄭宗魯, 《立齋集》 別集 卷 10, 附錄, 〈年譜〉, "憲宗乙未 刊行文集二十四冊"

[주-D029] : 입재의 맏아들 석파(石坡) 정상진(鄭象晉)의 셋째 아들인데, 입재의 셋째 아들 곡구(谷口) 정상관(鄭象觀)에게 입양되었다.

[주-D030] : 鄭民秉, 《箕疇集》 卷 6, 〈再從叔制庵先生遺事〉, "歲丙子 立齋先生棄後學 公喪之若考 痛不自勝……當是時門內有三件事未遑者 其一曰愚伏本院尸祝之議也 其二曰愚伏別集剞劂之役也 其三曰立齋遺文校讎之責也 民秉本生大人石坡公暨所后大人谷口公 以是三者數數焉不能忘 上二事 實立齋之遺意 如校勘一款 尤谷口公之所苦心血誠 而門下諸公 亦一辭推重 不幸庚辰 天奪之年 重喪斯文 公深痛悼之 益思所以效力左右我石坡公十數年之間 三件大擧 次第竣事 噫 大事成就固有其時 然微公誠力 何以及此"

[주-D031] : 鄭經世, 《愚伏集》 別集 卷 7, 附錄, 〈年譜〉 追補, "丁卯 純祖大王七年 門人後裔 爲設修契所於愚伏山中. 始先生在時 大諫洪公鎬 倡船巖結茅之議 先生以書止之 至健陵辛亥 門人後裔黃景幹等 各出財力 合謀拮据 遂於是年春 建立此所 蓋爲本院計也". 이 기록에 이어 "乙未 憲宗大王元年 十月二十二日丁丑 奉安位版于愚山書院 卽先生本院也 以六世孫宗魯配享"이라고 한 것을 보면 이렇게 추진했던 본원(本院)이 곧 우산서원(愚山書院)이고, 헌종 1 년(1835) 마침내 서원으로 승격시켜 정경세와 정종로를 함께 봉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주-D032] : 《우복집》 별집 간행 사실은 정상리가, 1657 년 《우복집》 간행 이후 1821 년 별집을 간행할 때까지의 전말을 기록한 〈先祖別集刊役事實〉에 자세하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 《고문서집성》 88 책에 수록되어 있다. 기타 같은 책에 수록된 〈愚伏先祖別集開刊時文蹟〉도 참고할 만하다.

[주-D033] : 곡구(谷口) 정상관(鄭象觀)은 입재의 셋째 아들인데, 나중에 입재의 숙부 정예모(鄭禮謨)의 아들 정성로(鄭成魯)에게 입양되었다.

[주-D034] : 鄭象履, 《制庵集》 卷 8, 附錄, 〈制庵處士鄭公行狀〉, "自幼少從宗父立齋先生學 於爲己知其所先務 立翁敎詔盡其方 公居隔溪 日在側周旋三十餘年 所授受惟四子書最深"

[주-D035] : 鄭象履의 《制庵集》 卷 2 詩에 ① 〈立齋集校正會感賦〉 一首, ② 〈山樓敬編立齋集感識〉 二首, ③ 〈道院校正立齋集拈一律呈座間〉 壬辰, ④ 〈宗父立齋先生文集刊役日拈賦集中韻〉, 같은 책 卷 6 告由文에 ⑤ 〈立齋先生文集刊出告由文〉 代宗兄作, ⑥ 〈先祖愚伏先生文集重刊告由文〉, 같은 책 卷 1 詩에 ⑦ 〈先祖別集編摩感賦其事〉, ⑧ 〈先祖別集刊役會席次平窩韻〉 三首, 같은 책 卷 3 詩에 ⑨ 〈先集重刊日拈集中韻以賦其事〉, 같은 책 卷 6 題跋에 ⑩ 〈先祖文莊公手簡帖跋〉, ⑪ 〈敬書內翰府君咨議府君立齋先生三世手筆合爲一冊後跋〉, ⑫ 〈敬書無忝齋府君所輯名臣行蹟後跋〉이란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주-D036] : 鄭象履, 《制庵集》 卷 8 附錄 〈制庵處士鄭公行狀〉, "於斯文用力 則辛巳刊文莊公別集 壬辰改刊文莊公年譜 乙未建崇道祠 享文莊公 丙申配立爺 立齋集浩瀁 與及門諸賢 廿十考校鋟之梓 無忝遺文 精校淨書 爲傳後計"

[주-D037] : 입재 종가에는 이 무렵 많은 일이 있었다. 우복 본원(本院)인 우산서원(愚山書院)을 세우는 일, 선대 정심(鄭柲), 정도응(鄭道應), 정석교(鄭錫僑), 정주원(鄭胄源) 등의 묘지(墓誌)를 마련하여 묘도(墓道)를 새롭게 정비하는 일, 1826 년 입재 산소를 황령산(黃嶺山)에서 곡곡산(曲谷山)으로 이장하는 일 등이 그런 것인데, 정상리는 종손 정상진을 도와 이런 일에도 적극 참여하였으며, 《입재집》 간행에는 특히 많은 시간과 공력이 필요하여 그가 주도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주-D038] : 柳尋春, 〈江皐年譜〉 卷 1, "二十九年己丑先生六十八歲 會北長寺 編次立齋先生文集 與李修溪升培 鄭魯菴必奎 姜兢菴世揆 鄭制菴象履 相與分篇勘校"

[주-D039] : 黃礪老, 《白下集》 卷 4, 書, 〈與柳象遠〉, "先師遺集 已寫二本 而掃塵之役 尙未斷手 幸趁下執事精力未甚衰之時 極意商略 細加磨勘 使精義妙道之書 煥然表章於世 則其於尊師之道 可庶幾焉耳"

[주-D040] : 鄭宗魯, 《立齋集》 卷 38, 〈同知中樞府事金公墓碣銘竝序〉. 여기에 예시한 사항은 영남문화연구원 《立齋集》 번역팀의 김영옥, 송희준, 김숭호 선생이 제공해 주었다.

[주-D041] : 卷 41 의 34 판 전면 4~5 행, 권 44 의 후면 10 행 등에서 이런 예를 발견할 수 있다.

[주-D042] : 鄭宗魯, 《立齋先生別集》 권 10, 〈年譜〉, "高宗庚戌 刊行別集四冊及顔子一冊"

[주-D043] : 《우복집》 별집을 중간한 일과 관련해서는 정하묵(鄭夏默)이 쓴 〈別集重刊跋〉과 종가 소장 고문서 가운데 1898 년 도남단소(道南壇所)에서 발행한 통문(通文)을 참고할 수 있다.

[주-D044] : 《立齋集》, 別集 卷 7, 附錄, 〈墓碣銘幷序〉, "日先生長胤 以宣寢郎肅命卽歸 歷惠于終南之寓 以墓文托焉 旣而使其從子奉行狀年譜遺事以寄示焉 禮雖不敢當 情亦不敢辭 遂受而卒業焉"

[주-D045] : 《立齋先生年譜》 單, 끝부분에 수록된 6 세손 鄭在鵬의 跋文, "紀年惇史 棄在巾衍 迄今百年而未遑 後學之憾 愈久而愈切矣 歲壬戌仲冬 鄕士友大會于道南 合謀所以壽其傳 蓋是編也 卽谷口府君所撰次 而又有石坡府君所撰遺事 均是過庭信筆 而當日及門諸賢之所共參訂者也 紀年之際 互有詳略 而大體一致 足以夾輔而並

行 故初校於道存堂 再校於北長寺 審愼爛商 戡定一部 閱四載而功始竣 實賴鄕長德之終始賢勞 而門老之所奉而周旋者也”

[주-D046] :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간행한《고문서집성》88 책 우복종가 고문서에《입재선생연보》2 권 1 책 간행 당시의 집사분정기(執事分定記, 409 쪽)가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단《고문서집성》에는 이것이 1862 년 작성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1922 년의 착오임이 분명하다.

[주-D047] :《立齋先生年譜》單, “大正十四年十月七日附指令第九二七號許可/大正十五年七月十日印刷/大正十五年七月十五日發行/慶尙北道尙州郡外西面愚山里一八六番地著作兼發行者鄭在喆/慶尙南道咸安郡郡外北面東村里一三二三番地印刷者文一鉉/慶尙北道尙州郡外西面愚山里一八九番地印刷兼發行所道存堂”

[주-D048] :〈桐溪鄭先生龍泉墓所士林祭享告由文〉에 포함된 상향축(常享祝) 1 편과〈道東書院傍祠常享祝〉1 편 등 2 편은 셈에서 제외하였다.

[주-D049] : 봉안문(奉安文)은 실상 봉안고유문(奉安告由文)으로, 원집에서 고유문(告由文)이라 한 것과 같은 문체이다. 상향축문 3 편은 여기에 포함시키고 따로 셈하지 않았다.

[주-D050] : 권 1 에 129 제 173 수, 권 2 에 73 제 201 수, 권 3 에 71 제 130 수, 권 4 에 77 제 148 수, 권 5 에 88 제 159 수, 권 6 에 43 제 228 수, 전체 481 제 1,039 수이다.

[주-D051] :《입재집》에 수록된 연작시는 권 1 에 19 제 63 수, 권 2 에 22 제 142 수, 권 3 에 26 제 84 수, 권 4 에 17 제 88 수, 권 5 에 26 제 97 수, 권 6 에 26 제 221 수, 권 7 에 20 제 72 수, 전체 156 제 757 수로 파악된다. 별집의 경우에도 69 제 98 수 가운데 12 제 41 수가 연작시로 판단된다.

[주-D052] :《立齋先生年譜》59 세 조항, “先生五十九歲 八月封辭疏 付縣道……時先生病疝 州家依古例 遣寫疏吏 先生曰 旣不克躬謝恩命 又初上章於君父 而可以使人代乎 加上衣 手寫惟謹 疏凡屢十行 無一字怠忽焉 疏上 朝紳傳誦之曰 瑞世文章也”

[주-D053] : 각 권별로 검토해 본 결과, 권 9 에 20 명 35 통, 권 10 에 5 명 25 통, 권 11 에 15 명 22 통, 권 12 에 22 명 27 통, 권 13 에 7 명 17 통, 권 14 에 6 명 15 통, 권 15 에 9 명 13 통, 권 16 에 5 명 31 통, 권 17 에 2 명 15 통, 권 18 에 12 명 22 통, 권 19 에 2 명 6 통, 권 20 에 2 명 10 통, 권 21 에 9 명 14 통, 권 22 에 8 명 12 통, 권 23 에 10 명 21 통, 전체 15 권 134 명 284 통으로 파악되었다.

[주-D054] :《立齋先生年譜》, 40 세 조항, “先生四十歲……冬拜百弗庵崔先生 崔先生學問行誼著聞 與大山南野 時稱爲嶺中三老 至是往拜請益 以誠篤二字勉之 先生常尊慕之 以爲當世一人”

[주-D055] : 권 10 에는 5 명과 주고받은 25 통의 편지를 수록하였는데, 제 1 은 남필석(南必錫)과 남한조(南漢朝)에게 함께 보낸 것이고, 제 2~제 21 은 모두 남한조에게 보낸 것이며, 마지막에 조사위(趙士威)・조학수(趙學洙)・이경첨(李景瞻)・이인행(李仁行) 등 4 명에게 보낸 편지를 각 1 통씩 수록하였다. 그래서 권 10 전체가 남한조에게 보낸 편지 일색인 듯하다.

[주-D056] : 입재가 이렇게 많은 묘갈을 지은 것은 근본적으로 청탁이 많았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 자신 또한 도리상 거절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한데,《立齋先生年譜》78 세 조항에 “時遠近請文者沓至 賓客盈門 先生以癃年酬應不倦 左右或請其辭遣 先生笑曰 我不爲疲 況孝子慈孫 遠來懇乞 一切辭却 亦非道理者乎”라고 한 데서 이런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주-D057] : 영남문화연구원《立齋集》번역팀의 김영옥 선생이 묘갈명의 명(銘) 가운데 산문 형식이 많다는 사실을 자세하게 알려 주었고, 뒤이어 송희준 선생도 관련 자료를 보충해 준 바 있다. 이 자리를 빌려 두 분께 감사드린다. 그러나 작품 수가 너무 많아서 구체적인 자료 제시는 생략한다.

[주-D058] :《立齋集》권 41,〈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知經筵義禁府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諡忠簡公行通政大夫戶曹參議懶隱先生李公墓表〉, “我先祖文莊公夫人 爲松齋曾孫女 文莊公神道之刻 先生實書之”

[주-D059] :《立齋先生年譜》68 세 조항, “先生六十八歲 撰先世狀行 無忝齋公 孝廟朝以遺逸徵 爲侍講院諮議 克紹家學而未有狀 先生採家傳舊蹟 著爲遺事 又據家庭記聞 撰寢郎公及先公滄洲省愆秋澗諸公行狀”

[주-D060] :《立齋集》別集 권 8, 祭文, 道南書院儒生 姜世霖 조항 題註, “玉洞 鳳山 玉成 近巖 熊淵 芝岡 孝谷 淵嶽諸書院 愚山 松巖 梅嶽 白華諸書堂 祭文多不盡錄”. 安東 屛山書院儒生 柳璧祚 조항 題註, “晉州德川書院 咸昌臨湖書院 知禮道洞書院 大邱柳湖書院 義興龜陰書院 居昌龍川精舍 安東高山書堂 咸昌縣儒生 祭文多不盡錄”

[주-D061] : 《立齋集》 別集 권 9, 言行錄, 제 1 면 주석, "補遺 ○先生長子諱象晉所錄 小識曰 府君平生 門下諸賢及季君之述備矣 不肖何敢與焉 竊於苫塊中有一二記得者 以補其闕漏云"

[주-D062] : 정민병(鄭民秉)이 자신의 문집 《箕疇集》(국학진흥원 소장) 권 6 에 수록된 〈立齋先生門人錄後小識〉에서, 입재 사후 60 여 년 만에 자신이 독자적으로 《立齋先生門人錄》을 편찬하게 된 경위를 비교적 소상하게 밝히고 있어서 참고할 수 있다.

제1권 / 시(詩)

구호에서 신자장 체인 에게 줌〔龜湖 贈申子長 體仁〕

20世 제인(悌仁) 父 : 도통(道通) 祖父 : 태구 (泰龜)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晴秋傾盖縱談高。牕外金風淅淅號。北海會看鵬擊水。塵寰休怪鸞盈蒿。晚來事業心追古。少日詞章氣壓曹。贈別更憐無俗語。分明眞趣在揮毫。

갠 가을에 벗을 만나 높은 담론 맘껏 하니 / 晴秋傾盖縱談高

창 밖에는 가을바람이 윙윙 소리 내며 부네 / 牕外金風淅淅號

북해에 붕새가 물을 차고 날을 볼 것이니 / 北海會看鵬擊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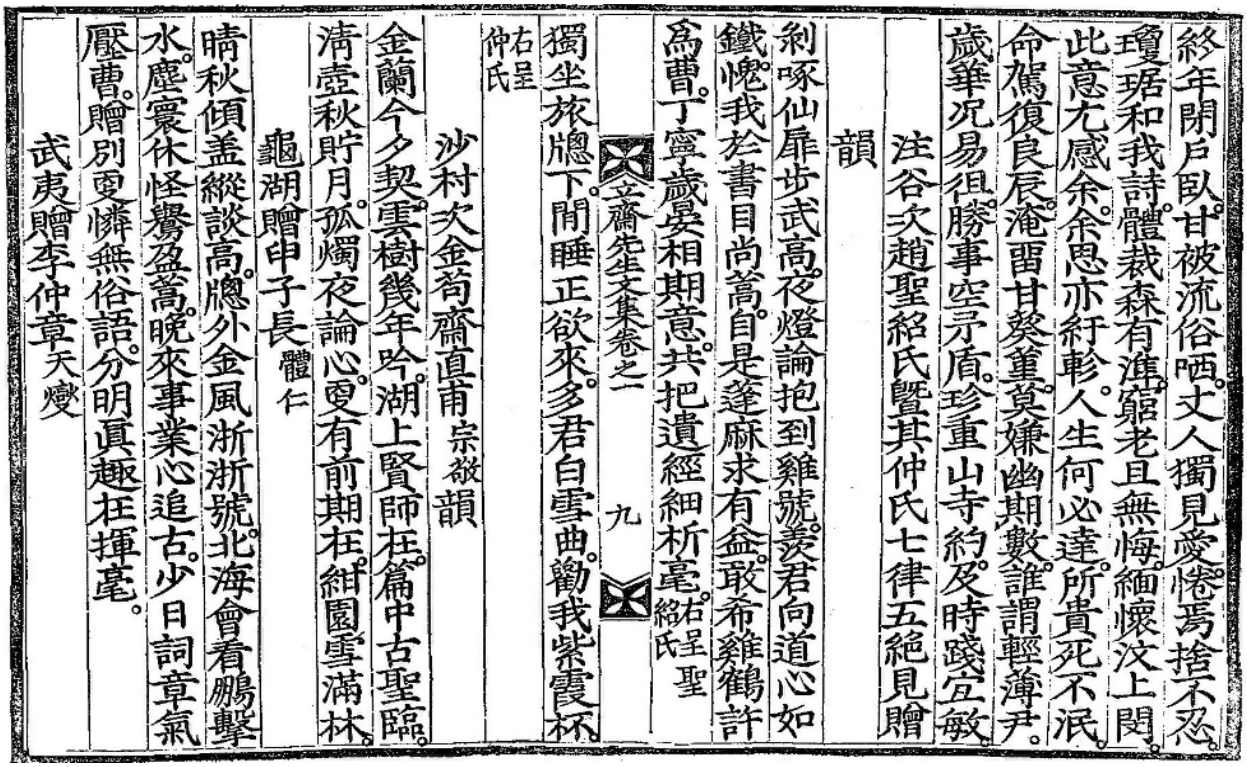
속세 떼까마귀 쑥에 가득함 괴이하게 여기지 마오 / 塵寰休怪鸞盈蒿

만년의 공부는 마음으로 옛 성현을 좇았고 / 晚來事業心追古

젊은 날의 사장은 기상이 무리를 압도했네 / 少日詞章氣壓曹

증별 시에 속된 언어가 없어 더욱 어여쁘니 / 贈別更憐無俗語

분명 진실한 의취가 휘호 속에 있음이어라 / 分明眞趣在揮


終年閉戶臥甘被流俗哂丈人獨見愛悃焉捨不忍
瓊琚和我詩體裁森有準窮老且無悔緬懷汶上閔
此意尤感余余思亦紆軫人生何必達所貴死不泯
命駕復良辰淹留甘棨戟莫嫌幽期數誰謂輕薄尹
歲華況易徂勝事空亦盾珍重山寺約及時踐宿敏
注谷文趙聖紹氏暨其仲氏七律五絶見贈
韻
剡啄仙扉步武高夜燈論抱到雞號羨君向道心如
鐵愧我於書目尚嵩自是逢麻求有益敢希雞鶴許
爲曹丁寧歲晏相期意共把遺經細析毫右呈聖紹氏
立齋先生文集卷之一 九
獨坐旅牕下閒睡正欲來多君白雪曲勸我紫霞杯
右呈仲氏
沙村次金荀齋直甫宗燾韻
金蘭今夕契雲樹幾年吟湖上賢師在篇中古聖臨
淸壺秋貯月孤燭夜論心更有前期在紺園雪滿林
龜湖贈申子長體仁
晴秋傾盖縱談高牕外金風淅淅號北海會看鵬擊
水塵寰休怪鸞盈蒿晚來事業心追古少日詞章氣
壓曹贈別更憐無俗語分明眞趣在揮毫
武夷贈李仲章天燮
立齋集 卷一

구호에 도착하여 신자장을 보고 또 '남' 자 운을 사용하여 읊어서 드림〔到龜湖見申子長又用南字韻吟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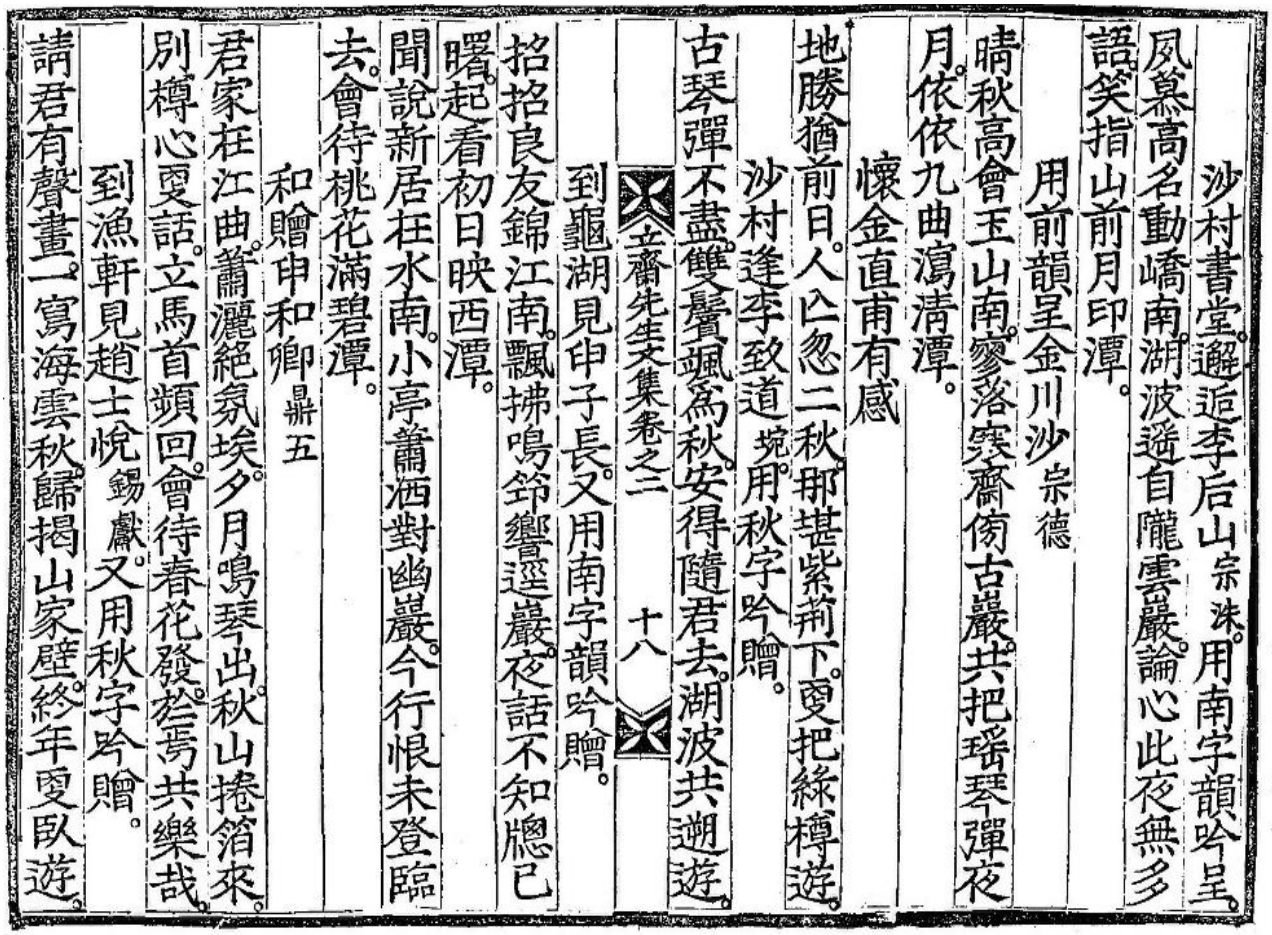
20世 제인(悌仁) 父 : 도통(道通) 祖父 : 태구 (泰龜)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招招良友錦江南。飄拂鳴笴響逕巖。夜話不知牕已曙。起看初日映西潭。

聞說新居在水南。小亭蕭洒對幽巖。今行恨未登臨去。會待桃花滿碧潭。

금강 남쪽에 있는 좋은 벗을 손짓해 부르니 / 招招良友錦江南
바람이 스쳐 지팡이 소리가 바윗길에 울렸네 / 飄拂鳴笴響逕巖
밤새 얘기하며 창에 이미 날 밝은 줄 모르다가 / 夜話不知牕已曙
일어나 보니 떠오르는 해가 서쪽 못에 비치네 / 起看初日映西潭

듣건대 새로운 거처가 금수 남쪽에 있으니 / 聞說新居在水南
작은 정자 소쇄하여 그윽한 바위 마주한다 하네 / 小亭蕭洒對幽巖
이번 행차에 올라가 보지 못함이 한스러우니 / 今行恨未登臨去
복숭아꽃이 푸른 못 가득 필 때를 기다려야겠네 / 會待桃花滿碧潭


沙村書堂。邂逅李后山宗洙。用南字韻吟呈。
夙慕高名動嶠南。湖波遥自隴雲巖。論心此夜無多
語。笑指山前月印潭。
用前韻呈金川沙 宗德
晴秋高會玉山南。寥落寒齋傍古巖。共把瑤琴彈夜
月。依依九曲瀉清潭。
懷金直甫有感
地勝猶前日。人亡忽二秋。那堪紫荊下。更把絳樽遊。
沙村逢李致道 琬。用秋字吟贈。
古琴彈不盡。雙鬢颯爲秋。安得隨君去。湖波共溯遊。
立齋先生文集卷之三 十八
到龜湖見申子長。又用南字韻吟贈。
招招良友錦江南。飄拂鳴笴響逕巖。夜話不知牕已
曙。起看初日映西潭。
聞說新居在水南。小亭蕭洒對幽巖。今行恨未登臨
去。會待桃花滿碧潭。
和贈申和卿 鼎五
君家在江曲。蕭灑絶氛埃。夕月鳴琴出。秋山捲箔來。
別樽心更話。立馬首頻回。會待春花發。於焉共樂哉。
到漁軒見趙士悅 錫獻。又用秋字吟贈。
請君有聲畫。寫海雲秋。歸揭山家壁。終年更臥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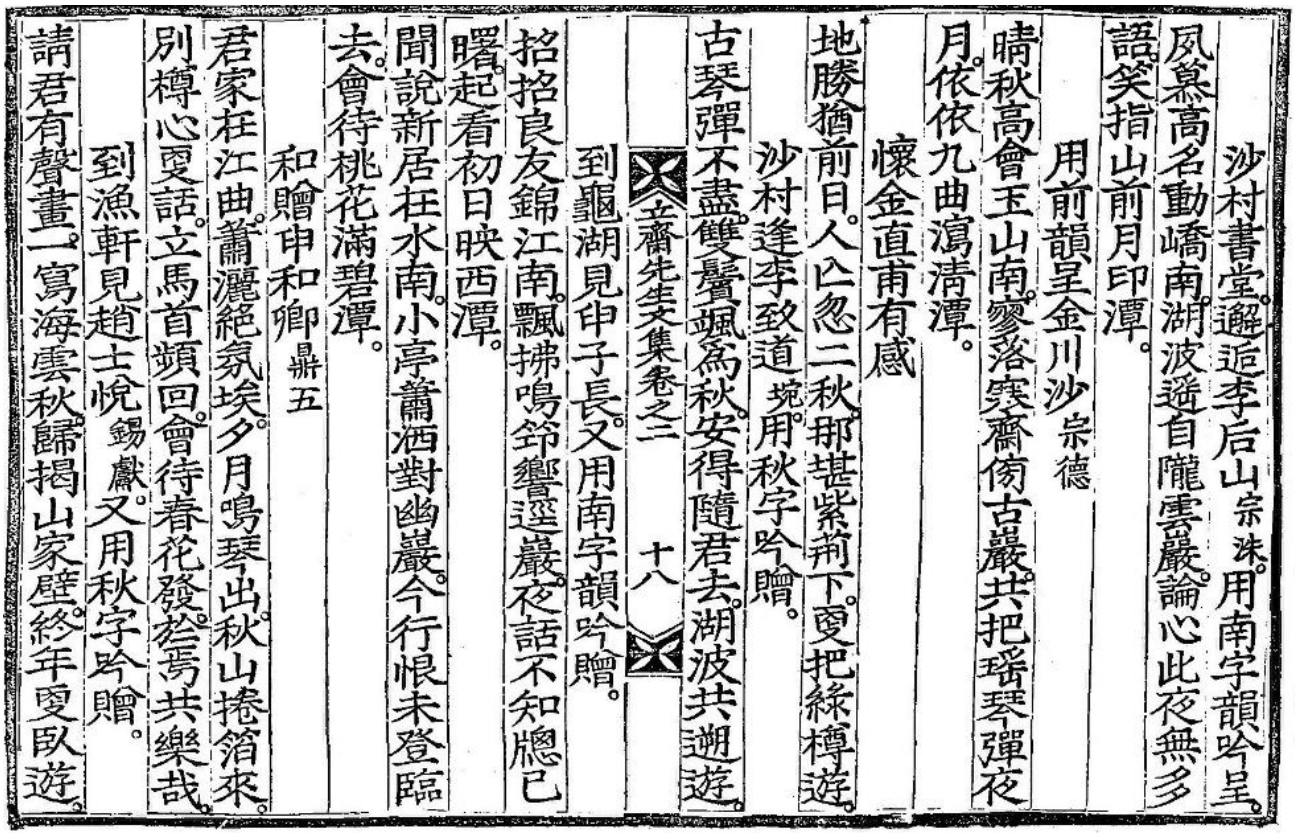
六二

화답하여 신화경 정오 에게 드림〔和贈申和卿 鼎五〕

21世 정오(鼎五) 父 : 의인(義仁) 祖父 : 도수 (道綏) 귀파(龜派)오재공파(悟齋公派)

君家在江曲。蕭灑絶氛埃。夕月鳴琴出。秋山捲箔來。別樽心更話。立馬首頻回。會待春花發。於焉共樂哉。

그대의 집은 강 굽이에 있으니 / 君家在江曲
소쇄하여 티끌 먼지 끊어졌네 / 蕭灑絶氛埃
거문고 연주함에 저녁 달 떠오르고 / 夕月鳴琴出
주렴 걷으니 가을 산이 다가오네 / 秋山捲箔來
이별의 술잔에 마음 다시 얘기하고 / 別樽心更話
말 앞에 서서 머리 자주 돌리네 / 立馬首頻回
봄꽃이 필 때를 기다려서 / 會待春花發
여기에서 함께 즐기리라 / 於焉共樂哉


沙村書堂邂逅李后山 宗洙 用南字韻吟呈
夙慕高名動嶠南湖波遥自隴雲巖論心此夜無多
語笑指山前月印潭
用前韻呈金川沙 宗德
晴秋高會玉山南寥落寒齋倚古巖共把瑤琴彈夜
月依依九曲瀉清潭
懷金直甫有感
地勝猶前日人亡忽二秋那堪紫荊下更把綵樽遊
沙村逢李致道 琬 用秋字吟贈
古琴彈不盡雙鬢颯爲秋安得隨君去湖波共溯遊
立齋先生文集卷之三 十八
到鼈湖見申子長又用南字韻吟贈
招招良友錦江南飄拂鳴笳響遥巖夜話不知牕已
曙起看初日映西潭
聞說新居在水南小亭蕭洒對幽巖今行恨未登臨
去會待桃花滿碧潭
和贈申和卿 鼎五
君家在江曲蕭灑絶氛埃夕月鳴琴出秋山捲箔來
別樽心更話立馬首頻回會待春花發於焉共樂哉
到漁軒見趙士悅 錫獻 又用秋字吟贈
請君有聲畫寫海雲秋歸揭山家壁終年更臥遊

강청지가 등제했음을 듣고 신화경의 시에 차운해서 주려고 지음 임자년(1792, 정조16)

〔聞姜淸之登第 次申和卿韻 擬贈 壬子〕

21世 정오(鼎五) 父 : 의인(義仁) 祖父 : 도수 (道綏) 귀파(龜派)오재공파(悟齋公派)

雪鍔靑萍吐紫烟。龍光直射斗牛邊。誰知變化飛騰日。只在陶山試士年。

설악 청평이 자줏빛 연기 토해 내니 / 雪鍔靑萍吐紫烟

용천검의 빛이 곧장 두우 가를 쏘았네 / 龍光直射斗牛邊

누가 알았으랴, 변화해서 날아오르는 날이 / 誰知變化飛騰日

단지 도산에 별시 여는 해였음을 / 只在陶山試士年

李仲章氏聞余在嵒院。委來相見。遂與共次
前韻。以道驩喜之意。
西歸憶何日。東望恨多時。歷路曾摻袂。留箱只別詩。
停雲吟不盡。流水奏常遲。失喜逢今夕。無期勝有期。
贈別李仲章
翁與文俱老。行休獨任眞。軒天起談論。傾峽瀉精神。
邂逅因牽袂。齊明共整紳。臨分贈佳句。白璧未爲珍。
關雨縣村。思親有作。
夢罷家山隔杳茫。客牕中夜起彷徨。無端瀨上彌旬
雨。添得愁人兩鬢霜。

立齋先生文集卷之二 二十七

聞姜淸之登第。次申和卿韻擬贈。壬子
雪鍔靑萍吐紫烟。龍光直射斗牛邊。誰知變化飛騰
日。只在陶山試士年。
月夜聞蛩音四起。謾發詩興。次晉兒韻。
色色乘秋化。凄凄竟夜吟。冷烟殘郭底。落月小庭心。
定爲天機動。偏憐露氣沉。羇人將懶婦。幾箇感斯音。
和贈丁思仲 志永 ○甲寅
感子西歸路。重尋絕峽居。爲先能事畢。嚮道一心餘。
明月樽中酒。孤燈牕下書。不愁千里別。東洛有新廬。
卽事

立齋集 卷二

신경백 정주 에게 답함〔答申景伯 鼎周〕

21 世 정주(鼎周) 父 : 종인(種仁) 祖父 : 도발 (道發)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昨冬獲奉遞寄珍緘。披讀以還。如復接別後顔範。且其滿紙辭意。皆出悃愊。足見反己求益之切。區區慰滿多矣。卽玆新正。學履起居如何。宗行年幾滿八旬。日間凡百。無非崦嵫光景。其中精神。尤覺昏亡。不論某事。無復討頭緖醻酢如人之望。必是符到不遠之候。何足歎哉。別紙所詢。平日見解。盡歸烏有。艱得追記而備文仰對。如其不當。望須駁示。以爲反復究竟之地。如何如何。

別紙

君子之中庸。章句只言戒懼何也。旣言戒懼而無時不然。則謹獨之工。自在其中故耶。

見得是。於此又可見戒懼之通動靜。而凡立大本。尤爲工夫之最要矣。

論語忠恕章下集註程子曰。以己及物仁也。不言忠而必言仁者何也。仁與忠。有大小之別。而聖人之忠則固可謂之仁耶。若謂之聖人之忠。則其下係之曰違道不遠何也。

忠恕二字。在學者在聖人在天道。固隨所指而不同矣。然天與聖人。只是一般忠一般仁。則今謂仁與忠有大小之別者。得無未安矣乎。程子所謂以己及物仁也者。亦與忠字微有分別。盖聖人之忠。只是至誠無息。而遽以及物言之。則這仁字乃幷使萬物各得其所。自在其中。來諭所謂聖人之忠。固可謂之仁者。似有見於此矣。又程子所以不言忠而必言仁者。只就及物處言之。是其所言之地頭。亦不得不然矣。若所謂違道不遠。是以推己及物者言。盖亦只就恕字上論其所以不同者此耳。

孔子欲以微罪行。此罪字註說以爲君上之罪。朱子答門人曰自爲也。此則似以爲己之罪。

罪字於君上着得未安。孔子旣不欲顯其君上之罪。則自爲二字。正得聖人意。盖以不致膰胙而去。則人必以爲自家有微罪。故不致膰胙而去。無怪云爾。自爲二字。如是看如何。

작년 겨울에 보내 주신 보배로운 편지를 받아 펼쳐 읽고 나니, 이별한 뒤 그대를 다시 접한 듯하였습니다. 게다가 편지 가득 말씀하신 뜻이 모두 정성스런 마음에서 나와서 자신을 반성하고 유익함을 구하는 간절함을 충분히 알겠으니, 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신정(新正)에 공부하며 지내는 생활이 어떠합니까?

나는 나이가 거의 팔순을 채워 일간(日間)의 모든 일이 엄자산(崦嵫山)의 광경 아님이 없습니다. 그 가운데 정신이 더욱 혼미함을 깨닫겠고, 어떤 일을 논할 것도 없이 다시 실마리를 내어 서로 토론함을 남들처럼 할 희망이 없으니, 반드시 저승사자가 멀지 않아 도착할 조짐입니다마는, 어찌 탄식할 게 있겠습니까.

별지에 물은 것에 대해서는, 평소 보고 알던 것이 어디론가 다 사라졌지만, 어렵사리 돌이켜 기억해서 글을 갖추어 대답합니다. 만약 그것이 마땅하지 않거든 바라건대 반드시 논박해 보여 반복해서 끝까지 궁구할 바탕으로 삼도록 해 줌이 어떠하고 어떠합니까?

별지

〔**문**〕 '군자의 중용'이라고 한 구절의 장구에서 단지 계신(戒愼), 공구(恐懼)만 말한 것은 어찌해서 입니까? 이미 "경계하고 두려워하여 때마다 그렇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하면, 곧 '홀로일 때를 삼가는[謹獨]' 공부가 절로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까?

〔**답**〕 그대가 본 것이 옳습니다. 이에 또 계신, 공구가 동정(動靜)을 통괄하여 무릇 큰 근본을 세움이 더욱 공부의 가장 요긴함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문**〕《논어》 충서(忠恕) 장 아래의 집주에, "정자(程子)가 말하기를 '자신으로써 남에게 미침이 인(仁)이다.'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충(忠)'을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인(仁)'을 말한 것은 어찌해서입니까? 인과 충이 대소(大小)의 구별이 있어서 성인(聖人)의 충이면 진실로 인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성인의 충'을 말한다면 그 아래에 이어서 "도와의 거리가 멀지 않다.[違道不遠]"라고 한 것은 어찌해서입니까?

〔**답**〕 충서(忠恕) 두 글자는 배우는 자에게도 있고 성인(聖人)에게도 있고 천도(天道)에도 있으니, 진실로 가리키는 바에 따라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천(天)과 성인은 단지 같은 충(忠)이고 같은 인(仁)이거늘, 지금 '인과 충은 대소의 구별이 있다.'라고 말함이 미안(未安)하지 않겠습니까. 정자가 이른바 '자신으로써 남에게 미침이 인이다.'라고 한 것도 또한 '충' 자와 조금 분별을 둔 것입니다. 대개 성인의 충은 단지 '지극히 성실함은 쉼이 없다.[至誠無息]'라는 것인데, 갑자기 '남에게 미침'으로 말하였으니, 곧 이 '인' 자는 '만물로 하여금 각각 그 마땅한 자리를 얻게 함'을 아울러 절로 그 속에 둔 것입니다. 보내온 편지에 이른바 '성인의 충은 진실로 인이라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였던 듯합니다.

또 정자가 충을 말하지 않고 반드시 인을 말한 까닭은 단지 남에게 미치는[及物] 곳에 나아가 말해서이니, 그 말한 바의 입장이 또한 그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른바 '위도불원(違道不遠)' 같은 것은 '자신을 미루어 남에게 미치는' 것으로 말하였으니, 대개 또한 단지 '서(恕)' 자 상에 나아가 그 같지 않은 까닭을 논한 것이 이러할 따름입니다.

〔**문**〕 "공자가 작은 죄로써 떠나고자 하였다."라고 할 때의 이 '죄(罪)' 자는, 주의 설명에 군상(君上)의 죄라고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문인에게 답하여 "스스로 한 것이다."라고 말하였으니, 이는 자신의 죄라고 여긴 듯합니다.

〔**답**〕 '죄' 자를 군상에 붙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공자가 이미 그 군상의 죄를 드러내고자 아니하였으니, '자위(自爲)' 두 글자가 바로 성인의 뜻을 얻었습니다. 대개 제사 고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해서 떠나면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에게 작은 죄가 있다고 여길 것이므로 제사 고기가 이르지 않자 떠남이 괴이할 것이 없다고 함일 뿐입니다. '자위(自爲)' 두 글자를 이와 같이 보는 것이 어떠합니까?

廢上食不撤筵果何義耶。

承重孫及其祖父母禫月而遭母喪則其諸父只設位於私室而除服否。

承重禫月遭母喪則廢禫無疑其諸父除服恐如來示。

傳重之家或不爲子立后而爲次養則其人死後當有主婦而次養之妻已者之孀誰當爲之耶。

此等事次養已違經法末後豈無難處之節愚意莫如爲無后者立后以主其喪耳。

大宗祧遷位奉之別廟而又有小宗祧遷貧不能

各立別廟則不得已同奉一廟而其位次旣非昭穆則分東西亦未安折一廡序次奉安否各自辨供則品式或異各以長房爲初獻則一廟而二主。皆未安何如。

雖是祧位大小宗旣異則恐不可同奉一廟而今爲苟簡之事故位次與饌具節節相妨一廟二主亦甚未安如來示折一廡序次奉安似勝於分左右若昭穆耳。

答申景伯 景周

昨冬獲奉遞寄珍緘披讀以還如復接別後顏範且

其滿紙辭意皆出悃幅足見反已求益之切區區慰滿多矣卽玆新正學履起居如何。宗行年幾滿八旬。日間凡百無非崦嵫光景其中精神尤覺昏亾不論某事無復討頭緒醻酢如人之望必是符到不遠之候何足歎哉別紙所詢平日見解盡歸烏有艱得追記而備文仰對如其不當望須駁示以爲反復究竟之地如何如何。

別紙

君子之中庸章句只言戒懼何也旣言戒懼而無時不然則謹獨之工自在其中故耶。

見得是於此又可見戒懼之通動靜而凡立大本尤爲工夫之最要矣。

論語忠恕章下集註程子曰以已及物仁也不言忠而必言仁者何也仁與忠有大小之別而聖人之忠則固可謂之仁耶若謂之聖人之忠則其下係之曰違道不遠何也。

忠恕二字在學者在聖人在天道固隨所指而不同矣然天與聖人只是一般忠一般仁則今謂仁與忠有大小之別者得無未安矣乎程子所謂以已及物仁也者亦與忠字微有分別蓋聖人之忠只是至誠

無息而遽以及物言之則這仁字乃幷使萬物各得其所自在其中來諭所謂聖人之忠固可謂之仁者似有見於此矣又程子所以不言忠而必言仁者只就及物處言之是其所言之地頭亦不得不然矣若所謂違道不遠是以推己及物者言蓋亦只就恕字上論其所以不同者此耳

孔子欲以微罪行此罪字註說以爲君上之罪朱子答門人曰自爲也此則似以爲己之罪

罪字於君上着得未安孔子既不欲顯其君上之罪則自爲二字正得聖人意蓋以不致膰胙而去則人必以爲自家有微罪故不致膰胙而去無怪云爾自爲二字如是看如何

答尹聖郊

俯詢諸條座下旣類集先輩至論其於學問之大源頭大綱領可謂見得是矣倘微留意之久用力之多其何能及此奉讀再三不勝歎尚顧於其間有不能無疑於鄙心者未論其言之果是與否悉暴無隱以相與講磨切磋期至於十分融貫之境故玆就盛論中二三段仰陳如左俯諒如何

第一段論心性情

학봉전집(鶴峯全集)

1. 머리말

이 책은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선생의 문집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6 책(색인 1 책 포함)으로 출판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문집(文集)・속집(續集) 및 문집부록(文集附錄), 그리고 일고(逸稿) 및 일고부록(逸稿附錄)의 다섯 개의 분편(分編)으로 되어 있다.

지난 1972 년에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에서《학봉전집》을 낼 때에 종래 이미 간행되었던 문집・속집 및 문집부록에다가 안동(安東) 금계(金溪) 고택에 몇백 년간 보관되어 온 유초(遺草)와 자료들을 정리하여 일고 및 일고부록이란 이름으로 합집(合輯)한 뒤에 원문(原文) 그대로 1 책을 영인(影印) 출판한 바 있었다. 이번에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이 국역본(國譯本)을 만들면서 한국고전번역원의 한국문집총간 제 48 집에 수록된《학봉집》을 대본으로 삼았고, 위의 대동문화연구원본에 수록된 일고 및 일고부록을 추가하여《학봉전집》이란 이름으로 세상에 내보내게 되었다.

2. 학봉의 시대와 생애

16 세기 특히 그 후반기는 조선조 사회의 분수령이라고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오면 종래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던 조선조 사회가 점차 내부 모순의 누적으로 동요・변화의 조짐을 각 부문에 노출시키기 시작하고 유교 문화의 은성(殷盛)은 사림(士林)의 청의(淸議)를 과열케 함으로써 마침내 양반 지배층(兩班支配層)의 결정적 분열 대립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시기에 있어서 화담(花潭)・퇴계(退溪)・남명(南冥)과 같은 대선철(大先哲)이 이미 세상을 하직하고 율곡(栗谷)이 그 후진으로 정계(政界)와 학단(學壇)에 고상(翱翔)하다가 물러나는 한편 화담・퇴계・남명・율곡의 문제자(門弟子) 및 종유자(從遊者)들이 모두 한 시대의 명석(名碩)으로 휘진(彙進)하면서 각기 학파의 배경과 취상(趣尙)의 상이(相異)에 따라 앞에서 말한 분열 대립을 더욱 조장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양반 지배층이 비생산적 파쟁(派爭)을 일삼고 있는 동안 전국의 농민들은 무제한(無制限)한 토색(討索)과 주구(誅求) 아래 몰락과 포망(逋亡)으로 처절한 정경을 빚어 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16 세기도 저물어 동아시아 역사에 새로운 국면이 재촉될 무렵 조선(朝鮮)・명(明)・일본(日本) 삼국의 국력을 총경주하다시피 한 이 대전쟁(大戰爭)의 참극(慘劇)의 연출은 그 직접 무대가 된 우리 국토에 더욱 혹독한 상처를 입혔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슬기로운 판단과 피나는 인내와 용감한 저항으로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였다. 임진왜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창발력(創發力)과 저항 정신에 차 있는 위대한 민족의 수난기였다.

학봉 김성일 선생은 이 시기에 우리 민족이 낳은 탁월한 학자이며 지성(至誠)의 애민(愛民)・애국자였다. 학봉은 당시 경상도 안동 지방의 명벌(名閥)인 의성 김씨(義城金氏) 가문에 출생하여 퇴계 선생의 문하에서 배우면서 사우간(師友間)에 큰 촉망을 받아 장래 퇴계 학파의 중요한 계승자가 될 사람으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내었고, 과거(科擧)로 발신한 뒤에는 젊은 관료로서 국사(國事)에 분주하면서 많은 소차(疏箚)를 통하여 행정 시책의 개선, 특히 농민들의 도현(倒懸)의 곤급(困急)을 해결하기 위한 선진적 의견들을 진술함으로써 국리민복(國利民福)에 이바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학봉으로 하여금 역사상의 인물로서 훼예(毁譽)의 상반된 두 정점(頂點)에 이르게 한 것은 일본사행(日本使行)으로부터의 귀국 보고와 임진왜란에 있어서의 구국활동(救國活動) 및 그의 숭고한 최후에 있다고 할 것이다.

3. 이 책의 내용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알기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편차와 관계 없이 대략 연조순(年條順)으로 그 내용을 설명하기로 한다.

첫째로 다음의 시집(詩集)들을 살펴본다.

호당삭제(湖當朔製)	문집 권 1, 시	속집 권 1, 시
조천록(朝天錄)	문집 권 1, 시	속집 권 1, 시
	일고 권 1, 시	
북정록(北征錄)	문집 권 1, 시	속집 권 1, 시
	일고 권 1, 시	
해서록(海西錄)	문집 권 1, 시	속집 권 1, 시
	일고 권 1, 시	
금성록(錦城錄)	문집 권 1, 시	속집 권 1, 시
	일고 권 1, 시	

위의 다섯 종은 모두 학봉의 젊은 관료 시절로부터의 활약과 그 현실 인식에 관한 것을 잘 보여 준다. 《호당삭제(湖堂朔製)》는 학봉이 39 세에 동호(東湖) 독서당(讀書堂)에 있을 때 제작한 시들을 모은 것이고, 《조천록(朝天錄)》은 40 세에 중국 북경에 사절로 다녀오면서 연도(沿途)의 풍물을 읊은 것이고, 《북정록(北征錄)》은 42 세에 함경도 순무어사(巡撫御史)로, 그리고 《해서록(海西錄)》은 46 세에 황해도 순무어사로서 민간을 순행(巡行)하면서 읊은 것들이다. 《금성록(錦城錄)》은 그해 46 세에 나주 목사(羅州牧師)로 부임하여 만 3 년 동안의 현지의 생활을 그린 것들이다.

우리는 이 시(詩)들을 읽음으로써 학봉 사상의 기본적 방향을 알게 된다. 우선 학봉의 순수 진실한 애민적(愛民的) 사상에 접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학봉은 당시의 민중의 처지를 투철히 인식하고 항상 민중의 편에 서서 현실을 관찰하며 사태를 설명하였다. 《호당삭제(湖堂朔製)》 중의 '모별자(母別子)'(문집 권 1)와 '적병행(籍兵行)'(일고 권 1)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모별자'는 당시의 전호농민(佃戶農民)이 흉년을 만나 기근이 심한 데다가 관청의 부역과 고조(高祖)·증조(曾祖) 때부터의 빚 독촉에 견디지 못해 살 길을 찾아 모자(母子)가 남북으로 갈라지는 절박한 사정을 묘사한 것이고, '적병행(籍兵行)'은 농민의 포망(逋亡)이 보편화되고 병적(兵籍)이 유명무실해져서 억지로 인원수를 충당시키기 위해 노약(老弱)의 민정(民丁)을 수괄(搜括)하는 지방 관리들의 잔인 횡포한 행위와 수원(愁怨)에 차 있는 농촌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학봉의 이와 같은 심각한 현실 인식은 그의 '황해도순무시소(黃海道巡撫時疏)'(속집 권 2)에 더욱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학봉은 자신이 본래 농촌에서 생장하여 농민의 휴척(休戚)을 익히 보아 왔는데 관직(官職)에 올라 의식의 여유가 있게 되면서부터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지금 다시 목격을 하고 새삼 경탄(驚歎)하여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하였다. 거기에 덧붙여 농촌에서 생장한 자기가 한번 관도(官途)에 오르면서 농민의 실정을 잘 모르고 지내왔는데, 하물며 구중(九重) 속에 앉아 있는 군주(君主)가 어찌 농민의 생업의 간난(艱難)을 알 수 있겠느냐고 탄식하였다.('母別子'의 末尾) 이것은 단순히 예리한 관찰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꾸밈없는 측달(惻怛)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만큼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어서 학봉의 진취의 기상과 더불어 남다른 애국적 사상에 접하게 될 것이다. 《북정록(北征錄)》 속의 여러 시편에서 특히 그러하다. 적설한풍(積雪寒風)에 함경도 일대의 험준(險峻)한 관령(關嶺)을 답파(踏破)하면서 변방 각 진보(鎭堡)의 군기(軍器)와 창곡(倉穀)을 빠짐없이 점검하고 두만강(豆滿江) 연변(沿邊)을 방수(防戍)하는 병사들에게 의복을 반급(頒給)하는 등 갖은 수고를 다하는 한편 많은 소회(所懷)를 시로 옮겨 놓은 학봉은 진흥왕(眞興王) 척경비(拓境碑)가 서 있는 황초령(黃草嶺)에서 하룻밤을 노숙하였고(연보 참조), 경원(慶源)·온성(穩城) 등지를 지나면서 윤관(尹瓘)의 9 성(城)과 김종서(金宗瑞)의 6 진(鎭)의 유적에 대하여 몇 번이고 영탄(詠歎)을 되풀이하였다. 당시 국경 지대의 호인(胡人)의 동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여 "오랑캐는 언제나 없어지려나, 관하가 오늘 수심에 잠겼네.[胡虜何時盡 關河此日愁]"('馬上望黃草嶺', 문집 권 1), "긴 노래 부르며 백산에 기대니, 장한 기운 오랑캐 땅 누르는도다.[長歌倚白山 壯氣壓胡疆]"('玉蓮堡', 문집 권 1)라는 구절들이 수처(隨處)에 보이고, 여진지도(女眞地圖)에 대한 정포은(鄭圃隱)의 시를 차운하여 역사를 통한 미래에의 주의를 환기하려고 하는 한편 조국 강토(祖國疆土)의 회척(恢拓)과 방위(防衛)에 큰 공을 세운 선열(先烈)들의 웅략(雄略)을 높이 찬양하면서 현재의 국가적 무관심을 애닯게 생각하여 "한밤중 칼 뽑아 길이 탄식하며, 걱정스러운 마음에 속절없는 기약만, 붓 휘둘러 광주 벽에 크게 썼건만, 어느 태사가 내 시를 거두어 줄까.[中宵拂劍長太息 耿耿此心空有期 揮毫大書匡州壁 太史何人收我詩]"('次圃隱中秋韻', 문집 권 1)라고까지 하였다. 학봉은 자기의 견해를 '수유(豎儒)의 광언(狂言)'이라서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학봉은 정통 유학(正統儒學)의 연원 속에 위치하고 있는 분이면서도 당시의 일반 성리학자들과 같이 형이상적(形而上的)·사변적(思辨的) 학문으로 현실과 유리된 관념론을 일삼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음을 여기에서 넉넉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다음의 글들을 살펴본다.

해사록(海槎錄)	문집 권 2	문집 권 5
	문집 권 6	속집 권 1
	일고 권 1	
차(箚)·소(疏)·장(狀)·공이(公移)·초유문(招諭文)	문집 권 3, 차	문집 권 3, 장
	속집 권 2, 소	속집 권 3, 장·공이
	문집 권 3, 초유문	

《해사록(海槎錄)》은 학봉이 53 세 때(1590 년)에 일본 통신부사(日本通信副使)로 건너가 왕환중(往還中)의 시(詩)·서간(書簡) 및 잡저(雜著)들을 모은 것이고, 차(箚)·소(疏)·장(狀)·공이(公移)·초유문(招諭文)들은 학봉이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정부에 건의한 상주문(上奏文)과 지방 장병(地方將兵) 및 민중들에게 보낸 통보(通報) 및 격려문(激勵文)을 엮어 놓은 것이다.

《해사록(海槎錄)》은 학봉의 일본 사행 기간 내지 귀국 후에 있어서의 학봉의 대일본 외교(對日本外交)에 관한 자세 및 그 주장을 잘 이해시켜 줄 뿐아니라 당시 한일(韓日) 양국의 관계를 알아 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주는 문헌이라 하겠다.

풍신수길(豐臣秀吉)의 지배하에 있는 당시 일본인들의 우리나라에 대한 태도는 교사(巧詐)·오만·무례가 한두 가지에 그치지 않았다.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로 위장한 한 떼의 무리들이 우리 사절단을 일본으로 안내하면서 처음 대마도(對馬島)에서부터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하여, 일본 경도(京都)에 이르러서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진작 우리 국서(國書)를 받지도 않게 하였고, 그 뒤 사신을 만나 국서(國書)를 받은 후에는 답장도 주지 않은 채 사신들을 계빈(堺濱)에 물러가서 기다리게 하는 등 국제적 예의를 전연 고려조차 하지 않다가, 마침내 답장이라고 보내 온 것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한 용어를 마치 속국에 대한 것처럼 격을 낮추어 사용하여 그야말로 언어도단의 행패를 부려 놓았다. 이때 상사(上使) 황윤길(黃允吉)과 서장(書狀) 허성(許筬) 등은 처음부터 끝까지 타협적(妥協的)·고식적(姑息的) 미봉책(彌縫策)으로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여 필경 적에 대한 수순(隨順)·굴종(屈從)의 처지가 되고 말았지만, 학봉은 혼자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조국의 명예와 체통을 위해 가차없이 투쟁하였다.《해사록》속의 서(書)와 잡저(雜著) 부분에서 우리는 학봉의 사활적(死活的) 투쟁의 기록이 빠짐없이 들어 있음을 본다. 이제 그 대강을 추려 보면 아래와 같다.

답 황 상사 윤길(答黃上使允吉)(문집 권 5)

우리 사절단 일행이 대마도에 도착했을 때 일본 본토로부터 선위(宣慰 영접)를 위해 마중 나온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 종래 일본측 사자가 우리나라에 올 때에 우리 정부가 반드시 선위사(宣慰使)를 부산 동평관(東平館)까지 파견했던 것에 비하면 일본의 무례가 묵과될 수 없는 것이었다. 대마도에서는 처음 본토에서 이미 온다는 선성(先聲)이 있다고 속였고, 다음에는 박다(博多)까지 왔다고 속였고, 끝에 가서는 풍파에 막혀 못 오고 있다고 속였다. 이에 대하여 황윤길(黃允吉)이 저들의 영접을 기다리지 않고 일본 본토로 향발하려는 것을 학봉은 우리 국가의 위신을 위하여, 그리고 왜경(倭境)에 들어오면서부터 저들의 조종 속에 놀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여 강력히 반대했으나 황 상사(黃上使)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편지는 학봉이 황 상사에게 자기 의견을 간독(懇篤)하게 나타낸 것이다.

답 허 서장 성(答許書狀筬)(문집 권 5)

대마도 체류 중에 국분사(國分寺)로 초대를 받아 갔었다. 우리 사신들이 당상(堂上)에 앉아 있는데 이른바 일본국왕사(日本國王使)의 부관(副官) 종의지(宗義智 對馬島主의 아들)가 가마[轎]를 탄 채로 뜰을 지나 당상에 올랐다. 학봉은 그 무례함에 격분하며 황 상사(黃上使)에게 함께 퇴장할 것을 주장했으나 황 상사는 듣지 않았고 허 서장(許書狀)만이 학봉을 따라 일어서고 말았다. 우리 역관(譯官) 진세운(陳世雲)이 왜인(倭人)들에게 '부사(副使)가 몸이 불편하여 먼저 일어선 것'이라고 말하자, 학봉은 우리 역관이 바른말로써 왜인(倭人)에게 항의를 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짓말을 해가면서 왜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우리 사절단의 체모를 손상시키는 것이라 하여 왜인의 앞에서 진세운을 잡아다가 볼기를 쳤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종의지는 교활하게도 가마를 메고 온 자기 하인에게 책임을 지워 그 하인을 참수하여 우리에게 사죄하였다. 그런데 허 서장은 우리 역관의 볼기를 친 것이나 왜의 하인을 죽게 한 것이 모두 학봉의 지나친 고집에서 온 것이라 하여 비판하였다. 이 편지는 허 서장(許書狀)의 비판에 대한 학봉의 답서로서 왜(倭)의 하인의 죽음은 인도적 견지에서 동정을 금할 수 없으나 종의지의 사죄는 우리 국체의 존엄을 위하여 다행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겨우 대마도에 와서 겁을 먹고 굴욕을 감수하면 일본 본토에 가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갈 수 있겠느냐고 재삼 강조한 것이다.

부관청악설(副官請樂說)(문집 권 6)

우리 사절단 일행이 수길(秀吉)의 도읍에 도착하여 총견원(摠見院)에 머무른 지 몇 개월이 되었는데 일본측의 무성의로 우리 국서(國書)가 전달되지 못하였다. 이러할 즈음에 종의지(宗義智)가 우리 악공(樂工)과 악기(樂器)를 청하여 자기들의 연회에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학봉이 의연(毅然)히 거절하였다. 이 글

은 거절한 이유를 밝힌 것이다. 혹자(或者)가 '우리의 음악으로 의지(義智)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의지로 하여금 사사(使事 國書의 전달을 뜻함)를 빨리 진전시키게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하여, 학봉은 "외국에 온 사신이 왕명(王命)을 전달하지 못한 채 우리 음악으로 남을 기쁘게 하려는 것은 혼인 안 한 처녀가 남의 앞에 노래를 파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하였다.

객난설답상사(客難說答上使)(문집 권 6)

수길(秀吉)이 처음엔 동정(東征)을 핑계로, 다음에는 궁실 수리(宮室修理)를 핑계로 5 개월 동안 국서를 받지 않으매 황 상사(黃上使)는 수길이 장차 우리 사절을 일본에 오래 억류할 것이 아닌가고 두려워하여 그것을 면하고자 수길의 측근자에게 뇌물을 후하게 주려 하였다. 학봉은 우리 국위를 손상시키는 짓이라고 반대하고 이 글을 지어 상사에게 보였다.

여 허 서장(與許書狀)(문집 권 5)

우리 사절단이 수길을 만날 때 배례(拜禮)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절차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허 서장(許書狀)이 정하배(庭下拜)를 하려고 했음에 대하여 학봉은 영외배(楹外拜)를 주장하였다. 이 편지에 실린 학봉의 주장에 의하면, 수길은 일본 국왕(日本國王)이 아니고 우리와 동격인 인신(人臣)에 불과한데 우리가 정하배(庭下拜)를 할 경우 수길은 우리나라의 왕(王)과 대등해지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왕(王)은 일본 국왕과 대등한 지위가 될 수 없게 되므로, 이것은 우리 국체(國體)에 관계되는 중대사라고 하여 강력히 반대한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학봉의 주장이 관철되어 영외배(楹外拜)로 낙착되었다.

왜인예단지(倭人禮單志)(문집 권 6)

일본에 입국하여 처음 계빈(堺濱)의 인접사(引接寺)에 이르렀을 때 서해도(西海道) 어느 영주(領主)가 예단(禮單)을 보내 왔는데 그 서면(書面)에 '조선국사신내조(朝鮮國使臣來朝)'라는 문구가 있었다. 학봉은 뒤늦게 그것을 발견하고 '내조(來朝)' 두 글자를 용인할 수 없다고 하여 이미 하인들에게 나눠 먹인 음식들을 시장에서 사다가 왜인에게 반환하게 하였다. 황 상사와 허 서장은 이미 받아먹은 것을 어찌 돌려주겠느냐고 반대했으나 학봉이 역설하여 그대로 시행하였다. 왜사(倭使)는 자기들이 한문(漢文)을 잘 몰라서 실수한 것이라고 사죄하고 문구를 다시 쓰는 조건으로 양해를 빌었다. 얼마 후에 비전주(肥前州) 원구성(源久成) 등의 예단에 또 '내조(來朝)'라는 문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이 알려져서, 학봉은 전번(前番)의 상사의 태도가 엄정(嚴正)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런 굴욕을 당한 것이라고 말하고, 그 예단을 물리치자고 했으나 상사가 끝내 듣지 않았다. 이 글은 학봉이 자기의 견해를 밝혀 놓은 것이다.

조선국연혁고이(朝鮮國沿革考異) 및 풍속고이(風俗考異)(문집 권 6)

일본승(日本僧) 종진(宗陳 자는 古溪, 호는 蒲庵, 京都 大德寺 제 117 대 주지, 1561~1619)이 《대명일통지(大明一統志)》에 실린 아국연혁(我國沿革) 및 풍속조(風俗條)를 가지고 와서 묻는 것을 학봉이 축조(逐條) 해설한 것으로 우리나라 역사·문화에 대한 중국인들의 온갖 잘못된 기사들을 명쾌하게 지적하고 변파(辨破)한 것이다. 사대주의가 체질화된 조선조 사회에 있어서 학봉은 중국인들의 대국주의적(大國主義的) 의식(意識)에 의한 각종 두찬(杜撰)들을 하나하나 비판하면서 확고한 주체적 입장에서 우리 민족 역사의 정통성과 문화 예속(文化禮俗)의 우수성을 외국인에게 올바로 이해시키려 하였다. 학봉은 한 걸음 나아가 종진(宗陳)에게, 우리나라의 경우로 미루어 보아 일본에 관한 중국의 기록 또한 부실(不實)한 것이 많을 것이니 그것을 적어서 보여 주면 우리의 일본 인식(日本認識)을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리

는 여기에서 학봉의 겸허한 학자적 태도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다 같이 중국 문화권에 속해 있는 두 나라가 중국적 사고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각기 민족 문화의 독자성을 존중해 주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답 현소(答玄蘇)(문집 권 5)

풍신수길이 답장으로 보내 온 국서에서 우리나라의 왕(王)을 '각하(閣下)'라고 부르고 예폐(禮幣)를 '방물(方物)'이라고 했을 뿐 아니라 '한번 뛰어 명 나라에 들어간다.[一招直入大明國]', '귀국이 앞장서서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貴國先驅入朝]'는 등 해괴한 문구들을 나열해 놓았다. 이 편지는 학봉이 이른바 일본 국왕사(日本國王使)의 상사(上使)인 현소(玄蘇 博多聖福寺의 중 景轍)에게 일일이 따져서 그 개찬(改撰)을 요구한 것이다. 학봉의 이 편지는 격분을 억누르고 한 구절 한 구절 성실하게 설득조로 일관되었다. 학봉은 어디까지나 두 나라의 평화적(平和的) 우의(友誼)의 지속을 위해 선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저들도 감동하여 '각하(閣下)', '방물(方物)' 등 용어는 고쳐 썼으나 다른 것은 손을 대지 않으려 하였다. 학봉은 재차 현소(玄蘇)에게 편지를 보내었으나 저들이 듣지 않았다.

여 황 상사(與黃上使)(문집 권 5)

풍신수길의 국서에 대하여 황 상사는 처음부터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였고, 뒤에 몇 자만을 고쳐 온 현소(玄蘇)의 기만적인 문구 해석을 알면서 그대로 따르려고 하였다. 이 편지는 학봉이 통분을 금할 수 없어 황 상사에게 항의를 하는 동시에 그를 설득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황 상사는 결국 학봉의 주장을 외면해 버리고 그 굴욕적인 일본 국서를 그대로 가지고 귀국하였다.

위에서 보아 온 바와 같이 당시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측의 태도는 시종 불성실하고 비예의적(非禮義的)이었으며, 그 국서라는 것은 문사(文辭)가 제대로 다듬어지지도 못한 데다가 내용마저 저돌적이며 공갈 협박조에 차 있어서 실로 아연할 지경이었다. 그런데 황 상사를 위시한 우리 사절단 일행은 처음부터 호랑이 굴에 들어간 기분으로 매사에 일본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오직 무사 생환(無事生還)을 바라는 심정이었다. 이에 대하여 학봉은 바다를 건널 때에 이미 박제상(朴堤上)이 될 것을 각오하고 왔기 때문에(金允安의 '奉日本時贈行詩小註', 문집부록 권 4) 추호의 굽힘이 없었다. 그러나 학봉은 끝까지 일본에 대하여 '교린지도(交隣之道)' 즉 국제 도의를 중시하려 하였고, 일본인과의 왕복 서한(往復書翰)에도 한 번도 과격한 표현을 쓴 적이 없이 오직 예절과 성의를 다했던 것이다. '언충신(言忠信) 행독경(行篤敬)'을 그대로 다한 학봉이었건만 상대편의 반응은 저와 같을 뿐이니 어찌 유감스럽지 않으랴! 그러나 우리는 일본을 탓하기 전에 우리 사절단 자체의 의견 대립에서 오는 감정의 갈등을 더욱 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황 상사와 허 서장이 도처에서 학봉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자 학봉은 필경 더 이상 국가적 수치를 참을 수 없어 일본 체류중(滯留中)에 이미 황 상사에게 "뒷날 만약 후회될 일이 있을 때, 내가 충고하지 않았다고 핑계하지 말라."('여 황 상사', 문집 권 5)고 하여 심주(深誅)를 가하였고, 허 서장에게는 "오늘 이후부터는 각기 들은 바대로 추종하고, 각기 아는 바대로 행하는 것이 좋겠다."('여 허 서장', 문집 권 5)라고 하여 서로의 협의조차 불필요함을 말하였다. 일본인에게 겁을 집어먹고 오직 수순(隨順)·굴종(屈從)만 해 왔던 황 상사는 일본을 떠나자, 마치 호랑이굴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정신을 진정할 틈도 없이,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조정에 치계(馳啓)하여 일본이 곧 침입할 것이라 하였고 서울에 와서도 그것을 되풀이하였다. 학봉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다. 그것은 대체로 세 가지 이유에서였다. ① 인심이 극도로 해이해진 당시에 있어서 황 상사의 허겁지겁한 보고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어 장차 수습하기 어려운 사태를 초래할 염려가 있으며, ② 일본이 즉시 쳐들어온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며, ③ 또 이와 같이 조야(朝野)를 공동(恐動)시킴으로써 일본 사행 중의 대표 책임자로서 광겁실체(恇怯失體)한 자기의 과오들을 엄폐(掩蔽)하려는 황 상사의 행위에 부동(浮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봉은 일본이 꼭 침입하지 않으리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을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에게 말하였고,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과의 대화에서도 일본을 두고 깊이 걱정한 바 있었다. 그리고 학봉은 일본 침입 직전 경상 우도 병사(慶尙右道兵使)로 발령되었을 때 유생 출신(儒生出身)으로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그날로 부임하여 전방(前方)의 방어를 맡았다. 우리는 이것만으로서도 족히 그 평소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시의 세론(世論)은 물론, 지금까지도 사실을 명백히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학봉이 당파적(黨派的) 심리(心理)로 황 상사의 일본침입설을 무조건 부정하여 결과적으로 국가 방위 태세를 이완(弛緩)시켰고 따라서 임진왜란에 그와 같은 민족적 피해를 입혔다고 말한다. 이와 같이 임진왜란에 있어서의 무방비 상태와 그 피해를 모두 학봉에게 책임지우려는 견해는 천만부당한 것이다. 난(亂)이 발발하기 전에 이미 대일본 관계가 미묘하게 되어 조야(朝野)가 불안한 공기에 싸여 있었는데 적의 침입이 있건 없건 군신 상하가 일치 협력하여 국난 극복에 만전을 기해야 했거늘, 무능하고 타성적인 관료들은 내정을 개혁함이 전혀 없고 오직 무계획한 성지(城池)의 역(役)만 일으켜서 민생을 더욱 도탄에 빠뜨리고 국방의 실(實)은 거둘 수 없게 해 놓았다가, 마침내 화를 당한 후에 이것은 김모(金某)의 잘못에서 연유한 것이라 하여 자기들의 발뺌을 꾀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로 학봉의 반대 당에 속한 사람들이며 후세(後世) 인사(人士)들 가운데서도 어떤 선입견에 사로잡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부언(浮言)에 뇌동(雷同)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민족의 양식(良識)은 어느 시대에도 살아 있는 것이어서 학봉에 대한 공론이 또한 건재하였다. 동인(東人)의 후예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서인(西人) 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러하였다. 택당(澤堂) 이식(李植 1584~1647)은 그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의 해사록 발(海槎錄跋)(문집 권 5)에 "왜란이 처음 일어날 조짐을 보일 때에 조야(朝野)에서 의심하고 염려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우리 쪽에서 사신을 파견한 것은 우선 저들의 요청을 들어 주고 저들의 형세를 엿보기 위함이며 깊이 서로를 믿고 교분을 두텁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저들은 바야흐로 업신여기고 사나운 쪽으로 방향을 돌려 온갖 형태로 날뛰었다. 동행한 여러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지조가 흔들리니 저들은 점점 더욱 우리를 깔보았다. 선생은 일개 부사(副使)로서, 그사이에 꿋꿋하게 서서 결연하게 예(禮)로써 자신을 지켰다. 격분하지도 않고 꺾이지도 않았으며, 도리어 저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넋을 잃어버리게 하여 스스로 자기들의 종을 죽여서 사죄함을 보이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당시 일행 가운데는 오직 선생만을 의지하였을 뿐이다. 우리나라로 돌아와 보고함에 이르러 동행한 사신들은 저들에게 유순하고 나약하게 대처한 치욕을 호도하기 위하여 적정(敵情)을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선생은 그들과 더불어 논란하다가 말이 좀 지나쳐, 드디어 책잡힌 것이다. 요컨대 적(敵)의 실정에 대해 모두 밝지 못했기 때문이고 조정이 애당초 선생의 말씀을 받아들여 방비를 철수하고 도적을 불러들인 것이 아닌 이상 그 형세가 기울고 사정이 긴박하여 미처 조처할 겨를이 없어서였지, 그것이 선생의 허물은 아닌 것이다."라고 하여, 그는 학봉의 일본 체류 중의 자세를 높이 평가하고 귀국 시에 있어서 황 상사의 자기 보호를 위한 장황한 보고를 꺾어 바로잡으려는 학봉의 경직성이 본의 아니게 말씀이 지나쳤음을 시인하면서도 당시 정부가 처음부터 그의 말로 인하여 방비를 철수했거나 적을 불러들이게 되었던 것이 아닌 이상, 난의 발발에 대하여 미처 손을 쓸 수도 없었던 것은 당시 형세의 소치이지 학봉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식은 다시 학봉이 후세(後世)의 대일관계(對日關係)에 끼친 영향을 들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들은 우리의 좋은 품성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성교(聲敎)를 사모하여, 다시는 지난날의 함부로 날뛰며 능멸하고 깔보는 짓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 우리 사신들은 모두 선생의 행적(行迹)으로 표준을 삼았다. 비록 인품

이 혹 선생에게는 미치지는 못하지만 이에 국명(國命)을 욕되게 함에 이르지 않은 것은 한결같이 여기에 연유한 것이다. 선생께서 '한 나라는 한 사람으로써 중하게 되고, 한 사람은 한마디 말로써 중하게 된다.' 고 하셨으니, 더욱 믿을 만한다. 아! 군자(君子)는 정도(正道)에 거(居)하면서 그 의리를 바르게 할 뿐이다. 성패(成敗)와 이둔(利鈍)은 미리 예측해 볼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효과는 이에 멀고 오랜 뒤에 나타나는 것이니, 이 어찌 한번의 계교(計較)로 능히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즉 학봉의 사환(使還) 이후 우리나라 사신에 대한 일본의 버릇이 많이 고쳐졌고 일본에 가는 우리 사신들은 모두 학봉으로 표준을 삼아 국가 위신을 떨어뜨림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학자들만이 아니라 일본의 문적(文籍)이나 일본 식자층의 수작을 보면 피지(彼地)에서 또한 성기상감(聲氣相感)으로 소견을 같이하고 있음을 알겠다. 1763 년 우리 사행의 한 수행원으로 갔던 조상관(趙相觀)에게 일본인 도국흥(陶國興)이 보내 온 서한(문집부록 권 4)의 내용은 그 좋은 예이다.

임진왜란 발발 이후 학봉의 구국 활동은 차(箚)・장(狀)・소(疏)・공이(公移)・초유문(招諭文) 등에 잘 나타나 있다. 이제 다시 그 대강을 추려 보기로 한다.

학봉은 1591 년 2 월에 일본에서 귀국하여 1592 년 4 월, 난이 발발하기까지 약 1 년 동안에 국왕에게 여러 차례 소차(疏箚)를 올렸다. 그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청우재수성차(請遇災修省箚)(문집 권 3)
홍문관 제이차(弘文館第二箚)(속집 권 3)
청정축성 잉진시폐차(請停築城仍陳時弊箚)(문집 권 3)

이 차(箚)들은 모두 당시의 난마처럼 엉망으로 되어 있는 군정(軍政)・민정(民政)에 대하여 조목조목 열거하면서 그 실상과 병폐의 근원을 하나하나 척결하고 나아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민중의 편에 서 있는 학봉의 사상은 민중의 생활을 파멸로 몰아넣은 당시의 공부(貢賦)・군역(軍役) 등 국가적 수탈의 무질서와 방납(防納) 등을 빙자한 관리・토호들의 침어(侵漁)의 비인도성(非人道性)에 대하여 구구절절 뼈에서 우러나온 애통과 분노로 엮어져 있다. 학봉은 외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과감하게 내정을 개혁하여 민중의 생활을 안정시킴이 급선무임을 애타게 주장한 것이다. 그리하여 학봉은 당시 각 지방의 성지(城池)의 축조, 특히 내륙 쪽의 신규의 축성(築城)을 반대하였다. 내정의 개혁이 전혀 없이, 도리어 부역(賦役)의 무거운 부담과 불규칙한 동원으로 민중의 원고(怨苦)만을 증대시켜 장차 적이 오기도 전에 먼저 토붕와해(土崩瓦解)할 염려가 있겠으며 따라서 금성탕지(金城湯池)가 소용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과연 학봉의 예견과 같이 난의 발발과 더불어 우리의 전방(前方)에서는 적과 대전하기도 전에 성지(城池)를 버리고 달아나서 적에게 그대로 넘겨 준 군현(郡縣)들이 많았다. 적은 무인지경에 조수처럼 밀려 들어오고 조국의 형세는 걷잡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시기에 학봉은 경상 우도 초유사(慶尙右道招諭使) 또는 감사(監司)로서 적이 범람하는 전방에 간관구치(間關驅馳)하면서 자신의 몸과 집을 돌보지 않고 일편단심(一片丹心)으로 오직 국사에 온 힘을 다해 국토 수복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크나큰 공헌을 남겨 놓고 자신은 전쟁 와중에 일생을 마치고 말았다. 이 시기의 자료로서 먼저 아래의 글들을 들 수 있다.

초유일도사민문(招諭一道士民文)(문집 권 3)
통유현풍사민문(通諭玄風士民文)(문집 권 3)

여기에서 우리가 특기할 것은 학봉이 초유사로 활동할 때에 관군(官軍)에 의존할 계획을 취하지 않고 지방 민중에 대하여 의병(義兵)으로 일어날 것을 호소한 것이다. 정부도 관청도 의뢰할 데 없이 산곡(山谷)으로 분산 도망하여 적을 피해 다니던 지방 민중들에게 학봉은 누구보다 먼저 호흡을 통하고 결속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물론 민중들 스스로가 이때 이미 적에 저항하려는 에너지의 축적이 되어 있었지만 학봉이 단신(單身)으로 적의 전면에 버티고 서서 '조국을 구하자'라는 의미로 부르짖을 때 민중들은 감격과 분발로 집결되었던 것이다.

신구곽재우장(申救郭再祐狀)(문집 권 3)

이 장계(狀啓)는 당시 훌륭한 의병 지도자인 곽재우(郭再祐)가 관료층의 중상으로 곤경에 처한 것을 학봉이 적극적으로 신구(申救)한 것이다. 당시 관료층들은 이 의용스러운 민중의 활동에 대하여 불안과 시기를 품고 항상 방해 압박을 가해 왔는데, 특히 곽재우는 나라와 겨레를 저버리고 도망을 일삼는 관료층의 죄상을 민중과 더불어 성토하고 있었으므로 감사(監司) 김수(金睟), 병사(兵使) 조대곤(曺大坤) 무리에게 '역적'으로 몰리어 국왕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반면, 민중들로부터는 '구국(救國)의 영웅(英雄)'으로 구가(謳歌)되었다. 이에 대하여 학봉은 항상 민중의 입장, 즉 의병의 입장을 옹호하였다. 학봉의 옹호가 없었던들 의병 운동은 그 출발 당초부터 궁지에 빠졌을 것이며 그들의 빛나는 성과에도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이다. '좌감사시장(左監司時狀)'(속집 권 3), '우감사시장(右監司時狀)'(속집 권 3)은 각 지방의 의병과 관군 사이의 알력이 심했던 것과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학봉의 고심참담(苦心慘憺)한 노력을 보인 것이다.

치계진주수성승첩장(馳啓晉州守城勝捷狀)(속집 권 3)

이 장계는 학봉이 감사로서 진주성(晉州城)의 승리를 국왕에게 보고한 것이다. 일본군이 한때 그와 같이 신속하게 우리 국토를 유린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나라 내부 사정에 주원인이 있겠지만 일본 군대가 가지고 있었던 신식화기(新式火器 鳥銃)가 큰 역할을 했던 것이다. 포르투갈인으로부터 제공받아 풍신수길의 일본 통일에 큰 도움이 되었던 이 신식 화기는 풍신수길의 군대로 하여금 당시 동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정예로운 최신식 군대가 되게 하였다. 그러나 전쟁이 개시된 지 4, 5 개월경에는 학봉의 고동(鼓動)과 격려하에 영남 일대(嶺南一帶)의 의병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한편, 학봉의 감사(監司)로서의 지위는 의병과 관군의 합작에 의한 전략적(戰略的) 성장(成長)과 민족적(民族的) 통일항전체제(統一抗戰體制)의 진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해 10 월 진주성의 공방전(攻防戰)에 이르러서는 신식 화기의 위력을 초월한 조선 민중(朝鮮民衆)의 뿌리 강한 저항을 보여 주었던 것이다.

셋째로 다음의 사적기(事蹟記)를 살펴본다.

용사사적(龍蛇事蹟)(일고부록 권 2)

일명 '문수지(文殊志)'라고도 하는 이 글은 난중에 학봉의 막하에서 시종 충실한 보좌를 하고 있었던 송암(松巖) 이노(李魯)의 필기(筆記)로서 학봉의 구국 활동의 시말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다. 당시 학봉의 지위는 일방(一方)의 도주(道主)가 되어 있었으나 대란(大亂) 속에 정부로부터의 지원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 통신 연락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적병이 가득한 경내에서 전쟁의 기동적(機動的) 대책(對策)을 잠시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데다가 호번(浩煩)한 군량(軍糧)의 조달, 광범한 기민(飢民)의 구제 등 백천 가지 일을 오직 자력으로 해결해야 하는 형언할 수 없는 곤란과 노고를 한 몸에 짊어지고 조국과 동포

를 위한 우심초사(憂心焦思)로 밤낮을 보내다가, 마침내 병을 얻어 56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 거룩한 모습이 전후(前後)에 걸쳐 잘 그려져 있다. 4 백 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는 이 '용사사적(龍蛇事績)'의 마지막 장면을 읽으면서 옷깃에 젖는 감격의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다.

위대한 민족의 수난기(受難期)에 있어서 의병 운동을 통한 수많은 '민중의 영웅'이 산출(産出)되었고 이 영웅의 산출을 위한 의병의 아버지로서 우리는 학봉을 길이길이 숭배하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원래 학봉의 문집 6 권은 1649 년(인조 27)에, 그리고 속집 5 권은 1782 년(정조 6)에 모두 목판으로 간행되었고 나머지 문집부록 4 권은 1851 년(철종 2)에 원(元)・속집(續集)을 임천서원(臨川書院)에서 중간(重刊)하면서 처음으로 편제(編第)에 넣어 같이 출판한 것이다.

그런데 1918 년경에 일본 경찰은 어떤 사단(事端)으로 영남 일대에 반포되어 있던 학봉의 문집을 모두 압수하여 배일 서적(排日書籍)이란 이유로 수백 질(數百帙)의 책을 안동경찰서 마당에서 불살라 버렸고 임천서원, 즉 학봉의 향원(享院 경북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문집 장판각(藏板閣)의 문을 봉쇄하여 영구히 찍어 낼 수 없게 하였다. 이리하여 학봉의 문집은 8・15 의 민족해방과 더불어 햇빛을 보게 되었으나 그동안 불안정한 세태와 물정으로 아직 그 보급이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번에 본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이《학봉전집》을 내게 된 것은 우리 학계를 위하여 동경(同慶)의 마음 금할 수 없다. 특히 이 국역본으로 온 나라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게 됨으로써 학봉에 대한 정당한 이해(理解)가 널리 일반화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것을 계기로 학봉의 심사(心事)가 청천백일(靑天白日)과 같이 드러나는 동시에 그 애민(愛民)・애국(愛國)의 지성(至誠)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정신 자원으로 역사를 추진하는 저력(底力)이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성일(金誠一)

정의

조선시대 통신부사, 경상우도병마절도사, 경상우도순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 학자.

개설

경상북도 안동 출신.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사순(士純), 호는 학봉(鶴峰). 아버지는 김진(金璡)이며, 어머니는 여흥 민씨(驪興閔氏)이다. 이황(李滉)의 문인이다.

일본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와 일본이 침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여 왜란 초에 파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시 경상도초유사로 임명되어 왜란 초기에 피폐해진 경상도 지역의 행정을 바로 세우고 민심을 안정 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1556 년(명종 11) 동생 김복일(金復一)과 함께 도산(陶山)으로 이황을 찾아가『서경』·『역학계몽(易學啓蒙)』·『심경』·『대학의의(大學疑義)』 등을 익혔으며, 1564 년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서 수학하였다. 그 후 다시

도산에 돌아와 이황에게서 수학하고, 그로부터 요순(堯舜) 이래 성현이 전한 심법을 적은 병명(屛銘)을 받았다.

1568 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권지부정자가 되고, 이듬 해 정자가 되었으며, 이어서 검열·대교 등을 거쳤다. 1572 년 봉교(奉敎)가 되어 노산묘(魯山墓)를 *노릉(魯陵)*[주 01]으로 봉축하고, 사육신의 관작을 회복시켜 그들의 후손을 채용할 것을 진언했으며, 임금의 덕과 당시의 잘못된 폐단에 대하여 논했다.

이듬 해 전적과 형조·예조의 좌랑을 거쳐 정언(正言)이 되었고, 이어 홍문관수찬으로 지제교·경연검토관·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다. 1574 년 부수찬을 거친 후 정언의 신분으로 변장(邊將)에게 초피덧저고리[貂裘]를 받은 우의정 노수신(盧守愼)을 탄핵하였다.

이듬 해 이조·병조의 좌랑을 역임하고, *사가독서(賜暇讀書)*[주 02]하였다. 1577 년 사은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파견되어 종계변무(宗系辨誣)를 위해 노력했으며, 돌아와 이듬 해 홍문관교리가 되고, 이어서 장령·검상·사인 등을 역임하였다.

1580 년 함경도순무어사(咸鏡道巡撫御史)로 함흥·삼수·길주·종성 등을 살피고 돌아와, 변장의 직무에 충실한 혜산첨사 김수(金燧)를 당상관에 승품하고, 영건만호(永建萬戶) 우응장(禹應長)과 정현룡(鄭見龍)·김광옥(金光玉) 등을 선전관(宣傳官)에 기용할 것을 건의하였다. 1583 년 사간이 되고, 이어서 황해도 순무어사로 다녀와 군기관리(軍器管理)를 소홀히 하고 창곡(倉穀)을 부실하게 한 황주목사 윤인함(尹仁涵)의 파직을 건의하였다.

이듬 해 나주목사로 부임하여 민원 처리에 노력하고, 오랫동안 끌어온 임씨(林氏)·나씨(羅氏) 사이의 송사(訟事)를 해결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또한 이곳 금성산(錦城山) 기슭에 대곡서원(大谷書院)을 세워 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조광조(趙光祖)·이언적(李彦迪)·이황 등을 제향하고, 선비들을 학문에 전념하게 하였다.

1586 년 나주 사직단(社稷壇)의 화재에 책임을 지고 사직하고, 고향에 돌아와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자성록(自省錄)』·『퇴계집』 등을 편집·간행하였다. 1588 년 종부시첨정에 이어 봉상시정·경기추쇄경차관(京畿推刷敬差官)·예빈시정·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1590 년 통신부사(通信副使)로 일본에 파견되었는데, 이듬 해 돌아와 일본의 국정을 보고할 때 "왜가 반드시 침입할 것"이라는 정사(正使) 황윤길(黃允吉)과는 달리 민심이 흉흉할 것을 우려해 왜가 군사를 일으킬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고 상반된 견해를 밝혔다. 그 해 부호군에 이어 대사성이 되어 승문원 부제조를 겸했고, 홍문관부제학을 역임하였다.

1592 년 형조참의를 거쳐 경상우도병마절도사로 재직하던 중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전의 보고에 대한 책임으로 파직되었다. 서울로 소환되던 중, 허물을 씻고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간청하는 유성룡(柳成龍) 등의 변호로 직산(稷山)에서 경상우도초유사로 임명되어 다시 경상도로 향하였다.

의병장 곽재우(郭再祐)를 도와 의병활동을 고무하였고, 함양·산음(山陰)·단성·삼가(三嘉)·거창·합천 등지를 돌며 의병을 규합하였으며, 각 고을에 *소모관(召募官)*[주 03]을 보내 의병을 모았다. 또한 관군과 의병 사이를 조화시켜 전투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 해 8 월 경상좌도관찰사에 임명되었다가 곧 우도관찰사로 다시 돌아와 의병규합과 군량미확보에 전념하였다. 또한 진주목사 김시민(金時敏)으로 하여금 의병장들과 협력하여 왜군의 침입으로부터 진주성을 보전하게 하였다. 1593 년 경상우도순찰사를 겸해 도내 각 고을에 왜군에 대한 항전을 독려하다 병으로 죽었다.

정치적으로 김성일은 동인(東人)에 가담하였고, 1590 년 정여립(鄭汝立)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옥사한 최영경(崔永慶)의 신원(伸寃)을 위하여 서인(西人)의 영수 정철(鄭澈)을 규탄하였으며, 그 후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릴 때 유성룡·김우옹(金宇顒) 등과 입장을 같이하여 남인을 이루었다.

학문세계와 저서

학문적으로 김성일은 이황의 수제자로 성리학에 조예가 깊었다. 김성일은 주리론(主理論)을 계승하여 영남학파의 중추 구실을 했으며, 김성일의 학통은 장흥효(張興孝)-이현일(李玄逸)-이재(李栽)-이상정(李象靖)으로 전해졌다.

예학(禮學)에도 밝아 아버지의 상을 당해서는 모든 예절을『가례(家禮)』에 따라 행했으며,『두씨통전(杜氏通典)』·『구씨의절(丘氏儀節)』·『향교예집(鄕校禮輯)』 등을 참고하여『상례고증(喪禮考證)』을 지었다. 그 밖의 저서로는『해사록(海槎錄)』 등이 있으며, 1649 년(인조 27)『학봉집(鶴峰集)』이 간행되었다.

상훈과 추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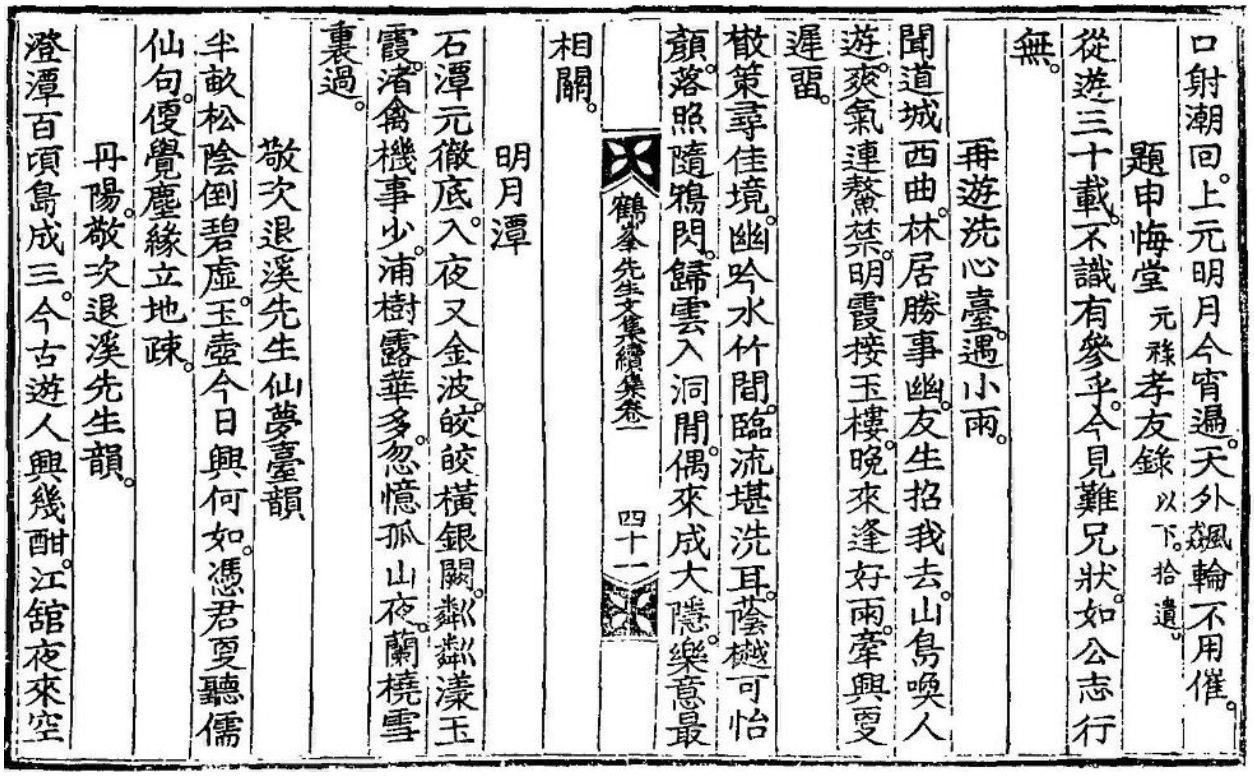
1664 년(현종 5) 신도비가 세워졌고, 안동의 호계서원(虎溪書院)·사빈서원(泗濱書院), 영양의 영산서원(英山書院), 의성의 빙계서원(氷溪書院), 하동의 영계서원(永溪書院), 청송의 송학서원(松鶴書院), 나주의 경현서원(景賢書院) 등에 제향되었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충(文忠)이다.

학봉속집 제 1 권 / 시(詩)

신회당(申悔堂) 원록(元祿) 의《효우록(孝友錄)》에 제하다. 이하는 습유(拾遺)이다.

從遊三十載。不識有參乎。今見難兄狀。如公志行無。

종유한 지 삼십 년이 되었건마는 / 從遊三十載
삼호가 있는 줄을 내 몰랐었네 / 不識有參乎
지금 와서 어진 형이 한 일을 보니 / 今見難兄狀
뜻과 행실 형과 같은 사람이 없네 / 如公志行無


口射潮回。上元明月今宵遍。天外飆輪不用催。

題申悔堂 元祿孝友錄 以下。拾遺。

從遊三十載。不識有參乎。今見難兄狀。如公志行無。

再遊洗心臺。遇小雨。

聞道城西曲。林居勝事幽。友生招我去。山鳥喚人遊。爽氣連鰲禁。明霞接玉樓。晚來逢好雨。牽興更遲留。

散策尋佳境。幽吟水竹間。臨流堪洗耳。蔭檜可怡顏。落照隨鴉閃。歸雲入洞閒。偶來成大隱。樂意最相關。

鶴峯先生文集續集卷一 四十二

明月潭

石潭元徹底。入夜又金波。皎皎橫銀闕。粼粼漾玉霞。渚禽機事少。浦樹露華多。忽憶孤山夜。蘭橈雪裏過。

敬次退溪先生仙夢臺韻

半畝松陰倒碧虛。玉壺今日興何如。憑君更聽儒仙句。便覺塵緣立地疎。

丹陽敬次退溪先生韻

澄潭百頃島成三。今古遊人興幾酣。江館夜來空

鶴峯集 續集 卷一

부록 제 4 권 / [제문(祭文)]

제문(祭文) [신지제(申之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嗚呼。公之生於世也。五十有六年。前無愧而後無怍。立身行事。皎如靑天白日。有非死生榮辱之能奪。忠信篤敬。不離乎身。而行於蠻貊。危難傾覆。不變其節。而期於恢復。嗚呼。五月渡瀘之諸葛。出師未捷。而星隕何亟。三呼過河之宗澤。有志未就。而天奪何速。時耶命耶。伊公又至於斯耶。蓋斯世之無祿。嗚呼。丈夫如是而生。如是而死。亦可謂能事旣畢。至於成敗利鈍。不在我者。豈足以論公之事業。想有中正剛大之氣。在天爲星斗。在地爲山嶽。 亘宇宙而不滅。嗚呼。吾人之不肖無狀。往來於門下者。亦旣有年。仰高山而敬服。風埃顚倒。以至於今日之不幸。獨倀倀兮誰託。爲公私而慟哭。冀遺靈之來格。嗚呼哀哉。

아, 공께서 이 세상에 사신 것이 56년인데, 살아서는 후회할 것이 없었고, 죽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었다. 입신(立身)하고 행사(行事)함에 있어 밝기가 청천백일과 같아서 사생(死生)과 영욕(榮辱)으로 빼앗을 수 없는 바가 있었다. 충신(忠信)과 독경(篤敬)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 오랑캐 땅에서도 행해졌고, 위태로워 무너지는 즈음에도 절개를 변치 않아서 나라를 회복하기를 기약하였다.

아, 5월에 노하(瀘河)를 건넜던 제갈량(諸葛亮)이 군대를 출동하여 승리하기도 전에 별이 떨어졌으니 어찌 그리 빨랐단 말인가. 그리고 강을 건너라고 세 번 외친 종택(宗澤)이 품은 뜻을 이루지도 못하였는데 하늘이 목숨을 빼앗아 갔으니 어찌 그리 빨랐던가. 아, 시운 탓인가, 운명 탓인가. 공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인가. 이는 대개 이 세상 사람들이 복이 없는 것이니, 아, 애통하다.

대장부로 태어나서 이와 같이 살다가 이와 같이 죽었으니, 또한 능사(能事)를 이미 다했다고 할 수 있다. 성패(成敗)나 이둔(利鈍)에 이르면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니, 어찌 그것으로 공의 사업(事業)을 논할 수 있겠는가. 생각건대 공께서는 중정(中正)하고 강대(剛大)한 기상이 있는바, 하늘에서는 북두성이 되고 땅에서는 태산이 되어 우주까지 뻗쳐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 나처럼 불초하고 형편없는 자도 공의 문하에 왕래한 것이 몇 년이나 되었는바, 높은 산처럼 우러르면서 경모하고 감복하였다. 그런데 풍진 세상에 어지러이 휩쓸리다가 오늘날의 불행에 이르게 되었으니, 홀로 서서 서성이면서 누구에게 의지할 것인가. 공(公)을 위해서나 사(私)를 위해서나 통곡하는 바이다. 바라건대 영혼께서는 오시어서 흠향하소서. 아, 애통하고 애통하다.

又 申之悌

嗚呼公之生於世也五十有六年前無愧而後無怍立身行事皎如青天白日有非死生榮辱之能奪忠信篤敬不離乎身而行於蠻貊危難傾覆不變其節而期於恢復嗚呼五月渡瀘之諸葛出師未捷而星隕何亟三呼過河之宗澤有志未就而天奪何速時耶命耶伊公又至於斯耶益斯世之無祿嗚呼丈夫如是而生如是而死亦可謂能事旣畢至於成敗利鈍不在我者豈足以論公之事業想有中正剛大之氣柱天爲星斗柱地爲山嶽亘宇宙而不滅嗚呼吾人之不省無狀往來於門下者亦旣有年仰高山而敬服風埃顚倒以至於今日之不幸獨悵悵兮誰託爲公私而慟哭冀遺靈之來格嗚呼哀哉

又 門人黃汝一

夫天地純剛正大之氣寓萬物周通豪爵而成昭乎日月不足以盡其明峯乎喬嶽不足以盡其靈奇乎麟鳳龜龍不足以盡其異精乎金玉琅玕不足以盡其貞其必惟人得其貞得其異得其靈明而爲忠爲孝爲貞亮爲骨鯁爲瑰奇絕特爲規矩

간송집(澗松集)

Ⅰ. 서언

《간송집(澗松集)》은, 조선 중기 경상도 함안(咸安)에서 활약하던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 1585~1664)의 시문집이다.

간송은, 남명(南冥) 서거 33 년 뒤인 1585 년(선조 18), 남명의 영향력이 큰 함안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먼저 퇴계(退溪)의 재전제자(再傳弟子)로부터 학문을 배워 강우지역(江右地域)의 대표적 학자로 성장하였다. 남명의 제자 가운데는 퇴계의 문하에도 아울러 출입한 제자들이 많이 있듯이, 남명을 사숙한 후학들 가운데도 퇴계학파의 영향을 직접 간접으로 받은 학자가 적지 않았는데, 간송은 퇴계학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학자다. 간송은 구체적인 교육은 주로 퇴계학파의 학자로부터 받았지만, 장성한 후에 학자로서 그가 활동한 지역은 남명학파의 본거지인 경상우도였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특징은, 남명학파와 퇴계학파의 장점을 자신의 한 몸에 거의 다 흡수하여, 두 학파의 관계를 융화시키려고 평생 열심히 노력한 점이다.

지금까지 간송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한 논문은 허권수(許捲洙)의 〈남명(南冥)·퇴계(退溪) 양학파(兩學派)의 융화를 위해 노력한 간송(澗松) 조임도(趙任道)〉 밖에 없다. 그 글에서는 간송의 생애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하고, 나아가 그의 학통과 사우관계, 학술사상,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융화를 위한 노력 등에 대해서 고명(考明)하였다.

이번에 《간송집》이 남명학연구소(南冥學硏究所) 연구원들의 노력으로 역주되는 것을 계기로 해제를 쓰면서, 이미 나와 있는 〈남명·퇴계 양학파의 융화를 위해 노력한 간송 조임도〉를 대대적으로 참고하고, 《간송집》의 간행경위와 책의 체재 내용에 대해서 첨가하여 글을 완성한다.

Ⅱ. 전기적 고찰

1. 생평

간송 조임도는 1585 년 함안군 검암리(劒巖里, 지금의 伽倻邑 儉巖里)에서 사도시 첨정(司導寺僉正) 입암(立巖) 조식(趙埴)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5 대조는 생육신의 한 사람인 어계(漁溪) 조려(趙旅)이다. 어계 조부 금은(琴隱) 조열(趙悅)이 고려 말기 공조 판서(工曹判書)의 관직을 버리고 함안에 낙향하여, 군북면(郡北面) 원북(院北) 마을 일대에 정착하여 산 뒤로부터 그 자손들은 대대로 함안에 많이 살게 되었고, 간송의 조부 때 다시 검암으로 옮겨 살았다.

간송은 8 세 때 임진왜란을 만나 아버지를 따라 고향을 떠나 합천(陜川)에 가서 피난하였다.

14 세 때는 정유재란을 만나 아버지를 따라 경북 청송으로 피난 갔다가, 다시 영주·봉화 등지로 옮겨 다녔다. 그 때 봉화에서 반천(槃泉) 김중청(金中淸)에게 배웠는데, 김중청은 월천(月川) 조목(趙穆)의 제자였다. 월천은 퇴계의 뛰어난 제자였으니, 이때부터 간송은 퇴계의 학통에 닿을 수 있었고, 이때부터 퇴계를 존모하기 시작했다.(〈墓碣銘〉, 《澗松別集》)

15 세 때 여름에는 반천을 따라, 퇴계가 공부하던 청량산에 들어가 독서하였다. 이해 겨울에 다시 의성으로 옮겨가 살았다.

16 세 때는 의성에 살던 두곡(杜谷) 고응척(高應陟)에게서 《대학》을 배웠는데, 두곡 역시 퇴계의 제자로 성리학에 깊은 조예가 있었다.

17 세(1601 년) 때 다시 인동으로 옮겨가 살았다. 간송의 아버지가 자주 이사를 다닌 이유는, 간송으로 하여금 문헌의 고을인 경상좌도 일대에서 두루 유학하여 간송의 학문을 폭넓게 만들어 주려는 의도 때문이었다. 이때 간송은 비로소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을 뵙고서 스승으로 삼았다. 그 때까지 간송의 이름은 기도(幾道)였는데, 여헌이 '기(幾)'자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으므로, 간송의 아버지는 아주 적극적인 뜻을 가진 '임(任)'자로 바꾸어 지었다. '유도(儒道)를 적극적으로 책임진다'는 의미였다.

19 세 때 검암으로 돌아와 곤지재(困知齋)를 짓고, 시냇가에 두 그루의 소나무를 심고서 '간송(澗松)'이라고 자호하였다. 그리고는 "시냇가의 소나무 사랑하나니, 날씨가 추워져도 그 모습 변치 않기 때문이라네.〔爲愛澗邊松, 天寒不改容.〕"라는 시를 지었으니, 소나무의 절조를 본받으려 한 것이었다.

20 세(1604) 때 향시에 합격하였고, 어버이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워 과거 공부를 계속하였다.

23 세 때 함안의 용화산(龍華山) 아래 배 위에서 한강(寒岡) 정구(鄭逑)를 뵈었다. 이때 한강은 배를 타고 함안 도흥(道興) 나루 부근의 물속에 담가두었던 비석 석재를 찾기 위해서 배를 타고 왔다. 낙동강과 남강의 합류지점인 용화산 아래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인근 고을의 많은 선비들을 찾아가 만났다. 이때 여헌 장현광과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 등도 함께 있었으므로, 간송은 부친의 안내로 이 분들에게도 인사를 드렸다.

이해 노파(蘆坡) 이흘(李屹)의 따님에게 장가들었다. 노파는 본래 남명의 제자인 내암(來庵) 정인홍(鄭仁弘)의 문인이었는데, 1613 년 계축옥사(癸丑獄事)로 인하여 정인홍과 노선을 달리하였다. 노파의 다른 사위가 성박(成鎛)인데, 성박은 부사(浮査) 성여신(成汝信)의 아들로 내암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다. 간송도 직접 간접으로 젊은 시절에는 내암과 관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27 세(1611 년) 때 정인홍이 퇴계의 문묘종사를 배척하였는데, 함안 사람 가운데서도 정인홍의 지시를 받아 퇴계를 공척(攻斥)하는 상소를 작성하기 위한 소회(疏會)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었고, 간송에게 참석을 강요하였다. 간송은 《맹자》의 〈방몽장(逢蒙章)〉을 인용하여 자신은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당시 정인홍의 세력이 대단하였으므로, 선비로서 자신의 지조를 잃지 않은 사람이 드물었다. 그런데도 간송은 참여하지 않으니, 당시 사람들이 천인벽립(千仞壁立)의 기상이 있다고 추앙하였다.

32 세 때 참된 학문을 하기 위해서, 과거를 완전히 포기하고 독서에 전념하였다.

34 세(1618 년) 때 폐모론(廢母論)이 일어나 조정의 6 품 이상의 관원들의 수의(收議)가 있었다. 간송은 신자(臣子)로서 대비(大妃)를 폐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이로 인하여 대북파(大北派) 세력들을 피하기 위해서 칠원현(漆原縣)의 내내(柰內)로 피신하여 상봉정(翔鳳亭)을 짓고 살았다.

43 세(1627 년) 때 정묘호란이 일어나자, 간송은 고을 사람들에 의해서 의병장으로 추대되었으나, 그 뒤 병으로 사퇴하고 말았다.

47 세 때 봉화로 가서 스승 반곡(盤谷) 김중청(金中淸)의 장례에 조문하고 돌아왔다. 돌아오는 길에 도산서원 상덕사(尙德祠)를 참배하였다. 이때 예안 안동 등지의 퇴계학파 학자들과 결교하여 교유의 폭을 넓혔다.

49 세(1633 년) 때 칠원현 내내에서 영산현(靈山縣) 용산(龍山) 마을로 옮겨 살았다. 강 건너 함안의 용화산 기슭에 합강정(合江亭)을 지어 독서와 영시(詠詩)로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였다.

50 세 때 추천을 받아 공릉 참봉(恭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때 여러 선비들의 추대로 김해 신산서원(新山書院)의 원장을 맡았다. 신산서원에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顒)을 배향하려고 노력하였는데, 여헌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53 세 때 남한산성을 지키지 못하고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북쪽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다. 이해 여헌의 부음을 듣고 설위(設位)하여 통곡하였다.

59 세 때 창원에 우거하고 있던 미수(眉叟) 허목(許穆)을 방문하였으나 만나지 못했다. 미수가 일찍이 용화산 청송사(靑松寺)로 간송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70 세 때는 의령 현감(宜寧縣監)으로 있던 동토(童土) 윤순거(尹舜擧)가 간송을 방문하였다. 돌아가 간송을 진유(眞儒)라 칭송하였다.

75 세(1659 년) 공조 좌랑(工曹佐郞)에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78 세 때 어사 남구만(南九萬)이 여러 선비들의 공론을 듣고 간송을 등용할 것을 계청(啓請)하였다. 조정에서 특별히 쌀과 콩을 내리자, 간송은 진사(陳謝)하는 소(疏)를 올려 규간(規諫)의 뜻을 14 개조로 개진하였다.

1664 년 80 세를 일기로 고종(考終)하자, 조정에서 미포(米布)로 부의를 내렸다. 함안의 아호(鵝湖) 선영의 동쪽에 안장하였다.

1666 년 사림들의 건의로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에 추증되었다. 1721 년 사림들이 함안군 송정리(松亭里)에 송정서원(松亭書院)을 건립하여 간송을 향사하였다.

간송은 평생 벼슬하지 않고 학문연구와 유림활동만 한 순수한 선비로서 일생을 보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진 결신(潔身)·장왕(長往)의 자세는 아니었고, 우국연민(憂國憐民)의 사상을 늘 확고하게 지닌, 적극적으로 현실에 참여한 선비였다. 이런 점은 남명의 일생과 아주 흡사하다고 하겠다.

2. 위인(爲人)

간송은 명리에 초탈하여 임하(林下)에서 평생 학문 연구에만 전념한 학자이다. 자기 손으로 자전(自傳)을 지어 자신의 기질과 면모를 객관화시켜 표현했다.

소탈하고 우활하고 뻣뻣하면서도 서툴러 세상과 맞는 것이 적었다. 일찍이 글을 일삼았지마는 이름을 이룬 것은 없었다. 어려서부터 특이한 정취가 있었는데, 번거롭고 시끄러운 것은 좋아하지 않았다. 매양 그윽한 샘물 기이한 돌 무성한 수풀 긴 대나무 등 깊숙하면서 고요한 곳을 만나면, 기뻐서 돌아올 줄 몰랐고, 그 속에서 띠풀로 오두막집을 짓고서 한 평생을 보냈으면 하는 소원이 있었다. 천성적으로 술을 좋아하나 주량이 적어 몇 잔만 마시면 곧 크게 취하여 즐겁게 천진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어 스스로 노래하여 그 가슴 속 생각을 읊어내었다. 비록 존귀하고 대단한 집안의 세력의 불길이 하늘에 닿을 정도라도 아첨하거나 굽히지 않았다. 홀아비나 과부, 자식 없는 늙은이, 부모 없는 아이일지라도 침범하거나 업신여기려 하지 않았다. 세상에 맞추어 알랑거리며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권력에 기대거나 남을 손아귀에 넣어 마음대로 주무르는 일은 내가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오똑하게 자기 지조를 지켜 구차하게 남과 맞추는 일에 뜻을 끊었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할까 미리 걱정하지 않았고 믿지 못할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기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은 상대하지 않았다.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걱정하시기를, "우리 애는 기질이 가을 물처럼 맑지만, 세속과 잘 어울리지 못하여 지금 세상에서 화를 면하지 못할까 두려울 따름이다"라고 하셨다. 나 또한 깨끗하게 솔직하게만 살면서 남을 방어하지 않고서, "내 좋은 대로 할 따름이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스스로 알 따름이다. 세상에서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이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했다. 온전하게 하려다가 얻는 비난과 뜻하지 않은 칭찬 등이 때때로 한꺼번에 닥쳐도 나는 거저 웃고 만다. 마음속으로 결단하여 스스로 믿는 어리석음이 이러하였다. 집안이 가난하여 맑고 고달파 거의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았으나, 마음은 사실 느긋하여 걱정하는 얼굴빛을 보지 못했다.(중략)

한가하게 지내면서 애써 하는 일은 없고, 다만 글로써 스스로 즐겼다. 산수에 흥을 붙여 사물 바깥에서 거닐면서 늙음이 장차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찬(贊)한다. 재주는 성기고 짧고, 천성은 고집스러우며 어리석네. 세상에 나가서는 엎어지고 산에 있으면서 수양하네. 자연 속에는 금하는 것 없으니, 물고기와 새들과 사귄다네. 내 좋아하는 것을 따라 하다 한 평생 마치고자 한다네.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자신의 절조를 지키고, 자연 속에서 자기 천성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 천인합일(天人合一)에 바탕을 둔 자연친화적인 사림파 학자의 인생관이 잘 나타나 있다.

그 당시 세상은 순박한 기풍은 날로 사라지고 각박해져서, 재주 있고 영리하고 교묘하고 아첨 잘하는 사람만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간송은 인정미가 사라져 가는 이런 세상을 가장 싫어하였다. 이를 풍자하는 글을 한 편 남겼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아무개인데, 천성이 못나고 말을 할 줄 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어렵기에, 이 일을 매우 걱정합니다"라고 했다. 내가 웃으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루 빌려 천리를 붙일 곳으로 삼을 수 있을까?"라고 하자, 좌중의 사람들이 놀라 이상하게 여기며, "무슨 말씀인지요?"라고 했다. 내가 이렇게 말했다. "천리라는 것의 물건 됨은, 교묘한 것을 싫어하고 서투른 것을 좋아하네. 꾀 많은 것을 싫어하고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네. 말 잘하는 것을 싫어하고 말 못하는 것을 좋아하네. 예리한 것을 싫어하고 무딘 것을 좋아하네. 굽은 것을 싫어하고 곧은 것을 좋아하네. 사사로운 것을 싫어하고 공정한 것을 좋아하네. 교활하고 거짓된 것을 싫어하고 성실한 것을 좋아하네. 버릇없이 멋대로 구는 것을 싫어하고 공손한 것을 좋아하네. 잔포(殘暴)한 것을 싫어하고 자상한 것을 좋아하네. 쟁탈을 싫어하고 겸손하게 물러나는 것을 좋아하네. 욕심내고 염치없는 것을 싫어하고 편안하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네. 사치하여 화려한 것을 싫어하고 검소한 것을 좋아하네. 경박한 것을 싫어하고 중후한 것을 좋아하네. 그래서 염계(濂溪)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가 졸박하게 되면 형벌과 정치가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셨고, 명도(明道)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빠르고 영리하고 교묘하고 사나운 것은 도(道)와 거리가 멀다'라고 하셨다. 그러니 서툴고 말 잘 못한다고 무슨 걱정할 것이 있겠는가?" 온 좌중의 사람들이 의혹스럽게 생각하며 내 말의 요지를 알지 못했다.

간송은, 재주 있고 잘나고 날쌔고 약삭빠른 사람이, 평범한 많은 사람들을 이용해서 출세를 도모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인위적으로 꾸미지 않고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였다.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부르짖은 것이다.

이 글의 내용은 간송 자신의 언행의 특징을 말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그 자신의 처세지침이라고 볼 수도 있다. 언행이 일치하여 내면적으로 충실한 사람이자 꾸밈없는 순박한 선비를 간송은 지향했던 것이다.

Ⅲ. 학통과 사우관계

간송은 비교적 어린 나이에 스승을 찾아 학문의 길로 나섰다. 그의 첫 번째 스승은 반천(槃泉) 김중청(金中淸)이었다. 14 세 때부터 15 세 때까지 봉화에서 그에게 배웠다. 반천은 월천(月川) 조목(趙穆)의 문인으로서 이때 33 세의 젊은 나이였는데, 이미 학문이 깊은 것으로 이름이 나 있었다. 간송에게 원대한 바탕이 있는 것을 보고서, "벗이 멀리서부터 오니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일 년 동안 차가운 자리에서 가슴을 잘 열었다네. 갈림길에 서서 평생 사용할 말을 주나니, 좋은 구슬을 가시 덤불에 버리지 말게나![不

亦樂乎朋自遠, 一年寒榻好開襟. 臨岐爲贈平生語, 莫把良珠委棘林]"(《澗松年譜》 권 1 2 장)라는 권면하는 시를 지어주었다. 김중청은 그 뒤 문과에 급제하여 정언(正言)으로 있으면서 폐모론에 반대하다가 정인홍에 의하여 파면당하였다.

두 번째 스승은 의성에 살던 두곡(杜谷) 고응척(高應陟)이었다. 16 세 때 두곡으로부터 《대학》을 배웠다. 두곡은 간송을 두고 "어린 나이에 실제로 보고 얻은 것이 있다"라고 칭탄하였다.

세 번째 스승은 인동에 살던 여헌 장현광이었다. 여헌은 한강 정구의 질서였고, 한강은 퇴계와 남명 양문하(兩門下)를 다 출입하였다. 17 세 때 처음 만나 53 세 때까지 36 년 동안 스승으로 모셨다. 23 세 때 용화산(龍華山) 아래 배에서 한강과 함께 왔던 여헌을 다시 뵈었다. 그 뒤 29 세 때 여헌을 찾아갔을 때, 여헌은 자기 이웃으로 이사오도록 권할 정도로 간송에게 관심을 가졌다. 40 세 때 여헌을 찾아가 여러 날 동안 모시고 있으면서, 《심경》, 《대학연의(大學衍義)》, 《독서록(讀書錄)》 등의 책을 읽다가 의문 나는 점을 물었다.

41 세 때 여헌을 찾아갔을 때, 여헌은 "치원(致遠 간송(澗松)의 구자(舊字))의 말은 천리에서 나온 것으로 매양 그것을 듣고 있노라면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말하여, 이미 제자인 간송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여헌이 인정할 정도로 그 학문의 경지가 높아졌다. 이때 간송은 성리학에 침잠하여 위기지학에 힘쓰던 때였는데, 〈감흥십절(感興十絶)〉을 지어 그 학문의 경지와 학문하는 자세를 읊었다.

50 세 때 여헌을 찾아가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顒)을 신산서원(新山書院)에 배향하는 문제로 자문을 구했을 때, 여헌은 적극적으로 간송의 주장이 옳다고 하며 지지하였다.

52 세 때 여헌을 찾아가, "한당(漢唐)의 학문은 기송(記誦)이나 사장(詞章)의 학(學)에 불과합니다"라고 하며 그 폐단을 지적하자, 여헌이 탄복하며 말하기를, "이 설은 아주 통쾌하여 사람의 정신을 일깨워 준다. 반드시 도움되는 바가 많을 것이다"라고 간송의 학문을 칭송하였다.

간송이 36 년간 여헌 문하를 출입하면서 친자(親炙)를 받은 것이 아주 오래되어 관감(觀感)이 아주 간절하였다. 평소 여헌의 언행과 출처 및 질의 답문한 것을 모아서 《취정록(就正錄)》이라는 책을 만들었다. 나중에 이 글은 《여헌문집》 속집의 부록으로 편입되었다. 스승 《여헌문집》을 편찬할 적에 간송도 참여했는데, 그 아들 장응일(張應一)에게, 여헌의 주저(主著)는 다 간행해야겠지만 시문은 절요(節要)하는 것이 좋겠다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였다.

간송은, 여헌을 동계(桐溪) 정온(鄭蘊),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와 함께 그 당시 유림의 영수요 조정의 으뜸 되는 원로로 보고 존경하였다.

시를 부쳐 보내 그 쓸쓸함을 위로하며 / 投詩慰寂寞
지금 세상 뛰어난 인물 헤아려 본다네 / 歷數當世英
동계와 우복당과 / 桐溪愚伏堂
우리 장선생(張先生)이라네 / 暨我張先生
유림에서 영수로 추앙하고 있고 / 儒林望領袖
조정이나 초야에서 원로 되어 있네 / 朝野稱元龜

_〈次林樂翁南字〉, 《澗松集》

간송이, 여헌의 학문이나 행신(行身)에 대해서 추앙하는 정도는 가히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장부자를 경앙하나니 / 景仰張夫子
높은 이름은 북두성으로 남쪽에선 으뜸 / 高名冠斗南

깊고 조화롭기는 너른 바다 같고 / 淵冲滄海濶
절벽처럼 우뚝한 건 태산 같구나 / 壁立泰山巖

_〈拜旅軒先生于遠懷堂〉,《澗松集》

간송은 어린 시절에 반천 김중청, 두곡 고응척 등 퇴계학파의 학자들에게 수업하였으나, 결국은 가장 오랜 친자를 받은 여헌의 학덕을 제일로 흠모하여 자기 학문과 행신(行身) 및 출처관의 바탕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여헌 역시 퇴계의 제자인 한강의 학통을 이었으므로, 간송은 퇴계학파의 학자들로부터 학문을 전수 받아 기초를 닦았던 것이다.

간송의 생장지인 함안에는, 대소헌(大笑軒) 조종도(趙宗道), 죽유(竹牖) 오운(吳澐), 모촌(茅村) 이정(李瀞), 황곡(篁谷) 이칭(李偁), 황암(篁巖) 박제인(朴齊仁) 등 남명의 제자들이 많았으므로 남명의 학문적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23 세 때 간송은 노파(蘆坡) 이흘(李屹)의 따님에게 장가드는 것을 계기로 해서 남명학파에 확실하게 가입하게 된다. 노파는 남명의 제자 정인홍의 제자이고, 또 삼가에 있는 남명을 모신 용암서원의 원장을 맡아 일했으므로, 남명학파 가운데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었다. 간송은, 노파를 장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스승으로 모셨으므로 남명학파의 학문에 접맥될 수 있었다.

간송은, 한강 정구를 배견(拜見)하고 존모하기는 했으나, 이때 한강은 이미 연로하였으므로 집지하지는 않았다. 황암 박제인, 망우당 곽재우, 모계(茅谿) 문위(文緯), 능허(凌虛) 박민(朴敏), 외재(畏齋) 이후경(李厚慶), 동계(桐溪) 정온(鄭蘊), 오봉(梧峰) 신지제(申之悌), 석담(石潭) 이윤우(李潤雨) 등 그 당시 강우지역의 대표적인 학자들은 선배로 모시고 따랐다. 이 가운데 의성에 살던 오봉은, 한강의 문인으로서 간송에게는 종자형이 되었는데, 간송이 강좌지방의 사우들과 결식(結識)하는 데 있어 교량적 역할을 했다.(《澗松別集》 권 1 1 장, 〈就正錄〉) 외재 역시 한강의 문인이었는데, 간송의 처재종조가 된다.

무민당(无悶堂) 박인(朴絪), 한사(寒沙) 강대수(姜大遂), 겸재(謙齋) 하홍도(河弘度), 임곡(林谷) 임진부(林眞怤), 동계(東溪) 권도(權濤), 광서(匡西) 박진영(朴震英), 강재(彊齋) 성호정(成好正), 익암(益菴) 이도보(李道輔), 수암(修巖) 유진(柳袗), 미수 허목, 청천당(聽天堂) 장응일(張應一) 등은 벗으로서 서로 학문을 강론하였다. 무민당이 편찬한 《남명연보(南冥年譜)》에 간송이 발문을 썼고, 무민당이 《산해사우록(山海師友錄)》을 편찬할 때도 간송은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간송은 그 당시 격심하던 당론에 얽매이지 않았다. 우계(牛溪) 성혼(成渾)의 제자인 동토(童土) 윤순거(尹舜擧)가 의령 현감으로 부임해 왔을 적에 그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서 퇴계를 향사할 덕곡서원(德谷書院) 건립의 일을 서로 의논하였다. 또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의 제자인 동강(東江) 신익전(申翊全)이 거창 군수로 부임했을 때, 간송은 율곡의 《성학집요(聖學輯要)》, 《석담유사(石潭遺事)》 등을 듣고서 그를 통해서 그 책을 구해보려고 노력하기도 하였다.

간송의 사우들은 강우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강좌지역에도 폭넓게 고루 분포하여, 퇴계학파와 남명학파를 고루 아우른 특징이 있다. 간송은 한 쪽 학파에 속한 인사보다는 폭 넓은 교유관계를 가졌는데, 이는 간송의 학문적 시야를 넓히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Ⅳ. 학술사상

간송은 퇴계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웠으므로 주자학을 학문의 본령으로 삼았다. 주자학을 공부한 학자들은 대부분 성리학에 관한 학설이 많다. 더욱이 자신이 근 40 년 동안 스승으로 모시며 따라 배웠던 여헌은 성리학에 관한 학설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간송은, 문집의 분량이 원집, 별집, 속집 합쳐 모두 12 권 6 책 정도의 적지 않은 분량임에도, 성리학에 관한 학설은 전혀 실려 있지 않다.

학문에 관한 내용 가운데도 대부분은 학문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느냐에 관한 것이다. 이런 점은 퇴계학파에 속하는 학자로서는 아주 특이한 경우인데, 이 점에 있어서는 남명의 학문정신과 아주 흡사하다.

간송은 학자의 학문하는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였다.

옛날의 이른바 학자들은 반드시 궁행 심득으로써 근본을 삼았고, 체(體)를 밝히고 용(用)을 알맞게 하는 것을 요체로 삼았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절차는 벌벌 떨며 조심조심하고 성나는 것과 욕심을 참고 잘못을 고쳐 착한 데로 옮겨가는 것으로부터 나옵니다.

_〈辭恭陵叅奉疏〉,《澗松續集》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해서 아는 것으로는 진정한 학문이 될 수 없고,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터득하여야 한다는 점을 간송은 강조하였다. 사람이 공부를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고쳐서 착한 데로 나가는데 학문이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학문하는 과정을 간송은 이렇게 설정하였다.

대저 학문의 길은 반드시 분발하고 단단히 뜻을 세워, 마음을 비우고 뜻을 겸손하게 하여 가르침을 받아들여야 한다. 괴로움을 참고 견디며 공(功)을 쌓아야 하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 힘써 행하여 도에 이르러야 하고, 느긋하게 푹 젖어들어 덕을 길러야 한다. 조심하고 삼가고 두려워하며 마음을 단속해야 하고, 정확하고 치밀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 주정(主靜), 존성(存誠), 거경(居敬), 궁리(窮理) 등의 절차는 그 본령이고 골자다. 마치 수레에 두 바퀴가 있듯이 새에게 두 날개가 있듯이, 하나를 없애고서는 다니거나 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에 종사하여 힘써 잘 따라서 노력하기를 오랫동안 해나가면, 뜻과 행실이 함께 나아가고 발과 눈이 같이 이르게 된다. 그리하여 하루아침에 툭 트인 평원을 혼자 훤히 보게 되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성현, 군자, 길인(吉人)의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잠시라도 이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천리 밖으로 달아나 각기 제 갈 데로 가버릴 것이다.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망녕된 생각의 기미는 바로 이런 때에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점이 옛날 성현들이 얇은 얼음을 밟듯 깊은 못에 다다른 듯 두려워하고 조심하여, 덕이 이미 성대하지만 스스로 만족하거나 여유를 부리지 않고, 도(道)가 이미 높아도 그것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까닭이다. 한 가닥 숨이 붙어 있는 한 이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되고 죽을 때가지 그만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_〈管窺雜說〉,《澗松集》

학문하는 본령을 주정, 존성, 거경, 궁리에 두었다. 이 가운데서 하나라도 결여되면 학문을 할 수가 없고, 또 간단없이 꾸준히 노력하여 스스로 눈이 트여 깨달음을 얻는 데까지 가야한다고 했다. 글귀나 외우고 단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의 도를 깨치는 것을 진정한 학문으로 보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고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보았다. 동시에 마음에서 일어나 학문하는 것을 방해하는 망상을 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간송이 말하는 공부는 지식습득의 단계가 아니고, 스스로 진리를 터득하는 단계를 말한다.

간송은, 실천을 위주로 하여 그 사람됨을 바꾸는 것이라고 학문을 정의했다.

이른바 학문이란 것은, 참되게 안 것을 실천하여 그 어떤 사람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순수하여 잡되지 않은 것을 이른 것이다. 글자로 표현하거나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말단적인 것이 아니다.

_〈篁巖先生遺稿序〉,《澗松集》

귀로 듣고서 바로 입으로 말하는 학문은 진정한 학문이 될 수 없고 사이비 학문에 불과하다. 《예기》에서 "구이지학(口耳之學)으로써는 다른 사람의 스승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진정한 학문은 사람을 더 좋은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문을 말하는 것이다. 간송이 일생 동안 추구한 학문이 바로 이런 학문이었다.

세상에 갖가지 학문이 존재하고, 유학 가운데도 갈래가 많지만, 성경(誠敬)을 주로 하는 정자·주자의 학문만이 바른 학문이라고 보았다.

유학 가운데도 갈래가 많지만 / 儒術多岐路
정자 주자만이 어긋남이 없네 / 程朱獨不差
정성 간직하여 온갖 거짓 소멸시켰고 / 存誠消萬僞
경을 주로 하여 천 가지 사악함에 맞섰다네 / 主敬敵千邪
요약함을 잡아야 능히 박을 베풀 수 있고 / 操約能施博
나라 다스림은 집안 바로잡는 것에 말미암네 / 爲邦自正家
아름다운 거문고의 줄이 끊어졌기에 / 瑤琴絃斷絶
괜히 후세 사람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네 / 空使後人嗟

_〈儒述〉, 《澗松集》

유학 가운데서도 정주의 학문을 정통으로 삼아야만 하고, 성경을 위주로 하여 박약을 겸비하여야 하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한 집안을 다스리는 근본적인 것에서 출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참된 유학의 전통이 끊어진 당시의 유학은 정상적인 길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송이 탄식한 것이다.

학문하는 방법은 옛날 것만 묵수해서는 안 되고 앞 시대 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후세의 학자들이 발견할 수도 있으므로 학문의 시대에 따른 진화를 인정했다.

의리는 무궁하고 지식과 견문은 한계가 있다. 이전의 성인이 발견하지 못한 것을 후대의 성인이 발견할 수도 있고, 이전의 현자가 말하지 못한 것을 후대의 현자가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_〈管窺瑣說〉, 《澗松集》

주자가 《대학》을 주석하면서 보완한 〈보망장(補亡章)〉을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은 불필요한 것이라고 그의 《대학장구보유(大學章句補遺)》에서 주장했다. 그러나 퇴계는, 회재의 주장이 주자와 위배되기 때문에, "한갓 경서를 훼손한 죄만 얻었을 따름이다"라고 하여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간송은, 퇴계의 주장을 맹종하지 않고 회재의 학문적 공적을 인정하였다. 학문이란 것은 한 사람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후세로 오면서 점점 발전해 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유학자들은 대부분 무조건 복고주의 상고주의에 사로잡혀, 성현의 학설에 대해서 감히 반대의견을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간송은 그 당시로서는 드물게 주자와 퇴계의 학설에 반대되는 견해를 제시하였으니, 용기 있는 양심적인 학자로서의 자세를 잃지 않았다.

그 당시 학풍은 이미 실천이 따르지 못하면서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것을 간송은 이렇게 경고하였다.

세상 선비들이 말하는 학문이란 / 世儒所謂學
글을 배워 잘 외워 읽는 것 / 學書能誦讀
세상 선비들이 말하는 사업이란 / 世儒所謂業

글짓기를 일삼아 작록을 따는 것 / 業文賭爵祿
마음과 입이 서로 맞지 않고 / 心口不相應
말과 행동을 서로 돌아보지 않네 / 言行不相顧
비록 만 권의 책을 독파했다 한들 / 雖破萬卷書
덕행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네 / 於德竟何補
임금 섬길 때는 신하의 도리 다하고 / 事君盡臣節
어버이 받들 때는 자식 노릇 한다면 / 奉親供子職
배우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말할지라도 / 人雖曰未學
나는 반드시 그런 사람을 배웠다 하겠네 / 吾必謂之學
그대 보게나! 안자에게 준 공자의 사물과 / 君看顔四勿
증자(曾子)가 날마다 세 가지로 반성하는 것을 / 與夫曾子省
어디 말을 솜씨 있게 한 데가 있던가 / 何嘗言語工
그 어디 문장이 번지르르한 데가 있던가 / 亦豈文字炳
이 두 분은 마침내 큰 도를 능히 듣고서 / 終能聞大道
체제 갖추어 앞 시대의 성인을 계승했다네 / 具體承前聖
어찌하여 말세로 흘러온 폐단은 / 奈何末流弊
한갓 가지와 잎만 숭상하게 되었는지 / 枝葉徒崇奬
경박한 분위기가 순박한 근원 흩어버려 / 澆風散淳源
크게 소박한 기운을 날로 잃어 가는구나 / 大樸日淪喪
앵무새처럼 제멋대로 말만 번지러하게 잘하니 / 鸚鵡謾好音
의관 차려 입었지만 마부들에게 부끄러우리라 / 簪裾愧厮養
명예와 이욕의 관문 통과한 뒤에라야 / 透得名利關
바야흐로 조금 쉴 만한 곳이 된다네 / 方是少歇處
상채[謝良佐]의 엄한 훈계가 있나니 / 上蔡有嚴訓
이 말을 가슴에 새겨 둘지어다 / 服膺事史魚

_〈世儒歎〉,《澗松集》

당시 세속적인 선비들은, 자신을 수양하여 세상을 교화하는 선비의 본래의 임무는 망각한 채, 입으로 글만 외워 과거에 합격하여 작록을 얻고 이름을 얻는 데만 급급하였다.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면서 많은 책을 읽어 지식은 풍부하게 갖고 있고, 문장은 숙달되어 잘 지어내지만, 그 사람 자신의 덕행을 함양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었다. 공자가 말한 위기지학은 사라지고 위인지학(爲人之學)이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 간송은 진정한 선비를 그리워하여 이런 탄식을 했던 것이다. 안자나 증자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장을 잘한다는 칭송을 들은 적이 없었지만, 성인의 큰 도를 듣고서 체득하여 후세에 전승시켜 준 업적이야말로 선비가 하는 일 가운데서 가장 큰 가치가 있는 것으로 간송은 보았다. 정자의 제자인 상채 출신의 사양좌가 처음에는 기송을 잘하는 것으로 자부했을 때 정자는 완물상지(玩物喪志)의 우려가 있고 그의 병통은 '자랑[矜]'에 있다고 훈계하였다. 처음에는 사양좌가 수긍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정자의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자신도 기송의 문제점을 알았다. 그 이후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칠 때 늘 기송의 문제점을 훈계했다.(黃宗羲《宋元學案》 권 24, 〈上蔡學案〉)

언행이 일치되고 명예와 이욕의 관문을 통과하여 진정한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공부에 전념하는 사람을 일컬어 참된 선비라고 할 수 있다. 간송이 지향하는 학문의 길도 바로 이런 것에 있었다. 이런 학문경향은 남명의 학문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그가 초기에 스승으로 삼았던 인물이 대부

분 퇴계학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지만, 간송 자신은 나중에 남명학파 내에서 중심인물로 부각될 수 있었던 것이다.

선비들도 평소에 병법을 익혀야 한다는 생각을 간송은 가졌는데, 이는 국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자들에게 병법을 가르쳤던 남명의 사상과 맥이 통하는 것이다.

썩은 선비들 평소에 병법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 腐儒平昔不談兵
지금 와서 난리 당하자 뼈 속까지 놀라기만 하네 / 臨亂如今但骨驚
달빛 희미한 외로운 성에선 소식 끊어졌는데 / 月暈孤城消息斷
대궐로 머리 돌리니 공연히 눈물 범벅이 되누나 / 北辰回首涕空橫

_〈聞南漢受圍慨然有作〉,《澗松集》

온 나라의 지식인들이, 평소에 국가 민생의 현실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공리공론적인 학문에만 힘을 쏟다가, 난리를 당하게 되자 아무런 대책 없이 놀라기만 하고 있었다. 간송은 이런 사태에 직면하여 현실적인 학문을 하지 못한 선비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꼈던 것이다.

평소에 심신을 잘 거두어 단속하고 명절(名節)을 닦으며 정도를 지켜나가던 선비들도, 명리의 문제에 당면하게 되면 자기의 본래의 보조를 잃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사례를 우리나라의 역사상 많은 인물의 행적에서 볼 수 있다. 출처의 대절을 잘 지켜야만 올바른 선비라고 볼 수 있다고 간송은 생각했다.(《澗松集》 권 3 9 장, 〈上旅軒先生書〉)

초(楚)나라의 은자 장저(長沮)와 걸닉(桀溺) 같은 사람은 세상을 구제하려고 다니는 공자를 비웃는 말을 하였기에 역대로 유가의 비판을 받아왔다. 간송은 그들을 성인의 도로써 논할 수는 없지만, 도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영합하고 부귀를 탐내어 나아갈 줄만 알고 물러날 줄을 모르는 사이비 유자들은 장저와 걸닉보다도 못한 사람으로서, 장저와 걸닉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보았다.(《澗松集》 권 3 45, 46 장, 〈沮溺說〉)

불가에서는 불법을 전파하여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불가에 귀의하기를 희망한다. 간송은 불가의 자기모순을 이렇게 지적하였다.

천하의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중이 된다면, 누가 임금이 되며 누가 신하가 되며, 누가 백성이 되어 관리들을 먹여 살리며, 누가 관리가 되어 백성들을 다스리겠는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입산하여 불교를 받들게 된다면, 누가 부부가 되며, 누가 부자가 되며, 누가 형제가 되겠는가? 모두가 다 중이 되었을 경우 늙은 사람은 죽고, 젊은 사람은 늙고, 앞에 있던 사람들은 없어지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이어가지만, 백년도 안 지나서 인류는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천지 사이에 가득한 것은 나무 돌 새 짐승 벌레 뱀 가시뿐일 것이다. 우리 유도에 해악을 끼칠 뿐만 아니라, 불도(佛道) 그 자체도 끊어진다. 그때 가서 중이 되어 불교를 받들려고 한들 될 수 있겠느냐?

_〈管窺瑣說〉,《澗松集》

불가에서는 포교하는 데 많은 정성을 기울여 많은 사람들이 출가하여 승려가 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불가의 희망대로 모든 사람들이 승려가 된다면, 의식주의 재료는 누가 생산하며 인류는 어떻게 번식・보존하겠는가? 불교 교리는 공격할 필요도 없이, 불교 스스로 모순을 지니고 있는데, 이 모순을 간송이 잘 지적해 내었다. 유자로서 불교를 압도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추었다 하겠다.

간송은, 당쟁의 폐단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심각하게 인식하여, 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상에 재앙을 끼치는 짐독(鴆毒)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래서 그 자신은 당파에 얽매이지 않아, 공정한 논의를 견지하였다.

당론이 일어난 이후로 공론이 없어졌다. 당파에 속한 사람의 이름 가운데는 온전한 사람이 없게 되었다. 색목이 같지 않으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르게 된다. 그 논의가 나와 합치가 되면 줄곧 그를 좋아하여 그의 나쁜 점을 모르게 되어 조그마한 것까지 알리고 추켜세우기를 한량없이 한다. 그 논의가 자기와 어긋나게 되면 줄곧 그를 미워하여 그의 아름다운 점을 모르게 되어 죄에 밀어 넣고 죄를 얽어 만들기를 힘닿는 데까지 한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혼란스럽게 되고 시비가 뒤바뀌어, 서로 모함하고 다투는 분위기가 온 세상에 넘쳐흘러, 물과 불의 관계처럼 죽을 때까지 공격한다. 심지어는 부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도 있고, 형제간에 당파를 나눈 경우도 있다. 자기와 같은 당파이면 비록 천 리를 떨어져 살아도 아교와 옻칠처럼 착 달라붙는데, 자기와 같은 당파가 아니라면 비록 같은 집에서 거처해도 초(楚)나라와 월(越)나라의 관계처럼 원수가 된다. 아래로 각 고을 각 마을에 이르기까지 그렇지 않은 곳이 없다. 국가의 존망은 생각지도 않고, 백성들의 고락(苦樂)은 걱정하지도 않은 채, 오직 당론에만 급급하니 공론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는가? 온전한 사람을 어느 곳에서 얻을 수 있겠는가? 내가 이 세상을 보건대, '당(黨)'이라는 한 글자는 나라를 망치고 세상에 재앙을 끼치는 짐새의 독이다. 대개 당론은 자기 한 사람의 사사로움에서 나온 것이지 공정한 의리가 나타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비록 양자(陽子), 묵자(墨子), 노자(老子), 불교의 해악이나 홍수와 맹수의 재난의 처참함도 이렇게 참혹한 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

_〈管窺瑣說〉, 《澗松集》

간송은, 당쟁의 해독을 잘 알고 있어 당쟁에 가담하지 않았고, 노론이나 소론에 속하는 인물이라도 마음이 통하면 사귀었다. 이런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한 평생 남명학파와 퇴계학파 두 군데 다 관계하면서 두 학파의 융화를 위해서 일생 동안 계속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간송 자신이 한 평생의 정신적인 이정표로 삼은 간송이라는 호를 두고, 이렇게 시로써 풀이했다. 그의 학문하는 방법과 정신세계의 방향이 그의 호 속에 내함되어 있다.

나 홀로 시냇가의 소나무 사랑하노니 / 獨愛澗邊松
날씨 추워져도 그 모습 변하지 않기에 / 天寒不改容
깊은 뿌리는 깎아지른 골짜기에 박혀 있고 / 深根盤絶壑
곧은 가지는 높은 봉우리에 치솟았네 / 直幹聳危峯
바람이 세차면 그 소리 더욱 웅장하고 / 風烈聲逾壯
서리 매서우면 푸르른 빛 더욱 짙다네 / 霜嚴翠更濃
그대여 보게나! 봄철이나 여름철에는 / 君看春夏節
모든 것들이 다 푸르고 싱싱한 것을 / 百物共青葱

_〈栽松澗邊〉, 《澗松集》

간송은, 자기 일생의 삶의 방향을 '간송(澗松)'이라는 두 글자로 집약하여 표현하였다. 날씨가 추워져도 변하지 않는 그 절조, 깊은 학문적 바탕, 고상하고 강직한 언행을 갖고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세상의 장애물이 앞을 막으면 자신은 더욱더 견결한 자세로 자기의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속의 염량(炎凉)에 따라 부침하는 부류들과는 자신을 같이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송(宋) 초기의 정승 범질(范質)의 〈계질아팔백자(誡姪兒八百字)〉라는 시에, "화사한 화원의 꽃은, 일찍 피었다가 먼저 시드네. 더디 자라는 시냇가의 소나무, 울창하여 늦게까지 푸르름 머금고 있네.〔灼灼園中花, 早發還先萎. 遲遲澗畔松, 鬱鬱晩含翠.〕"라는 구절이 있다. 주자는 이 시의 교훈적인 가치를 크게 인정하여 《소학》에 수록하였다. '간송'이라는 호는 바로 이 시에서 따왔다. 울긋불긋 봄을 장식하는 아름다운 꽃은 날씨가 추워지거나 서리가 내리면 자취를 감추고 만다. 그러나 소나무만은 추운 겨울 눈보라 속에서도 절개를 지키는 풍모를 그대로 견지하고 있다. 이런 소나무의 정신을 배워 일생을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자기 집 앞 시냇가에다 두 그루의 소나무를 심었던 것이다. 간송은 퇴계를 공척(攻斥)하는 대열에 참여하라는 당시 불길 같은 세력을 가진 대북파의 위협에 조금도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았고, 조정에서 몇 차례 벼슬을 내렸지만 나가지 않고 초야에서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소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바로 간송 자신의 한 평생의 정신적 스승이었던 것이다.

Ⅴ. 퇴계·남명 양 학파의 융화

남명학파의 영향권 안에 속해 있는 함안지역에서 세거해 온 집안에서 생장하였으면서도, 어릴 때부터 퇴계학파에 속한 학자들로부터 학문을 전수 받은 간송은, 완전히 퇴계학파로 편중되지 않았고, 나중에 남명학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철저하게 퇴계학파와 남명학파를 조화롭게 융화시켜 나갔다. 정인홍의 퇴계 변척으로 인한 두 학파간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시키는 데도 간송이 큰 역할을 했다.

그는 퇴계와 남명을 거의 꼭 같은 비중으로 존모하였으며, 두 분의 특징을 잘 파악하였다. 그의 〈동현십팔영(東賢十八詠)〉 가운데서 퇴계와 남명을 읊은 시가 있는데, 먼저 퇴계를 두고 읊은 시를 소개하면 이러하다.

주자의 책 몹시도 좋아하여 새로운 것으로 발전시켰고 / 酷悅朱書便奪胎
오묘한 이치 속에 침잠하여 일찍이 돌아선 적 없었네 / 潛心理窟不曾回
도산서당의 암서헌 완락재에 끼치신 향기 남아 있나니 / 巖栖玩樂餘香在
늘그막에 숨은 맑은 기풍 백세에 걸쳐 높고 높으리라 / 晩隱淸風百世嵬

남명을 두고 읊은 시는 이러하다.

태산의 가을 기운이 퇴폐한 세속 물결 누르는데 / 泰山秋氣壓頹瀾
경의의 공정은 오묘하여 관문을 통과했도다 / 敬義工程妙透關
도 지니고도 때 만나지 못했으나 어찌 작게 쓰이랴 / 道不遇時寧小用
나라를 경륜할 그릇 품고서 시골에 숨어 사셨지 / 懷藏國器軸藴間

주자학에 침잠하여 그 오묘한 이치를 연구하여 밝힌 퇴계의 학문적 성취와 태산 같은 기상을 갖고 경의의 학문으로 퇴폐한 세상을 바로잡는 데 주력한 남명의 실천위주의 현실적 학문의 특징을 잘 구별하여 내었다.

간송은 일생 동안 남명학파와 퇴계학파의 융합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의 절친한 벗 무민당 박인이 《산해사우연원록》을 편찬하고 있을 때, 간송은 그 책 속에 퇴계의 행적을 수록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다. 이는 남명학파와 퇴계학파의 관계를 좋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던 것 같다. 그러나 무민당은 주저하며 선뜻 수용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록의 가부에 대해서 여헌에게 자문을 구하여 결정하려고 한 일이 있었다.(《澗松集》 권 2 21 장, 〈與朴伯和〉)

간송은 남명에 대한 존모가 남달랐고, 또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의 융합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였다. 간송의 만년에 덕천서원 내부에 분쟁이 있었는데, 임곡 임진부가 덕천서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간송에게 서신을 보냈다. 간송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였다.

덕천서원에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서원은 사우들이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하는 곳이오.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소. 형은 어째서 재난을 실어 남에게 주는 일을 반쯤 죽어가는 늙은 것에게 맡기려 하시오. 이 늙은 것이 무슨 기력이 있어 거기에 생각이 미치겠소. 비록 그러하나 저는 남명에 대해서 존모하는 마음이 얕지 않소. 바야흐로 《남명수언(南冥粹言)》이라는 책 한 권을 편찬하고 있소. 그 가운데는 버리거나 취하거나 해야 할 것이 또한 많소. 〈해관서문답(解關西問答)〉, 〈여자정자강서(與子精子强書)〉, 〈책문제(策問題)〉 등은 빼버려야 하겠고, 퇴계가 남명에게 보낸 세 통의 서신, 퇴계가 쓴 〈유두유록발(遊頭流錄跋)〉, 서화담(徐花潭)이 지은 사운(四韻)의 시, 이구암(李龜巖) 선대의 묘비 등은 수록해야겠소.

_〈答林樂翁〉, 《澗松集》

간송이, 남명을 존모한 나머지 남명의 시문의 절요 및 관계 자료를 부록으로 한 《남명수언》을 편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퇴계학파와의 융합을 위해서 많은 주의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맨 처음 《남명집》을 편찬할 때 그 일을 주도한 정인홍의 의도에 의해서 편찬된 《남명집》이 반질되자, 거기에 실린 글로 인하여 각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이로 인해서 남명학파는 더욱 고립될 처지에 놓였으므로, 간송은 남명의 진면목을 바로 알리고, 다른 학파와의 관계 개선을 도모할 목적으로 《남명수언》의 편찬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남명학파는, 〈해관서문답〉으로 인해서 회재 이언적 집안과 관계가 악화되었고, 〈여자정자강서〉 때문에 구암 이정 집안과 관계가 나빠졌고, 남명의 인상도 나쁘게 만들 우려가 있었다. 〈책문제〉는 임금의 실정을 노골적으로 비웃는 듯한 내용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인조반정 이후 가뜩이나 위축된 남명학파가 사방의 공격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간송은 이 책을 편찬하려고 했을 것이다. 퇴계가 남명에게 보낸 세 통의 서신과 〈유두유록발〉을 넣으려는 것은 정인홍으로 인해서 악화된 두 학파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화담의 시를 수록한 것은 화담의 시에 차운한 남명의 시가 경세의식이 더 강렬하다는 것을 대비해서 보이려는 의도이다. 이구암 선세의 묘비를 수록하려는 것은, 남명이 이구암과 관계가 괜찮을 때 남명이 이구암의 요청에 의해서 그 부공(父公)의 묘비를 지었다. 만년에 남명은 하음부사건(河淫婦事件)으로 이구암을 의심하여 절교하였다. 퇴계의 제자 노릇하던 구암은 남명에게 절교 당한 뒤 퇴계에게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였고 퇴계는 구암을 위로하였다. 이로 인해서 퇴계를 싫어한 정인홍이 구암을 더욱 미워하였다. 나중에 정인홍이 《남명집》을 편찬할 적에 이구암 부공의 묘비를 수록해야 한다는 한강 등의 건의를 거절하고 수록하지 않았다. 간송이 볼 적에 남명학파와 구암 집안과의 갈등은 내면적으로 남명학파의 역량의 손실만 가져온다고 판단하여 그 해결방안으로 《남명수언》의 편찬에 착수했던 것 같다.

남명은 비록 벼슬에 나가 직책을 맡은 적은 없었지만, 남명이 끼친 정신적인 영향은 후세에 영원히 대단하다는 것을 간송은 이렇게 밝히고 있다.

남명이 한 일 없다고 말하지 마소서 / 莫道南冥無事業
백세의 맑은 바람 우리 동쪽 나라 떨쳤다오 / 淸風百世振東韓

_〈讀南冥集〉, 《澗松集》

맹자가 말한 "성인은 백세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남명이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길이 할 것으로 보았다.

남명의 일생 동안의 마음가짐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였던 사람은 바로 간송이었다. 그의 〈서남명선생차화담시후(書南冥先生次花潭詩後)〉라는 글은 이러하다.

조 선생이 화담의 시에 차운한 첫째 연은 "붉은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되살리고파, 누가 밝은 해를 돌려 이내 몸을 비춰줄꼬?〔要把丹心蘇此世, 誰回白日照吾身.〕"라고 되어 있다. 개연히 세상을 걱정하는 뜻이 말 바깥에 넘쳐흐른다. 보배를 품고서 세상에서 숨어 지내다가 바위 틈에서 일생을 마친 것이 어찌 선생의 본래 마음이겠는가? 어떤 사람은 벼슬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선생의 문제점으로 삼기도 하고, 혹은 한 가지 절개만 가진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니, 또한 이상하지 않은가? 선조조의 대신 이탁(李鐸)이 경연에서 아뢰기를, "조모(曹某) 같은 사람은 지금 세상의 버려진 인재입니다. 그에게 제배(除拜)한 벼슬이 별 볼 일 없는 벼슬에 불과했기에 끝내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런 것이 전하께서 불러도 선비들이 오지 않는 까닭입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이야말로 사실에 접근하는 말이다.

남명은 자기 한 몸만 깨끗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세상을 잊고 멀리 숨은 사람이 아니었다. 늘 국가민족에게 관심을 갖고서 달밤에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 끝까지 벼슬에 나가지 않은 것은 자신에게 내린 벼슬자리가 자신의 경륜을 펼쳐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남명의 그러한 처지를 간송이 가장 잘 이해했던 것이다.

간송은 남명이 만약 때를 만나 자신의 온축한 바를 펼쳤더라면 남명이 그 당대나 다음 세상을 위해서 이 정도의 역할은 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남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남명의 진면목을 파악하지 못하고 '기절만 있는 처사' 정도로 폄하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인 가운데서 노론계열의 인사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는데, 택당(澤堂) 이식(李植),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 등이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런 고정관념은 사라지지 않아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 삼연(三淵) 김창흡(金昌翕) 등에게 계속 이어져 갔다. 인조반정 이후 남명의 제자들이 대부분 정계에서 축출되자, 남명도 정당하게 평가되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당하게 되었다. 간송은 이 점을 무척 안타깝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경륜을 갖춘 남명 같은 사람이 임금에게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일생을 마친 일은, 후세의 왕들이 산림에 숨은 인재를 불러내는 일을 어렵게 만들었다.

남명이 때를 만나 자기의 경륜을 펼칠 수가 있었다면 우리나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나아가 천하의 사람들을 두루 교화하여 착한 사람을 만들어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가 있었을 것이다. 혼탁한 세상의 도덕적 보루가 되어 그 공덕이 해와 달처럼 빛날 수 있었을 것이니, 오늘날 사람들이 운위하는 정도의 남명에 그치고 말지는 않았을 것이다. 간송은 남명의 현실 정치에서의 능력을 아주 크게 평가하였다.

만약 남명이 뜻을 얻어 천하 사람들을 두루 착하게 만들고 평생 쌓은 실력을 펼칠 수 있었다면, 세상 인심을 맑게 하고 천리를 밝히고 세도를 만회하고 혼탁한 세상을 격려하여 우뚝이 세파의 지주가 되고 어두운 길에 밝은 해나 별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니, 그 공덕과 사업이 어찌 이 정도에서 그치고 말았겠는가? 아아! 애석하도다.

_〈南冥先生年譜跋〉, 《澗松集》

간송은 남명에 대한 존숭하는 마음을 포괄하여 이렇게 시로 읊었다.

강하 같은 기국에 태산 같은 모습 / 江河器局泰山容
금옥 같은 풍채에 눈 속의 달빛 같은 마음 / 金玉儀形雪月衷
바른 기운은 매서운 햇살 아래 가을 서리 스치는 듯 / 正氣秋霜橫烈日
곧은 절조는 푸르른 소나무에 기댄 푸른 대 같아 / 貞操綠竹倚蒼松
이전의 성현에 의지하여 경의의 공 이루었고 / 功成敬義依前聖
도는 중용에 합치되어 어린 후생을 깨우쳤도다 / 道合中庸啓後蒙
숨어 지낸 것은 애초에 세상일 잊은 것 아니었나니 / 遯世初非忘世事
무슨 일 할 수 있는 때 아닌 것 알았기에 자취 감추었지 / 知時不可故藏踪

_〈讀南冥集〉, 《澗松續集》

남명의 큰 기상 깨끗한 인품, 우뚝한 학덕, 후세의 영향 등 남명의 전반에 걸쳐 존모의 뜻을 붙였다. 특히 남명이 은거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시대적으로 무슨 경륜을 펼칠 수 없어서 부득이 세상에 나가지 않은 것이니, 세상을 잊고 은둔을 고집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간송이 사림의 추대를 받아 신산서원 원장으로 있으면서, 스승 여헌을 찾아가 남명에 대한 평가와 동강(東岡) 김우옹(金宇顒)의 신산서원 배향문제를 두고 여헌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는 이러하다.

여헌 선생께서 남명 선생의 높은 곳에 대해서 언급하시기를, "그 높은 곳은 벼슬과 봉록을 사양하고 풍절(風節)을 세운 것에 있을 뿐만 아니라, 의론이 사람들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고 식견이 보통 사람보다 몇 단계 앞서고, 자품과 학력이 아주 뛰어난 것에 있다."라고 하셨다. 임도(任道)가 말하기를, "선생의 가르치심은 다행입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높다[高]'라는 말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고풍정맥변(高風正脈辨)〉 등의 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라고 했다. 선생께서는 "'높다'는 뜻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다만 '정맥'이란 글자와 비교해 보면 약간 구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어른의 높은 것은 누가 능히 따라갈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다. 임도가 묻기를, "소생이 사림들의 함부로 추대하는 바를 잘못 입어 외람되이 신산서원 산장(山長)의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김동강을 서원에 배향하고 그가 지은 《경연강의(經筵講義)》 등의 책을 간행, 반포하여 우리 유도에 도움이 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자, "매우 좋지, 매우 좋아!"라고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임도가 또 묻기를, "동강은 남명한테 친자(親炙)한 것이 가장 먼저이고, 또 장가들어 손서가 되었으니, 그밖에 거저 설렁설렁 남명 문하를 출입한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한 사당 안에 배향하는 것이 예법에 알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신송계(申松溪)가 연향(聯享)의 위치에 있으니, 만약 사론이, '동강은 남명에게 손서가 되고 문인이 되니 배향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송계가 동강에 대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라고 했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렇지 않다. 신산서원은 본래 남명을 위해서 창설한 것이다. 송계는 손님일 따름이다. 무슨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내 생각으로는 송계의 위패가 왼쪽에 있다면 동강을 서편 벽 쪽에 위패를 놓으면 되고, 송계가 오른 쪽에 있다면 동강은 동편 벽 쪽에 위패를 놓으면, 무방할 것 같다"라고 하셨다.

_〈就正錄〉, 《澗松別集》

한강이 동강의 죽음을 애도하는 만사에서 "퇴도(退陶)의 바른 맥을 영원토록 그리워하고, 산해(山海)의 높은 기풍 특별히 존경했네.〔退陶正脈終天慕, 山海高風特地欽.〕"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에 대해서 정인홍은 〈고풍정맥변〉을 지어 퇴계에게 정맥을 돌리고 남명에게는 고풍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 그러나 여헌은 정맥과 고풍은 구별은 있는 것 같지만 남명의 아주 뛰어난 점을 포괄하여 '고(高)'자로 표현하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신산서원은 본래 남명을 위해서 창설된 서원이므로 비록 송계가 연향되어 있다 해도 친자(親炙)를 가장 오래 받은 동강을 배향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여헌은 간송의 질문에 답했다.

남명의 학덕을 흠모한 유림들이, 남명이 강학하던 산해정(山海亭)이 있던 김해 신어산(神魚山) 기슭에 1578 년 신산서원을 건립하여 1609 년 조정으로부터 사액을 받았다. 그러나 그 이후 원장 자리가 오래도록 비어 있었고, 강학의 기능이 해이되자, 1633 년 유림에서 간송을 추대하여 원장으로 삼았다. 간송은 몇 번 사양해도 되지 않아 원장을 맡아 서원을 운영해 나갔다.(《澗松別集》 권 1 40, 41 장, 〈遊觀錄〉) 당시 강우지역에서 간송의 명망이 대단히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간송은 남명 못지않게 퇴계도 똑같이 대단히 존숭했다. 퇴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퇴계가 남긴 책을 읽고 또 그 제자나 제자의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아 학문의 길로 접어든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다.

하물며 나는 어리석어 일찍이 학문의 공(功)을 잃었고 나아가 바로잡아줄 사우도 없었음에랴? 그래도 다행히 선성(宣城)은 퇴계의 고향이요 일선(一善)은 여러 어진이들이 많이 나온 곳이다. 비록 제자의 예를 차리고 퇴계 선생의 곁에서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기풍이 남아 있었기에, 선현들의 도를 실은 책을 보고 선배들이 남긴 가르침을 듣고서 착한 본래의 마음을 계발할 수가 있었다.(《澗松集》 권 4 29 장, 〈困知齋箴〉) 또 공자・맹자・증자・자사・요 임금・순 임금・문왕・무왕의 책을 구해다가 읽은 뒤에서야 환히 밝아져 마치 취한 꿈이 깨는 듯, 어두운 밤이 밝아오는 듯, 이 도를 돌이킬 수 있고 본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천지가 천지가 된 까닭과 사람과 사물이 사람과 사물이 된 까닭이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의령 현감 윤순거(尹舜擧)가 퇴계의 처향이라 하여 의령에 퇴계를 향사할 덕곡서원(德谷書院)을 지은 것에 대해서 간송은 관심을 보이면서 격려하고 있다. 자기가 사는 함안에 인접인 고을인 의령에 퇴계를 봉향하는 서원이 생기게 된 것을 매우 감격할 정도로 기뻐하였다. 이 역시 퇴계에 대한 극도로 존모하는 마음이 발로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또 덕곡서원에 퇴계를 봉안할 때, 간송은 그 봉안문을 지었다. 간송이 현감 윤순거와의 친밀한 관계도 있겠지만, 봉안문을 짓게 된 연유는 이 강우지방에서는 퇴계를 정확하게 알고 퇴계학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사로는 간송만한 사람이 없다는 여론이 모아졌기 때문에 간송에게 청문(請文)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간송은, 이 봉안문에서 퇴계를 해동의 정주로서 이전 여러 유학자들의 학문을 집대성했다고 극도로 존숭하였다.

아아! 우리 선생이시여 / 惟我先生
우리나라의 정자 주자 같은 분 / 海東程朱
여러 학설 절충하시고 / 折衷羣言
여러 유학자들 학문 집대성하셨네 / 集成諸儒
(중략)

연세 드신 노인분이 전하는 말에 / 故老相傳
선생의 장구(杖屨)가 미쳤다 하네 / 杖屨攸及
제사를 받드는 것이 예법에 맞기에 / 禮合稱祀
영원히 공경하여 본받으리 / 永寓矜式
아직까지 사우 없었던 것은 / 尙闕廟貌
그 책임이 후학에게 있다네 / 責在後學

_〈擬德谷書院奉安退溪先生文〉,《澗松集》

그리고 퇴계의 발자취가 미친 의령에 사우가 없다는 것은 이 곳에 사는 후학들의 책임이니, 마땅히 향사를 거행하여 영원히 사표로 삼아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1611 년에 퇴계의 문묘종사를 공척하는 정인홍의 지시에 의하여 정인홍에게 붙어 지내던 어떤 사람이 함안에서, 퇴계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소장을 작성할 소회(疏會)를 열고 간송에게 참석할 것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다.《맹자》〈방몽장(逢蒙章)〉을 인용하여, 간송은 자기 스승의 스승인 퇴계를 공척하기 위한 소회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시 정인홍의 세력은 대단하였고, 당시 젊은 간송은 이미 '정내암(鄭來庵)을 헐뜯고 모독한다'는 비방을 듣고 있었던 터라, 자신의 앞날에 많은 위협적인 요소가 따랐지만, 퇴계에 대한 의리를 저버리지 않고 지조를 지켰다.(《澗松集》 권 1 〈年譜〉 42 장)

이런 점에서 볼 때 간송 자신은 퇴계학파에 속하는 학자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때 만약 간송이 정인홍 일파의 세력에 눌려 그 소회에 참석하여 대북정권에 가담했더라면, 의리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고, 퇴계학파 쪽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히 배척을 당했을 것이다.

그의 〈우언(寓言)〉이라는 글은 순리에 의하지 않고 힘과 폭력으로 반대파를 내치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을 풍자한 글이다. 누구라고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았지만, 간송은, 당시 정인홍 일파가 문묘종사되기로 되어 있던 퇴계를 공척하는 일에 느낀 바가 있어서 이 글을 지었던 것이다.(《澗松集》 권 3 36, 37 장, 〈寓言〉)

1631 년 47 세 된 간송은 봉화로 가서 어릴 적의 스승 반천 김중청의 대상(大祥)에 참석하여 곡하고, 돌아오는 길에 도산서원으로 가서 한존재(閑存齋)에서 자고 상덕사(尙德祠)에 알현하고 퇴계의 유물을 참관하고 도산서원 안팎을 둘러보았다. 이때 간송은 "직접 퇴계를 곁에서 모시고 가르침을 듣는 것 같았는데, 시대는 차이가 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는 바가 있게 하였다"라고 자신의 감회를 적었다.(《澗松別集》 권 1 34 장, 〈遠行錄〉) 이 원행(遠行)에서 예안・안동・영주・봉화・의성 등지를 둘러보고, 계암(溪巖) 김령(金坽), 매원(梅園) 김광계(金光繼), 육우당(六友堂) 박회무(朴檜茂) 등 퇴계학파의 여러 인사들과 결교하고 돌아왔다.

간송은 어려서부터 퇴계학파에 접맥되어 퇴계의 이론을 탐구하고 시문 창작하기를 즐겨한 퇴계의 태도를 배웠다. 그 바탕 위에 남명학파의 학풍이 짙은 지역에 살면서 절의를 숭상하고 실천을 중시하는 태도를 결합하여, 실천을 중시하면서도 시문 짓기를 좋아하고 저술도 많이 남긴 학자로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이 여타의 남명학파에 속하는 학자들이 저술이 영성한 것과는 다른 점이다. 퇴계학파의 장점과 남명학파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여, 새로운 간송 자신의 독자적인 인물상과 학문노선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후손들의 의도에 의하여 간송은 점점 퇴계학파 쪽으로 더욱 더 접근해 간 것 같다. 간송의 현손 조홍엽(趙弘燁)의 요청에 의하여 눌은(訥隱) 이광정(李光庭)이 간송의 묘갈명을 지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퇴계에 관한 언급만 있고, 남명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그 외 서원 건립을 위한 사림

의 상소문이나, 서원사우상량문(書院祠宇上樑文), 상향축문(常享祝文) 등에서도 퇴계의 학맥을 계승한 것으로만 되어 있다.

VI.《간송집》의 편찬과정과 내용

1. 편찬과정

간송의 시문은 저자의 현손 조홍엽이 집안에 전해오던 초고를 바탕으로 수집하여 편정하였다. 그 뒤 1744 년(영조 20) 겨울에 안동의 눌은 이광정에게 감정과 편차를 부탁하고 서문을 청하였다. 간송의 스승인 반천 김중청의 외후손인 이광정은 자신의 문인 권만(權萬), 권모(權摹) 등과 함께 교정하고 편차하여 8 권 4 책의 정본을 완성하였으며 서문을 지었다.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이 지은 〈간송행장〉의 말미에, "공의 증손 조은(趙穩)이 화산(花山)의 금양리(錦陽里)로 나를 찾아와, 공의 사자(嗣子) 조함변(趙咸抃)이 찬술한 〈가전행실기(家傳行實記)〉 1 통 및 용성(龍城) 양천익(梁天翼)이 편차한《연보》1 편을 보여 주며 행장을 청하였다. 내가 감히 담당할 수 없다고 사양했는데, 조군은 갔다가 다시 와서 부탁하기를 매우 애써 하여 내가 끝까지 사양할 수 없었다"(李玄逸《葛庵集》別集 卷 6, 21~28 장)라고 했다. 갈암이 금양리에 거주할 때는 1702 년경이었으므로 행장은 이 시기를 전후하여 지어졌고 이때에 이미 양천익이 편차한《간송연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간송연보》가 편차된 시기에는 조함변 등이 수습한 초고가 함께 있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그 뒤 이광정이 지은 묘갈명에는, "현손 조홍엽이 선생의 남긴 글과 행장을 가지고 와서, '선조께서 돌아가신 지 80 여 년이 지났는데 아직 문집을 간행하지 못하였고, 묘비도 새기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다."라는 말이 들어 있다. 이때가 1744 년이다. 이광정은 묘갈명을 짓고, 아울러 문집을 원집 5 권, 별집 2 권으로 편정하고, 양천익이 편차한《간송연보》1 권을 합쳐서 8 권 4 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편정된 원집(별집 포함)은 간행 년도가 명확치 않으나, 정고본이 완성된 뒤 곧이어 저자를 배향한 함안의 송정서원에서 간행되었으리라 추측된다. 서유구(徐有榘)의《누판고(鏤版考)》에 의하면 본집의 '판목 4 책이 송정서원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였다. 초간본《간송집》은, 현재 규장각(奎 11650), 성균관대학교 도서관(D3B-8),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D1-A828) 등에 소장되어 있다.

본 문집은 판심제(版心題)의 권차가 권수제(卷首題)의 권차와 다르게 원집과 별집을 통합하여 총 4 권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권수가 아닌 분책의 표시를 판심에 적은 것이다.

그 뒤 원집에서 누락된 시문들을 후손 조선수(趙善秀)가 수습하여, 19 세기 후반에 사미헌(四未軒) 장복추(張福樞)에게 편정을 부탁하고 발문을 받았다. 장복추는 속집을 4 권으로 편정하고, 발문을 지었는데, 그 발문에 "원집이 간행된 지 1 백여 년이 지났다."라고 하였다. 이때가 대략 1800 년대 후반에 해당한다. 이 속집은 간행되지 못한 채, 사손(嗣孫) 조한규(趙漢珪), 6 세손 조광호(趙光鎬), 조광련(趙光鍊) 등에 의해서 보관되어 있다가, 1930 년에 이르러서 다시 노상직(盧相稷)의 교정을 거쳐 후손 조병규(趙昺奎) 등이 본손 및 사림들과 함께 부록 1 책을 포함한 5 권 2 책으로 편정하고 함안 합강정에서 활자로 간행하였다.

2. 체재

《간송집》 원집과 별집은 목판본인데, 1744 년경에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도・연보, 원집 5 권, 별집 2 권 합 4 책이다. 한 면은 10 행 20 자인데, 규격은 세로 21.4 ㎝, 가로 16 ㎝이고, 상하백어미(上下白魚尾)이다.

속집은, 판심에《간송선생속집》으로 되어 있고, 목활자본인데, 1930 년에 간행되었다. 모두 5 권 2 책인데, 한 면은 10 행 20 자인데, 규격은 세로 21.1 ㎝, 가로 16.9 ㎝이다. 어미는 상하이엽화문어미(上下二葉花紋魚尾)이다.

민족문화추진회(한국고전번역원)에서, 1992 년 한국문집총간 제 89 집에 편입하여 표점, 영인하여 양장본 1 책으로 반포했다.

3. 저본의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연보, 원집 5 권, 별집 2 권, 속집 5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집은 권두에 이광정(李光庭)이 1744 년에 지은 서(序)가 있고 이어서 세계도와 연보, 목록이 있다.

권 1, 권 2 는 시이다. 오언고시, 오언절구, 오언율시, 칠언고시, 칠언절구, 칠언율시, 칠언배율이 시체별, 연대별로 총 214 제(題)가 실려 있다.

간송의 시는, 평이하면서도 심오한 의미와 간절한 호소력이 있다. 강산풍물(江山風物)을 읊은 서경시는 자연과 혼연일체가 된 자신의 정감을 은은하게 표현했는데, 묘사가 극도로 섬세하면서도 고아하다. 시 가운데서 중요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 1 의 〈세유탄(世儒歎)〉은, 세상의 많은 유학자들이 말만 번지르르하고 실천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개탄한 시이다.

〈차임낙옹남자(次林樂翁南字)〉에서는, 지금 세상에서 동계(桐溪) 정온(鄭蘊),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이 유림의 영수이고 조정의 원로라 일컬을 수 있다고 했다.

〈동계만(桐溪挽)〉은, 동계 정온의 서거를 애도한 시인데, 동계가 광해조(光海朝)에 강직하게 지절(志節)을 지킨 점을 부각시켰다.

〈강재십영(江齋十詠)〉은, 자신의 장수지지(藏修之地)인 합강정(合江亭)의 대표적인 열 가지 풍경을 읊은 서정성이 풍부한 시이다.

〈기증허희화(寄贈許熙和)〉는, 자신을 방문해 준 미수(眉叟) 허목(許穆)에게 준 시이다.

〈유술(儒術)〉은, 정주(程朱)의 학문을 표준으로 해서 성경(誠敬)과 박약(博約)을 기본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한 시이다.

〈재송간변(栽松澗邊)〉은, 1603 년(선조 36) 나이 19 세 때에 간송(澗松)이라는 자호(自號)를 짓고 쓴 시로서 간송의 정신적 지향과 기개를 살필 수 있는 시이다.

〈심덕천서원(尋德川書院)〉은, 1611 년에 덕천서원을 방문하여 지은 시로, 남쪽 지방의 처사로 남명과 수우당(守愚堂)을 들 수 있는데, 세상에 숨어 살지만 세상을 잊지 않고, 세교(世敎)를 부식(扶植)하고 있는 공을 칭송하였다.

〈숙망우정(宿忘憂亭)〉은, 망우당(忘憂堂) 곽재우(郭再祐) 사후 창녕(昌寧) 낙동강 가 창암(蒼巖)에 있는 그의 정자에서 자면서, 망우당을 추모하면서 지은 시이다.

〈배여헌선생우원회당(拜旅軒先生于遠懷堂)〉은, 여헌(旅軒)의 학덕을 극도로 흠모하는 심정을 나타낸 시이다.

〈풍수음(風樹吟)〉은, 돌아가신 부친을 그리워하는 효심을 나타낸 시이다.

권 2 에 실린 〈감흥십오수(感興十五首)〉는, 자연과 자신의 생활을 융화시켜 지어낸 걸작이다.

〈삼강구절구(三綱九絶句)〉는, 그 당시 대표적인 충신 3 인, 효자 3 인, 절부(節婦) 3 인을 기리는 9 수의 절구시이다. 1617 년 지었고, 자신의 발문(跋文)이 문집 권 4 에 실려 있다.

〈동현십육영(東賢十六詠)〉은, 포은 정몽주, 일두 정여창, 한훤당 김굉필, 추강 남효온, 정암 조광조, 화담 서경덕, 회재 이언적, 청송 성수침, 대곡 성운, 퇴계 이황, 남명 조식, 월천 조목, 고봉 기대승, 서애 유성

룡, 한강 정구, 여헌 장현광 등 16 명의 현인의 학덕을 칭송한 시인데, 자신의 학통을 위주로 인물을 선발하였다. 간송 자신의 간략한 주석이 있어, 우리나라 학술사와 유학사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문남한수위개연유작이수(聞南漢受圍慨然有作二首)〉는, 1636 년 겨울 남한산성이 포위되어 예의문명의 나라 조선이 변발한 오랑캐 만주족의 백성이 된 것을 개탄한 시이다.

〈봉정윤의령권립추강사우(奉呈尹宜寧勸立秋江祠宇)〉는, 의령 현감 윤순거에게, 추강 남효온의 사우를 세울 것을 권유한 시이다. 추강의 행적은, 자신의 선조 어계의 출처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문정동계여질환산(聞鄭桐溪舁疾還山)〉은, 남한산성이 함락될 때 자결하려던 동계가 상처받은 몸으로 안의 금원산 속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 시이다. 동계로 인해서 천고의 강상이 유지됨을 부각시켰다.

〈무제(無題)〉는, 자신이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머리가 허옇도록 이루지 못한 것을 탄식하는 시이다.

권 2 의 끝에는 여헌, 동계, 황암 박제인, 외재 이후경, 노파, 모계 문위, 부사 성여신, 무민당 박인, 등암 배상룡, 복재 이도자, 모정 배대유, 인원군 이휴복, 광서 박진영, 부령 부사 조영혼, 이도순, 임곡 임진부, 조은 한몽삼 등의 만사를 모아 실어 조선 중기 강우지역 유학자들의 생애와 학문의 특징을 알 수 있다.

권 3 은 소(疏) 1 편, 서한 29 편, 잡저 11 편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사사속소(謝賜粟疏)〉는, 1662 년(현종 3) 간송 78 세 때에 조정에서 음식을 하사한 것에 대해 사례하고 아울러 기근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고 널리 인재를 찾아 등용할 것을 청하는 내용인데, 엄궁금(嚴宮禁), 친유신(親儒臣), 설경석(設經席), 흥교학(興敎學), 수무비(修武備), 근곤직(謹閫職), 무군졸(撫軍卒), 택수령(擇守令), 명출척(明黜陟), 급농무(急農務), 정풍속(正風俗), 권절행(勸節行), 양염치(養廉恥), 숭예의(崇禮義) 등 14 조목의 시무책이 들어 있다.

서한 11 편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스승 여헌에게 주는 서한이, 1622 년부터 1631 년까지의 5 통인데, 부친의 묘갈을 지어 달라는 요청과 군자의 출처대절에 대해서 논한 것, 한강을 봉안할 회원서원 사우 창건을 알리는 내용 등이다.

수암 유진에게 보낸 서한은 2 통인데, 1631 년에 합천 군수로 있던 수암에게 간송 자신이 《금라전신록》을 편찬 중에 있으니, 서애가 지은 사종형 〈대소헌전(大笑軒傳)〉을 적어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또 용암서원에서 만나자는 내용이다. 1632 년에 보낸 편지는 서애의 학문을 이해하고 싶으니, 《서애문집》한 부를 보내달라는 내용이다.

동계 정온에게 준 서신은, 신산서원에 동강을 배향하는 문제를 의논하고 있다.

장응일에게 준 서한은 2 통인데, 스승 《여헌집》 편찬에 자신이 기록한 〈취정록(就正錄)〉의 내용을 초록해 보내니, 살펴서 《여헌집》에 수록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무민당 박인에게 보낸 서한은, 《산해사우연원록》에 퇴계에 관한 사실을 실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임곡 임진부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덕천서원 내부의 갈등이 특정인에 의해서 야기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은 남명을 극도로 흠모하고 있지만, 덕천서원의 일에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심경을 밝히고 있다.

윤순거에게 보낸 서한은, 퇴계를 향사할 덕곡서원 건립 과정을 논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소회서(移疏會書)〉는, 퇴계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위한 집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서한이다.

잡저 가운데 〈우언〉은, 군자의 처세와 관련한 이치를 논한 글인데, 군자(君子)는 음사(陰邪)한 사람에게 힘으로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다툴 것도 없으므로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뜻을 얻었을 때에는 군자는 은둔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은근히 정인홍 일파의 횡포를 풍자한 글이다.

〈자전(自傳)〉은 천진한 성품을 지니고 세속에 얽매이지 않고 담박하게 살아가는 간송 자신의 모습을 읊은 글이다.

〈기이(記異)〉는, 불교 교리의 허구를 논리적으로 지적한 글이다.

〈관규쇄설(管窺瑣說)〉 제 1 칙(則)에서는 진정한 학문의 자세를, 제 4 칙에서는 당론의 문제점을, 제 5 칙에서는 불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권 4 에는, 서(序) 5 편, 기(記) 2 편, 제발(題跋) 14 편, 잠명(箴銘) 5 편, 제문 16 편이 실려 있다.

〈금라전신록서(金羅傳信錄序)〉는, 함안 사대부들의 비명, 묘지, 행장, 제문 등과 고금 향인들의 작품을 모아 1639 년(인조 17)에 엮은 《금라전신록》에 대한 서문이다. 함안의 인물과 문학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글이다.

〈희정당이선생문집서(喜靜堂李先生文集序)〉는, 남명 제자이자 간송의 장인인 노파 이흘의 문집의 서문으로, 간송의 문학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글이다.

〈황암선생유고서(篁巖先生遺稿序)〉는, 황암 박제인의 생애와 학문 및 간송의 학문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글이다.

〈여현정기(與賢亭記)〉는, 망우당 곽재우가 그 정자 망우정(忘憂亭)을 이도순(李道純)에게 주게 되어 이름이 바뀐 경위를 기록하고 있다.

〈서포은선생집후(書圃隱先生集後)〉는, 포은 정몽주의 효성, 충절, 학문, 외교능력 등 여러 방면에 뛰어났음을 부각시켜 동방이학지조(東方理學之祖)로 추앙되는 것은 마땅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글이다.

〈서남명선생차서화담시후(書南冥先生次徐花潭詩後)〉는, 남명은 은둔자가 아니고 구세정신이 투철한 선비였음을 밝히는 글이다.

〈구일등고시발(九日登高詩跋)〉은, 그 선조 어계 조려가 요순의 이상세계를 갈구한 정신을 밝히는 글이다.

〈어계선생전후발(漁溪先生傳後跋)〉은, 성문준(成文濬)이 지은 〈어계전(漁溪傳)〉의 입수 경위와 그 내용과 가치를 밝힌 글이다.

〈남명선생연보발(南冥先生年譜跋)〉은, 남명 학문은 요체가 경의에 있다는 것을 밝히고, 그 학문으로 국왕을 도울 능력이 있었다는 점과 무민당 박인이 《남명연보》를 편찬하게 된 과정과 문제점 등을 밝히고 있다.

〈망우당연보발(忘憂堂年譜跋)〉은, 망우당의 충효대절과 자신과의 관계를 밝힌 글이다.

〈곤지재잠(困知齋箴)〉은, 간송 자신의 성학과정을 밝히고 있다.

〈제여헌선생문(祭旅軒先生文)〉은 스승 여헌 장현광의 서거를 애도하고 자신이 훈자(薰炙)를 받은 과정을 서술하는 제문이다.

〈제노파선생문(祭蘆坡先生文)〉은, 노파(蘆坡) 이흘의 별세를 애도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밝히고, 용암서원 운영과 관계된 글을 밝힌 글이다.

〈제박백화문(祭朴伯和文)〉은, 무민당 박인의 별세를 애도하고, 자신과의 관계를 밝히고, 〈남명연보〉 편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밝힌 글이다.

권 5 에는 축문 19 편, 비지(碑誌) 3 편, 행장 4 편 등이 실려 있다.

〈예림서원봉안오졸자선생문(禮林書院奉安迂拙子先生文)〉은, 오졸자 박한주(朴漢柱)를 밀양의 예림서원에 봉안하면서 고한 글인데, 오졸자의 학문과 인품을 흠모한 글이다.

〈관산서원봉안한강선생문(冠山書院奉安寒岡先生文)〉은, 창녕 관산서원에 스승 한강 정구를 봉안할 때 고한 글이다. 한강의 학문연원과 후학에 끼친 영향을 밝혔다.

〈어계사춘추향사축문(漁溪祠春秋享祀祝文)〉은, 어계의 절의를 간명하게 정의한 글이다.

〈의회원서원봉안문창후문(擬檜原書院奉安文昌侯文)〉은, 창원 회원서원에 문창후 최치원을 봉안할 때 고한 글이다. 최치원의 일생과 학문의 특징을 밝힌 글이다. '의(擬)'자가 붙은 것으로 봐서 실제로 쓰이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의회원서원고한강선생문(擬檜原書院告寒岡先生文)〉은, 회원서원에 최치원을 봉안할 때 이미 향사되고 있던 한강 정구에게 고한 글이다.

〈의덕곡서원봉안퇴계선생문(擬德谷書院奉安退溪先生文)〉은, 의령 덕곡서원에 퇴계 선생을 봉안한 글이다. 퇴계의 학문과 후세의 영향, 의령과의 관계 등을 밝힌 글이다.

〈의봉안남추강문(擬奉安南秋江文)〉은, 의령 자굴산 아래 추강 남효온의 사우를 짓고 추강을 봉안할 때 고한 글이다. 그가 강상을 부식(扶植)한 공적을 부각시킨 글이다.

〈오졸자박선생여표비명(迂拙子朴先生閭表碑銘)〉은, 조선 전기 충절신 오졸자 박한주(朴漢柱)의 행적을 기록하고 효성을 부각시킨 글이다.

〈희정당행장(喜靜堂行狀)〉은, 노파 이흘의 일생의 행적과 학문을 기록한 글이다. 용암서원의 운영에 관한 사실이 상당히 밝혀져 있다.

〈무민당행장(无悶堂行狀)〉은, 무민당 박인의 일생의 행적과 학문을 기록한 글이다. 무민당과 정인홍과의 관계를 비교적 소상히 밝혀 놓아 참고 가치가 높다. 《남명연보》와 《산해사우연원록》의 편찬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가선대부황해도방어사박공행장(嘉善大夫黃海道防禦使朴公行狀)〉은, 광서 박진영의 일생과 학문을 기록한 글이다. 임진왜란 창의과정, 이괄의 난의 상황, 국경지방의 경비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황곡행장(篁谷行狀)〉은, 퇴계・남명 양문(兩門)을 출입한 황곡 이칭의 일생의 행적과 학문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글이다. 임진왜란 때의 창의상황과 강우지역의 선비들의 동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간송집》 별집은 두 권이다. 권두에 목록이 있고, 권 1 에는 서(序) 1 편, 설(說) 1 편, 녹(錄) 6 편, 기(記) 1 편 등이 실려 있다. 권 2 는 부록인데, 이광정이 지은 저자의 묘갈명 및 당시 사우, 후학들이 쓴 만장, 제문, 송정서원상량문, 봉안문, 합강정중건상량문 등이 실려 있다.

〈취정록(就正錄)〉은, 여헌 장현광의 문하를 출입하면서 훈도를 받은 내용과 여헌의 언행을 기록한 글이다. 여헌을 연구하거나 여헌과 간송의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

〈용화산하동범록후서(龍華山下同泛錄後序)〉는, 1607 년 음력 1 월에, 한강 정구가 용화산 아래 도흥(道興)에 머물렀을 때, 여헌 장현광, 망우당 곽재우도 함께 왔는데, 함안, 영산, 창녕 등의 선비가 모여 학문을 토론하던 상황을 기록하였다. 한강학파 제자들의 분포와 활동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심현록(尋賢錄)〉은, 1626 년 음력 7 월에, 조은 한몽삼 등과 함께 내내(柰內) 강사(江舍)에서부터 배를 타고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 현풍의 도동서원, 인동의 오산서원(吳山書院)을 둘러보고, 인동에서 여헌을 만나 가르침을 받고, 창녕을 거쳐 돌아온 기행문이다.

〈과종록(過從錄)〉은, 1629 년 음력 3 월에, 임곡 임진부와 함께 배를 타고 낙동강을 따라 내려가면서, 경양대(景釀臺), 우포(雩浦), 망우정 등을 둘러보고 인근의 사우들과 어울려 놀던 기록이다.

〈원행록(遠行錄)〉은, 1631 년 음력 6 월에, 봉화로 가서 스승 반천 김중청의 상에 조문하기 위해서 하양, 청송, 영주를 거쳐, 봉화에 가서 조문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안의 도산서원, 오천을 심방하고, 의성, 선산을 거쳐, 인동에서 여헌을 뵙고, 현풍, 창녕, 영산을 거쳐 돌아온 기행문이다.

〈유관록(遊觀錄)〉은, 1635 년 음력 3 월에, 김해 신산서원 원장을 맡아 춘향에 참제(參祭)하기 위해서, 사우들과 칠원 내내에서 배를 타고 김해까지 왕환(往還)한 기행문이다.

〈개진기회록(開津期會錄)〉은, 1643 년 음력 3 월, 등암 배상룡 등과 함께 고령의 개진에서 만나 산수를 유람한 글인데, 끝에는 미수 허목의 발어(跋語)가 첨부되어 있다.

속집은 5 권이다. 권두에 있는 목록은 상당 부분이 착간되어 있다. 권 1 은 약 200 여 제(題)의 시인데 시체별로 되어 있다. 남명의 영시(迎諡) 행사,《남명집》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시가 들어 있다. 각 시체의 끝 부분에 만사가 따로 모아져 실려 있다. 여헌 장현광, 당암(戇菴) 강익문(姜翼文), 한사 강대수, 광서 박진영, 경암(敬菴) 오여벌(吳汝橃), 모정 배대유, 능허 박민 등 중요한 인물들의 이력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다.

권 2 에는 소(疏) 3 편이 들어 있는데, 공릉 참봉(恭陵參奉)을 사양하는 소, 대군사부를 사양하는 소, 성학(聖學)을 면려하는 소 등 중요한 소가 들어 있다.

권 3 에는 서(書) 38 편, 서(序) 1 편이 들어 있다. 서한은, 여헌에게 올리는 것 2 통 이외에, 여헌 아들 장응일, 무민당 박인, 임곡 임진부, 동계 권도 등에게 보내는 것들이 들어 있다. 특히 무민당에게 주는 서한에서는, 각재(覺齋) 하항(河沆)의 덕천서원 종향 문제, 신산서원 원장 문제,《산해사우연원록》과《남명연보》편찬 문제에 관한 중요한 논의가 들어 있다. 오여벌에게 주는 서한에서는《금라전신록》편찬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다.

권 4 에는 축문 10 편, 제문 5 편, 묘갈 6 편, 전(傳) 1 편, 찬(贊) 2 편이 실려 있다. 축문 가운데는 오산서원(吳山書院)에 여헌을 봉안하는 축문, 점필재를 새 사당에 봉안하는 축문, 어계를 새 사당에 봉안하는 축문이 들어 있다. 상향고문(常享告文)에는 삼족당 김대유, 황암 박제인, 망우당 곽재우 등을 향사할 때 쓴 축문이 들어 있다. 제문 가운데는 여헌, 광서 박진영, 인원군 이휴복 등에게 제사 지내는 제문이 들어 있다. 찬에는 신재 주세붕, 인원군 이휴복 등을 찬미하는 글이 들어 있다.

권 5 에는 부록으로 저자에 대한 겸재 하홍도 등 42 인이 지은 만장과 신시망(辛時望) 등 26 인의 제문이 들어 있다. 양시우(楊時遇)가 지은 〈상봉정기(翔鳳亭記)〉, 서명서(徐命瑞)가 지은 〈조양루기(朝陽樓記)〉가 실려 있다.

속집 권미에는 사미헌 장복추, 일산 조병규, 소눌 노상직이 쓴 속집발(續集跋)이 실려 있고, 끝에 1930 년 5 월에 속집을 합강정에서 활자로 간행한다는 간기(刊記)가 실려 있다.

Ⅶ. 결어(結語)

《간송집》의 저자인 간송 조임도는, 남명학파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상 우도에 속한 고을인 함안군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간송은 어릴 적부터 경상 좌도의 퇴계학파에 속하는 인물들을 스승으로 삼아 퇴계학파의 학통에 먼저 접맥되게 되었다.

간송이 23 세 때 노파 이흘의 사위가 되어 노파의 문인이 되었지만, 책을 펴 놓고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그의 인격과 학문의 형성에는 퇴계학파의 학자들이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고, 그 가운데서도 여헌 장현광의 영향이 가장 컸다.

그러나 간송의 활동지역은 남명학파의 본거지인 경상 우도였으므로 그는 남명학파 학자들의 영향을 받아 남명학파로 전환되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고향인 함안에는 남명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고, 자기 처향(妻鄕)인 삼가현은 남명이 생장하여 강학하던 곳이다. 또 간송의 장인인 노파는 남명을 모신 용암서원

의 원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는 퇴계학파를 떠나 남명학파로 이적한 것이 아니고, 퇴계학파로서의 소속을 유지하면서 아울러 남명학파의 소속으로서 활동하였다.

남명학파와 퇴계학파에 모두 교유관계가 있었던 특수한 위치에 있던 간송은 두 학파간의 융화를 위해서 한 평생 노력하였다. 그리고 한 쪽 학파에 치우치지 않고 아주 균형감 있게, 두 학파의 장점을 흡수하여 그 사이에서 자기의 위상을 정립하였다.

그는 두 학파의 장점을 잘 흡수하여 자신의 새로운 독자적인 인간상과 학문노선을 형성하였다. 자신의 지절을 굳게 지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신의 노선을 견지하여 벼슬하지 않고 임하(林下)에서 일생을 보낸 것과 벼슬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와 민생의 일을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는 것은 남명학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간송은 이런 점을 잘 섭취하였다. 학문을 탐구하여 저술을 많이 하고 시문을 저술하기를 좋아하는 점 등은 퇴계학파의 특징인데, 이런 점도 간송은 잘 흡수하였다. 퇴계학파의 학자들이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여 그 방면의 저술이 많은데 간송의 문집에는 성리학에 관한 저술이 하나도 없다. 이 점은 퇴계학파를 배웠으면서도 자기가 좋지 않다 생각한 것은 남명학파를 따랐음을 알 수 있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간송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양심과 용기와 균형감각을 갖고 양학파(兩學派)에 속하면서 두 학파의 장점을 잘 흡수하여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여 활동한 학자이다. 그러나 그를 추종하는 후학이나 후손들은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점 남명학파와는 관계를 멀리하고, 퇴계학파에 더욱 더 접근하려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인조반정 이후 남명학파의 몰락과 관계가 있다. 이런 사실 왜곡은, 그 당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간송집》은 저술이 적은 남명학파 내에서 보기 드물게 체재가 갖추어진 내용이 풍부한 문집이다.

《간송집》 속에는, 간송의 생애에 학문을 알 수 있는 중요 자료는 물론이고, 남명의 학문 성향과 남명학파의 동향, 경상 우도 일원의 퇴계학파의 영향, 퇴계학파와 남명학파와의 교류관계, 한강학파(寒岡學派)의 동향 및 경상 우도의 영향, 여헌의 학문과 간송과의 관계, 함안을 중심으로 하는 경상 우도의 인물과 학문, 어계 대소헌 등 함안 조씨 일문의 인물과 학문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경상 우도 출신 학자들의 문집 가운데서도 그 가치와 비중이 매우 높은 자료라 하겠다.(이 해제의 작성에는, 朴憲淳의 〈澗松集解題〉(韓國古典飜譯院)를 많이 참고하였고, 許捲洙의 〈南冥・退溪 兩學派의 融和를 위해 노력한 澗松 趙任道〉에서 재인용한 내용이 많다.)

조임도(趙任道)

정의

조선시대 『관규쇄록』, 『추모록』, 『간송집』 등을 저술한 학자.

개설

본관은 함안(咸安). 자는 덕용(德勇), 호는 간송당(澗松堂). 조식(趙埴)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문화유씨(文化柳氏)로, 병절교위(秉節校尉) 유상린(柳祥麟)의 딸이다. 김중청(金中淸)·고응척(高應陟)·장현광(張顯光) 등을 사사하였다.

생애 및 활동사항

1604 년(선조 37) 향시에 합격하였고, 그 이듬해인 21 세 때『관규쇄록(管窺鎖錄)』을 저술하였다. 1608 년(광해군 즉위년)「거상대절(居喪大節)」10 조(條)를 써서 자손들이 교훈으로 삼도록 하였으며, 또 아버지의 언행록인『추모록(追慕錄)』을 지었다.

1614 년에는 동당시(東堂試)에, 그 이듬해 향해(鄕解)에 합격하였고, 1627 년(인조 5) 정묘호란 때 향인(鄕人)이 조임도를 의병장으로 추대하였으나 신병으로 참여하지 못하였다. 1634 년 공릉참봉(恭陵參奉)에 제수되었으나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고, 1638 년『취정록(就正錄)』을 쓰고 그 이듬해『김라전신록(金羅傳信錄)』을 편찬하였다.

1644 년『대소헌유사(大笑軒遺事)』를 찬하였으며, 1647 년 대군사부(大君師傅)에 임명되어 창녕까지 가다가 병으로 부임하지 못하였다. 그 뒤 공조좌랑으로 임명되었으나, 노병으로 사직하고 부임하지 아니하였다. 사헌부지평에 증직되고, 함안의 송정서원(松亭書院)에 제향되었다. 저서로는『간송집(澗松集)』 7 권 4 책이 있다.

간송집 연보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四十六年戊午 先生三十四歲○時朝議以廢大妃爲國是。有六品以上收議之擧。先生過。篁巖朴公齊仁曰。收議已略有商量。歷擧一二曰。大妃一國之母。非有大惡如漢，唐之呂，武。臣子不敢進廢黜之說。況大妃先王寵后。殿下自不忍爲此擧云云。先生曰。寵后二字。於義似未穩。直當明之以大義。不宜復論其寵之隆替也。公頷之。申梧峯之悌聞之曰。趙某之言極是云。

46 년(1618, 광해군 10) 무오 선생 34 세

당시 조정에서는 대비를 폐위시키는 것을 국시(國是)로 삼을 것을 논의하면서, 6 품 이상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선생이 황암(篁岩) 박공(朴公) 제인(齊仁)을 찾아가니 박공이 말하기를 "의견을 수렴하는 일은 이미 대략 의논이 되었습니다. 한두 가지를 조목조목 들자면 대비는 일국의 어머니입니다. 한나라의 여태후나 당나라의 측천무후와 같은 악행이 없고서는 신하가 감히 폐출하라는 말을 진언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대비께서는 선왕의 총후(寵后)여서 전하께서도 스스로 차마 이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선생이 말했다. "총후라는 말은 의리상 온당치 못하니 다만 마땅히 대의(大義)로 그것을 밝혀야지, 그 총애의 여부를 다시 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자 황암공이 고개를 끄덕였다.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가 그 말을 듣고 "조모의 말이 극히 옳습니다....." 라고 하였다.

地濱江而先墓亦在江濱。若辦一隻輕舟。春秋省墓。往來甚便。何不可之有。其拳拳之意如此。

四十二年甲寅先生三十歲中東堂試

四十三年乙卯先生三十一歲秋中鄉解數年之間。時議大乖。先生斂迹丘園。謝絕人事。而以母夫人之故。黽勉赴試。

四十四年丙辰先生三十二歲春赴會試聲音與政通賦。先生在異等而見拔。自是棄絕舉業。唯以書籍自娛。

四十五年丁巳先生三十三歲

四十六年戊午先生三十四歲○時朝議以廢大妃爲國是。有六品以上收議之舉。先生過篁巖朴公齊仁曰。收議已畧有商量。歷舉一二曰。大妃一國之母。非有大惡如漢唐之呂武。臣子不敢進廢黜之說。況大妃先王寵后。殿下自不忍爲此舉云云。先生曰。寵

后二字。於義似未穩。直當明之以大義。不宜復論其寵之隆替也。公頷之。申梧峯之悅聞之曰。趙某之言極是云。避地居漆原之柰內。先生既立異於辛亥疏議。決意遠蔽。至柰內。愛其地僻民淳。遂止泊焉。追次成尚夫送別韻云。吾聞古哲人。不處衰俗間。磬襄東入海。柱史西至關。曰余有奇趣。來卧江上山。塵喧不入夢。此地非人寰。又賦他山石云。誰謂他山石。可以攻美玉。玉性溫且潤。石品頑更碌。精麤既不倫。軋磨又太酷。攻之不以漸。殘缺因撞觸。玉人撫之泣。深藏在空谷。塵埋色逾妍。皎潔光朝旭云云。翔鳳亭成。柰內。洛江之南涯。有巖壁之勝。寒岡鄭先生所嘗卜而未築者也。先生以先塋在邇。便於省拜。而又多池澤產鯽魚。適於奉親。就江皐構小齋。以翔鳳扁焉。有絕句云。一鶴高飛萬仞天。江湖勝地好盤旋。由來飽食終媒禍。莫逐秋鴻近稻田。其悠然自得之趣如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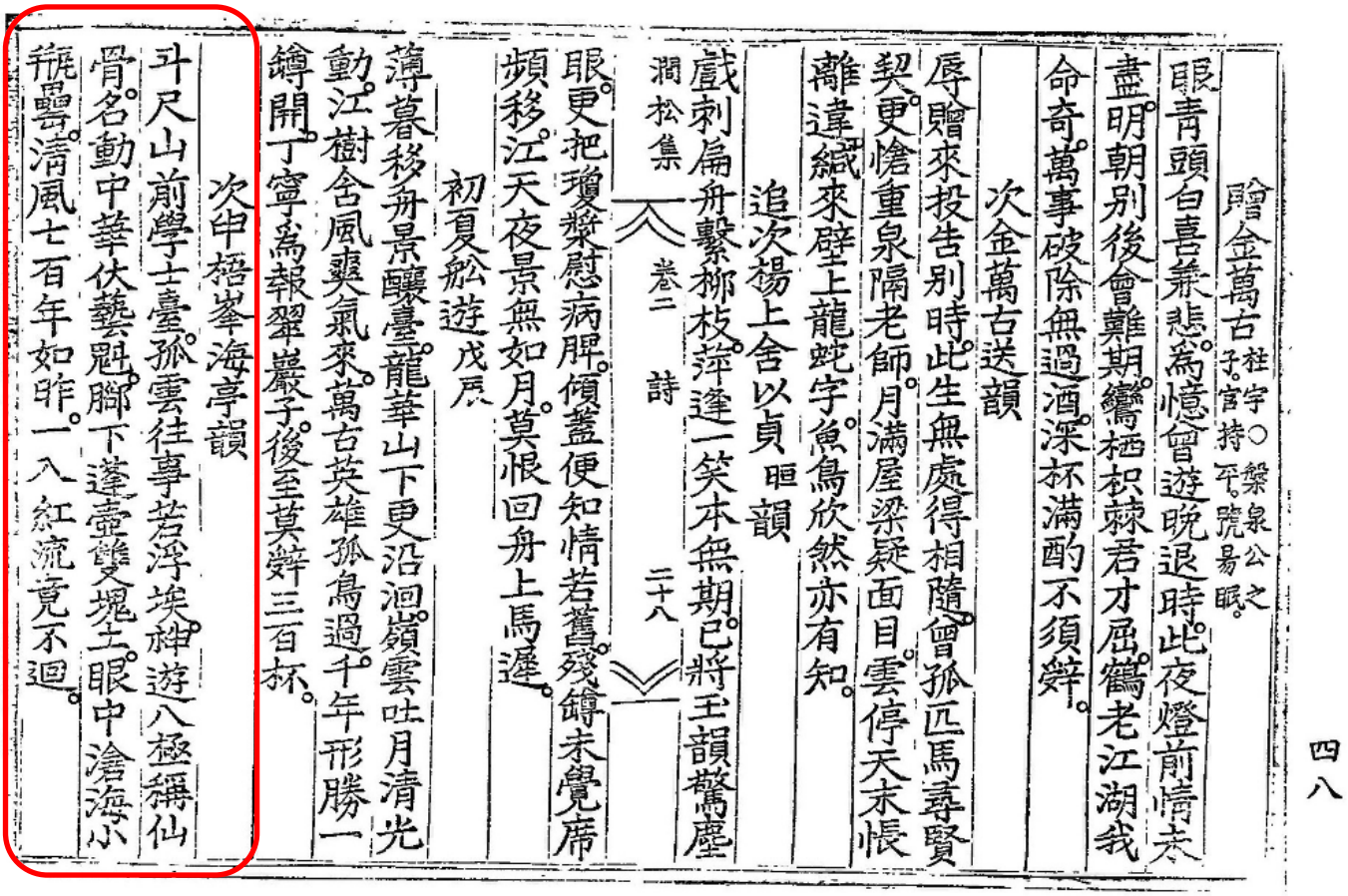
四十七年己未先生三十五歲三月。哭篁巖朴先生。有祭文

간송집 제1권 / 시(詩)○오언율시(五言律詩)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갑인년(1614, 광해군6) 삼월 삼짇날에 오봉 어른과 함께 월영대에서 놀다〔甲寅踏靑同梧峯丈遊月影臺〕 오봉은 신공 지제의 호이다.

학사비에는 글자도 없는데 / 學士碑無字
문창군이란 이름만 남아 있네 / 文昌郡有名
풍류 즐기던 어진 태수요 / 風流賢太守
강해의 늙은 서생이었네 / 江海老書生
술은 근심을 없애려고 올리고 / 酒爲銷愁進
시는 옛일을 느껴서 짓는 다네 / 詩因感古成
신선대도 없어졌으니 / 仙臺亦消歇
세상사 굳이 평할 것도 없다네 / 世事不須評


贈金萬古 杜宇○槃泉公之子。宮持平。號易眠。
眼靑頭白喜兼悲爲憶曾遊晩退時此夜燈前情未盡明朝別後會難期鸞栖枳棘君才屈鷁老江湖我命奇萬事破除無過酒深杯滿酌不須辭。

次金萬古送韻
辱贈來投告別時此生無處得相隨曾孤匹馬尋賢契更愴重泉隔老師月滿屋梁疑面目雲停天末悵離違織來壁上龍蛇字魚鳥欣然亦有知。

追次楊上舍以貞晦韻
戲刺偏舟繫柳枝萍逢一笑本無期已將玉韻驚塵眼更把瓊漿慰病脾傾盖便知情若舊殘罇未覺席頻移江天夜景無如月莫恨回舟上馬遲。

初夏舡遊 戊辰
薄暮移舟景釀臺龍華山下更沿洄嶺雲吐月淸光動江樹含風爽氣來萬古英雄孤鳥過千年形勝一罇開丁寧爲報巖子後至莫辭三百杯。

次申梧峯海亭韻
斗尺山前學士臺孤雲往事若浮埃神遊八極稱仙骨名動中華伏藝魁脚下蓬壺雙塊土眼中滄海小瓢罍淸風七百年如昨一入紅流竟不廻。

갑인년(1614, 광해군6) 답청에 월영대에서 놀며 신오봉 어른의 시에 받들어 차운하다 〔甲寅踏青日遊月影臺奉次申梧峯丈〕

郡古餘頹堞。臺荒沒舊蹤。煙霞粧暮景。桃柳媚春容。發興詩爭筆。消憂酒滿鍾。仙區酬令節。珍重我梧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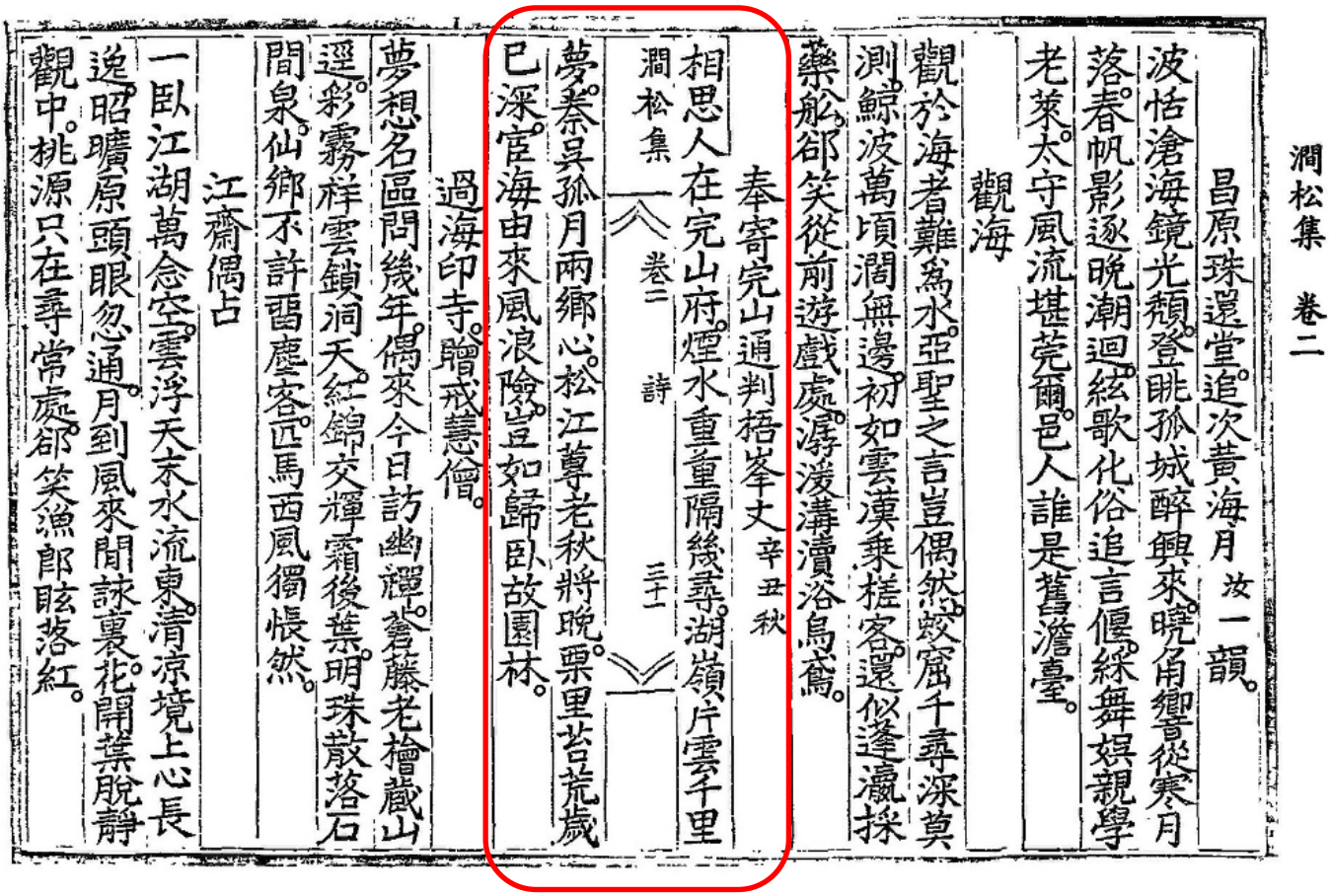
고을 오래되어 무너진 성가퀴 남아있고 / 郡古餘頹堞
누대는 황량하여 옛날 자취 없어졌네 / 臺荒沒舊蹤
노을은 저녁 풍경을 물들이고 / 煙霞粧暮景
복숭아와 버들은 봄 모습을 뽐내네 / 桃柳媚春容
흥이 일면 시를 다투어 짓고 / 發興詩爭筆
근심을 풀려고 잔에 술을 가득 따르네 / 消憂酒滿鍾
신선세계에서 좋은 때를 보내니 / 仙區酬令節
우리 오봉 어른에게 감사하네 / 珍重我梧峯

澗松集 續集 卷一
謙齋河弘度
楓桂丹如錦。秋高景益絶。禪臺淸可話。不妨下山月。
秋潭鄭顧
五言律詩
忘憂亭次李省甫
勝地供詩料。來登幾竭才。身如臨貝闕。氣欲涉蓬萊。已覺神襟爽。還驚世念灰。亭臺有賢主。爲爾久徘徊。
次朴勉甫 昌道
天慳奇勝地。付我結幽棲。不必歸盤谷。何須入剡溪。江雲迷釣瀨。山靄失樵蹊。爲謝尋眞客。淸談到日西。
詩 澗松先生續集卷一 五
頭龍浦 統營 乙卯
淸絶頭龍浦。雄奇鎭虜城。旌旗翻日影。鼓角徹雲程。滄海無邊鏡。靑山幾疊屛。扁舟探勝客。留滯不知行。
嘉樂村訪金行初 宗奇 不遇
嘉樂曾遊地。來尋野老家。靑山三面合。白屋數椽斜。菊綻黃金蕊。池涵碧玉波。秋光如許好。落日獨經過。
甲寅踏靑日遊月影臺奉次申梧峯丈。
郡古餘頹堞。臺荒沒舊蹤。煙霞粧暮景。桃柳媚春容。發興詩爭筆。消憂酒滿鍾。仙區酬令節。珍重我梧峰。
灘石樓偶吟 己酉

완산 통판인 오봉 어른께 받들어 부치다 신축년(1661, 현종2) 가을 〔奉寄完山通判梧峯丈 辛丑秋〕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그리워하는 사람은 완산부에 있으니 / 相思人在完山府
안개와 물 겹겹이 천 길이나 떨어졌네 / 煙水重重隔幾尋
호남과 영남의 조각구름에 천 리를 꿈꾸고 / 湖嶺片雲千里夢
진나라와 오나라의 외로운 달은 두 고을의 마음이네 / 秦吳孤月兩鄉心
송강의 순채 시드니 가을이 저물려 하고 / 松江蓴老秋將晚
율리에는 이끼도 거친데 해는 이미 깊었네 / 栗里苔荒歲已深
벼슬살이는 원래 풍랑이 험하니 / 宦海由來風浪險
어찌 고향에 돌아와 누운 것과 같을까 / 豈如歸臥故園林



창원 부사 오봉 신지제에게 드리다〔呈昌原使君申梧峯 之悌〕

昨夜東軒飮。荷花滿一塘。朝來風入戶。香氣在衣裳。

어젯밤 동헌에서 술 마실 땐 / 昨夜東軒飮
연꽃이 온 연못에 가득했고 / 荷花滿一塘
새벽에 바람이 집으로 불어오니 / 朝來風入戶
향기가 옷에 있네 / 香氣在衣裳

世間輕薄兒誰能識得此。
五言絕句
謾述二首
世道若波瀾。安流或險艱。不如茅屋裏。閉對古書看。
讀律知何用。窮經只自頤。茅簷隱几處。長嘯一含悲。
泛舟景釀臺下
俯視下無地。仰觀上有天。誰言眞境遠。坐此卽神仙。
閑居雜詠三首
月色秋來好。山容霽後新。箇中眞意味。欲唱和無人。
春暖花香暗。林幽鳥語閒。地偏車馬絕。長嘯對靑山。
詩
澗松先生續集卷一 二
澗水千尋碧。巖花百日紅。一間茅屋裏。閑趣野僧同。
次吳永川景虛二首
路爲雲泥隔。身因窮達離。平生心內事。抵死只相知。
蹤跡雖云遠。心期尙不離。風霜松栢操。歲晩幸相知。
呈昌原使君申梧峰 之悌
昨夜東軒飮。荷花滿一塘。朝來風入戶。香氣在衣裳。
戱呈李上舍 會一
三編碧魚去。兩斗紅豆來。授受若相換。表情安在哉。
次李貫之 道一 送竹韻
故人寄我竹。見竹如見人。那逢眞面目。慰此索居人。
一七八

간송집 제2권 / 시(詩)○칠언율시〔七言律〕

신오봉의 관해정 시에 차운하다〔次申梧峯海亭韻〕

斗尺山前學士臺。孤雲往事若浮埃。神遊八極稱仙骨。名動中華伏藝魁。脚下蓬壺雙塊土。眼中滄海小瓶罍。淸風七百年如昨。一入紅流竟不廻。

두척산 앞의 학사대에는 / 斗尺山前學士臺

고운의 옛일이 뜬 먼지 같네 / 孤雲往事若浮埃

정신이 팔방에 노니 신선 될 자질이라 일컬었고 / 神遊八極稱仙骨

명성이 중국을 진동시켜 대문장가를 감복시켰네 / 名動中華伏藝魁

다리 아래 봉래산과 방호산은 두 덩이 흙이요 / 脚下蓬壺雙塊土

눈 속 푸른 바다는 작은 항아리라 / 眼中滄海小瓶罍

맑은 기풍에 칠백 년이 어제 같은데 / 淸風七百年如昨

홍류동에 들어가더니 끝내 돌아오지 않네 / 一入紅流竟不廻

贈金萬古 杜宇○槃泉公之子。宮持平。號易眠。

眼靑頭白喜兼悲。爲憶曾遊晩退時。此夜燈前情未盡。明朝別後會難期。鸞栖枳棘君才屈。鶴老江湖我命奇。萬事破除無過酒。深杯滿酌不須辭。

次金萬古送韻

辱贈來投告別時。此生無處得相隨。曾孤匹馬尋賢契。更愴重泉隔老師。月滿屋梁疑面目。雲停天末悵離違。緘來壁上龍蛇字。魚鳥欣然亦有知。

追次楊上舍以貞晬韻

戲刺扁舟繫柳枝。萍逢一笑本無期。已將玉韻驚塵眼。更把瓊漿慰病脾。傾蓋便知情若舊。殘罇未覺席頻移。江天夜景無如月。莫恨回舟上馬遲。

初夏舡遊戊辰

簿暮移舟景釀臺。龍華山下更沿洄。巓雲吐月淸光動。江樹含風爽氣來。萬古英雄孤爲過。千年形勝一罇開。丁寧爲報巖子。後至莫辭三百杯。

次申梧峯海亭韻

斗尺山前學士臺。孤雲往事若浮埃。神遊八極稱仙骨。名動中華伏藝魁。脚下蓬壺雙塊土。眼中滄海小瓶罍。淸風七百年如昨。一入紅流竟不廻。

四八

간송집 제3권 / 잡저(雜著)

박황암이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한 설〔朴篁巖收議說〕 황암의 휘는 제인(齊仁), 자는 중사(仲思)이다.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戊午年間。朝廷方以廢大妃爲國是。有六品以上收議之說。一日。謁篁巖朴先生。先生曰。收議之說。君亦聞知否。對曰。聞之矣。先生曰。大事不可不預爲留念。已於胸中略自經畫。君其聽之。因歷擧口誦以詔之。其大要則曰。大妃。一國之母。非有非常之惡自絶於宗廟社稷。如漢，唐之呂，武。則臣子不敢進廢黜之議。況大妃。先王寵后。殿下自不忍爲此擧。云云。措語質直。無所回互。聽之令人縮頸。余甚感歎。仍請曰。先生之言。至當至當。但有一語未穩。改此則可百世以俟而不惑矣。先生瞿然曰。甚語也。曰。寵后二字。於義少歉。直當明之以大義。不須復論其寵之隆替也。明以大義。則爲萬世之公議。論其寵眷。則爲一時之私情。未可以恩寵盛衰爲之輕重也較然矣。先生頷之。他日洪君鈇以告申梧峯令公。公曰。趙生之見。極是極是云。

무오(1618, 광해군 10) 연간에 조정에서 한창 인목대비를 폐위시키는 것을 나라의 중대 사안으로 삼아 6 품 이상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이 있었다. 하루는 황암(篁巖) 박 선생(朴先生)을 찾아뵈었는데, 선생께서 "의견을 수렴한다는 말을 그대도 들어 알고 있는가?"라고 하시기에, 나는 "들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선생께서는 "대사는 미리 유념하지 않을 수 없네. 이미 가슴속에 대략 계획을 세워두었으니, 그대가 들어보게."라고 하고는, 차례차례 거론하여 말씀하시며 가르쳐 주셨다. 그 요점은 '대비는 한 나라의 어머니이니 한(漢)나라의 여후(呂后)나 당(唐)나라의 무후(武后)와 같이 평범하지 않은 악행으로 스스로 종묘사직에서 버림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신하는 감히 폐출시키자는 의론을 올릴 수 없다. 하물며 대비는 선왕께서 총애하던 왕후시니 전하께서 차마 이런 거사를 스스로 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말씀이 질박하고 곧으며 에두르는 것이 없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나를 흠칫 두렵게 하여 내가 매우 감탄하였다. 그로 인하여 "선생의 말씀은 지극히 당연하고 당연하십니다. 다만 한 마디 말씀은 온당하지 않으니 이것을 고치면 백세 뒤를 기다려도 의혹스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청하였다. 선생께서는 흠칫 놀라시며 "어떤 말인가?"라고 하셨다. 내가 "'총애하던 왕후〔寵后〕' 두 글자는 의리에 조금 부족합니다. 단지 대의(大義)로써 그 부당함을 밝혀야 하니, 그 총애가 두터운지 엷은지는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의로써 밝힌다면 만세토록 영원한 공의(公議)가 될 것이고, 총애의 정도를 논한다면 한때의 사사로운 감정이 될 것이니, 총애가 두터운지 엷은지로 경중을 삼아서는 안 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뒷날 홍익(洪鈇) 군이 이 이야기를 신오봉(申梧峯) 공에게 말하였는데, 신공이 "조생(趙生)의 의견이 매우 옳도다, 매우 옳도다!"라고 하셨다고 한다.

간송별집 제1권 / 록(錄)○서(序)○설(說)○기(記)

취정록〔就正錄〕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庚子歲。隨家大人寓居於義城之舍谷村。一日。陪大人訪堂姊夫梧峯申公之悌于下川里。歸路過道旁林亭。一洞少長多會。梧峯公亦侍其尊人在座。其中一大人顔如渥丹。目容端正。視瞻無回。言動有則。從容和毅。沖澹凝遠。竊觀其溫厚平易之中有確乎不可拔之操。恭遜謙虛之中有截然不可犯之象。任道雖在童稚之年。未有知識。而心實異之。歸而問諸大人。答曰。是張報恩也。曾以學行遺逸。擢拜報恩縣監。汝尙識之哉。任道獲接先生道德輝光。蓋始於此。

辛丑壬寅年間。移寓仁同嘉樂洞。仁同卽先生所居之邑也。時陪先人往來遊從於先生之門。一日。先生來過嘉樂洞。任道於是時累改名未定。方以幾道呼之。先生戲笑曰。幾者近辭。人能近於道。亦不偶然。但以學者立志言之。則似乎未盡。便當求造其至極之地。何可止於近而已哉。先君聞而是之。卽以任字易之。蓋以先生之訓爲重也。

丁未初春。先生從寒岡鄭先生來遊道興江上。因與忘憂郭右尹相會同。泛於龍華山下。隣鄕士友之來會者三十餘人。吾父子亦參其中。先生答先人昆弟。手札至今猶存。

龍華同泛之日。忘憂公笑謂鄭先生曰。以吾所見。旅軒賢於寒岡。寒岡答曰。令公之見。也是也是。因盛稱先生。鄕丈鵲溪成公年齒最高。時在座中。以手麾之曰。姑舍是姑舍是。吾但知有吾師而已。靈山李斯文畏齋丈顧謂郭公曰。令公之論有同西河人。相與一場劇談而罷。由今思之。忘憂之言。質朴無邊幅。寒岡之答。廓然無私吝。鵲溪之姑舍是。畏齋之斥西河。亦出於尊師。意各有在。斯文盛會。其可再得乎。

癸丑抄秋。任道省墓于善山迎香。渡江拜先生于遠懷堂。先生頗有接引拳拳之意。令嗣子未冠者行酒。卽今之注書君也。任道避席苦辭。請使婢僕代之。先生不許。從容與語。穩敍阻闊之懷。語及先人。致不幸早世之歎。且諭以移居卜隣之好。辭意甚懇。任道起謝曰。擇地處仁。固所願也。但念慈父旣沒。松檟隔遠。以此爲憂耳。先生曰。此地濱江而先壟亦在水涯。若辦一隻輕舟。春秋省墓。往來甚便。何不可之有。任道起拜唯諾。終不能決。到老思之。常以爲平生之悔。甘居下流。未免聾聵。白首紛如。悲歎何及。

壬戌正月。任道在母服中。因趙英汶景閔。上書先生乞先人墓碣文。先生答曰。承諭奉認孝思懇篤之誠。第聞執喪過中。似不可支持。終孝之道。惟宜保存遺體。以永其追遠之業。乃其本領。立碣事不若姑緩之。云云。

癸亥。任道旣免喪。省墓迎香。往候先生於不知巖。留二日乃還。任道時方患頭風。先生悶之。臨別。以黲布邊掩與之。蓋先生前日服中所著云。

甲子秋。謁先生于不知巖。任道闋服逾年。而有遷墓改窆之計。尙未脫素。先生曰。昔閔子喪畢。見於孔子。援琴而弦。切切而哀曰。先王制禮。不敢過也。孔子曰。君子哉。先王制禮。安敢越也。遷墓改窆。則臨時變常自有規例。不可因此逾制。且此等苦節。在我則出於至誠。而在外則人或起疑。此亦不可不念也。去歲相見。曾欲說破。而感君餘哀未盡。不敢開口。今日則亦已過矣。相愛之間。不得不告。任道聞命惕若。歸與妻妹一時變通。上書回報。又聞先生累被召命。兼陳愚見。

甲子候謁之日。從容請曰。范蘭溪心箴中有堪輿二字。俗訓爲天地。妄料輿則是載物之具。訓爲地無疑。至於堪字。未詳其所以訓天之義。敢問。先生曰。此等字必出於雜書。吾亦未有所考。然旣以輿載物而訓爲地。則堪之爲義。能勝物之謂也。天行也健。晝夜不息。是亦勝底意思在耶。

景閔以心經附註疑晦處質問于先生。先生旣爲之論說。又曰。吾於心經。亦頗有未曉處。語錄之類是也。中國之有語錄。猶東方之有俚語也。先儒諺釋語錄者或多行世。然初非校正於中國而知之。直因文勢歸趣向背。而爲之訓解。未必其襯合本義。蒙學之士未易讀也。而世儒好高。非心經，近思錄則恥問於人。只爲別人耳目。初不知修身大法。入德規模。不出四子小學之外。甚可歎也。然學要切近。不貴泛遠。如爾晩學。熟讀論語，孟子可也。

一日。任道問於先生曰。嘗觀大學衍義。皆所以勸戒時君之語。似非衍大學之本義者。何也。先生曰。天地之內萬事萬物。皆在大學範圍中。大學之外。無他事物。而衍義中許多條貫。無非包括衆理。則安見其非衍大學之義也。且西山之著是書。本爲格君心地耳。何得不以勸戒爲主。

先生問任道年齒幾何。對曰。今年四十歲。蓋古人不惑不動心之時也。而一向空空。學昧向方。恐不免虛過一生。先生曰。吾聞晩做者方能遠到。爲之在己。不由於人。願勉旃毋自畫。

先生謂任道曰。吾聞論語二十篇。幷輯註讀之精熟。則於進學。得力儘多。蓋先生自以其平日體驗收功處爲後生詔之。而先生謙德。猶不欲自爲主張。故止曰吾聞。古人所謂將赤心片片說與人者。此也。

乙丑秋。任道隨從兄熙道拜先生于遠懷堂。先生語從兄曰。尋常遇景煥。未嘗不喜。今日之喜倍却前日者。携致遠先生舊字 來故也。任道侍話移時。先生顧從兄曰。致遠言出於天理。每聽之。未嘗不爲之傾心。任道辭謝遜避。他日。以先生言質諸磻渚張丈則曰。先生所謂出於天理者。語皆實的。無回互矯飾之謂也。是行。陪杖屨於尾鳳寺。四寒堂金公昌一善山府伯沈公惀皆會。經數夜乃別。

庚午秋八月。任道在不知巖。修巖柳季華適至滯雨。同侍先生。任道語及中朝喪禮大壞。貪風大熾。其弊難救。仍曰。竊恐其禍出於陸禪懷襄天下之餘烈。先生正色曰。吾人力量。詎能憂及中國。但當爲吾所當爲底職分而已。蓋先生爲學。專用力於反躬守約。而以泛問遠思

爲學者大病。故其言如此。任道瞿然愧縮。不敢復言。先生又曰。學者苟能先立乎其大者。則外物不能奪。邪說不能惑。酬酢萬變。自有妙用。

任道與季華連枕者五夜。季華語任道曰。昔我先君於亂離中遇先生。諦觀其所爲。愛之曰。此人凝定渾厚。對之令人心醉。異日爲名世大儒。主盟斯道者必此人也。乃命衫受學於先生。衫受論語若干篇。但未卒業耳。任道曰。以余觀於先生。德行忠信之實。可質諸鬼神而無疑。大中至正之學。可百世以俟而不惑。外人之不知者。或以先生不露圭角爲疑。此論如何。季華曰。外人誰敢窺其襟量哉。英氣甚害事。何用圭角爲。知幾其神。著於易。明哲保身。詠於詩。其默足以容。處衰世之智也。竊觀西厓父子兩賢數語。庶幾斷盡先生。而季華之論。尤明快親切。

季華一日請問先生曰。嶺中士夫改葬父母時。於父則服緦。於母則只用素帶素巾。習俗已成。不可卒變。未知如何。先生答曰。在人之事。吾不敢與知。設以身當此事。則於母亦用緦服。柳君唯而退。異日又問曰。徐樂齋嘗釋中庸二字曰。中便是庸。此論是歟。先生曰。非也。正道與定理雖未嘗相離。而亦豈無些子差別。而鶻圇說了也。折之曰。中也庸也。似乎無病。

季華又問曰。有朝士姓李。以易學名者。說易師之上六曰。大君有天命。遇此爻則用此爻義。開國承家。小人雖遇此爻。勿用可也。猶乾之初九潛龍勿用之義。敢問此說如何。先生曰。此爲彖象總辭。則或人之說似矣。此乃上爻終辭。爻各有象。象不云乎。大君有命。以正功也。小人勿用。必亂邦也。若如或人之說。則亦與程朱文義不合。此論恐無據。

辛未夏六月。任道出弔於奉化。歸路歷謁先生。先生以疏章御批付於任道。使之傳致於李參議潤雨丈。蓋於是時國有追崇之擧。先生上章力爭。而李丈求見其批答。故先生送之。

甲戌冬。任道省墓迎香。取道河濱。往來再謁先生。先生曰。似聞君近有除授齋郎之報。謝恩之行。恐不可已。何以處之。對曰。分外恩命。感懼罔極。而家貧無馬。又當祈寒。決不能運致病軀。況齒暮無兒。一身之外無他攝祀者。寧得罪於聖朝。不欲羈宦遠方。久闕先人香火。以重不孝之罪。愚意欲上一疏陳情辭職。因獻一言以替獻身。爲謝恩之地。未知於義理如何。先生手取案上花潭集與之。跪受披閱則集中有擬上靖陵疏一篇。蓋花潭爲厚陵參奉時草疏而未達者也。先生之意不以上疏爲非。故使之參考矣。

丙子冬。任道侍先生于仁同鼈舍。張上舍泰來請於先生曰。此友適來。願先生出示宇宙說，答童問經緯太極等說如何。又曰。先生平日立言。一向深藏。使外人不得窺見。門人小子亦莫有得聞緖餘者。何先生藏閉之固也。先生曰。我之深藏。豈有他意。方在暮境。猶不自信。唯思所見或長。所得或新。則欲有所點化。故未敢輕出。泰來曰。吾乃今日。得先生微旨也。昔伊川易傳既成。久而不出曰。尙冀有少進。先生不出著述之意。蓋亦如此。是日。任道問于先生曰。曾子以魯見稱於聖門。魯字之義。朱子釋之曰鈍也。愚意孔子之喪。曾子年僅廿六。一貫之旨。已得聞焉。則安見其鈍也。質鈍之人。而能有是乎。先生笑曰。吾恐鈍字之義。非今駑鈍之鈍。特不能純粹明睿如顔子之聞一知十云爾耶。且曰。今日與君論及

孔顔事。豈偶然哉。安得每日如此慰悅我心哉。任道以檜原書院春秋告文爲請。臨別再及之。先生令外孫朴惰書以付之。其詞曰。祥雲一過。瑞氣靡歇。洞酌時薦。永尙餘馥。任道歸報院長李君益之。用於春秋享祀。

任道一日侍先生于不知巖。從容請曰。孟子謂人皆可以爲堯舜。又曰。乃若其情則可以爲善。都是勉人爲善之意。愚意下所論則恰恰的當。上所論則似乎太過。今夫文章一小技耳。古人比之雕蟲篆刻。猶未見家家而有之。人人而學之。況此大聖人事業。蕩蕩巍巍。直與天地日月同其廣大高明者乎。先生曰。好資質難得。而氣質之變化尤難。孟子所論。不過曰其理如此耳。自非天賦之美。學力之至。何能容易入聖人閫域也。

任道一日侍先生於不知巖。語及漢唐絶學之弊曰。人心危動而不安。道心微妙而難見。唯其不安。故易流於惡。唯其難見。故易至於亡。非至明。不能擇而精之。非至剛。不能執而一之。漢唐七百年間。非無賢臣良子節義廉退忠信愿慤不爲非義之士。而特不能察危微之際。加精一之功。其所以爲學者。不出記誦文詞之間而已。故質美者。不過爲善人而止。可人而止。先儒所謂美質易得。至道難聞者。政爲此也。況高談大言於白日之下易。戒懼省察於幽暗之地難。君子小人。於此焉分。道之明不明。學之成不成。於此焉決矣。先生喟然歎曰。此說極好痛快。令人喚醒。日與遊處。必多資益。恨不令有識者聞之也。

壬寅年間。先生與鄉邑士友二三子。泛舟遊於不知巖下。酒半。先生作六言小詩曰。上有天下無地。是何界超世閒。世間幾般消息。雲外一鴻自閒。雲外一鴻。蓋先生自況。此先生豪氣呈露處也。任道少時。甚愛此詩。書于道興船舷。吟哦詠歎。先生丁未之遊。偶見此詩於船上。初意不知巖所乘之舟或是道興商船。而詩則一時同遊之士所書也。任道於十餘年後。具白其由。先生聞而奇之。

任道一日率爾請曰。近聞時事大平無朕。先生雖出。恐無著手處矣。先生默然久之曰。時事余莫之聞也。老病不能出則已決矣。追而繹思。以先生高識遠見。豈有莫聞時事之理。此正所謂其默足以容也。

任道問曰。近世知禮之家。或於墓祭。不設飯羹。未知如何。先生曰。家禮墓祭條。無侑食一節。故知禮家不設飯羹。致有君疑問。然墓祭用飯羹。亦有何妨。禮亦無禁用之語。任道曰。嘗觀家禮墓祭註。朱子書戒子塾曰。比見墓祭。土神之禮全然滅裂。吾甚懼焉。旣爲先公託體山林。而事其主者豈可如此。今後可與墓前一樣菜果鮓脯飯茶湯各一器。以盡吾寧親事神之意。勿令其有隆殺云云。觀朱子此書。則墓祭之用飯茶湯無疑矣。先生頷之曰。吾亦曾見此註矣。

任道遊先生門許多年。未嘗見疾言遽色忿厲之容。且未見酒前酒後言貌之變。亦未見因酒引飮。或於微醺之後有些豪氣發於外。出些上蔡精采。陳說古今。引諭義理。聽之甚樂。旋復收斂。凝然寂然。瞑目端拱而坐。先生定力之有常。於此可見矣。昔有僧見尹和靖嚴整有常曰。吾不知儒家所謂周孔爲如何。恐亦只如此也。任道於先生。亦云。

先生平生不服藥餌。不用鍼灸。一以存心養性。節飮食愼言語。斷嗜欲整思慮。爲終身攝養節度。故和氣充滿。眞元不渴。一日侍食於先生。問先生食量多少。答曰。少時不過半升。衰境亦不減半升。任道曰。半升之外未可增加一匙乎。先生曰。欲加則非不能。而半升之外不復增減。以此觀之。則先生於飮食。亦有工程。

任道嘗問曰。願聞先生入道次第與爲學之要。先生曰。吾於學問上。全未有得。或於觀書時粗有所見。而隨得隨失。焉能爲有無。因曰。學云學云。口耳云乎哉。世儒往往專事枝葉。不務根本。或以文字。或以言語。知或有餘而行反不建。詳於講究而略於踐履。心口不相應。言行不相顧。始終參差。內外胡越。畢竟其人與學全不相似。甚可寒心。先儒曰。曾子之學。誠篤而已。吾意誠篤二字。學者之所當爲準而用力處也。

先生十七八歲時。已有志大事業。便以古聖賢自期。不欲以一善一藝成名。手撰宇宙要括。帖其目凡十條。書于其末曰。能做天下第一事業。方爲天下第一人物。至於晩年。又以古語自警。書不重則不威。學則不固。溫而厲。威而不猛。恭而安。望之儼然。卽之也溫。聽其言也厲。溫良恭儉讓等字。置諸几案。目寓而心思焉。任道嘗窺見而得之。可見先生主意所在。

先生年八歲時。先府君判書公沒。服喪如成人。事偏親至孝。壬辰之亂。方在母夫人憂。背負神主。流離竄伏。執喪唯謹。至於朝夕朔望。奠祭未備。則雖餒粥菜果之微。隨所得祗薦之。必哭盡哀。聞者感歎云。

先生於飢餓困頓之際。容貌不枯。顔色潤澤。終日讀周易。聲未嘗間斷。氣未嘗餒乏。識者目爲神人。蓋先生稟氣厚而充養得極好。義理爲主於內。不被飢火所惱。故能如此。朱子稱延平先生曰。睟面盎背。自然不可及者。此也。

先生於亂離中嘗過宿靑松地山谷間。主人村翁以蜂蜜來獻曰。請補藥用。先生不受。主人固請。則姑受之。良久招主人與之曰。此物已爲吾有。以客所有。還贈主人。不亦可乎。官供雜物。油淸最貴。汝其藏之。一充官納。主人無辭而退。先生辭受取與之不苟。亦可見矣。

先生平日厭煩喜靜。安儉素。絶奢靡。凡絹帛之屬。華美之飾。不加於體。所居之室。無扁額圖畫。庭無花木雜卉。只見丌上有書若干卷。階下有梅兩三株。淡然相對而已。出遊則有輕裝三四擔。到處相隨。不離座側。蓋先生平日著述文稿及古今書籍之緊於考證者云。

先生膂力過人。而身若不勝衣。識慮超世。而言若不出口。溫恭簡默。唯日欽欽。聞人譽己則斂然辭遜。雖小善不居。學已成矣。而常若不及。德已尊矣。而逾自謙抑。林居八十年。不言朝廷是非。時政得失。人物長短。韜光鏟彩。沈晦內修。人莫能知其所蘊。平生所見所得。盡在所著文字中。玩究詳味則庶或窺其所蓄矣。

先生德宇崇深。德容充完。疏髯秀眉。神采睟盎。氣厚質重。聲宏色和。威儀風度。凝嚴舒奉。儼然人望而畏之。雖年少浮薄之輩。望其容光則自然畏戢。

先生天稟甚高。氣質無疵。語默動靜。自然中理。隱見行藏。雖義與比。視富貴爵祿如浮雲之過空。德量不可窺其涯涘。律己嚴而待人則恕。於人必察其有可取之實。然後與之。不以人之毁譽而輕爲與奪。其胸中涇渭之分。蓋不可以淺見測識。

任道一日侍先生于不知巖。先生語及南冥先生高處曰。高處不但在辭爵祿樹風節。議論出人意表。識見加人數等。其資器學力。超絶卓越。任道對曰。先生之命則幸甚。一邊人欿然於高字。向者高風正脈之辨是已。先生曰。高之爲義。不爲不好。但以正脈字較之。則有些分別。故論者云然。然此爺高處。誰能跂及。任道問曰。小生謬被士友妄推。冒忝新山山長之任。欲以金東岡配享書院。且欲刊布經筵講義等書。爲斯道羽翼。未知如何。先生曰。甚好甚好。又問曰。東岡之於南冥。親炙最早。贅爲孫壻。非他泛泛出入者比。配食一廟。於禮亦宜。第念申松溪在聯享之位。士論若曰。東岡之於南冥。孫壻也門人也。配而享之宜矣。松溪之於東岡。獨可晏然臨之乎云爾。則柰何。先生曰。此則不然。新山書院本是爲南冥設也。松溪則客耳。亦何妨乎。吾意松溪在左則東岡位於西序。松溪在右則東岡位於東序。似乎無妨。

先生勸人以酒曰。酒之爲物。使人和暢血氣。血氣和暢。則脈不壅遏。而病無由作。飮以德將則莫良之藥也。用之不節則莫大之病也。只在人斟酌之如何耳。此理人鮮知之。

先生晚年。嘗語及人物邪正之難辨曰。年少時。或於眸子辨人邪正。及今衰境。兩目眵昏。不分黑白。況能辨別人眸子瞭眊乎。且語任道曰。平生每以不見頭流爲恨。至今夢想來往不已。反而思之。吾衰已甚。雖獲登覽。莫由望遠。見之無益。因爲之慨然。

先生平日喜聞人長處。其短處則置而不論。客有稱人之善者。則喜動顔色。亹亹忘倦。訾毁譏謗之語。則聽若不聞。以笑答之而已。一日。任道與景閔侍先生於不知巖。語及鄉生黃精一爲叔父七歲服喪之事。景閔亦言之。先生嘉歎之。顧謂外孫輩曰。爾等識之不忘。

梧峯申公嘗語先生德美於任道曰。德行內腴之實。雖等之古昔大賢。亦不多讓。吾嘗觀其理裝戒行。觿礪針線繩索之細。亦皆致察領會。處事縝密。置水不漏云。

人有難處事就問。則先生開陳利害。叩竭兩端。明白痛快。根據義理。平易著實。雖無奇談異論驚天動地聳服人處。而使人疑解惑祛恚消忿釋。事皆平順。尤悔不生。茲豈非沖和之氣信順之德。充積於中而發見於外者乎。

先生在宣廟朝。嘗再爲守宰。皆未滿一考而歸。廢朝時不應徵辟。亦無陳謝疏章。聖明臨御以後。雖暫到京師。而義各有在。曾不濡滯。此先生出處之大略。而一於義而不苟。位躋正卿。而實未嘗受祿供職。脫然無一毫係累。其去就進退之際。綽綽有餘裕。隱然若頹波之砥柱。翔千仞底鳳凰也。

任道於先生。雖未嘗執經請業。出入門墻。觀感則有之。見先生語默動靜。則驗先生體道之妙。見先生氣貌容色。則驗先生養德之實。見先生存養省察。則驗先生持敬之熟。見先生辭

受取與。則驗先生裁義之精。在困窮流離之際而操履之貞可見。處名利爵祿之際而風節之毅可見。當波蕩風靡之際而脚力之固可見。任道悅之。願學而未能。今其已矣。

경자년(1600, 선조 33)에 나는 선대인(先大人)을 따라 의성(義城)의 사곡촌(舍谷村)에 우거하였다. 하루는 선대인을 모시고 하천리(下川里)에 있는 사촌 자형인 오봉(梧峯) 신지제(*申之悌*) 공을 방문하였다. 돌아올 때 길가 숲 속에 있는 정자에 들렀는데, 한 마을의 젊은이와 어른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오봉공(梧峯公)도 그의 선친(先親)을 모시고 자리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 한 대인(大人)이 얼굴빛은 불그스레하고 눈 모양은 단정하여 시선을 함부로 돌림이 없었으며, 말과 행동에 법칙이 있어 조용하고 온화하고 굳세며 깨끗하고 의젓하고 원대하였다. 내가 보건대, 온후(溫厚)하고 평이(平易)한 가운데에 확고하여 뽑을 수 없는 지조가 있으며, 공손하고 겸허한 가운데 엄격하여 범할 수 없는 기상이 있었다.

내가 이때 비록 어린아이여서 아무런 지식이 없었으나, 마음으로는 진실로 특이하게 여겼었다. 돌아와서 선대인에게 여쭈니 답하시기를 "그분은 장 보은(張報恩)이시다. 일찍이 학행(學行)과 유일(遺逸)로 발탁되어 보은 현감(報恩縣監)에 제수되셨는데, 네가 아직도 그분을 기억하느냐?" 라고 하였다. 내가 선생의 도덕(道德)이 휘황하게 빛나는 것을 접견한 것은 대개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신축년(1601, 선조 34)과 임인년(1602) 사이에 인동(仁同)의 가락동(佳樂洞)으로 이사하여 살았는데, 인동은 곧 선생이 살고 계신 고을이다. 때때로 선대인(先大人)을 모시고 선생의 문하에 왕래하며 종유하였다.

하루는 선생이 가락동을 방문하셨다. 내가 이때 이름을 여러 번 고쳐 이름이 정해지지 않아 기도(幾道)라고 불리었다. 선생은 말씀하기를 "기(幾)는 가깝다는 말이니, 사람이 도에 가깝게 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다만 배우는 자가 뜻을 세우는 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미진할 듯하니, 마땅히 지극한 경지에 나아감을 구하여야 할 것이다. 어찌 가까움에 그칠 뿐이겠는가."라고 하셨다. 선군자께서 듣고서 옳다고 여기고 즉시 임(任) 자로 바꾸었으니, 대개 선생의 가르침을 중하게 여긴 것이다.

정미년(1607, 선조 40) 초봄에 선생께서 한강(寒岡) 정 선생(鄭先生)을 따라 도흥(道興)의 강가로 와서 노니셨다. 이 때문에 망우당(忘憂堂) 곽 우윤(郭右尹)과 서로 모여서 함께 용화산(龍華山) 아래에서 배를 띄우고 노닐었다. 이웃 고을에서 와서 모인 선비와 친구가 30 여 명이었는데, 우리 부자 두 사람도 이 가운데에 참여하였다. 선생께서 선대인의 형제에게 답하였는데, 수찰(手札)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다.

용화산 아래에서 배를 띄우고 함께 놀던 날 망우당이 웃으며 정 선생에게 말하기를 "나의 소견에는 여헌(旅軒)이 한강보다 낫다."라고 하니, 한강 선생이 대답하기를 "영공(令公)의 소견이 옳습니다. 옳습니다."라고 하고서 인하여 선생을 성대하게 칭찬하였다. 우리 고을의 어른인 작계(鵲溪) 성공(成公)이 나이가 가장 많았는데, 이때 좌중에 있으면서 손을 내저으며 말씀하기를 "우선 이러한 말씀을 하지 마시오. 우선 이러한 말씀을 하지 마시오. 나는 단지 우리 스승이 있음을 알 뿐이오."라고 하였다. 영산(靈山) 사문(斯文) 이외재(李畏齋) 어른은 곽공을 돌아보고

말씀하기를 "영공의 의논은 서하(西河) 사람과 같음이 있다."라고 하고서, 서로 한바탕 재미있게 말씀하고 파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니, 곽망우당의 말씀은 질박하여 꾸밈이 없고, 정한강의 대답은 탁 트여 사사로움과 인색함이 없었으며, 성작계가 우선 이러한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한 것과 이외재가 서하 사람이라고 배척한 것도 스승을 높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니, 그 뜻이 각각 있다. 사문(斯文)의 성대한 모임을 어찌 다시 얻을 수 있겠는가.

계축년(1613, 광해군 5) 늦가을에 나는 선산(善山)의 영향(迎香)에 성묘를 갔다가 강을 건너 원회당(遠懷堂)에서 선생을 배알하였는데, 선생께서 자못 정성스레 접대하는 뜻이 있었다. 아직 관례(冠禮)를 하지 않은 사자(嗣子)로 하여금 술잔을 돌리게 하였는데, 곧 지금의 주서군(注書君)이다. 내가 자리를 피하며 굳이 사양하면서 비복(婢僕)들로 하여금 대신하게 청하였으나, 선생이 허락하지 않았다.

조용히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뵙지 못한 회포를 풀었는데, 말이 선대인에게 이르자 불행하게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을 한탄하셨다. 또 가까이 이웃 마을로 옮겨와 사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권유하셨는데, 말의 뜻이 매우 간절하였다. 내가 일어나 감사해 하며 대답하기를 "좋은 지역을 골라 인후(仁厚)한 곳에 사는 것이 진실로 소원입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부친께서 이미 별세하여 묘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 때문에 근심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이곳은 강가인데 그대의 선영(先塋)도 물가에 있으니, 만약 작은 배 한 척을 장만하여 봄가을로 성묘한다면 왕래가 매우 편할 것인 바, 어찌 불가함이 있겠는가."라고 하셨다. 나는 일어나 절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으나, 끝내 결정하지 못하였다. 노년에 이르러 생각하니 항상 평생의 후회가 된다. 하류(下流)에 거처하는 것을 달갑게 여겨서 귀먹고 눈먼 것을 면치 못하였다. 이제 백발이 분분하니 슬피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임술년(1622, 광해군 14) 정월에 나는 어머니의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조영문 경민(趙英汶景閔) 편에 선생에게 글을 올려 선대인의 묘갈문을 청하였다. 선생께서 답하기를 "편지를 받고 효성스런 생각과 간절하고 독실함이 정성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상(執喪)을 함에 있어 중도를 넘어서 몸을 지탱하지 못할 듯하다고 들었습니다. 효도를 끝마치는 도리는 오직 유체(遺體)를 잘 보전하여 제사를 받드는 사업을 영구히 하는 것이 바로 본령(本領)이라고 여겨집니다. 묘갈을 세우는 일은 잠시 늦추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계해년(1623, 인조 1) 내가 이미 삼년상을 마치고 영향(迎香)에 성묘를 갔다가 부지암(不知巖)에 들러 선생을 문후(問候)하였다. 이틀을 머물다가 돌아왔는데, 내가 당시 두풍(頭風)을 앓자 선생께서 이를 걱정하였다. 이별할 적에 참포(黲布)로 만든 변엄(邊掩)을 주셨는데, 선생이 예전 복중(服中)에 입으셨던 것이라고 한다.

갑자년(1624, 인종 2) 가을에 선생을 부지암(不知巖)에서 배알하였다. 이때 나는 삼년상을 마친 지 한 해가 넘었으나, 묘소를 옮겨 개장(改葬)할 계획이 있어 아직도 상복을 벗지 않았었다.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옛날 민자건(閔子騫)이 상(喪)을 마치고 공자를 뵐 적에 거문고를 당겨 타면서 매우 애처롭게 말하기를 '선왕이 만드신 예라서 감히 더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니, 공자께서 '군자로구나.'라고 하였다. 그러하니 선왕이 만드신 예를 어찌 감히 넘을 수 있겠는가. 묘소를 옮겨 개장하게 되면 그때 임시로 상도를 바꾸는 것은 따로 규례(規例)가 있으니, 이로

인하여 상제(喪制)를 넘어서는 안 된다. 또 이처럼 괴로운 예절은 상주 자신에게 있어서는 지극한 효성(孝誠)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혹 의심할 것이니, 이 또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난해 서로 만났을 적에 일찍이 말해 주고 싶었으나 자네의 남은 슬픔이 다하지 않은 것에 감동하여 감히 입을 열지 못하였다. 오늘까지 상복을 벗지 않고 있는 것은 또한 너무 지나치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말해 주지 않을 수 없네."라고 하였다. 나는 선생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여 돌아와서 아내와 누이와 함께 일시 상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입고는 글을 올려 회보(回報)하였다. 또 선생이 여러 번 임금의 소명(召命)을 받았단 말씀을 듣고서 겸하여 어리석은 소견을 아뢰었다.

갑자년 문후하고 배알하던 날에 조용히 청하여 말하기를 "범난계(范蘭溪)의 〈심잠(心箴)〉 중에 '감여(堪輿)'라는 두 글자가 있는데, 속훈(俗訓)에는 천지(天地)라고 합니다. 변변찮은 제 생각으로 '수레〔輿〕'는 사물을 싣는 도구이니 뜻을 새김이 '땅〔地〕'이라고 하여도 의심할 것이 없지만, '감(堪)' 자에 이르러서는 '하늘〔天〕'이라고 새기는 뜻이 상세하지 않아 감히 여쭙습니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말하기를 "이 같은 글자는 반드시 잡서(雜書)에서 나와서 나도 고거(考據)할 바가 없네. 그러나 이미 사물을 싣는 것으로 뜻을 새겨 땅으로 삼았다면 '감' 자의 뜻은 능히 외물을 이기는 것〔勝〕을 말하는 것이다. 하늘의 운행이 건실하여 밤낮으로 쉬지 않으니, 이는 또한 '승(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경민(趙景閔)이 《심경부주(心經附註)》의 의심스럽고 잘 모르는 부분을 가지고 선생에게 질문하니, 선생은 그를 위하여 논설하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도 《심경(心經)》에서 또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곳이 많으니, 어록과 같은 따위가 이것이다. 중국에 어록이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 이어(俚語)가 있는 것과 같다. 선유들이 어록을 언해한 것이 혹 세상에 많이 유행하나, 애당초 중국 사람에게 질정하여 안 것이 아니고, 다만 문세의 귀추와 향배에 따라 해석을 하여 반드시 본의에 적절하게 맞는 것은 아니니, 몽학(蒙學)의 선비는 읽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학자들은 고원한 것을 좋아하여 《심경》과 《근사록》이 아니면 남에게 묻기를 부끄러워하고 단지 별난 사람의 견문으로만 여긴다. 그리하여 애당초 자신을 수양하는 큰 방법과 덕에 들어가는 규모가 사서(四書)와 《소학》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할 만하다. 그러나 학문은 자신에게 절실하고 근사한 것을 구하여 범범하고 고원한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않으니, 그대와 같은 만학(晩學)은 《논어》와 《맹자》를 익숙히 읽는 것이 좋다."라고 하였다.

하루는 내가 선생께 여쭙기를 "일찍이 《대학연의(大學衍義)》를 보니, 모두 당시의 군주에게 권면하고 경계하는 말이었습니다. 《대학》의 본의를 부연하지 않은 듯하니, 이는 어째서입니까?"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말씀하기를 "천지의 안에 만사와 만물이 모두 《대학》의 범위 안에 들어 있어 《대학》 밖에 다른 사물이 없다. 그래서 《대학연의》 중의 허다한 조목이 여러 이치를 포괄하지 않음이 없으니, 어찌 《대학》의 뜻을 부연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가. 또 진서산(眞西山)이 이 책을 저술한 것은 본래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니, 어찌 권면하고 경계함을 위주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선생이 나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으시기에 대답하기를 "금년에 40 세입니다. 옛사람이 의혹하지 않고〔不惑〕 마음을 동요하지 않은〔不動心〕 때인데, 한결같이 공허하여 학문에 향방을 모르니 일생을 헛되이 지냄을 면치 못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선생께서 말씀하기

를 "내가 들으니 늦게 공부한 자가 비로소 원대한 경지에 도달한다 하였으니, 학문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 있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부디 노력하여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라."라고 하였다.

선생이 나에게 이르기를 "내 들으니《논어》20 편을 집주까지 아울러 정밀하고 익숙하게 읽으면 학문을 진보하는 데에 득력하는 것이 매우 많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선생은 스스로 평소 체험하여 공효를 거둔 것으로 후생을 위하여 말씀하셨으나, 선생께서 겸손한 덕을 간직하여 오히려 스스로 주장하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단지 '내 들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옛사람이 이른바 "정성스럽고 참된 마음을 하나하나 남에게 말해 준다."라는 것이 이것이다.

을축년(1625, 인조 3) 가을에 나는 종형 희도(熙道)를 따라 원회당(遠懷堂)에서 선생을 배알하였는데, 선생께서 종형에게 말씀하기를 "평소 경환(景煥 조희도의 자(字))을 만날 때에도 기쁘지 않은 적이 없었지만, 오늘의 기쁨이 전일보다 배나 되는 것은 치원(致遠) -선생의 옛날 자(字)이다.- 을 데리고 왔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선생을 모시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는데, 선생께서 종형을 돌아보고 말씀하기를 "치원의 말은 천리에서 나오니, 매번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쏠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라고 하였다. 이에 나는 사양하고 공손히 피하였다. 후일 선생의 말씀을 가지고 반저(潘渚)의 장장(張丈)께 여쭈었더니, 말씀하기를 "선생께서 천리에서 나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말이 모두 진실하고 분명하여 말을 돌리거나 꾸밈이 없음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행차 때 선생을 모시고 미봉사(尾鳳寺)에 갔는데, 사한당(四寒堂) 김창일(金昌一)과 선산 부사(善山府使) 심론(沈惀)이 모두 모였다. 며칠 밤을 지내고 작별하였다.-

경오년(1630, 인조 8) 가을 8 월에 나는 부지암(不知巖)에 있었는데, 수암(修巖) 유계화(柳季華)가 마침 왔다가 비 때문에 체류하여 함께 선생을 모셨다. 중국의 상례(喪禮)가 크게 무너지고 탐욕스런 풍조가 크게 번성하여 그 병폐를 구원하기 어렵다는 데에 말이 이르자, 나는 인하여 말하기를 "이러한 화(禍)는 육상산(陸象山)과 선학(禪學)이 천하를 온통 뒤덮은 여파에서 나온 것인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정색하고 말씀하기를 "우리들의 역량으로 어찌 중국까지 걱정할 수 있겠는가. 다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다할 뿐이다."라고 하였다. 대개 선생께서 학문을 하실 적에 오로지 자신에게 돌이켜 요약해서 지키는 데에 힘을 쓰시어, 범연히 묻고 멀리 고원한 것을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자들의 큰 병통으로 여겼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 이와 같았다. 나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부끄럽고 위축되어서 다시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 선생은 또 말씀하기를 "배우는 자가 먼저 큰 것을 확립한다면, 외물이 뺏을 수 없고 부정한 학설이 미혹시킬 수가 없어서, 온갖 변화를 수응(酬應)함에 저절로 묘용(妙用)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나는 계화(季華)와 베개를 나란히 베고 유숙한 것이 다섯 밤이었다. 계화가 나에게 말하기를 "옛날 우리 선군께서 난리통에 선생을 만나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시고는 사랑하여 말씀하기를 '이 사람은 마음이 안정되고 혼후(渾厚)하여 그를 대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심취(心醉)하게 한다. 후일 세상의 유명한 대학자가 되어 우리 유학의 맹주가 될 자는 반드시 이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시고는, 이에 나에게 명하여 선생께 수학하게 하였다. 나는《논어》약간 편을 배웠으나 끝마치지는 못했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제가 선생을 보건대 덕행과 충신(忠信)의 실제는 귀신에게 질정하여도 의심함이 없고, 대중지정(大中至正)한 학문은 백세를 기다려도 의혹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을 잘 알지 못하는 외부 사람들은 혹 선생이 규각(圭角)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의심하니, 이러한 논의가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계화가 대답하기를 "외부 사람이 그 누가 감히 선생의 흉금과 도량을 엿볼 수 있겠는가. 영기(英氣)는 일에 매우 해로우니, 규각을 어디에 쓰겠는가. 기미를 아는 것이 신묘하다는 말은 《주역》에 나와 있고, 명철(明哲)하여 몸을 보전한다는 말은 《시경》에서 노래하였으니, 침묵을 지켜 몸을 용납하는 것이 말세에 대처하는 지혜이다."라고 하였다. 내가 서애(西厓) 부자(父子) 양현(兩賢)의 몇 마디 말씀을 보니 거의 선생을 알았다고 할 만하며, 계화의 의논은 더욱 명쾌하고 친절하였다.

계화(季華)가 하루는 선생께 여쭙기를 "영남의 사대부들은 부모의 묘를 개장(改葬)할 때에 아버지에 대해서는 시마(緦麻) 3 개월 복을 입고 어머니에 대해서는 다만 흰 띠와 흰 두건을 사용합니다. 이미 풍속이 되어버려 갑자기 바꿀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자, 선생께서 대답하시기를 "남의 일은 내가 감히 간여하여 알 바가 아니거니와 가령 나 자신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어머니에 대해서도 시마복을 입을 것이다."라고 하니, 유군(柳君)이 '예' 하고 물러갔다.

후일에 또다시 여쭙기를 "서낙재(徐樂齋)가 일찍이 '중용(中庸)' 두 글자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중(中)이 곧 용(庸)이다.'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 옳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대답하기를 "이것은 옳지 않다. 정도(正道)와 정리(定理)는 비록 일찍이 서로 떨어져 있지 않으나 또한 어찌 조그마한 차별도 없이 모호하게 하나로 합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절충하여 중(中)과 용(庸)이라고 하는 것이 병폐가 없을 듯하다."라고 하였다.

계화(季華)가 또다시 여쭙기를 "우리나라 선비 중에 성이 이(李)인 사람이 역학(易學)으로 유명한데, 《주역》〈사괘(師卦) 상육(上六)〉을 해석하기를 '대군(大君)이 천명을 소유하고서 이 효(爻)를 만나면 이 효의 뜻을 따라 나라를 개국하고 집안을 이을 수 있으나, 소인은 비록 이 효를 만나더라도 쓰지 말아야 하니, 이는 〈건괘(乾卦) 초구(初九)〉에 「잠겨 있는 용(龍)이니 쓰지 말라.」라고 한 것과 같은 뜻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감히 여쭈겠으니 이 말은 어떻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대답하기를 "이것이 단전(彖傳)과 상전(象傳)을 총결한 말이라면 혹자의 말이 그럴 듯하나, 이것은 바로 상효(上爻)의 마지막 말이다. 효에는 각기 상전이 있는데, 상전에 이르기를 '대군이 명(命)을 내림은 공(功)을 바로잡는 것이요, 소인을 쓰지 말라는 것은 반드시 나라를 어지럽히기 때문이다.'라고 하지 않았던가. 만약 혹자의 말과 같다면 또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글 뜻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 논의는 근거가 없는 듯하다."라고 하였다.

신미년(1631, 인조 9) 여름 6 월 내가 봉화(奉化)에 조문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선생을 배알하였다. 선생께서 상소한 글과 임금의 비답을 나에게 맡겨서 참의(參議) 이윤우(李潤雨) 어른께 갖다 드리게 하였다. 이때 국가에서 추숭하는 일이 있어 선생이 글을 올려 강력히 논쟁하였는데, 이장(李丈)이 그 비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선생이 보내신 것이었다.

갑술년(1634, 인조 12) 겨울 나는 영향(迎香)에 성묘를 갔다가 하빈(河濱)으로 오는 길을 취하여 다시 선생을 배알하였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들으니 근간에 그대를 재랑(齋郞)에 제수하는

조처가 있을 듯하다고 하니, 사은숙배하러 가는 일을 그만둘 수 없을 듯하다.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분수 밖의 은명을 받아 감격과 두려움이 망극하나, 집이 가난하여 타고 갈 말이 없고, 또 혹한이어서 결코 병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노년에 자식이 없어 이 한 몸 이외에는 따로 제사를 대신 지낼 자가 없으니, 차라리 성조(聖朝)에 죄를 지을지언정 먼 타지에서 벼슬에 얽매여 선인(先人)의 향불을 오랫동안 올리지 못하는 불효의 죄를 거듭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한번 상소를 올려 사정을 아뢰어 사직하고, 인하여 한 말씀을 올려 몸을 바치는 것을 대신하는 것으로 사은하고자 하는데, 의리에 있어 이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선생께서 손수 책상 위에 있는 《화담집(花潭集)》을 주시길래 무릎을 꿇고 받아서 읽어보니, 문집 속에 정릉(靖陵 중종(中宗)의 능호)에 올리려 한 상소문 한 편이 있었다. 이는 화담(花潭)이 후릉 참봉(厚陵參奉)으로 있을 적에 기초(起草)한 상소문인데 올리지는 않은 것이었다. 선생의 생각은 상소하는 것을 그르다고 여기지 않았으므로 참고하게 한 것이다.

병자년(1636, 인조 14) 겨울에 나는 선생을 인동(仁同)의 향교에서 모시고 있었는데, 상사(上舍) 장태래(張泰來)가 선생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이 친구가 마침 왔으니, 원컨대 선생께서는 《우주설(宇宙說)》, 《답동문(答童問)》, 경위(經緯), 태극(太極) 등의 설을 내어 보여주심이 어떻겠습니까?"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선생께서 평소 말씀하시고 저술한 글을 한결같이 깊이 감추어 외인들이 엿볼 수 없으며, 문인 소자(門人小子)들도 실마리를 얻어들은 자가 없으니, 어찌하여 선생께서는 이리도 굳게 감추십니까?"라고 하자, 선생께서 대답하기를 "내가 깊이 감추어 두는 것이 어찌 다른 의도가 있겠는가. 노년이 된 지금 오히려 자신할 수 없어 오직 생각하기를 소견이 혹 자라나고 터득한 바가 혹 새로워지면 고칠 점이 있기를 바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가벼이 내놓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장태래가 말하기를 "저는 오늘에서야 비로소 선생의 깊은 뜻을 알았습니다. 옛날 이천 선생(伊川先生)은 《역전(易傳)》을 이미 완성하고도 오래도록 내놓지 않고 말하기를 '아직도 조금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니, 선생께서 저술한 글을 내놓지 않는 의도도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날 내가 선생께 여쭙기를 "증자(曾子)가 노둔함으로써 성인의 문하에서 칭찬을 받으셨는데, '노(魯)' 자의 뜻을 주자는 '둔함'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공자가 별세했을 때에 증자의 나이가 겨우 26 세였습니다. 그런데도 일이관지(一以貫之)의 뜻을 이미 얻어들었으니, 그 노둔함을 어찌 볼 수 있겠습니까. 자질이 둔한 사람이면서 능히 이러함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웃으며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에는 '둔(鈍)' 자의 뜻이 오늘날의 '노둔하다'는 '둔' 자가 아니고, 다만 순수(純粹)하고 명예(明睿)함이 안자(顔子)처럼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수 없는 것을 두고 말한 듯하다."라고 하였다.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그대와 더불어 공자와 안자의 일을 의논한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어찌하면 매일 이와 같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위로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나는 회원서원(檜原書院)의 춘추 향사에 쓸 상향축문(常享祝文)을 청하였으며, 이별할 적에 다시 요청하였다. 선생께서 외손자 박서(朴婿)로 하여금 쓰게 하여 부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서로운 구름이 한 번 지나갔으나 / 祥雲一過
상서로운 기운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 瑞氣靡歇
맑은 술잔을 때맞추어 올리며 / 洞酌時薦
남은 향기 길이 숭상하옵니다 / 永尙餘馥

내가 돌아와 원장 이익지(李益之)에게 알려 춘추향사에 사용하였다.

내가 하루는 부지암(不知巖)에서 선생을 모시고 있다가 조용히 여쭙기를 "맹자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요(堯)·순(舜)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그 정(情)으로 말하면 선(善)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사람들이 선행을 하도록 권면한 뜻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저의 생각에는 아래에 논한 것은 매우 적당하나, 위에서 논한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합니다. 오늘날 문장은 한 작은 기예(技藝)일 뿐입니다. 옛사람들은 이것을 벌레 모양의 글자를 새기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만, 오히려 집집마다 문장을 소유하고 사람마다 글을 배우는 것을 아직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대성인(大聖人)의 사업은 넓고 드높아서 곧바로 천지·일월과 더불어 광대하고 고명함을 함께 하는 데에 있어서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자질은 얻기 어렵고 기질을 변화시키는 것은 더욱 어렵다. 맹자께서 논하신 것은 그 이치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에 불과할 뿐이다. 절로 하늘에서 품부 받은 것이 아름답고 배우는 힘이 지극한 자가 아니면, 어찌 용이하게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하루는 부지암(不知巖)에서 선생을 모시고 있다가, 말이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때에 학문이 끊긴 폐해에 이르러 말씀드리기를 "인심(人心)은 위태롭게 동요하여 편안하지 못하고, 도심(道心)은 미묘하여 보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편안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惡)으로 흐르기가 쉽고 오직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없어지기가 쉬운 것이니, 지극히 밝은 자가 아니면 가려서 정밀하게 할 수 없고, 지극히 강건한 자가 아니면 마음을 잡아서 전일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라와 당나라 7백 년 사이에 어진 신하와 훌륭한 자식으로서 절의와 염퇴(廉退)를 지키고 충신(忠信)하며 정성스러워서 의롭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은 선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다만 위태롭고 은미한 즈음을 살펴서 인식을 정밀하게 하고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공부를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학문을 하는 것이 기억하고 외우고 문장을 짓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자질이 아름다운 자가 선인(善人)이 되는 것에 그치거나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에서 그칠 뿐이었으니, 선유들이 이른바 '아름다운 자질을 얻기는 쉬우나 지극한 도를 듣기는 어렵다'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더구나 환한 대낮에 고상한 담론을 하고 큰소리치기는 쉬우나, 그윽하고 어두운 자리에서 경계하고 성찰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자와 소인이 여기에서 나누어지며, 도가 밝아지고 밝아지지 못하는 것과 학문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여기에서 결정됩니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감탄하며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매우 좋고 통쾌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 날마다 그대와 함께 놀고 거처하면 반드시 자뢰하고 유익함이 많을 터인데, 유식한 자들로 하여금 이 말을 듣게 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다."라고 하였다.

임인년(1602, 선조 35) 즈음에 선생께서 고을의 사우(士友) 두세 명과 함께 부지암(不知巖) 아래에 배를 띄우고 노셨다. 술이 반쯤 되자, 선생께서 육언(六言)의 짧은 시를 다음과 같이 지었다.

위에는 하늘이 있으나 아래에는 땅이 없으니 / 上有天下無地
이는 어느 경계인가 세상을 초월하였네 / 是何界超世閒
세상 사이에 얼마나 변화가 있었던가 / 世間幾般消息
구름 너머 한 기러기 스스로 한가롭네 / 雲外一鴻自閒

구름 너머 한 기러기는 선생이 자신의 상황을 비유한 것으로, 이는 선생의 호걸스러운 기운이 드러난 부분이다. 내가 젊었을 때 이 시를 매우 좋아하여 도흥(道興)의 뱃머리에 써 놓고 읊으며 감탄하곤 하였다. 선생께서 정미년(1607, 선조 40)에 놀러 오셨을 때 우연히 이 시를 배 위에서 보셨는데, 처음 부지암에서 타던 배가 혹은 도흥의 상선(商船)일 것이고, 시는 한때 같이 놀던 선비들이 쓴 것이라고 여기셨다. 내가 10 여 년 뒤에 그 연유를 자세히 말씀드렸더니, 선생께서 듣고 기이하게 여기셨다.

내가 하루는 경솔히 여쭙기를 "근자에 들으니 세상일이 태평할 조짐이 없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비록 세상에 나가시더라도 손을 댈 곳이 없을 듯합니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한동안 묵묵히 계시다가 말씀하시기를 "세상일은 내가 듣지 못하였으나, 늙고 병들어서 나갈 수 없는 것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하였다. 그 후 생각해 보니, 선생의 고원한 식견으로 어찌 세상일을 듣지 못하셨을 리가 있겠는가. 이는 바로 이른바 "침묵으로써 자신의 몸을 보전한다."라는 것일 것이다.

내가 여쭙기를 "근세에 예를 아는 집안에서 혹 묘제(墓祭)에 밥과 국을 진설하지 않으니, 이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대답하기를 "《가례(家禮)》의 묘제(墓祭) 조에 유식(侑食)하는 한 절차가 없다. 그러므로 예를 아는 집안에서 밥과 국을 진설하지 않으니 그대와 같은 의문이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묘제에 밥과 국을 쓰더라도 어찌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예에는 또 금하여 쓰지 말라는 말이 없다."라고 하였다. 내가 다시 여쭙기를 "일찍이 《가례》 묘제 조의 주석을 보니, 주자께서 편지로 아들 숙(塾)을 경계하여 말씀하기를 '근래에 묘제에 토신제(土神祭)를 지내는 예를 보니 모두 지리멸렬하다. 나는 이것을 매우 두려워한다. 이미 선공(先公)을 위하여 산림에 체백(體魄)을 의탁하였다면 그 주인인 산신을 섬기는 자가 어떻게 이와 같이 할 수가 있겠는가. 이후로는 묘소 앞과 똑같이 채소와 과일과 젓과 포와 밥과 차와 국을 각각 한 그릇씩 장만하여 나의 어버이를 편안히 하고 신(神)을 섬기는 뜻을 다해서 서로 차별이 없게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주자의 이 편지를 본다면 묘제에 밥과 차와 국을 쓰는 것을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기를 "나도 또한 일찍이 이 주석을 보았다."라고 하였다.

내가 선생의 문하에 있은 지가 여러 해였으나, 선생께서 말씀을 빨리 하고 얼굴빛을 갑자기 변하며 성내시는 모습을 일찍이 보지 못하였다. 또 술을 마시기 전과 술을 마신 뒤에 말씀과 모습이 변함을 보지 못하였으며, 또한 술에 취해 술을 더 마시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 혹은 조금 취하신 뒤에 약간의 호기(豪氣)가 겉으로 나타나면, 상채(上蔡)의 정신이 드러나 고금의 이야기

를 말씀하고 의리를 이끌어 비유하시므로 이를 들으면 매우 즐거웠다. 그러나 곧바로 다시 몸을 거두고 정돈하여 엄숙하고 조용하게 눈을 감고 손을 모아 단정히 앉으셨으니, 선생께서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가 일정함이 있음을 여기에서 볼 수 있다. 옛날 어떤 승려가 윤화정(尹和靖)이 엄숙하고 정돈하여 일정함이 있음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주공(周公)과 공자가 어떤 분인지는 알 수 없으나 또한 이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나도 선생에 대해 또한 이렇게 말을 한다.

선생께서는 평소 약(藥)을 복용하지 않고 침구(針灸)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한결같이 마음을 보전하여 성(性)을 기르며 음식을 절제하고 언어를 삼가며 욕심을 끊고 생각을 정돈하는 것을 종신토록 섭양(攝養)하는 절도로 삼으셨다. 그러므로 온화한 기운이 충만하고 진원(眞元)의 기운이 고갈되지 않으셨다. 하루는 선생을 모시고 밥을 먹었는데, 선생의 식사하시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쭈었더니 선생께서 답하시기를 "젊었을 때에도 반 되를 넘지 않았고 노쇠한 나이에도 반 되에서 줄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내가 여쭙기를 "반 되 이외에는 한 수저도 더 드실 수 없습니까?"라고 하였더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더 먹고 싶으면 못 먹을 것은 없으나 반 되 이외에는 더하거나 줄이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으로 보면 선생께서는 음식을 드심에 있어서도 공부가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일찍이 여쭙기를 "선생께서 도의 경지에 들어가는 차례와 학문하는 요점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학문상에 전혀 얻은 것이 없으며 혹 책을 볼 때에 대강 본 것이 있더라도 얻자마자 잃어버리고 마니, 어찌 말해줄 만한 것이 있다고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하여 말씀하기를 "배운다 배운다라고 하지만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는 것을 말하겠는가. 세상의 유자들은 왕왕 지엽만을 오로지 일삼고 근본을 힘쓰지 아니하여, 혹은 문자에만 힘을 쓰고 혹은 언어에만 매달려서 지식은 혹 넉넉하나 행실은 도리어 미치지 못하며, 강구(講究)하는 것은 자세히 하나 실천하는 것은 소략하다. 그리하여 마음과 입이 서로 호응하지 못하고 말과 행실이 서로 돌아보지 못하여, 처음과 끝이 서로 어긋나고 안과 밖이 현격히 차이가 난다. 그리하여 필경 그 사람과 그 학문이 전혀 서로 같지 않으니, 매우 한심스러운 일이다. 선유가 말하기를 '증자(曾子)의 학문은 성독(誠篤)일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나는 '성독' 두 글자는 배우는 자가 마땅히 준칙으로 삼아서 힘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선생은 17, 8세 때 이미 큰 사업에 뜻을 두어 곧 옛날의 성현과 같은 인물이 될 것을 스스로 기약하고 한 가지 선행과 한 가지 재주로 명예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셨다. 손수 《우주요괄첩(宇宙要括帖)》을 지었는데 그 조목이 모두 열 조항이었다. 그 끝에 쓰기를 "능히 천하의 제일가는 사업을 하여야 비로소 천하의 제일가는 인물이 될 수 있다."라고 하였다. 만년에 이르러서는 또 옛사람의 좋은 말씀으로 스스로 경계하였는데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니, 학문을 해도 견고하지 못하다.〔不重則不威學則不固〕', '온화하면서도 엄숙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사납지 않고 공손하면서도 편안하다.〔溫而厲 威而不猛 恭而安〕', '바라보면 엄숙하고 나아가면 온화하고 그 말소리를 들어보면 명확하다.〔望之儼然卽之也溫聽其言也厲〕', '온화하고 선량하고 공손하고 검소하고 겸양한다.〔溫良恭儉讓〕' 등의 글자를 써서 책상 위에 두어 눈으로 주시하고 마음

속으로 생각하시곤 하였다. 내가 일찍이 엿보고 이것을 알았는데, 선생의 주된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선생께서 8 세 때 선부군인 판서공(判書公)이 별세하였는데, 상주 노릇을 하기를 성인처럼 하였으며 홀어머니를 섬김에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임진왜란 때 모친의 상중(喪中)에 계셨는데 등에 신주를 지고 떠돌아다니며 숨어 지내면서도 근신(勤愼)하게 상례(喪禮)를 집행하였다. 아침과 저녁, 초하루와 보름에 올리는 제물을 구비하지 못하면, 비록 미음과 죽과 채소와 과일 따위의 하찮은 것이라도 얻는 대로 공경히 올려 반드시 곡하여 슬픔을 다하니, 이를 들은 자들이 감탄하였다고 한다.

선생은 굶주려 곤궁할 때에도 용모가 마르지 아니하여 얼굴빛이 윤택하였다. 종일토록《주역》을 읽으면 책을 읽는 소리가 일찍이 끊이지 않고 기운이 일찍이 쇠하지 않아 유식한 자들이 신인(神人)이라고 지목하였다. 선생은 타고난 기질이 두터운데다 수양을 하여 지극히 좋은 점을 얻어서 의리가 내면에 주가 되어 굶주림 때문에 번뇌하지 않았으므로 능히 이와 같았다. 주자가 연평 선생(延平先生)을 칭송하여 말씀하기를 "얼굴이 온화하고 덕스러운 모양이 등 뒤에까지 가득하여 자연스레 미칠 수 없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선생께서 난리 중에 일찍이 청송(靑松) 땅의 산골짜기를 지나다가 유숙하셨는데, 주인인 촌로가 벌꿀을 가지고 와 올리면서 "보약(補藥)으로 쓰십시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받지 않자 주인이 굳이 청하니, 선생께서 우선 받아두었다가 얼마 후 주인을 불러 다시 주며 말씀하기를 "이 물건은 이미 나의 소유가 되었으니, 나그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시 주인에게 주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관청에 바치는 여러 물건 중에 기름과 꿀이 가장 귀하니, 그대는 이것을 보관하였다가 한 번 관아에 바치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주인은 할 말이 없어 그대로 물러갔다. 선생께서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주는 것을 구차히 하지 않으셨음을 또한 볼 수 있다.

선생께서는 평소 번거로운 것을 싫어하고 조용한 것을 좋아하였으며, 검소함을 편안히 여기고 사치함을 끊어서 비단과 명주 및 화려하고 아름다운 장식을 몸에 달지 않으셨다. 거처하는 집에는 편액과 도화(圖畵)가 없고 뜰에는 꽃나무와 관상수가 없었으며, 다만 책상 위에는 책 약간 권이 있고 계단 아래에는 매화 두세 그루가 있는 것이 보일 뿐이었는데, 이를 담박하게 마주하고 있을 뿐이었다. 나가 노닐게 되면 가벼운 행장(行裝) 서너 가지를 챙겨 이르는 곳마다 가지고 다니며 자리 곁에 두셨는데, 이는 선생이 평소 저술한 문고(文藁) 및 고금의 서적으로서 고증에 긴요한 것들이었다고 한다.

선생께서는 힘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났으나 몸은 옷을 이기지 못하는 듯이 하였고, 지식과 생각이 세상에 뛰어났으나 말씀은 입에서 내지 못하는 듯이 하여, 온화하고 공손하고 간략하고 침묵하여 오직 날마다 공경하고 공경할 뿐이었다.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하는 말씀을 들으시면 물러나 사양하고 피하여 비록 작은 선(善)이라도 자처하지 않으셨다. 학문이 이미 이루어졌으나 항상 미치지 못할 듯이 하였고, 덕이 이미 높았으나 더욱 스스로 겸손하였다. 산림에 산 지 80 년 동안 조정의 옳고 그름과 시정(時政)의 잘잘못과 인물의 장단점을 말씀하지 아니하여 광채(光彩)를 감추고 거두어서 내면을 수양하니, 사람들은 선생께서 가슴속에 간직한 것을 알지 못하였다. 평생의 소견과 터득한 바가 모두 저술한 문자에 있으니, 이것을 잘 연구하고 자세히 음미하면 그 가슴속에 간직하신 것을 거의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선생께서는 덕스러운 도량이 높고 깊으며 덕스러운 용모가 충실하고 완전하였다. 수염이 드물게 나고 눈썹이 빼어나 신채(神彩)가 빛나고 가득하였으며, 기질이 중후하고 음성이 크고 안색이 온화하며 위의(威儀)와 풍도(風度)가 엄숙하고 태연하니, 사람들이 바라보면 두려워하였다. 비록 나이가 젊은 부박(浮薄)한 무리들이라도 선생의 용모와 광채를 바라보면 자연스레 두려워하여 몸을 단속하였다.

선생께서는 타고난 자품이 매우 높아 기질에 조그만 하자가 없었으며, 말씀하고 침묵하고 동(動)하고 정(靜)하는 것이 자연히 도리(道理)에 맞았으며, 은둔하고 나타나며 출사하고 퇴처함을 오직 의리에 맞게 하실 뿐이었다. 부귀(富貴)와 작록(爵祿) 보기를 뜬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는 것처럼 여겼으니, 덕량(德量)의 끝을 엿볼 수가 없었다. 자신을 다스림은 엄격하였으나 남을 대함에는 너그러웠으며, 사람을 대할 때에 반드시 취할 만한 실제가 있음을 살핀 뒤에야 허여하고 남의 훼방과 칭찬에 따라 가벼이 허여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으니, 가슴속 선악과 시비에 대한 분변을 얕은 소견으로는 헤아려 알 수가 없었다.

내가 하루는 부지암(不知巖)에서 선생을 모시고 있었는데, 선생께서 남명(南冥) 선생의 뛰어난 장처(長處)를 언급하여 말씀하기를 "그 분의 뛰어난 장처는 단지 작록을 사양하고 풍절(風節)을 세움에 있을 뿐만이 아니다. 의논이 보통 사람들의 의표(意表)를 뛰어넘고 식견이 보통 사람들보다 몇 등급이 더 높아서, 타고난 자품과 학문이 매우 드높아 탁월하다."라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선생의 가르침은 매우 다행이나 일부 사람들은 '고(高)' 자에 서운해 하니, 지난번 고풍(高風)과 정맥(正脈)의 변론이 이것입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말씀하시기를 "'고' 자의 뜻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니나 다만 '정맥'이란 글자에 비하면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의논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어른의 뛰어난 장처를 누가 능히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내가 여쭙기를 "소생이 사우(士友)들의 망녕된 추대를 받아 외람되이 신산서원(新山書院) 원장(院長)의 임무를 맡았습니다. 김동강(金東岡)을 서원에 배향하고자 하며, 또 《경연강의(經筵講義)》 등의 책을 간행하여 반포해서 우리 유학의 우익(羽翼)이 되게 하고자 하니, 이것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선생께서 대답하시기를 "매우 좋다, 매우 좋다."라고 하였다.

내가 또 여쭙기를 "동강(東岡)은 남명(南冥)에게 가장 일찍 배웠고 또 외손서가 되어서 범연히 출입한 다른 분들과 비교할 바가 아니니, 한 사당에 배향하는 것이 예에 또한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생각건대, 신송계(申松溪)가 연향(聯享)하는 위치에 있는데, 만약 선비들의 의논이 '동강은 남명에게 있어 외손서이고 문인이니 배향하여 모시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송계가 동강에 대하여 홀로 편안히 임할 수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라고 하니, 선생께서 대답하시기를 "이는 그렇지 않다. 신산서원은 본래 남명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송계는 객(客)일 뿐이니, 또한 어찌 해롭겠는가. 나의 생각에는 송계가 왼쪽에 계시면 동강은 서쪽 벽에 모시고, 송계가 오른쪽에 계시면 동강은 동쪽 벽에 모시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며 말씀하기를 "술이란 음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혈기를 화창(和暢)하게 하니, 혈기가 화창하면 맥(脈)이 막히지 아니하여 병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술은 덕에 맞게 마시면 이보다 더 좋은 약이 없지만, 절제하지 하지 않고 마시면 이보다 더 큰

병이 없으니, 다만 사람이 어떻게 술을 마시느냐에 달려 있을 뿐이다.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라고 하였다.

선생께서는 만년에 일찍이 인물의 간사하고 바름을 구분하기 어려움을 언급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었을 때에는 혹 눈동자를 보고서 그 사람의 간사하고 바름을 구분하였으나, 지금 노쇠한 나이에는 두 눈이 어두워서 흑백을 구분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남의 눈동자가 흐리고 맑음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평소 두류산(頭流山)을 구경하지 못 한 것을 항상 한스럽게 여겨 지금까지도 꿈속에서 왕래하기를 마지않는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나는 노쇠함이 너무 심하여 비록 올라가 구경하더라도 멀리 바라볼 수가 없을 것이니, 보아도 유익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시고는 인하여 개탄하셨다.

선생께서는 평소 남의 장점을 듣기 좋아하고 남의 단점은 덮어두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손님 중에 남의 선행을 칭찬하는 자가 있으면 기쁜 빛이 얼굴에 나타나 재미있어 하며 권태로움을 잊으셨으나, 헐뜯고 꾸짖는 말이면 들어도 못 들은 체하시며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다. 하루는 내가 조경민(趙景閔)과 함께 부지암에서 선생을 모시고 있었다. 향생(鄕生) 황정일(黃精一)이 그 숙부를 위하여 7 세 때 상복을 입은 일을 언급하자 조경민도 이에 대해 말하니, 선생께서 가상히 여기고 감탄하며 외손자들을 돌아보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이를 기억하여 잊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오봉(梧峯) 신공(申公)이 일찍이 선생의 아름다운 덕을 나에게 말하기를 "선생의 덕행이 내면에 쌓인 실상은 비록 옛날 대현(大賢)에게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지지 않을 것이다. 내 일찍이 선생께서 행장(行裝)을 꾸려 출발하는 것을 보니, 뿔송곳과 숫돌과 바늘과 실과 노끈 같은 하찮은 것들도 모두 살펴서 간직하셨다. 일을 처리함이 치밀하여 물을 부어도 새지 않을 정도이다."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처리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 선생을 찾아와 여쭈면 선생께서는 이해(利害)를 개진함에 양쪽의 단서를 다 말씀하여 명백하고 통쾌하였으며, 의리(義理)에 근거하여 평이하고 착실하였다. 비록 기이한 담론과 특이한 의논으로 하늘을 놀라게 하고 땅을 움직이며 사람들을 크게 복종시킬 만한 내용은 없었으나, 사람들로 하여금 의혹이 깨끗이 제거되고 울분이 사라져서 일이 모두 평탄하고 순조로워 원망과 후회가 생기지 않게 하였다. 이것이 어찌 충화(沖和)한 기운과 신순(信順)한 덕이 가슴속에 쌓여서 밖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겠는가.

선생께서 선조(宣祖) 때에 일찍이 두 번 수령이 되었으나 모두 근무 고과(考課)를 한 번 하기도 전에 벼슬을 버리고 돌아왔으며, 폐조(廢朝 광해군) 때에는 조정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고 사례하는 상소문을 올린 적도 없었으며, 성조(聖朝 인조)가 즉위한 이후에 잠시 서울에 이르렀으나 의리가 각각 다른 데 있어서 일찍이 오랫동안 체류하지 않으셨다. 이는 선생께서 세상에 나아가고 은둔한 대략인데 한결같이 의리를 따르고 구차히 하지 않았다. 비록 지위가 정경(正卿)에 올랐으나 실제로 녹(祿)을 받고 직무를 받들지 아니하여 털끝만큼도 얽매임이 없었다. 그리하여 거취하고 진퇴하는 즈음에 여유작작하여 은근히 거세게 흘러내리는 물결 속에 우뚝 솟아 있는 지주(砥柱) 및 천 장 높이 나는 봉황새와 같았다.

내가 선생에게 비록 경서(經書)를 들고 수업을 청하지는 않았으나 문장(門牆)을 출입하여 보고 감동함은 많았다. 선생의 말씀하고 침묵하고 동(動)하고 정(靜)하심을 보면 선생이 도를 체득한

묘함을 징험할 수 있으며, 선생의 기모(氣貌)와 용색(容色)을 보면 선생이 덕을 기르신 실제를 징험할 수 있으며, 선생의 존양(存養)하고 성찰(省察)하심을 보면 선생이 경(敬)을 간직하기를 익숙히 하신 것을 징험할 수 있으며, 선생의 물건을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주심을 보면 선생이 의(義)를 헤아리기를 정밀히 하셨음을 징험할 수 있었다. 곤궁하여 떠돌아다닐 적에 조행(操行)의 바름을 볼 수 있었으며, 명리(名利)와 작록(爵祿)에 처할 즈음에 풍절(風節)의 굳셈을 볼 수 있었으며, 파도가 일렁이고 바람이 쏠리는 즈음에 다리의 힘이 견고함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이것을 기뻐하여 배우기를 원하였으나 아직 능하지 못하니, 이제 그만이구나.

간재집(艮齋集)

이덕홍(李德弘)

생애

이덕홍(1541~1596)은 1541 년 10 월 14 일에 영주 남촌(南村) 구룡동(九龍洞 영주시 장수면 호문리 녹동) 외가에서 이충량(李忠樑)과 반남 박씨(潘南朴氏) 박승장(朴承張)의 따님 사이에서 넷째아들로 태어나 1596 년 2 월 19 일에 56 세로 삶을 마쳤다. 본관은 영천(永川), 자는 굉중(宏仲), 호는 간재(艮齋)이다. 농암(聾巖) 이현보(李賢輔)가 그의 종백조(從伯祖)이다.

중시조 대영(大榮)의 5 대손 헌(軒)이 영천에서 예안현 모란[沙川 안동시 녹전면 서삼리]으로 이거하였고 헌의 아들 파(坡)가 부내[汾川 안동시 도산면 분천리]로 이거하면서 헌의 자손들이 예안을 중심으로 세거하게 되었다. 파의 증손인 현우(賢佑 간재의 조부)는 내살미[川沙 도산면 원천리]에 복거(卜居)하였고 그 아들 충량(忠樑 간재의 부친)은 외내[迂川 안동시 녹전면 원천 2 리]로 이거하였다. 예안의 부내 및 외내에 정착한 영천 이씨는 농암 및 간재를 전후하여 안동의 세가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진성 이씨와 영천 이씨는 예안현의 사족으로서 일찍부터 두터운 세의가 있었다. 《도산급문제현록(陶山及門諸賢錄)》에 등재된 퇴계의 제자 가운데 영천 이씨가 15 명을 차지하고 있다. 진성 이씨를 제외하면 안동 권씨와 함께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주-D001 여기에는 두 가문 간의 세의가 굳건한 바탕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퇴계와 간재의 사승 관계 역시 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간재의 생애는 성장기(1~18 세) 수학기(19~30 세) 학문교류기(31~37 세) 사환기(38~56 세)로 이루어져 있다.주-D002 시기에 따라 생애의 특징적인 부면을 살피기로 한다.

간재는 15 세에 청량산에서 독서하였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과 장난치며 놀지 않고 뜻을 다잡고 글을 읽었다주-D003 고 한다. 학자로서의 자질을 간파할 수 있다. 간재는 18 세에 청량산에 머물며 금난수(琴蘭秀)로부터 고문을 배웠다. 금난수의 주선으로 19 세에 비로소 퇴계의 문하에 나아갔다. 이때 퇴계는 간재를 한 번 보고는 마음속으로 허락하고서 "이모(李某)는 큰 사람이다. 장래가 매우 원대하니 그대들은 정중하게 대우하고 혹시라도 거만하게 대하지 말라."주-D004 고 하였다. 그리고, 이름을 '덕홍(德弘)', 자를 '굉중(宏仲)'이라 지어 주고 덕(德) 자의 뜻을 '곧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行直心]'이라고 풀이해 주었다. 이름이 지닌 의미로 실천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부터 간재는 퇴계가 고종할 때까지 12 년간 곁에서 모시면서 학문의 지결을 전수받았다.

간재는 퇴계의 문하에 나아간 19 세부터 본격적으로 학문 탐구에 진력하였다. 1561 년 도산서당이 완공되자 간재는 절우사(節友社), 탁영담(濯纓潭), 천연대(天淵臺), 농운정사(隴雲精舍), 암서헌(巖栖軒) 등에서 퇴계를 모시고 수학하면서 스승의 시에 차운하여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 그는 차운한 시편에서 주로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여 심성을 수양하는 즐거움을 노래하였다. 여기에 간재의 관물찰리(觀物察理)의 정신 경계가 선명히 드러나 있다.

한편, 그는 때때로 퇴계의 곁을 떠나 스승이 머물렀던 청량산(淸凉山), 고산(孤山), 월란암(月瀾庵), 용수사(龍壽寺) 등지에서 독서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스승의 정신이 오롯이 깃들어 있는 곳에서 스승의 학문을 탐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강학처는 도산서당을 비롯하여 퇴계가 머물렀던 곳에 집중되어 있다. 강학 공간 역시 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을 선택한 것이다.

간재는 스승의 곁을 떠나 강학할 때는 주로 편지를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 21 세에 올린 공부의 선후를 묻는 편지를 시작으로 학문의 자세, 마음공부, 사단칠정, 복제(服制), 《가례(家禮)》, 《대학》, 《중용》, 《역

학계몽(易學啓蒙)》, 《심경(心經)》의 의난처(疑難處)를 질문하였다. 이때마다 퇴계는 적실한 답변으로 제자의 의문을 해결해 주었다. 퇴계는 답장뿐만 아니라 직접 간재에게 편지를 보내 공부를 격려하기도 하고 특정한 학설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하였다. 간재를 향한 퇴계의 각별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 한 관심이 간재에게 선기옥형을 만들게 하고 서적을 맡게 한 것으로 이어졌다.

스승의 제자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간재의 퇴계에 대한 존모(尊慕) 역시 각별하였다. 간재는 퇴계의 평소 언행과 동정(動靜)을 자세히 살펴 기록하지 않음이 없었다고 한다. 그 결과물이 1571 년에 6 월에 완성한 《계산기선록(溪山記善錄)》으로 퇴계선생 언행록이다. 여기서 간재의 정밀하고 독실한 학문적 자세를 엿볼 수 있다.

퇴계 사후부터 출사하기 전까지 간재는 스승에 대한 추모와 학문적인 교류 및 활동에 주력하였다. 32 세에 동문들과 도산에 모여 상덕사(尙德祠)의 건립을 의논하였으며 33 세에는 이산서원(伊山書院)에 퇴계의 위패를 봉안하였다. 32 세 때 금계정사(金溪精舍)에서 유운룡(柳雲龍)과 함께 역학계몽을 강론한 것을 필두로 하여 33 세에는 조목(趙穆)과 미발이발(未發已發)에 대해 논변하였다. 34 세 이후로는 권우(權宇), 남치리(南致利), 정사성(鄭士誠) 등과 편지로 학문적 담론을 교환하였다. 36 세에는 〈진청란심도설변(陳淸瀾心圖說辨)〉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스승을 추모하면서 스승의 학문을 이어가기 위해 학문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던 것이다.

이후 간재는 38 세 때 정구(鄭逑) 등 9 명과 함께 구현천목(九賢薦目)에 들어 '견선흥기 여지독서(見善興起 勵志讀書)'로 천거되어 집경전 참봉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그는 처음에는 과거 급제에 뜻을 두었으나 퇴계 문하에 나아간 이후부터는 성리학과 경학에 몰두하였다. 그런데 현인(賢人)으로 천거되자 성리학적 이상이나 이념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주-D005 관직에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관직생활은 56 세로 고종할 때까지 이어졌다. 그가 역임한 관직은 창릉 참봉(41 세) - 풍저창 봉사(42 세) - 현릉 참봉(43 세) - 종묘 직장(49 세) - 사옹서 직장, 익위사 우부솔(52 세) - 영춘 현감(53 세) 등으로 대부분 한직(閑職)에 불과하였다. 청요직에 오르지는 못했지만 관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예컨대, 임진왜란 때 도보로 근왕(勤王)하고 충의가 분발하여 행재소에 소를 올려 왜적을 막는 방책을 논하기도 하고, 영춘현감에 제수되자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보살피기를 어머니처럼 자애롭게 하였다.

사환기(38~56 세)에도 간재의 학문적 활동은 지속되었다. 권우, 조목, 유성룡, 김달원(金達遠), 허봉(許篈), 민응기(閔應祺), 조진(趙振), 김륵(金玏) 등과 강론하며 학문적인 교류를 이어나갔다. 특히, 김달원 민응기와 주역에 관해 토론한 점이 돋보인다. 40 세에 〈동경유록〉, 48 세에 〈부부유별도〉를 저술하는 등 학구적 열정을 놓지 않았다. 이 시기가 표면적으로는 사환기였지만 이면적으로는 학문교류기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 지점이 바로 간재의 생애에서 가장 정채로운 부면으로 판단된다. 그의 평생 화두는 학문적 탐구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남긴 문집과 저술이 바로 이를 웅변해준다.

간재의 학자로서의 면모를 이광정(李光庭, 1674~1756)은 다음과 같이 적실하게 평가한 바 있다.

선생의 학문은 간절히 묻고 가까이 생각하여 터득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정(性情)과 인도(人道)의 구분과, 이수(理數)의 미묘한 부분에서는 정밀하게 생각하고 애써 찾아 철저히 궁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생각하여 터득하지 못하면 반드시 질문하였고, 질문하여 터득하면 반드시 말로 표현하였다.주-D006

2. 《간재집》의 구성과 내용

1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 1541~1596)의 문집 《간재집》은 세 차례 간행되었다. 1752 년 초간본, 1766 년 중간본, 1829 년 속집이 그것이다. 그 구체적인 간행과정을 살피기로 한다.

이광정(李光庭)은 1743 년에 간재의 현손(玄孫) 이장진(李長鎭), 5 세손 이경태(李慶泰) 등의 청탁에 따라 본집을 교수(校讎)하였으며, 1751 년에는 권상일(權相一)이 산정(刪定)과 편차(編次)를 담당하고 연보를 증보(增補)하였다. 이를 후손 이경태와 이장태(李長泰)가 1752 년에 활자(活字)로 인행(印行)하였는데, 이것이 초간본이다. 이 초간본은 극소량이 전존(傳存)되어 있다.

초간본은 교정이나 인쇄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미흡하여 1766 년 후손 이상태(李常泰)가 영천(榮川) 오계서원(迂溪書院)의 원유(院儒) 김위(金瑋)와 함께 이상정(李象靖)에게 산정(刪定)과 교정(校正)을 부탁하여 8 권 4 책으로 재편(再編)하고 오계서원에서 목판(木版)으로 간행하였다. 이것이 중간본(重刊本)으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속집(續集)은 간재가 퇴계(退溪)에게 수업한 것을 바탕으로 한 성리학 관계 편저류(編著類)를 합편(合編)한 것이다. 이 속집은 영주(榮州) 사림과 후손이 상당 부분을 개삭(改削)하고 축약하여 5 권 3 책으로 묶어 오계서원에서 1829 년에 목판으로 간행한 것이다. 국립중앙도서관,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주-D007

2

《간재집》은 원집 8 권 4 책, 속집 5 권 3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수(卷首)에 이광정(李光庭)의 서문와 정언충(鄭彦忠)의 중간(重刊)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간재선생문집서(艮齋先生文集序)〉는 1743 년 이광정이 쓴 문집 서문이다. 여기서 퇴계가 간재에게 선기옥형(璇璣玉衡)을 만들게 하고 서적을 맡기는 등 제자에 대한 각별한 신뢰를 적시하였다. 간재가 지닌 퇴계 문하 고제(高弟)로서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다. 간재의 학문 자세에 대해 "간절히 묻고 가까이 생각하여 터득하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성정(性情)과 인도(人道)의 구분, 이수(理數)의 미묘한 부분에서는 정밀하게 생각하고 애써 찾아 철저히 궁구하지 않음이 없었다. 생각하여 터득하지 못하면 반드시 질문하였고, 질문하여 터득하면 반드시 말로 표현하였다"라고 하였다. 간재 학문의 정밀하고 독실함을 강조한 것이다.

〈간재선생문집중간서(艮齋先生文集重刊序)〉는 1766 년 정언충(鄭彦忠)이 쓴 문집 중간 서문이다. 그는 "간재가 천인(天人) 성명(性命)과 격치(格致) 성정(誠正)의 설에 대해서 가장 익숙하게 강구하였고, 스승의 동정과 행사와 용모와 언어를 접하는 사이에 가장 깊이 터득하였다. 깊이 강구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밝았고, 깊이 터득하였기 때문에 그 행실이 돈독하였다. 마침내 마루에 오르고 방에 들어가 우뚝이 고제(高弟)가 되니, 정자(程子) 문하의 양시(楊時)·사양좌(謝良佐)와 같았다."고 하였다. 간재가 퇴계의 고제가 된 소이연을 자세하게 적시한 것이다. 그리고, 〈문목(問目)〉과 〈계산기선록(溪山記善錄)〉, 편지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간재를 "독실하게 믿고 배우기를 좋아하였으며 덕을 가진 자의 말이 틀림없다"고 평가하였다.

권 1 에는 부(賦) 2 편과 시 60 제(題)가 수록되어 있다. 부(賦)는 〈음양호근(陰陽互根)〉과 〈박복(剝復)〉이 그것이다. 역학(易學)에 능통한 간재의 주역관이 압축된 작품이다. 〈음양호근(陰陽互根)〉은 109 구에 이르는 장편으로 주역을 읽으며 터득한 내용을 읊은 것이다. 음과 양이 서로 뿌리가 되는 이치를 통해 주역의 위대하고 지극함을 칭송한 작품이다. 〈박복〉은 64 구로 음양호근의 이치를 〈박괘(剝卦)〉와 〈복괘(復卦)〉로 증명한 것이다. 양이 다하면 음이 생겨나고 음 또한 노쇠하면 양이 회복된다고 하였다.

권 1 에 수록된 시는 61 제(題)인데, 이 가운데 차운시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차운의 대상으로는 퇴계를 비롯하여 김부필(金富弼, 1516~1577), 김부륜(金富倫, 1531~1598), 이교(李嶠, 1531~1595), 남치리(南致利, 1534~1580), 구찬록(具贊祿, 1535~1616), 김성일(金誠一, 1538~1593), 이안도(李安道, 1541~1584), 김희중(金希仲, 1541~1622), 유성룡(柳成龍, 1542~1607), 백현룡(白見龍, 1543~1622), 김륭

(金隆, 1549~1593), 박려(朴欐, 1551~1592), 권우(權宇, 1552~1590) 등이다. 대부분 퇴계의 문인으로 간재의 동학들이다. 간재는 차운시를 통해 면학과 학문하는 자세를 표출하였다.

기른 바가 바르지 않는데 내 어찌 능통하겠나 / 所養非端我豈通
막힌 것을 열어도 서로 같지 않음을 모르겠네 / 不知開塞不相同
사문의 박문약례는 선현의 가르침인데 / 師門博約前賢訓
어리석은 이 깨우치려는 마음에 왕림하였네 / 枉顧愚蒙使誘衷

위의 시는 〈삼가 퇴계 선생 시에 차운하다(敬次退溪先生韻)〉 중 두 번째 수이다. 퇴계의 시에 차운하여 소학(小學)에 대해 읊은 시이다. 선현의 가르침을 성실히 따르겠다는 다짐을 표현한 시이다.

옥을 꿴 듯한 그대의 시 지금 보고 / 今見吾君聯玉句
뜻이 이미 고명한 것이 너무나 가상하네 / 深嘉意趣已高明
이제부터 서로 연마하기를 더욱 바라니 / 從今更願相磨切
학문은 원래 명리를 위한 게 아니라네 / 爲學元非爲利名

위는 〈백문세의 시에 차운하다(次白文世韻)〉로 백현룡의 시에 차운한 시이다. 동학에게 학문을 권면한 작품이다. 이와 같이 간재의 차운시는 대부분 도학(道學)을 주제로 하고 있다. 차운시 이외의 시에도 도학이 핵심 주제로 설정되어 있다.

절벽 깎아 암자 세우니 버들 그늘 드리우고 / 鑿壁開菴伴柳陰
시냇물 콸콸 소리 내며 앞 숲에서 쏟아지네 / 溪聲瀡瀡瀉前林
여울 보는 한 가지 방법 어디에서 얻었는가 / 觀瀾一術從何得
병든 몸 서재에 머물며 마음 수양 해보려네 / 抱病齋居試養心

위의 시는 1570 년에 지은 〈오계정사(迂溪精舍)〉이다. 오계정사는 1570 년에 간재가 안동 녹전면 원천리의 태조봉(太祖峯) 남쪽 기슭에 후학을 기르기 위해 세운 정사이다.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정사를 세운 것이다.

오계서원에는 〈관성재(觀省齋)〉, 〈험위료(驗爲寮)〉, 〈활발대(活潑臺), 〈군자당(君子塘)〉 등이 있다. 도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칭들이다. 간재는 이것을 시로 형상화하였다. 〈활발대〉를 보기로 한다.

한 이치는 한 물건을 좇아 구해야 되나니 / 一理須從一物求
어느 때 어느 곳이나 샘물 머리에 있구나 / 無時無處有源頭
누가 다시 연비어약의 묘함을 터득하랴 / 誰能更得鳶魚妙
생동하는 기운 분명하게 위아래로 유행하네 / 活潑分明上下流

위는 〈활발대〉이다. 활발대는 오계서원 입구 동편에 있다. 원두(源頭)의 활수(活水)와 연비어약(鳶飛魚躍)의 천리(天理)를 노래한 것이다. 간재의 학문적 지향이 잘 드러나 있다.

권 2 에는 시 39 제와 소(疏) 2 편이 수록되어 있다. 시 39 제 중에는 기행시가 다수 보인다. 〈월성(月城)〉, 〈불국사(佛國寺)〉, 〈소봉래(小蓬萊)〉, 〈이견대(利見臺)〉, 〈입반고동(入磻高洞)〉, 〈통도사(通道寺)〉, 〈장천(長川)〉, 〈언양관각(彦陽官閣)〉 등이 그것이다. 간재는 기행시를 통해 지난 역사를 회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월성 아직도 남아 있으니 / 半月城猶在
어찌 서리의 탄식을 견디겠나 / 那堪歎黍離
오산은 옛날의 울분을 머금었고 / 鰲山含舊憤
문수는 가시지 않은 슬픔 연주하네 / 蚊水奏餘悲
음악은 봄 새 울음처럼 덧없고 / 音樂空春鳥
번화는 지는 해와 같은 것을 / 繁華只夕暉
끝없는 회포에 방황하느라 / 彷徨懷不極
가는 길 더욱 더디기만 하네 / 行邁更遲遲

위는 〈월성(月城)〉이다. 그는 반월성 금오산 문수 등을 유람하면서 지난 역사를 떠올리며 회포에 젖어들고 있다. 역사 기행을 통해 지금 여기를 살피고자 한 것이다.

소(疏)는 2 편인데, 〈상왕세자서(上王世子書)〉와 〈상행재소병도(上行在疏幷圖)〉가 수록되어 있다. 〈상왕세자서〉는 1592 년에 무군사(撫軍司)를 설치하여 군사를 지휘하던 세자[광해군]에게 올린 글이다. 왜란을 초래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전란 극복의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간재는 왜적을 제압하는 전술로 철타(鐵打)와 능장(稜杖)의 사용, 사수(射手)로서 산척(山尺)의 활용, 학익진(鶴翼陣)의 구사, 거북선 활용 등을 강조하였다. 특히, 그는 왜적을 육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으로 파악하였다. 국난을 타개할 구체적인 전술과 전략을 세자에게 곡진하게 진언한 글로 간재의 현실인식과 대응이 오롯이 담겨 있다. 〈상행재소병도〉는 임진왜란을 타개할 계책을 선조에게 올린 상소문이다. 계책은 〈상왕세자서〉에서 제시한 전술 전략과 동일하다. 특히 간재는 왕도의 요체로 신(信)과 인화(人和)의 확립을 역설하고 있는 바 이것을 국난 극복의 원동력으로 간주하였다. 이런 계책이 실제로 활용되도록 진계도(陣械圖) 침수진목도(沈水眞木圖) 구갑선도(龜甲船圖)를 그려 상소문 말미에 첨부하였다. 그가 평소 전란에 대한 대비책을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인다.

3

권 3 은 문목(問目)으로 〈상퇴계선생(上退溪先生)〉이라는 제목으로 11 편이 수록되어 있다. 문목은 질문의 조목이다. 간재가 퇴계 선생에게 질문하기 위해 올린 편지이다. 질문에 대한 퇴계의 답변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1560 년을 시작으로 1562 년, 1564 년, 1566 년, 1567 년, 1568 년, 1570 년에 올린 편지들이 순서대로 편차되어 있다. 1560 년에 올린 〈상퇴계선생(上退溪先生)〉에서 간재가 공부의 순서를 질문하자 퇴계는 공부의 선후는 먼저 소학을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간재의 질문은 끝없이 이어진다. 입지(立志) 입심(立心) 충신(忠信) 음식 남녀 구용(九容) 구사(九思) 기질의 변화 등등으로 확산되었다. 여기에 대해 퇴계는 전거를 제시하며 명확하게 답변하였다. 그 예를 하나 들어보기로 한다.

간재의 질문 : 소자가 비록 학문에 뜻을 두었으나 나태한 생각이 쉽게 생겨서 하다가 말다가 하는 병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질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퇴계의 답변 : 《중용》의 '널리 배우고[博學之]'에서부터 '남이 열 번에 능하면 자기는 천 번 노력하라.[人十己千]'까지의 내용이 바로 기질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과연 이 방법대로 잘 행하기만 한다면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반드시 밝아지고, 아무리 유약한 사람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게으른 생각이 생겨 하다가 말다가 하는 병통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찌 조금이라도 그 사이에 관여할 수가 있겠는가. 공자가 안연에게 "인(仁)을 행하는 것이 자기에게 달려 있는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겠는가?"라고 하였다.

문목에 나타난 간재의 질문은 공부하는 자세에서부터 경서의 구절에 이르기까지 거시적인 담론과 미시적인 문제를 두루 포괄하고 있다. 특히, 문목에서 간재는 기(氣)와 질(質), 이(理)와 기(氣), 성(性), 의(義), 지(智), 성명(誠明), 유원(悠遠) 등 성리학적 명제에 대해 심도 깊게 질의하였다. 여기서 진리를 탐구하는 간재의 학자로서의 열정과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권 4 에는 서간(書簡) 18 통이 수록되어 있다. 수신자는 권우(權宇) 12 통, 금난수(琴蘭秀) 1 통, 남치리(南致利) 1 통, 정사성(鄭士誠) 1 통, 유운룡(柳雲龍) 1 통, 유성룡(柳成龍) 1 통, 창릉재소(昌陵齋所) 1 통이다. 수신자는 퇴계 문하의 동학들이다.

〈답금성성재난수(答琴惺惺齋蘭秀)〉에는 세월은 가는데 학업을 성취하지 못해 애태우는 간재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다. 〈답남의중치리(答南義仲致利)〉는 남치리의 복괘(復卦)에 대한 주장에 간재가 답변한 것이다. 〈답권정보(答權定甫)〉는 1575 년에 권우에게 보낸 편지로 퇴계의 학문을 계승하여 경을 법도로 삼자고 권면한 내용이다. 그 다음 〈답권정보〉라는 제목으로 9 통이 수록되어 있다. 〈답권정보〉에는 박문(博文), 격치(格致), 제양(制養), 솔성(率性), 치지(致知), 존양(存養) 등 권우(權宇)와 논쟁한 학문적 담론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여권정보(與權定甫)〉에는 권우에 대한 안부와 퇴계문집 교정의 현실적 어려움이 나타나 있다. 〈답권정보문목(答權定甫問目)〉에는 권우의 《중용장구(中庸章句)》에 대한 질문에 여러 선학들의 견해를 논거로 제시하며 자세하게 답변한 것이다. 간재의 정밀한 학문적 공력을 간취할 수 있다. 〈여정자명사성(與鄭子明士誠)〉은 《계몽전의(啓蒙傳疑)》를 진상사(進上使) 편에 부쳐달라고 정사성(鄭士誠)에게 당부한 편지이다. 〈답유이득운룡(答柳而得雲龍)〉은 1578 년 유운룡(柳雲龍)에게 답한 편지로 선사(先師) 퇴계의 유고 교정에 참여하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내용이다. 〈여서애유상국(與西厓柳相國)〉는 1593 년 유성룡에게 보낸 편지로 전란에 작미(作米)하는 명을 거두고 백성을 소생시켜줄 것을 청한 내용이다.

〈여창릉재소(與昌陵齋所)〉는 을사사화 당시 봉성군(鳳城君)을 죽이라고 정청(庭請)할 때 홍문관에 재직 중이던 퇴계가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소명한 글이다. 여기에 대해 "간재는 예측할 수 없는 변고를 갑자기 듣고 부득이 서명하고 임금에게 고하는 것은 어진 사람을 가게 하고 있을 법한 일로 속이는 도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날 곧바로 병을 핑계대고 물러난 것은 어진 사람을 빠뜨릴 수 없고 터무니없는 말로 속일 수 없는 지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여 이때 퇴계의 행신이 도리에 어긋난 것이 아님을 역설하였다.

4

권 5 와 권 6 에는 〈계산기선록(溪山記善錄)〉과 〈기선총록(記善總錄)〉 그리고 〈발문(跋文)〉이 수록되어 있다. 〈계산기선록〉은 퇴계의 언행에 관한 기록이다. 간재는 19 세에 퇴계 문하에 나아가 12 년간 직접 보고 들은 스승의 언행을 기록한 것이다. 이 책은 상하 2 권 1 책, 16 절 140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1 에는 입학지서(入學之序) 12 조목, 조존지요(操存之要) 28 조목, 궁격지묘(窮格之妙) 16 조목, 송독지근(誦讀之勤) 13 조목이 수록되어 있고 권 2 에는 산수지락(山水之樂) 8 조목, 거가지의(居家之儀) 10 조목, 제사지례(祭祀之禮) 5 조목, 사수지의(辭受之義) 6 조목, 접물지용(接物之容) 7 조목, 인물지품(人物之品) 6 조목, 처

변지도(處變之道) 3 조목, 추서지인(推恕之仁) 4 조목, 음식지절(飮食之節) 3 조목, 거향지사(居鄕之事) 6 조목, 진퇴지절(進退之節) 7 조목, 임종지명(臨終之命) 6 조목이 수록되어 있다.

제 1 절 입학지서(入學之序)에는 퇴계의 성학 과정, 제 2 절 조존지요(操存之要)에는 퇴계의 존심양성 곧 마음공부로서의 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제 3 절 궁격지묘(窮格之妙)에는 궁리와 격물 곧 진리 추구에 대한 퇴계의 말씀, 제 4 절 송독지근(誦讀之勤)에는 퇴계의 독서 방법과 독서 태도가 기록되어 있다.

제 5 절 산수지락(山水之樂)에는 퇴계의 산수유람의 흥취와 유람시가 수록되어 있고, 제 6 절 거가지의(居家之儀)에는 평소 퇴계의 평소 생활자세와 대인관계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제 7 절 제사지례(祭祀之禮)에는 제사와 관련된 퇴계의 생활상, 제 8 절 사수지의(辭受之義)에는 예물과 관련된 퇴계의 대응 자세가 기록되어 있다. 제 9 절 접물지용(接物之容)에는 인간에 대한 퇴계의 예의, 제 10 절 인물지품(人物之品)에는 채침 조식 노수신 윤원형 등 퇴계의 인물평을 기록하고 있다. 제 11 절 처변지도(處變之道)에는 변화에 대응하는 퇴계의 자세, 제 12 절 추서지인(推恕之仁)에는 퇴계의 어진 마음이 기록되어 있다. 제 13 절 음식지절(飮食之節)에는 음식과 관련된 여러 예절, 제 14 절 거향지사(居鄕之事)에는 향리에서의 생활 자세가 기록되어 있다. 제 15 절 진퇴지절(進退之節)에는 출처에 대한 퇴계의 소신, 16 절 임종지명(臨終之命)에는 고종하기 전까지 퇴계의 행신이 기록되어 있다.**주-D008**

〈기선총록〉은 계산기선록을 총괄하기 위해 1571 년에 쓴 글이다. 소학 논어 태극도설 심경 주자서 등 퇴계가 탐독하거나 강론한 책을 통한 퇴계의 학문적 성과를 필두로 하여 도로 삼은 것, 마음에 얻은 것, 몸으로 실천한 것, 가정에서 시행한 것 등에 대해 개관하였다. 계산기선록에서 여러 항목으로 분산된 퇴계의 언행을 요약 총괄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퇴계를 성인의 학문을 계승하고 미래의 학자를 열어준 사문의 조종으로 설정하였다.

김응조(金應祖)는 1666 년에 쓴 〈발문〉에서 〈계산기선록〉에 있는 글을 읽고 시를 읊으면 퇴계의 모습이 완연히 눈앞에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공경을 표하였다.

5

권 7 은 잡저(雜著)로 변(辨) 9 편, 설(說) 3 편, 의(義) 1 편, 문답(問答) 1 편, 논(論) 1 편, 제문(祭文) 1 편, 묘지(墓誌) 2 편, 유록(遊錄) 1 편 등 19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변(9), 설(3), 의(1), 문답(1), 논(1) 등 논변류(論辨類)를 위시하여 여러 문류(文類)의 글이 실려 있다.

〈진청란학부통변심도설변(陳淸瀾學蔀通辨心圖說辨)〉은 명나라 진건(陳建)이 지은 학부통변(學蔀通辨)의 심도설(心圖說)에 대한 변증을 다루고 있다. 진건이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게 주자(朱子)를 배척한 잘못을 선유의 정론으로 지적한 글이다.

〈지행변(知行辨)〉에서 간재는 지행을 합하여 말하면 한 가지 일이고, 나누어 말하면 두 가지 일이라고 하였다. 말하자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고 변증한 것이다.

〈조화변(造化辨)〉에서 간재는 조화가 조화되는 것은 유명(幽明)과 굴신(屈伸)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기를 토하는 것은 시행되고 기를 머금는 것은 변화하니, 양은 시행되고 음은 변화하여 인도가 확립되고 만물이 번창하는 것으로 조화를 변증하였다.

〈대학팔조목변(大學八條目辨)〉에서 간재는 양심이 발현되는 것을 구하는 것은 좋지만 팔조목 전문(傳文)에서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였다. 양심이 발현되는 것은 사람의 성정의 발현되는 것이며 이것이 명덕(明德)의 발현을 이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변증하였다.

〈혈구변(絜矩辨)〉에서 간재는 혈구를 법도로써 헤아린다는 뜻으로 변증하고 혈구의 효과로써 평천하를 설명하였다.

〈오륜변(五倫辨)〉에서 간재는 부자유친(父子有親), 군신유의(君臣有義), 부부유별(夫婦有別), 장유유서(長幼有序), 붕우유신(朋友有信)에서 부자 군신 부부 장유 붕우는 사물을 말한 것이고, 친(親) 의(義) 별(別) 서(序) 신(信)은 법칙을 말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 다섯 가지의 이치는 본래 모두 하나의 인륜 가운데 갖추어져 있다고 변증하였다.

〈여조월천사경변미발이발(與趙月川士敬辨未發已發)〉은 1573 년 조목이 대체로 심(心)은 성정(性情)을 통괄하는 것이고 중(中)은 천하의 대본(大本)이니, 이른바 천명의 성(性)인데 정주(程朱)의 설이 이러한 것은 어째서인가?"라는 질문에 간재가 답변한 내용이다. 간재는 "정자(程子)가 비록 심(心)을 이발(已發)이라고 하였으나, 그 미발(未發)의 때에 본심유행(本心流行)의 체(體)가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심체유행(心體流行)을 오로지 미발이란 이름을 얻은 실상이 된다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에는 체(體)도 있고 용(用)도 있는 것입니다."라고 변증하였다.

〈육십갑자음양변(六十甲子陰陽辨)〉은 오행(五行)의 목(木), 화(火), 토(土)는 양(陽)이고 금(金), 수(水)는 음(陰)이기 때문에 육십갑자는 양(陽)이 36 이 되고, 음(陰)이 24 라는 것이다.

〈주회암위참동계비허어변(朱晦庵謂參同契非虛語辨)〉에서 간재는 "참동계(參同契)의 말은 주역(周易)의 이치에 가까우며 옳은 듯하면서 그릇된 것이 아니니, 이 책에 가탁하여 주자가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것"이라 하였다. 다만, 주자가 "이것을 어찌 믿었겠는가. 부득이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하며 주자의 뜻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서명설(西銘說)〉에서 간재는 서명(西銘)과 중용(中庸)은 서로 같은 곳이 있어 두 책이 표리(表裏)가 됨을 논설하였다. 〈동명설(東銘說)〉에서 간재는 동명을 인간의 어리석은 병을 치료하기 때문에 폄우(砭愚)라고 한다는 퇴계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동명의 '희언출어사(戱言出於思)', '무기의불능야(無己疑不能也)' 등의 구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논설하였다.

〈연월일시원회운세설(年月日時元會運世說)〉에서는 15 분(分)이 1 각(刻)이 되고, 8 각이 1 시(時)가 되고, 12 시가 1 일이 되고, 30 일이 한 달이 되고, 12 달이 1 년이 되고, 30 년이 1 세(世)가 되고, 12 세가 1 운(運)이 되고, 30 운이 1 회(會)가 되고, 12 회가 1 원(元)이 됨을 설명하였다.

〈역초구상륙효의(易初九上六爻義)〉에서는 민응기(閔應祺)가 처음 효와 상효(上爻)를 초구(初九), 상륙(上六)이라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자 그 뜻을 풀어 간재가 답변한 내용이다. 그는 초효(初爻)는 음양의 시작이고 일의 단서이며, 상효(上爻)는 음양의 극이고 일의 끝으로 시종의 중대함을 보이고 후세에 경계를 전하기 위해서라고 논설하였다.

〈여이준문답(與李浚問答)〉은 이준(李浚)이 퇴계의 출처를 거론하고 간재가 답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간재는 퇴계가 경(敬)을 지키고 의(義)를 밝히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 출처가 분명했다고 하였다.

〈논삼선생학(論三先生學)〉은 주자・회재・퇴계의 학문적 특장을 논한 글이다. 간재는 주자에게서 성학(聖學)의 시종본말(始終本末)과 군자의 출처행장(出處行藏)을, 회재에게서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방법을, 퇴계에게서 정제(整齊)와 엄숙(嚴肅)에 대한 공부를 본받을 수 있다고 논하였다.

〈제퇴계선생(祭退溪先生)〉에서 간재는 퇴계를 경의(敬義)에 침잠하고 인지(仁智)를 함양한 스승으로 추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스승의 죽음에 간재는 오장이 에이는 듯한 슬픔을 느낀 것이다.

〈퇴계선생묘지서(退溪先生墓誌敍)〉는 퇴계의 자찬명(自撰銘)과 기대승(奇大升)의 묘지(墓誌)를 앞에다 소개하고 뒤에 자신이 찬술한 묘지를 첨부한 것이다. 간재는 퇴계의 학문을 경(敬)을 지켜 근본을 세우고 이치를 궁구하여 앎을 지극히 하였으며 자신의 몸에 돌이켜 실천한 것으로 요약하였다.

〈퇴계선생묘지명(退溪先生墓誌銘)〉에서 간재는 퇴계의 죽음으로 우리의 도가 의탁할 곳이 없는 안타까움을 표출하면서도 그 아름다운 명성은 더욱 창성할 것이라고 스승의 학문적 업적을 칭송하였다.

〈동경유록(東京遊錄)〉은 1580 년 4 월 17 일부터 21 일까지 5 일간 경주를 유람하고 쓴 글이다. 간재는 경주 유람을 하고 싶었으나 공무로 가지 못하다가 비로소 결행을 하게 된 것이다. 여정은 계림(鷄林) → 첨성대(瞻星臺) → 월성(月城) → 불국사(佛國寺) → 요광원(要光院) → 감은사기(感恩寺基) → 이견대(利見臺) → 대왕암(大王巖) → 감포(甘浦) → 장기현(長鬐縣) → 연일(延日) → 월성(月城)이다. 유람지 각각의 승경을 세밀하게 묘사하였으며, 특히 명승지에 얽힌 이야기를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유람지에서의 느낀 감흥을 시로 표현하였으며 유람 중의 선유(船遊)도 기록하였다.

명(銘)은 7 편으로 〈호명(戶銘)〉, 〈창명(窓銘)〉, 〈등명(燈銘)〉, 〈척명(尺銘)〉, 〈도광지명(韜光紙銘)〉, 〈기명(丌銘)〉, 〈책명(冊銘)〉이 수록되어 있다. 방문, 창문, 등불, 자, 빛을 가린 종이, 서안(書案), 책을 대상으로 사물이 지닌 본질을 간파하여 교훈을 새긴 글들이다. 이 가운데 〈호명〉과 〈책명〉을 보기로 한다.

〈호명〉

네가 열려 움직이고 / 爾闢而動
네가 닫혀 고요하네 / 爾闔而靜
움직이고 고요히 있을 때마다 / 動靜隨時
감히 스스로 반성하지 않겠는가 / 敢不自省
무엇으로 그것을 주재하는가 / 孰厥尸之
바로 의와 경이라네 / 曰義與敬

〈책명〉

이루어 놓은 설을 보니 / 見成說底
도리 아닌 게 없네 / 莫非道理
물어서 남에게 분변하고 / 問辨於人
배워서 자기에게 모으네 / 學聚於己
천고에 마음을 전하면서 / 千古傳心
누구인들 너를 말미암지 않으랴 / 孰不由爾

도(圖)는 5 편으로 〈심체용도(心體用圖)〉, 〈위학지도(爲學之圖)〉, 〈위정지도(爲政之圖)〉, 〈부부유별도(夫婦有別圖)〉, 〈산법도병서(算法圖幷序)〉가 수록되어 있다. 핵심적인 내용을 그림이나 도표를 제시한 것이다. 〈심체용도(心體用圖)〉에서는 마음의 체와 용을 도식으로 제시한 것이다. 주요내용을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마음의 체는 성(性)이다. 성은 허령(虛靈)하면서 지각(知覺)한다. 인의예지(仁義禮智), 기질정신(氣質精神)이다. 마음의 용은 정(情)이다. 정에서 측은(惻隱), 수오(羞惡), 사양(辭讓), 시비(是非)는 도심(道心)이고, 희(喜), 노(怒), 애(哀), 락(樂), 애(愛), 오(惡), 욕(欲)은 인심이다.

〈위학지도(爲學之圖)〉는 배우는 자에게 가장 절실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면려한 것이다. 지경(持敬), 성찰(省察), 독서(讀書)로 항목화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독서를 예로 들면, "바르게 앉아 깊이 생각하며 침잠 반복한다. 입으로 외고 마음으로 깊이 터득하여 체험해 알고 체험해 관찰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위학(爲學)에 필요한 약제를 제시하고 있다. 성심원(惺心元), 화기탕(和氣湯), 익원산(益元散),

수민단(壽民丹)이 그것이다. 그리고 약제가 지닌 효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익원산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기강을 진작시킴. 명분을 바로잡음. 학교를 숭상함. 정직을 앞세움. 절검을 숭상함. 염치를 권장함. 정도를 부지함. 언로를 엶. 상벌을 밝게 함. 출척을 엄히 함.

〈위정지도(爲政之圖)〉는 정치에 대한 자장(子張)의 질문에 공자가 답한 내용을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다. 위정의 핵심으로 오미(五美 威而不猛, 欲而不貪, 惠而不費, 勞而不怨, 泰而不驕)와 사악(四惡 虐, 暴, 賊, 有司)을 제시하고 있다. 오미는 공경하여 받들어야 하는 것이고 사악은 쫓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다.

〈부부유별도(夫婦有別圖)〉는 하도(河圖)의 문양을 본받아 만든 것이다. 간재는 부부유별(夫婦有別)의 '별(別)' 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한 남편과 한 아내가 각기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과 난잡하지 않는 것, 비록 부부가 한 집에 함께 산다 하더라도 남자는 바깥채에, 여자는 안채에 있으면서 안팎이 서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라고 풀이하였다. 아울러 총론을 첨부하여 부부유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산법도병서(算法圖幷序)〉는 종횡의 산법이 차례가 번거로워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종횡의 사이에 착오하기 쉬워 아전들이 농간을 부리기에 낙서(洛書) 45 의 수에 따라 궁구하여 만든 산법을 제시한 것이다.

권 8 은 연보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보는 1541 년부터 1596 년까지 간재의 생애가 연도 순으로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주요 편지와 시가 연보 속에 수록되어 있어 작성 및 창작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 증직과 서원 건립 등도 추가로 기록되어 있다.

부록은 7 편으로 〈만력무인선묘조구현천목(萬曆戊寅宣廟朝九賢薦目)〉, 조목(趙穆)과 유성룡(柳成龍)의 〈만사〉, 조목과 김부륜(金富倫)의 〈제문〉, 김응조(金應祖)의 〈오계서원도존사봉안문(迂溪書院道存祠奉安文)〉과 〈상향축문(常享祝文)〉 등이 실려 있다.

〈만력무인선묘조구현천목〉은 1578 년 선조(宣祖) 때 9 명의 현인을 천거한 목록이다. 9 명의 현인은 정구(鄭逑), 남치리(南致利), 성호(成浩), 이덕홍(李德弘), 김장생(金長生), 권응시(權應時), 김윤신(金潤身), 문몽원(文夢轅)이다. 이덕홍에 대한 천목은 '〈견선흥기 려지독서(見善興起 勵志讀書)〉'라고 하였다.

조목(趙穆)의 간재에 대한 만사는 다음과 같다.

동서에 멀리 떨어져 늘 한스럽더니 / 常恨東西遠
구천으로 막힐 줄 어이 알았으랴 / 那知隔九泉
우리 학문 이제는 그만이로구나 / 斯文今已矣
고개 돌리니 눈물만 줄줄 흐르네 / 回首涕漣漣

권말에는 1751 년에 쓴 권상일(權相一)의 발문이 실려 있다.

6

《간재집》 속집은 5 권 3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속집 권 1 에는 〈사서질의(四書質疑)〉, 속집 권 2 에는 〈주역질의(周易質疑)〉, 속집 권 3 에는 〈심경질의(心經質疑)〉, 속집 권 4 에는 〈고문전집질의(古文前集質疑)〉와 〈고문후집질의(古文後集質疑)〉, 속집 권 5 에는 〈가례주해(家禮註解)〉가 수록되어 있다.

〈사서질의는〉, 〈논어질의〉, 〈맹자질의〉, 〈중용질의〉, 〈대학질의〉 순으로 실려 있다. 이 가운데 〈논어질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논어질의〉에서는 《논어집주》를 바탕으로 퇴계의 설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다. 간재는 논어를 해석하면서 대전본 소주(小註)를 정밀하게 검증하였고 논어집주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였다.주-D009

〈주역질의〉에는 간재가 퇴계에게 질의한 내용과 퇴계의 답변을 필두로 하여 후천육십사괘방도(後天六十四卦方圖), 부범수횡도방도(附範數橫圖方圖), 홍범황극내편구구적실수도(洪範皇極內篇九九積實數圖), 홍범월행구도(洪範月行九道), 기삼백주토(朞三百註吐)가 실려 있다. 간재 역학의 정수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간재의 역학사상은 음양호근(陰陽互根)에 따른 자연의 변화와 그 이치를 인식하여 이를 모범으로 본받아 중정(中正)과 인의(仁義)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점에서 간재의 역학은 의리역학의 목표를 가지면서도 상수·도수론적 이론을 여러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주-D010

〈심경질의〉는 정민정(程敏政)의 《심경부주(心經附註)》 서(序)로부터 존덕성재명장(尊德性齋銘章)에 이르기까지 순서에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다 퇴계의 심경후론(心經後論)을 덧붙여, 그 내용 가운데 인물이나 지명, 자의(字意) 등과 중요하거나 문제가 되는 개념과 내용을 표제어로 내세워 해설하고 있다. 내용에 대한 해설은 퇴계에게 수강한 것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심학도(心學圖)나 인심(人心)·도심(道心)에 관한 내용은 퇴계와 조목(趙穆)간의 문답 내용을 많이 포함시켰다. 〈심경질의〉는 《심경부주》에 대한 퇴계의 견해를 잘 담고 있는 책으로 최초의 심경 주석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주-D011

〈고문전집질의〉는 권학문부터 연창궁사(連昌宮辭)에 이르기까지 어휘 구절 문장 등의 의문처를 명확하게 풀이한 책이다. 마찬가지로 〈고문후집질의〉도 이소경(離騷經)부터 상석시랑서(上席侍郎書)에 이르기까지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선명하게 변증한 책이다.

〈가례주해(家禮註解)〉는 사당도(祠堂圖), 곡거도(曲裾圖), 오복도(五服圖), 팔모도(八母圖), 신주식(神主式), 사당(祠堂), 심의제도(深衣制度), 거가잡의(居家雜儀) 등 모두 16 개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목 아래에는 여러 항목이 있다. 가례 가운데 난해하거나 틀리기 쉬운 부분을 뽑아 여러 문헌을 근거로 제시하여 변증 주해한 책이다.

권말에는 1829 년에 쓴 유심춘(柳尋春)의 간재속집 발문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간재집 속집 간행이 사문의 큰 다행이라 하면서 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표출하였다.

[주-D001] : 李載坤, 〈艮齋 李德弘 先生의 生涯와 學問〉, 《東洋禮學》 27 집, 東洋禮學會, 2012, 5-7 쪽.
[주-D002] : 李載坤, 위의 글, 12 쪽.
[주-D003] : 《艮齋集》, 年譜 15 세조.
[주-D004] : 《艮齋集》, 年譜 19 세조.
[주-D005] : 李秉烋, 〈艮齋 李德弘의 時代와 生涯〉, 《한국의 철학》 25 호, 경북대 퇴계연구소, 1997, 12 쪽.
[주-D006] : 李光庭, 《艮齋集》, 〈艮齋先生文集序〉
[주-D007] : 서정문, 간재집 해제, 한국고전번역원.
[주-D008] : 이완재, 계산기선록 해제, 퇴계전서 28, 퇴계학연구원.
[주-D009] : 전재동, 〈간재 이덕홍의 사서질의 연구〉, 퇴계학논집 창간호, 영남퇴계학연구원, 2007.
[주-D010] : 엄연석, 〈간재 이덕홍의 이기심성론과 역학의 특징〉, 퇴계학보, 퇴계학연구원, 2003.
[주-D011] : 한국학중앙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간재 선생 연보〔艮齋先生年譜〕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十八年庚寅 先生五十歲春。 以事罷還家。 時有舊守僕利山者。竊取宗廟金銀寶器。因放火廟中。欲滅其跡。火未起。有一守廟軍來告。先生方在直所。急令軍人上變告。又率他軍人急救火。火滅。命拿前後署僚及守僕。先生亦繫獄月餘。罪人伏誅。先生依原例。定配平恩驛。柳西厓贈詩云。得譴非由己。休官似返眞。○是行也。柳判書成龍，金執義玏，金正言誠一，禹舍人性傳，權師傅宇，鄭典籍士信，李監察寯，李參奉詠道琴，司評蘭秀，金僉正就礪，禹副正世臣，李廣尹三熹。皆以米布贈行。已而蒙放還家。教授生徒。○是歲。申公之悌出宰于禮安縣。申公素與先生相善。治禮六朞。而先生一不干以事。申公語人曰。若知李某乎。吾爲縣六載。無一毫求請事。此豈非君子人也云。 ○哭權松巢。

18 년(1590, 선조 23) 경인 선생 50 세

○봄, 일 때문에 파직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 당시 옛날 수복(守僕) 이산(利山)이란 자가 종묘의 금은 보기(寶器)를 훔치고 종묘에 불을 놓아 그 흔적을 없애려 하였다. 불이 붙기 전에 어떤 수묘군(守廟軍)이 와서 고하였고 선생은 막 당직하는 곳에 있다가 급히 군인을 시켜 변고를 알리게 하고 또 다른 군인을 인솔하고 불을 껐다. 화재가 진압되자 왕명으로 전후의 서료(署僚)와 수복(守僕)을 잡아 들였는데 선생도 한 달 남짓 옥에 갇혔고 죄인은 복주되었다. 선생은 원례(原例)에 따라 평은역(平恩驛)에 유배되었다. 유서애(柳西厓)가 시를 보내 "견책 당함은 자기 때문이 아니고, 휴관은 참된 곳으로 돌아간 듯하네.[得譴非由己 休官似返眞]"라고 하였다. ○이 행차에 판서 유성룡(柳成龍), 집의 김륵(金玏), 정언 김성일(金誠一), 사인 우성전(禹性傳), 사부 권우(權宇), 전적 정사신(鄭士信), 감찰 이교(李寯), 참봉 이영도(李詠道), 사평(司評) 금난수(琴蘭秀), 첨정 김취려(金就礪), 부정(副正) 우세신(禹世臣), 광주 부윤(廣州府尹) 이삼희(李三熹)가 모두 쌀과 베를 내어 노자로 주었다. 얼마 되지 않아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와 학생을 가르쳤다.

○이 해에, 신지제(*申之悌*) 공이 외직으로 나가 예안현(禮安縣) 수령이 되었다. 신공이 평소에 선생과 매우 잘 알았지만 예안을 다스린 지 6 년이 되었지만 선생은 한 번도 일을 가지고 청탁한 적이 없었다. 신공이 남들에게 "그대는 이모를 아는가. 내가 6 년 동안 현을 다스렸는데 터럭만큼의 청탁도 없었네. 이 사람이야말로 군자가 아니겠는가."라고 하였다. –

○권송소(權松巢)의 상에 곡하였다.

甚麗。每之。餉對多矣。又寄詩云。陶山懸日月。伊洞鎖烟霞。鑽堅昔升堂。著靜今成家。誰謂十龍寶。來尋百里踰。伊洞。郎先生舊號。○與趙月川遊道峯書院。有詩五絶

十五年丁亥 先生四十七歲 秋。哭權松巖。松巖名好文。字章仲。○與趙月川書。

十六年戊子 先生四十八歲 夏。著夫婦有別圖。

十七年己丑 先生四十九歲 春。陞通善郎。先是鄭汝立之爲修撰也。先生適與相遇於洪公宗祿家。其言辭驕元。傍若無人。語及形而上形而下。所論頗傅會杜撰。自以爲是。先生厲聲曰。吾嘗聞諸先師矣。修撰之言。無乃不當邪。因歷叙所聞。鄭色變。語未究而怒。每道山水之勝。若不聞先生之語者然。先生卽還。贈書西厓相公曰。此人內險外元。餙非過務。欲上人。眞姦人也。後汝立果以逆伏誅。時人服其先見。○冬。拜宗廟直長。

十八年庚寅 先生五十歲 春。以事罷還家。時有舊守僕利山者。竊取宗廟金銀寶器。因放火廟中。欲滅其跡。火未起。有一守廟軍來告。先生方在直所。急令軍人上變告。又率他軍人急救火。火滅。命拿前後署僚及守僕。先生亦繫獄月餘。罪人伏誅。先生依原例定配平恩驛。柳西厓贈詩云。得謫非由已。休官似返眞。○是行也。柳判書成龍。金執義玏。金正言誠一。禹舍人性傳。權師傅宇。鄭典籍士信。李監察審。李參奉詠道。琴司評蘭秀。金僉正就礪。禹副正世臣。李廣尹三嘉。皆以米布贈行。已而蒙放還家。教授生徒。○是歲。申公之悌出宰禮安縣。申公素與先生相善。治禮六朞。而先生一不干以事。申公語人曰。若知李某乎。吾爲縣六載。無一毫求請事。此豈非君子人也云。○哭權松巢。

十九年辛卯 先生五十一歲。○有一士人。與其兄爭一舍。先生怪而詰之。兄曰。我所當居。弟不我與故爭。弟曰。父命遺我。兄欲專之故爭。先生曰。子不聞伯夷叔齊乎。伯夷以父命爲重。叔齊

一三一

갈암집(葛庵集)

1. 국역의 대본에 대하여

이 책은 17 세기 우리 나라의 도학자(道學者)이자 정치가인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의 문집인《갈암집(葛庵集)》을 국역한 것이다.

《갈암집》은 본집(本集) 29 권, 별집(別集) 6 권, 부록(附錄) 5 권, 속집(續集) 4 권 그리고《계축추보(癸丑追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국역서는 이를 완역하고, 유관 문헌인《성유록(聖諭錄)》과《기갑신계록(己甲辛癸錄)》까지 국역하여 첨보(添補)한 것이다.

《갈암집》은 1810 년경에 처음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저자 갈암이 숙종조(肅宗朝) 당쟁의 희생자로 명의죄인(名義罪人)이 되어 있었던 터라 당시 집권 세력에 의해 분서 훼판(焚書毁板)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 초간본은 현재 전존되고 있는 것을 찾을 길이 없어 그 체제며 분량을 알 수가 없다. 다만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의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있는 목록 1 권, 본집 19 권, 별집 2 권, 부록 2 권으로 되어 있는 필사본《갈암집》이 초간본의 저본(底本)이 아니었던가 추측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두번째로 간행된 것은 1908 년 갈암의 신원(伸寃)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말이 나 관작과 시호가 회복되고 난 이듬해인 1909 년이다. 이 중간본은 목록 외에 본집 29 권, 별집 6 권, 부록 5 권의 체제로 되어 있다. 이 중간본이 간행되고 난 뒤, 1912 년경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속집 4 권이 간행되었고, 1973 년으로 추정되는 시기에《계축추보》가 마지막으로 발간되었다.

그러니까 이 국역서의 대본은 1909 년의 중간본과 그 이후의 속집 및《계축추보》이고, 이 이외에 달리 이본(異本)이 있지 않다.

초간본에 대한 분서 훼판의 수난을 겪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계축추보》까지의 현행《갈암집》은 그 원고들이 비교적 잘 전존・인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그 아들 밀암(密庵) 이재(李栽)가 갈암의 생전에서부터 부친의 원고를 잘 수습・정리해 왔고, 또 그 후손들이 그것을 비교적 잘 보존해 온 결과다.

그러나 애석한 것은 갈암의 특히 중요한 저작 중의 한 가지인 정설(政說) 8 조 중 5 조가 허물어져 없어지고 3 조만 중간본에 올라 있다는 사실이다. 양적으로도 현행 중간본의 쪽으로 대략 15 쪽이나 되지만 무엇보다 그 내용이 '민은(民隱)'에 대처하기 위한 '치도(治道)'라는 점에서 더욱 애석해 마지않을 일이다. 3 조의 내용이나마 중간본에 올라 있어 여기에 의거하여 그 내용 전반의 성격을 알 수 있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이《갈암집》은 갈암의 사유(思惟)・정신(精神)의 궤적(軌跡)이 큰 결실(缺失) 없이 담겨 있는 책이라 할 만하다.

갈암에게는 문집 외에도 그 중형(仲兄)인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과 함께 편(編)한《홍범연의(洪範衍義)》를 위시하여《어제주수도설발휘(御製舟水圖說發揮)》,《돈전최어(惇典粹語)》,《충절록(忠節錄)》,《영모록(永慕錄)》,《신편팔진도설(新編八陣圖說)》등의 편저서가 있다. - 이 중 일부는 그 현존이 확인되지 않는다. -

2. 갈암의 생애와 학파적(學派的) 위치

1) 생애

(1) 가계(家系)

갈암 이현일은 1627 년(인조 5) 영해부(寧海府) 인량리(仁良里)에서 태어나서 1704 년(숙종 30) 안동 임하현(臨河縣) 금양(錦陽)에서 돌아가니 향년이 78 세였다. 본관은 재령(載寧), 자는 익승(翼昇)인데, 아호로는 갈암 외에 남악(南嶽)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갈암의 가계는 재령 이씨(載寧李氏) 영해파(寧海派)로서, 그는 영해 입향조(入鄕祖)인 현령 이애(李瑷)의 현손으로, 참봉 이시명(李時明)의 셋째 아들이다. 이애는 세조・성종 연간의 경화(京華) 명환(名宦)의 한 사람이었던 이맹현(李孟賢)의 여섯째 아들로서 16 세기 초 숙부 이중현(李仲賢)의 임지를 따라와 영해부의 대성(大姓) 진보 백씨(眞寶白氏)에게 장가들어 그 곳에 정착하게 된 사람이다.

영해부는 일정하게 발달한 평야를 가진 해읍(海邑)으로서 해륙 물산(海陸物産)이 풍부하여 자연 경제(自然經濟) 시대인 당시에서는 경제적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곳이었다. 여기에 북쪽으로 울진・삼척・강릉 지방, 남쪽으로 영덕・영일・경주 지방, 서쪽으로 청송・안동 지방으로 통하는, 동해안의 요지로서의 이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 여건은 곧 사회・문화적 수준의 상대적 선진(先進) 가능성이기도 하다. 고려 고종 이래 이 곳 토성(土姓)의 하나인 박씨(朴氏)의 성장과 중앙 정계 진출 - 위사공신(衛社功臣) 박송비(朴松庇), 좌복야(左僕射) 박득주(朴得珠), 전법판서(典法判書) 박원계(朴元桂) 등 - , 이곡(李穀)의 이 곳 김씨가(金氏家)에로의 혼취(婚娶), 그리고 불교 시대에 있어 나옹(懶翁)과 같은 명승(名僧)의 배출 같은 것이 그 가능 여건이 실현된 단적인 사례들이다. 특히 여말 이래로 이 곳의 사회・문화적 수준은 더욱 향상・확대되었고,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다한 사족(士族) 가문의 공재(共在)는 사회・문화적 지위에 대한 선의의 경쟁 기풍을 빚어내어 갔다.

무과(武科)를 거쳐 함창・무안・울진 현령 및 경주 판관을 역임하다가 신병으로 가거(家居)하게 된 이애는 처음에는 경가(京家)로 돌아갈 계획이었으나 나중에는 그 곳에다 자손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는데, 경화(京華)의 안목・감각・의식에 통하고 있었던 이 이씨 가정은 그 곳의 위와 같은 지역적 특성 위에 경제력을 기반으로 하여 곧바로 그 지역의 명가(名家)로 성장해 갔다. 즉 이애의 아들 이은보(李殷輔)를 거쳐 그 아들 이함(李涵)에 이르러서는 마침내 문과(文科)에 오르게 되는 한편, 5 남 2 녀로 손세(孫勢)가 번성하고 그 곳 영해와 안동・예안의 사족 명가와 결인(結姻)하여 사회적 입지가 더욱 상승해 갔다. 그는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형제와도 인척간이었다. 그리고 여기에 짝하여 문화 역량도 두텁게 축적되어 갔다. 그 아호가 운악(雲嶽)인 이함이 다량의 서적을 수장한 '만권서루(萬卷書樓)'를 둔 사실이 이 시기 이씨 가문의 문화 역량과 그 역량 상승에의 의지를 잘 징표해 준다. 아울러 당시 이 이씨 가문이 영해 지역의 문화 역량을 선도(先導)해 가는 위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씨 가문 자체의 조건 위에 특히 이함의 셋째 아들, 즉 갈암의 부친인 석계(石溪) 이시명이 전취로는 예안의 광산 김씨(光山金氏)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의 사위가 되었고, 후취로는 안동의 안동 장씨(安東張氏)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의 사위가 된 것이 이씨 가문의 문화와 학문적 역량의 비약적 상승의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다 경당에게는 석계가 사위이기 이전에 그 제자였기도 했지만 경당의 학문 역량을 잠재적으로 전수해 가졌던 그 따님이 석계의 부인, 곧 갈암 형제의 모부인이 된 사실이 그 비약적 상승의 더욱 중요한 변수(變數)로 작용했다.

(2) 생평(生平)

갈암의 생평은 대개 다섯 시기로 나누어 보는 것이 그 이해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첫째 시기는 출생~22 세까지(1627~1648)다. 당시 교육의 기초 과정을 학습하고 학문의 기초 역량을 구축해 나갔다.

갈암에게는 외부(外傅)가 없었다. 원천적으로 외부를 둘 필요가 없었다. 모부인 장씨의 세심한 교회(敎誨)에 뒷받침 받으며 부친 석계와 중형 존재에게서 기초 과정을 수학하고 학문 역량을 길러 갔다. 9 세에 《십구사략(十九史略)》, 12 세에 《소학(小學)》, 13 세에 《논어(論語)》를 수학했다. 11 세에 석계에게 하도(河圖)・낙서(洛書)에 관해 질의하고, 12 세에 천지를 표상하는 방원도(方圓圖)를 그리고, 13 세에 태극에서 64 괘까지의 생출(生出) 차례를 그리고 원회(元會)의 수에 관해 설명한 것 등의 사실은 이 소년기의 수학도 단순히 몽학(蒙學)으로만 한정지을 수 없는 면이 있음을 말해 준다. 뿐만 아니라 당시 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명(明)・청(淸) 교체 과정의 정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서, 9 세 때 형 존재가 그 포부를 물었더니 '원수(元帥)가 되어 오랑캐를 소탕하고 요동(遼東)을 수복하는 일'이라 답하고, 10 세 때 남한산성이 포위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창 앞에 매화나무 네 그루, 황혼 달을 향해 피었네. 이 꽃 아래에서 술을 마시고 싶었는데, 오랑캐 놈들이 성궐을 에워쌌다네.〔窓前四梅樹 開向黃昏月 欲飮花下酒 奴賊圍城闕〕"라고 시를 읊기도 했다. 그리고 14 세 때에는 《손오병법(孫吳兵法)》・《무경(武經)》・《장감(將鑑)》등의 책들을 구해 읽고, 15, 6 세 때에는 실제로 마을의 또래들을 모아 진법(陣法) 연습을 하기도 했다.

18 세에 같은 지역의 명문 무안 박씨(務安朴氏) 집안의 규수, 곧 박의장(朴毅長)의 손녀를 부인으로 맞았다. 같은 해에 명(明) 숭정제(崇禎帝)의 순사(殉死) 소식을 듣고 통분으로 침식을 제대로 못했다. 그리고 이 해 세제(歲除)에 자경잠(自警箴) 5 편, 즉 계태타(戒怠惰)・계희완(戒戱玩)・계부전(戒不專)・계언동(戒言動)・계긍대(戒矜大)를 지어 학문에의 자세를 가다듬었다.

20 세에 어버이의 명으로 서울에 가서 응시, 대책(對策)으로 소과(小科)에 합격했으나 시제(試題)가 시휘(時諱)를 범했다 해서 파방(罷榜)되었다. 22 세에 회시(會試)에 낙방하자 과거를 일단 단념했다. 그리고는 《주역(周易)》에 잠심하여 본의(本義)를 강구했다. 이 해 가을에 부친 석계를 배행하여 안동의 금계에 가서 외조 장경당의 제향에 참여하고, 장여헌(張旅軒)의 문인으로 당시 영남 사림의 영도자였던 학사(鶴沙) 김응조(金應祖)를 영주(榮州)의 본댁으로 방문하여 그 학덕을 체험했다.

둘째 시기는 23 세~50 세까지(1649~1676)다. 앞 시기에서의 다분히 과거에의 유의(留意)와는 달리, 42 세 때에 서울에서의 과거에 응시한 적이 있기는 하나, 학문에 본격적으로 정진하며 현실 문제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가운데에 자가(自家)의 지보(地步)를 이룩해 간 시기다. 주로 그의 형 존재 및 아우 항재(恒齋) 이숭일(李嵩逸)과 함께 산방(山房)・초당(草堂)으로 옮겨 다니며 학문을 강마(講磨)한 시기다. 갈암보다 8 년 연장인 존재는 갈암에게 더할 수 없는 스승이었고, 바로 다음 아우로서 갈암보다 4 년 연하인 항재는 또한 더할 수 없는 학반(學伴)이었다. 존재와 항재는 둘 다 학덕으로 명망이 높아 유일(遺逸)로 천거된 바 있다.

갈암은 기초 과정 수학 때부터 역학(易學), 특히 상수(象數)에 관심이 많았다. 이 시기에 들어와서도 26 세에 채원정(蔡元定)의 《율려신서(律呂新書)》를 고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해에 중형 존재와 함께 《홍범연의(洪範衍義)》편찬을 계획, 조목(條目)을 설정했다. 이는 갈암 형제의 경세 의지(經世意志)를 보여 주는 사실이며 그들의 상수학에의 관심과도 무관하지 않을 터다.

26 세에는 형 존재 및 아우 항재와 함께 퇴계(退溪)가 노닐던 청량산(淸涼山)에 노닐고, 27 세에는 회재(晦齋)를 봉향하는 옥산서원(玉山書院)을 봉심(奉審)하고 경주의 고적들을 유관(遊觀)하였다. 선현(先賢)과 민족사의 유적(遺跡)에의 체험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27 세에 부친 석계가 병자호란 이후 영해로부터 피지(避地)해 간 영해 서쪽 석보촌(石保村)으로부터 다시 더 깊은 산간지인 영양현(英陽縣) 수비(首比)로 피지해 가자 여기에 따라가 갈암초당(葛庵草堂)을 짓고 거주했다. 석계의 이 피지는 당시 효종의 북벌 계획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았던 것 같다. 갈암은 부친을 따라 심협(深峽)으로 피지는 했을망정 항청복명(抗淸復明)에의 의지는 강렬했다. 32 세에 홍정양간의유소후서(洪鄭兩諫議遺疏後敍)와 갈암기(葛庵記)를 써서 이러한 의지를 드러내 보이고, 38 세에는 팔진도(八陣圖)를 고구하고, 41 세에는 망명 길에 나섰다가 제주도에 표박한 명(明) 유민(遺民) 근 100 명을 조정이 연경(燕京)으로 압송하려 하자 동지들과 창의(倡義)하여 궐문(闕門)에 나아가 그들에 대한 보호조처를 호소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32 세에 존재, 항재와 함께 도산서원(陶山書院)에서의 《퇴계집(退溪集)》강회(講會)에 참석하여 도산 동주(陶山洞主) 김렴(金磏)의 청에 의하여 《퇴계집》을 강설하여 발명(發明)한 바가 많았다. 40 세에는 복제(服制) 시비에 관한 영남유소(嶺南儒疏)의 소본(疏本)인 변대왕대비위선왕복제소(辯大王大妃爲先王服制疏)를 지었다. 비록 택소(擇疏)는 되지 않았지만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가 찬탄한 명소(名疏)다. 41 세에는 당시 영남 사림을 주도하고 있던 선배격인 홍목재와 금옹(錦翁) 김학배(金學培)와 안동 금계의 경광서재(鏡光書齋)에서 회동했다. 이 시기 영남 사림에서의 갈암의 입지가 상승 일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38 세 무렵의 《주자대전(朱子大全)》의 탐독, 자기화(自己化)에 의한 학문 역량의 큰 진전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42 세에 어버이의 명으로 서울에서의 과거에 응시하고 귀로에 당시 경기 남인(京畿南人)의 원로인 용주(龍洲) 조경(趙絅)을 포천으로 방문하였다. 이것이 영남 남인 갈암이 경기 남인 사회에 무게 있게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이 해에 갈암은 당시의 심각한 민생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략(方略) 8 가지를 논의한 정설(政說)을 저술했다.

46 세에 중형 존재와 부인 박씨의 상(喪)을 당하고, 이듬해에는 김금옹을 곡(哭)하고, 그 이듬해에는 부친 석계의 상을 당하고, 또 홍목재를 곡했다. 홍목재와 김금옹의 사거(死去)는 영남 사림 내에서의 갈암의 입지를 강화시켜 그 구심점이 되게 했다.

셋째 시기는 51 세~62 세까지(1677~1688)다. 정치 현실에서의 자기 실현을 시험하면서 학문의 완성을 지향해 가던 시기다.

48 세 때 현종이 서거하고 숙종이 즉위하면서 일어난 이른바 갑인예송(甲寅禮訟)에 따른 서인(西人)·남인(南人) 사이의 정권 교체는 갈암으로 하여금 유일(遺逸)로 천거되게 했으나 거상중이었으므로 실효는 없었다. 그래서 본격적인 출사는 51 세에 명유(名儒)로 대접받아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로 초수(超授)되면서였다. 입도(入都)하자 경기 남인의 영도자 권대운(權大運)은 "그 사람됨이 옥 같다."고 칭찬하고, 허목(許穆)은 왕에게 "근일에 이현일을 보니 참 유자[眞儒者]이더이다. 역학(易學)에 더욱 조예가 깊다고 하니 장래의 경연(經筵)에는 이 사람이 없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라고 칭도했다. 그리고 갈암 자신도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되자, '정학(正學)을 밝혀 대본(大本)을 세울 것', '기강을 진작시켜 풍속을 숙정(肅正)할 것', '공도(公道)를 넓혀 왕법을 바로잡을 것', '충간(忠諫)을 받아들여 막혀 가려진 것을 제거할 것', '민정을 살펴서 실질적 혜택[實惠]을 베풀 것' 등 다섯 가지 일을 진언하며 의욕적이었다. 그러나 이 출사는 그의 도학자적 명절관(名節觀)이 좌절당하고 무연(憮然)한 변만 당하고 끝났다. 즉 경기 남인 내의 이옥(李沃)의 동생 이발(李浡)과 유명천(柳命天)과의 사이에 일어난, 서로 사사로운 비밀을 폭로하는 내홍(內鬨)에 대해 갈암이 사헌부 지평으로서, 그들의 작태가 사대부의 체통을 손상하고 진신(搢紳)의 큰 수치가 되는 일이라 비판하며 모두 사판(仕版)에서 삭제하기를 주장하다 공박을 받고 결과적으로 체직(遞職)되고 말았다.

벼슬에서 물러나 있으면서 53 세에《어제주수도설발휘(御製舟水圖說發揮)》를 편찬해 바쳤다. 숙종이 즉위 초에《예기(禮記)》에 나오는, 임금과 백성과의 관계를 물에 의해 뜨기도 하지만 물에 의해 뒤엎어지기도 하는 배와 그 물과의 관계로 비유한 것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설(說)을 지은 것에 대해 유관 자료를 동원하여 부연한 것이다. 갈암의 경세에의 소망을 징표해 주는 일의 일단이다.

54 세에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이 일어나 또 정권이 바뀌었다. 57 세에 응지 진언(應旨進言)이기는 하나 집권 세력의 적대(敵對) 인사로서 초야에 있으면서 당시 집권 세력의 부조리를 대담하게 비판하자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호역죄(護逆罪)로 논하기를 청하기까지 했다. 갈암의, 위무(威武)에 굴하지 않는 도학자로서의 드높은 자기 긍지(自己矜持)에 찬 주체성의 발현이다.

60 세에《홍범연의》가 완성되었다. 62 세에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의 내방을 받았다. 그리고 이 해에 유명한 율곡이씨논사단칠정서변(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을 발표했다.

넷째 시기는 63 세~67 세까지(1689~1693)의 5 년간으로서 갈암 생애에 있어 대전환의 시기다. 즉 기사환국(己巳換局)으로 그가 남인 정권의 산림(山林)으로 징소(徵召)되어 경세의 포부를 펼치고자 진력한 시기이다. 그가 산림으로 징소된 것은 당시 영남 사림의 영수(領袖)였던 그가 허목・윤휴(尹鑴) 사거(死去) 이후 그 지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63 세인 숙종 15 년 2 월에 성균관 사업(成均館司業)에 단망(單望)으로 제수되어 그 해에 사헌부 장령, 이조 참의, 성균관 좨주(成均館祭酒), 예조 참판, 사헌부 대사헌으로 괘속 승진한 뒤 이듬해 64 세에 이조 참판, 그리고 67 세에 이조 판서에 올랐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인 순조로움과 영광의 이면에는 고민과 갈등이 적지 않았다. 64 세에 진대본급무소(陳大本急務疏), 65 세에 진군덕시무육조소(進君德時務六條疏), 67 세에 논진덕정속육재차(論進德正俗育才箚) 등과 같은 경세 방략(經世方略)을 체계적으로 피력한 무게 있는 소차(疏箚)를 위시하여 그때 그때마다 소차를 올리고 경연을 통해 건의를 했으나 실효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래서 입조(入朝)와 환향(還鄕)을 되풀이해 마지않았다. 여기에는 숙종의 표면적으로 융숭한 예우와는 다른 성의 부족, 집권 경기 남인들의 갈암에 대한 존봉(尊奉)의 이면에 움직이고 있는, 실권으로부터의 배제 책략이 그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런 중에 갈암은 64 세에 유형원(柳馨遠)의《반계수록(磻溪隨錄)》의 서문을 써서 이 책이 가진 가치와 의의를 극구 칭양하고, 작자 반계가 그 경세 방략을 펴볼 기회도 가져 보지 못한 채 죽은 것을 몹시 애석해 했다.

다섯째 시기는 68 세~78 세까지(1694~1704)로 유배・강학・논변(論辯)・저술의 시기다.

68 세인 숙종 20 년 4 월에 갑술환국(甲戌換局)이 일어나자 그 즉시 사헌부의 계청에 의해 갈암은 함경도의 홍원(洪原)으로 유배되었다가, 5 월에 서울로 되잡혀 와서 신문을 받고 난 뒤 종성(鍾城)으로 이배(移配)되어 위리안치(圍籬安置)되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숙종 15 년 재이(災異)로 인한 구언(求言)에 응한 상소에서 당시 폐비(廢妃)되어 사가(私家)에 내쳐져 있는 인현왕후(仁顯王后)를 별궁(別宮)에 거처케 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문(疏文)에 있는 몇 구절이 이 때에 와서 인현왕후를 모해(謀害)하고자 한 것이라고 꼬투리 잡혀 마침내 '명의죄인(名義罪人)'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이다. 상소 당시 숙종이 폐비를 두호(斗護)하는 어떠한 언론도 역률로 다스리겠다고 천명해 놓은 삼엄한 분위기였는데도 갈암이 과감하게 온당한 대우를 하도록 호소했던 것이다.

종성에서 3 년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그 곳 학자들과 도학서(道學書)를 강하는 한편으로 69 세에《수주관규록(愁州管窺錄)》, 70 세에 독김천휴논이대유이기성정도설변(讀金天休論李大柔理氣性情圖說辨), 71 세에《돈전최어(惇典粹語)》, 권학사사범의의(權學士士範疑義) 등을 편술하였다. 특히《수주관규록》은 주로 선배들의 도학에 관한 견해들의 문제점을 비판한 것으로 갈암 학문의 원숙한 경지를 보여 주고 있다.

71 세 때는 5 월에 호남의 광양(光陽)으로 이배되었다가, 72 세 때 3 월에 섬진강(蟾津江) 갈은리(葛隱里)로 옮겨가 있던 중 아우 항재 이숭일의 부음을 받았다. 73 세 2 월에 방귀전리(放歸田里)의 명이 있어 드디어 섬진강을 건너 진주 지경의 악양동(岳陽洞)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대계(臺啓)가 방귀전리의 명을 환수(還收)할 것을 청하였다. 74 세 2 월에 대계가 완전 정지되어 3 월 고향에 돌아오는 길에 함안・밀양의 종인(宗人)들과 회합하고 선산에 성묘한 뒤 4 월에 안동 임하현의 금소역(琴詔驛)에 우거하게 되었다. 75 세 5 월에 완전 석방〔全釋〕의 명이 있었으나 대간(臺諫)의 계청으로 환수되고, 심지어는 극변(極邊)의 위리안치가 계청되기도 하다가 76 세 3 월에 비로소 계청이 정지되었다.

이렇게 이배(移配)와 대명(待命)의 불안한 상황 속에 이곳 저곳 옮겨 거주 하면서도 갈암은 학문 논변을 마지않았다. 그래서 진주 지경에 있던 73 세에 율곡의 사칠이기설(四七理氣說)에 승복하고 있었던 신익황(申益愰)과의 논변이 시작되어 두어 해 동안 지속됐고, 안동의 금소역에 정착한 뒤인 75 세에는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과 사칠이기에 대한 약간의 견해차로 두어 해 동안을 논변했다. 그리고 74 세 가을에는 고산(孤山) 이유장(李惟樟)의 내방을 받았다.

특히 금소에 정착한 이후로는 후학들과의 강학에 더욱 주력하고,《서애선생연보(西厓先生年譜)》의 산정(刪定),《퇴도선생언행통록(退陶先生言行通錄)》을 편찬하기 위한 그 편목(篇目)의 설정,《존주록(尊周錄)》의 편성에 힘을 써서 유림(儒林)의 중요 문헌을 정비했다. 어쩌면 자신의 죽음이 임박해 옴을 예감하고서 한 일일 법도 하다.

운명하기 두어 달쯤 앞서 갈암은 거처의 벽에다 다음과 같은 시 한 수를 썼다. "덧없는 인간 세상, 어느덧 팔십 년이 흘렀네. 평생토록 한 일이 무엇이더냐, 하늘에 부끄럽지 않고자 하였을 뿐.〔草草人間世 居然八十年 生平何所事 要不愧皇天〕"

사후에도 전석(全釋)・복관(復官)의 명이 몇 차례 번복되다가 융희 2 년(1908)에야 관작이 회복되고 시호가 내려졌다.

2) 학파적 위치

식산(息山) 이만부(李萬敷)는 갈암의 영남 유림 내 지위가 성장할 즈음의 퇴계학파의 내부 분파를 다음과 같이 기록한 적이 있다.

지금 강우(江右) 상류 지역의 논의는 서애(西厓)를 받들어 우복(愚伏)에게 미치고, 성주 이하 지역의 논의는 한강(寒岡)을 받들어 여헌(旅軒)에게 미치고 있다. 안동 일대는 서애와 학봉(鶴峯)을 아울러 칭도하나 예안 사림은 월천(月川) 조목(趙穆)을 가장 높인다.〈퇴도연원필첩발(退陶淵源筆帖跋)〉

식산의 이 기록에 의하면 남명학파(南冥學派)가 해체된 뒤의 17 세기 영남학파는 안동・상주의 서애 계열, 성주 이하의 한강 계열, 안동의 학봉 계열, 그리고 예안의 월천 계열로 압축된다. 갈암은 이 네 계열 중 학봉 계열에 속하고, 따라서 갈암의 학통(學統)이 '퇴계 이황 - 학봉 김성일 - 경당 장흥효 - (석계 이시명) - 갈암 이현일'로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갈암의 학파적 위치는 이 학봉 학통에 한정되어 파악될 수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학통'과 '학파'의 개념을 분명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학파는 다른 학문적 집단과의 횡적 관계에서 학문적 성향의 변별성에 의해 규정되는 개념이고, 학통은 다른 학문적 개체와의 종적 관계에서 학문적 성향의 공질성(共質性)에 의해 규정되는 개념이다. 이 논리에 입각하면 위의 네 계열은 어디까지나 통틀어 퇴계학파이고, 이 학파 안의 네 개의 학통일 뿐이라는 말이다. 퇴계의 학문・사상의 계

승에 있어 위의 네 학통들 사이에는 서로를 하나의 학파로 변별시켜 줄 만큼 학문적으로 일정하게 배타적인 고유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요컨대 갈암의 학파적 위치는 학봉 학통적 위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통을 초월하는 위상에 놓여 있다는 말이다. 그것은 다음 두 가지 점에서다.

첫째, 갈암은 퇴계 이후 퇴계의 학문・사상을 적극적으로 계승하여 정련(精鍊)하고 발전시켜 같은 학파 선배들이 일찍이 이룩하지 못한 업적을 이룩한 최초의 학자라는 점이다. 사실 갈암이 출현하기 이전과 이후 퇴계학파의 학파적 실질에 있어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학문적 생산성과 학파적 정체성에 있어 이전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면 갈암은 매우 적극적이었다. 사실 퇴계학파는 갈암의 업적과 활동에 힘입어 그 학파적 고유성이 확고하게 수립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물론 그가 퇴계의 주리론(主理論)을 역시 퇴계의 이기호발(理氣互發)과 사칠분대(四七分對)의 논리틀에 입각하여 그 강화의 명제(命題)를 철저히 관철시킨 결과에 주로 의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퇴계 계승의 업적은 심성론에만 그치지 않는다. 그의 경세의 비전도 변화된 시대 여건에 대응한, 퇴계의 그것으로부터의 연변(演變)・발전의 형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퇴계학파 내에서의 그의 인적(人的) 관계의 총회성(總會性)이다. 퇴계학파도 그 제 1 대 제자들 사이에 이미 간극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지만 그 재전・삼전 제자 세대로 내려가면서 분화가 보다 확실해지고 계파간의 우위(優位) 경쟁도 진행되어 갔다. 그래서 갈암의 시대에 이르러 이미 후일 병호시비(屛虎是非)로 발전될 조짐이 잉태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암은 계파를 넘어 학파의 사림(士林)을 광범위하게 결집(結集)하여 학파의 구심점이 되고 영수(領袖)로 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그의 외조 장경당이 학봉뿐 아니라 서애・한강과도 일정한 사제 관계였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이 없지는 않았으나, 앞에서 본 한강・여헌 계열의 김응조, 서애 계열의 홍여하 등과의 관계를 미루어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역시 그 자신의 역량에 의해서다.

그의 이 학파적 위치의 성립에는 그 자신의 문도 또한 340 여 명의 성세(盛勢)였다는 사실도 물론 무관할 수 없다.

퇴계학파 = 영남학파에서의 갈암의 학파적 위치의 이러한 성취는 마침내 학봉 학통이 학파의 주류의 위상을 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퇴계 = 영남학파는 학통들의 경쟁적 공존에 의한 다양태(多樣態)의 발전보다는 주리사유(主理思惟)의 정밀화와 그 신념의 관철 과정을 역사 위에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갈암에 의한 퇴계학파의 학파적 고유성의 확고화는 한편으로는 퇴계의, 학문・사상사적 위상의 상대화(相對化)라는 역작용을 낳았다. 여기에는 물론 학문외적이지만 학문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었던 당쟁의 작용이 적지 않았지만, 퇴계학파로서는 실(失)이 아닐 수 없다.

아울러 언급할 것은 갈암이 속한 학통의 전개에 있어서 중요하게 유의되어야 할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다. 앞의 그의 생평에서 이미 언급된 바 있는 그의 중형인 존재 이휘일과 모부인인 장씨 부인이 그들이다. 사실 갈암의 학문의 생육(生育)은 존재라는 요람, 그리고 장씨 부인이라는 잠재 태반(潛在胎盤)이 있고서야 그렇게 출중할 수 있었다. 물론 장씨 부인의 경우 현재적(顯在的)인 지적(知的) 활동을 통해 갈암에게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지적으로 일정한 온축이 있었을 뿐 아니라 그 부친 경당을 통해 퇴계의 심학(心學)을 체득하였던 터여서 갈암의 퇴계학 계승에 유력한 매개로 작용했던 것은 의심없는 사실이다.

3. 갈암집 성립의 역사 공간(歷史空間)과 그 내용 성향

인간의 사위(事爲)치고 역사의 제약(制約)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어디에 있을까마는 특히 언어 행위(言語行爲)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물은 그 제약을 받는 정도가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물이 성립되어 나온 역사 공간의 정황과의 조응(照應)에서야 그 저작물은 자기 속을 보다 밝게 드러내 보인다. 특히 행간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간취(看取)하고자 할 때에 이 조응은 가위 필수적이다.

《갈암집》이 성립되어 나온 역사 공간, 즉 갈암이 재세했던 17 세기 역사 공간은 임진・병자 양란 이후 왕조의 중세적(中世的) 체제 전반이 동요・이완(弛緩)되어 가는 추세와 이 추세를 거슬러 체제를 다시 안정・수렴(收斂)시키고자 하는 작위(作爲), 즉 변화와 지속의 두 지향이 서로 역방향을 취해 길항(拮抗)하는 모순의 공간이었다. 좀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루어져 지속되던 것이 갖기 마련인 관성(慣性)에다 안정・수렴을 위한 작위의 힘이 보태져 변화의 힘보다는 아직은 지속의 힘이 더 도도한 그러한 길항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갈암집》의 내용 및 그 성향도 대체로 여기에 대응되고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변화와 지속의 두 지향에 대해 가치론적인 속단을 개입시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변화라고 해서 모두가 다 그대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며, 지속이라고 해서 모두 다 역리(逆理)는 아니기 때문이다.

갈암은 일차적으로는 도학자다. 그러므로 그의 문집 내용 중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분은 역시 도학 관련 문자일 수밖에 없다. 특히 퇴계의 주리적(主理的) 사단칠정(四端七情)・이기(理氣)・인심도심(人心道心)에 관한 이론을 퇴계의 논리틀에 입각하여 강화・심화시킨 것이《갈암집》의 핵심적 내용 및 성향이다. 그의 주리 논리는 도학적 문제에 관한 직접적 내용에 대해서만 운용되는 데에 그치지 않는다. 예학(禮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사회 등에 관한 문제의 논의에서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의 원리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퇴계의 주리론에 이미 그러한 성향이 함축되어 있었거니와 이(理)의 능동성이 강화된 갈암에게서의 주리론은 세계에 대한 인식 논리(認識論理)로서의 성격이 더욱 감퇴(減退)되는 반면에 세계에 대응하는 신념 논리(信念論理)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 즉 천리(天理)라는 도덕 원리의, 무위 정적(無爲靜寂)한 초월적 임재(臨在)보다는 즉현실적(卽現實的) 유위 능동력(有爲能動力)에 대한 신념이다.

그러니까 갈암은 당시 체제의 동요・이완 현상, 그리고 이러한 현상의 근원의 성격을 갖는, 호청(胡淸)의 군림과 그 아래에서의 지배계급 내부의 쟁투・부조리 등의 역사 상황을 원천적으로 도덕 원리의 무력화로 인한 소치로 인식하고, 이(理) 능동성 강화에 기초하여 현실에서의 도덕 원리의 유위적 작동(有爲的作動)을 진작(振作)시킴으로써 당시의 역사 상황에 대응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신념은 자연히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이 이를 무력한 피동적(被動的) 존재로 인식케 하여 도덕 원리의 무력화를 조장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배척하게 된 것이다.

이런 점에서 문헌으로서의《갈암집》의 최대 특성은 퇴계 주리론의 17 세기 상황적 체질 강화의 구현장(具現場)이라고 할 수 있다.

갈암은 도학자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못지않는 비중으로 경세가(經世家)로서의 정체성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갈암집》의 내용 중에는 소(疏)・차(箚)・경연강의(經筵講義)・설(說) 등의 형식을 통해 경세 방략・시무책(時務策) 등을 피력(披瀝)해 놓은 것이 많다.

경세가로서의 갈암은 분명히 도학적 경세가다. 그래서 그의 경세론 중에는 인주 일심(人主一心)이 만화(萬化)의 근원이라는 등 전통적인 도학적 경세 논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통적인 도학적 경세 논리의 중심 주제인 도덕적 이상주의의 실현 비전이 보다 더 즉현실화(卽現實化)의 지평(地平)으로 나아간 자취가 뚜렷하다. 주리론이 비현실적 성향을 갖는다는 종래의 통념 - 이 통념은 주로 속류(俗類) 유물론(唯物論)에 바탕하여 형성된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 과는 다르다.

그의 경세론의 이러한 성향은 그가 42 세경, 당시 심각한 민생고를 목격하고 그 해결 방략을 제시한 정설(政說)에 특히 선명하게 표출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8 가지 방략〔治道八事〕중 3 가지만 남아 전하지

만, 사창제(社倉制) 강화를 주내용으로 한 실혜론(實惠論), 전부부정(田賦不正)을 해결하기 위한 균전론(均田論), 군제(軍制)의 불합리를 개혁하기 위한 군제론을 통해 보건대 그의 경세론의 즉현실적 지평의 최선단(最先端)은 바로 실학파의 경세치용계(經世致用系)의 그것이다. 그의 이 경세론이 유형원의《반계수록》과 같은 시기에 제시된 점을 우리는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란(胡亂)을 당한 지 오래지 않은 시기라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갈암이 그의 경세관에서 무(武)를 문(文)과 대등하게 인식하고, 그 시무책에서는 국방 문제에 매우 중점을 두고 있는 점도 이 즉현실성의 발현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리고 소・차 중에 피력된 경세의 방략 또는 방안 가운데에는 외양(外樣)으로는 도학적 입장의 일반적 논리를 보이지만 당시의 현실 문맥(現實文脈)이 행간에 은장(隱藏)되어 있는 경우 또한 적지 않다. 이를테면 공도(公道)를 넓혀 왕법(王法)을 바로 세우라는 명제 같은 경우 도학 경세의 일반론이면서 실은 당시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매우 강한 현실성을 함축하고 있다. 즉 경화(京華)의 훈척(勳戚)・벌열(閥閱)의 농단(壟斷)으로 권력 체제의 변방으로 밀려나 있었던 정치 세력들의 입장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갈암집》의 내용 및 그 성향을 제약한, 17 세기 역사 상황의 보다 구체적 국면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전시켜 보자.

이 시대를 가장 무겁게 제약한 모순은 남한산성의 치욕 및 청(淸)과의 은비(隱祕) 속의 잠재적, 그리고 힘겨운 대치(對峙)일 터다. 이 '대치'는 물론 다분히 우리 민족만의 주관 의식, 주관 자세에서의 상황이다. 앞의 갈암의 생평에서 이미 드러난 바이지만 갈암의 의식에도 항청복명(抗淸復明)이 무겁게 과제화(課題化)되어 일생 동안 제약을 가했다. 그의 유년기의 항청복명 포부와 작고하기 1 년 전의《존주록(尊周錄)》편차를 연결해 보면 그의 문집의 성립에 일관되게 가해진 중요한 제약의 하나가 무엇이었던가가 자명해진다. 여기에다 아호의 '갈(葛)' 자에 '흥복한실(興復漢室)'을 도모한 제갈량(諸葛亮)을 함축해 넣고, 해배(解配)되어 돌아온 그에게 일가들이 베푼 위로연 석상에서 출사표(出師表)를 노래한 사실을 고려하면 항청복명에 대한 그의 생애의 집념의 정도를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무(武)와 군략(軍略) 문제에 열성적이었던 것도 모두 이 집념의 표출이다.

그의 북벌론(北伐論)은 청 나라 내부 사정을 지나치게 자가(自家) 희망적으로 이해하는 면은 있으나, 어떠한 정략성(政略性)이 없음은 분명하다. 사실 갈암은 북벌론을 정략화할 수 있는 정치적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 요컨대 자신이 인간의 보편가치로 믿는 의리(義理)에 대한 강한 신념이 그 기본 동기다. 이런 점에서 그의 북벌론은 그의 주리론 강화의 명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다음으로는 당쟁(黨爭) 모순이다. 이 점 역시 그의 생평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의 문집의 성립에 가해진 비중 있는 제약 조건의 하나다. 무엇보다 그 자신의 드높은 영광도, 참담한 치욕도 모두 당쟁에 관련되어 있지 않았던가. 그 시대 많은 지식인들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그런데 당쟁 당사자들의 의식에는 대개는 당쟁이 당쟁으로서가 아니라 선(善)・의(義)・군자(君子)의 악(惡)・불의(不義)・소인(小人)에 대한 투쟁으로 의식되었으므로, 문집과 같은, 주로 자기의 주관적 생각이 표출되는 저작의 내용 성향이 자연히 그런 방향에서 제약됨은 말할 것도 없다. 갈암의 경우도 물론 여기에서 예외는 아니다. 그의 유명한 율곡이씨논사단칠정서변(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은 자신의 주관 의식에서는 물론 진리・진실의 천명이다. 그러나 당시의 당쟁적 여건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사칠・이기 문제에 대한 그의 논의 곳곳에는 실은 이미 이데올로기 투쟁적 성향이 농후하게 발현되어 있다.

앞의 그의 생평에서 논급한 바 있지만 당쟁 모순과 관련하여 그의 문집에 은미(隱微)하거나 우회적인 통로로써나 무시할 수 없는 영향을 가한 것은 경기 남인과 그와의 정치적 관계다. 첫 출사(出仕) 때에 같은 당인(黨人)들의 비열성(鄙劣性)에 분개했다가 그의 순직성(純直性)만 상처받고, 두번째 출사에서는 그

를 산림(山林)으로 앉힘으로써 영남 남인을 정치적 지원세력으로 이끌어들이면서 정작 정치 실권으로부터는 그를 따돌리려는,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 등의 경기 남인들과 갈등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 관계의 내면 실상이다. 그의 선거제(選擧制) 개혁, 향약(鄕約) 실천 등의 경세 방략이 좌절된 것도 경기 남인들의 다분히 의도적인 무성의 내지는 저지 때문인 듯하다.

다음으로는 명분론(名分論)의 날로 더해 가는 발달이다. 명분론은 원래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의 사회적 조직이 요구하는 질서 부지(扶持)의 근거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성을 압제(壓制)하는 데 이르면 질서 혼란이라는 모순에 대응하기 위한 논리로서의 명분론이 도리어 새로운 모순으로 전이(轉移)된다. 17 세기 역사 공간에는 이러한 추세가 강하게 흐르고 있었다. 주로 임진・병자 양란 이후 신분제의 동요・이완과 여기에 추동(推動)된 체제 전반의 동요・이완 조짐에 지배층적 입장에서 대응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것이다.

이 명분론 발달의 실체적 구현이 바로 이 시기 예학(禮學)・예설(禮說)의 호한(浩瀚)한 산출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 시기에 이르러서의 도학의 이데올로기적 공고화(鞏固化) 과정의 한 표현에 다름 아니다. 갈암의 문집에도 적잖이 들어 있는 예학 관련 논의들도 역사적 입장에서는 일단은 이러한 시각으로써의 이해 대상이다.

그러나 시각을 달리해서 관조(觀照)해 보면 인간 삶의 존재론적(存在論的) 내포(內包)의 풍부화 추구라는 적극적 의의가 인정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인간의 사위(事爲)를 보다 명료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 시각(視角)을 유효하게 운용할 것이 요구되나 끝내 여기서만 머물면 사위의 역사성의 궁극에 담겨 있는 천인지제(天人之際)의 이치를 놓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역사적 시각으로서의 이해를 넘어 있는 지평을 전망하고자 하는 시각이 필요한 것은 《갈암집》의 내용에서 비단 이 예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4. 갈암집의 내용

책의 첫 부분에 있는 205 수의 시(詩)는 형제・지구(知舊)・문인(門人)들과의 창수(唱酬), 기행・영회(詠懷)의 작품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전반적으로 관념적 진술성(陳述性)이 농후하다.

소・차・헌의(獻議) 등이 138 편이나 되는데, 정치・사회・경제・국방・외교・예제(禮制) 등 치국(治國)에 관련되는 문제 전반에 두루 걸쳐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의논대왕대비복제소(擬論大王大妃服制疏)는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제에 관한 송시열(宋時烈)의 예설뿐 아니라 윤휴(尹鑴)・윤선도(尹善道) 같은 남인 예설의 미흡한 곳까지 비판한, 영남 유소(領南儒疏)의 소본(疏本)의 하나로 지어진 것이다. 사면지평겸진오조소(辭免持平兼陳五條疏)는 첫 출사 때 올린 것으로 그 5 조의 면목은 앞의 그의 생평에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사공조참의잉진소회소(辭工曹參議仍陳所懷疏)와 인재이언사소(因災異言事疏)는 폐출되어 있는 인현왕후(仁顯王后)의 보호를 호소한 소다. 후자에 들어 있는 "폐비 민씨가 후비의 법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스스로 하늘〔남편〕에게서 끊어졌다.〔廢妃閔氏 不循壺儀 自絶于天〕", "방위를 베풀어 금호(禁護)를 삼가히 해야 한다.〔爲設防衛 謹其糾禁〕"는 구절들이 갑술환국 직후 민비를 모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되어 명의죄인(名義罪人)으로 낙인찍혀 9 년의 유배 생활을 하고, 사후 200 여 년 동안 복관(復官)과 이의 환수를 4 ・ 5 차례나 되풀이하는 수난을 겪었다. 진군덕시무육조소(進君德時務六條疏)는 임금이 힘쓸 진덕(進德)・입지(立志)・통변(通變)・택임(擇任)・육재(育材)・석시(惜時) 등 6 가지 일을 진달한 것이다. 경연강의(經筵講義)에서는 주로 《주역(周易)》・《대학연의(大學衍義)》등이 강의되었다.

문집 중 분량이 특히 많은 360 여 편의 서(書)는 150 인 가량의 사우(師友)・문인(門人)・자손들에게 준 편지로, 예설(禮說)・심성설(心性說)・시사(時事)・사사(私事) 등이 주내용을 이루고 있다. 권두경(權斗經)・황수일(黃壽一)・정만양(鄭萬陽) 등과 왕복한 예설, 정시한(丁時翰)・이동완(李東完)・신익황(申益愰)・아우 이숭일(李崇逸) 등과 왕복한 심성설이 특히 두드러진다.

잡저(雜著) 중의 율곡이씨논사단칠정서변(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은 서인(西人) 집권하의 62 세 때 저술한 것으로, 율곡이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사단 칠정 문제에 대해 왕복한 서간의 내용 중 19 조목을 뽑아 내어 비판한 것이 그 내용이다. 본문에 앞서 후생 율곡이 선배 퇴계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비판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고, 율곡의 설이 기호 지방에 성행하는 것이 우려되어 저술한다는 동기가 서술되어 있다.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칠정사단설(七情四端說) 등을 반박하고, 퇴계의 이기호발설을 지지하면서 이유동정설(理有動靜說)・이기이물설(理氣二物說)을 주장한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다.

《수주관규록(愁州管窺錄)》은 69 세 때 유배지 종성에서 저작한 것으로 장여헌・유서애・조남명 등 우리나라 선배 학자 6 인의 도학설의 불합당한 곳, 신안 진씨(新安陳氏)・경재 호씨(敬齋胡氏) 등 중국 학자 6 인의 주자(朱子)와의 차이점에 대해 비판한 것이 그 내용이다. 둔암유공수록서(遁庵柳公隨錄序)는 유형원의 《반계수록(磻溪隨錄)》의 서문으로 유형원의 '경세유용지학(經世有用之學)'에 대해 찬탄하고 이러한 경세 방략을 품고 있었던 유형원이 세상에 쓰이지 못한 채 죽은 데 대해 애석해한 것이 그 내용이다. 별집(別集)의 정설(政說)에 대해서는 위에서 논급한 바와 같다.

부록에는 갈암의 연보, 행장, 가전(家傳), 제문, 만장(輓章)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 국역서에 추가된 속집(續集)과 《계축추보(癸丑追補)》는 갈암의 저작과 부록에 들어갈 글들로서 중간본에 빠진 것들을 모은 것이다. 그리고 《성유록(聖諭錄)》은 갈암의 소・차・계(啓)에 대한 숙종의 비답(批答)・전지(傳旨) 등을 모은 것이고, 《기갑신계록(己甲辛癸錄)》은 일명 《백의편(白衣篇)》으로, 기사환국 이후 갈암이 올린 문제의 인현왕후 보호 건의소로부터 갑술환국 이후 1723 년경까지 갈암의 신원(伸寃) 운동에 관한 기록을 모은 것이다.

5. 맺음말

《갈암집》은 특히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그 첫째는, 퇴계에서부터 한주(寒洲) 이진상(李震相)에 이르는 퇴계 - 영남 주리론의 발전 과정의 중요한 단계로서 17 세기 영남 주리론의 진경(進境)이 집약되어 있는 저작이다. 특히 기호 지방 율곡학파의 이 시기 학설의 전개와의 대응에서 그 사상사적 의의가 더욱 제고(提高)된다.

둘째는, 갈암의 주리론은 17 세기적 역사 상황의 산물이다. 《갈암집》은 바로 이 주리론으로서의 상황에의 대응 논리가 피력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그의 경세 방략과 시무책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갈암집》은 이 17 세기 영남 도학파의 경세론이 그 시기에 출현하기 시작하는 실학파의 경세론과 어떤 관계에 서며 어떤 의의를 갖는가가 탐색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가진 최상의 문헌이다.

신 판교(申判校) 홍망(弘望) 에 대한 만사

15 世 홍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東南人物眇然時。將曉稀星又見移。大令已聞於祖厚。家君每語卽公推。摳趨猥荷溫言辱。灑掃常嗟供役遲。賤跡窮山會愁疾。不堪孤負送靈輀。

동남방의 인물이 묘연해지는 이 즈음 / 東南人物眇然時
새벽이 오매 드문 별이 또 스러져 가다니 / 將曉稀星又見移
대령께선 우리 조부와 교분 두텁다 들었고 / 大令已聞於祖厚
가군께선 언제나 말씀에 공을 치켜세우셨지 / 家君每語卽公推
문하에 나아갔을 제 온화한 말씀 주셨나니 / 摳趨猥荷溫言辱
빨리 곁에서 모시지 못하여 늘 탄식하였지 / 灑掃常嗟供役遲
비천한 몸 외진 산에서 마침 병을 앓느라 / 賤跡窮山會愁疾
상여도 전송하지 못해 슬픔을 견디지 못하오 / 不堪孤負送靈輀

於壬辰兵火。雖此一律尚幸在皇華集中云。

挽申判校 弘望

東南人物眇然時。將曉稀星又見移。大令已聞於祖厚。家君每語卽公推。摳趨猥荷溫言辱。灑掃常嗟供役遲。賤跡窮山會愁疾。不堪孤負送靈輀。

挽琴仲素 以晳

溪門稱說日休堂。嗣德從來有耿光。劇炙元因精義理。操戈豈爲摘篇章。先兄這裏留心久。要子同歸屬意長。今夏去春底運氣。不堪周道日蕪荒。

敬次金別座丈 煃 盆竹盆梅韻

葛庵先生文集卷一 一四

平生戀墨本。遠憶瀟湘濛。坐對青青色。居然萬里心。

右盆竹

簑封一撮土。春入臘前英。猶帶商王朔。那知世有清。

右盆梅

正月六日。携諸盆上石門亭。

斗絕人寰萬丈餘。飛梯直上意茫如。雲峯危聳堪巢鶴。氷水空明可數魚。人道仙舟携郭泰。吾思石室點朱書。經行底處非遺躅。壁立依俙見啓居。

挽金天休學培 ○二首

冥行半世路遙遙。日暮津頭我友招。吾陋猥當山石

제24권 / 묘갈(墓碣)

통훈대부(通訓大夫) 행 사헌부 장령(行司憲府掌令) 신공(申公) 묘갈명

13世 열도(悅道) 父 : 흘(仡)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난재공파(鸞齋公派)

懶齋申公旣沒三十有一年。公之孫斗錫以公家狀來。請銘於玄逸曰。大王父德善行誼。誠有所不可泯滅者。而遭家不幸。諸父皆早世。至今墓道未克表。恐遂沈泯。無以表見於世。謹具數尺碣。將欲琢辭以覺于後。而世已下。未有所屬筆。念吾子之先大夫與吾大王父好也。必能道吾祖事。子其以所聞爲我書之。玄逸以賤弊不文辭。申君去所固請。言訖又拜。玄逸惟先君子舊遊於公。每歎公孝行之懿。玄逸之不肖又嘗獲拜公於襄陽郡廨。承顧語之款甚厚。義不可以終辭。輒論次其事如左方。謹按申氏本鵝洲人。其上世有諱允濡。爲高麗版圖判書。自是世有聞人。曾祖諱壽。隱不仕。祖諱元祿贈戶曹參議。以孝聞。命旌其閭。考諱仡。贈承政院左承旨。娶順天朴氏。以萬曆己丑十一月某日生公。公諱悅道。字晉甫。幼端潔謹愼。爲一時先輩所器重。年十餘歲。通經史百家書。嘗遊旅軒張先生門下。得聞有君子爲己之學。丙午。補國子上庠。遊泮中。爲儕輩所推。甲寅夏。疊丁內外艱。凡喪制一遵文公家禮。天啓甲子。始脫褐衣。權知承文副正字。丙寅。例陞典籍。兼史館職。丁卯。有寇難。扈駕入江都。崔公晛按節關東。請公爲從事。兵罷還朝。崇禎戊辰春。拜刑曹佐郎。俄充聖節使書狀官。十一月。至皇都行賀禮畢。主客郎中喻以袁軍門見疑本國有所觀望。將奏請移路。公呈書禮部。辨對詳懇。事遂寢。明年四月。復命。是行。以誕皇子詔勑順齎以還。爲臺諫所劾。由禮刑戶三曹佐郎。爲騎省郎官。兼史館職如故。庚午冬。兼知製敎。辛未。復爲騎曹郎。壬申。轉儀曹郎。俄出爲鏡城判官。政多仁恕。吏悅民懷。癸酉秋。以疾去官。丙子夏。拜成均直講。不赴。秋。由騎省郎。爲司諫院正言。尋遞職。是冬亂作。公又扈駕南漢。及大駕出城。公還鄕里。戊寅春。拜蔚珍縣令。上疏陳本邑民弊。又以多難興邦燕昭越句踐之事。三致意焉。上皆嘉納之。故判書金公世濂謂人曰。此山城後第一議論也。立南格庵師古祠。祭孝子朱景顔墓。境內有慈孝貞烈之行者。皆存問優恤。擇邑中秀子弟。勸飭指誨。皆有所成就。又行鄕約禮。有意導民善俗。邑民順賴。及歸。伐石鐫其德。乙酉。拜工曹正郎。冬改兵曹正郎。屬有二子喪。呈告還鄕。丁亥秋。以掌令徵。上疏論加意本原。天地交泰之義。上優批答之。冬。遞付西樞。後再任掌憲。旣遞拜司導正。己丑夏。出守醴泉郡。革弊蘇殘。惟恐不及。應旨陳疏言寬民力減兵籍。追古哲王宮府一體之意。又請以李文純公所進宣廟聖學十圖作屛障。以爲宥坐之具。庚寅冬。忤觀察使。卽以病辭免。壬辰秋。又拜掌令。謝恩訖。入對極言時政得失。俄遞職。冬。拜綾州牧使。役均稅節。民以稱便。未幾。爲不悅者所劾罷。丙申春。拜司導宗簿正。皆不就。自是不復有意當世。杜門養痾者數年。春秋七十一。以己亥四月十九日。疾終于家。訃聞。上命本道致賻。以是年八月壬子。葬于義城縣南飛亭丁向之原。公娶聞韶金氏。贈吏曹判書諡文忠公諱誠一之孫。從仕郎諱浤之女。夫人固前習於典訓。及歸事君子。柔嘉貞淑。得婦道甚。先公三

十年卒。葬縣南五土山庚向之原。有子男五人女二人。男長墍。次圾，堪，塼，墎。墍，堪皆先公卒。圾亦早卒。女適士人金宗源，進士權霆。墍無后。圾生三男五女。男長應錫。次興錫，恒錫。女適士人鄭惟興，曹壽昌，金命賢，進士李圭。季幼。堪有二男一女。男長仁錫。次義錫。女適士人張宇樞。塼生四男三女。男長斗錫。餘皆幼。墎生四男一女。男長徽錫。次徵錫。餘皆幼。公有餘子二人。曰增，曰壁。各有男女。內外孫曾凡四十餘人。公性至孝。在親側。常嬨色婉容。務悅親心。其有疾病。飮食進減。衣牖浣濯。皆親執不假之人。及喪。泣血三年。廬墓以終制。奉先致其誠。事兄姊。如事其父母。賙給親戚之孤貧不能自振者。無所愛其力。治家嚴整。內外斬斬。教子孫尤力。反復曉告以義利取舍之分。凡有論議。虛心咨訪。不間微賤。蓋其行事之見於朝廷。施於州郡者。已自較著。而其私行纖悉又如此。公篤好書史。尤喜讀朱子書。雖朱墨倥傯中。未嘗一日去手不觀。爲文不事雕琢。而溫雅典裁。類其爲人。有遺文如干卷藏于家。嗚呼。是皆可銘也已。銘曰。

嗚呼惟公。知行之元。旣孝且友。載實而完。策名公朝。自家移國。執簡分符。而職其職。皐比早歲。爰得依歸。敷文帝庭，轉斡事機。貞玉無瑕。孰公敢誚。我銘其墓。惟後之詔。

나재(懶齋) 신공(申公)이 세상을 떠난 지 31 년째 되던 해에 공의 손자 두석(斗錫)이 공의 가장(家狀)을 가지고 와서 현일에게 묘갈명을 청하면서 말하기를, "대왕부(大王父)의 덕행과 행의(行誼)는 참으로 민멸(泯滅)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가운(家運)이 불행하여 제부(諸父)들께서 모두 일찍 세상을 떠나 지금껏 묘도(墓道)에 비석을 세우지 못하였습니다. 이대로 민몰(泯沒)되어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말까 두려워 삼가 몇 자(尺) 높이의 비갈(碑碣)을 갖추고 장차 문장을 새겨서 후세에 알리려 하지만 세대(世代)가 이미 내려와서 집필을 부탁할 데가 없습니다. 생각건대 그대의 선대부(先大夫)께서는 우리 대왕부와 친교가 있었으니 필시 우리 대왕부의 사적을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그대는 나를 위해 들은 바를 써 주십시오." 하였다. 현일이 천루(賤陋)하고 문장에 능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사양하였으나 신군(申君)은 피석(避席)하면서 더욱 간청하고는 말을 마치고 또 절을 하였다. 현일이 생각건대, 선군자(先君子)께서 옛날 공과 종유(從遊)할 때 매양 공의 아름다운 효행(孝行)에 탄복하셨고, 불초한 현일도 양양(襄陽)의 관아에서 공을 뵙고 매우 도타운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므로 의리상 끝내 사양할 수만은 없기에 그 사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한다.

삼가 살펴보건대, 신씨(申氏)는 본래 아주(鵝洲) 사람으로, 상세(上世)에 휘 윤유(尹濡)라는 분이 고려의 판도 판서(版圖判書)가 되었다. 이로부터 대대로 이름난 사람이 있었다. 증조인 휘 수(壽)는 은거하여 벼슬하지 않았다. 조부 휘 원록(元祿)은 호조 참의에 추증되었고 효행으로 알려져 정려(旌閭)를 하사받았다. 고 휘 흘(仡)은 승정원 좌승지에 추증되었으며, 순천 박씨(順天朴氏)를 아내로 맞아 만력(萬曆) 기축년(1589, 선조 22) 11 월 모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휘가 열도(悅道)이고 자는 진보(晉甫)이다. 어릴 적부터 단정하고 근신(謹愼)하여 당시 선배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나이 10 여 세에 경사(經史)와 백가(百家)의 서적에 박통하였다. 일찍이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장 선생(張先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군자의 위기지학(爲己之學)이 있음을 알았다.

병오년(1606, 선조 39)에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면서 벗들의 추중을 받았다. 갑인년(1614, 광해군 6) 여름에는 내간(內艱)과 외간(外艱)을 연이어 당하여 초상의 예제(禮制)를 오로지 문공(文公)의 《가례(家禮)》에 따랐다. 천계(天啓) 갑자년(1624, 인조 2)에 비로소 석갈(釋褐)하여 권지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었다. 병인년(1626)에는 관례에 따라 전적으로 승진하여 사관(史館)의 직책을 겸임하였다. 정묘년(1627)에는 오랑캐의 난리가 있자 어가(御駕)를 호종하여 강도(江都)에 들어갔으며, 최공 현(崔公晛)이 관동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조정에 청하여 공을 종사관(從事官)으로 삼았다. 전란이 끝나자 조정으로 돌아왔다.

숭정(崇禎) 무진년(1628) 봄, 형조 좌랑에 제수되었으며, 이윽고 성절사 서장관(聖節使書狀官)이 되었다. 11 월에 황도(皇都)에 이르러 하례(賀禮)를 마치자 주객 낭중(主客郎中)이 "원군문(袁軍門)이 '조선이 관망(觀望)하고 있다.'라고 의심하여 조선 군사를 다른 방면으로 옮겨 줄 것을 주청하려 한다."라고 하였다. 이에 공이 예부(禮部)에 글을 올려 상세히 해명하여 그 일이 중지되었다. 이듬해 4 월에 복명(復命)하였다. 이 사행(使行)에서 황태자 탄생을 알리는 조서(詔書)를 주는 대로 받아 가지고 돌아왔다는 이유로 대간(臺諫)의 탄핵을 받았다. 예조, 형조, 호조의 좌랑을 거쳐 병조의 낭관(郎官)이 되었으며 사관(史館)의 직책은 여전히 겸임하였다.

경오년(1630) 겨울, 지제교(知製敎)를 겸임하였고, 신미년(1631)에는 다시 병조의 낭관이 되었다. 임신년(1632)에는 예조의 낭관으로 전보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외직으로 나가 경성 판관(鏡城判官)이 되어서는 어질고 너그러운 정사를 많이 베풀어 아전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이 사모하였다. 계유년(1633) 가을에 질병으로 사직하였고, 병자년(1636) 여름에 성균관 직강에 제수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가을에 병조의 낭관을 거쳐 사간원 정언이 되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체직되었다. 이해 겨울에 난리가 일어나자 공은 남한산성에서 어가(御駕)를 호종하였으며, 항복하기 위해 어가가 성을 나가자 공은 향리로 돌아갔다.

무인년(1638, 인조 16) 봄에 울진 현령(蔚珍縣令)에 제수되어서는 상소하여 본읍(本邑)의 민폐를 진달하였으며, 또 다난(多難) 속에서 나라를 중흥한 연(燕)나라 소왕(昭王)과 월(越)나라 구천(勾踐)의 고사를 인용하여 간곡히 건의하니 상(上)께서 모두 가납(嘉納)하셨으며, 고(故) 판서(判書) 김공 세렴(金公世濂)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는 산성의 일이 있은 이후 제일의 의론이다." 하였다. 격암(格庵) 남사고(南師古)의 사당을 세웠고, 효자 주경안(朱景顔)의 묘에 제사하였으며, 고을에 자효(慈孝)·정렬(貞烈)의 행실이 있는 이들은 모두 찾아서 잘 보살펴 주었다. 그리고 고을의 우수한 자제들을 뽑아서 권면하고 지도하여 모두 성취하는 바가 있게 하는 한편 향약의 예(禮)를 행하여 백성을 선도하여 좋은 풍속을 이루는 데

뜻을 두니, 백성들이 공을 따르고 의지하였다. 공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게 되자 비석을 세워 그 덕을 새겼다.

을유년(1645, 인조 23)에 공조 정랑에 제수되었고, 겨울에는 병조 정랑으로 자리를 옮겼으나 때마침 두 아들의 상(喪)을 당해 정고(呈告)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정해년(1647) 가을, 장령에 임명하여 소환하자 상소하여, 본원(本原)에 더욱 힘쓸 것과 천지교태(天地交泰)의 뜻을 논하니, 상께서 우악(優渥)한 비답을 내렸다. 겨울에 체직되어 서추(西樞)에 들어갔고 그 후 다시 사헌부 장령에 임명되었으며 체직된 후에는 사도시 정(司導寺正)에 제수되었다.

기축년(1649) 여름, 예천 군수(醴泉郡守)로 부임하여 폐단을 고치고 쇠잔한 고을을 소생시키되 오직 힘이 부족하지나 않을까 걱정하였으며, 응지(應旨)하여 올린 소장에서는 민력(民力)을 펴고 병적(兵籍)을 줄이며 궁중(宮中)과 부중(府中)이 일체가 되었던 옛 철왕(哲王)을 본받아야 한다는 뜻을 말하는 한편 이 문순공(李文純公 이황(李滉))이 선묘(宣廟)께 바친 《성학십도(聖學十圖)》로 병풍을 만들어 늘 자리 곁에 두고 볼 것을 청하였다. 경인년(1650, 효종 1) 겨울, 관찰사와 뜻이 맞지 않자 즉시 병을 이유로 사직하였다.

임진년(1652, 효종 3) 가을, 또 장령에 제수되어 사은(謝恩)을 마치고 입대(入對)하여 시정(時政)의 득실에 대해 극언(極言)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체직되었다. 겨울에 능주목사(綾州牧使)에 제수되어 세금을 절감(節減)하고 부역을 균등히 부과하니 백성들이 편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공을 미워하는 자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다.

병신년(1656) 봄, 사도시(司導寺)와 종부시(宗簿寺)의 정(正)에 제수되었으나 모두 취임하지 않았다. 이때부터 다시는 세상에 뜻이 없어 두문불출하며 몇 해 동안 병을 조섭하다가 춘추 71 세인 기해년(1659, 효종 10) 4 월 19 일에 숙환으로 집에서 세상을 떠났다. 부음이 들리자 상께서 본도(本道)에 명하여 부의(賻儀)를 보내셨다. 이해 8 월 임자일에 의성현(義城縣) 남비정(南飛亭) 정향(丁向)의 둔덕에 안장하였다.

공은 증(贈) 이조 판서 시(諡) 문충공(文忠公) 휘 성일(誠一)의 손녀이고 종사랑(從仕郞) 휘 굉(浤)의 따님인 문소 김씨(聞韶金氏)를 아내로 맞았다. 부인은 본디 집안에서 좋은 훈육을 받은 터라 공에게 시집와서는 유순하고 정숙하여 매우 부도(婦道)가 있었으며, 공보다 30 년 먼저 세상을 떠나 현(縣)의 남쪽 오토산(五土山) 경향(庚向)의 둔덕에 안장하였다.

5 남 2 녀를 두었다. 장남은 기(璣)이고 그다음은 급(圾), 감(堪), 전(塼), 재( )인데 기와 감은 공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고, 급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났다. 딸은 사인 김종원(金宗源)과 진사 권주(權霌)에게 각각 출가하였다. 기는 후사(後嗣)가 없다. 급은 3 남 5 녀를 두었다. 장남은 응석(應錫)이고 그다음은 흥석(興錫), 항석(恒錫)이다. 딸은 사인 정유흥(鄭惟興)・조수창(曺壽昌)・김명현(金命賢)과 진사 이규(李圭)에게 각각 출가하였고, 막내는 아직 어리다. 감은 2 남 1 녀를 두었다. 장남은 인석(仁錫)이고 그다음은 의석(義錫)이며, 딸은 사인 장우추(張宇樞)에게 출가하였다. 전은 4 남 3 녀를 낳았다. 장남은 두석(斗錫)이고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재는 4 남 1 녀를 낳았다. 장남은 휘석(徽錫)이고, 둘째는 징석(徵錫)이며, 나머지는

모두 어리다. 공은 나머지 둘을 두었으니 증(增)과 벽(壁)으로, 각각 아들과 딸을 두었다. 내외손(內外孫)과 증손은 모두 40 여 명이다.

공은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 어버이 곁에서는 늘 유순한 안색으로 어버이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힘썼으며, 어버이가 질병에 걸리면 음식을 조절하는 것과 의복과 변기를 씻는 일을 모두 손수 하고 남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어버이의 상(喪)을 당해서는 3년 동안 읍혈(泣血)하면서 여묘(廬墓)살이를 마쳤으며, 조상을 모심에 정성을 다하고 형과 누님을 부모처럼 모셨다. 친척 중 외롭고 가난하여 스스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운 사람을 구휼함에는 모든 힘을 아끼지 않았다. 집안을 다스림이 엄정(嚴整)하여 내외가 반듯하게 범절이 있었으며, 자손을 가르침에 더욱 힘을 쏟아 의리(義利)의 나누어짐과 취사(取舍)의 나누어짐을 반복하여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 주었다. 무릇 논의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마음을 비우고 의견을 묻고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았다. 그 행사(行事)가 조정에 드러나고 주군(州郡)에 베풀어진 것이 이미 분명할 뿐 아니라 사사로운 행실도 이처럼 자세히 알 수 있다.

공은 서사(書史)를 매우 좋아하였으며 특히 주서(朱書) 읽기를 좋아하여 비록 공무(公務)로 바쁜 와중일지라도 하루도 책을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다. 문장을 지음에는 조탁을 일삼지 않고 온아(溫雅)하면서 법도에 맞는 것이 그 사람됨과 같았다. 유문(遺文) 약간 권이 집안에 보관되어 있다. 오호라, 이러한 사적은 모두 명을 남길 만하다.

명은 다음과 같다.

오호라, 공은 / 嗚呼惟公
행실이 으뜸인 줄 아노라 / 知行之元
효성스럽고 우애로움이 / 旣孝且友
진실하고도 완전하였어라 / 載實而完
조정에 벼슬하게 되어서는 / 策名公朝
집안의 행실을 나라로 옮겼지 / 自家移國
집간하고 분부하면서 / 執簡分符
그 맡은 직분을 다하였네 / 而職其職
일찍부터 어진 스승을 만나 / 皐比早歲
이에 의지할 곳을 얻었으며 / 爰得依歸
중국 조정에서 글을 올려 / 敷文帝庭
위태한 상황을 반전시켰지 / 轉斡事機
그 성품 티 없는 옥이었으니 / 貞玉無瑕
뉘라서 공을 감히 헐뜯으리오 / 孰公敢誚
내 그 묘소에 명을 새기어 / 我銘其墓
후세에 길이 행적을 알리노라 / 惟後之詔

통훈대부 홍문관 수찬(弘文館修撰) 증(贈)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 신공(申公) 묘갈명

13世 달도(達道) 父 : 흘(仡)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公諱達道。字亨甫。鵝洲人。嘗自號晩悟。其上世有諱祐。當高麗王氏時。爲湖南按廉使是於公間八世。曾祖諱壽。通仕郎。祖諱元祿。贈通政大夫戶曹參議。考諱仡。贈通政大夫承政院左承旨。家世以孝友稱於鄕里。妣順天朴氏。展力副尉諱倫之女。以萬曆丙子八月某甲生公。幼魁碩異凡兒。及知讀書。不待強敎。日漸開益。自底于成年才十七。屬壬辰之變。饑饉荐臻。人相食。公躬親商販之役。使擧家無捐瘠之患。丁酉。賊復肆蠆毒。南土震擾。人皆蒼皇奔避。公弟悅道時在稚齡。脚弱不能行。公扶携擔負。經涉險阻。猶恐其或相遺失。其友愛之篤如此。時寇盜充斥首尾七八年。經生學子。莫不解體。無意親書冊。公性勤有識慮。雖當造次顚沛之際。暫有餘閒。未嘗去書不觀。發爲文章。汪洋滂沛。渾渾無涯涘。庚戌。入太學補上舍生。甲寅夏。荐罹荼毒。居喪儀節。一以禮無憾。服闋。值世昏亂。杜門從所好。天啓癸亥。仁祖改玉。公於是對庭試策。擢爲第一。冬。由成均典籍。出爲湖西成歡丞郵。當孔道凋弊甚。公至則校講利害。施罷得宜。征賦就簡。民力以蘇。明年甲子。李适反。車駕出幸公州。公當倉卒之際。策立夫馬。捷應機會。人益知公有應卒之才。适敗死大駕還都。公於是解印綬歸。是冬。拜全州判官。州爲湖南劇邑。素稱難治。公旣才長於治煩。性又公廉平恕。吏民畏而愛之。未幾。以病辭免。丙寅。轉刑禮二曹正郎。俄遷司諫院正言。上疏陳時弊。上嘉納焉。丁卯正月。狄人來侵。上召大臣諸宰三司多官。問控御之策。有一勳宰首發幸蜀之議。公進言曰。願殿下駐節坡州。奮揚威武。以示先人有奪人之氣。不宜先自摧縮以示弱也。上曰。當與廟堂商度爲之。竟不用其計。時論惜之。及車駕幸江都。公扈駕從之。每有論議。深斥和議之非。時毛帥文龍爲椵島守。將聲言朝鮮交通北虜。將欲襲取椵島。傳播遠邇。事機叵測。朝廷議遣使曉諭。難其人。公適膺是選。承命入毛營。乃謂朝鮮事大國。如子事父。不宜有此。辭情懇款。毛將感悟。疑盡釋。於是刷還本國人在島中者數百人。旣又歷陳關西守令賢否及淸川以北形勢便宜。使傔從馳驛以聞。上嘉之。以持平召還。會臺諫論勳臣驕橫不法狀。上怒甚。有嚴治臺諫之命。公乃挺身獨啓。其略曰。臺諫常持公議。爲人主耳目。公議所在。臺諫安得不言。尹煌之啓。趙絅之疏。皆出公議非搆捏陷人之論也。殿下詆斥之折辱之如此。臣恐直氣摧折。公論泯滅。危亡之禍。將不旋踵矣。且廟堂臺閣岐而爲二。言必矛盾。計必枘鑿。夷狄侵凌。甲兵不多。非今日之憂。腹心受病。將致危亡之禍。此誠今日之憂也。於是左相申欽，右相吳允謙以其有廟堂臺閣岐二語。連章辭避。上怒。特罷公職。大臣三司交章陳箚。還收成命。於是公直聲振朝野。崇禎戊辰。由禮曹正郎。爲侍講院文學。遷持平轉弼善。以病免。尋拜掌令辭不就。明年春。由成均直講。爲司諫院獻納。亦未得拜命。夏。以掌令承召還朝。有一勳臣侵侮大臣於筵中。辭甚倨。公以爲凌蔑大臣則朝廷不尊。論劾不置。一時權貴。莫不側目。遂移

疾遞職還鄉里。庚午。又拜掌令。力疾還朝。前大司憲鄭公蘊因求言請復仁城官職。三司交章彈劾。重臣或有請置極典者。公以爲因求言盡所懷。實無可論之罪。遂發論停啓。公論韙之。尋遞掌令。旋拜掌樂正。謁告還鄉。益無意仕進。辛未三月。又以掌令趣召。公黽勉造朝。時玉堂以請寢元宗大王祔廟事忤上意。並命致重究。朝著震懾。公乃啓曰。殿下之欲追崇本親。雖出至情。廷臣據法以爲不可者。欲殿下比乎禮義也。如使不問可否。惟君之所欲爲。則將安用論思之職爲哉。末復陳情乞骸。遂遞爲軍資正。俄遷弘文館修撰。病不得謝恩。以六月丙辰。卒于京邸。享年五十六。上聞之悼歎。令該司致賻如儀。朝之大夫士莫不奔走來弔。其哭皆甚哀。於是上令沿道各邑給輿卒歸其家。以卒之年十二月壬申。葬義城縣南梧桐山兌向之原。公娶宗室女爲夫人。世祖大王五世孫德信正諱鸞壽之女。在家習聞詩禮之教。及笄歸于公。奉公姑事君子。旣孝且敬。有事賓祭。必誠必愼。宗族稱其賢。鄉里服其德。後公二十八年。卒于其第二子圭高靈任所。戊戌正月七日也。享年七十三。以某月某日。穿公墓而合葬焉。以公嘗錄扈聖功。追贈公承政院都承旨。夫人亦封淑夫人。有子男三人女二人。男長曰垚。後改名曰在。司憲府監察。次曰圭。禮曹佐郎。季曰塏。女長適士人尹以觀。季適參奉朴忠基。監察生三男四女。男曰夏錫，晉錫，殷錫。女長適士人朴世輝。次適士人李公翼。次適都承旨李東老。次適府使成碩夔。佐郎無子。以兄子晉錫后。有一女適士人李碩觀。塏生四男二女。男曰休錫，泰錫，賁錫，禮錫。女長適士人季洙。次適兵使張漢相。夏錫生一男曰濂。生員。晉錫生二男。曰浣，淑。殷錫無子。只有二女。休錫生二男一女。男長曰德涵。進士。次曰德泳。泰錫生一男一女。男曰德漢。賁錫生四男二女。男曰德演，德濬，德瀅。季幼。禮錫生三男一女。皆幼。玄孫男女凡十六人。公弟悅道亦登文科。官至掌令。以文行知名當世。公天資甚高。襟懷坦蕩。不以世俗利害得喪爲忻戚。自在童孺時。便以忠孝大節自期待。其讀書爲學。必以講明義理。砥礪名行。見諸行事爲務。旁及前古興亡之蹟。當世治亂之故。將欲斟酌古今。擧而措之。及筮仕以來。職思其憂。其在郵丞州佐。去害興利。果辦憿絶。其在柏府薇垣。遇事盡言。有犯無隱。至於臨危建大策。則論議堂堂。正合折衝禦侮之規。至論國家本根安危之計。則旣信且徵。有若燭照而數計。雖位不通顯。未盡展布。亦可謂無負臣人之義矣。蓋公嘗遊趙月川，張旅軒兩先生之門。得聞君子立身行己之要其淵源來歷。實亦有所自云。公之曾孫上舍生濂將欲刻銘墓石。具著聲績。以其曾叔祖掌令公之狀。授玄逸曰。請爲銘。玄逸謝非其人。上舍君要責不置。遂序而銘之。銘曰。

君子所貴。惟剛與直。陰柔巽懦。乃德之賊。有偉申公。抗志勵節。爰初歷試。牛刀鷄割。擢列霜臺。弗媚而悅。當宁動色。貴彊氣奪。及贊征謀。奇偉卓絶。群疑衆猜。左牽右掣。計雖不用。人仰壯烈。晩節陳謨。憂深語切。位不滿能。莫究厥施。在公奚憾。後人之悲。桐山之原。宰如其宅。刻文茲石。嗣慶是篤。

공은 휘가 달도(達道), 자는 형보(亨甫)이고 본관은 아주(鵝洲)이며, 일찍이 자호(自號)를 만오(晩悟)라 하였다. 그 상세(上世)에 휘 우(祐)가 있어 고려 왕씨(王氏) 때 호남 안렴사(湖南按廉使)가 되었으니, 이분이 공에게 8 세조가 된다. 증조 휘 수(壽)는 통사랑(通仕郞)이고, 조부 휘 원록(元祿)은 증(贈) 통정대부(通政大夫) 호조 참의이며, 고 흘(仡)은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이다. 집안이 대대로 효우(孝友)로 향리에서 일컬어졌다. 비 순천 박씨(順天朴氏)는 전력부위(展力副尉) 휘 륜(倫)의 따님으로 만력(萬曆) 병자년(1576, 선조 9) 8 월 모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릴 적부터 체구가 커서 보통 아이들과 달랐으며, 독서할 줄 알 나이에 이르러서는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날마다 점차 글을 깨쳐 스스로 성년(成年)에 이르렀다. 나이 겨우 17 세 때 마침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기근이 자주 들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을 지경이었다. 공은 몸소 장사를 하여 온 집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었다. 정유년(1597, 선조 30)에 왜적이 다시 쳐들어와 남방이 전란의 와중에 들어가니 사람들은 허겁지겁 다투어 피난하였다. 공의 아우 열도(悅道)가 아직 어린이라 다리가 약해서 잘 걸을 수가 없었다. 이에 공이 손을 잡거나 등에 업고 다니면서도 자칫 아우를 잃을까 걱정하였으니, 그 우애의 도타움이 이와 같았다.

당시 왜적이 나라 안에 가득 설쳐 댄 지가 전후 7, 8 년이라 학자들이 모두 몹시 해이해져서 서책을 가까이할 마음이 없어졌다. 그러나 공은 성품이 근면하고 식견과 사려가 있어 비록 다급하고 위태한 상황 속에서도 잠시 한가한 시간이 있으면 책을 손에서 놓고 보지 않는 적은 없었다. 그래서 그 발휘된 문장은 기운이 왕성하고 힘찼으며 도도히 흐르는 장강대하(長江大河)처럼 가없이 드넓었다.

경술년(1610, 광해군 2)에는 성균관에 들어가 상사생(上舍生)이 되었고, 갑인년(1614) 여름에는 거듭 친상(親喪)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거상(居喪)의 의절(儀節)을 오로지 예(禮)에 따라 유감이 없도록 하였다. 상기(喪期)를 마치자 마침 세상이 혼란한 때라 두문불출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적(自適)하였다.

천계(天啓) 계해년(1623, 인조 1)에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났다. 공이 이에 정시(庭試)에서 제 1 인(第一人)으로 급제하였고 겨울에 성균관 전적을 거쳐 호서(湖西) 성환역(成歡驛)의 승우(丞郵)가 되었는데 이 역참(驛站)은 바로 큰 도로 곁에 있어 송영(送迎)의 경비가 많이 들어 몹시 피폐하였다. 공은 부임하자 곧 이해득실을 따져 보아 상황에 따라 적의(適宜)하게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는 한편 부역과 세금을 간편하게 줄이니 민력(民力)이 소생하였다.

그 이듬해 갑자년(1624)에 이괄(李适)이 반란을 일으켜 어가(御駕)가 공주(公州)로 몽진하였다. 공은 뜻하지 않은 변고로 경황이 없는 때에 계책을 세워 어가를 맞이하는 데 필요한 역부(役夫)와 말을 준비하여 눈앞에 닥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니, 공이 응졸(應卒)의 재주를 가졌다는 것을 사람들이 더욱 잘 알게 되었다. 이괄이 패사(敗死)하고 어가가 환도(還都)하자 공은 이에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왔다. 그해 겨울에 전주 판관(全州判官)에 제수

되었다. 전주는 호남의 큰 고을로 평소 다스리기 어려운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공은 번다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재주가 뛰어난 데다 성품도 공평하고 청렴하며 너그러워 관리와 백성들이 경외하면서도 사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사직하였다.

병인년(1626, 인조 4)에 형조와 예조의 정랑으로 자리를 옮겼고, 오래지 않아 사간원 정언으로 옮겨서는 상소하여 시폐(時弊)를 논하니, 상이 가납(嘉納)하셨다.

정묘년(1627) 1 월에 북쪽 오랑캐가 침입하였다. 상이 대신(大臣)과 재신(宰臣) 및 삼사(三司)의 관원들을 불러 적을 막을 계책을 물으니, 한 훈로(勳勞) 재신이 먼저 몽진(蒙塵)하자고 발의(發議)하였다. 공이 "원컨대 전하께서는 파주(坡州)에 머물러서 위무(威武)를 떨침으로써 먼저 상대방의 기(氣)를 빼앗는 모습을 보이셔야지 먼저 스스로 위축되어 나약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라고 진언하자, 상이 "묘당(廟堂)과 의논하여 처리하겠다." 하시고 끝내 공의 계책을 채택하지 않으셨다. 이에 당시 여론이 애석해하였다.

어가가 강도(江都)로 몽진할 때 공이 호종하였는데 매양 의론이 있을 적마다 화의(和議)의 잘못됨을 깊이 논척하였다. 당시 명(明)나라 장수 모문룡(毛文龍)이 가도(椵島)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조선이 북로(北虜)와 교통하여 장차 가도를 습격하려 한다고 소문을 퍼뜨리니, 그 소문이 원근에 전파되자 시국이 예측할 수 없이 불안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었다. 조정에서 사신을 보내 효유(曉諭)코자 하였으나 마땅한 적임자를 찾기 어려웠는데 공이 마침 선발되었다. 공은 명을 받고 모문룡의 군영(軍營)에 들어가 "조선이 대국(大國)을 섬김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것과 같으니,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면서 매우 간곡한 어조로 말하니, 모문룡이 감오(感悟)하여 의심이 모두 풀렸다. 이에 섬에 있던 조선 사람 수백 명을 쇄환(刷還)하였으며, 이윽고 또 관서(關西) 수령들의 능력 여부 및 청천강(淸川江) 이북의 지형의 편의(便宜)를 진술하여 하인을 시켜 역마(驛馬)로 달려 속히 보고하도록 하니, 상이 가상히 여겨 지평(持平)에 제수하여 소환하였다.

이때 훈신(勳臣)이 교만하게 전횡(專橫)하여 불법(不法)을 자행하는 정상을 대간(臺諫)이 논하자 상이 몹시 노하시어 대간을 엄히 다스리라는 명이 있었다. 공이 이에 용감하게 나서서 홀로 상주(上奏)하였으니, 그 대략에, "대간은 늘 공의(公議)를 견지하여 인주(人主)의 이목이 되니, 공의가 있는 곳에 대간이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윤황(尹煌)의 계(啓)와 조경(趙絅)의 소(疏)는 모두 공의에서 나온 것이지 터무니없는 죄를 엮어서 남을 모함하려는 의론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하께서 그들을 꾸짖어 배척하고 억눌러 모욕함이 이와 같으니, 신은 직기(直氣)가 꺾이고 공론이 사라져 위망(危亡)의 화가 곧바로 닥쳐 올까 걱정입니다. 게다가 묘당(廟堂)과 대각(臺閣)이 둘로 나뉘어져 말하면 반드시 서로 어긋나고 계책을 내면 반드시 서로 맞지 않습니다. 오랑캐의 침입은 그 갑병(甲兵)이 많지 않으니 오늘날의 근심이 아니고 복심(腹心)이 병들어 가면 장차 위망의 화를 당하게 될 터이니, 이것이 참으로 오늘날의 근심입니다." 하였다. 이에 좌상(左相) 신흠(申欽)과 우상(右相) 오윤겸(吳允謙)이 '묘당과 대각이 둘로 나뉘었다'는 구절이 있다는 이유로 연명(連名)으로 상소하여 사직하고 피혐(避嫌)하였다. 상이 노하시어 특별히 공을 공직에서 파면하자, 대신과 삼사(三

司)가 번갈아 상소와 차자(箚子)를 올려 공을 변호하여 내려진 명이 환수되었다. 이에 공의 강직하다는 명성이 조야(朝野)를 진동하였다.

숭정(崇禎) 무진년(1628, 인조 6)에 예조 정랑을 거쳐 시강원 문학이 되고 지평으로 옮기고 또 필선으로 옮겼으나 병으로 사직하였다. 오래지 않아 장령에 제수되었으나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 봄, 성균관 직강을 거쳐 사간원 헌납이 되었으나 역시 배명(拜命)하지 못하였고, 여름에 장령에 제수하는 소명(召命)을 받고 조정에 돌아왔다. 당시 한 훈신(勳臣)이 연중(筵中)에서 대신을 모독하였는데 그 말이 매우 거만하였다. 이에 공이 '대신을 능멸하면 조정의 체통이 서지 않는다'고 하면서 논핵(論劾)하여 마지않으니, 당시의 권귀(權貴)들이 모두 공을 미운 눈으로 흘겨 보았다. 그래서 마침내 병을 칭탁하여 사직하고 향리로 돌아갔다.

경오년(1630)에 또 장령에 제수되어 애써 병든 몸을 이끌고 조정에 돌아왔다. 전(前) 대사헌 정공 온(鄭公蘊)이 구언(求言)으로 인하여 올린 상소에서 인성군(仁城君)의 관직을 회복시켜 줄 것을 청하자 삼사(三司)가 연명으로 상소하여 탄핵하였으며 중신(重臣) 중에는 극률(極律)에 처할 것을 청하는 자도 있었다. 이에 공이 '구언으로 인하여 소회(所懷)를 다 말하였으니 실로 논할 만한 죄가 없다.' 하면서 마침내 정계(停啓)할 것을 발론하니, 공론이 옳다고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령에서 체직되었고 이내 장악원 정에 제수되었으나 휴가를 내어 향리로 돌아왔으며 더욱 벼슬할 뜻이 없어졌다.

신미년(1631) 3 월에 또 장령에 제수하여 상경(上京)을 재촉하는 소명(召命)을 받고 공은 애써 조정에 나아갔다. 당시 옥당(玉堂)이 원종대왕(元宗大王)의 부묘(祔廟)를 중지할 것을 청함으로 해서 상의 뜻을 거슬러 모두 '중죄(重罪)로 다스리라'는 명이 내리니 조정이 놀라 두려움에 떨었다. 공이 이에 상주(上奏)하기를, "전하께서 본친(本親)을 추숭(追崇)코자 하시는 뜻은 비록 지극한 효성에서 나온 것이지만 정신(廷臣)이 법에 의거하여 불가하다고 한 것은 전하로 하여금 예의(禮義)를 넘지 않도록 하고자 한 것입니다. 만약 가부(可否)를 묻지 않고 오직 임금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논사(論思)의 직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말미에 충정을 진달하여 사퇴를 간청하였고, 마침내 체직되어 군자감 정(軍資監正)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홍문관 수찬으로 옮겼으나 병으로 사은(謝恩)하지 못하고 6 월 병진일에 경저(京邸)에서 세상을 떠나니, 향년 56 세였다. 상이 부음을 듣고 슬피 탄식하시고 해사(該司)로 하여금 법식에 맞게 부의(賻儀)를 내리도록 하였다. 조정의 사대부들이 달려와 조문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며 모두 매우 슬피 곡(哭)하였다. 이에 상이 연도(沿道)의 각 고을로 하여금 여졸(輿卒)을 공급하여 고향집으로 운구(運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해 12 월 임신일에 의성현(義城縣) 남쪽 오동산(梧桐山) 태향(兌向)의 둔덕에 안장하였다.

공은 종실(宗室)의 규수를 부인으로 맞았으니, 세조대왕(世祖大王)의 5 세손 덕신정(德信正) 휘 난수(鸞壽)의 따님으로 집안에서 시례(詩禮)의 가르침을 익히 들었고 공에게 시집와서는 시부모와 남편을 섬김이 효성스럽고 공경스러웠으며 손님을 접대하거나 제사를 모시는 등의 일에는 반드시 정성스럽고 근신(謹愼)하였다. 이에 종족이 그 어짊을 칭찬하고 향리에서

그 덕에 탄복하였다. 공보다 28 년 뒤에 둘째 아들 규(圭)의 고령(高靈) 임소(任所)에서 세상을 떠나시니, 무술년(1658, 효종 9) 1 월 7 일이었다. 향년 73 세였다. 모월 모일에 공의 묘혈(墓穴)을 파고 합장하였다. 공이 호성 공신(扈聖功臣)이 되어 승정원 도승지에 추증됨으로 해서 부인 역시 숙부인(淑夫人)에 봉해졌다.

3 남 2 녀를 두었다. 장남 장(𡎴)은 뒤에 재(在)로 이름을 고쳤으며 사헌부 감찰이다. 둘째 규(圭)는 예조 좌랑이고, 막내는 무(墜)이다. 장녀는 사인 윤이관(尹以觀)에게 출가하였고, 막내는 참봉 박충기(朴忠基)에게 출가하였다. 감찰은 3 남 4 녀를 낳았다. 아들은 하석(夏錫), 진석(晉錫), 은석(殷錫)이다. 장녀는 사인 박세휘(朴世輝)에게 출가하였고, 둘째는 사인 이공익(李公翼)에게 출가하였고, 셋째는 도승지 이동로(李東老)에게 출가하였고, 그다음은 부사(府使) 성석기(成碩夔)에게 출가하였다. 좌랑은 아들이 없어 형의 아들 진석으로 후사(後嗣)를 삼았다. 1 녀를 두었는데 사인 이석관(李碩觀)에게 출가하였다. 무는 4 남 2 녀를 낳았다. 아들은 휴석(休錫), 태석(泰錫), 비석(賁錫), 예석(禮錫)이다. 장녀는 사인 이수(李洙)에게 출가하였고, 다음은 병사(兵使) 장한상(張漢相)에게 출가하였다. 하석은 1 남을 낳았으니 렴(濂)으로 생원(生員)이고, 진석은 2 남을 낳았으니 완(浣)과 숙(淑)이다. 은석은 아들은 없고 2 녀만 두었다. 휴석은 2 남 1 녀를 낳았으니 장남은 덕함(德涵)으로 진사이고, 다음은 덕영(德泳)이다. 태석은 1 남 1 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덕한(德漢)이다. 비석은 4 남 2 녀를 낳았으니, 아들은 덕연(德演), 덕양(德瀁), 덕형(德瀅)이고 막내는 아직 어리다. 예석은 3 남 1 녀를 낳았는데 모두 아직 어리다. 현손(玄孫)은 남녀 모두 16 명이다.

공의 아우 열도(悅道)도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장령(掌令)에 이르렀고, 문장과 행의(行誼)로 당세에 이름이 알려졌다.

공은 천자(天資)가 매우 높고 흉금이 툭 틔여 세속의 이해득실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으며 어릴 적부터 충효(忠孝)의 대절(大節)을 세우리라 스스로 기약하였다. 독서하여 학문을 함에는 반드시 의리(義理)를 연구해 밝히고 명행(名行)을 갈고 닦아서 실사(實事)에 나타나는 곳을 힘썼으며, 두루 전고(前古)의 흥망의 자취와 당세(當世)의 치란(治亂)의 연고에까지 이르러 고금을 참작하여 오늘날에 그대로 시행해 보고자 하였다. 출사(出仕)한 이래 자신의 직분에 있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늘 생각하였다. 그래서 우승(郵丞)과 주좌(州佐)로 있을 때에는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은 없애고 이익이 되는 것은 일으키되 과감하고 신속하였으며, 백부(柏府)와 미원(薇垣)에 있을 때에는 일을 만나면 과감히 진언하여 임금의 위엄을 범할지언정 자신의 소회(所懷)를 숨기지 않았다. 시국이 위급할 때에 큰 계책을 세움에 이르러서는 당당한 논의가 적을 막고 무찌르는 작전에 그야말로 꼭 들어맞았으며, 국가의 근본과 안위를 논함에 이르러서는 그 말이 미덥고 징험(徵驗)이 있어 마치 촛불로 환히 비춰보고 일일이 헤아려 본 듯이 실제 상황과 틀림없이 부합하였다. 비록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하여 자신의 능력을 다 펴지는 못하였지만 신하로서의 의리를 저버리지 않았다고 이를 만하다.

공은 일찍이 조월천(趙月川), 장여헌(張旅軒) 두 선생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군자의 입신(立身)과 행기(行己)의 요체를 들었으니, 그 학문 연원의 내력이 있었던 것이다.

공의 증손 상사생(上舍生) 렴(濂)이 묘소에 비석을 세워 공의 명성과 업적을 갖추어 드러내고자 하여 그의 증숙조(曾叔祖) 장령공(掌令公)이 지은 행장을 가지고 와서 현일에게 주면서 "청컨대 명을 지어 주십시오." 하였다. 현일이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사양하였으나 상사군(上舍君)이 굳이 부탁하여 마지않기에 드디어 서문을 쓰고 명을 붙인다.

명은 다음과 같다.

군자가 귀하게 여기는 바는 / 君子所貴
오직 강하고 곧은 것이니 / 惟剛與直
음유하고 손약한 것은 / 陰柔巽懦
바로 덕을 해치는 것일세 / 乃德之賊
위대하여라 신공이여 / 有偉申公
높은 뜻과 절개를 지녔어라 / 抗志勵節
이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서는 / 爰初歷試
넉넉한 역량으로 고을 다스렸지 / 牛刀鷄割
발탁되어 상대에 올라서는 / 擢列霜臺
훈신에게 아부하지 않으니 / 弗媚而悅
임금도 놀라 정색을 하고 / 當宁動色
권귀(權貴)들이 기운을 빼앗겼지 / 貴彊氣奪
전란으로 대책을 의논할 때에는 / 及贊征謀
그 진언이 우뚝하고 탁월하였으나 / 奇偉卓絶
뭇사람이 의심하고 시기하여 / 羣疑衆猜
좌로 우로 마구 방해하였으므로 / 左牽右掣
계책은 비록 채택되지 못했지만 / 計雖不用
사람들은 그 장렬한 충절 우러렀지 / 人仰壯烈
만년에 나라 위하여 올린 계책은 / 晩節陳謨
근심이 깊고 말이 간절하였어라 / 憂深語切
지위가 능력에 차지 못하여 / 位不滿能
그 재주를 다 펼치지 못했으니 / 莫究厥施
공이야 무슨 유감이 있으랴마는 / 在公奚憾
후인들로서는 슬픈 일이로다 / 後人之悲
오동산 비탈에 / 桐山之原
불룩한 무덤이 있어라 / 宰如其宅
이 비석에 글을 새기노니 / 刻文茲石
후손들의 경사가 이에 도타워지리 / 嗣慶是篤

속집 부록 제4권

또 [신덕함(申德涵)]

16世 덕함(德涵) 父 : 휴석(休錫) 祖父 : 무 (墜)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선생은 외진 해동에서 뒤늦게 태어났으나 / 先生晩出海東隈
학문의 연원은 바른 맥을 전승했어라 / 學問淵源有自來
시례의 가학을 형제가 함께 이어받았고 / 詩禮傳家兄及弟
치세의 여망 한 몸에 받고 덕과 재주 겸했네 / 君民係望德兼才
문명이 크게 열려 백구를 겨우 매어 두자 / 文明蔚啓駒纔縶
나쁜 시운이 와서 봉황이 시기를 당했어라 / 否泰相承鳳見猜
군자는 위태한 상황에도 마음이 태연한 법 / 君子阽危心坦坦
외로운 신하 도성 떠날 제 머리털 희었어라 / 孤臣去國髮皚皚
은거한 곳에 돌아오니 대궐과 멀어졌고 / 返吾初服彤闈隔
우리 후학들을 깨우치느라 강석을 열었지 / 牖我群蒙絳帷開
나의 경전 공부는 매독 같아 부끄러웠는데 / 自愧窮經如買櫝
분수에 넘치게 거두어 단련해 주셨어라 / 猥承誘學若施鎚
서림에서는 다행히 강석에 참여하였으나 / 西林幸忝摳衣問
동락에서는 마침내 입설의 모심을 어겼어라 / 東洛終違立雪陪
십 년 만에 천도가 회복될 것을 기다렸더니 / 佇看十年天道復
올해에 철인이 세상 떠날 줄 어이 알았으랴 / 豈知今歲哲人災
선비들은 들보 꺾인 아픔을 견디지 못하고 / 諸儒不耐摧樑慟
성주는 거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으리 / 聖主應纏失鑑哀
그만이로다 사문을 다시 누가 천양하랴 / 已矣斯文誰復闡
선생의 풍모 생각하며 눈물로 뺨을 적신다 / 緬懷懿範淚盈腮

[주-D001] 백구(白駒)를 …… 두자 : 《시경》 〈백구(白駒)〉에 "희고 깨끗한 망아지가 우리 마당의 풀을 먹는다 하여 발을 묶고 고삐를 매어 오늘 아침 내내 있게 하여 이른바 그분이 여기에서 소요하게 하리라.....희고 깨끗한 망아지가 저 빈 골짜기에 있다. 싱싱한 풀 한 다발을 주노니 그 사람은 옥처럼 맑도다.〔皎皎白駒 食我場苗 縶之維之 以永今朝 所謂伊人 於焉逍遙.....皎皎白駒 在彼空谷 生芻一束 其人如玉〕" 하여 어진 이를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는 뜻을 노래하였다. 여기서는 갈암이 조정에 들어왔음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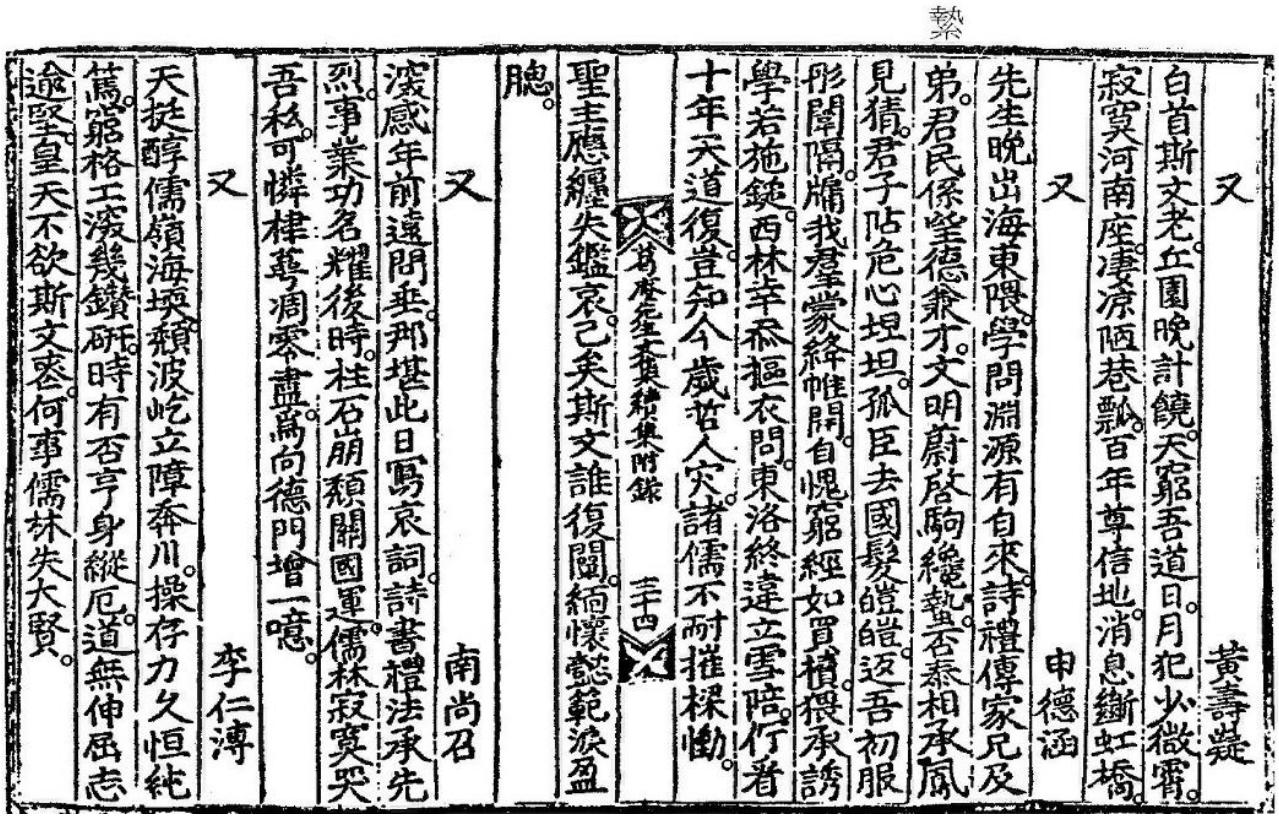
[주-D002] 매독(買櫝) : 매독환주(買櫝還珠)의 준말로, 춘추 시대 초(楚)나라 사람이 옥으로 꾸미고 향기를 쐰 목란(木蘭) 상자에 보배 구슬을 담아서 정(鄭)나라에 가서 팔자 어떤 정나라 사람이 상자만 사고 구슬을 돌려주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韓非子 外儲》 근본은 모르고 지말(枝末)만 좇는 행위를 비유한 것이다.

[주-D003] 서림(西林)에서는 …… 어겼어라 : 서림은 서림원(西林院)이란 절을 가리킨다. 주자(朱子)가 연평(延平) 이통(李侗)에게 수학하면서 서림원의 달관헌(達觀軒)에서 유숙하였다. 《朱子大全 卷 2 題西林可師達觀軒》 입설(立雪)은 스승을 찾아가 가르침을 받으려는 정성을 뜻한다. 송(宋)나라 유조(游酢)와 양시(楊時)가 처음 정이(程頤)를 뵈었는데, 정이가 눈을 감고 오랫동안 명상에 잠겨 있었다. 두 사람은 스승을 공경한 나머지 물러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 그대로 모시고 있었다. 얼마 후 정이가 눈을 떠 두 사람을 보고는 "자네

들 아직도 여기에 있었는가. 이제 나가게." 하였다. 두 사람이 그제야 나오니, 문밖에 눈이 한 자나 쌓여 있었다 한다. 이후 '정문입설(程門立雪)'이라 하였는바, 이것을 인용한 것이다.《朱子語類》 여기서는 작자가 젊은 시절에는 갈암을 모시고 수학하였으나 갈암이 만년에 금양(錦陽)에서 강학할 때에는 참여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주-D004] 들보 꺾인 : 공자(孔子)가 자신이 별세할 꿈을 꾸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뒷짐을 지고 지팡이를 짚고 문 앞에서 한가로이 거닐며 노래하기를 "태산이 무너지겠구나. 들보가 부러지겠구나. 철인이 죽게 되겠구나.〔泰山其頹乎 樑木其壞乎 哲人其萎乎〕" 하였다.《禮記 檀弓上》 이후로 태산이 무너지고 들보가 부러짐은 곧 스승이나 철인의 죽음을 의미하게 되었다.

[주-D005] 거울 : 임금의 잘못을 잘 지적해 주는 어진 신하를 뜻한다. 위징(魏徵)은 당 태종(唐太宗) 때의 명재상으로 직간(直諫)을 자주 하여 시비득실(是非得失)을 분명히 가려내 주었으므로, 당 태종이 그를 거울〔鑑〕에 비겼다.《舊唐書 卷 71 魏徵列傳》



又　黃壽嶷

白首斯文老。丘園晚計饒。天窮吾道日。月犯少微霄。寂寞河南座。淒涼陋巷瓢。百年尊信地。消息斷虹橋。

又　申德涵

先生晩出海東隈。學問淵源有自來。詩禮傳家兄及弟。君民係望德兼才。文明蔚啓駒纔蟄。否泰相承鳳見猜。君子阽危心坦坦。孤臣去國髮皚皚。返吾初服彤闈隔。牖我羣蒙絳帷開。自愧窮經如買櫝。猥承誘學若施鋋。西林幸忝摳衣問。東洛終違立雪陪。佇看十年天道復。豈知今歲哲人災。諸儒不耐摧樑慟。聖主應纏失鑑哀。已矣斯文誰復闡。緬懷懿範淚盈腮。

又　南尚召

深感年前遠問垂。那堪此日寫哀詞。詩書禮法承先烈。事業功名耀後時。柱石崩頹關國運。儒林寂寞哭吾私。可憐棣蕚凋零盡。爲向德門增一噫。

又　李仁溥

天挺醇儒嶺海堧。頹波屹立障奔川。操存力久恒純篤。窮格工深幾鑽研。時有否亨身縱厄。道無伸屈志逾堅。皇天不欲斯文喪。何事儒林失大賢。

구사당집(九思堂集)

- 구사당의 생애와 《구사당집》의 간행 경위 -

박대현 한국고전번역원 교수

1. 머리말

본서는 구사당(九思堂) 김낙행(金樂行, 1708~1766)의 《구사당집(九思堂集)》 원집(原集) 9 권 5 책과 속집(續集) 4 권 2 책을 한글로 번역한 것으로, 국역된 번역서는 모두 3 책이다. 본 번역은 한국고전번역원의 권역별거점연구소 협동번역사업의 일환으로, 2010 년 5 월부터 2013 년 4 월 말까지 3 년 동안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에서 진행된 것이다. 본서의 번역 대본은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 222 책에 실려 있는 《구사당집》이다.

구사당 김낙행은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18 세기 영남의 유학자이다. 학봉(鶴峯)·표은(瓢隱)·제산(霽山)의 가학(家學) 연원(淵源)과 경당(敬堂)·갈암(葛庵)·밀암(密庵)의 퇴계(退溪) 적전(嫡傳)을 이어받아 공맹(孔孟) 유학의 참된 이치를 몸소 터득하고 이를 일상생활에 남김없이 실천한 참된 선비이다. 특히 구사당의 삶은 부친에 대한 효성으로 일관되어 있다. 구사당은 부친인 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에 대한 효성이 남달라서 제산이 금옥(禁獄)에 갇혔다가 적소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 년의 세월을 고향과 적소(謫所)를 오가면서 부친을 오로지 한마음으로 섬겼으니, 참으로 자식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할 만하다. 부친과 관련한 구사당의 삶의 궤적은 문집 속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예컨대 1 백여 수(首)의 시(詩) 중에 절반 이상이 적소(謫所)에서의 부친과 관련된 것이니, 구사당의 삶의 중심에 부친이 자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내용 또한 오롯이 부친에 대한 성효(誠孝)가 발현된 것이라, 《구사당집》을 읽는 후인의 효심(孝心)을 절로 흥기시킨다.

본 해제는 구사당의 생애를 유사·행장·묘갈을 통하여 살펴보고 《구사당집》의 간행 경위 및 구성과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려고 한다.

2. 구사당의 생애

구사당의 생애는 크게 생장수학(生長修學) 시기(時期), 환란시친(患亂侍親) 시기, 은거장수(隱居藏收) 시기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구사당의 생애는 부친의 귀양살이와 떼어 놓고 얘기할 수 없어 부친이 유배된 때부터 적소에서 하세(下世)할 때까지의 환란시친 시기가 그 중심에 놓이게 되고, 이를 중심으로 자연히 생장수학 시기와 은거장수 시기로 구분되게 되는 것이다. 구사당이 30 세 때에 부친이 정배(定配)되어 구사당 40 세 때에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 구사당의 향년은 59 세이다.

구사당의 생애는 종제(從弟) 김도행(金道行)이 기록한 유사(遺事)와 번암(樊巖) 채제공(蔡濟恭)이 찬한 묘갈명과 동암(東巖) 유장원(柳長源)이 지은 행장에 소상하게 나타나 있다. 구사당의 생애를 유사와 묘갈, 행장의 기술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한다. 먼저 번암 채제공이 지은 묘갈명의 첫머리를 보면,

"주자가 《소학》을 지어 천고의 지극한 성품과 빼어난 행실을 모아 모두 실어 놓았으니, 이 《소학》은 이른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본보기라고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지극한 성품과 빼어난 행실이 고인보다 못하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소학》이 편집된 뒤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민몰되어 일컬어지지 못하게 되니, 어찌 한스럽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사람은 하늘이 부여한 아름다운 자질을 갖고서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했을 뿐이니, 남들이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는 것과 이름이 전해지고 전해지지 않는 것이야 자신의 몸에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다만 그를 애모(愛慕)하는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그의 지극한 성품과 빼어난 행실이 사람이 되는 본보기가 되고도 남는 줄을 분명히 알면서도 주자의 시대에 태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후세에 민몰되어 버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또한 어찌 떳떳한 본성을 지닌 덕을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 하겠는가. 내가 구사당 김 공의 행장을 보고서 나도 몰래 탄식해 마지않게 된다."

하였다. 구사당의 평생 행적은 한마디로 《소학》에 실려 후대의 본보기로 전해질 만하지만 《소학》을 편찬한 주자보다 후대에 태어나서 《소학》에 등재되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는 것이다. 또 구사당 김공의 입장에서 보면 타고난 본성에 따라 응당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지만, 애모하는 후인의 처지에서 보면 김공의 지성(至性)과 절행(絶行)이 민멸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병이(秉彝)의 양심을 지닌 사람으로서 어찌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묘갈명을 짓는 이유를 서두에 밝히면서 구사당의 일생을 논평한 것이다.

저자의 자(字)는 간부(艮夫 초자(初字)는 퇴보(退甫))이고, 이름은 낙행(樂行 초명(初名)은 진행(晉行))이고, 호는 구사당(九思堂)이다. 본관은 의성(義城)이고, 제산(霽山) 김성탁(金聖鐸)의 장자(長子)이다.

저자는 성품이 겸허하여 평소에 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저자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1767, 영조 43)에 벗들 사이에 호를 지어 주자는 의론이 있어 우곡(雨谷), 허암(虛庵) 등의 호를 마련했으나 공의 책 상자 속에서 '九思堂'이라는 도장(圖章)이 발견됨으로 인하여 이를 호로 삼게 되었다. 구사(九思)는 공자가 말한 시사명(視思明)·청사총(聽思聰)·색사온(色思溫)·모사공(貌思恭)·언사충(言思忠)·사사경(事思敬)·의사문(疑思問)·분사난(忿思難)·견득사의(見得思義)의 아홉 가지 생각함이니, 이를 통하여 저자의 성품과 수양의 공부가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구사당은 1708 년(숙종 34)에 안동(安東) 천전리(川前里)에서 태어났는데, 자품이 준수하고 성품이 지극하였다. 어렸을 때에 이웃집 아이들을 따라 잡스러운 놀이를 하자, 모부인이 "사군자(士君子)는 공자를 배워야지 잡스러운 놀이를 배워서는 안 된다." 하니, 놀라서 무릎을 모으고 앉아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면 공자를 배울 수 있을까 해서였습니다." 하였다. 공자가 아이 때에 제기를 진설하는 놀이를 했던 것을 흉내 낸 것이었으나 모부인의 말을 듣고는 다시 잡스러운 놀이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어떤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주면 사양하고 먹지 않으면서 "집에 노친이 계시는데 어린아이가 어찌 감히 먹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9 세에 사서(四書)를 공부하여 대략 대의(大義)를 통하였고, 11 세 때에 부친이 위장(慰狀)을 대신 쓰게 하면 자획이 해정하고 격식이 어긋남이 없었다.

18 세 때에 당시 문명을 날리던 강좌(江左) 권만(權萬)의 칭찬을 받았고, 이어 부친의 명으로 밀암(密庵) 이재(李栽)의 문하에 들어가 《근사록(近思錄)》·《심경(心經)》을 익히며 사문(師門)의 칭찬을 받았다.

30 세인 1737 년(영조 13) 5 월, 부친 제산(霽山)이 그 스승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을 변호하는 소를 올렸다가 의금부 옥에 잡혀 들어가서 여러 차례 국문을 받게 되었다. 이에 구사당은 음식을 전폐하고 밤에도 방에 들지 않고 금옥 밖에서 밤낮 울부짖었다. 두 손으로 땅을 후벼 파서 열 손가락이 모두 피가 흘렀고 때로는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도 하니, 시정(市井)의 남녀가 모두 달려와서 술을 입에 넣어 주기도 하고 거적으로 햇볕을 가려 주기도 하며 구해 주었다. 옥졸조차 "우리들도 사람이니 어찌 차마 규정을 지키느라 효자에게 인정을 쓰지 않겠는가." 하고 옥중 소식을 알려 주거나 약물과 음식을 성심으로 전달해 주었고, 비록 당로자나 정적(政敵)일지라도 지나가면서 보고는 또한 효자라고 칭탄(稱歎)하였다.

그해 9 월에 풍원군(豐原君) 조현명(趙顯命)의 항소(抗疏)로 인하여 극형을 면하고 제주 정의현(旌義縣)에 유배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제산이 출옥하자 시정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김 효자가 노지(露地)에서 묵지

않을 것이니, 우리들도 자리에 누워서 편히 잘 수 있겠구나." 하였다. 구사당은 부친을 모시고 배소로 가는 도중에 밤이 되면 반드시 부친의 호흡소리를 들으며 앉아서 날을 지새웠고 꿇어앉아 약을 올리고 울먹이며 미음을 권하였다. 배소에 도착해서는 여종을 대신하여 직접 음식을 조리하고 노복을 대신하여 직접 땔감을 구해서 불을 지폈고, 또 부친의 마음을 풀어 드리려고 틈틈이 글을 읽어 질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효심에 감동한 주민들이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번번이 먼저 보내왔다고 한다.

이듬해인 1738 년(영조 14)에 제산이 광양현(光陽縣)으로 이배(移配)되었다. 당시에 고향에 계신 조모를 모시라는 부친의 명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부모님이 천리 밖에 떨어져 계시거늘, 자식 된 자가 어찌 차마 동거의 즐거움을 누리겠는가.' 하며 7 년 동안 내실에 한 걸음도 들여놓지 않았다. 이후로 고향과 배소를 오가면서 조모와 양친을 봉양하였다.

구사당은 유배지의 괴로운 여건 속에서도 학문에 대한 뜻이 더욱 견고하여 날마다 부친을 모시고 문답을 일삼아 경전(經傳), 자집(子集)부터 음양(陰陽), 성력(星曆), 지리(地理), 의방(醫方), 성률(聲律)까지 모두 탐구하여 두루 관통하니, 부친이 매번 사색을 잘한다고 칭찬하며 "집 아이의 견식이 이와 같건만, 나로 인하여 학문에 전념할 수 없어 애석하다." 하였고, 구사당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면 "향리의 제공들과 강론하여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내라."라고 명하였다. 돌아와서는 강좌(江左) 권만(權萬),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등의 제현(諸賢)과 강론한 것을 기록하여 인편(人便)으로 부치거나 문안하러 갈 때에 갖고 가서 강질(講質)하였다. 혹 우환이나 병 때문에 이를 행하지 못하면 크게 탄식하였으니, 오직 학문을 향상시키는 일만이 부친의 마음을 위로해 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0 세 때인 1747 년(영조 23) 4 월에 부친이 광양의 배소에서 세상을 떠나자 여러 번 기절했다가 다시 소생하였다. 안동 옛집으로 반구(返柩)하여 장례를 치르고 피눈물로 삼년상을 마쳤다.

49 세 때인 1755 년(영조 31)에 '선친께서 북협(北峽)에 이주하실 뜻이 있었다.'라고 하며 봉성(鳳城)으로 이거(移居)했다가 2 년 뒤에 다시 임하(臨河)로 돌아왔다.

55 세 때인 1762 년(영조 38)에 모친상을 당했을 때에도 부친상 때처럼 슬픔과 예제를 다하여 집상하였다. 그러나 상중에 지나치게 슬퍼한 까닭으로 상복을 벗은 2 년 뒤 1766 년(영조 42)에 병이 이미 깊어 59 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구사당은 지기(志氣)가 호매(豪邁)하여 아주 젊었을 때에 《장자(莊子)》〈추수(秋水)〉를 읽기를 좋아하였으나 부친이 '범범하여 공부에 절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경계하자 즉시 그만두고 다시 읽지 않았고, 개연히 옛날의 훌륭한 사람처럼 되기를 스스로 기약하였다. 처음에는 '학문을 하려면 정주(程朱)를 배우고 문학을 하려면 한당(漢唐)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였다가, 중년 이후에는 '군자의 사업은 무궁하건만 일생의 힘을 구구한 문장에 쓴다면 원대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는가.' 하였고, 또 '문학에 힘쓰기보다는 차라리 학문에 종사하여 조금이라도 몸에 절실하게 하는 편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하며 자신의 수양을 위한 학문에 전념하였다.

구사당은 부친의 원통함이 신원되지 못했기 때문에 평인(平人)으로 자처하지 않았고, 성부(城府)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며, 시사(時事)에 관하여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또 유림의 공회(公會)나 지구(知舊)의 연회(宴會)에도 모두 사절하여 참석하지 않았고 종일토록 문을 닫고 단정히 앉아 학문에만 전념하였다. 다만 선부군의 친한 벗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움을 주었던 분들의 부고를 들으면 반드시 소식(素食)을 하고 장례에는 제문을 지어 제사를 올렸으며 그 자손들을 종신토록 잊지 않았다. 그 일례로 부친을 구해 준 풍원군 조현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술 한 병과 건어 몇 마리를 싸 가지고 천리 길 경기로 달려가 조공(趙公)의 무덤을 찾아 술을 붓고 제문을 읽고 한나절을 울다가 백 번 절하고 돌아왔다. 그 제문의 내용이 슬프고 간절하여 문사들 사이에 오래도록 전송(傳誦)되었다.

구사당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고난 자품이 효성스러운 데다가 학문의 공을 더하여 역경 속에서도 평생 성효(誠孝)로 일관된 삶을 살았다. 지구(知舊) 간의 강론도 부친을 위로하기 위한 자료를 마련하려는 것이었고, 시・제문・만사 등도 부친과 관련되거나 부친에게 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구사당집》은 이러한 구사당의 삶의 행적을 뚜렷이 담고 있어 오륜(五倫)의 첫째인 부자유친의 참된 가치를 실천궁행한 고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구사당은 비록 당화(黨禍)를 입은 부친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현달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넓고 치밀한 학문은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과 함께 영남 사림의 종장(宗匠)으로 추중받았고, 그의 진실하고 절절한 제문은 구제밀찰(九祭密札)이라는 말로 칭송되었다. 정조대왕이 제산을 복관(復官)시키면서 행의(行誼)가 뛰어났던 구사당을 등용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였고, 지기지우(知己之友)인 대산(大山)은 그의 형용하기 어려운 덕행과 도량을 후한(後漢)의 고사(高士)인 황숙도(黃叔度)에 비견하며 학문까지 겸비한 분이라고 극찬하였다.

구사당의 일생은 한마디로 학문사변(學問思辨)의 공부에 종사하여 입효출제(入孝出悌)를 실행한 참된 유학자의 삶이었다고 할 수 있다.

3. 《구사당집》의 편집과 출간 경위

1) 편집 경위

현존하는 《구사당집》으로는 고서(古書)로 된 초간본・중간본과 두 종류의 영인본이 있다. 초간본은 1801 년(순조 1)에 간행되었고, 중간본은 1894 년(고종 31)에 간행되었다고 한다. 첫 번째 영인본은 1982 년에 경문사(景文社)에서 《제산전집(霽山全集)》을 영인하면서 부록한 것이고, 두 번째 영인본은 1999 년에 민족문화추진회에서 《한국문집총간》 222 책에다 영인하여 실은 것이다. 두 영인본은 대본이 서로 같고 4 분의 1 의 크기로 축영(縮影)한 것도 같다. 《한국문집총간》본은 전문(全文)에 표점이 되어 있다.

《구사당집》은 원집(原集) 9 권 5 책과 속집(續集) 4 권 2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간행 경위는 간기(刊記)나 서발(序跋)이 없어 자세히 알 길이 없다. 정범조(丁範祖, 1723~1801)의 《해좌집(海左集)》 권 20 에 〈제산집서(霽山集序)〉와 〈구사당집서(九思堂集序)〉가 나란히 실려 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문집 모두 서문이 없는 상태이다. 해좌의 서문에는 구사당의 윤자(胤子) 시전(始全)이 공의 유집(遺集)을 갖고 멀리 해좌를 찾아와서 서문을 구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간행 경위를 알 수 있는 기술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지금 간행의 경위를 짐작게 하는 기록은 종제 김도행(金道行)이 지은 유사(遺事)와 구사당 사후에 지구(知舊) 문인(門人)의 서찰 속에 문집간행과 관련된 얘기들뿐이다.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문집간행 경위의 대략을 살펴본다. 먼저 유사(遺事)의 기술을 보면,

"공이 일찍이 선부군의 유문(遺文)을 수습하여 정본을 손수 정서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자(嗣子) 시전(始全)이 그 한 본(本) 및 공의 유고(遺稿) 몇 책을 정서하여 대산(大山) 선생께 드리니, 선생이 교정해 주었고, 교감이 미진한 것은 남간(南澗)・동암(東巖) 두 유공(柳公)에게 맡겨 다시 교정하여 한 해 남짓 만에 완성본을 대략 이루어 사빈서원에 보관하였다."

하였다. 사자(嗣子) 시전(始全)이 구사당의 유고를 정서하여 대산 이상정(李象靖)에게 교정을 부탁했고 미진한 부분은 다시 남간(南澗)・동암(東巖) 형제에게 맡겨서 완성본을 만들어 간행을 기다리며 사빈서원에 보관해 두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김시전이 수집하여 정서한 유문(遺文)이 대산・남간・동암의 교정을 거쳐 완본(完本)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유사의 기술을 뒷받침해 주는 기록이 구사당 사후의 지구(知舊) 문인(門人)의 왕복서찰에 보인다. 여기서 문집의 교정·간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있다. 먼저 대산이 범암(凡巖) 김익명(金翼溟)에게 보낸 서찰을 보면,

"구사당의 유문(遺文)은 그의 아들이 수습하여 등초(謄抄)가 다 되었다고 하니, 이 사람을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도록 할 것입니다. 다만 편집 체재가 어떠한지 알 수 없으니, 오직 집사께서 헤아려 취사하여 흠결을 면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한번 살펴보고서 견해를 올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하였다. 대산은 구사당의 평생 지기지우(知己之友)이다. 벗이 세상을 떠난 2 년 뒤인 무자년(1768, 영조 44)에 그의 유문이 수습되어 등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반가움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범암에게 문집 편집에 적극 참여하여 도와주기를 권하면서 자신 또한 꼭 한번 살펴보아 견해를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다. 또 대산이 기축년(1769)에 동암(東巖)과 노애(蘆厓)에게 보낸 서찰을 보면,

"구사당의 시문은 수습되어 이미 두서를 갖추었다고 하니, 이 사람을 후세에 영원히 전해지게 할 것입니다. 정분과 의리상 한번 살펴보고 싶으나 멀어서 쉽게 얻을 수 없습니다. 전해 듣건대 이미 그대의 책상에 올라와 있다고 하니, 바라건대 대단히 잘 상량하여 기어코 정밀하고 간략하게 하여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붕우 간의 책무일 것입니다."

하였다. 구사당의 초고를 한번 보고 싶으나 멀리 있어 볼 수 없어 아쉽다는 심정을 토로한 뒤에 그대 두 형제가 교정을 맡았다는 소식을 들었으니, 교정이 정밀하게 잘 이루어져서 영원히 전해지기를 바란다는 말을 전한다. 구사당의 초고가 처음 노애·동암에게 맡겨진 사실과 함께 초고의 열람을 희망하는 대산의 뜻을 재차 확인할 수 있다. 또 기축년(1769, 영조 45)에 노애가 대산에게 보낸 서찰을 보면,

"사옹(思翁)의 윤자(胤子)가 유고를 갖고 가서 조만간 집사께 질정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으니, 이미 집사의 책상 위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생각건대, 인가(人家)의 문자(文字)는 힘써 장황하게 편집된 것이 오래도록 전해지지 못하고 오직 정밀하고 간략하게 편집된 것이 후대에 미덥게 전해지는 법이니, 이것이 회옹(晦翁)이 남헌(南軒)의 유집을 편집하면서 정요(精要)한 것을 선별하여 과반을 산삭했던 까닭입니다. 생각건대 집사께서 교정하면서 또한 응당 회옹의 법도를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노애가 구사당 유고를 일람하고서 대산과 구사당의 친교를 재차 확인하고 난 뒤에 대산에게 보낸 서찰이다. 짐작건대 노애가 구사당 본가에다 자신보다 구사당의 지기(知己)인 대산에게 교정을 부탁하는 편이 낫겠다는 뜻을 전하자, 본가에서 이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연락을 받고 대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인 듯하다. 노애가 대산에게 회암(晦庵) 주희(朱熹)가 그의 벗인 남헌(南軒) 장식(張栻)의 문집을 교정한 전례를 인용하여 정요한 내용만 남기고 대폭 산삭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무렵 동암 또한 대산에게 서찰을 보내어 유고를 3~4 책 정도의 분량으로 산삭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석보(石堡) 이장(李丈)의 말을 빌려 전하고 있다.

그 이듬해 경인년(1770, 영조 46)에 대산은 교정을 마친 원고를 본가로 보낸 뒤에 노애·동암에게 서찰을 보내어 교정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구사당의 유문(遺文)은 지난번 그 윤자(胤子)의 간청을 받아 참람하게 표점(標點)을 더하여 장로(長老)들의 열람을 기다리게 되었으니, 이미 받아서 읽어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장과 의론이 호박(浩博)하고 정절(精切)하여 쉽사리 산삭할 수 없었습니다만, 정밀하기를 힘쓰고 많기를 힘쓰지 않아 본가의 뜻에 부응했을 뿐이니, 만일 교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하나 점말(點抹)하여 내가 이미 교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주저하기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붕우의 도리일 것이고 또한 세상을 떠난 사람에게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대산이 구사당의 유문을 가볍게 산삭할 수 없었던 이유를 말한 뒤에 그대들이 재차 교정할 때에는 소신껏 산삭하기를 권하고 있다. 아마 동암은 유고의 대폭적인 산삭을 주장한 반면 대산은 소폭의 산삭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듯하다.

1770 년(영조 46)에 대산의 교정을 마친 원고는 노애・동암의 손에 넘어가고 그 11 년 뒤인 1781 년(정조 5)에 원집 5 권 별집 1 책의 완성본을 이루게 된다. 1781 년에 노애가 대산에게 보낸 서찰을 보면,

"제산집은 이미 정본을 완성하여 모두 8 책을 만들었으나 구사당의 유고는 아직 난고(亂藁) 상태로 있으니, 실로 저희들이 간추려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본가의 독촉 때문에 경솔히 손을 대어 원집 5 권과 별집 1 권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거취와 산삭은 모두 선생께서 교정하신 대로 하였으나 간간이 부득이하게 첨입한 곳이 있습니다. 교정이 끝났으므로 본가에서 응당 가져가서 여쭈어 볼 것이니, 다시 감정(勘訂)을 더하시어 잘못된 곳을 따라 고칠 수 있게 해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이 서찰을 통하여《구사당집》의 최초 완성본이 원집 5 권 별집 1 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말한 권(卷)은 책(冊)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존하는 원집 5 책 속집 2 책과는 속집 1 책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에서 유사와 지구문인(知舊門人)의 기술을 통하여 문집편집 과정을 살펴본 바, 대산・노애・동암 제현의 서찰에 나타난 사실이 유사의 내용을 그대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1768 년(영조 44)에 사자(嗣子) 시전(始全)이 유문을 수습하였고, 1769 년에 그 유문을 노애(蘆厓)・동암(東巖)에게 보인 뒤에 다시 대산(大山)에게 교정을 청하였으며, 대산의 교정본에 노애와 동암이 다시 교정을 더하여 1781 년(정조 5)에《구사당집》의 완성본이 이루어진 것이다.

2) 출간 경위

이상에서 문집 편집의 과정을 유사와 지구문인의 서찰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면 완성된 원고가 간행되는 경위를 살펴보기로 한다. 출간의 경위 또한 문집의 간기(刊記)나 서발(序跋)이 없어 자세히 알 수 없다. 다만 구사당의 종제(從弟)인 우고(雨皐) 김도행(金道行)이 호곡(壺谷) 유범휴(柳範休)에게 보낸 편지와 제산연보(霽山年譜)를 보면, 신유년(1781)에 출간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백부의 양대 문집은 일전에 판각하는 일을 끝마쳤습니다. 물력이 미약한 까닭으로 근근이 수십 질을 인출하였기에 두 질만 올립니다.

순종대왕 1 년 신유년(1801)에 문집이 완성되었다.〔아들 낙행이 유문을 수습하여 한 본을 정서할 단계에 이르렀으나 미처 끝내지 못하였다. 경자년(1780, 정조 4)에 종자(從子) 도행이 남간 유도원・동암 유장원 공과 함께 교감하여 8 책을 만들었다가 이해에 이르러 비로소 간행하였다.〕

우고(雨皐)의 서찰 내용과 제산연보의 기술이 일치하고 있다. 연보의 기록을 보면,《제산집》의 편집은《구사당집》보다 한 해 앞선 1780 년(정조 4)에 완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구사당집》이 1801 년(순조 1)에《제산집》과 함께 간행될 때에 완성본인 원집 5 책과 별집 1 책이 모두 출간되었는지 알 수 없다. 구사당의 9 대 주손(胄孫) 시발(時潑)이〈제산전서발(霽山全書跋)〉에서 밝히기를,

"九思堂遺集은 嗣胤 諱始全府君이 蒐集하여 刊行을 도모하였으나, 文多力屈하여 雨皐公이 蘆厓・東巖 兩公과 校讐編輯한 그 一部만을 10 卷 五冊으로 刊行하였고, 그 뒤 高祖 貴溪府君이 兩世文集을 重刻하면서 逸稿 一部인 四卷 二冊을 續集으로 追刊하니, 原・續集 合하여 十四卷 七冊이 세상에 전한다."

하였다. 《제산집》을 간행할 때에 편집된 문집의 일부만을 10 권 5 책으로 간행하였고, 경산재사(景山齋舍)에 보관하던 《제산집》 판목의 화재로 인한 소실로, 1893 년(고종 30)에 중각(重刻) 출간하면서 《구사당집》 일고(逸稿)를 4 권 2 책으로 추가 간행하였다고 하였다. 이 기록의 의거하면, 본래 편찬되었던 원집 5 책은 1801 년에 간행되었고 나머지 별집 1 책은 1893 년의 중간 때에 2 책 분량으로 늘여 추후 간행된 것이 된다.

초간본의 원집과 중간본의 원집은 대동소이하나 초간본은 11 행 21 자인데 비해 중간본은 10 행 20 자이고, 또 4 권과 5 권에 편차의 차이가 있고 중간본에는 초간본에 없는 서찰이 1 통 첨입되어 있다.

양세의 문집이 편집을 끝내고 20 년이나 지난 뒤에 출간된 것은 제산이 신원되기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해좌집》의 〈구사당집 서문〉을 보면, 을묘년(1795, 정조 19) 겨울에 주손(冑孫) 시전(始全)이 격쟁(擊錚) 송원(訟冤)하여 제산이 특명으로 복관된 사실을 특기하고 있다. 제산이 특명으로 복관되고 난 뒤에 서문을 받는 등 몇 해의 준비 끝에 양세 문집이 함께 간행된 것이다.

4. 문집의 구성과 내용

본 문집은 원집(原集) 9 권 5 책과 속집(續集) 4 권 2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序)・발(跋)은 없고, 권수(卷首)에 총목록(總目錄)이 있다.

권 1 은 모두 시(詩)로, 연대순에 따라 102 수가 실려 있다. 밀암(密庵) 이재(李栽)의 시를 차운한 시, 부친의 술회시(述懷詩)를 차운한 시, 부친의 유배지인 제주와 광양으로 따라가 그곳의 산수를 읊은 시, 권만(權萬)・황도익(黃道翼)・송하징(宋夏徵) 등에 대한 만시(輓詩), 부친이 하세(下世)한 뒤 만년에 지은 시 등이다.

〈낙매연구(落梅聯句)〉는 1736 년(영조 12) 봄에 유도원(柳道源)의 생부인 양파(陽坡) 유관현(柳觀鉉)이 방문하여 유숙하면서 지은 것으로 유관현・김성탁・김우한(金宇漢) 등과의 연작시이고, 〈기제주성형귀정대인(記濟州城形歸呈大人)〉은 제주성의 구조와 형태 등을 서술하여 부친께 올린 시이다. 〈불일암(佛日庵)〉, 〈신흥암(神興庵)〉, 〈 세이암(洗耳巖)〉등은 쌍계(雙溪)에서 지은 것이다. 〈병술상원...(丙戌上元...)〉은 상원일(上元日)에 동생들이 오지 못하여 쓸쓸한 심정을 읊은 것이고, 〈금수잡영(錦水雜詠)〉은 금수(錦水)의 장림(長林)・어박(漁箔)・고사(古寺) 등을 읊은 것이다.

권 2~6 은 모두 서(書)로 98 편이다. 이재(李栽)・이광정(李光庭)・권만(權萬)・이동영(李東英)・이상정(李象靖)・유장원(柳長源) 등과 주고받은 편지로, 경학・성리학・예학 등을 논변한 것이 대부분이다. 〈여이눌옹(與李訥翁)〉은 눌은(訥隱) 이광정과 문학・도학에 관하여 논변한 편지로, 저자가 초년에는 학문은 정주(程朱)를, 문장은 한당(漢唐)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중년 이후에는 문장보다 도학을 중시하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여권강좌론중용의의(與權江左論中庸疑義)〉는 권만이 지은 〈중용의의(中庸疑義)〉에서 의문나는 점을 뽑아 선유의 설을 이용하여 조목별로 논변하고 자기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답이백실(答李伯實)〉은 매제인 이동영에게 보낸 편지로, 제주의 풍토・풍습・산물 등을 자세히 말하고 있다. 이상정에게 보낸 서찰이 모두 25 편인데 별지가 붙은 것이 많다. 그 내용은 《심경(心經)》, 〈주서강록간보차의(朱書講錄刊補箚疑)〉, 〈태극도설(太極圖說)〉 등 성리학과 상례(喪禮)・제례(祭禮) 등 예학에 관하여 논한 것이 대부분이다. 〈답유숙원장원별지(答柳叔遠長源別紙)〉는 유장원과 《중용》의 의의(疑義)와 《대학》의 공부나 공효에 대하여 논한 것이고, 〈여탁이별지(與濯以別紙)〉는 족제 김강한(金江漢)과 사단칠정의 동이(同異)와 심통성정(心統性情) 등 이기설(理氣說)에 관하여 논한 것이다.

권 7 은 잡저(雜著)로, 모두 5 편이다. 〈상복경전주소통고(喪服經傳註疏通考)〉는 《의례(儀禮)》 상복편(喪服篇)의 경전주소(經傳註疏)에 대하여 장별로 예거하여 고증 논변하고, 그 주소자(註疏者)가 가공언(賈公彦)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자경편사차(自警編私箚)〉는 송대(宋代) 조선료(趙善璙)가 지은 〈자경편〉에 대하여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을 명의(名義)에 입각하여 조별로 논평한 것이다. 또 〈기의(記疑)〉는 사서오경 중의 해석 문제나 상례・제례의 의심되는 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권 8 은 잡저(雜著) 10 편, 서(序) 2 편, 기(記) 3 편, 지발(識跋) 4 편, 잠명(箴銘) 13 편, 상량문 2 편이다. 〈독역설(讀易說)〉은 《주역》을 어떤 관점에서 읽어야 하느냐를 논한 것이다. 〈개자간부설(改字艮夫說)〉은 자(字)를 퇴보(退甫)에서 간부(艮夫)로 바꾼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심체용설(心體用說)〉은 심(心)의 체용에 관하여 논한 것으로, 심의 체용은 하나이지 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 외의 〈직석설(織席說)〉, 〈기취서행(記鷲棲行)〉, 〈남초설(南草說)〉 등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난 일과 직접 겪은 일들을 반성하고 경계하는 뜻으로 적은 것이다. 〈여족제탁이강한서(與族弟濯以江漢序)〉에서는 선비에게 학문이란 농부의 농사일과 같아 자기의 직분을 다해야 할 뿐이고, 과거(科擧) 준비는 시속을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남는 힘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백호서당기(柏湖書堂記)〉는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이 대(臺)를 쌓고 소요하던 곳에 서실을 세운 과정을 기록한 것이고, 〈안릉세전지(安陵世典識)〉는 재령 이씨(載寧李氏) 갈암(葛庵)・밀암(密庵) 등 여러 선생들의 예설을 모은 〈안릉세전(安陵世典)〉에 관한 글이다. 〈질의잠(質疑箴)〉은 의심나는 것은 질문하여 나의 어두움을 바로잡아야 함을 말하였고, 〈경명(鏡銘)〉, 〈자경잠(自警箴)〉, 〈연명(硯銘)〉등은 모두 수신과 처세에 긴용한 내용을 잠언으로 읊은 것이다.

권 9 에는 고사(告辭) 4 편, 제문 22 편, 애사(哀辭) 4 편이 수록되었다. 고사는 선조 묘지석을 봉심할 때와 선조묘에 입석할 때의 것이고, 제문은 이재・이만・이광정・권만・유관현 등에 대한 것이다. 이 중 〈제충효공조현명묘문(祭忠孝公趙顯命墓文)〉은 부친을 변호하던 조현명이 세상을 떠나자 천리 한양 길을 직접 찾아가서 무덤에 제사하며 고한 제문이다. 저자는 각 체의 문장에 능했지만 특히 제문에 뛰어나 구사당의 제문과 밀암 이재의 서찰이라는 뜻의 '구제밀찰(九祭密札)'이라는 말이 당대에 유행하였다. 애사는 42 세에 졸한 권한(權), 24 세에 졸한 이동관(李東觀) 등에 대한 것이다.

속집 권 1 은 시(詩) 34 편, 서(書) 26 편이다. 시는 족형 김우한(金宇漢)과 부로(父老)의 사상연구(泗上聯句)를 차운한 〈여인재형...(與忍齋兄...)〉, 원야(元夜)에 부형들과 운곡(雲谷)에 모여 지은 〈원야배제부형...(元夜陪諸父兄...)〉등과 신효량(辛孝良), 종형(宗兄) 김민행(金敏行), 김재응(金載應) 등의 만사이다. 서(書)는 권상일(權相一)・정중기(鄭重器)・권만(權萬)・이유원(李猷遠)・이태환(李台煥)・이상정(李象靖)・이광정(李光靖)・이종수(李宗洙) 등 지구문인(知舊門人)에게 보낸 편지와 부친・중부(仲父)・족형・족제(族弟)・생질 등 일가친척에게 보낸 편지이다.

속집 권 2 는 잡저(雜著) 6 편이다. 〈주서강록간보고의(朱書講錄刊補考疑)〉는 〈주서강록간보〉의 의심스러운 부분을 제시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이고, 〈예론차의(禮論箚疑)〉는 〈안릉세전(安陵世典)〉중의 상례・제례에 관한 여러 설을 기술한 것이고, 〈문견록(聞見錄)〉은 예송(禮訟)과 기축옥사(己丑獄事)에 관하여 듣고 본 바에 따라 논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인 것인데, 특히 예송에 관해서는 당색을 떠나 허목・윤선도・송시열 등의 예설 중에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들어 지적하고 있다.

속집 권 3 은 잡저 11 편, 제문 3 편, 묘갈 1 편, 행록 1 편이다. 〈무극태극설기의(無極太極說記疑)〉는 극자(極字)에 대한 저자의 견해를 밝힌 것이고, 〈우공양부삼착오씨설변(禹貢梁賦三錯吳氏說辨)〉은 구주(九州) 중 기주(冀州)・예주(豫州)・양주(楊州)・양주(梁州)의 부세가 착오가 난다는 설에 대하여 논변한 것이다. 〈효구설(孝狗說)〉은 죽계(竹溪) 지방 어느 민가의 강아지 두 마리가 보신탕용으로 죽은 어미 개를 위하여 복수한 효구(孝狗)의 일을 적은 것이다. 제문은 권덕수(權德秀)・권정전(權正傳)에 대한 제문과 박일동

(朴日洞)에 있는 선영을 봉심할 때의 제문이다. 나머지는 징사(徵士) 신지(申祉)의 묘갈, 재종질녀 유인(孺人) 김씨(金氏)의 행록(行錄)이다.

속집 권 4 는 부록으로, 유장원(柳長源)이 지은 행장, 채제공(蔡濟恭)이 지은 묘갈명, 종제(從弟) 김도행(金道行)이 지은 유사(遺事), 이태환(李台煥)・이상정(李象靖) 등이 지은 제문 10 편, 박손경(朴孫慶)・이광정(李光靖) 등 5 인이 지은 만사 10 여 편이 실려 있다.

[주-D001] 주자가 …… 된다 : 朱夫子作小學一部 萃集千古至性絶行 幷載之 是所謂做人樣子 今夫人有至性絶行 未必不及於古人 而以其生之後於小學編輯 名湮沒不稱 豈不可恨也哉 然之人也以天賦之美 爲吾所當爲而已 人之知不知 名之傳不傳 顧何與於吾身哉 第以愛慕者言之 明知其至性絶行 足可爲做人樣子 而任其生不逢朱子使埋沒來後而止 則亦豈秉彝好德之心也 余於九思堂金公之狀 竊不勝三歎息焉《九思堂 續集 卷 4 墓碣銘》

[주-D002] 저자는 …… 마련했으나 : 이에 관한 논의는《대산집(大山集)》권 8 의〈답이공섭(答李公燮)〉에 자세하다.

[주-D003] 구사(九思)는 …… 견득사의(見得思義) :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아홉 가지 생각함이 있으니, 볼 때에는 눈 밝기를 생각하며, 들을 때에는 귀 밝기를 생각하며, 얼굴빛은 온화하기를 생각하며, 모습은 공손하기를 생각하며, 말할 때에는 충성스럽기를 생각하며, 일할 때에는 공경하기를 생각하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묻기를 생각하며, 분할 때에는 어려운 일이 따를 것을 생각하며, 이득을 볼 때에는 의에 맞는지를 생각한다.〔君子有九思 視思明 聽思聰 色思溫 貌思恭 言思忠 事思敬 疑思問 忿思難 見得思義〕"라고 하였다.《論語 季氏》

[주-D004] 황숙도 : 숙도는 후한(後漢) 황헌(黃憲)의 자(字)이다. 그는 국량이 매우 넓어서 "숙도는 질펀히 드넓어 마치 만 이랑 물결과 같아서 맑게 한다고 해서 맑아지지 않고 흐리게 한다고 해서 흐려지지 않는다." 하였다. 도량이 큰 사람에 곧잘 비유된다.

[주-D005] 남간(南澗)・동암(東巖) : 남간은 유도원(柳道源, 1721~1791)의 호이다. 자는 숙문(叔文)이고, 또 다른 호는 노애(蘆厓)이다. 동암은 유장원(柳長源, 1724~1796)의 호이고, 자는 숙원(叔遠)이다.

[주-D006] 공이 …… 보관하였다 : 公嘗收拾先府君遺文 將手寫淨本 未就而卒 嗣子始全繕寫一本及公遺稿幾冊 以獻于大山先生 先生爲之校正 以所勘未盡 付之南澗東巖兩柳公 更加讎校 至歲餘粗成完本 藏于泗濱書院《九思堂 續集 卷 4 遺事》

[주-D007] 구사당의 …… 합니다 : 九思遺文字 聞其孤收拾 謄抄且盡 此可以不朽此老矣 但未知編摩類例如何 惟在執事商量去取 俾免欠闕 區區亦覬一番寓目 貢其淺臆耳《大山集 卷 13 答金雲若 戊子》

[주-D008] 구사당의 …… 것입니다 : 九思文字 聞收輯已有頭緖 可以不朽斯翁矣 情義所在 竊欲一觀 而遠不可易以得傳聞已登高案 幸大家評量 期於精約 可以傳之久遠 自是朋友之責耳《大山集 卷 17 答柳叔文叔遠 己丑》

[주-D009] 사옹(思翁)의 …… 않겠습니까 : 聞思翁胤子奉遺稿 早晩就質於執事 未知已徹几案否 竊念人家文字務爲張皇者 不能傳久 惟取精約者 却信於後 此晦翁所以編摩南軒遺集 而揀選精要 過半刪沒者也 計執事此役 亦當循蹈晦翁之遺矩否邪《蘆厓集 卷 3 與大山李先生 己丑》

[주-D010] 노애가 …… 있다 : 九思遺稿 竊見尊校 至爲停當 似當依此書本 但石堡李丈見謂傳後文字 不必務多 更加省約 只作三四卷冊子爲好云云 此說何如 旣承長老勤敎 不敢不奉稟耳《東巖集 卷 1 上大山李先生 己丑》

[주-D011] 구사당의 …… 것입니다 : 九思文字 頃被其孤强囑 不免僭加標點 以俟諸長老眼目 未知已登覽否 文章議論浩博精切 不可輕易刪去 但務精不務多 以副本家之意 如有去就失當處 逐一點抹 毋以已經鄙跡而有所逡巡正是朋友之道 亦所以追報於九原也《大山集 卷 17 答柳叔文叔遠 庚寅》

[주-D012] 제산집은 …… 어떻겠습니까 : 霽山集 已寫成定本 合爲八冊 九思文字 尙在亂藁中 實非道源等所可梳洗者而爲本家所迫 率爾犯手 編成元集五卷別集一卷 其去取收刪 悉依門下點校 而往往有不得已添入處 讎校畢本家當齎往稟質 伏望更加勘訂 以爲隨謁釐改之地 如何如何 書札中 稱道門下處 例皆刪抹 固出於撝謙之盛意 此亦思翁衷臆所出 恐不必輒刪 故往往還爲收入 未知如何《蘆厓集 卷 3 與大山李先生 辛丑》

[주-D013] 백부의 …… 올립니다 : 伯父兩代文稿 日前畢梓役 力薄之故 僅僅印出數十本 兩衷呈上《雨皐集 卷 3 與柳天瑞範休 辛酉》

[주-D014] 순종대왕 …… 간행하였다 : 純宗大王元年辛酉 文集成〔子樂行收拾遺文 將淨寫一本而未及焉 歲庚子 從子道行 與南澗柳公道源東巖柳公長源 校勘爲八冊 至是始刊行〕《霽山先生年譜》

[주-D015] 초간본의 …… 있다 : 원집 권 5 가 〈답황이직후간(答黃爾直後榦)〉으로 시작되는 반면, 원집 권 5 의 앞부분에 실린 〈답황이직후간(答黃爾直後榦)〉, 〈답황이직(答黃爾直)〉, 〈답이학보종수(答李學甫宗洙)〉, 〈답이학보(答李學甫)〉등이 중간본 권 4 끝에 편입되어 중간본 권 5 가 〈답유숙원(答柳叔遠)〉으로 시작하는 편집상의 차이가 있고, 중간본 권 5 에는 초간본에 없는 〈여이래원(與李來遠)〉이라는 제목의 서찰이 첨입되어 있다.

[주-D016] 을묘년 …… 있다 : 乙卯冬 始全擊金籲霽山公冤 上特命復官 《海左集 卷 20 九思堂集序》

[주-D017] 문집의 구성과 내용 : 본 내용은 《문집총간해제집》의 해제를 조금 손질하여 옮겨놓은 것이다.

卷之六 / 書

신자장 체인 에게 답하다[答申子長 體仁]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 (賁龜) 귀파(龜派) 오봉공파(梧峰公派)

逢別已再變節序。時一起懷。不但面目阻隔爲可恨。精核之見。明切之論。相對輒覺有警人者。而坐遠不能源源。此尤入念中。不意情訊見及。辭語娓娓。不止於叙忉怛問寒溫。足替一奉芝宇矣。感慰何極。就悉體氣當寒安吉。俗務纏繞。吾輩常談。然畢竟是無工夫可據。故視 P 事務如外邪。有鄙厭之意。物來順應。苟能如定性書所論。豈但不爲心累而已。理事爲一。正是此學關棙。禦飢寒應租糴。雖貧者極勞心力處。然亦本分內事。苟處之有術。顧何損於淸平和樂之氣耶。如樂行者雖嘗有聞於此。而未能少用其力。來書亦恐有未盡脫然者。願加之意也。樂行草土之餘。旣頑忍不死。保守先廬。溫理舊聞。固其職事。然 嫺 廢成習。無以自奮。時對書冊。窒礙難通者。正不可以一二言。每當此等處。輒恨無彊輔在傍。所以興懷於子長輩也。來書乃反云云耶。所云妙悟深得。令人不覺發笑。至於奬引教授之責。前日固知子長以樂行退避此事爲病。然非故爲退避也。實無才能可 P 以開發蒙學者。嘗不得已於族親隣里之請。聚數三童幼。以授句讀。而卒無所成就。常有因己壞人之悔。若其進於此者。尤非所可論也。雖欲勉強而不辭。自知其量審矣。何敢復作罪過耶。今所見責。似出於引而進之之意。而秖令人蹙然增愧耳。心經依到。或問竢看讀畢。討的便還擲是望。兩書中必有思索講說可聞者。而無由對扣。瞻望忡忡。早晩因書略示所得如何。

이별한 지 이미 2 년이 지났으니, 때때로 한번 일어나는 회포가 다만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한스러워할 뿐만 아닙니다. 정밀하고 핵실한 견해와 명백하고 절실한 논의를 마주 대할 때마다 문득 저를 놀라게 하는 것이 있음을 깨달았으나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계속 이어서 만나지 못하니, 이 점이 더욱 제 마음에 사무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정다운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 편지의 말이 길게 이어져서 비단 슬픔을 술회하고 안부를 묻는데 그치지 않아 그대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을 대신하기에 충분했으니, 감격되고 위로됨

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편지를 통하여 추운 날씨에도 기체후가 편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속의 일에 얽매이는 것은 우리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근거할 만한 공부가 없기 때문에 사무 보기를 밖의 사특한 일처럼 보아서 비루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뜻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이 다가올 때 순리대로 응하기를, 진실로 〈정성서(定性書)〉에서 논한 것과 같이 한다면, 어찌 다만 마음의 누가 되지 않을 뿐이겠습니까. 이치와 일은 한 가지이니, 정히 우리 유학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막고 조세를 내는 데 응하는 것이 비록 가난한 사람들이 심력을 다하여 노력하는 곳이기는 합니다만, 또한 본분 안의 일이니, 진실로 처리하는데 방법이 있다면 도리어 청평(淸平)하고 화락한 기상에 무슨 손상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비록 이것을 들은 적이 있으나, 조금도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보내오신 편지에도 또한 아마도 이런 점을 초탈함에 미진함이 있는 듯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상주(喪主)로 지내는 나머지 이미 목숨이 모질고도 길어 죽지 않고 있습니다. 선려(先廬)를 보위하여 지키며 옛날 배웠던 것을 복습하며 익히는 것이 진실로 저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 스스로 분발할 수 없으니, 때때로 책을 대함에 막히어 통하기 어려운 것을 정히 한두 가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매양 이런 곳을 만날 때마다 문득 보익해주는 친구가 옆에 없음을 한스러워하니, 이것이 자장(子長) 등을 그리워하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보내 주신 편지에 반대로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까.

저에 대하여 '오묘하게 깨닫고 깊이 터득하였다'라고 한 것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게 합니다. 후학들을 장려하여 이끌고 가르치는 책무에 이르러서는 전일에는 진실로 자장께서 저를 두고 이 일에 대하여 물러나 피하는 것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의로 물러나 피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몽학들을 개발할 수 있는 재능이 없습니다. 일찍이 친족과 이웃 사람의 청에 부득이 해서 몇 명의 아동들을 모아서 구두(句讀)를 가르쳤으나, 끝내 성취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무너뜨렸다는 후회가 있으니, 이것보다 높은 수준의 가르침 같은 것은 더욱 논의할 게 아닙니다. 비록 힘써 노력하고 사양하지 않고자 하나 제 스스로 역량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찌 감히 다시 허물을 짓겠습니까. 지금 그대께서 요구한 것은 후학을 끌어서 진척시키는 뜻에서 나온 것 같으나 다만 저로 하여금 근심스럽게 부끄러움을 더하게 할 따름입니다.

《심경(心經)》은 보내 주신 대로 잘 받았습니다. 《혹문(或問)》은 다 읽고 난 뒤에 확실한 인편을 찾아서 저에게 되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책 속에 반드시 그대께서 사색하고 강설하여 들을 만한 훌륭한 것이 있을 터인데 얼굴을 대하여 타진할 방법이 없으니, 그대를 우러러보는 마음 몹시 근심스럽습니다. 조만간에 편지를 통하여 터득한 것을 대략이라도 보여 주심이 어떻겠습니까.

신자장에게 답하다 을유년(1765, 영조41)〔答申子長 乙酉〕

前月家兒歸。爲言往返得子長諸賢力甚多。兼及其動靜大槩。旣感且慰。自後嚮往。倍於前日。不意委伻惠以盛牋。披玩再三。欣聳不可言。况悉至寒風雪。侍學佳勝。 子長識趣。今不可但以文辭目之。然竊觀書辭漸趨馴雅鍊熟。理到意足。殆無罅漏可指。所和雲洞韻亦然。甚可愛也。樂行蘇湖之遊誠可樂。但卒無實得而濫仄大方之門。是爲愧耳。子長年尙富志益遠。將來之進。未可量。每念之。喜若在己。竊聽人之誦子長者。已以後生之師表尊之。以其所存。固宜得此聲。然切磋琢磨之功。終亦不可不念。幸與蘇湖源源往還。博而約之。卒究遠大之業。以毋負同人相待之意也。詩意固亦在此相愛之深。漫復貢愚。欲令續和。苟可爲則不必辭以重複。而見今無况味可及此等。可歎。

지난달에 우리 아이가 집에 돌아옴에 왕복하는 길에 자장 등 제현에게 도움을 받음이 많았다고 말하고, 겸하여 그대의 동정 대략을 언급하였기에 이미 감격되고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그대에게 향하는 마음이 전일보다 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편지를 주시니, 펼쳐서 재삼 읽어보고서 기쁜 마음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지독한 추위와 풍설이 몰아치는 가운데 부모님을 모시며 하시는 공부가 건승함을 알았음에 있어서야 말할 게 있겠습니까.

자장의 식견과 지취를 지금 다만 문사(文辭)만으로 지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윽이 편지의 문구를 보니, 전아(典雅)하고 완미(完美)하며 단련되고 숙련된 경지로 점점 달려서, 이치를 갖추고 뜻이 풍족하여 거의 지적할 만한 흠이 없었습니다. 화운한 〈운동운(雲洞韻)〉시도 또한 그러하니, 매우 사랑할 만합니다.

저는 소호(蘇湖)에서의 놀이는 참으로 즐거워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끝내 실제로 터득한 것 없이 대방가의 모임에 외람되게 끼이게 되었으니, 이 점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자장은 나이가 아직 젊고 뜻은 더욱 원대하니, 장래에 얼마나 진척할 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매양 그대의 이런 점을 생각하니, 기뻐함이 마치 저 자신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윽이 들으니 사람들이 자장을 칭송함이 이미 후생들의 사표로 존숭하고 있다고 하니, 그대의 내면에 있는 덕으로 보아 진실로 마땅히 이런 명성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차탁마의 공력을 끝내 또한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소호(蘇湖)와 더불어 끊임없이 오고 가면서 글을 널리 배우고 예(禮)로 요약하여, 마침내 원대한 학업을 마무리하여 지향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기대하는 뜻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운동(雲洞)〉시의 뜻이 진실로 또한 이처럼 깊이 서로 사랑하는데 있었으니, 부질없이 다시 저의 어리석은 생각을 올립니다. 저에게 화운시에 속편을 지으라고 하니, 진실로 할 만한 일이면 구태여 중복된다는 이유로 사양할 것이 없으나 지금은 이와 같은 것들에 미칠 수 있는 정황이 없으니, 탄식할 만합니다.

以救得一分者。觀朱先生社倉之設。可見矣。非立朝有官守之日。而乃措置此等事。此可見規模力量宏大處。今吾輩但爲一身私計。遑遑慽慽如此。直可笑耳。中立八夏汨沒冗故。科工亦廢之矣。今便非急。渠亦未能拜書耳。

答申子長 體仁

逢別已再變節序。時一起懷。不但面目阻隔爲可恨。精核之見。明切之論。相對輒覺有警人者。而坐遠不能源源。此尤八念中。不意情訊見及。辭語娓娓。不止於叙忉怛問寒溫。足替一奉芝宇矣。感慰何極。就悉體氣當寒安吉。俗務纏繞。吾輩常談。然畢竟是無工夫可據。故視

事務如外邪。有鄙厭之意。物來順應。苟能如定性書所論。豈但不爲心累而已。理事爲一。正是此學關捩。禦飢寒應租糴。雖貧者極勞心力處。然亦本分內事。苟處之有術。顧何損於清平和樂之氣耶。如樂行者雖嘗有聞於此。而未能少用其力。來書亦恐有未盡脫然者。願加之意也。樂行草土之餘。既頑忍不死。保守先廬。溫理舊聞。固其職事。然嬾廢成習。無以自奮。時對書冊。窒礙難通者。正不可以一二言。每當此等處。輒恨無彊輔在傍。所以興懷於子長輩也。來書乃反云云耶。所云妙悟深得。令人不覺發笑。至於奬引教授之責。前日固知子長以樂行退避此事爲病。然非故爲退避也。實無才能可以開發蒙學者。嘗不得已於族親隣里之請。聚數三童幼。以授句讀。而卒無所成就。常有因已壞人之悔。若其進於此者。尤非所可論也。雖欲勉強而不辭。自知其量審矣。何敢復作罪過耶。今所見責。似出於引而進之之意。而秖令人蹙然增愧耳。心經依到。或問竢看讀畢。討的便還擲是望。兩書中必有思索講說可聞者。而無由對扣。瞻望忡忡。早晚因書略示所得如何。

答申子長 乙酉

前月家兒歸。爲言往返得子長諸賢力甚多。兼及其動靜大槩。既感且慰。自後嚮往。倍於前日。不意委伻惠以盛牋。披玩再三。欣聳不可言。況悉至寒風雪。侍學佳勝。

子長識趣。今不可但以文辭目之。然竊觀書辭漸趨馴雅鍊熟。理到意足。殆無罅漏可指。所和雲洞韻亦然。甚可愛也。樂行蘇湖之遊誠可樂。但卒無實得而濫尺大方之門。是爲愧耳。子長年尚富志益遠。將來之進。未可量。每念之。喜若在己。竊聽人之誦子長者。已以後生之師表尊之。以其所存。固宜得此聲。然切磋琢磨之功。終亦不可不念。幸與蘇湖源源往還。博而約之。卒究遠大之業。以毋負同人相待之意也。詩意固亦在此相愛之深。漫復貢愚。欲令續和。苟可爲則不必辭以重複。而見今無況味可及此等。可歎。

答權伯審 應度

난중잡록 1(亂中雜錄一)

이 책은 지금부터 약 4 백 년 전 전라도 남원에서 유학자이며 무용(武勇)을 겸비한 의병장(義兵將)으로 이름이 높은 **산서(山西) 조경남(趙慶男)** 선생이 저술한 야사(野史)이다.

저자 조경남은 한양 조씨(漢陽趙氏)로서 태종조(太宗朝)의 우상(右相)이었던 한평부원군(漢平府院君) 조연(趙涓)의 후손이며 중종조(中宗朝)에 호조 판서(戶曹判書)를 지낸 조숭진(趙崇進)의 현손이다. 선조(宣祖) 3 년(1570 년) 11 월에 남원부(南原府) 원천내촌리(源泉內村里)에서 났으니, 자는 선술(善述) 호는 산서처사(山西處士) 또는 주몽당(晝夢堂)이라고 한다. 그는 자질이 명민하고 의표가 준수하여 3 살 때 시구(詩句)를 듣고서 외었으며, 6 세에 부친을 여의고 편모 양씨(梁氏) 슬하에서 자랐다.

13 세 때에는 또 모친상을 당하여 외조모 허씨(許氏)의 교양을 받았으나 이때부터 그는 의젓한 성인(成人)의 모습으로 3 년상을 애통과 효성으로 마치는 한편, 학업에 정진하여 경전(經傳)과 제자서(諸子書)를 관통하였으며, 저술에도 괄목의 경지에 이르렀고 본《난중잡록》을 시작해서 쓰기도 이때부터였다. 한편으로 활쏘기를 연습하여 백발백중의 묘기를 쌓아서 후일 국난에 위훈을 세운 기초가 된 것이다 17 세에 중봉(重峯) 조헌(趙憲)의 문하에 나아가서 성리학과 실천궁행(實踐窮行)의 요체를 배워 사문(師門)의 격찬을 받았다.

선조 25 년(1592 년)에 왜란이 일어나니 제봉(齊峯) 고경명(高敬命)의 의진(義陣)에 달려갔다가 외조모 허씨의 병보가 급함을 듣고 돌아와서 시탕(侍湯)하였고, 그해 8 월에 동지 정사달(丁士達) 등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켜 10 여 차의 전투에서 많은 적추(賊酋)를 사살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그 후 선조 30 년(1597 년)에 왜적의 재침을 당하여 다시 의병을 이끌고 남원・곡성・섬진(蟾津)・함양(咸陽)・산음(山陰)・곤양(昆陽)・하동(河東) 등지로 전전하면서 무수히 적을 섬멸하였으며, 명장(明將) 도독(都督) 유정(劉綎)의 전봉(前鋒)이 되어 초인의 전략을 구사하였으며 한 번 쏜 화살에 5, 6 명의 적을 연관(連貫)하여 전 명군을 경탄케 하였다. 유 도독(劉都督)은 그를 평하기를, "동국의 열남자다.

학문은 삼재를 통하였고 가슴에는 만갑을 담았으며 산림기상을 가졌으니 아마 제갈 무후에 견줄 만한 위인이다." [東國豈無烈男子 眞所謂學究三才 胸藏萬甲 又有山林之爭 其諸葛武侯之比宇] 하였다. 권율(權慄) 도원수(都元帥)와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이 그의 충용한 공적을 상주하려 하였으나, 그는 힘써 사양하여 이르기를, "나는 다만 신자의 직분을 다한 것일 뿐이다." 하고, 알리지 못하게 하였다. 31 세가 되던 선조 33 년(1600 년) 경자에는 자기 향리에서 수백의 인명을 해친 큰 백호(白虎)가 횡행하여 방어사(防禦使) 원신(元愼)이 잡으려고 고심을 하다가 못 잡고 나국(拿鞫)까지 받았다는 말을 듣고, 그는 범이 다니는 길에 틀을 차려놓고 기다리는데 걸려서 틀을 달고 산으로 뛰는 호랑이를 활로 명중하여 잡았다. 새로 부임한 방어사 이사명(李思命)이 크게 감사히 여겨 범고기와 말안장, 은장도와 쌀 5 석을 상으로 보내니 그는 고기만 받고 다른 것은 다 돌려보내면서, "범 한 마리 잡았다고 이런 것을 받을 수 있겠나. 만약 이런 곡물이 있으면 백성들에게 양곡을 주라." 하였더니, 방어사는 쌀 30 석을 그 마을 민호에 보내왔다.

그 후부터는 문을 닫고 저술에 전념하여《난중잡록》을 비롯하여《제례의(祭禮儀)》・《성리석(性理釋)》・《오상론(五常論)》・《소견록(消遣錄)》등 많은 저서를 완성하였다. 인조(仁祖) 2 년(1624 년)에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벼슬길에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괄(李适)의 난과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그때마다 의병을 모아 서울로 떠나갔으나 도중에서 난이 평정된 소식을 듣고 돌아갔다. 그는 일생을 국란에 진췌(盡悴)하다가 인조 19 년(1641 년) 신사년 1 월에 72 세로 서거하였다. 숙종(肅宗) 7 년(1681 년)에는 지방 유림이

합의하여 남원 신포(新浦)에 주포서원(周浦書院)을 세워서 유덕을 추모하였으며 철종(哲宗) 12 년(1861 년)에는 유림 박창규(朴昌奎) 등의 상소로 호조 참판(戶曹參判)에 증직하여 생전의 공훈이 포장되었다.

이《난중잡록》은 저자 조경남선생이 13 세 때인 선조 15 년(1582 년) 임오년 12 월에 태양이 세 개로 갈라져서 떠오르면서 쌍무지개가 해를 관통하고 있음을 보고서 앞으로 반드시 이변이 있을 것이라고 예감하면서 그날부터 일록(日錄)을 쓰기 시작하였다. 제 1 차로는 광해군(光海君) 2 년(1610 년) 경술년까지 국내의 중요한 사실을 엮어서《난중잡록》이라고 명명하여 4 권을 완성하였으니, 내용은 대개 임진・정유 두 차례 왜란의 기사가 주요 부분이 되어 있으므로 표제를 그렇게 정한 것이다.

처음 이 4 편이 끝나고서 그의 자서문(自序文)에 이르기를, "7 년의 긴 세월을 전쟁으로 지나오면서 나랏일에 큰 힘이 되지 못하였으나 마음만은 이 나라와 왕실을 떠나지 못하여, 승전한 기록은 기쁜 마음으로 춤추면서 쓴 것이고 패전한 기록은 통분한 마음으로 쓴 것이다. 다른 날 이 책이 지사(志士)가 무릎을 치면서 감격하여 읽을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잇달아 일어나는 명(明) 나라와 청(淸) 나라 사이의 분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북방 출병 문제와 광해조의 모비 유폐(母妃幽廢), 임해군(臨海君)과 영창대군(永昌大君)의 피살, 인조 반정(仁祖反正) 등 여러 사건과 이괄의 반란, 병자호란(丙子胡亂) 등의 큰 국난을 당하여 그는 계속 기록에 정진하였으니, 즉 광해 3 년(1611 년) 신해년부터 인조(仁祖) 16 년(1638 년) 무인년까지의 역사를 서술하여《속잡록(續雜錄)이라는 이름으로 4 권을 완성하였다.

이상 전후의 기간을 통산하면 모두 57 년간의 기록이 되는 것이다. 이 책에는 국가 전체의 역사적 기록을 실었고 전란 중 저자 자신이 의병장으로 전투한 사적 등은 객관적 견지에서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 중에 특히 임진왜란을 중심으로 수록된 자료 중에는《경상순영록(慶尙巡營錄)》의 기록이 대부분 실려 있는데 이것은 이 책만으로 그 귀중한 자료가 전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평상시 국내에 큰 일이 없이 평온하게 지난 연대에는 그 중에서 특기할 큰 사건만을 듣고 본 대로 기록하여 극히 적은 양으로 지나가는 해가 많으나 전란과 그 외에 큰 사건이 있던 해는 1 년 분의 기록이 상당히 방대하게 수록되어 있다. 그 후손가에 보존된 초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편찬되어 있다.

제 1 권, 선조 15 년(1582 년)~동 25 년(1593 년) 7 월까지
제 2 권, 선조 25 년 8 월~동 26 년(1594) 6 월까지
제 3 권, 선조 26 년 7 월~동 31 년(1598 년) 12 월까지
제 4 권, 선조 32 년 1 월~광해 2 년(1610 년) 2 월까지
이상 4 권 3 책으로《난중잡록》이 성립되었고 그 이후 부분인《속잡록》은 광해 3 년(1611 년)부터 인조(仁祖) 16 년(1638 년)까지의 기사로서 다음과 같이 편집되어 있다.
제 1 권, 광해 3 년(1611 년) 1 월~동 13 년(1621 년) 12 월까지
제 2 권, 광해 14 년(1622 년) 1 월~인조 6 년(1628 년) 11 월까지
제 3 권, 인조 6 년 12 월~동 13 년(1635 년) 12 월까지
제 4 권, 인조 14 년(1636 년) 1 월~동 16 년(1638 년) 12 월까지

이것도 4 권 2 책으로 이상과 같이 구성되었다. 그래서 전후 57 년간의 기록이 총 8 권 4 책으로 되었고, 권수(卷首)에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 최시옹(崔是翁), 저자인 산서옹(山西翁)의 서문이 있고 끝에는 한익철(韓翊哲)의 발문과 저자의 11 세 종손(宗孫) 조태희(趙台熙)의 간행사(刊行辭)를 붙여서 지난 1964 년 9 월에 후손들이 석판으로 간행 반포하였다. 이 간행사에 의하면 인조 때에《선조수정실록(宣祖修正實錄)》을 편찬하면서 이 초본을 올려다가 사료(史料)로 참고하였고, 그 부본을 작성하여 정부에 보관하고 원본은 효종(孝宗) 8 년(1667 년) 정유년에 본가에 돌려주었다. 뒤에 고서간행회에서《대동야승(大東野乘)》

을 간행할 때에 그 중에 이《난중잡록》이 들어 있었으니, 아마 정부에 보존되었던 부본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추측되는 것이라 하였다.

《대동야승》중에는 제 26 권부터 34 권까지의 사이에 본서를 9 편으로 나누어서 수록하였는데, 그 내용이 위에 말한 본손가(本孫家)의 초본과는 다소 다르게 실려 있다. 즉《대동야승》에 있는 본서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 초본인《난중잡록》과《속잡록》중에서 선조 임진년(1592) 8 월부터 인조 6 년 무진년(1628) 12 월까지 부분을〈난중잡록〉제 1 내지 제 7 권으로 책정하여《대동야승》26 권 내지 32 권까지에 수록하였고,
2. 인조 6 년 12 월부터 동 9 년(1631)년 5 월까지의 기사를〈속잡록(續雜錄)〉이라는 표제로《대동야승》제 32 권 후반에 수록하였고,
3. 인조 9 년 6 월부터 동 13 년(1635)까지의 기사를 다시〈난중잡록〉이란 명칭으로《대동야승》제 33 권의 전반에 수록하였으며,
4. 인조 14 년(1636) 1 월부터 15 년(1637) 3 월까지의 기사를 다시〈속잡록〉의 명칭으로《대동야승》제 33 권 후반에 수록하였고,
5. 인조 15 년(1637) 4 월부터 동 16 년(1638) 12 월까지의 기사를 또 다시〈난중잡록〉의 이름으로《대동야승》제 34 권의 전반에 수록하였으며,
6. 끝으로 고려(高麗) 공민왕(恭愍王) 17 년(1367 년 명 태조(明太祖) 홍무(洪武) 원년)부터 조선 왕조 선조 원년(1568 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명 나라, 일본, 기타와 서로 교섭하였던 외교 즉 사대 교린(事大交隣) 관계의 기사를 상세히 기록하여〈역대요람(歷代要覽)〉이라는 명칭으로《대동야승》제 34 권의 후반에 싣고서 이 책을 완결시켰다.

이상과 같이 되어 있으므로《대동야승》중에는 초본 제 1 권의 선조 15 년(1582 년) 임오년부터 동 25 년(1592 년) 임진년 7 월까지의 기사가 전부 탈락되었고, 저자가 정한〈난중잡록〉이란 명칭은 광해 2 년(1610 년) 경술년까지의 기사에 그쳤는데 여기에는 인조 6 년(1628 년) 무진년까지 그 명칭으로 내려오다가 그 다음부터는〈속잡록〉이란 명칭과 한 편씩 교대하여 사용하여 저자가 원래 편집한 순서를 문란케 하였다. 그리고 권말의〈역대요람〉은 초본에는 없는 것을《대동야승》에만 부록되어 있다.

이《대동야승》의 내용을 보면, 현재 규장각 도서로 보존된 필사본인 원본 중에도 오자 탈자 등이 많고 그 편집이 조잡함을 볼 수 있는 것이나, 금번 본 한국고전번역원에서《대동야승》의 국역을 단행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본가에서 간행한 원본 중에서 제 1 권 기사와 여러 사람의 서문・발문・간행사 등《대동야승》에 탈락된 것을 추가 등재하였으며, 원본에는 실려 있지 아니한〈역대요람〉1 편도 전과 같이 수록하여〈난중잡록〉4 권〈속잡록〉4 권, 부록 1 권으로 완전한 편집을 보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저자 당시에 표기한 명칭 이외에 전체를 총괄하여〈산서야사(山西野史)〉또는〈대방일기(帶方日記)〉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서, 이조 중기 전란사의 귀중한 사료가 되는 동시에 그 시대의 정치・문화・사회・당쟁・외교 등 관계의 연구에 필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규장각 도서로 보존된 등사본을 대본으로《대동야승》에 수록되어 고서간행회에서 간행을 보았고 그 후 수십 년을 지나서 저자의 후손가에서 8 권 4 책으로 원본 간행이 되었으나 어려운 한문으로 되어 일반의 해독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던 바 지금 국역본으로 세상에 펴게 되었으니 지극히 다행으로 아는 바이다.

조경남(趙慶男)

정의

조선시대『난중잡록』,『속잡록』등을 저술한 의병장.

개설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선술(善述), 호는 산서(山西)·산서병옹(山西病翁)·산서처사·주몽당주인(晝夢堂主人). 전라북도 남원 출생. 아버지는 사직 조벽(趙璧)이며, 어머니는 남원 양씨이다.

생애 및 활동사항

일찍 부모를 여의고 외조모의 손에 양육됐으나 기상은 활달했다. 1579 년(선조 12) 10 세에 유인옥(柳仁沃)에게 입문해 글을 써 남을 놀라게 했다. 13 세에는 난리를 예견하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18 세에는 조헌(趙憲)의 문하로 들어가 의리와 도덕을 터득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는 군문에 들어가려 했으나 뜻대로 하지 못하고, 1598 년(선조 31) 29 세에 전라도병마절도사 이광악(李光岳) 막하에서 명나라 군대와 합세하여 금산·함양 등지의 왜군을 무찔렀다.

1608 년(선조 41) 39 세에는 향시(鄕試) 양장(兩場)에, 1614 년(광해군 6) 45 세에는 삼장(三場)에 합격했다. 그러나 광해군의 어지러운 정치를 비난하고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다. 인조반정 후 1623 년 54 세에 겨우 진사에 등과했으나 세상과 인연을 끊고 방장산(方丈山) 용추동(龍湫洞)에 별장을 짓고 산서병옹이라 자처하며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삼학사(三學士)의 심양(瀋陽) 순절소식에 충의를 읊기도 하였다. 사후 주포서원(周浦書院)에 향사됐다.

13 세 때인 1582 년(선조 15)에서 1610 년(광해군 2)까지 사적을 일기체로 기술한 『난중잡록(亂中雜錄)』4 권 2 책이 있다.『속잡록(續雜錄)』4 권 2 책과 더불어 의병활동의 생생한 기술과 명·청과의 외교활동의 객관적 기술로 그 사료적 가치가 매우 높다. 산서야사(山西野史)' 또는 '대방일기(帶方日記)' 등의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인조 때『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하면서 사료(史料)로 참고 되었다.

임진상(壬辰上) 萬曆二十年。宣祖二十五年。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安集使金玏到安東。士子品官至者五十餘人。乃以前都事安霽。前檢閱金涌爲守城將。以出身權詮爲領兵將。因傳令各邑竄伏守令。還官視事。時。賊鋒尙遠而守令輩。任自逃竄。獨禮安縣監申之悌聚軍官門。鉗馬待變。捕斬土賊。牢守倉庫。出慶尙巡營錄

○ 안집사 김늑이 안동에 당도하니 선비와 벼슬아치들 50여 명이 찾아왔다. 그래서 전 도사(都事) 안제(安霽), 전 검열(檢閱) 김용(金涌)을 수성장으로, 출신(出身) 권전(權詮)을 영병장(領兵將)으로 삼았다. 인하여 각 읍에 영을 전달하여 도피한 수령들은 관아에 돌아와 일을 보게 하였다. 이때에 적의 군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령들이 제 마음대로 도망갔는데, 유독 예안 현감 신지제(申之悌)만은 관문에 군사를 모으고 말에 재갈을 물리고서 변란을 대비하며 토적(土賊)을 잡아 죽이고 창고를 굳건히 지켰다. 《경상 순영록》에 나온다.

○慶尙左道。無監兵水使。號令久廢。道路梗塞。列邑之事。未得聞知。盈德縣監安璡馳報右巡察使云。左道列邑。盡爲賊窟。唯寧海府使韓孝純，龍宮縣監禹伏龍，禮安縣監申之悌。各守孤城云云。三邑距賊稍遠之故。非緣死守拒戰而然也。出慶尙巡營錄

○ 경상좌도는 감사(監使)와 병사(兵使)·수사(水使)가 없어 명령이 오랫동안 폐해졌고, 도로가 막혀 여러 읍의 일을 들어 알 수 없었다. 영덕 현감(盈德縣監) 안진(安璡)이 우순찰사에 치보(馳報)하여 이르기를, "좌도의 여러 읍은 다 왜적의 굴혈이 되었고, 오직 영해 부사(寧海府使) 한 효순(韓孝純), 용궁 현감(龍宮縣監) 우복룡(禹伏龍) 및 예안 현감(禮安縣監) 신지제(申之悌)가 각각 외로운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운운." 하였다. 세 고을이 성을 각각 지킬 수 있는 것은 세 읍이 왜적에게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좀 멀기 때문이지, 죽기를 무릅쓰고 수비하며 버티고 싸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경상 순영록》에 나온다.

대산집(大山集)

-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의 사상과《대산집》-
전성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이 책은 18 세기 영남학파의 대표적 산림학자로 활동한 대산(大山) 이상정(李象靖, 1711~1781)의 문집을 번역한 것이다. 대산의 사상적 입장은 18 세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조선 성리학에 깊은 영향을 남기고 있다. 대산은 퇴계학파의 중심이요, 영남 남인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안동에서 태어나 외조부인 밀암(密菴) 이재(李栽, 1657~1730)로부터 퇴계 이황에서 발원하여 갈암(葛庵) 이현일(李玄逸, 1627~1704)로 이어진 영남학파의 학통을 이어받고, 이를 다시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과 공산(恭山) 송준필(宋浚弼) 등에게 전해 준 인물로 평가받는다. 본 해제에서는 대산 이상정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고,《대산집》의 간행 경위와 내용, 그리고 학문관・문학관・철학관 등 대산의 전반적인 사상을 대략이나마 밝혀 보고자 한다. 해제의 관행상 주석은《대산집》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분에만 달아 놓았다.

1. 대산 이상정의 생애

대산 이상정의 자는 경문(景文), 호는 대산, 시호는 문경(文敬), 본관은 한산이다. 1711 년(숙종 37) 안동 일직현 소호리 가정촌에서 태어났다. 소호리는 현재 망호리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가 태어난 곳은 같은 방에서 4 명의 대과 급제자가 태어난 것으로 유명하다. 대산과 그의 아들 이완(李埦) 그리고 현손 및 외손이 모두 그곳에서 태어났다.

고려 말에 원나라에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벼슬을 지내다가 귀국한 가정(稼亭) 이곡(李穀, 1298~1351)이 그의 선대인데, 가정은 대나무로 만든 죽부인을 의인화해서 쓴 소설《죽부인전(竹夫人傳)》의 저자로도 유명하다. 그의 아들 목은(牧隱) 이색(李穡, 1328~1396)은 고려 말의 대학자이다. 그 역시 아버지처럼 원나라로 사신을 가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고 벼슬을 지내고 돌아왔다.

본래 대산의 선대는 경성 낙선방(樂善坊)에서 살았으나,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어나자 고조 수은(睡隱) 이홍조(李弘祖, 1595~1660)가 외조부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 1542~1607)의 권유에 따라 안동으로 내려와 살면서 일직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다. 수은은 맑은 덕과 기품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고, 벼슬은 회인 현감(懷仁縣監)을 지냈다. 1636 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의병 대장이 되어 나라를 구하는 일에 앞장섰다.

증조부 이효제(李孝濟)와 조부 이석관(李碩觀)은 성품이 고결하여 평생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처사로 지냈다. 부친 이태화(李泰和)는 벼슬하지 않고 처사로 지냈으며, 모친은 재령 이씨(載寧李氏)로 갈암 이현일의 손녀이며 밀암 이재의 딸인데, 부녀자의 훈도와 법도를 잘 갖추었다.

갈암은 이조 판서를 지냈으며 세상을 다스리는 경세론에 관심이 많아 형 존재(存齋) 이휘일(李徽逸, 1619~1672)과 함께 홍범구주를 설명하는《홍범연의(洪範衍義)》를 지었으며, 율곡학파의 거세지는 퇴계학 비판에 대한 반동으로 퇴계학파의 입장을 옹호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홍범연의》에서 갈암과 존재

는 각종 개혁안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왕권의 강화를 강조하는 한편, 토지 개혁론을 제시하여 양란 이후 붕괴된 사회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하려고 하였다. 밀암은 갈암의 셋째 아들로 가학을 계승하여 퇴계의 주리설(主理說)을 더욱 정밀하게 발전시키는 한편, 존재와 갈암이 함께 편찬한 《홍범연의》를 교정하기도 하였다.

대산은 6 남 3 녀 가운데 셋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형제 가운데 유일하게 대과에 합격하여 벼슬을 지냈다. 큰형 이후정(李後靖)과는 12 살 차이가 났으며, 둘째 형 이헌정(李憲靖)과는 3 살 차이로 어려서부터 함께 다니며 우애가 깊었으나, 이헌정이 24 세의 나이로 요절하자 슬픔을 견디지 못하였다. 동생 이광정(李光靖)은 이지화(李志和)에게 양자로 가서 후사를 이었다. 이광정은 형이 호를 대산으로 하자, 자신은 소산(小山)이라고 하고 형과 더불어 학문에 몰두하였다. 부친은 재령 이씨가 세상을 떠나자 진성 이씨(眞城李氏)와 재혼을 하였는데, 진성 이씨에게서 이달정(李達靖)과 이식정(李式靖)을 낳았다. 대산에게 3 명의 누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하는 글이 없다.

대산은 어려서부터 성품・용모・재능이 뛰어났으며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다. 5 세 때에는 글자를 배워 이해할 수 있었고, 6 세 때에 모친상을 당했으며, 7 세 때에 십구사(十九史)를 읽었고, 12, 3 세 때에는 사서(四書)를 섭렵하였다. 14 세부터 매년 한 번 가면 4, 5 개월씩 외조부인 밀암 이재의 처소에서 《소학》・《맹자》・《중용》・〈태극도〉・〈서명〉・《가례》・《주자서절요》 등을 배웠다. 19 세에 《근사록》을 읽었고, 20 세에 외조부이자 스승인 밀암 이재의 상을 당하였다. 21 세 때 사서・정주서(程朱書)・《심경》 등을 주자의 독서법에 따라 1 년 남짓 공부하여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

25 세 3 월 동당시(東堂試)에 합격하였고, 4 월 진사 복시(進士覆試)에 합격하였으며, 윤 4 월 증광시(增廣試) 문과(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였다. 이후 28 세에는 연원 찰방(連原察訪), 31 세에는 휘릉 별검(徽陵別檢), 32 세에는 승문원 정자, 37 세에는 전적과 예조 및 병조의 좌랑, 41 세에는 예조 정랑, 43 세에는 연일 현감(延日縣監), 52 세에는 사헌부 감찰, 61 세에는 강령 현감(康翎縣監), 67 세에는 사간원 정언, 70 세에는 병조 좌랑과 승문원 참지 등의 관직을 제수받았다. 그러나 43 세를 전후하여 고향에 내려가 있는 동안 수차례 관직을 제수받았지만 신병(身病)을 이유로 사양하였고, 학문 연구와 후학 양성에 전념하면서 여생을 보냈다. 71 세를 일기로 동생과 자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역책(易簀)하였다.

대산이 세상을 떠날 무렵의 모습은 1781 년(정조 5) 10 월 15 일부터 동년 12 월 12 일까지 기록한 《고종시일기(考終時日記)》에 보인다. 대산의 《고종시일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청학(請學)한 문도들에 대한 기록이며, 이러한 기록을 통하여 죽음을 목전에 둔 거유(鉅儒)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자신의 위중한 병세보다 문전에 찾아와 청학하는 문도들에게 좀 더 많은 가르침을 주려는 그의 학문적 배려를 볼 수 있다.

숙종 37 년인 1711 년에 태어난 대산은 경종을 거쳐 영조와 정조 등 네 임금의 시대를 살았는데, 15 세부터 66 세까지가 영조의 시대인 만큼 대략 52 년의 긴 세월을 영조를 모시고 살았던 셈이다. 당시 영조는 탕평책을 사용하여 정국의 안정을 꾀하였지만, 을사환국(1725, 영조 1)과 정미환국(영조 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정권이 소론에서 노론, 그리고 다시 노론에서 소론으로 바뀌는 등 매우 불안정하였다. 또한 임오화변(영조 38)에서처럼 대리청정하던 왕세자를 영조가 뒤주에 가두어 죽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지배권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혼란이 야기된 시기였다. 결국 노론과 소론의 권력 다툼에서 노론이 주도권을 잡고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 시기를 맞이하였으므로 대산이 벼슬길에 나가 실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입론을 세우고 정치 활동을 하지는 못하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대산은 25 세를 시작으로 벼슬길에 나아가지만, 영남 남인 출신인 그로서는 출세를 크게 바라지는 못하였다. 그러므로 젊어서부터 안동의 대석산(大夕山)에 대산서당을 짓고 퇴계의 학통을

계승하여 성리학을 연구하면서 후진을 양성하기 시작한다. 그의 학문적 성공과 결실은 그가 남긴 저서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다.

19 세에는 궁리(窮理)・주경(主敬)・근독(謹讀)・독지(篤志)・일신(日新)을 골자로 하는 〈동지오잠(冬至五箴)〉을 지었으며, 20 세에는 〈성현유상권서(聖賢遺像卷序)〉를, 21 세에는 〈자경명(自警銘)〉을 지었다. 29 세에는 국가의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 제도와 관련한 〈과거사의(科擧私議)〉와 〈만수록(晩修錄)〉을 지었으며, 30 세에는 〈솔성지위도설(率性之謂道說)〉을 지었다. 31 세에는 일상생활에서 행해야 하는 법도와 성현들의 기품과 기상 그리고 언행 등을 서술한 것들을 편집하여 〈제양록(制養錄)〉을 만들었으며, 퇴계가 편찬한 《주자서절요》를 본떠 퇴계가 문인들과 주고받은 편지글을 모아 《퇴계서절요》를 엮었다. 34 세에는 〈일성구사덕설(一性具四德說)〉과 〈이기동정선후이설(理氣動靜先後二說)〉을 지었으며, 이기의 관계를 이합・선후・동이・편전(偏全)・동정 등으로 나누고 정리한 《이기휘편(理氣彙編)》을 완성하였다. 35 세에는 《경재잠집설(敬齋箴集說)》을 완성하였고, 39 세에는 《사례상변통고(四禮常變通攷)》와 칠정에 관한 여러 설들을 모아 정리한 《약중편(約中編)》을 편집하였다. 41 세에는 〈사단칠정설(四端七情說)〉을 지었으며, 47 세에는 〈심무출입설(心無出入說)〉을 지었다. 49 세에는 《주자어류》에서 뽑은 글인 《주자어절요(朱子語節要)》를 엮었으며, 50 세에는 〈중용부도불문설(中庸不睹不聞說)〉을 지었다. 60 세에는 《심경강록간보(心經講錄刊補)》를 지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대산이 30 대 초에 편찬한 《퇴계서절요》라는 저술이다. 퇴계가 《주자서절요》를 편찬하여 성리학의 핵심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대산은 《퇴계서절요》를 편찬하여 퇴계 학문의 핵심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다. 대산은 주자와 퇴계로부터 갈암과 밀암으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정맥을 이어받아 자신의 학문을 발전시킨 것이다.

갈암 이현일은 조선조 성리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퇴계와 율곡의 시대보다 대략 1 세기 이후 활동하던 인물로 율곡의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퇴계의 사상을 정립한 인물이다. 그리고 갈암의 부친은 석계(石溪) 이시명(李時明, 1590~1674)으로 학봉(鶴峯) 김성일(金誠一, 1538~1593)과 서애 유성룡의 문인인 경당(敬堂) 장흥효(張興孝, 1564~1633)에게 수학하였는데, 경당이 갈암의 외조부인 점을 감안하면, 그의 학통이 퇴계에서 이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갈암의 아들인 밀암은 부친의 사상을 받아들여 퇴계학을 더욱 정밀하게 다듬는 작업에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모두 기울였다. 또한 밀암은 대산에게 〈태극도설〉을 문목별로 해설해 주는 글을 남기는 등 대산의 학문적 연원에 직간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대산은 퇴계 이황 → 학봉 김성일 → 경당 장흥효 → 갈암 이현일 → 밀암 이재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정맥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2. 《대산집》의 간행과 내용

1) 편찬과 간행

《대산집》은 1782 년(정조 6) 대산의 장례를 치른 뒤 동생 이광정과 아들 이완이 주도하고 여러 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문을 수집하고 편차・교정하게 된다. 그러다가 두 사람 모두 1789 년에 죽자, 저자의 조카인 이우(李堣)가 이를 이어받아 출간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한다. 그러나 편집과 교정의 과정에서 발생한 원고 분량과 의견 대립 등으로 인해 저자 사후 20 여 년이 지난 1802 년(순조 2)에야 간행되었다. 유문을 수집하고 교정하는 일은 1782 년 유장원(柳長源)이 김도행(金道行)에게 보낸 편지에서 처음 나타

나지만, 간행은 1802 년 3 월에 시작된 것으로 보여 원고를 편집하고 교정하는 데에 무려 20 여 년 이상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이우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문집 간행의 주요 진행을 간략하게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1782 년 김도행에게 초본에 표점해 줄 것을 부탁
- 1783 년 유도원(柳道源)과 유장원에게 교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
- 1783 년 이종수(李宗洙)에게 초본의 표점 일부에 대한 교열을 부탁
- 1799 년 김진동(金鎭東)에게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결정을 요청
- 1799 년 조목수(趙沐洙)에게 고운사(孤雲寺)에서 열리는 교정 모임에 참석할 것을 요청
- 1799 년 김종발(金宗發)에게 교감을 부탁
- 1799 년 김진동이 이우에게 교감에 참여시켜 줄 것을 청함
- 1799 년 고운사에서 교정을 위해 모임
- 1800 년 정본 마련
- 1802 년 문집 간행

결국《대산집》은 처음에는 동생 이광정과 아들 이완이 주도하여 진행했으나, 이들이 죽자 저자의 조카인 이우가 간행을 주도하고 여러 문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유고를 수집하는 한편, 편차를 정하고 교정하여 1802 년 의성에 있는 고운사에서 52 권 27 책의 목판으로 간행되었던 것이다.

한편 연보에 의하면, 1815 년(순조 15) 11 월에는 대산의 문인인 예조 참판 김굉(金㙫)이 간행된 저자의 문집을 교서관에서 인쇄하여 올리도록 해서 임금께 을람(乙覽)하기를 청하였고, 이듬해 11 월에도 문인인 응교 이태순(李泰淳)이 같은 내용을 청함에 따라 왕명으로 인쇄하여 비각에 보관하게 하였다고 한다. 권수에는 상하 2 권으로 이루어진 목록이 있으며 서문과 발문은 없다.

이 밖에도 1845 년에는 외종손 유치명이《대산선생실기(大山先生實記)》를 10 권 5 책으로 편집하고, 따로《고산급문록(高山及門錄)》을 3 권으로 편집하여 목판으로 간행하였다.《대산선생실기》는 권 1 에 세손(世孫)・연보, 권 2 에 행장(李光靖 撰)・묘지명(柳道源 撰)・묘갈명(蔡濟恭 撰)・신도비명(柳致明 撰), 권 3 에 서술(敍述, 李宗洙 撰)・관규록(管窺錄, 金宗德 撰), 권 4 에 유사(李埦 撰), 권 5~8 에 기문, 권 9 에 고종일기・만사・제문・진청(陳請), 권 10 에 고산지(高山誌)를 수록하였다. 그러나 이후 화재로 소실된 판목이 많아 1925 년에 저자의 6 대손 이성구(李性求)가 산절 및 보충하여《대산선생실기》와《급문록》을 모두 중간하였다.

현재《대산집》의 초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530), 규장각(奎 4294, 古 3428-59), 장서각(4-5896),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D3B- 243),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晩松 D1-A1114) 등에 소장되어 있으며,《대산선생실기》초간본은 장서각(B9I-260)과 성균관대학교 중앙도서관(B9I-44)에, 중간본은 국립중앙도서관(한 57-가 302)에 소장되어 있다. 기타 저자의 저서 가운데《경재잠집설》1 책이 1804 년에 목판으로 간행되고,《심경강록간보》1 책이 1795 년에 역시 목판본으로 간행되어 현재 도산서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2) 구성과 내용

《대산집》은 52 권 27 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집은 목록 2 권, 원집 52 권 합 27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권 1~3 은 시(詩) 350 제이다. 1730 년 20 세에 고란(孤蘭)을 읊은 〈의고(擬古)〉를 시작으로 연대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소우용퇴도집운(小雨用退陶集韻)〉 등 《퇴계집》의 시에 차운한 작품이 여러 수 있고, 〈우헌우제(郵軒偶題)〉 등 연원 찰방 시절, 〈휘재직중(徽齋直中)〉 등 양주에 있는 휘릉의 별검 시절, 〈괴원직중모제(槐院直中暮題)〉 등 승문원 정자 시절, 이후 안동과 단양 일대에서 강학하며 지내던 시절, 〈청명각동계하이종십정죽(淸明閣東階下移種十挺竹)〉 등 연일 현감 시절, 이후 옥련사(玉蓮寺)・고운사(孤雲寺)・호계서원(虎溪書院)・노림서원(魯林書院)・고산정사(高山精舍) 등에서 강학하며 지내던 시절 등에 지은 시가 실려 있다. 특히 접위관으로 동래에 다녀올 때 지은 〈남유록(南遊錄)〉과 고산정사의 풍광 등을 읊은 〈고산잡영(高山雜詠)〉은 주목되는 시이다. 동생 이광정을 비롯하여 여러 사우 및 문인들과 차운한 시가 다수 실려 있고, 이광정(李光庭)・권상일(權相一)・김낙행(金樂行) 등에 대한 만시도 많다.

권 4 는 소(疏) 6 편이다. 병조 참지・예조 참의・형조 참의를 사직하는 상소문 6 편이 실려 있다. 그 가운데 〈삼사형조참의잉진면군덕소(三辭刑曹參議仍陳勉君德疏)〉는 신병을 이유로 형조 참의를 물러나려는 뜻과 함께, 덕을 닦고 마음을 기르는 요점[修德養心之要]과 정치의 근원과 행정의 근본[出治行政之本]을 아홉 조목으로 나누어 임금에게 상주한 것이다. 이는 이른바 '구조소(九條疏)'라 불리는 것으로 입지(立志)・명리(明理)・거경(居敬)・체천(體天)・납간(納諫)・흥학(興學)・용인(用人)・애민(愛民)・상검(尙儉)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 5~38 은 서(書) 620 여 편이다. 권 5 맨 앞에 난졸재(懶拙齋) 이산두(李山斗), 그 뒤에 연일 현감 시절의 방백 윤동도(尹東度)・이이장(李彝章), 안동 부사 윤광소(尹光紹)・윤사국(尹師國)에게 보낸 것이 있다. 이후는 대체로 연령순으로 편차되어 이만(李槾)・권구(權榘)・이광정(李光庭)・김성탁(金聖鐸)・권만(權萬)・이수항(李守恒)・이태환(李台煥)・권렴(權濂)・최흥원(崔興遠)・이인훈(李仁壎)・김낙행・권정택(權正宅)・김주국(金柱國)・김호련(金虎鍊) 등 선배나 사우에게 보내거나 답한 편지가 권 14 까지 실려 있다. 권 15 이후는 대개가 문인들에게 보내거나 답한 편지가 주를 이루는데, 특히 최주진(崔周鎭)・유도원・유장원・권병(權炳)・이종수(李宗洙)・김종덕(金宗德)・조술도(趙術道)・김종경(金宗敬)・유범휴(柳範休) 등에게 보내고 답한 편지가 많다. 맨 끝의 권 38 에는 부친 이태화, 백형 이후정, 동생 이광정, 재종형제들, 아들 이완, 손자 이영운(李永運) 등 친족에게 보내고 답한 편지만 모아 놓았다.

이 가운데 특히 김우한(金宇漢)과 왕도와 패도를 논한 편지, 권만과 육경과 주자서의 본지에 대해 논쟁한 편지 및 사칠이기설 등을 논변한 편지, 이인훈과 〈태극도〉 및 도의 체용을 논한 편지, 김종덕과 도체를 논한 편지, 김낙행과 인설을 논한 편지, 최흥점(崔興漸)과 차적자(次適子)에 대한 복제를 논한 편지, 유도원과 심상인담(心喪引禫)을 논한 편지, 유장원과 인의체용(仁義體用)을 논한 편지 등이 있는데, 연보에도 언급되어 있는 대표적인 편지들이다. 이 외의 편지에서도 사서(四書)・《심경》・《근사록》・《주자서절요》 등의 의의(疑義)를 문답하는 내용이나 성리학적 주제들 및 〈상제례문목(喪祭禮問目)〉 등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다.

권 39~42 는 잡저(雜著) 33 편이다. 권 39 는 설(說)(6), 도(圖)(3), 녹(錄)(2)을 모아 놓았다. 솔성지위도(率性之謂道)・일성구사덕(一性具四德)・이기동정(理氣動靜)・이기선후(理氣先後)・심무출입(心無出入)・사단칠정(四端七情)을 각기 논한 설 가운데 〈이기동정설〉과 〈이기선후설〉은 권필선(權弼善)이 편지로 이를 논한 데 대해, 주자의 설을 인용하고 끝에 저자의 의견을 덧붙여 결론을 내린 글이다. 이기에 동정과 선후가 있으나 여러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설명해야지 한 면만을 놓고 말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논하였다. 〈심무출입설〉에서는 출입을 조사(操舍)의 문제로 보고 경(敬)으로 안을 곧게 하여 보존해야 함을 말하였다. 도는 심동정(心動靜), 중용강의(中庸講義), 옥산강의(玉山講義)와 관련된 도이고, 녹은 29 세에 지은 〈만수록(晩修錄)〉 등이 실려 있다.

권 40~41 은 《중용》, 《성리대전》, 율곡의 《성학집요(聖學輯要)》, 성호의 《가례질서》, 《송사》, 고봉의 〈사단칠정후설・총론〉, 경당의 〈상한강문목(上寒岡問目)〉 등을 읽고 나서 여러 조목에 대해 의견을 적는 형식으로 저술하였다.

권 42 는 과거 제도와 국휼 복제에 대한 의견을 적은 〈과거사의(科擧私議)〉와 〈국휼복제사의(國恤服制私議)〉, 1736 년(영조 12) 가주서로서 경연 진강에 입시하였을 때의 일을 적은 기사, 연일 현감 시절 백성들에게 내린 〈유문(諭文)〉, 호남 사림이 김성일의 〈촉석루(矗石樓)〉란 시가 최경회(崔慶會)의 작품이라 주장하는 데 대해 영남 사림을 대표하여 반박 의견을 보낸 편지, 칠계(漆溪)의 최흥원을 방문하였을 때의 기록인 〈남유록(南遊錄)〉 등이 실려 있다.

권 43~44 는 서(序)(32), 기(記)(11)이다. 서는 성현유상(聖賢遺像) 25 점을 모사하고 지은 〈권서(卷序)〉, 〈제양록(制養錄)〉과 《경재잠집설(敬齋箴集說)》을 편찬하고 나서 지은 서가 앞쪽에 있고, 그 뒤에 《일암집(一庵集)》(辛夢參)・《물암집(勿巖集)》(金隆)・《학사집(鶴沙集)》(金應祖)・《청천당유집(聽天堂遺集)》(張應一)・《계암집(溪巖集)》(金坽)・《용강집(龍岡集)》(黃壽一)・《월간집(月澗集)》(李坱)・《소고속집(嘯皐續集)》(朴承任)・《학봉속집(鶴峯續集)》(金誠一) 등의 문집 서문, 눌옹(訥翁) 이광정(李光庭)의 유권(遺卷) 서문, 학봉 김성일의 문집에 실리지 않은 유고를 모은 《연방세고(聯芳世稿)》의 서문 등이 실려 있다. 기는 최흥원의 선조 최동집(崔東嶸)의 사당인 보본재(報本齋)와 그가 은거하던 곳을 최흥원이 중수하여 지은 농연서당(聾淵書堂), 겸암(謙菴) 유운룡(柳雲龍)이 거처하던 곳에 세운 겸암정(謙巖亭) 등에 대한 기문이다.

권 45 는 발(跋)(45)이다. 외조부 밀암 이재가 남긴 가르침인 외훈(外訓), 임진왜란 때 삼장사(三壯士) 중의 하나인 이로(李魯)가 지은 〈용사일록(龍蛇日錄)〉과 〈무이구곡도(武夷九曲圖)〉에 대한 발, 아들에게 준 주자의 독서법에 대한 서후(書後), 정란(鄭瀾)의 〈풍악도(楓岳圖)〉에 대한 제후(題後), 《연평답문속록(延平答問續錄)》에 대한 지(識) 등이 실려 있다.

권 46 은 잠(箴)(1), 명(銘)(3), 찬(贊)(1), 상량문(上樑文)(3), 애사(哀辭)(3), 축문(祝文)(17), 제문(祭文)(22)이다. 〈동지오잠(冬至五箴)〉은 19 세 동지 때 궁리(窮理)・주경(主敬)・근독(謹獨)・독지(篤志)・일신(日新)의 잠(箴)을 지어 자신을 경계한 것이다. 명은 독서(讀書)・독지(篤志)・신사(愼思)・사고(師古)・근독(謹獨)・성신(省身)・일신(日新)・역행(力行)을 적은 〈병명팔첩(屛銘八帖)〉 및 〈자경명(自警銘)〉과 〈응암명(凝庵銘)〉 등이 실려 있다. 찬은 난졸재 이산두의 화상찬(畫像贊)이고, 상량문은 백호서당(柏湖書堂), 생담(笙潭) 오우당(五友堂), 묵계(默溪) 읍청루(挹淸樓)에 대해 지은 것이다. 애사는 김광한(金光翰), 최흥원의 아들 최주진, 김강한(金江漢)에 대한 것이다. 축문은 연일 현감 때 지은 〈대왕암기우문(大王巖祈雨文)〉, 시조 목은 이색과 선조 수은 이홍조를 모신 〈서산영당봉안문(西山影堂奉安文)〉 등이다. 제문은 외조부 밀암 이재, 김성탁, 권만, 김낙행, 이산두 등에 대한 것이다.

권 47~48 은 비(碑)(6), 묘지명(墓誌銘)(12), 묘갈명(墓碣銘)(19)이다. 이장곤(李長坤)의 묘비명, 홍우원(洪宇遠)의 묘지명, 5 대조 이문영(李文英)의 묘지(墓誌), 부친 이태화의 광기(壙記), 부인 장수 황씨(長水黃氏)의 광기, 이맹전(李孟專)・신몽삼(申蒙參)・정언충(鄭彦忠) 등의 묘갈명 등이 실려 있다.

권 49~52 는 행장(行狀)(31)이다. 이장곤・최현(崔晛)・권구・이광정(李光庭)・김숭조(金崇祖)・유관현(柳觀鉉)・유정원(柳正源)・임필대(任必大) 등의 행장과 부친 이태화와 중씨(仲氏) 이헌정의 유사(遺事) 등이 실려 있다.

3. 대산 이상정의 학문과 사상 : 조선 유학사에서의 위치

1) 학문관

대산 이상정의 학문적 태도는 의리〔理義〕와 실천〔踐履〕 그리고 독서(讀書)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는 "의리는 지당하여 바뀔 수 없는 본체를 연구하는 것이고, 실천은 일상생활의 움직이고 쉬는 사이에 체험하는 것이고, 독서는 푹 잠기어 함영하고 반복하여 숙독해서 마음에 합치하게 하는 것이니, 날이 쌓이고 달이 쌓이면 저절로 힘을 얻는 곳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학문적 태도에 입각하여 대산은 《소학》을 독서와 실천의 으뜸으로 생각하였다.

대산은 독서의 방법으로 "경서를 읽은 다음에 역사를 다룰 수 있고, 이치를 밝힌 다음에 만사에 응할 수 있다.〔讀經而後可以治史 明理而後可而應事〕"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먼저 《대학》·《논어》·《맹자》·《중용》의 사서(四書)를 주자가 제시한 독서 순서에 따라 읽을 것을 가르쳤다. 그러고 나서 《근사록》·《심경》·《주자서절요》 등을 학문의 본령으로 삼아 익숙하게 읽고 깊이 생각하여 의리의 전체 규모와 성현의 응용 방법을 얻으라고 하였다. 그다음으로 예제(禮制)·명물(名物)·사전(史傳)·문예(文藝)에 관한 서적을 읽는 데 힘껏 노력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대산의 학문관은 경학과 도학을 본령으로 삼고, 그 밖의 제도·역사·문학 등은 말단으로 삼는 구분에서 출발한다. 본령 공부의 대상은 익숙하게 읽고 깊이 생각하여 깊이 체인하는 터득의 공부가 필요하고, 말단 공부의 대상은 이를 근거로 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하겠다.

사서는 주자의 사상이 온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리학자로서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임을 감안하면, 그가 현실적으로 중시한 것은 《근사록》·《심경》·《주자서절요》라고 할 수 있다. 《근사록》과 《심경》은 퇴계가 도학에 입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자세하고 절실한 지침서로 중시하였던 것이고, 《주자서절요》는 퇴계가 편찬한 것으로 도학의 방법과 이론뿐만 아니라, 주자의 삶의 모범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절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대산은 경학 저술의 특색에 따른 학문 방법을 제시한다. 예컨대 《소학》을 먼저 배우고 《대학》을 공부하는 것이 주자에 따른 차례이지만, 《대학》을 배울 때에도 《소학》에서 제시하는 효(孝)와 경(敬)의 도리에 입각하여 실천의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성의·정심 등의 팔조목 또한 인륜과 일용의 측면에서 향상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상은 사서의 독서 활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독립된 저술이 서로 맞물려 이해되어야 함을 지적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대산의 경학 관점과 학문 방법은 자연스럽게 그의 수양 방법으로 이어진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경재잠집설(敬齋箴集說)》이다. 《경재잠집설》은 퇴계가 《성학십도(聖學十圖)》 가운데 제 9 도로 수록한 주자의 〈경재잠(敬齋箴)〉에 대한 정밀하고 체계적인 주석서로, 퇴계의 수양론을 계승하고 심화하였다는 의미가 있는 저술이다. 수양 방법의 시작점을 일심(一心)에서 찾는 《경재잠집설》은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이 동정을 관통하고 내외를 포함하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같이 하여 많은 것이 축적되고 오래도록 밟아 가면, 천리(天理)는 안정되고 인(仁)은 성숙하며 덕은 완성되고 도는 굳어져서, 외경(畏敬)이 일상생활에 뿌리박아 중용과 조화의 도리로 만물을 기르는 공을 이루고, 독공(篤恭)이 자신의 수양에 근본하여 성실을 체득하고 순리에 도달하는 효험이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유도(儒道)의 실학(實學)이며 공부의 목표이다. 이른바 성학(聖學)의 처음과 끝의 요점이니, 이러한데도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대산은 일상생활 속에서 의리를 쌓고 실천하면, 이(理)는 확립되고 인(仁)은 익숙해지며, 덕(德)은 성취되고 도(道)는 응집될 것이라고 하였다. 외경(畏敬)과 독공(篤恭)의 경(敬) 공부의 실천은 《중용》에서 말하는 중화위육(中和位育)의 공적과 《예기》에서 말하는 체신달순(體信達順)의 공효가 이루어지는 근거가 된

다는 것이다. 내면의 일심에서 이루어지는 수양을 통해 그 효과가 천하 국가에까지 미칠 수 있다는 말인 셈이다.

대산은 일심의 수양법으로 제시한 경 공부를 기반으로 다시 외부로 시선을 옮긴다. 구체적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인 수양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관심을 체계화한 것이 바로 〈제양록(制養錄)〉이다. 대산은 〈제양록서(制養錄序)〉에서 "형체가 있어서 볼 수 있는 외면적인 것부터 통제하고 다스리는 공부를 시행하여, 마음을 함양하고 내면을 안정시키는 근본으로 삼는다. 이것이 마음을 잡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수양과 성찰의 중요한 길이다."라고 하였다.

내면의 일심을 허령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외경과 독공의 경 공부를 핵심으로 생각하는 대산의 내적 공부는, 다시 인간관계 때문에 행해지는 다양한 실천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방법, 즉 외적인 행위로부터 내적인 마음을 다스리는 공부 방법을 병용하였던 것이다.

요컨대, 대산의 학문관은 주자와 퇴계로 대변되는 성리학적 학문관을 계승한 것이다. 즉 《소학》을 통해 일상생활의 예절과 마음 자세를 가다듬고, 사서를 독서의 중심으로 삼되, 성리학의 정수가 되는 저술인 《근사록》과 《심경》 그리고 《주자서절요》 등의 서적을 통해서 의리의 면모를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대산의 학문 활동의 근저에는 성경(誠敬)으로 대표되는 수양론이 자리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리를 밝히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정진하라는 것이 그의 학문관이라고 하겠다.

2) 문학관

대산의 문학은 성리학의 도학적(道學的) 양상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주(程朱)와 퇴계의 시(詩) 세계에서 보이는 의리적(義理的) 문학관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의 의리적 문학관에 보이는 사안 중 핵심은 도문일치(道文一致)이다. 그는 "도(道)와 문장은 두 가지가 아니니, 도를 몸에 체득하여 그 영화가 밖으로 드러나면 문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대산은 도학적이고 의리적인 측면에 입각하여 시의 도덕성을 중시하였다. 대산은 "시는 마음의 바탕이 노래로 발현되어 나온 것이다. 맑고 한가하여 속세의 비린내를 끊어 버려야만 귀하다고 할 수 있다. 저 농염하고 화려한 것을 숭상한 것은 비루한 데로 빠졌고, 호방하고 질탕한 것으로 고상함을 삼은 것은 방탕한 데로 흘렀으니, 이 모든 것이 시를 말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하였다.

대산이 지은 시 가운데 〈고산잡영(高山雜詠)〉의 〈정락대(靜樂臺)〉는 주자의 시 〈정유산수락(靜有山水樂)〉에서 따온 것이고, 〈남간(南澗)〉도 〈운곡이십육영(雲谷二十六詠)〉의 〈남간〉에서 따온 것이며, 〈송맹휴제부직괴원(送孟休弟赴直槐院)〉의 제 5, 6 구도 주자가 진동보(陳同父)에게 답한 내용을 시화(詩化)한 것이고, 〈증김수재(贈金秀才)〉의 제 2 수의 제 1 구인 '일부증경간투심(一部曾經看透深)'은 주자가 말한 '모일생간득대학계몽투(某一生看得大學啓蒙透)'를 시화한 것이다. 대산은 주자의 시를 자신의 생각과 융합하여 시화하였고, 또 시 작품 전체를 정주(程朱)의 기풍이 나도록 하거나, 정주와 유사한 도학적 표현으로 응축하곤 하였다.

또한 대산이 퇴계 이황의 사상을 계승하여 영남 남인을 적전(嫡傳)하였다고 하는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고산서원지(高山書院誌)〉에도 "도(道)는 퇴계의 적통이고 공부는 주자와 짝하며, 깊은 것을 드러내어 지극한 곳에 나아가니 만세에 법이 되었다.[道嫡陶山 功配考亭 闡奧詣極 萬歲攸程]"라고 하였으니 대산의 지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암재견성용퇴도집화도이거운여제휴문공부(巖齋見成用退陶集和陶移居韻與弟休文共賦)〉, 〈야좌경용퇴계선생시집운(夜坐敬用退溪先生詩集韻)〉, 〈휴문원매우후시개부용전운견기요화(休文園梅雨後始開復用前韻見寄要和)〉, 〈야좌용퇴도집범월탁영담운(夜坐用退陶集泛月濯纓潭韻)〉, 〈우견윤

명재사칠시인차기운(偶見尹明齋四七詩因次其韻)〉, 〈설정주인방대동강동주약이사월기망범월유병미부차운각기(雪亭主人方帶東江洞主約以四月旣望泛月有病未赴次韻却寄)〉, 〈월야우차서림운(月夜偶次西林韻)〉, 〈독심경유감우서(讀心經有感偶書)〉 등이 퇴계의 시를 시화한 것이다.

이처럼 대산은 정자와 주자 및 퇴계의 시를 크게 수용하였는데, 특히 퇴계의 시를 수용한 것을 보면 대산의 학문과 시적 취향이 퇴계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들의 도학적 수기의 방법과 지향점이 유사했기 때문인 듯하다.

대산의 시 세계를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물시(詠物詩) 작품으로는 단연코 〈고산잡영〉이 꼽힌다. 고산(高山)이란 대산이 고암(古巖)과 암산(巖山)을 합쳐서 붙인 이름으로 〈고산잡영〉은 바로 고산의 경물(景物)을 읊은 것이다. 〈고산잡영〉은 주자의 〈잡영(雜詠)〉과 퇴계의 〈도산잡영(陶山雜詠)〉의 영향을 받아 기문(記文)과 〈고산정사(高山精舍)〉외 32 수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대산의 경물시에서 시제(詩題)를 살펴보면, 헌(軒)・재(齋)・대(臺)・담(潭)・암(巖)・탑(塔)・정(井)・경(徑)・관(館)・곡(曲) 등에 이름을 붙여 경(景)과 정(情)을 관련시켜 감물음지(感物吟志)한 것이다.

〈정춘헌(靜春軒)〉은 정자의 말을 취했고, 〈응암(凝菴)〉은 《중용장구》 제 27 장의 요지를 따왔으며, 〈낙재(樂齋)〉는 논어의 첫 부분을 취했는데, 이들에 대한 제명(題名)의 취지는 〈고산기(高山記)〉에서 설명하고 있다. 잡영이란 제목 아래 구절(九絶)이라 붙인 9 수의 작품들은 대부분 작가의 인생관, 학문관, 경물관이 함축되어 있다. 퇴계의 시구를 용사(用事)한 〈광영담(光影潭)〉 등에서 도학자로서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특히 〈응암〉과 〈광영담〉에 나타난 활수(活水)의 도는 퇴계의 시와 유사한 면을 보여 준다. 경물(景物)을 대하면서 대상의 아름다움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의 정신적인 내면세계를 경물과 관련시킨 점이 두드러진다.

〈고산정사〉에서는 꾸준히 도를 지향하는 것을 평생의 일로 여기고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굽어보며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생각하겠다는 인생의 목표를 뚜렷이 밝히고, 〈만대암(晩對巖)〉에서도 뜬구름 같은 인생에 관계하지 않고, 푸른 것이 고금에 변하지 않는 것처럼 책 펴는 일을 하겠다고 하였다.

십육절(十六絶)이라 붙인 5 언 16 수에서는 앞의 9 수와는 달리 경물에 대한 정회(情懷)를 더 강하게 나타낸다. 〈조기(釣磯)〉・〈다조(茶竈)〉・〈골암(鶻巖)〉・〈구저(鷗渚)〉 등으로 구성된 십육절은 일정한 두 글자의 제명(題名) 방법에 일정한 형식을 사용하고 있다. 퇴계의 〈도산잡영〉과 대비해 보면, 제명 방법, 표현 방법, 주제 표출 등 유사한 점이 많다. 대산의 구절(九絶)과 퇴계의 십팔절(十八絶)이 유사하고, 대산의 십육절과 퇴계의 십육절이 유사하다.

이 밖에 일상생활에서도 그의 시에는 도학적 기풍이 실려 있다. 도학적 기풍이란 '철학적 진리[理語]'를 말하는데, 대산의 시에는 이어(理語)를 함유하고 있는 시가 많이 등장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일음시아완(主一吟示阿堉)〉이다.

한 점의 허령함이 나의 몸을 주재하지만 / 虛靈一點主吾身
온갖 사욕 밀려들면 참된 마음 쉬 잃으리니 / 衆欲交攻易喪眞
진중할사 하남에서 비결을 남겼으니 / 珍重河南留旨訣
모름지기 주일로써 공부 새로워야지 / 須從主一下工新

대산은 장남 이완(李堉)의 성품이 군자답지 못하여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절도가 없었기에 이 시를 지어 아들을 경계하였다. 주자의 〈중용서(中庸序)〉를 취하여 시구로 삼은 이 시는, 마음의 허령지각(虛靈知覺)은 하나뿐이므로 이 허령한 마음으로 일신(一身)을 주재하도록 하여 도의 진원(眞源)이 한결같이 간단(間斷)이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욕심이 생기면 진리의 원천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였다. 하남의

정 부자(程夫子)가 남긴 지결(旨訣)을 따라 도심으로 일신을 주장하며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계한 시이다.

이처럼 대산의 시 전체에서 중요한 의의는 정주(程朱)와 퇴계의 도학적 정신의 발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대학》과 《중용》 등을 주요 근거로 한 그의 도학적 사유는 명덕(明德)을 밝히기 위한 공부로 정심(正心)과 수신(修身)을 추구하는 그의 시격(詩格)에서 발견된다.

명리의 기로에서 물들까 깊이 두려우니 / 名利關頭怕染深
사람이 살아가며 어찌 겉모양만 꾸밀 텐가 / 人生那肯只裾襟
그대와 함께 노력하여 명덕을 높이어서 / 共君努力崇明德
답습으로 이 마음 그르치지 말아야지 / 莫被因循誤此心

세상의 명예와 이익에 물들 것을 두려워하며 인생살이에서 겉치레를 중시하지 않으려는 도학자적 경향이 잘 나타나 있다. 오직 명덕을 높여 그릇된 마음이 되지 않도록 권면하는 작자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대학》의 경문 가운데 명덕과 정심의 관계를 강조한 것이지만, 팔조목을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서 특히 정심을 더욱 강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산의 시 세계는 도학적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도학적 성격을 성인(成仁)을 통한 화민(化民)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대산의 경우는 화민보다는 성인에 치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심(道心)의 추구와 지향이 강하게 표출되었는데, 거의 모든 작품에 수기(修己)의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대산의 시적 관점이 《시경》으로부터 이어지는 선진(先秦) 유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작품의 구체적 모습으로 보자면, 정자(程子)와 주자(朱子)를 계승한 가운데에서도, 특히 퇴계의 영향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대산의 시 성격과 연원은 영남 남인의 도학적 성격을 나타낸 것이며, 그의 철학적 위상을 생각할 때, 대산을 소퇴계(小退溪)라 일컫는 것은 그의 시 세계에서 보이는 실상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3) 철학관

18 세기 영남학파의 사상사적 지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측면은 퇴계학의 변호와 율곡학의 비판이라는 두 가지 관심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동전의 양면을 차지하는 이 두 가지 관심은 퇴계가 심성론 방면에서 제시한 이발(理發) 명제가 타당한가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율곡학파는 이발 명제를 줄곧 비판하는 반면, 영남학파는 시종일관 퇴계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에 선다.

퇴계학에 대한 율곡학파의 비판은 알려진 것처럼 우계(牛溪) 성혼(成渾)과 율곡 이이 사이에서 전개된 인심도심논변에서 율곡이 퇴계의 학설에 대해 비판을 가한 것이 시작이며, 그 기원은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奇大升) 사이에 전개된 사단칠정논변으로 소급해 올라간다.

사단칠정논변은 인간의 감정을 사단을 중심으로 한 도덕 감정과 칠정을 중심으로 한 생리 감정을 이기론과 결합하여 일종의 도덕형이상학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이론적 정당화 작업을 둘러싸고 전개된 담론이다. 인심도심논변 또한 성리학적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인심과 도심을 사단칠정논변과 마찬가지로 이기론으로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담론이다.

논변의 과정에서 보이는 핵심적 문제 지점은, 첫째 '이가 운동성을 갖는다〔理有動靜〕'는 점과 둘째 '원리가 앞서고 실제는 부차적〔理先氣後〕'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퇴계의 성리설에서 '이유동정'과 '이선기후'의 의미를 각자의 입장에서 변증함으로써 퇴계학을 비판하거나 변호하는 것을 그들 자신의 급선무로 삼았던 것이다.

퇴계학파에서 율곡학파를 향한 비판의 포문을 처음 연 것은 활재(活齋) 이구(李榘, 1613~1654)였다. 그는 1650 년(효종 1) 우계와 율곡의 문묘종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집필한 인물인데, 바로 유직(柳稷)을 비롯한 영남 유생 900 여 명이 올린 〈영남유생논우계율곡불합종사소(嶺南儒生論牛溪栗谷不合從祀疏)〉가 그것이다. 그는 퇴계의 성리설을 이기호발(理氣互發)과 이선기후(理先氣後)를 근간으로 이해한다. 이에 입각하여 활재는 이가 발하여 사단과 도심이 되며, 기가 발하여 칠정과 인심이 된다는 이원론을 고수한다.

활재를 잇는 퇴계학파의 인물은 우담(愚潭) 정시한(丁時翰)과 갈암 이현일이다. 우담은 율곡이, 퇴계도 비판한 바 있는 중국 명대 유학자 나흠순(羅欽順)의 기(氣) 중심적 사고를 그대로 답습하여 퇴계의 성리설을 잘못 비판하고 있다고 하였다. 율곡의 견해대로라면 이와 기, 천리와 인욕의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 올바른 도의와 가치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이다.

갈암 이현일은 17 세기 영남 남인의 대표라는 정치적 입지에 걸맞게 학술적으로도 〈율곡이씨논사단칠정서변(栗谷李氏論四端七情書辨)〉을 썼을 만큼 율곡의 성리설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이었다. 이 글에서 모두 19 항목에 걸쳐 율곡의 성리설을 조목조목 비판하고 있는 갈암의 핵심 입장은 '이와 기는 단연코 두 가지〔理與氣決是二物〕'라는 말로 요약할 수 있다. 그는 이와 기가 불상리(不相離)의 관계에 있는 것은 맞지만, 이가 조화의 지도리가 되고 만물의 뿌리인 점을 고려하면 이는 형이상자이고 기는 형이하자로서 분명히 구분된다고 주장한다. 갈암이 볼 때 율곡의 가장 큰 문제는 이의 운동성을 부정하여 이를 공허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데에 있었다.

대산 이상정 이전에 율곡학에 대한 비판과 퇴계학에 대한 변호를 자임하고 나선 세 번째 인물은 청대(淸臺) 권상일(權相一)과 성호(星湖) 이익(李瀷)이다. 청대는 퇴계의 호발설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이발(理髮)과 기발(氣發)을 모두 인정한다. 청대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각각 이발과 기발의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가 발현하여 기가 따르고 기가 발현하여 이가 타는 경우에도 이와 기 사이에는 분명한 시간적인 선후가 존재한다고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청대는 이가 기를 낳는다고까지 말한다.

성호 이익은 이의 능동성을 주장하기 위하여 기발을 부정하고 이발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그는 사단과 칠정 모두 이발이라고 규정하면서, 이 양자의 구별은 형기(形氣)가 개입하면 칠정이고 형기의 개입 없이 이가 발하면 사단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성리학의 근본 전제가 모든 사태는 이와 기의 결합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소기(小氣)와 대기(大氣)를 구별하여, 사단은 이가 발할 때 마음을 구성하는 소기가 매개한다고 주장하고, 칠정은 이가 발할 때 형체를 구성하는 대기가 매개한다고 주장하여, 이가 발하되 기가 따르는 이발기수지(理發氣隨之)라는 하나의 형식으로 통일한다.

근세에 이기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불상리(不相離)'를 위주로 하면, 이(理)는 마른 나무나 죽은 물건이고 무릇 동정과 개합(開闔)은 모두 기기(氣機)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라고 거의 인식하니, 진실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장을 병폐로 여기면 또 이란 기와 상대하여 각자 발용(發用)하는 것으로 여기는 듯하니, 이는 굽은 것을 바로잡다가 지나치게 곧게 한 것이어서 이것 또한 굽은 것일 뿐입니다.

대산은 먼저 율곡학파의 학자들이 이를 죽은 물건처럼 여긴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이러한 율곡학파 학자들의 잘못을 교정하려다가 지나쳐 자신들 역시 또 다른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퇴계학파 내부의 학자들에게도 비판을 가한다. 이는 퇴계학파에게 균형 있는 시각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대산의 이러한 균형 잡힌 판단은 자신의 외증조이면서 퇴계학파의 적전으로 추앙받는 갈암에 대한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갈암이 율곡학파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으려 하다가 균형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요컨대 활재 이구를 선구로 하여 갈암 이현일, 우담 정시한, 청대 권상일, 성호 이익으로 이어지는 이들 퇴계 옹호론자들은 다소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이기(理氣)의 관계에 대해 혼합적 관점〔渾淪看〕이 아닌 분별적 관점〔分開看〕에 선다는 점에서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이들의 입장은 이의 능동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성리학적 이기론(理氣論)의 근본 전제를 벗어나는 논리적 한계를 지니게 된다.

대산의 조선 유학사에서의 위치에 대한 연구는 당시 남인 학계, 즉 영남 남인과 근기 남인이 처했던 정치・사회・사상의 복잡한 흐름 속에서 볼 때 그 의미를 깊이 있게 파악할 수가 있다. 특히 대산이 정리한 성리설의 문제의식은 율곡학파의 혼합적 관점을 비판하는 동시에, 영남 남인과 근기 남인의 내부에서 전개되던 과도한 분별적 관점의 편향성을 교정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던 것이다. 대산의 이러한 사상적 작업은 성리학적 이기론의 근본 전제를 균형 있게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도덕 실천의 주체로서의 인간의 능동성을 확보하고자 한 퇴계학의 근본 취지를 재확인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예학관

대산은 부친상을 치르면서 상례와 제례에 관한 선학들의 설을 널리 수집하여 《결송장(決訟場)》이라는 책을 집필하였다. 《결송장》은 뒷날 관례와 혼례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여 《사례상변통고(四禮常變通攷)》라고 이름을 고쳐 발간되었다. 그런데 《사례상변통고》는 이후 대산 생전에 다시 정리되어 간행하지 못하고 내려오다가, 대산의 손자인 소암(所菴) 이병원(李秉遠)에 의해 재편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소암은 대산이 편찬한 《사례상변통고》에다 조부의 사우 및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들 속에서 예와 관련된 부분을 뽑아 항목별로 보충하고, 직접 발문을 써서 《결송장보(決訟場補)》라고 명명하여 이를 10 권으로 발간하였다. 예서의 명칭이 《사례상변통고》에서 다시 《결송장보》로 바뀌게 된 것은, 애초에 대산이 명명한 《결송장》의 의미를 계승한다는 측면이 있지만, 대산의 문하인 동암 유장원이 대산과 예에 관해 문답한 것을 정리하여 편찬한 《상변통고》라는 예서가 간행되어 유포되었기 때문이다.

대산이 예학서의 제목을 '결송장'이라고 한 뜻은, 의례에 관한 의문은 송사를 해결하듯 여러 가지 근거 자료들을 모아 절충하여 풀어 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예학의 근본 원리로서 의리와 인정의 조화를 이루고, 절도의 형식과 의식의 규례로서 고례의 예법과 금례의 상황을 참조하여 상례와 변례가 통일되는 예법의 표준을 확립하고자 한 것이다.

《결송장보》는 《대산집》이나 《대산실기》에도 실려 있지 않지만, 대산의 9 대손인 이방수(李芳洙)가 1999 년에 간행한 《대산전서(大山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대산전서》에 수록된 《결송장보》의 서문은 대산의 학통을 이어받은 심재 조긍섭(曺兢燮)이 1866 년(고종 3)에 서문을 썼고, 이병원이 쓴 지(識)가 있다. 《결송장보》에 수록된 내용은 상례・제례・관례・혼례인데,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상례로 7 권이고, 제례가 1 권, 통례가 1 권, 관례와 혼례가 1 권이다. 《결송장보》는 장구마다 대산이 저술한 《결송장》과 이병원이 수정하고 보완한 보론(補論)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송장보》는 총 964 항목인데, 서술 방법은 처음에 대항목의 제목을 쓰고, 그 아래에 총론을 제시하고, 다시 그 아래 소항목의 제목을 쓰고 본문의 내용을 적었다. 상례는 총 720 항목, 제례는 총 66 항목, 통

례는 권 9 와 권 10 의 전반부에 걸쳐 모두 102 항목, 관례는 권 10 의 전반부에서 시작하여 76 항목에 달하는 절차를 서술하였다.

전체 구성상의 외형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자가례》에서는 통례와 관례, 혼례 그리고 상례와 제례 순으로 편차되어 있지만, 이 책에서는 상례와 제례가 먼저 나오고 통례와 관례 그리고 혼례 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이 예서가 애초에 상례와 제례에 주안하여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둘째, 권 4 의 해장(偕葬), 합장(合葬), 반장(返葬) 등과 권 5 의 여묘(廬墓), 반곡(返哭) 그리고 권 7 의 길제(吉祭), 국휼(國恤) 등의 항목은 《주자가례》에 없던 것을 보완한 것이다.

본문은 대체로 《주자가례》의 본문과 본주(本註)의 항목을 따르되, 《주자가례》의 편차 항목 아래에 대산이 적의하게 소항목을 세분화하여 각 항목에 관련되는 예설을 채집해 놓았다. 그런 가운데 중국의 각종 예서와 송유(宋儒)들의 제설을 먼저 싣고, 우리나라 선유들의 설을 그다음에 실었다. 선유들의 예설로는 퇴계 이황을 비롯하여 서애 유성룡, 한강(寒岡) 정구(鄭逑),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 후산(后山) 이종수(李宗洙)는 물론, 율곡 이이,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 명재(明齋) 윤증(尹拯) 등의 예설도 함께 실어 놓았다.

《결송장보》는 대산이 조선 중기 이후 예에 대한 시비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으로 만든 예서이다. 예의 대체는 변함이 없지만 변례에 대한 논의는 시대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예제를 적용할 때 시비와 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는 법률에 송사가 일어나는 경우와 같은 것이며, 송사를 결단하기 위해 천리와 인정이 필요하듯이, 대산은 수많은 의문변절(疑文變節)에 대한 객관적인 잣대로 천리와 인정을 들어 합당한 예제를 강구할 것을 주장하였다.

《결송장보》는 《주자가례》와 《국조오례의》를 근본으로 하였고, 퇴계와 서애 및 사계 등 선유의 예설을 소개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힌 저술이다. 대산은 먼저 《주자가례》의 정신에 따라 절검(節儉)을 중심으로 가례(家禮)를 실천할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공자가 《논어》에서 말한 "사치스럽기보다는 검소해야 하고, 번거롭게 하기보다는 슬퍼해야 한다."라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시왕지제(時王之制)인 《국조오례의》를 따라 신분에 맞는 예식을 따를 것을 요구한다. 천자와 제후 및 대부와 사 그리고 서인의 예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어기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대산의 예학 정신은 퇴계 이황과 서애 유성룡 및 사계 김장생의 예설 등 선배 유학자들의 예학 정신과 의례 실천의 맥과는 또 다른 양상으로 발전된 것이다. 동암 유장원의 《상변통고》는 18 세기 당대까지 영남 예학을 집성한 예서로 가장 높이 평가받는 저술이다. 동암은 대산의 문하에서 호문삼로(湖門三老)의 한 사람으로 학문적 명성이 있었으며, 어려서부터 예학 방면에 두각을 드러내어 대산으로부터 예학의 의문난처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통해 가르침을 받았다. 그 결과 동암은 60 세에 《상변통고》를 편찬하게 되며, 그 뒤 스승에게 나아가 마지막으로 《상변통고》를 질정받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스승이 세상을 떠나 그렇게 하지 못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상변통고》의 편찬 과정을 통해 볼 때, 동암의 《상변통고》는 대산의 예학적 관점과 일정하게 맥락이 닿아 있으며, 실제로 대산의 《결송장보》와 동암의 《상변통고》를 비교해 보아도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상변통고》는 《결송장보》의 예학 관점을 이어 받아 더욱 체계적이고 세분화된 작품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결송장보》는 《상변통고》의 남본(藍本)으로서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5) 경세관

대산은 29 세에 예전에 과거 시험을 준비하면서 몸으로 느낀 문제점과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모순들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하는 〈과거사의(科擧私議)〉를 집필하였다. 대산은 군주가 덕치를 행하면 모든 폐단이 사라질 것이라고 여겼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군덕의 함양과 함께 군주를 보좌할 수 있는 신하를 뽑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과거제는 폐단이 많았다. 대산은 특히 과거 시험으로 인해 학문 연마를 독실히 하지 않고 기괴한 문체에 힘쓰는 폐단이 적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대산은 현실을 고려하여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안을 구상하였다. 교육 제도를 정비하여 인재를 육성해서 관리로 등용하는 한편, 이와는 별도로 과거제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대산은 먼저 훌륭한 스승을 선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재상(宰相)을 비롯한 모든 관원이 각각 1 인씩 추천하여 그 가운데 덕행과 학행이 뛰어난 1 인을 태학의 선생으로 삼고, 그다음 8 인을 각 도의 선생, 그다음은 향교의 선생으로 선발하고자 하였다.

교육 기구는 상숙(庠塾) → 주현학(州縣學) → 도학(道學) → 태학(太學)의 4 단계를 거치도록 구상하였다. 8 세에 상숙에 입학하여 학문을 익히게 하고, 그중 재능이 뛰어난 자를 선발하여 주현학으로, 다시 도학으로,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태학에 입학시키는 제도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 수업 연한은 각각 3 년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대산의 교육 제도 개혁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영남 남인 특히 퇴계의 적통으로 자부하는 그는 당시 서울 지역의 학자들과 달리 과거 역시 학문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둘째, 관직 진출이 제한된 영남 남인의 관직 진출로를 구조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가문에서 관직을 독점하는 폐단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산은 이상의 교육 제도 개혁안을 바탕으로 과거 제도의 개혁안을 제시한다. 대산이 생각하기에 당시 과거 제도의 문제는 문사(文詞) 중심으로 선발하는 것이었다. 전혀 실용적이지 않은 문장 능력을 통해 관리를 선발함으로써 벌열 가문에 의해 과거가 독점되고, 이는 다시 선비의 습속마저 경박해지게 만들고 만다고 본 것이다. 아울러 명경시(明經試)의 경우도 단순한 암송에 치중함으로써 학문에 침잠하여야 얻을 수 있는 오의(奧義)를 체득할 수 없게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대산은 식년시(式年試) 외에 별시(別試)・증광시(增廣試)・정시(庭試)・알성시(謁聖試)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거 시험이 열리고 있다는 점 및 시험 과목도 명경(明經)・시부(詩賦)・논책(論策)・표전(表箋) 등 너무 번잡하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대산은 식년시를 제외한 모든 과거를 폐지하고, 과거 시험 또한 3 년에 1 차례만 시행하되, 식년시의 경우에는 명경(明經)과 사장(詞章) 각각의 방식을 두어 절반씩 선발하자고 주장하였다. 다만 기존과는 달리 명경의 경우는, 토가 틀리거나 번역이 틀려도 중요시하지 않고, 경서의 의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에 선발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하였다. 반면 사장의 경우, 기괴한 문장이나 잔재주에 현혹되지 말고, 의리에 근거해서 정확한 사실만을 지적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선발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선발 과정에서 무엇보다 고시관(考試官)이 공명정대하게 성적을 매기고 또 잡류가 섞이지 않도록 관적법(貫籍法)을 엄격하게 하도록 하였다.

이상과 같은 과거제 개혁안은 당시 과거 시험이 늘어나고, 서울의 경화사족(京華士族)들이 별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는 한편, 고위 관직으로의 진출도 별시 출신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폐단을 바로잡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던 영남 남인인 대산은 이와 같은 과거제 개혁을 통해 서울과 경기 지역이 독점하고 있던 정치권력을 어느 정도 분산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 대산에게 중요한 저술 가운데 하나가 바로 66 세의 고령에 지은 〈삼사형조참의잉진면군덕소(三辭刑曹參議仍陳勉君德疏)〉이다. 이는 신병을 이유로 형조 참의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담은 상소문으로, 임금에게 덕을 닦고 마음을 기르는 요점〔修德養心之要〕과 정치의 근원과 행정의 근본〔出治行政之本〕을 9 조목으로 나누어 상주한 것이다. 이른바 〈구조소〉라 불리기도 하는데, 입지(立志)・명리(明理)

・거경(居敬)・체천(體天)・납간(納諫)・흥학(興學)・용인(用人)・애민(愛民)・상검(尙儉)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입지(立志)이다. 뜻을 세우는 것은 마음에 목표를 정하여 기(氣)를 통솔하는 것으로 모든 일의 근본이 되니, 뜻을 세운 뒤에 그 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학문을 논할 때 입지를 우선으로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여기서 입지의 목표는 성인이 되는 것이다.

둘째, 명리(明理)이다. 이치를 밝히는 것은 사물의 당연한 법칙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의 경우는 마음이 사물이 되기에 마음의 이치를 밝혀야 한다. 예컨대 《대학》의 격물치지(格物致知)와 《중용》의 명선(明善)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거경(居敬)이다. 일상생활이나 정치 활동이나 모든 생활에 경(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마음이 몸의 주인인 것처럼 마음을 주재하는 것이 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은 국가의 모든 일을 주재해야 하는데, 아첨하는 신하들이 번갈아 임금의 지혜로운 생각을 혼란시킬 수 있으니, 언제나 경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넷째, 체천(體天)이다. 하늘을 본받는다는 것은,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를 본받아 언제나 성실하게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다섯째, 납간(納諫)이다. 간언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다스리고 천하의 선한 말들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기에 이를 용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서》에서 "나무는 먹줄을 따르면 곧아지고 임금은 간언을 따르면 성스러워진다."라고 한 것처럼, 임금은 성군(聖君)이 되기 위해서 간언을 용납해야 한다.

여섯째, 흥학(興學)이다. 학교를 흥기시키는 것은 학문을 흥기시키는 것이고, 학문을 흥기시키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옥을 다듬지 않으면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가르치지 않으면 훌륭한 인재를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다. 특히 주자의 〈공거의(貢擧議)〉를 참조하여 과거제를 새롭게 만들 것을 요구한다.

일곱째, 용인(用人)이다. 인재를 등용하는 것은 임금이 그들과 함께 정사를 다스려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백성들이 있기에 생겨나는 복잡다단한 일들을 임금이 혼자 처리할 수 없으므로 관직을 나누어 설치하고 그릇의 크기에 따라 정무를 위임하는 것이다. 특히 공자가 말한 것처럼 정직한 사람을 등용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을 버리면 백성들이 기꺼이 복종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는 백성들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니, 정직하고 덕성이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덟째, 애민(愛民)이다. 백성을 아끼는 것은 임금이 백성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백성 가운데 특히 농부는 천하의 큰 근본인 농사일로 고통받고 있는데, 농사철에 그들에게 부역을 독촉하고, 이를 어길 시에 그들에게 형을 가하여 횡액을 면치 못하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상검(尙儉)이다. 검소함을 숭상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절제를 본받아 사치를 경계하고 낭비를 줄여, 위로는 조정에서부터 아래로는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검박한 풍습을 통해 국가의 흥성을 이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산은 이상의 아홉 조항을 열거하여 말한 뒤, 이 아홉 조항이 덕성을 연마하고 본심을 배양하는 요체가 되고, 정치를 시행하는 근본이 된다고 하여 임금에게 덕성을 진작할 것을 요청한다.

6) 결론

대산 이상정은 외조부 밀암 이재의 문하에 나아가 수학함으로써, 퇴계 이황 → 학봉 김성일 → 경당 장흥효 → 갈암 이현일 → 밀암 이재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정맥을 계승하게 되었다. 밀암 문하에서 《소학》·사서(四書)·《근사록》·《심경》 등을 수업함으로써 학문적 기틀을 정립한 것이다. 특히 그가 20대 초에 퇴계가 편찬한 《주자서절요》를 통해 주자학의 기초를 확립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퇴계를 통해 주자를 만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대산의 경학 체계는 《소학》을 선행시키면서 사서(四書)를 중심으로 하여 삼경(三經)으로 나아가는 도학(道學) 전통의 독서 순서를 지킨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에 기반하여 그는 경(敬)을 중심으로 하여 덕을 닦고 도를 완성하는 수양의 원칙을 마련한다. 대산이 말하는 경(敬)의 공부는 외경(畏敬)과 독공(篤恭)을 실현함으로써 《중용》의 중화위육(中和位育)과 《예기》의 체신달순(體信達順)의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산에게 독서는 '보편적 원리〔道理〕'와 '인격적 덕성〔仁德〕'을 성취하는 효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었다.

도학 전통의 경학 공부를 통해 발전한 대산의 학문관은 그의 문학관에서도 보인다. 정자와 주자 그리고 퇴계의 시(詩) 세계가 도덕(道德)과 의리(義理)의 측면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것처럼, 대산의 시 세계에도 이들의 행로가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대산은 도덕과 문장을 일치된 것〔道文一致〕으로 파악한다. 그러므로 그는 "시(詩)는 마음의 바탕이 노래로 발현되어 나온 것이다. 맑고 한가하여 속세의 비린내를 끊어 버려야만 귀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다.

대산의 사상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은 퇴계학파와 율곡학파 사이에 있었던 성리학 논쟁에 대해 균형 있는 사유를 보여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사단칠정논쟁에 관하여 그는 이주기자(理主氣資)라는 명제를 제시함으로써 율곡학파의 견해와 퇴계학파 내부의 견해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도 조정하려는 자세를 취한다. 사단과 칠정을 통합적으로 인식함으로써 혼륜(渾淪)과 분개(分開)라는 양쪽 관점을 성리학의 근본 성격을 해치지 않는 측면에서 종합한 것이다.

예학의 영역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겼는데, 대산이 부친상 중에 상례와 제례의 의문(疑問)과 변례(變禮)에 관한 논의를 널리 수집하고 정리한 뒤 자신의 입장을 저술한 《결송장》은 그의 예학관을 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는 이후 손자인 소암 이병원에 의해 《결송장보》로 완성되었는데, 대산 예학이 결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이후 그의 문인인 동암 유장원이 편찬한 영남 남인의 대표적 예서인 《상변통고》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로 계승된다.

세상의 경영에 대한 그의 사고방식은 〈과거사의〉와 〈삼사형조참의잉진면군덕소〉 두 측면에서 보인다. 전자는 당대의 유명무실화된 과거제를 비판하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한 것인데, 과거 시험을 사장(詞章) 중심에서 의리(義理) 중심으로 바꿀 것과 과거의 명목을 대폭 간소화하여 과거제의 폐단을 줄이려고 하였다. 이는 특히 경화사족 및 벌열 가문들이 과거제의 폐단을 악용하는 것을 비판하고 영남 남인 등 정치권력에서 소외된 선비들을 공적 절차로 등용하려 했다는 측면에서 유의미한 것이다. 후자는 입지(立志)부터 상검(尙儉)에 이르기까지 아홉 조목을 제시하여 임금에게 덕을 닦고 마음을 기를 것〔修德養心〕을 요청하는 것이다.

대산의 사상적 기본 성격은 퇴계 사후 약 100년이 지난 뒤 갈암 이현일이 율곡학파의 퇴계학 비판에 대해 재반론함으로써 퇴계학의 문호를 굳건히 세우려고 했다는 것에 견주어 볼 때, 갈암 사후 약 100년이 지난 뒤 태어난 대산 이상정은 퇴계학의 학문 체계를 정밀하게 재해석하여 퇴계의 입장에 상반되는 견해의 한계를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퇴계학파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도 폭넓게 검토하여 퇴계학풍의 표준을 정리하였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에서 그는 퇴계학맥의 적전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대산의 사상사적 역할은, 퇴계 이황 → 학봉 김성일 → 경당 장흥효 → 갈암 이현일 → 밀암 이재로 이어진 퇴계학의 대명제인 '이발기수지(理發氣隨之), 기발이승지(氣發理乘之)'를 정밀히 하는 것이었으며, 시대적 요구에 맞게 이를 '이주기자설(理主氣資說)' 명제로 비정(比定)하여 율곡학파와 퇴계학파의 과도한 해석을 균형 있게 조화하는 동시에, 대산 사후 다시 이 명제를 토대로 하여 손재(損齋) 남한조(南漢朝) → 정재(定齋) 유치명(柳致明) → 서산(西山) 김흥락(金興洛) → 공산(恭山) 송준필(宋浚弼) 등으로 대산의 학문이 확대되고 발전되는 데에 초석이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연원과 전수에서 '대산의 사상과 조선 유학사에서의 위치'는 혼륜과 분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이 두 길을 변증법적 방법에 의하여 종합함으로써 편견을 타파하고 균형감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주-D001] 의리는 …… 것이다 :《大山集》 卷 35〈答金弘輔〉
[주-D002] 이같이 …… 있겠는가 :《大山集》 卷 43〈敬齋箴集說序〉
[주-D003] 형체가 …… 길이다 :《大山集》 卷 43〈制養錄序〉
[주-D004] 도와 …… 것이다 :《大山集》 卷 43〈鶴沙金先生文集序〉
[주-D005] 시는 …… 부족하다 :《大山集》 卷 43〈靜樂齋金公詩集序〉
[주-D006] 한 점의 …… 새로워야지 :《大山集》 卷 2〈主一吟示阿堉〉
[주-D007] 명리의 …… 말아야지 :《大山集》 卷 2〈雲寺會中次李景顔襟字却寄〉
[주-D008] 영남유생논우계율곡불합종사소 :《活齋集》 卷 1 疏,《孝宗實錄》 1 年 2 月 22 日.
[주-D009] 근세에 …… 뿐입니다 :《大山集》 卷 6〈答權淸臺〉
[주-D010] 갈암이 …… 것이다 :《大山集》 卷 20〈答李希道〉

제1권 / 시(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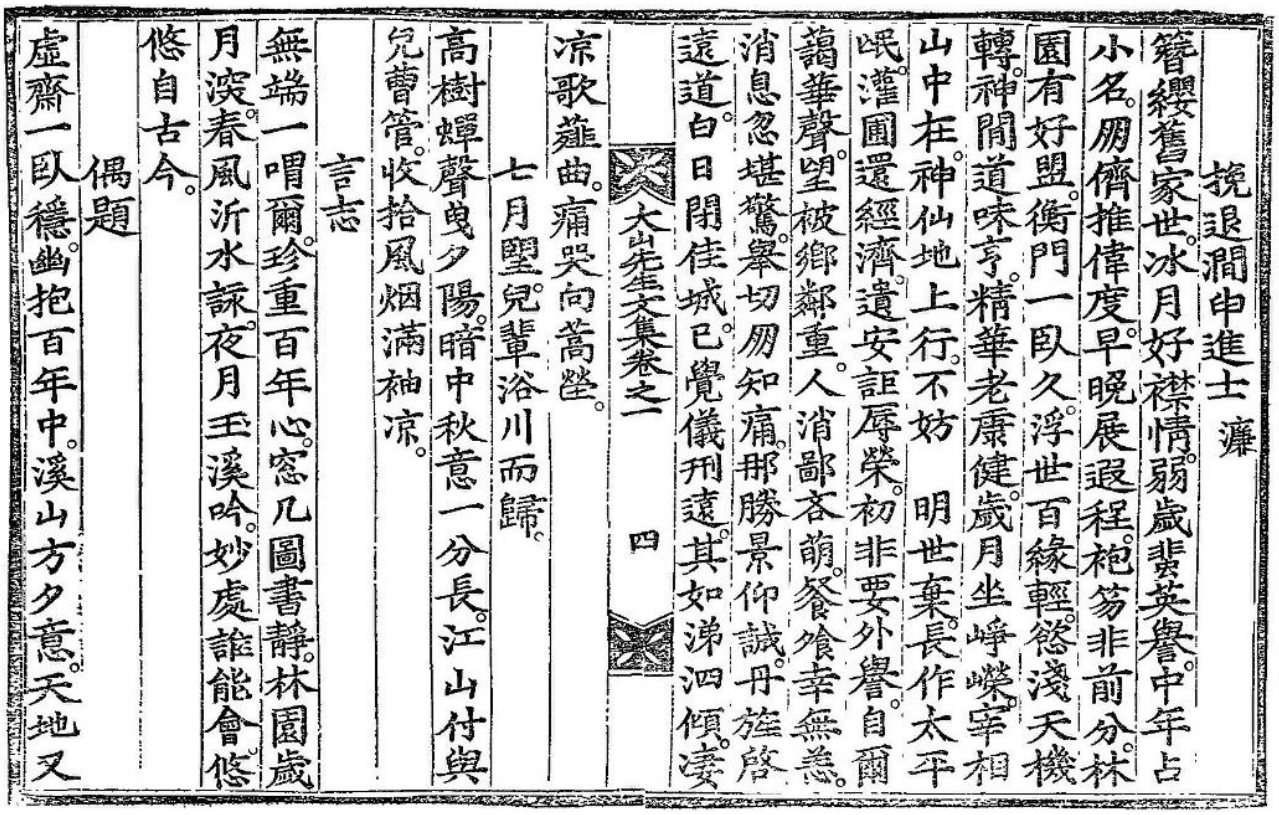
퇴간 신 진사 렴 에 대한 만시〔挽退澗申進士 濂〕

16世 염(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簪纓舊家世。冰月好襟情。弱歲蜚英譽。中年占小名。朋儕推偉度。早晩展遐程。袍笏非前分。林園有好盟。衡門一臥久。浮世百緣輕。慾淺天機轉。神閒道味亨。精華老康健。歲月坐崢嶸。宰相山中在。神仙地上行。不妨明世棄。長作太平氓。灌圃還經濟。遺安詎辱榮。初非要外譽。自爾藹華聲。望被鄉鄰重。人消鄙吝萌。餐飧幸無恙。消息忽堪驚。擧切朋知痛。那勝景仰誠。丹旌啓遠道。白日閉佳城。已覺儀刑遠。其如涕泗傾。凄凉歌薤曲。痛哭向蒿塋。

높은 벼슬 이어진 고가의 자손으로 / 簪纓舊家世
빙월 같은 좋은 심성 지니셨지 / 冰月好襟情
약관에 이미 명성이 자자했고 / 弱歲蜚英譽
중년에는 작은 이름을 차지하였지 / 中年占小名
벗들도 그 우뚝한 도량을 인정하여 / 朋儕推偉度
조만간 붕정만리 오르리라 여겼었지 / 早晩展遐程
벼슬은 평소의 바람이 아닌지라 / 袍笏非前分
숲과 동산에서 좋은 맹약을 맺었지 / 林園有好盟
형문에 한번 누워 오래도록 / 衡門一臥久
뜬세상 온갖 인연 가볍게 보았네 / 浮世百緣輕
욕심이 적어지니 천기가 움직이고 / 慾淺天機轉
정신이 한가하니 도미가 형통하네 / 神閒道味亨
정기는 늙어 갈수록 강건해지는데 / 精華老康健
세월은 부질없이 흘러가 버렸네 / 歲月坐崢嶸
재상이 산중에 거처하는 듯하였고 / 宰相山中在
신선이 지상에서 거니는 듯하였네 / 神仙地上行
성대에서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 不妨明世棄
길이 태평 시대의 백성이 되었네 / 長作太平氓
채소밭에 물 주는 것도 경제의 일 / 灌圃還經濟
안녕을 물려주니 어찌 욕되게 여기랴 / 遺安詎辱榮

애초에 바깥 명예 구한 것 아니로되 / 初非要外譽
화려한 명성이 절로 자자하였네 / 自爾藹華聲
향리의 무거운 명망을 받으시니 / 望被鄉鄰重
사람들은 비루한 생각이 사라졌네 / 人消鄙吝萌
드시는 것도 다행히 탈이 없으셨는데 / 餐飧幸無恙
들려오는 부음에 홀연 놀라네 / 消息忽堪驚
벗들의 애통한 마음 절실하니 / 擧切朋知痛
경앙하는 정성을 어찌 금하랴 / 那勝景仰誠
붉은 명정이 먼 길을 열어 / 丹旌啓遠道
한낮 즈음에 분묘를 닫았다네 / 白日閉佳城
모습이 멀어졌음을 깨닫고 나니 / 已覺儀刑遠
눈물이 흐르는 것을 어찌하리오 / 其如涕泗傾
처량하게 해곡을 부르면서 / 凄凉歌薤曲
무덤을 향해 통곡하네 / 痛哭向蒿塋


挽退澗申進士濂
簪纓舊家世。冰月好襟情。弱歲裴英譽。中年占
小名。朋儕推偉度。早晚展遐程。袍笏非前分。林
園有好盟。衡門一臥久。浮世百緣輕。悠淺天機
轉。神閒道味亨。精華老彌健。歲月坐崢嶸。宰相
山中在。神仙地上行。不妨 明世棄。長作太平
哦。灌圃還經濟。遺安詎辱榮。初非要外譽。自爾
藹華聲。望被鄉鄰重。人消鄙吝萌。餐飧幸無恙。
消息忽堪驚。舉切朋知痛。那勝景仰誠。丹旌啓
遠道。白日閉佳城。已覺儀刑遠。其如涕泗傾。凄
凉歌薤曲。痛哭向蒿塋。
七月墅兒輩浴川而歸。
高樹蟬聲曳。夕陽暗中秋意一分長。江山付與
兒曹管。收拾風烟滿袖凉。
言志
無端一喟爾。珍重百年心。窓几圖書靜。林園歲
月深。春風沂水詠。夜月玉溪吟。妙處誰能會。悠
悠自古今。
偶題
虛齋一臥穩。幽抱百年中。溪山方夕意。天地又

제1권 / 시(詩)

퇴간 신공이 분황할 때 지은 시에 차운하다〔次退澗申公焚黃韻〕

16世 염(濂)　　父 : 하석(夏錫)　祖父 : 재 (在)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澗谷幽幽退自持。山林還是廟堂姿。純誠袞袞承顔地。義色堂堂急難時。臺閣正須天下士。官銜虛賁塚前碑。傳家長物元如此。王誥天香不盡吹。

그윽한 계곡으로 물러나 지조를 지키니 / 澗谷幽幽退自持
산림에서 외려 묘당의 자태를 지녔네 / 山林還是廟堂姿
임금 모신 곳에선 충성심이 넘쳐 났고 / 純誠袞袞承顔地
위급한 환난에는 의로운 모습 당당했네 / 義色堂堂急難時
대각에는 참으로 천하사가 필요하건만 / 臺閣正須天下士
관직명만 부질없이 무덤 앞 비석을 장식했네 / 官銜虛賁塚前碑
집안에 전해지는 장물은 원래 이러하니 / 傳家長物元如此
왕고의 하늘 향기 끊임없이 불어오네 / 王誥天香不盡吹

大山先生文集卷之一　七
華冉冉流。
倦步
依依夕景翳山西。倦步時敎傍小溪。野樹雲多隨意度。壁蟲秋到盡情啼。雨餘花發攜兒看。病後詩成倩手題。遠客不來門自掩。一庭無限草生齊。
次退澗申公焚黃韻
澗谷幽幽退自持。山林還是廟堂姿。純誠袞袞承顔地。義色堂堂急難時。臺閣正須天下士。官銜虛賁塚前碑。傳家長物元如此。王誥天香不盡吹。
靜觀臺
小臺開向一山隅。不是尋常耳目娛。觸境盡成春意思。妙觀須用靜工夫。江流日夜天機轉。時謝寒溫道體俱。此樂洋洋開眼是。古人千載近如呼。
晩步臺上偶題
巖臺坐無語。秋思幾分長。老木知寒意。幽花逗晩香。野明晴島度。江遠午風凉。妙處誰堪會。山深自夕陽。

신군회 성 **의 〈산천재〉에** 차운하다 2수○신미년(1751, 영조27) [**次韻申君晦** 煜 **山泉齋** 二首○辛未]

18世 성(煜)　　父 : 중모(重模)　祖父 : 염 (濂)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寒日亭亭夕。客來風袂輕。城塵乃有此。鳳鳥如聞聲。入戶靑山近。憑欄古井明。波仙降洲渚。彷彿見雲旌。下有凌波小亭。亦齋中借景。故末句及之。

人境亦無遠。翛然松桂心。巖宜晩後對。江入意中臨。鳥語有時近。山光方夕沈。瓊華當歲暮。門掩獨寒襟。

겨울 해가 곱게 넘어가는 저녁에 / 寒日亭亭夕
바람에 소매 펄럭이며 손님이 찾아왔네 / 客來風袂輕
성안 속세에도 이런 곳이 있는가 / 城塵乃有此
봉황새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네 / 鳳鳥如聞聲
문에 들어서니 청산이 가깝게 보이고 / 入戶靑山近
난간에 기대니 옛 우물이 맑네 / 憑欄古井明
능파의 신선이 모래섬에 내려오니 / 波仙降洲渚
흡사 구름 깃발을 보는 듯하네 / 彷彿見雲旌

아래에 작은 능파정(凌波亭)이 있는데, 그 또한 산천재 안에서 경치를 볼 수 있다. 그래서 말구에서 언급하였다.

사람 사는 동네가 또한 멀지 않은데도 / 人境亦無遠
초연히 송계와 같은 마음이 드네 / 翛然松桂心
암벽은 해 저문 뒤에 바라볼 만하고 / 巖宜晩後對
강물은 마음속에 정겹게 들어오네 / 江入意中臨
때때로 새소리는 가까이 들려오고 / 鳥語有時近
저녁이라 산 빛은 흐릿해져 가네 / 山光方夕沈
좋은 재주 지니고 세모를 맞으니 / 瓊華當歲暮
문 닫고 홀로 찬 옷깃을 여미네 / 門掩獨寒襟

謂是遐年器。寧知遠有今。江湖當世志。圖史古人心。做處神機邃。喧中脚力深。英儀覩何地。豐岳暮雲沈。

次韻申君晦煜山泉齋二首 辛未

寒日亭亭夕。客來風袂輕。城塵乃有此。鳳島如聞聲。入戶青山近。憑欄古井明。波仙降洲渚。彷彿見雲旌。下有凌波小亭。亦齋中借景。故末句及之。

人境亦無遠。脩然松桂心。巖空晚後對。江入意中臨。鳥語有時近。山光方夕沈。瓊華當歲暮。門掩獨寒襟。

題李平仲滄屋臺

蒼巖一水近。茅屋玉人深。島啼清晝靜。高臥百年心。

雪行

悠悠涉長道。雪意何漫漫。晻靄川原樹。蒼蒼竹嶺關。客心隨處動。風氣中人寒。僕馬俱無力。且歌行路難。

長沙道中偶占

兩岸夾江口。一水來中間。洋洋走千里。氣勢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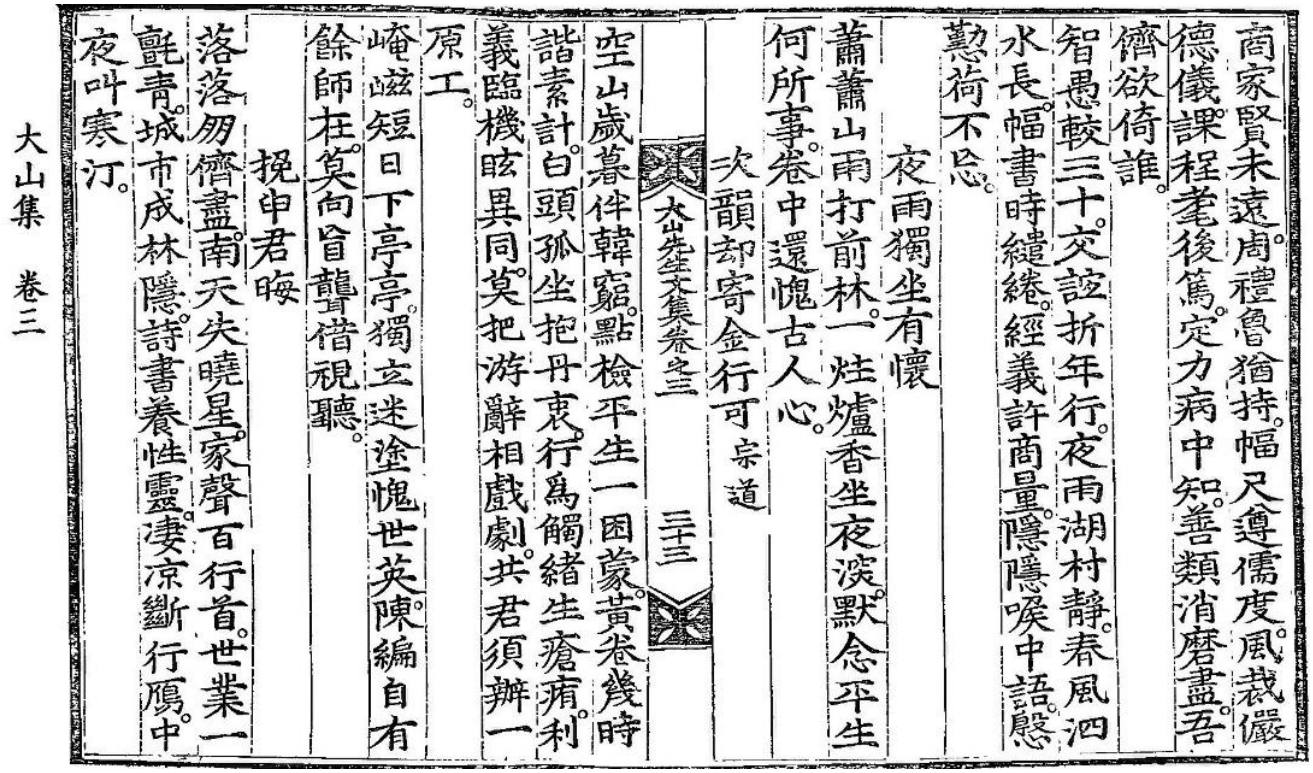
제3권 / 시(詩)

신군회에 대한 만시〔挽申君晦〕

18世 성(煜)　　父 : 중모(重模)　祖父 : 염 (濂)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落落朋儕盡。南天失曉星。家聲百行首。世業一氈靑。城市成林隱。詩書養性靈。凄凉斷行鴈。中夜叫寒汀。

스러져 벗들이 다 사라졌으니 / 落落朋儕盡
남쪽 하늘엔 새벽별 잃었어라 / 南天失曉星
집안의 명성 백행의 으뜸이며 / 家聲百行首
대대의 사업 담요가 푸르렀네 / 世業一氈靑
성시에서도 산림에 은거한 듯 / 城市成林隱
시서 읽으며 성령을 길렀다네 / 詩書養性靈
처량하다 무리 잃은 기러기여 / 凄凉斷行鴈
깊은 밤 찬 물가에서 울음 짓네 / 中夜叫寒汀


大山集　卷三

商家賢未遠。周禮魯猶持。幅尺遵儒度。風裁儼德儀。課程耄後篤。定力病中知。善類消磨盡。吾儕欲倚誰。

智愚較三十。交誼折年行。夜雨湖村靜。春風泗水長。幅書時繾綣。經義許商量。隱隱喉中語。慇懃荷不忘。

夜雨獨坐有懷

蕭蕭山雨打前林。一炷爐香坐夜深。默念平生何所事。卷中還愧古人心。

次韻却寄金行可宗道

大山先生文集卷之三　三十三

空山歲暮伴韓窮。點檢平生一困蒙。黃卷幾時諧素計。白頭孤坐抱丹衷。行爲觸緒生瘡痏。利義臨機眩異同。莫把游辭相戲劇。共君須辨一原工。

崦嵫短日下亭亭。獨立迷塗愧世英。陳編自有餘師在。莫向耳聾借視聽。

挽申君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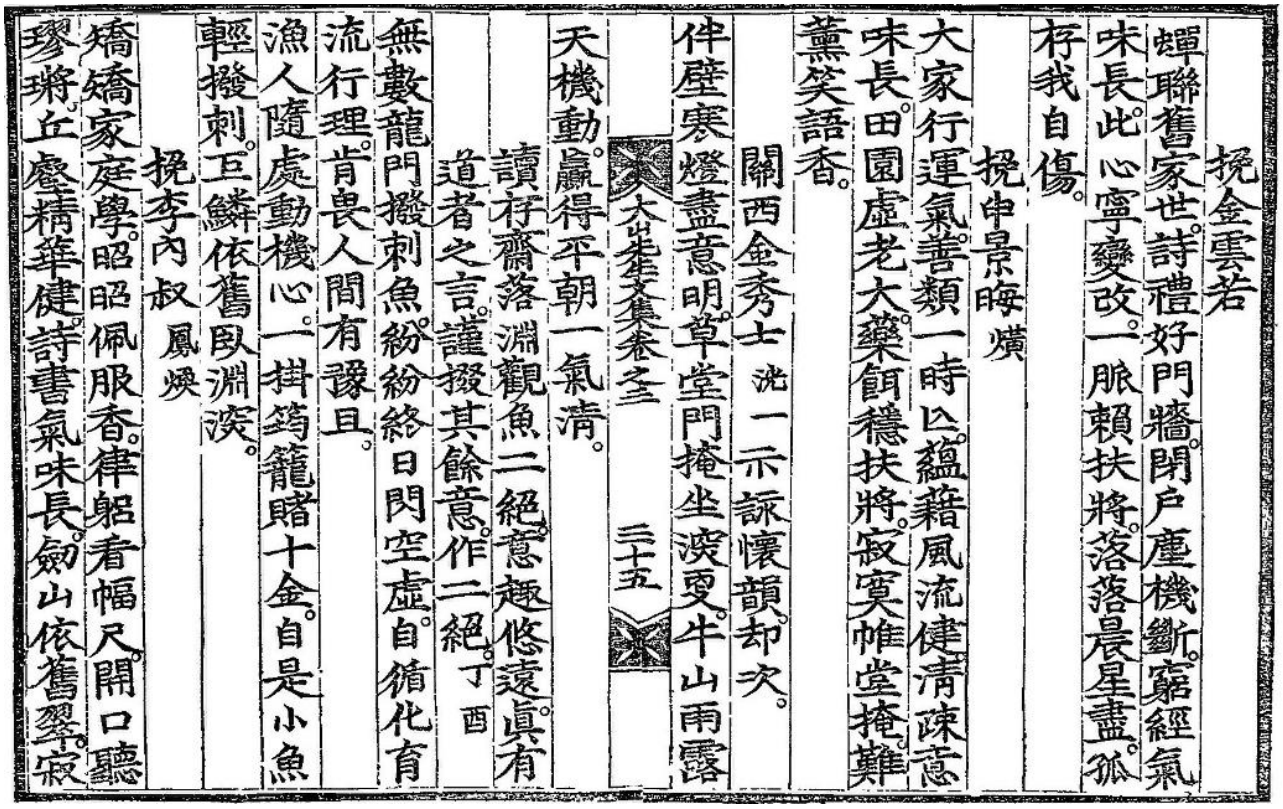
落落朋儕盡。南天失曉星。家聲百行首。世業一氈靑。城市成林隱。詩書養性靈。凄凉斷行鴈。中夜叫寒汀。

신경회 황 에 대한 만시〔挽申景晦 熿〕

18世 황(煌)　　父 : 중모(重模)　祖父 : 염 (濂)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大家行運氣。善類一時亡。蘊藉風流健。淸疎意味長。田園虛老大。藥餌穩扶將。寂寞帷堂掩。難薰笑語香。

명문가에 운기가 흐르더니 / 大家行運氣
선한 이들 일시에 사라졌네 / 善類一時亡
고상하고 멋스러운 풍류 강건했고 / 蘊藉風流健
맑고 소탈한 의취 깊었지 / 淸疎意味長
전원에서 공연히 늙어 가며 / 田園虛老大
약물로써 편안히 부지했네 / 藥餌穩扶將
적막하게 휘장에 가려졌으니 / 寂寞帷堂掩
웃음 향기 피어나기 어려워라 / 難薰笑語香


大山集　卷三
挽金雲若
蟬聯舊家世。詩禮好門牆。閉戶塵機斷。窮經氣
味長。此心寧變改。一脈賴扶將。落落晨星盡。孤
存我自傷。
挽申景晦　熿
大家行運氣。善類一時亡。蘊藉風流健。淸疎意
味長。田園虛老大。藥餌穩扶將。寂寞帷堂掩。難
薰笑語香。
關西金秀士　洸　一示詠懷韻。却次。
伴壁寒燈盡。意明草堂門掩坐。深更。牛山雨露

天機動。贏得平朝一氣淸。
讀存齋落淵觀魚二絕。意趣悠遠。眞有
道者之言。謹撥其餘意。作二絕。丁酉
無數龍門撥刺魚。紛紛絡日閃空虛。自循化育
流行理。肯畏人間有豫且。
漁人隨處動機心。一掛筠籠賭十金。自是小魚
輕撥刺。巨鱗依舊臥淵深。
挽李內叔鳳煥
矯矯家庭學。昭昭佩服香。律躬看幅尺。開口聽
琤琮。丘壑精華健。詩書氣味長。劒山依舊翠。寂

제14권 / 서(書)

신군회 성 와 신경회 황 에게 보내는 별지 기미년(1739, 영조15) [與申君晦 煜 景晦 熿 別紙 己未]

18世 성(煜)　　父 : 중모(重模)　祖父 : 염 (濂)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18世 황(煌)　　父 : 중모(重模)　祖父 : 염 (濂)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遺稿刊行。蓋爲百年之計。須是十分詳愼。方爲傳信之道。今此數條。初非日用常行之事。而皆或近於異感幻應。古來君子。雖或有此。然不應一人之身諸異畢臻。且以寢郎公。以兄弟之親。手錄孝友而皆無一語及此。且此數端。語意與小學所載王祥，崔山南事。恰然符契。或者象靖祖母少小在庭之日。習聞先生孝友。仍又傍逮小學諸人至行懿蹟。而八耋衰晩之後。精力短少。遂或認之爲先生事。又未可知。若果如此而張皇綴緝。眞以爲先生行蹟。則不惟先生謙恭懿謹之靈慊然不寧於冥冥。亦恐有損於僉賢誠愼事先之道。且以爲得於某家而記於某手。則在我私分。亦覺未安。蓋此數條。有之旣不足爲先生重。而其難處之端。略數之有此數樣。幸姑無刊劂。只藏在箱篋。以備傳聞之一說。似或得宜。更望照破。如有未安。乞賜回示。

유고(遺稿)를 간행하는 일은 백년의 대계이니 모쪼록 매우 상세하고 신중히 하여야 바야흐로 미덥게 전하는 방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몇 조항은 애초에 일상에서 늘 행하는 일이 아니고 모두 혹 기이하고 환상적인 감응에 가깝습니다. 예전 군자들에게는 혹 이런 일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몸에 여러 가지 기이한 감응이 다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침랑공(寢郎公)이 형제간의 지친(至親)으로 효우(孝友)를 손수 기록하면서 이 일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몇 가지 일은 말뜻이 《소학(小學)》에 실린 왕상(王祥)이나 최 산남(崔山南)의 일과 마치 부절을 맞춘 듯이 일치합니다. 혹 상정의 조모께서 친정에 있던 젊은 시절에 선생의 효우에 대해 익숙히 듣고, 이어 또 《소학》에 기록된 여러 사람의 지극하고 아름다운 행적을 두루 섭렵하였는데, 팔순의 노년이 된 뒤에 정력이 부족하여 드디어 선생의 일로 인식하였는지 또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과연 이와 같은데도 장황하게 편집해서 참으로 선생의 행적을 만든다면 겸손하고 공손하며 아름답고 조심한 선생의 영령께서 황천에서 척연히 편안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두 분께서 성실하고 신중하게 선생을 섬기는 도리에 흠이 될까 두렵습니다. 또 아무의 집에서 얻었고 아무의 손에 기록되었다고 하였으니, 저의 사적인 분수로 볼 때 또한 편안치 못합니다. 이 몇 조항이 있더라도 이미 선생의 무게가 더해질 것이 없고 난처한 단서를 대략 헤아려 보면 몇 가지가 있으니, 부디 우선 간행하지 말고 다만 상자에 보관하여 우선 전해 들은 일설로 갖추어

두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다시 바라건대 살펴보아 온당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부디 다시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略呈數杯恨不能多也。

與申君晦煜景晦熿別紙 己未

遺稿刊行。蓋爲百年之計。須是十分詳愼。方爲傳信之道。今此數條。初非日用常行之事。而皆或近於異感幻應。古來君子。雖或有此。然不應一人之身諸異畢臻。且以寢郎公。以兄弟之親。手錄孝友而皆無一語及此。且此數端。語意與小學所載王祥崔山南事。恰然符契。或者象靖祖母少小在庭之日。習聞先生孝友。仍又傍逮小學諸人至行懿蹟。而八耋衰晩之後。精力短

少。遂或認之爲先生事。又未可知。若果如此而張皇綴緝。眞以爲先生行蹟。則不惟先生謙恭懿謹之靈。憾然不寧於冥冥。亦恐有損於僉賢誠愼事先之道。且以爲得於某家而記於某手。則在我私分。亦覺未安。蓋此數條。有之既不足爲先生重。而其難處之端。略數之有此數樣。幸姑無刊劂。只藏在箱篋。以備傳聞之一說。似或得宜。更望照破。如有未安。乞賜回示。

答朴順之守悌○庚子

跧伏窮閻。不能出而交四方之友。尚未得聞名

제29권 / 서(書)

신자장 체인 에게 답함 갑신년(1764, 영조40) [答申子長 體仁○甲申]

20世 체인(體仁) 父 : 도만(道萬) 祖父 : 분구 (賁龜)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曩得數日之款。蓋前昔所未有。蕭寺後約。將欲更續未盡之歡。而適賤疾在躬。未由踐言。瞻望山門。但有悵想而已。卽承惠翰。憑審淸和。靜履神相。追隨杖屨。踏逐於雲山龜湖之間。所以發傍花隨柳之樂者多矣。病伏窮閭。宜如何悵羨邪。賢者志氣堅懇。朋儕中鮮有及之者。而徒以詞華科擧之累。未能斷決。尋常慨惜而未有力可以救拔。向者得於眉睫之間。已回轉得七八分。以前日堅懇於彼者而移之於此。將何求而不得哉。惟是時文應酬。又是目前障礙。新嗜未熟。宿技復逞。浸淫漸漬之間。難保其有萌。儘如來喩所慮。然父兄門戶之責。旣不能一刀兩段。則惟有分寸攀躋。爲兩行不悖之術。差自用力處耳。蓋時文應接之暇。偸得一兩時閒隙。或於夜裏無事之際。默坐澄慮。將已熟底義理文字。諷詠從容。深悅其意味。以澆灌其膠擾之胷次。如是積日累時之久。零星湊合。自有得力處。庶幾不大段爲彼所動。又須將窮通得喪榮辱利害。一切付之度外。以古人所謂不必得之心處之。雖日應擧而不爲所汨矣。早晩科事了後。著實用力於此事。使路徑不差。工夫無間。自有一段見處。然後內重而外輕。得深而誘小者可得而言矣。如象者。少小汨沒於科臼。全無頭緖。隨分撓奪。近略窺得此意而間以語人。未見有信用。敢以獻於左右。未知盛意以爲如何。

지난번에 며칠간 함께 지낸 것은 전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산사에서 다시 만나자는 약속은 다하지 못한 즐거움을 다시 이어 가고자 함이었는데, 마침 병이 생겨 그 말을 실천하지 못하였으니, 산문(山門)을 바라보며 그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곧이어 보내신 편지를 받아 보고서 청명하고 화창한 날씨에 조용히 잘 지내고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함께 따라가 운산(雲山)과 구호(龜湖)를 둘러보았다면 꽃과 버들을 따라 노니는 즐거움을 만끽하였을 텐데, 병으로 궁벽한 곳에 누워 있었으니 얼마나 안타깝고 부러웠겠습니까.

견고하고 성실한 그대의 뜻과 기상은 동류들 사이에서 따를 자가 없지만, 문장과 과거 공부에 얽매임을 끊어 버리지 못한 것을 평소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만났을 때에 이미 7, 8 할은 돌아섰으니, 저쪽에 쏟았던 지난날의 견고함과 성실함을 이쪽으로 옮긴다면 앞으로 무엇을 추구한들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또 당장의 장애이니, 새로 좋아진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몸에 밴 재주가 다시 일어난다면, 차츰 빠져들고 점점 젖어 드는 사이에, 참으로 그대의 염려처럼 그 싹을 보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부형과 집안에서 바라는 것을 한순간에 끊어 버릴 수 없다면, 조금씩 단계를 밟아 가며 양쪽 다 어그러지지 않는 방도를 스스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대개 과거 공부를 하는 겨를에 조금의 틈을 낸다거나 혹은 아무 일도 없는 밤중에, 고요히 앉아 정신을 맑게 한 뒤에 익히 알고 있는 의리(義理)에 관련된 글귀를 차분히 읊조리고 그 의미를 깊이 음미하여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요동치는 가슴속에 쏟아부으면, 조금씩 모여 절로 힘을 얻을 곳이 있게 되어 저쪽에 의해 크게 동요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반드시 궁핍과 현달, 득과 실, 영예와 치욕, 이로움과 해로움을 모두 생각에서 떨쳐 버리고 옛사람들이 말한 얻기를 기필하지 않는 마음으로 처신한다면 비록 날마다 과거에 응시하더라도 그것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조만간 과거가 끝난 뒤에 이 일에 착실하게 힘을 써서 길이 어긋나지 않고 공부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절로 일단의 드러난 곳이 있게 한 뒤라야, 안을 중시하고 밖을 가벼이 여기며 터득함이 깊고 유혹됨이 적은 경지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젊어서 과거 공부에 골몰하여 전혀 두서가 없었고 처지에 따라 흔들리고 빼앗겼는데, 근자에 대략 이 뜻을 엿보고서 간간이 남들에게 말해 주고 있으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렇게 그대에게 말을 하지만 그대의 생각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槐期已迫。不得不費了工夫。分了意思。然旣是免不得。只得略用心力。隨分應副。得喪成敗。一聽於造物者處分。儻然無所容心焉。雖日應科擧而不爲其所累。未知自省得如何。天下英材何限。盡爲此事所壞了。直是無可奈何。惟有明著眼牢著脚。不爲彼大段所動。旣應後須向經傳上做活計。硏究體驗。咀嚼得無味中之味。則向外之念。自然減得分數。積累久後。方有脫灑境界。子長旣有志。惟在勉力向前而已。來書點檢朝晝之功。不易如此用工。然冷淡鬧熱之勢。不相抵敵。邂逅之間。恐爲多者所勝耳。區區幸已免此。然見眼中諸人傾湫倒海氣象。猶覺此心不穩帖。以此知此事未易消除。除非大段用力不爲彼所轉動。方有少分休歇處。正不可草草說過便了也。

別紙

所詢禮疑。象也素昧於此等變節。何敢輒入是非林中。以折羣言之衷乎。左右於是乎失問矣。雖然。平居私相講明。不害爲格致之一端。恐或未遽有僭汰之嫌也。向來竊聞令從氏除服一節。固疑其當有委折。而未曾思量到所後喪之葬與未葬。旣而。聞其未克襄禮。則事之難處又有甚焉而未有可據之禮可以斷斯訟者。蕭寺酬酢。亦未得奉扣於諸叔。今承示委折。凡左右之所自疑而自解者。大略中窾。更不容有餘喙也。大抵練事。在所後葬後。則事皆順便而今旣不能。則本生家亦不可等待襄禮而退行練變之節。從氏以苫塊垢墨之餘。輒與向吉之祭。恐深有所未安。不但除服一事爲難處也。無已則來諭末段。待旣葬而卒哭詣本生家。哭而除衰服緇一段。似或爲得禮之變也。蓋同宮之喪。葬而后祭。則祥練之退行於葬後。固禮之所許也。今日之事。固非同宮之喪。然自從氏而言。則殯旣在宮。固不忍行吉禮於凶時。而其除衰服緇之節。比例於葬而後祭。恐未有大害也。其入哭變除之節。來諭縣蕝。亦甚精密。但不與練祭。極力營葬。此一段。求之人情。恐或未然。夫出後子。固當致隆於所后。然亦不當太輕於生恩。是日也正人子罔極之辰。暫釋營葬之事而專意於哀痛。恐亦情禮之所不可已也。當行練之日。雖不敢與祭。而依來敎。別立門外以哭。待行祀畢。入哭盡哀。未知如何。蓋不敢與祭。以吉凶不可相襲。旣祭之後則恐無不可也。

大祥仍服緇。不但屛翁說。疑禮問解。亦有說如此。承用恐無妨也。如此則別無從吉之礙。禫時。恐當以深衣方笠。以除緇服。蓋重服在身。旣不可用玄冠吉帶。則只得如此耳。至於尋常來往。入哭必服緇。恐或未然。蓋變除大節。固當各服其服。而居同一里。朝夕來往。必欲易緇以入。則恐涉煩文。未知如何。老先生雖有是訓。然曰卒事反喪服。則亦以有事於殯宮而言。恐不必指尋常往來也。幸更考如何。

禮始死而復。遂易服服深衣。卽所謂未成服之服也。今貧家無以及於禮。則用道袍直領之屬。蓋出於事勢之便宜耳。從氏雖服本生喪。而當後喪易服之際。當服新喪未成服之服。恐不可仍服舊喪深衣也。未知如何。

한집에 사는 사람이 상을 당하면 제사는 장례를 치른 뒤에 지내는 것이니, 상제(祥祭)와 연제(練祭)를 장례 이후에 뒤늦게 지내는 것은 참으로 예에서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은 한집에 사는 사람의 상은 아니지만 종씨의 입장에서 말하면 집에 빈렴(殯斂)을 하였으니, 참으로 흉시(凶時)에 차마 길례(吉禮)를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복을 벗고 치복을 입는 것은 장례를 치른 뒤에 제사 지내는 것과 견주어지니, 큰 해는 없을 듯합니다.

들어가 곡하고 상복을 바꿔 입는 예절은 그대의 편지에서 정리한 것이 또한 매우 정밀합니다. 그러나 "연제를 잘 지내기보다는 힘을 다해 장례를 치르는 것이 낫다."라는 한 단락은 인정에 비추어 볼 때에 그렇지는 않은 듯합니다. 후사로 들어간 아들은 당연히 후사로 들어간 집을 극진히 높여야 하지만 또한 낳아 준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날은 바로 자식의 입장에서 망극한 날이니, 잠시 장례 치르는 일을 접어 두고서 애통함에 마음을 쏟는 것 또한 정리와 예의상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제를 지내는 날에 감히 제사에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그대의 말처럼 문밖에 따로 서서 곡을 하다가 제사가 끝나거든 들어가 곡을 하며 애통한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감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길흉이 서로 섞여서는 안 되기 때문이니, 제사를 지낸 뒤라면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

대상에 그대로 치복을 입는 것은 병옹(屛翁)만의 의견이 아니라 《의례문해(疑禮問解)》에도 이와 같은 말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면 길함을 따른다는 혐의도 따로 없을 것입니다. 담제 때에 마땅히 심의(深衣)와 방립(方笠)을 입고 치복은 벗어야 할 듯하니, 자신이 중복(重服)을 입고 있어 현관(玄冠)과 길대(吉帶)를 착용할 수 없다면 이와 같이 해야 할 뿐입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왕래하다 들어가 곡을 할 때에 반드시 치복을 입는다는 것은 아마 그렇지는 않을 듯합니다. 상복을 갈아입는 것은 중요한 절목으로 참으로 각각 그 상황에 합당한 복제를 입는 것인데, 한마을에 살아 조석으로 왕래하면서 반드시 치복으로 갈아입고 들어가려고 한다면 너무 번잡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노선생이 비록 이렇게 말은 하였지만, "제사를 마치고는 도로 상복을 입는다.〔卒事 反喪服〕"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빈궁(殯宮)에 제사 지내는 일이 있어 그렇게 말한 것이지 반드시 평소 왕래함을 가리킨 것은 아닌 듯합니다. 부디 다시 상고해 봄이 어떻겠습니까?

예에, 사람이 죽으면 초혼(招魂)을 하고서야 복장을 바꾸어 심의를 입는다고 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성복(成服)하기 전의 복장입니다. 지금 가난한 집에서 예에 맞출 수 없으면 도포(道袍)와 직령(直領) 등을 착용하는데 이는 형편에 따른 것일 뿐입니다. 종씨가 비록 본생가의 상복을 입더라도 후사로 간 집안의 상사를 위해 복장을 바꾸어야 할 때에는, 마땅히 새로 발생한 상사에 맞춰 성복하기 전의 복장을 입어야 하니, 이전 상사에 맞춰 입었던 심의를 그대로 입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前書未覆。後問繼辱。種種感佩。仍審始寒。起居增相。惟是俗務膠擾。自是免不得。須隨事觀理。不爲撓奪。方是用工處。來書前後。每以是爲憂。既不得免而徒自煎熬。亦恐有妨於淸平和樂之象。幸加檢省如何。所詢禮疑。素昧此等變節。何足以折衷。乃今委使枉叩則尤過矣。第相悉之間。不敢有問無對。幸廣詢禮家。俾無蹉躓於大事如何。

別紙

喪人告廟葬後則古人已許之。以布直領布網巾行之。恐無妨。白笠恐駭見。沙溪許用頭巾。未知如何。或用平凉子。惟在所擇耳。宗孫旣入廟。則諸子同入。恐無妨耳。

告廟一節。曾聞諸外家幷設茶果。只告當位。而丘儀節及沙溪說。許獨設當位。未知當從何說。然旣不別龕室。則只設於所告之位。亦似未安。緣此而欲只用口告。則遷墓大事也。昧然行告。亦涉輕遽。無已則從幷設爲是否。

行葬只告於廟。旣葬行虞而歸。則當哭而畢事。故出主於寢。然儀節亦只行告禮。告祝見備要。 與朱子祭告之意似不同。然世俗皆遵用儀節。只得從之耳。竊意出主於寢。只告辭後哭盡哀。參降辭神。恐當不哭。

이전 편지에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는데 뒤를 이어 계속 물어 오니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워지기 시작하는 때에 더욱 잘 지내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지러운 세상일은 본래 벗어날 수 없으니, 반드시 일에 따라 이치를 살펴 동요하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공부가 될 것입니다. 전후로 보내신 편지에서 늘 이것을 근심하였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애만 태우고 있다면 이 또한 맑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데에 방해가 될 것이니, 더욱더 잘 살피기를 바랍니다.

의심스러운 예에 대해 물어 왔지만 변례를 적용해야 하는 이러한 조문에 평소 밝지 못하니 어떻게 절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람을 시켜 묻는다면 더욱 잘못일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잘 아는 사이에 감히 질문에 대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부디 예학자들에게 널리 물어 큰일에 그르침이 없기를 바랍니다.

별지(別紙)

상인(喪人)이 장례 이후에 고묘(告廟)하는 것에 대해 고인들이 허락하였으니, 포직령(布直領)과 포망건(布網巾)으로 행하는 것은 무방할 듯 하고, 백립(白笠)은 사람들의 이목을 놀라게 할 듯합니다. 사계(沙溪)는 두건(頭巾)을 허용하였는데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평량자(平凉

子)를 쓰기도 하는데 정하기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종손이 이미 사당에 들어갔다면 여러 자제들이 함께 들어가는 것은 무방할 듯합니다.

고묘의 절차는 전에 외가 쪽에서 들으니 다과는 모두 진설하고 해당 신위에만 고한다고 하였고, 구준(丘濬)의 《가례의절(家禮儀節)》과 사계의 언급에는 해당 신위에만 진설한다고 하였으니, 어느 의견을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실(龕室)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니 고해야 하는 신위에만 진설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듯합니다. 이 때문에 말로만 고하고자 한다면, 천묘(遷墓)라는 큰일을 불분명하게 고묘하는 것이니 이 또한 너무 소홀한 것입니다. 그만둘 수 없다면 모두 진설하는 것을 따라야 맞지 않겠습니까.

장례를 행할 때에는 사당에 고하기만 하고, 장례를 마친 뒤 우제를 지내고 돌아와서는 곡하고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신주를 정침(正寢)으로 내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례의절》에서도 고묘의 예만 행한다고 하여 - 고축(告祝)은 《상례비요(喪禮備要)》에 보인다. - 제사하며 고한다는 주자의 뜻과는 같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세속에서 모두 《가례의절》을 준용하기에 단지 그것을 따를 뿐입니다. - 나의 생각으로는 신주를 정침으로 내와 말만 고한 뒤에 슬픔을 다해 곡을 하고, 참신(參神), 강신(降神), 사신(辭神)에는 곡을 하지 않아야 할 듯합니다. -

九月一日書。滿紙縷縷。足見探玩之深。眷顧之厚。旋値私家禍故。楚愴悲遑。繼聞左右有千里之遊。因循稽謝。月已三彀矣。卽日冬深。侍餘學履勝相否。日用觀省之工。想益精深矣。雨谷之喪。氣短心死。半月十日未瘳也。其德宇崇深。問學精懇。吾儕所恃而爲歸。而一朝奄忽如此。不但悼死而已。左右親懿之至。從遊之久。想此懷同之也。象瘡癤在身。近益肆毒。不能窺庭戶跬步。幸有數三少友肯來料理魯論。亦只是文義 P 講討而已。思得與左右者朝夕相處。得聞其精詣之論而不可易得。但有瞻詠之勤耳。形體氣質之論。得蒙許可。足可以自信一得之愚。而亦見左右之不戀舊見而儻然惟是之從也。末段應事猛省之意。讀書澆灌之功。皆自身親經履諳悉中說來。非但空言坐談之比。深用歎尙。未知日來用心何如。亦覺有進步處否。第念此事體大。擧莫能勝。行莫能盡。須大著肚硬著脚。方可擔夯得去。古人所以有若無。實若虛。犯而不較。不是故意如此。蓋眞見義理之無窮而常慊 P 然有不自滿之意。竊覵左右志意堅懇。見解精詣。往往困於所長。而於謙虛退遜舍己察邇之意。或似有不滿人意。幸常存百不解百不能之心而取諸人以爲善。則其進於道也。益恢乎有餘地矣。無諸己而求諸人。亦可笑。然思慮偶及。不敢自隱。欲效古人偲切之義。亦因以陰求藥石之報耳。相望數舍。會合難圖。書札不能盡意。深用悵悵耳。餘惟幾侍學俱勝。慰此慕望。

종이 가득 자세히 적은 9 월 1 일의 편지를 통해 학문의 깊이와 생각해 주는 후의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집안에 우환이 생겨 슬픈 마음에 경황이 없었고, 연이어 그대가 멀리 길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이렇게 답장이 3 개월이나 늦었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깊어졌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학문을 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까? 일상에서 살피는 공부가 더욱 정밀하고 깊어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우곡(雨谷)의 상(喪)에 기가 움츠러들고 정신이 나가 열흘이고 보름이 지나도록 헤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높고 깊은 덕량과 정밀하고 진실된 학문은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는 바였는데 하루아침에 이같이 갑자기 떠나가니, 단순히 죽음이 슬플 뿐만이 아닙니다. 그대도 그와 친분이 매우 두텁고 교유한 지도 오래되었으니, 내 마음과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나는 종기가 근래에 더욱 심해져 마당을 걸어 다닐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다행히 몇몇 젊은 친구들이 기꺼이 찾아와《논어》를 공부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단지 글자 뜻만 강론할 뿐입니다. 그대와 조석으로 마주하여 조예 깊은 논의를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보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 그저 그리운 마음만 간절합니다.

형체(形體)와 기질(氣質)에 대한 주장을 인정받아 나의 의견에도 하나쯤은 맞는 것이 있음을 자신할 수 있었고, 이전 견해에 연연하지 않고 주저없이 옳은 것을 따르는 그대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단락에서 언급한, 일을 대하여 맹렬히 살피는 뜻과 독서를 통해 가슴을 적셔 준 공효는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하여 잘 아는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말로 경험하지도 않은 빈말에는 비할 것이 아니니, 매우 탄복하는 바입니다. 근래에는 마음 씀이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발전이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다만 생각건대 이는 큰일이라 거행을 감당할 수도 다할 수도 없으니, 반드시 크게 마음을 먹고 굳건히 발을 디뎌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옛사람이 있어도 없는 듯이 하고, 찼어도 빈 듯이 하고, 무례해도 따지지 않았던 것은 일부러 이같이 했던 것이 아니라, 의리가 무궁함을 참으로 알았기에 항상 부족하게 느껴 자만하지 않는 마음을 지녔던 것입니다.

내가 보니 그대는 의지가 굳고 견해가 정밀하지만 왕왕 잘하는 것에 애를 쓰느라 겸허히 물러난다거나 자신의 주장을 버리고 주변을 살피는 뜻에는 부족함이 있는 듯합니다. 항상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다 잘할 수는 없다는 마음으로 남에게서 취하여 선을 행한다면 도의 추구에 있어 더욱 넉넉하고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과오가 없은 뒤에야 남에게 요구하는 것인데, 또한 우습습니다. 그러나 우연히 미친 생각을 묻어 둘 수가 없어 옛사람들이 자상하고 간절히 조언하던 뜻을 본받고자 한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나의 잘못을 바로잡아 달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은데 만나기는 어렵고, 편지로는 마음을 다 표현할 수 없어 매우 서글플 뿐입니다. 그 밖에 부모님을 모시는 일과 학문이 모두 평안하여 멀리서 그리는 이 마음에 위안이 되게 해 주십시오.

看文窒礙之喩。須是實有工夫。方有所疑。沈潛 玩繹之久。會有怡然融釋處。但零文碎義

。縱饒會得。亦不濟事。須是於大頭段大肯綮處。眞箇透徹。意思自別。病痛自去。日用之間。便有實得力處。未知近日用工果如何耳。

글을 보는 데에 명료하지 않다는 말은 반드시 실제의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스러운 곳이 있거든 오래도록 깊이 연구하면 환하게 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글과 단편적인 뜻은 많이 모은다고 하더라도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반드시 크게 핵심이 되고 크게 긴요한 곳을 참으로 꿰뚫어야, 생각이 절로 분명해지고 병통이 절로 사라져 일상에서 실제 힘을 얻을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근래의 공부가 과연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纔有一書未達而惠書先墜。自咎不敏耳。信后多日。侍餘服履何如。賢胤一見。知法門矩度。未能深叩所蘊而遽爾告別。但有悵恨也。象靖今年陡覺衰憊。非自強時節。回顧夙心。憮然自悼。思與如左右者。朝夕遊處。以策疲懶。而竊想近日况味未可以及此。瞻言寤歎而已。水下十里有高山者。泉石頗佳。前冬縛屋數間。欲爲暮年隱約盤旋之地。早晚可攜書高臥。而修葺未了。財力不逮。徒使人係念耳。竊味來書。有不忘所事之意。當喪難悲遑。不易如此用工。然近日覺得尋摘句讀。全不濟事。須沈潛究玩。反身體驗。到氣質變化。德性常用。方是究竟處。然才看得到此。而日用之間。四凹八凸。無一得力處。眞延平所謂只是說也者。畢竟何益。

겨우 편지를 써서 아직 전달하지도 못하였는데 보내신 편지가 먼저 도착하였으니, 민첩하지 못함을 자책할 뿐입니다. 소식을 전한 뒤로 여러 날이 지났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잘 지내십니까? 그대의 아들을 만나 보고는 법도 있는 집안의 규범을 알았으나, 축적된 바를 깊이 물어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이별하였으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나는 금년에 갑자기 쇠약하고 피곤해져 강건한 시절이 아님을 알겠으니, 예전의 마음을 되돌아볼 때에 멍하니 절로 서글퍼집니다. 그대와 같은 사람들과 조석으로 어울리면서 지치고 게으른 몸을 면려하고 싶지만 근래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에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 그리운 마음에 잠 못 들고 탄식만 할 뿐입니다. 물길을 따라 10 리쯤 내려가면 고산(高山)이라는 곳이 있는데 산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지난겨울 그곳에 몇 칸 집을 지어 노년에

조용히 거처할 곳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조만간 책을 옮겨 가 편히 지낼 수 있을 텐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력이 미치지 못하니 신경만 쓰입니다.

보내신 편지를 가만히 살펴보니, 이것을 일삼으려는 뜻을 잊지 못하고 있지만 상난(喪難)을 당하여 경황없이 슬플 때에는 이 같은 공부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문장을 베껴 오고 구두를 떼기만 하는 것은 전혀 일을 이루지 못하는 것임을 깨달았으니, 반드시 깊이 연구하고 몸소 체험해야만 기질이 변화되고 덕성이 항상 쓰이게 되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겨우 이 같음을 알게 되었지만 일상에서는 사방팔방으로 굴곡이 있어 하나도 힘을 얻을 곳이 없습니다. 참으로 연평(延平)이 말한 "단지 말뿐이다."라는 것이니, 결국 무슨 보탬이 있겠습니까.

歲暮天寒。不禁慕徒之懷。卽拜情訊。意寄勤摯。傾喜十分。仍審侍履佳勝。惟是憂宂牽縛之喻。自是有家所不免。須隨事盡分。無厭惡之意。常以書冊義理。灌澆胷次。勿爲彼所汨沒。久久自得力。想不待人言矣。象靖偶被擸掇。強疾趨肅。畢竟蹭蹬而歸。繼聞臺章拈掇。代者卽出。便是一事收殺也。大抵始終只是一病字。來諭縷縷。多揷入外來義理。與自家這裏不相涉入。令人愧笑耳。崔仲久死於旅館。不謂其淸資敏識乃至於此。痛傷不自禁。想交遊之久。此懷同之也。

한 해가 저물어 날씨가 찬 계절에 벗을 그리는 마음 금할 수 없었는데, 정성 어린 정다운 편지를 받고 보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서 평안히 지내고 있음을 잘 알았습니다. 다만 매어 있다고 말한 근심과 잡다함은 본래 집에서는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일에 따라 본분을 다하여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하며, 항상 책 속의 의리로 가슴을 적셔 주어 저쪽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데, 오래도록 스스로 힘을 얻고 있으니 이런 말들이 필요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는 우연히도 벼슬에 천거되어 병을 무릅쓰고 억지로 숙배하러 나섰지만 결국 비틀거리며 돌아왔고, 뒤이어 들으니 대간(臺諫)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후임자도 즉시 정해졌다고 하니, 이것은 다 정리된 일이며, 나는 시종 병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보내신 편지에서 자세히 말한 것은, 밖에서 끌어온 의리를 많이 삽입하여 이 마음과는 별 상관이 없으니, 부끄럽고 우습기만 합니다.

최중구(崔仲久)가 여정(旅程) 중에 죽었다고 하는데, 맑고 재주 있으며 영민하고 박식했던 자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애통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대도 오랫동안 교유했으니 내 마음과 같으리라 생각됩니다.

聲問闊焉。懷思歲暮益苦。昨得所惠書。細審省暇學履珍相。深用欣慰。象靖杜門吟憊。衰相轉具。回顧夙心。未有以副萬分一。所以寄望於僉君子者不翅在己之切。玆承示諭。知有斆學相長之益。令人心開目明。未委所與處者幾人。所講讀何書。反復研討之間。必有好議論好疑難。恨相去遠。不能聽其緖餘以自慰也。所喩一二條未透徹處。果是何等義理。若小小文句。固不妨姑且謾過。若是大頭段切緊處。幸因便錄示。得與往復。商量邂逅。交有所益也。竊覩高明志意堅懇。思索精深。朋儕少有及之者。然堅之過而或近於牢執己見。精之過而或涉於務極苦澀。與少年初學共處而自以長者自居。則攻人之失而人無攻我。喜人之受敎而己無所受敎。不知不覺。自墮於自主張太過而無以來天下之善。以區區平日所折肱者而知左右之亦或不免也。須廣大心胷。恢拓田地。惟知義理之無窮而脫然惟是之從。反復研究。親切體認。仍須就自家日用動接處。驗得與所講道理相似與不相似。低首下心。寸蹐尺攀。常見其不足而懍乎有恐失之心。庶幾有實地可据而不墮於悠悠矣。感辱問之意。聊以己所勉焉而未能者而以助竿頭之一步。未知盛意果以爲如何也。

소식이 뜸하였는데, 세모(歲暮)가 되니 그리운 마음 더욱 간절하였습니다. 어제 보내신 편지를 받고서 부모님을 모시는 여가에 학업도 평안하다는 것을 잘 알게 되어 매우 기쁘고 위안이 됩니다. 나는 문을 닫고 들어앉아 병으로 신음하면서 더욱 쇠약해졌으며, 예전에 마음먹었던 것을 되돌아볼 때에 만분의 일도 부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때문에 나의 경우보다 더욱 절실히 여러 군자에게 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내신 편지를 받고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보탬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으니, 마음이 열리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강독하는 것은 어떤 책입니까? 반복하여 연구하는 중에 반드시 좋은 의논과 좋은 의문이 있을 텐데, 멀리 떨어져 있기에 일부나마 들으며 위안을 삼을 수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터득하지 못한 한두 조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리입니까? 소소한 문구는 우선 제쳐두어도 무방할 것이며, 크게 핵심이 되고 중요한 곳은 인편을 통해 적어 보내 주십시오.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서로에게 유익할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 그대의 굳은 의지와 정밀한 생각은 동류들 사이에서 미칠 수 있는 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굳음이 지나치면 자신의 주장을 고집하는 데에 가까워지고, 정밀이 지나치면 매우 난삽함을 추구하게 됩니다. 공부를 시작하는 젊은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스스로 어른임을 자처한다면, 나는 남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나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고, 남들이 나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기쁘지만 나 자신은 배우는 바가 없으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주장이 너무 지나치고 세상의 선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경으로 빠지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평소 경험했던 것인데 그대도 혹 면치 못하고 있음을 알겠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크게 열어 터전을 넓혀서 의리의 무궁함을 알아 주저 없이 옳은 것을 따라야 할 것이며, 반복하여 연구하고 몸소 체득하되 반드시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강구한 도리와 서로 부합하는지를 반증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낮추어 조금씩 진보하면서 항상 자신이 부족한 줄을 알아 잘못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의지할 만한 실지가 있게 되어 아득한 지경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물어 준 뜻이 고마워, 내가 애쓰면서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큰 성취를 이룬 그대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대는 과연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31권 / 서(書)

신원명 창교 의 별지에 답함 병신년(1776, 영조52)［答申元明 昌敎 別紙 丙申］

19世 창교(昌敎) 父 : 성(煜) 祖父 : 중모 (重模)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卒哭而祔。自是周制而家禮仍之。五禮儀有大祥後行祔之文。故世俗亦多遵行。寒岡先生曰。過祥後行夕上食。翌朝行祔事。祔後奉新主入廟。今當依此行之。寅不行祭。不見經傳。假令忌日在寅。則亦可待明日乎。

祔廟時告由。沙溪說只當用之。然鄙意祔祭時已告隮祔之由矣。恐不必瀆告。未知如何。

祔後奉新主。祔于祖考之傍。行祫祭改題時合櫝。乃是禮意。元妃前似無告由之節矣。

三合櫝。古無其制。只以元妃合櫝。繼妃別以一櫝設椅幷享。退陶先生已有說。後來先輩皆用此制耳。雖別櫝而並享一廟。卽是會要朱子之意。所謂幷祔合祭。非共一櫝之謂也。然今俗多用三合之制。哀侍必欲用之。惟在商量處之耳。若作三合櫝。位次恐當以考西妣東爲序。恐不必用考中妣左右之制耳。

大祥之日。本生親服未盡。恐當以白笠布直領布網巾。除祥服卒事。服本生服。過本生祥後。仍服白笠似宜。未知如何。

祥事後服本生服。行祔時還服本服。祭畢。卽當服本生服耳。

本生親變服時。以白笠變制。似無所妨。恐不必以同於國服爲嫌。如何。

喪中不可行禫。指幷有父母喪而言。本生喪。旣以期制斷定矣。恐不可廢。

喪中忌墓祭不得已親行。則以平凉布網布直領行事。亦權宜之道。朱夫子亦以墨衰行之耳。使族人行墓祀。則以某孫某斬焉在疚。使某親某敢昭告云云。如何。

졸곡(卒哭) 이후에 부묘(祔廟)한다는 것은 본래 주(周)나라의 제도인데 《가례(家禮)》에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오례의(五禮儀)》에는 "대상(大祥) 이후에 부묘를 행한다."라는 조문이 있기 때문에 세속에서도 대부분 이를 준행하고 있습니다. 한강(寒岡) 선생이 말하기를 "상제(祥祭)를 지낸 뒤에 저녁상식을 행하고, 다음 날 아침 부제(祔祭)를 지내고, 부제를 지낸 뒤에 새 신주를 받들어 사당에 들인다."라고 하였으니, 지금은 이 내용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인일(寅日)에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말이 경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령 기일(忌日)이 인일이면 또한 다음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부묘할 때의 고유(告由)는 사계(沙溪)의 설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에는 부제를 지낼 때에 이미 부묘하는 이유를 고하였으니 다시 고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제 이후에 새 신주를 받들어 조고(祖考)의 옆에 함께 모시며, 협제(祫祭)를 지내고 신주를 고쳐 쓸 때에 독(櫝)을 합치는 것이 예의 본뜻입니다. 원비(元妃) 이전에는 고유(告由)하는 절차가 없을 듯합니다.

세 신주를 하나의 독(櫝)에 합치는 것은 옛날에도 그러한 제도는 없었습니다. 원비(元妃)만 독을 합치고, 계비(繼妃)는 따로 하나의 독으로 하고 의자를 설치하여 함께 배향하였습니다. 퇴계 선생도 이미 이러한 말을 하였고, 그 뒤의 선배들도 모두 이 제도를 사용하였습니다. 독을 따로 하더라도 한 사당에서 함께 배향하는 것은 주자의 뜻을 모아 요약한 것이니, 이른바 아울러 부묘하여 함께 제사 지낸다는 것은 하나의 독에 함께 모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속에서는 세 신주를 합치는 제도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 애시(哀侍)께서 꼭 사용하고자 한다면 헤아려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세 신주를 하나의 독에 합치는 방식을 사용한다면 그 순서는 고(考)는 서쪽, 비(妣)는 동쪽에 자리를 잡아야지 고(考)를 가운데 두고 비(妣)를 좌우에 두는 방식을 사용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대상(大祥)의 날짜에 본생부모(本生父母)의 복을 다하지 않았다면 마땅히 백립(白笠), 포직령(布直領), 포망건(布網巾)을 착용해야 할 듯하며, 상복(祥服)을 벗고 일을 마친 뒤에는 본생부모의 복을 입고, 본생부모의 상제(祥祭)가 지난 뒤에는 백립을 착용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어떠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제(祥祭) 이후에는 본생부모의 복을 입으니, 부제를 지낼 때에 도로 본래의 복을 입었다가 제사가 끝나면 마땅히 본생부모의 복을 입어야 합니다.

본생부모의 상에 있어서 변복(變服)할 때에 백립으로 변제(變制)하여도 무방할 듯하니, 국상의 복색과 같다고 혐의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상중(喪中)에 담제(禫祭)를 행할 수 없다고 한 것은 부모의 상이 아울러 있는 경우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본생부모의 상은 이미 기년(朞年)의 제도로 확정하였으니 폐해서는 안 될 듯합니다.

상중에 기제(忌祭)와 묘제(墓祭)를 어쩔 수 없이 직접 지내야 한다면 평량자(平凉子), 포망건(布網巾), 포직령(布直領)을 착용하고 지내는 것이 또한 권도(權道)에 맞을 것입니다. 주부자(朱夫子)도 묵최(墨衰) 차림으로 행하였습니다. 족인(族人)을 시켜 묘제를 지내게 한다면 "모손(某孫) 아무개는 슬프게도 상중이라 모친(某親) 아무개로 하여금 감히 고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33권 / 서(書)

신덕순 창도 에게 답함 무자년(1768, 영조44) ［答申德順 昌道○戊子］

19世 창도(昌道) 父 : 수구(壽龜) 祖父 : 숙보 (叔簠)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向來枉顧之日。固已得之眉睫之間。而其後諗諸朋友。乃知才資之美。嚮學之勤。誠有不偶然者。每欲從容際晤。一叩其所有而不可得。玆承滿紙縷縷。足以見辭采之巨麗。志尙之遠大。而惟其比儗不倫。推借過當。則又以見志意之未甚平實而辭氣之尙涉虛夸也。竊聞爲學專在務實。須默默用功。循循進步。尙絅而思晦。爲己而謹獨。不敢有一毫外馳之念。則實積而華發。本立而道生。沛然有不可禦者矣。如是則立心不得不篤。發言不得不訒。豈有以虛辭溢譽謾加諸人而不之恤乎。以加諸人者而推以知其反諸己者之或未實。蓋人己一致。存己處人。無二道也。無以謝厚意。聊布其腹心。若其讀書進爲之方。門庭之內。自有先進。不必遠求野鶩也。

지난번 방문하셨던 날에 이미 직접 만났는데, 그 후 벗들과 말하면서 자질의 아름다움과 향학의 근면함이 참으로 우연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늘 조용히 만나 품고 있는 바를 한번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종이 가득 자세히 쓰신 편지를 받고 보니 문채가 아름답고 지향이 원대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유가 걸맞지 않고 칭찬이 지나치니, 뜻이 아직 그다지 평실(平實)하지 못하고 말씨가 오히려 과장되어 있음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듣자하니 학문은 오로지 무실(務實)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반드시 묵묵히 공부하고 순순히 진보하되 겸손한 자세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을 수행하여 항상 삼가, 감히 조금이라도 밖으로 치닫는 생각이 없도록 한다면 실제가 쌓여 성과가 이루어지고 근본이 확립되어 도가 생겨날 것이니, 그 성대한 기세를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마음먹은 것이 독실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는 것을 조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어찌 근거 없는 말과 지나친 칭찬을 함부로 남에게 더하면서 저의 처지를 잘 살피지 않아서야 되겠습니까. 남을 대하는 것을 살펴보니 자신을 돌아보는 데에 혹 신실하지 못함이 있다는 것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남과 나는 마찬가지이니, 자신을 보존하는 것과 남을 대하는 데에 두 가지 도(道)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후의에 사례할 길이 없어 그저 속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독서를 해 나가는 방도에 대해서는 그대 집안에 본래 선배가 계시니, 굳이 멀리서 선생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45권 / 발(跋)

주신재의 수묵 뒤에 쓰다 무자년(1768, 영조44)〔書周愼齋手墨後 戊子〕

11世 원록(元祿) 父 : 수(壽) 祖父 : 준정 (俊禎) 읍파(邑派)

我院有士。其心如玉。天其玉汝。申其祿矣。

右一十六字。愼齋周先生之書贈悔堂申先生者也。周先生肇刱白雲。育養多士。遠邇坌集。髦譽如雲。而先生特蒙其奬許則其天資之溫潤近道。亦可想見於辭旨之間矣。從容函丈之際。所以琢磨磋切以成其德器者。必有其方而今無所證嚮焉。然先生卒以孝友成德。令聞亹亹。旣沒而棹楔煒煌。廟享百世。天之所以玉汝而申其祿者。如持左契交符。詎不偉歟。逮于曾玄。多以賢孝聞。胎光趾美。世濟厥休。是則天之申其祿。不獨在其身而施于孫子矣。聞孫弘敎以其父兄之命。褎起作帖。屬余識一言。其用心已勤矣。然以是而謂足以嗣守先烈則未也。須勉力於古人所謂爲仁之本者。修己則玉潤而無玷。持心則執玉而恐墜。以無忝于爲先生之孫。則天之降祿於申氏者殆鄭重焉。姑書于卷端以俟。年月日。先生外後孫韓山李象靖。謹書。鄭重。漢書註頻煩也。

우리 서원에 선비 있으니 / 我院有士
그 마음이 옥과 같도다 / 其心如玉
하늘이 널 옥처럼 이루어 / 天其玉汝
거듭 복록을 베풀리라 / 申其祿矣

위의 16 자는 신재(愼齋) 주 선생(周先生 주세붕(周世鵬))이 회당(悔堂) 신 선생(申先生)에게 써 주신 글이다. 주 선생이 백운서원(白雲書院)을 창시하여 많은 선비를 길러 내자 원근에서 훌륭한 선비들이 구름처럼 모여들었는데, 선생이 특별히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니, 그 타고난 자질이 아름다워 도에 가까웠음을 또한 말씀하신 뜻 중에서 상상해 볼 수 있다. 선생이 스승의 문하에서 주선하는 즈음에 절차탁마하여 덕기(德器)를 성취한 것에는 반드시 그 방도가 있었을 텐데, 지금은 증명할 바가 없다. 그러나 선생이 끝내 효우(孝友)로 덕을 이루어 아름다운 명성이 성대하였고, 돌아가신 뒤에 정문(旌門)이 밝게 빛나 백대토록 사당의 제향을 누리니, "하늘이 너를 옥처럼 이루어 거듭 복록을 베풀리라."라는 말씀이 마치 증서나 부절처럼 들어맞은 것이다. 어찌 훌륭하지 않은가.

증손과 현손에 이르기까지 어질고 효성스럽다고 소문난 이가 많아서 선조의 미덕을 이어 대대로 그 아름다움을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거듭 베푼 복록이 선생 자신뿐 아니라 자손에게까지 미친 것이다. 어진 후손인 신홍교(申弘敎)가 그 부형의 명으로 주 선생의 유묵에 배지를 붙여 첩을 만들어서 나에게 한마디 적어 줄 것을 부탁하였으니, 그 마음 씀이 이미 부지런하다. 그러나 이것으로 선조의 공렬을 이어 지키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면 아직 아니다. 모름지기 옛사람이 말했듯 인을 하는 근본인 효제(孝悌)에 힘써서, 자신을 수양하는 것은 옥처럼 윤택하면서 조금의 허물도 없게 하고 마음가짐은 옥을 잡고서 떨어트릴까 두려워하듯 경건해야 할 것이다. 선생의 자손으로서 욕됨이 없게 한다면, 하늘이 신씨(申氏)에게 복록을 내리심이 자못 정중(鄭重)할 것이다. 일단 권말에 써서 후인을 기다리노라.

아무 년 아무 월 아무 일에 선생의 외손 한산(韓山) 이상정이 삼가 쓰다. - 정중은《한서(漢書)》주(註)에 빈번하다는 뜻이라고 하였다. –

我院有士。其心如玉。天其玉汝。申其祿矣。

右一十六字。愼齋周先生之書贈悔堂申先生者也。周先生肇刱白雲。育養多士。遠邇坌集。髦譽如雲。而先生特蒙其奬許。則其天資之溫潤近道。亦可想見於辭旨之間矣。從容函丈之際。所以琢磨磋切。以成其德器者。必有其方而今無所證嚮焉。然先生卒以孝友成德。令聞卓卓。既沒而棹楔煒煌。廟享百世。天之所以玉汝而申其祿者。如持左契。交符。詎不偉歟。逮于曾玄。多以賢孝聞。胎光趾美。世濟厥休。是則天之申

其祿。不獨在其身而施于孫子矣。聞孫弘敎以其父兄之命。稍起作帖。屬余識一言。其用心已勤矣。然以是而謂足以嗣守先烈。則未也。須勉力於古人所謂爲仁之本者。修己則玉潤而無玷。持心則執玉而恐墜。以無忝于爲先生之孫。則天之降祿於申氏者。殆鄭重焉。姑書于卷端以俟年月日。先生外後孫韓山李象靖謹書。鄭重。漢書註頻煩也。

題懼翁遺墨

書於六藝居一而可以寫心性之正。參造化之

제48권 / 묘갈명(墓碣銘)

성균관 진사 신공 묘갈명 병서〔成均進士申公墓碣銘 幷序〕

14世 채(埰)　　父 : 적도(適道)　祖父 : 흘 (仡)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公諱埰。字子卿。號忍齋。上世有版圖判書允濡，按廉使祐。仍父子顯於麗朝。按廉公父喪廬墓。有雙竹異感。六世至贈戶部右侍郎元祿。亦以至孝聞。是爲公曾祖。祖仡。贈左承旨。考適道。祥雲道察訪。天分甚高。棄官閒養。妣坡平尹氏。庚戌六月十四日生公。幼聰穎端嚴。篤志好學。文藝卓然早成。訒齋崔公晛嘗與講論經史。歎曰。專門名家所不逮也。丙戌。中司馬遊泮宮。嚴毅自持。儕流敬服。館中數巨擘稱嶺南三某。蓋同時有二李。公與同諱。文行相次云。朝廷以六行選館儒。以公爲首。華問益彰。公猶欿然自視。人以此多之。庚子癸卯。荐遭內外艱。哀毁逾禮。制旣闋。不復應擧。閉門恬養。種植梅竹。涵淹圖史。悠然有終老之志。州伯造門致敬。卿宰多惜其不見用於世也。壬子九月八日卒。享年六十三。配安東權氏。湖陽處士益昌之女。柔婉貞淑。甚有婦道。先公兩月卒。實七月三日。合窆于縣北雞卵峙。後改卜于八智山丙向原。有二男三女。男禹錫，文錫。皆世其文行。二女。適琴文操，朴文興。禹錫三男二女。男長德潤以義模後。次德海。有子義模，器模，禮模。季德滉有子益模，賁模。二女。適權得泰，宋煦。文錫三男三女。男長德溢。有子彦模，正模文科。次德浩。以禮模後。季德洵。以正模後。三女。李英中，權惺，李厚謙。玄孫以下又若干人。公沒且百有餘年。而墓道闕顯刻。諸孫等將伐石鑱辭。以昭示來世。屬象靖而銘之。銘曰。

鵝洲之世。以孝著聞。天篤降祜。子孫振振。公鍾厥美。富有才性。嶺稱三某。館薦六行。悲纏蓼莪。跡謝公車。晤語梅竹。酣飫圖書。婆娑隱約。永矢無改。鄉里百年。遺風未沫。八智之原。四尺有崇。我銘斯石。用詔無窮。

공은 휘가 채(埰)이고 자가 자경(子卿)이며, 호는 인재(忍齋)이다. 선대에 판도사 판서(版圖司判書) 신윤유(申允濡)와 안렴사(按廉使) 신우(申祐) 부자가 잇달아 고려조에 현달하였다. 안렴공(按廉公)이 부친상에 시묘살이를 하였는데 쌍죽(雙竹)이 솟아나는 이적(異蹟)이 있었다. 6 대를 내려와 호부 우시랑에 증직된 신원록(申元祿)에 이르러 역시 지극한 효성으로 소문났으니, 이분이 공의 증조이다. 조고 신흘(申仡)은 좌승지에 증직되었고, 선고 신적도(申適道)는 상운도 찰방(祥雲道察訪)을 지냈는데 천품이 매우 고고하여 관직을 버리고 한가로이 수양하였다. 선비는 파평 윤씨(坡平尹氏)로 경술년(1610, 광해군 2) 6 월 14 일에 공을 낳았다.

공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단정하였으며 뜻을 독실하게 가져 배우기를 좋아하였다. 문예가 탁월하고 일찍 성취되어 인재(訒齋) 최현(崔晛) 공이 일찍이 함께 경사(經史)를 강론하다가

감탄하며 "경을 전문(專門)하는 이름난 학자도 미치지 못할 바이다."라고 하였다. 병술년(1646, 인조 24)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성균관에 유학하였는데, 몸가짐이 엄숙하여 동료들이 공경하고 감복하였다. 성균관에서 거벽(巨擘)을 꼽을 때면 영남의 세 아무개라고 칭하였으니, 대개 같은 시기에 두 명의 이씨(李氏)가 있어 공과 이름이 같았는데 문장과 행실을 앞다투었다고 한다. 조정에서 육행(六行)으로 관유(館儒)를 선발할 적에 공이 으뜸이 되어 화려한 명성이 더욱 빛났는데도 공은 오히려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니, 사람들이 이 때문에 훌륭하게 여겼다.

경자년(1660, 현종 1)과 계묘년(1663)에 거듭 양친의 상을 당하자 슬픔으로 몸을 손상함이 예제(禮制)보다 지나쳤다. 복을 마친 뒤 다시 과거에 응시하지 않고, 문을 닫고 조용히 정양하여 매화나무와 대나무를 심고 서사(書史)에 빠져 지내며 느긋하게 여생을 마치려는 뜻을 지녔다. 관찰사가 집에 찾아와 경의를 표하였고 경재(卿宰)들이 대부분 그가 세상에 등용되지 못함을 안타까워했다. 임자년(1672) 9 월 8 일에 졸하니 향년 63 세였다.

부인은 안동 권씨(安東權氏)로 호양 처사(湖陽處士) 권익창(權益昌)의 따님이다. 유순하고 정숙한 덕이 있어 부도(婦道)를 잘 수행하였는데, 공보다 두 달 먼저 졸하였으니 실로 같은 해 7 월 3 일이었다. 현의 북쪽 계란치(雞卵峙)에 합장하였다가 후에 팔지산(八智山) 병향(丙向)의 언덕에 개장하였다.

2 남 3 녀를 두었다. 아들 우석(禹錫), 문석(文錫)은 모두 그 문장과 행실을 이었으며, 두 딸은 금문조(琴文操), 박문흥(朴文興)에게 시집갔다. 우석은 3 남 2 녀를 두었다. 장남 덕윤(德潤)은 의모(義模)를 후사로 삼았다. 차남 덕해(德海)는 아들 의모, 기모(器模), 예모(禮模)가 있다. 막내 덕위(德瑋)는 아들 익모(益模), 분모(賁模)가 있다. 두 딸은 권득태(權得泰), 송후(宋煦)에게 시집갔다. 문석은 3 남 3 녀를 두었다. 장남 덕일(德溢)은 아들 언모(彦模), 정모(正模)를 두었는데, 정모는 문과에 급제하였다. 차남 덕호(德浩)는 예모를 후사로 삼았다. 삼남 덕순(德洵)은 정모를 후사로 삼았다. 세 딸은 이영중(李英中), 권성(權惺), 이후겸(李厚謙)에게 시집갔다. 현손 이하로 또 몇 명이 있다.

공이 돌아가신 지 백여 년이 되었는데 묘도에 비석이 없었으므로 여러 후손들이 빗돌을 마련하여 글을 새겨서 후세에 분명히 보여 주고자 하여 나에게 부탁해 명을 지은 것이다. 명은 다음과 같다.

아주 신씨 집안 대대로 / 鵝洲之世
지극한 효도로 이름났지 / 以孝著聞
하늘이 큰 복을 내려 줘 / 天篤降祜
자손들이 많고 훌륭하네 / 子孫振振
공에게 그 미덕이 모여 / 公鍾厥美
재능을 풍부히 갖추었네 / 富有才性
영남의 삼걸로 칭해지고 / 嶺稱三某

성균관 육행에 천거되었지 / 館薦六行
부모 잃은 비통함으로 / 悲纏蓼莪
과거 공부 그만두고 / 跡謝公車
대와 매화 마주하며 / 晤語梅竹
책 속에 파묻혀 지냈네 / 酣飫圖書
여유로운 은자의 생활 / 婆娑隱約
바꾸지 않으리 맹세했네 / 永矢無改
향리엔 백 년이 흘러도 / 鄕里百年
유풍이 사라지지 않았네 / 遺風未沫
팔지산의 언덕에 / 八智之原
네 척의 봉분이라 / 四尺有崇
내 빗돌에 명을 새겨 / 我銘斯石
이로써 무궁히 고하리 / 用詔無窮

동명집(東溟集)

정선용 한국고전번역원 수석연구위원

1. 머리말

본 《동명집(東溟集)》은 17 세기 우리나라의 문학사(文學史)와 사상사(思想史)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는, 동명(東溟) 정두경(鄭斗卿, 1597~1673)의 시문집(詩文集)을 일반 독자나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동명이 살았던 시대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등이 이어지던 국난기(國難期)와 그 이후의 북벌운동(北伐運動)이 벌어졌던 우리 민족의 시련기였던 만큼, 《동명집》은 그 당시 우리 역사를 증언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또한 본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된 중간본(重刊本) 《동명집》은 국내에는 공개된 것이 없고 오직 일본에만 한 질 남아 있는 귀중한 문헌으로, 문헌 자체가 우리 민족문화의 귀중한 유산이기도 하다.

동명은 우리나라 문학사상사에서 매우 독특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사상적인 면에서 당대의 유학자들과는 달리 유학은 물론 도학(道學)까지도 겸섭(兼攝)하였으며, 문(文)과 아울러 무(武)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가진 인물이다. 문학적인 측면에서는 기건의 문학을 추구하면서 글을 통해 현실을 개혁하고자 했으며, 극단적인 비평과 찬사를 엇갈리게 받으면서 후대의 문학에 큰 영향을 끼친 문제의 인물이다.

동명과 《동명집》에 대한 연구는 당시의 정치사상 및 문학을 논하면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명집》이 한문(漢文)으로 되어 있고, 그마저도 널리 보급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었다.

한국고전번역원에서는 《동명집》의 중요성과 시의성을 감안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 번역본을 제공함으로써, 연구자들과 일반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다. 번역에 앞서 동명이라는 인물과 《동명집》의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아울러 번역의 기본 방침에 대해서까지 언급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해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편의 논문(論文)을 읽어 보았는데 동명에 관해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한 남은경 선생의 박사학위 논문에 《동명집》의 편찬 동기나 체재, 내용 등이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어, 이를 요약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더 보충해 해제를 작성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2. 동명집의 간행 경위

《동명집》 번역의 대본으로는 일본의 오사카(大阪) 부립(府立) 나카노시마(中之島) 도서관에 소장된 중간본(重刊本) 《동명선생집(東溟先生集)》(도서번호 韓 7-29)을 사용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동명집》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간행되어, 총 세 종류가 있다. 맨 처음 간행된 문집은 자찬본(自撰本) 《동명집》이다. 이 문집은 다른 문집들이 대개 저자의 사후에 간행된 데 반해, 저자의 생전인 1646 년(인조 24)에 간행된 것으로, 동명 자신이 찬한 것을 윤신지(尹新之)의 서문과 아울러 간행한 것이다. 현재 이 자찬본 《동명집》은 전해지는 것이 없다. 동명에 대해 깊이 연구한 남은경에 의하면, 이 자찬본 《동명집》을 진산 강씨(晉山姜氏)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두 번째 문집은 1674 년(현종 15) 남구만(南九萬)에 의하여 함흥(咸興)에서 간행된《동명선생집》으로, 이것을 흔히 초간본(初刊本)이라 칭한다. 이 초간본에는 다른 서발(序跋)은 없고, 1646 년에 쓴 윤신지의 서문만 들어 있다. 동명의 문(文)은 한 편도 수록되지 않았고, 시 1204 수만이 수록되어 있는데, 전체가 11 권 3 책이나 11 권 4 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초간본은 동명의 자손들이 가장(家藏)하고 있던 유고(遺稿)와는 상관없이 남구만이 갖고 있던 동명의 시고(詩稿)를 저본으로 대강 편차하여 간행한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초간본《동명집》뿐이다. 이 초간본은 국내의 각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구두를 찍어 한국문집총간 100 집에 영인하여 수록하였다.

세 번째 문집은 초간본이 간행된 지 24 년 뒤인 1711 년(숙종 37) 남구만의 교정을 거쳐 동명의 후손인 정수곤(鄭壽崑) 등에 의해 총 26 권 8 책으로 간행되었다. 여기에는 악부(樂府)와 시(詩) 및 초간본에는 빠져 있던 문(文), 중요 저술 가운데 하나인 〈시풍(詩諷)〉이 수록되어 있다. 이어서 부록(附錄)의 형태로 동명의 중형(仲兄)인 정성경(鄭星卿)의《옥호자유고(玉壺子遺稿)》, 동생인 정인경(鄭麟卿)의《남악유고(南嶽遺稿)》및 동명에 대한 만사(輓詞), 제문(祭文), 언행록(言行錄) 등이 수록되어 있다. 이것을 흔히 중간본《동명집》이라고 칭하며, 이 책의 번역 대본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동명장구(東溟長句)》라는 제명(題名) 하에 장구(長句)만을 모은 연대 미상의 필사본이 전해진다. 이 책은 동명의 칠언고시만을 뽑아 베껴 놓은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중간본《동명집》의 편찬 과정에 대해서는 최석정의 서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중간본은 저자의 종손(從孫)인 정수곤이 가장(家藏)한 유고(遺稿)를 정리하여 남구만의 편차(編次)와 교정(校訂)을 거친 뒤, 형 정수륜(鄭壽崙)이 현감으로 있던 의령(宜寧)에서 처음으로 간행하였다. 그러나 물력(物力)이 부족하여 중단되었다가 다시 정수곤이 나머지 작업을 계속하여, 근 10 년 동안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 총 26 권으로 간행되었다. 이 중간본은 그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남은경에 의해 일본 오사카 부립 나카노시마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국내에 소개되었다. 남은경에 의하면, 이 중간본 역시 진산 강씨 문중과 한화그룹 아단문고(雅丹文庫)에 소장되어 있기는 하나 일반 연구자에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3. 동명의 생애와 행적

정두경은 1597 년(선조 30) 호조 좌랑을 지낸 정회(鄭晦)와 광주 정씨(廣州鄭氏) 사이에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 1673 년(현종 14) 77 세로 졸하였다. 정두경의 본관은 온양(溫陽)이고, 자는 군평(君平)이며, 호는 동명이다.

동명의 고조는, 동명의 삶에서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명종조의 권신(權臣) 정순붕(鄭順朋)이다. 증조는 경기 도사(京畿都事)를 지낸 십죽헌(十竹軒) 정담(鄭聃)으로, 형인 북창(北窓) 정렴(鄭磏), 고옥(古玉) 정작(鄭碏)과 더불어 모두 시문에 뛰어나 명성이 일세에 자자하였다. 특히 정렴은 우리나라 단학파(丹學派)의 대가였다. 할아버지인 총계당(叢桂堂) 정지승(鄭之升)과 아버지 무송당(撫松堂) 정회(鄭晦) 역시 시문에 뛰어나 각각《총계당유고》와《무송당유고》를 남긴 문장가였다.

동명이 살았던 17 세기는 광해조의 혼정, 인조반정, 정묘호란, 병자호란, 주화파(主和派)와 척화파(斥和派) 간의 주도권 다툼, 소현세자(昭顯世子)의 죽음, 효종의 북벌정책, 자의대비(慈懿大妃)의 복상 문제를 놓고 벌어진 기해예송(己亥禮訟) 등 굵직한 사건으로 점철된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에 태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온몸으로 맞았던 동명은, 시대 분위기의 변화에 따라 그 자신도 부침할 수밖에 없었다.

동명의 일생은,《현종개수실록(顯宗改修實錄)》〈정두경 졸기(鄭斗卿卒記)〉에 "정두경은 소싯적부터 문명(文名)이 있었으며, 신흠(申欽)·이정귀(李廷龜)·장유(張維) 등 여러 사람의 추중(推重)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시(詩)에 뛰어났는데 근세(近世)의 작자 가운데에는 그와 비견될 자가 드물었다. 성품이 술을 좋아하고 몸단속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일찍이 경기 도사로 있을 때에, 군읍(郡邑)의 어떤 자가 '성묘(聖廟)에 빗물이 새니 수선해야 한다.'라고 하자, '한 조각 썩은 나무판을 무엇 하러 덮어 주는가.' 하였다. 대개 이런 식으로 허튼소리를 하였기 때문에 문한(文翰)의 직책을 얻지 못하였다. 송준길(宋浚吉)이 그의 문재(文才)를 애석하게 여겨 경연 석상에서 진달하고 전관(銓官)에게 말하여 비로소 제학(提學)이 되었는데, 그때는 정두경이 이미 노쇠한 상태였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동명의 일생을 일목요연하게 평한 말이다.

동명은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독서를 좋아하였고,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14 세인 1610 년(광해군 2) 별시 초시(別試初試)에 입격하였으며, 15 세에 사마 초시(司馬初試)에 입격하였다. 이후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의 문인으로 들어가 큰 기대를 받았다. 동명은 독서에 심취하여 다양한 서책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사기(史記)》는 중요한 애독서였으며, 이때의 독서 경험이 그의 일생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20 세에 〈검부(劍賦)〉를 지어 문학적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으며, 가행(歌行)과 악부(樂府)의 작품으로도 이름을 떨쳐, 당대 문단의 주요 인사들로부터 추중을 받았다.

동명은 20 대에 주변 문인들과 문학적인 교류를 하면서 시로는 당시(唐詩)를, 문장으로는 한(漢) 이상의 작품을 규범으로 삼았으며, 다른 것은 취하지 않았다. 또한 광해군조가 혼탁하다고 여겨 벼슬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고 시와 술로 세월을 보냈다.

동명이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 계기는 인조반정이었다. 어릴 때부터 동명을 인정해 주었던 인물들이 대거 정계에 참여함으로써, 동명에게도 출사(出仕)의 기회가 왔던 것이다. 1626 년(인조 4)에 30 세였던 동명은 원접사(遠接使)인 북저(北渚) 김류(金瑬)의 종사관(從事官)이 되어 관서 지방에 가 있으면서 변방의 정세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로부터 1 년 뒤에 정묘호란을 겪었다.

33 세인 1629 년에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후 1632 년에 북평사(北評事)가 되어 관북 지방을 순행하면서 많은 변새시(邊塞詩)를 지어 당대의 문장가로 이름을 날렸다. 조정으로 돌아온 동명은, 당시 북방의 경계가 급한데도 조정에서 인조의 생부인 원종(元宗)의 추숭의례(追崇儀禮)에 대한 논의만 일삼고 있자 〈완급론(緩急論)〉을 지어 올렸다. 이해 5 월에 청현직(淸顯職)인 홍문관 정언(弘文館正言)에 제수되었으나, 정순붕(鄭順朋)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서경(署經)이 거부되어 정치적인 좌절을 맛보게 되었다.

1635 년(인조 13)에 경기 도사(京畿都事)로 나갔다가 취중의 실언으로 인해 선성(先聖)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탄핵받고 파직되었다. 1636 년에 〈병자년에 올린 상소[丙子疏]〉를 올려 무비(武備)에 힘쓸 것을 건의하고, 또 '어적십난(禦敵十難)'이라고 칭해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은 상소[代人疏]〉를 지어 올려 국방력을 강화할 것을 진달하였으나, 채택되지 않았다. 동명이 이 상소를 올린 지 얼마 안 되어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병자호란 이후 동명은 벼슬살이에 대한 회의가 일었으며, 1643 년에 모친상을 당한 것을 계기로 관직에 나가지 않은 채 성서(城西)에서 지냈다. 1649 년 다시 관직에 나간 동명은 홍문관 교리(弘文館校理)로 있으면서 〈시풍(詩諷)〉 2 편을 지어 올렸다.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하자 동명은 장편의 〈시풍〉을 지어 올려 효종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1654 년(효종 5)에 부사직(副司直), 1655 년에 공조와 예조의 참의가 되었다. 1656 년에《서경(書經)》의 〈무일(無逸)〉을 모방해 〈일곱 조목에 대해 진달한 소[七條疏]〉를 올렸다. 1657 년에 〈원리설(原利說)〉과 〈원명론(原命論)〉을 지어 올렸으며, 이후에도 재이(災異)를 만나거나 진계(陳戒)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진언하여 임금을 바로잡았다.

효종이 죽은 뒤 관직에서 물러나 있던 동명은 1664 년(현종 5) 왕명으로 장유(張維)의 묘지명(墓誌銘)인 〈계곡 장 상공의 묘지[谿谷張相公墓誌]〉를 지었다. 1666 년에 70 세의 나이로 다시 관직에 나가 예조 참의가 되었으며, 1669 년에 홍문관제학 겸 예조참판이 되었다가 1673 년 6 월 5 일 병으로 성서(城西)에서 졸하였다. 동명의 죽음을 애석해하던 현종은 곧바로 이조 판서와 양관 대제학(兩館大提學)에 추증하였다. 그해 8 월에 한 달 먼저 죽은 부인과 함께 양주(楊州) 사정리(砂井里)에 있는 선영에 묻혔다.

4. 동명의 사상과 문학

동명이 어떠한 인물이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일반 유학자나 문인들과는 다른, 동명만이 가지고 있던 특질을 유의해 보아야 한다. 사상적인 면에서 동명은, 유학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했던 당대의 일반 지식인들과는 달리 도학(道學)과 불교(佛敎)에도 친화를 보인, 폭넓고 개방적인 인물이었다. 또한 당시의 문인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무(武)를 중시하였다. 당시의 현안인 청나라와의 관계에서 명분론(名分論)에 의한 척화론(斥和論)과 북벌론(北伐論)이 아니라 비판적인 척화론과 북벌론을 주장했다. 문학적인 면에서 동명은, 17 세기의 문학 창작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시(詩)는 물론 문(文)도 우리나라 문학사에서 반드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만큼 큰 성과를 남긴 문인이었다. 또한 동명은 후대의 문인들로부터 '천기(天機)가 드러나지 않고 허경(虛境)의 묘사가 중심이었다.'라는 극단적인 악평과 '엄청난 기력(氣力)을 가진 조선 최고의 문인이다.'라는 찬사를 동시에 받는 문제의 문인이었다.

1) 동명의 사상

동명은 기본적으로는 유교 사상을 중심으로 공부한 유학자였으며, 유학의 종지(宗旨)를 따르는 선비였다. 유학에서 중시하는 기본 강목들은 그가 평생 지켜 나간 기본 명제였다.

동명은 나라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다 바치려는 선비의 태도를 가져, 당시의 여느 유학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수양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을 하나의 이상으로 삼고, 그 스스로 유교적인 윤리를 중시하였다. 동명은 관직에 있는 동안 유교적인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국정에 도움이 될 만한 상소를 끊임없이 올리고, 다른 사람에게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풍(詩諷)〉을 지어 올리기도 하였다.

동명은 우리나라에 성리학을 들여온 고려조의 안향(安珦)을 높이 평가하면서 성리학의 참된 도통(道統)을 찾아보고자 하였으며, 이항복의 문하에 있던 초년 시절부터 당대의 유학자로서 서인계(西人係)의 핵심 인물이었던 장유(張維)나 이경직(李景稷) 등과 폭넓은 교제를 하였고, 노년에는 산림계(山林係)의 대표 인물인 송시열(宋時烈)이나 송준길(宋浚吉) 등과도 깊은 친분을 쌓았다.

그러나 동명은 사상적인 면에서 폭넓고 개방적인 면모를 보였다. 실제로 동명은 당대 극성하여 세력을 떨치던 향교나 서원의 역기능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하였으며, 이로 인해 심한 곤욕과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다.

유가(儒家)로서 나라에 이바지하려는 사명감을 가진 동명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은 도교 사상, 즉 도학이었다. 동명은 가문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도학에 대한 관심과 친화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종증조인 북창(北窓) 정렴(鄭磏)은 우리나라 도학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으며, 그 일가는 대대로 도학의 맥을 이어오고 있었다.

동명이 도학에서 주목한 것은 장생불사(長生不死)를 위한 신선술(神仙術)이 아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유학의 사상적 보완 요소로서의 도학이었다. 즉 도학을 유학 위주의 절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보조 수단으로 보았던 것이다. 또한 동명은 도학의 사상적 근원

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 내려오는 도가의 현풍(玄風)에서 찾았다. 최치원(崔致遠)을 유가이면서 동시에 도교적인 인물로 설정하여 찬양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시조(始祖)인 단군(檀君)과 동명왕(東明王)을 현풍을 지닌 인물로 서술하였다. 동명이 이처럼 민족 자생의 현풍을 강조해 주장한 것으로 볼 때, 동명은 '도가적 민족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도학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지닌 동명은 예론(禮論)으로 경직되어 가는 유교적 명분과 격식으로부터 자유로운 호흡을 함으로써, 절대주의적 가치를 추구하는 유가에 비해 상대주의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었다. 또한 문약(文弱)에 물들어 가는 사회 풍조 속에서 무(武)의 가치를 인식하였으며, 중국에 대한 사대(事大) 관념에서 탈피하여 민족의 자존(自尊)을 일깨우기도 하였다.

동명이 활동했던 인조조부터 현종조의 시기는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가 긴장 국면에 접어든 때였다. 원접사의 종사관으로서 평안도 서새(西塞)에 가 있을 때 목격한 명나라의 쇠약한 상황과 청나라의 조선 변방에 대한 약탈은 조선 지식인 동명으로 하여금 강한 분노와 위기의식을 동시에 느끼게 하였다. 또 정묘호란의 발발은 당대 지식인이었던 동명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다른 문인들과는 달리, 무(武)를 중시하고 절의(節義)를 중시했던 동명은 자연스럽게 주화론(主和論)보다는 척화론(斥和論) 쪽으로 흘렀다. 그러나 대부분의 척화론자들이 명분론적인 존주대의론(尊周大義論)에 입각한 척화론을 주장한 반면, 동명은 국방력 강화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실제적인 척화론을 주장하였다.

동명은 젊은 시절의 독서와 서새에서의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상소를 지어 올려, 당시 청나라 대비책에 대한 여러 가지 모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을 조목조목 설파하였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올린 상소인 〈병자년에 올린 상소〉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은 상소〉를 보면, 동명이 얼마나 무를 중시하면서 냉철한 눈으로 당시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 동명은 그 상소에서, 당시 조정에서 동명의 상소를 채택하여 청나라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였다면 병자호란의 전개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평가될 만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비책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동명의 주장은 채택되지 않았고, 곧바로 병자호란이 일어나 삽시간에 서울이 함락되고 인조가 청나라의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크나큰 국가적 수모를 당하였다.

인조조에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척화파와 주화파로 나뉘어 있던 우리 지식인들의 대립은 효종조를 맞아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즉 북벌론이 중요한 대의(大義)로 천명된 것이다. 효종 즉위 후 동명은 다시 정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재개하였지만, 송시열이 중심이 된 존화의식(尊華意識)에 입각한 북벌론에 대해서는 그다지 동조하지 않았다. 유교와 도교 사상을 겸섭(兼攝)한 동명은 명나라에 대한 맹목적인 의리나 존화의식을 중심 가치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외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현실적인 무력의 육성을 주장하는 의미에서의 북벌론을 주장하면서 소극적으로 동조하였던 것이다.

2) 동명의 문학

동명은 17 세기 인조조에서 현종조까지의 사상적・문학적 조류의 다양한 국면을 작품을 통해 골고루 보여 준 인물이다. 동명은 운문은 물론 산문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룬 대표적인 문인으로, 시에서는 권필(權韠)이나 이안눌(李安訥)과 우열을 다퉜고, 문에서는 장유(張維)나 이식(李植)과 병칭되는 등, 문명이 매우 높았으며, 효종이 가장 사랑했던 문인이다.

유학은 물론 도학까지도 아우르는 동명의 문학은 동시대의 다른 문인들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사상적 측면에서 동명은 기존의 관각문인(館閣文人)들과는 다른 개방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학적 면모를 나타냈다. 특히 상무정신(尙武精神)의 고양과 협객

(俠客)이나 검(劍) 등의 이단적 소재, 단군(檀君)과 동명왕(東明王) 등의 민족 시조에 대한 중시, 신선과 도가에 대한 관심 등을 문학을 통해 표현하였으며, 전체적으로 풍자(諷刺)와 풍간(諷諫)을 통해 현실 문제의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하였다.

둘째, 미학적 측면에서 동명은 학당풍(學唐風)의 시를 쓰면서 그 이전의 여성적 감성 위주의 시에서 벗어난 강건하고도 기발한 남성적 시풍(詩風)으로 기건(氣健)의 풍격(風格)을 추구하였다. 이는 한위풍골(漢魏風骨)과 성당기상(盛唐氣象)과 관련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명의 시풍은 그 전 시대의 해동강서시파(海東江西詩派)의 누(陋)나 대각체(臺閣體)의 기려(綺麗), 삼당시인(三唐詩人)의 청완유미(淸婉有味)의 기풍을 벗어나 침체되어 있던 시풍을 변화시켰다.

셋째, 문학정신적 측면에서 동명은 시뿐만 아니라 문필진한(文必秦漢)의 산문 창작을 실천해 낸, 우리나라 진한성당파(秦漢盛唐派)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전의 산문 작품들과는 상당히 다른 작품을 지었다. 특히 〈시풍(詩諷)〉은 동명의 개성적 성향과 문학정신을 잘 드러낸 것인 동시에, 조선 중기 사회의 사상적·문학적 변모를 드러내 보여 준 것이기도 하였다.

동명의 문학에서 특장(特長)으로 주목받았던 문학 양식은 악부(樂府)와 가행(歌行)이다. 동명은 한위(漢魏)의 악부와 더불어 이백(李白)의 의고악부(擬古樂府)를 모범으로 삼아 악부를 창작하였으며, 고악부(古樂府)의 정조구현(情調具現)과 함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동명의 의고악부는 17 세기 악부 창작의 한 유형을 보여 준다. 악부와 아울러 동명의 기질이나 문학적 취향과 가장 잘 맞는 것은 가행이다. 동명은 이백과 두보의 가행을 배워 근체시(近體詩) 율격(律格)의 구속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장단구의 시형식을 통해 격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서 대사회적(對社會的)인 발언을 하였으며, 압운(押韻)을 통해서도 강한 기세를 자유자재로 표현해 내어 자신만의 강한 개성적 면모를 한껏 드러냈다. 이러한 동명의 가행은 성당가행(盛唐歌行)의 수준에 이른다는 평가와 함께 조선조 고체시(古體詩) 창작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다.

동명은 근체시에서도 악부나 가행에 못지않은 성과를 이루었다. 동명은 시를 지으면서 전고(典故)와 관용적(慣用的) 표현으로 시적(詩的) 함축(含蓄)을 즐겼으며, 과장법과 강조법을 써서 강한 기세를 풍겼다. 또한 시에는 강한 상무정신(尙武精神)을 담았으며, 동명 자신이 경험했던 변새(邊塞)의 풍광을 잘 묘사하였으며, 동명의 문학적 개성이라고 할 기건(氣健)의 풍격과 남성적인 기력을 잘 드러냈다. 또한 동명의 초기 시 작품을 보면 관각문인으로서의 우국충정과 나약한 조정의 현실에 대한 비판정신을 드러낸 반면, 노년기의 작품을 보면 주로 한거(閑居)와 도불적(道佛的) 풍취를 보여, 초반기의 작품과는 다른 품격을 띤다.

동명은 악부와 가행 및 시와 부(賦) 등 운문에서 뛰어난 성과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전(傳)을 여러 편 남겼다. 동명은 사마천(司馬遷)의 《사기》 열전(列傳)의 정신을 계승하여 전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산군전(山君傳)〉은 호랑이를 소재로 하여 가전(假傳)의 형태로 무(武)의 가치를 강조한 작품이다. 〈벽계옹전(碧溪翁傳)〉은 가전적(假傳的)인 요소와 아울러 탁전(托傳)의 형태로, 동명 자신이 지향하는 처세관(處世觀)을 노래하였다.

동명이 이룬 문학적 업적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다른 문인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양식인 〈시풍(詩諷)〉을 남겼다는 점이다. 동명의 〈시풍〉은 역사 산문과 《시경》의 시구를 이용하여 역대 군왕의 치정(治政)에 대한 평가와 그 교훈을 서술한 일종의 논설문이다. 이는 간언문학(諫言文學)이라는, 문학을 통한 사회참여의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동명이 활동했던 17 세기 문단에는 명대(明代)의 복고주의(復古主義) 문학이 유행하였고, 동명은 이 문학사상을 그대로 수용하여 계승하였다. 동명의 문학에 보이는 다양한 양상들은 복고 지향 아래 참다운 복

고의 정신을 갖춘 문학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대에 들어 시대적인 상황이 변모하면서 문학이 구현하고자 하는 바가 달라짐에 따라 그 평가가 달라졌다.

동명의 문학은 동명의 사후 후배 문인들, 그 가운데서도 특히 김창협(金昌協) 계열의 문인들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동명의 문학에 대해 "천기(天機)가 나타나 있지 않고 정언(精言)과 묘사(妙思)를 통해 그윽한 경지를 살핌이 부족하다."라고 비판하였으며, "출처(出處)가 있는 시어(詩語)를 쓰고 허경(虛境)의 묘사가 중심이 되었다."라고 비판하였다. 김창협 계열의 비판은 그 이후 시대 상황이 변함에 따라 재평가되었다. 김창협 이후의 문인인 남극관(南克寬)과 이사질(李思質) 등은 동명의 문학에 대해 "엄청난 기력(氣力)을 가진 우리나라 제일의 시인이다."라고 평가하고 찬양하였다.

후대 문인들의 양극단적인 평가는, 동명 문학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김창협의 시대에는 '천기를 중심으로 한 대내적인 자기 관조(自己觀照)'의 문학이 중심이 되어, 동명의 시대 문학이 중심에 두고 있던 '대사회적인 발언'과 그에 따른 '기력의 표출'이 무의미하게 평가되었던 것이며, 그 이후에는 다시 동명의 개성적 면모가 중시되어 조선 제일의 문인으로 평가되었던 것이다.

5. 동명집의 내용

《동명집》은 문집 26 권과 부록 1 권, 도합 27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형태상으로는 원집(原集) 18 권, 〈시풍(詩諷)〉 8 권, 상하권(上下卷) 합본으로 이루어진 부록(附錄) 1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집은 운문(韻文), 여어(儷語), 산문(散文)으로 나뉘어 있고, 〈시풍〉은 법편(法篇)과 징편(懲篇)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록 상에는 동명의 동생들의 저술인 《옥호자유고(玉壺子遺稿)》와 《남악유고(南岳遺稿)》가 실려 있고, 하에는 동명에 대한 만장(挽章)과 제문(祭文), 언행록(言行錄)이 실려 있다. 이를 각 문체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1) 운문(韻文)

악부(樂府 : 원집 1 권)

모두 116 수가 실려 있다. 동명이 젊은 시절에 지은 이 악부는 문학적 개성이 가장 잘 드러나 있어서 젊은 시절 문명을 드날리게 된 계기가 된 작품이다. 동명의 시에 대한 비판에 앞장섰던 김창협(金昌協)조차도 "동명의 악부는 한위(漢魏)의 시와 이백(李白), 두보(杜甫)의 시를 섭취했다."라고 인정할 정도였다. 악부는 동명의 문학을 논하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후대의 평자들이 "동명의 전반적인 시 작품 속에는 악부풍(樂府風)이 들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는바, 악부야말로 동명을 이해하는 첩경이 된다고 하겠다.

악부에는 기격(氣格)과 아건(雅健)을 추구하였다는 동명의 일반적인 시풍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악부 가운데에는 동명이 그리는 이상적인 인물인 협객(俠客)을 소재로 하여 쓴 작품이 상당수 있으며, 동명의 사상과 연결된 '무(武)의 중시'를 드러내는 작품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동명의 일반적인 시풍과는 다른, 여인의 심리를 섬세하게 묘사한 작품도 간간이 보인다.

〈북풍행(北風行)〉은 중국의 포조(鮑照)나 이백(李白)의 작품과는 달리 동명의 독특한 기격(氣格)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며, 〈백마편(白馬篇)〉은 동명의 이상적 인물형인 협객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알게 해 주는 작품이다. 〈서문진녀(西門秦女)〉와 〈동해유용부(東海有勇婦)〉는 자신의 원수를 직접 응징하는 여인들을 묘사한 작품으로, 동명이 그리는 이상적인 여인상(女人像)이 드러나는 작품이다. 〈장진주(將進酒)〉는 이백의 걸작인 〈장진주(將進酒)〉를 연상시키는 작품으로, 이백의 〈장진주〉가 자신의 재능을 받아들이지 않

는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좌절감을 우회적으로 노래한 것처럼, 이 작품도 당대 현실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을 굴절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

특히 유의해 볼 작품은 악부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총 144 구 851 자로 이루어진 장편고시형의 〈고악부행(古樂府行)〉이다. 이 악부는 당시 '궁궐 밖의 대제학'이라고 칭해졌던 권칙(權伾)에게 써 준 것으로, 고악부에 대한 소개와 악부 창작의 전범을 제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쓴 작품이다. 동명은 이 작품에서 한대(漢代) 악부의 생성과 발전, 대표적인 고악부의 제목, 한대 이후 당대(唐代)에 이르기까지의 악부 문학의 대표 작가, 조선 문단의 악부 창작의 상황 등을 차례로 서술하여, '짧은 악부사(樂府史)'라고 할 만한 작품이다.

시(詩 : 원집 2~9 권)

총 1140 수의 시가 시체별(詩體別)로 오언절구 62 수, 육언절구 4 수, 칠언절구 320 수, 오언율시 374 수, 오언배율 15 수, 칠언율시 195 수, 칠언배율 1 수, 오언고시 40 수, 칠언고시 129 수의 순으로 실려 있다.

2 권에 수록된 시 가운데 조선 시대의 평자(評者)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마천령에 오르다[登磨天嶺]〉는, 시인의 주관적인 감정을 표현함이 없이 눈앞의 자연이라는 객관적인 상황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라는 특징을 가진 작품으로, 감정을 배제한 객관적 상황의 서술을 통해 높은 기력(氣力)을 보이고 있는 동명 산수시(山水詩)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역시 평자들로부터 "준일(俊逸)한 가운데 극히 한아(閒雅)하다."라는 평을 들은 〈풍악으로 가는 오산인을 전송하고.....[送楓岳悟山人.....]〉는, 동명 시의 개성적 요소를 잘 보여 주는 작품이다. 함경도 변경 지역의 풍경을 노래한 〈새상곡(塞上曲)〉은, 섬세한 묘사를 생략하고서도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하는 시이다. 명나라 장수인 양호(楊鎬)에 대해서 읊은 〈양 경리가 북정하는 데 대한 노래[楊經理北征歌]〉는, 효종(孝宗)이 극찬한 시이다. 〈술에 취한 채 자문과 휴휴를 이별하다[醉別子文休休]〉는 동명의 호방한 기상과 거침없는 기질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시이다.

3 권에 수록된 시 가운데 〈느낌이 있어서 읊다[有感]〉는 청나라에 치욕을 당하고도 그에 대한 설욕보다는 굴욕을 감내하려는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에 대한 의분을 표출한 시이다. 〈도가의 서책을 읽다[讀道書]〉는, 신선(神仙)이나 선계(仙界)를 밖에서 구하려는 일반 사람들의 우매함을 비난하면서 도교와 현실과의 조화를 꾀하려고 한 동명의 생각을 읽게 해 주는 시이다. 1652 년(효종 3) 10 월에 천둥과 비가 내리는 상황에서 식년 회시(式年會試)를 치른 것을 기념하여 쓴 〈시원에서 짓다[試院作]〉는, 겨울철에 우레의 재변이 일어난 것을 소재로 쓰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에서 서술한 시로, 동명의 시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4 권에 수록된 〈큰바람이 불다[大風]〉는, 거친 북방의 자연환경을 우리 당대 현실 상황과 연관시켜, 시를 통해 동명 자신이 말하고 싶은 내용을 표출한 시이다. 변방을 방어하기 위해 떠나는 무인의 기상을 노래한 〈양 첨사를 전송하다[送梁僉使]〉는, 일반적인 유학자들과는 달리 무(武)를 중시하면서, 그 당시에 중시되었던 예법(禮法)과 예론(禮論)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동명의 생각을 잘 드러낸 시이다. 술을 소재로 자신의 심경을 표출한 〈박중열 대이에게 주다[贈朴仲說大頤]〉는, 세속의 자잘한 일이나 강화된 예학적(禮學的) 분위기와는 잘 어울릴 수 없어 시대와 잘 조화되지 못했던 동명의 고뇌를 엿볼 수 있는 시이다. 동명 생전에 평자들로부터 '조선 최고의 오언율시'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봉은사에서 묵다[宿奉恩寺]〉는, 불교에 대한 동명의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시이다. 우리 민족의 시조인 단군왕검(檀君王儉)을 소재로 한 시 가운데 대표적인 시로 칭해지는 〈단군사(檀君祠)〉는, 우리 민족과 단군에 대한 자부심이 강렬하게 표출되고 있어, 17 세기 사상적 경향을 보여 주는 동시에, 도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던 동명의 성향을 잘 나타낸 시이다.

5 권에 수록된 시 가운데 당시 도학(道學)의 대가로 칭해졌던 권극중(權克中)에게 보낸 〈청하자 권극중에게 부치다[寄靑霞子權克中]〉는, 도학을 추구하고 싶은 동명의 심정을 잘 드러낸 시이다.

6 권에 수록된 시 가운데 당대의 실존 무인(武人)을 대상으로 읊은 〈양 감군이 바다를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육운으로 읊다[聞梁監軍渡海賦六韻]〉는, 무인이 되어 공을 세우고 싶어 하는 동명 자신의 심정을 잘 표현한 시이다. 28 세 때인 1626 년(인조 4) 강왈광(姜曰廣)과 왕몽윤(王夢尹) 두 조사(詔使)가 조선에 왔을 때, 원접사인 김류(金瑬)의 종사관으로 평안북도에서 지은 〈능한산성에 올라 술을 마시다[登凌漢飮酒]〉는, 동명의 장건(壯健)한 필력을 느낄 수 있는 시이다. 〈용만의 이 부윤과 함께 통군정에 오르다[携龍灣李府尹登統軍亭]〉는 동명의 굳건한 기격(氣格)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마천령을 읊은 역대의 시 가운데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마천령 위에서 짓다[磨天嶺上作]〉는, 시만 읽고서도 마천령의 험준함을 한눈으로 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 주는 시로, 동명의 청신(淸新)하고 호준(豪俊)한 면모를 확인할 수 있는 시이다.

7 권에 수록된 시 가운데 총 11 편의 연작시(連作詩)로 이루어진 〈유선사(遊仙詞)〉는, 현실에 대한 불만을 역설적으로 표현하여 환상적인 가상의 세계를 그려낸 시이다. 이 시를 통해 성리학적 명분론을 내세워 개인과 당파의 이익만을 위해 시시비비하는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동명의 염원을 엿볼 수 있다.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하는 변방 병사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형상화한 〈변방 성에서 추위로 고생하다[邊城苦寒]〉는, 추위에 떠는 병사들의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애처로워하는 동명의 인간적인 면모와 청나라에 핍박받는 현실에 대한 울분을 느끼는 동명의 모습을 느낄 수 있는 시이다. 성리학적인 세계관만으로는 자기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쓴 〈장자를 읽다[讀莊子]〉는, 세상에 두루 퍼져 있는 여러 가지 학설에 대해 어느 한 가지만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개방적이고 균형적인 동명의 사고가 드러난 시이다.

8 권에 수록된 시 가운데 《사기》 〈자객열전(刺客列傳)〉의 내용을 요약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 〈자객가(刺客歌)〉는, 자객들의 행동력, 신의, 비극적 결말을 보여 주는 시이다. 조선 시대 평자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협객편(俠客篇)〉은, 형가(荊軻)가 진 시황(秦始皇)을 암살하러 떠난 이야기의 후일담을 다룬 것으로, 협객을 소재로 하여 강개한 정조를 그려낸 시이다. 한 고조(漢高祖)가 백등산(白登山)에서 흉노에게 포위당하였다가 미인계를 써서 풀려난 일을 소재로 하여 쓴 〈백등행(白登行)〉은 청나라에게 받은 조선의 치욕을 언제인가는 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염원을 담은 작품이다. 〈경성에서 사냥하는 것을 보다[鏡城觀獵]〉는, 산짐승이나 사냥하는 작은 사냥이 아닌 오랑캐 토벌이라는 큰 사냥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심회를 토로한 작품이다. 동명의 문학적 특성이 골고루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되는 〈이 절도사의 보검에 대한 노래[李節度寶劍歌]〉는, 보검을 소재로 삼아 당대 무인을 향한 동명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지은 시로, 육진(六鎭) 장사(壯士)들의 사력(死力)을 진검(眞劍)이라는 칼의 이미지로 형상화하여, 동명 자신의 오랑캐를 평정하고픈 소망을 표현한 작품이다.

9 권에 수록된 시 가운데 병자호란이 끝난 뒤 관직을 떠나 아산(牙山)에서 은거하던 시기의 작품인 〈난리가 끝난 뒤에 서수부에게 부치다[亂後寄徐秀夫]〉는, 병자호란 직후부터 벼슬길에서 떠나 한가로이 지내고픈 한거(閑居)의 심회를 잘 드러낸 시이다. 〈평택의 수령으로 있는 이성구에게 부치다[寄李使君聖久]〉는, 세속에 대한 집착을 도가적(道家的) 수양을 통해 떨치려고 애쓰는 동명의 마음을 드러낸 시이다. 용(龍)을 소재로 하여 쓴 작품인 〈화룡행(畫龍行)〉은 기이함을 좋아하는 기질적인 측면과 더불어 오랑캐와 대치하고 있던 당대의 위기 상황과 관련지어 지은 작품으로, 동명의 특성을 잘 알 수 있게 해 주는 작품이다. 한(漢)나라의 뛰어난 인물들이 국방과 외교 면에서 성공적으로 이룩한 업적을 노래한 〈전억석가(前憶昔歌)〉와 송(宋)나라가 오랑캐로 인해 멸망하게 된 과정을 서술한 〈후억석가(後憶昔歌)〉는 오랑캐와 관련된 국방과 외교에 대한 동명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시이다. 이 작품들을 통해 동명이 정책 방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던 주화론(主和論)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부류(賦類 : 10 권)

동명은 〈검부(劍賦)〉와 〈애만월대부(哀滿月臺賦)〉를 남겼는데, 두 편의 부 모두 뛰어난 작품성으로 우리나라 부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칭해진다.

〈검부〉는 280 여 구 1324 자로 이루어진 장편(長篇)이다. 문답체(問答體)를 이용하고, 산문, 운문, 산문의 순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한부(漢賦) 형식을 갖추었다. 창작된 시기는 동명이 벼슬에 나가지 않고 문학 연마에 몰두한 20 세 때로, 동명의 독서 경향과 초기 창작상의 개성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이 작품으로 당대 문단의 중진들에게 문학적 재능을 널리 알렸다. 17 세기의 후배 문인인 김석주(金錫胄)가 편찬한 《해동사부(海東辭賦)》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부(詞賦) 작품으로 선록(選錄)되어 있어, 당대 및 후대에 동명의 문학적 성취가 높이 인정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부에서 동명은 임금이 휘둘러야 할 참다운 보검이란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보검이 아니라, 백성을 잘 다스리고 하늘의 뜻을 잘 따르며, 천하를 잘 다스리는 덕치(德治)라고 하였다. 이 작품은 《장자(莊子)》의 〈설검(說劍)〉과 주제가 비슷하고, 표현에서도 상당 부분 유사성을 보인다. 또한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허부(子虛賦)〉나 〈상림부(上林賦)〉와 구성면에서 유사하여, 동명의 독서 경향과 복고적 문학창작의 한 양상을 보여 준다.

〈애만월대부〉는 27 구 148 자로 된 단편이다. 동명이 포의의 신분으로 평안도에 갔을 때인 30 세경에 지은 작품이다. 이 부에서 동명은 개성의 만월대에 올라 그곳에서 바라다보이는 풍경에 대한 묘사와 그를 통한 자신의 심회를 그리고 있다. 형식은 산문의 구법과 이소(離騷)의 구법을 혼합하여 겸용한 소산혼합체(騷散混合體)이다. 동명은 자신의 행동 등 사실에 대한 묘사는 산문체로 쓰다가 격앙된 감정을 표현할 때 초사체(楚辭體)와 직서체(直敍體)를 쓰고 있다. 이 부는 우리 역사의 자취를 찾아가 그에 대한 회고의 정을 읊고 있는 동시에 임금의 올바른 정치에 대한 풍간(諷諫)의 뜻을 담고 있어 풍자와 풍간의 현실참여 문학을 중시하였던 동명의 전반적 문학관을 엿볼 수 있다.

2) 여어(儷語 : 10 권)

문집을 편집하면서 별도로 여어라는 제목을 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동명집》이 가지고 있는 한 특색이다. 여어류는 총 11 편의 글이 조(詔) 2 편, 표(表) 2 편, 서(序) 4 편, 문(文) 3 편의 순으로 실려 있다.

조(詔) 2 편은 실제로 임금이 내리는 조서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한나라 황제가 내리는 조서에 비겨서 지은 것이며, 표(表) 2 편 역시 중국의 진나라와 한나라 신하들이 황제에게 올리는 표에 비겨서 지은 것이다. 〈춘야유도리원서(春夜遊桃李園序)〉는 이백의 〈춘야연도리원서(春夜宴桃李園序)〉를 모의(模擬)해서 지은 것이고, 〈관어당서(觀魚堂序)〉는 수원의 광교산에 있는 관어당에 대한 서이다. 〈내승 이정숙이 볼모가 되어 심양으로 가는 것을 전송하는 서[送李內乘靜叔以質子赴瀋陽序]〉는 이시백(李時白)의 아들인 이한(李憪)이 볼모가 되어 심양으로 가는 것을 전송하는 서이다. 〈최 학사 고운 비의 서[崔學士孤雲碑序]〉는 최치원(崔致遠)의 비석에 대한 서인데, 이 서가 《고운집(孤雲集)》에는 정홍명(鄭弘溟)이 지은 것으로 잘못 실려 있으며, 이곳에 실려 있는 것과 글자의 출입이 약간 있다.

〈전횡을 조문하는 글[弔田橫文]〉은 정묘호란 3 년 뒤에 지은 작품으로, 이 글에서 동명은 장렬한 최후를 마친 전횡과 그 무리들에 대해 강한 기개를 느끼면서 무한한 찬사를 바치고 있다. 〈고용산에 있는 연화사의 권선문[高聳山蓮花寺勸善文]〉과 〈화장사 중창문(華藏寺重創文)〉은 아산의 고용산에 있는 연화사와 서울의 관악산(冠岳山)에 있는 화장사를 짓는 데 필요한 재물을 희사하기를 권하는 글이다. 이러한 글은 동시대 다른 인물의 문집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글로, 불교에 대한 동명의 관심을 보여 준다.

3) 산문(散文)

서기류(序記類 : 11, 12 권)

《동명집》에 실려 있는 서는 총 22 편으로, 이 가운데 각 문집에 대한 서가 19 편이며, 그 나머지는 화첩(畫帖)이나 시(詩)를 대상으로 하여 쓴 서이다. 기는 모두 3 편이 실려 있다.

서 가운데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작품으로 〈읍취헌집 서(挹翠軒集序)〉가 있다. 이 글을 통하여 동명이 문학에서 가장 중요시한 것이 사회참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동명은, 다른 문인들이 박은(朴誾)의 문학작품이 '수식이나 인공적이지 않고 타고난 성정(性情)과 천기(天機)에서 나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데 반해, 곧은 도를 지키려다가 필화(筆禍)를 당해 젊은 나이에 죽음을 당한 박은의 문학정신을 높이 평가하면서, 박은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적 문인상(文人像)을 그려냈다. 〈석전집 서(石田集序)〉에서는 문학 작품 자체의 미학적 측면과 함께 그 작가의 삶에 대한 태도 및 창작 의식을 매우 중시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둔암시고 서(芚庵詩稿序)〉 등에서는 동명이 글의 기격(氣格)을 중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해동이적 서(海東異蹟序)〉는 동명이 70 세 되던 해에 우리나라의 《열선전(列仙傳)》이라고 할 만한 책인 《해동이적》에 써 준 서문으로, 이 서문 역시 동명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글이다. 이 서에서 동명은 도교가 불교보다 더 훌륭하다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불교는 개인의 내적 수양에만 힘쓰는 것으로 현실사회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반면, 도교에는 천하를 다스리는 교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서를 통해 동명이 도교에서 주목한 것은 장생불사(長生不死)를 위한 신선술(神仙術)이 아니라, 천하를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유교에 대한 사상적인 보완 요소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기(記)는 아주 적은 분량으로, 〈조자성의 선영도에 대한 기[曺子誠先塋圖記]〉, 〈삼애당 기(三愛堂記)〉, 〈목달부가 가지고 있는 병풍의 기[睦達夫屛風記]〉 3 편이 있다. 동명은 〈삼애당 기〉에서 벼슬길에 들어선 유자(儒者)가 가장 유념해야 하는 것은 애군(愛君)이라고 하였다. 유가의 기본 이념인 자신의 몸을 닦아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신하로서 임금을 잘 보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 기를 통해 조선조 문인들이 대부분 애민(愛民)의 정신을 강조했던 것에 비해, 애군(愛君)을 가장 중시하였던 동명 문학의 한 특성을 엿볼 수 있다.

잡저류(雜著類 : 11, 13 권)

11 권에 설(說) 2 편, 논(論) 1 편, 전(傳) 3 편이 실려 있고, 13 권에 서(書) 2 편이 실려 있다. 이 글들은 모두 동명의 사상과 문학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글들이다.

설(說)은 〈선악설(善惡說)〉과 〈독서설을 권 정자에게 주다[讀書說贈權正字]〉 2 편이 실려 있다. 〈선악설〉에서 동명은 절대적으로 고수할 진리는 없고 상대적인 진리만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하여 동명이 그 당시 지식인들이 유교 원리를 절대화하여 이에 반하는 자를 용납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리, 당대를 지배하는 가치나 윤리규범을 맹목적으로 준수하지 않고 비판하며, 보다 개방적이고 균형적인 사고를 취했음을 알 수 있다. 동명이 권유(權愈)에게 써 준 〈독서설〉에서 동명은 다른 일반 유학자들과는 달리 《춘추좌씨전》이나 장주(莊周), 굴원(屈原), 사마천(司馬遷), 가의(賈誼), 양웅(揚雄) 등의 글을 읽을 것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서도 동명의 독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논은 〈완급론(緩急論)〉 1 편이 실려 있다. 이 글은 동명이 북평사(北評事)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북쪽 오랑캐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조정으로 돌아온 뒤, 조정에서 인조의 생부인 원종(元宗)의 추숭(追崇)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을 보고 통탄스러운 마음에서 지은 것이다. 이 글에서 동명은 국정에서 가장 시급

한 일은 국방력을 강화하여 오랑캐의 침입에 대비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에서는 이를 도외시하고 있다고 탄식하면서, 국방력을 강화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전(傳)은 〈이효자전(李孝子傳)〉, 〈산군전(山君傳)〉, 〈벽계옹전(碧溪翁傳)〉 3 편이 실려 있다. 〈이효자전〉은 동명의 전 가운데 유일하게 정통 전의 양식에 맞게 창작된 것으로, 실제 인물의 생애를 기리기 위해 지은 작품이다. 동명은 이 글에서 이흡(李歙)의 일가족이 효(孝)와 절의(節義)를 지키기 위해 자결한 것을 중심 소재로 삼아, 참다운 삶의 태도에 대한 고민과 이상적인 죽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출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병자호란 당시 우리 민중이 겪었던 참혹한 수난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였다.

〈산군전〉은 호랑이를 의인화하여 지은 작품이다. 동명의 초기작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동명의 당대에 이미 유명하여, 그의 문학에 대한 평가에서 자주 언급되곤 하였는데, 한유(韓愈)의 〈모영전(毛穎傳)〉과 비교되면서 당대 원로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산군전〉은 호랑이가 처음 등장하고, 배경의 규모가 여타의 가전 작품들보다 웅대하고, 가전문학(假傳文學)의 특징인 전고(典故)를 여타의 가전 작품들과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고, 문체가 기존의 가전 작품들과 차이가 난다는 특징이 있다.

〈벽계옹전〉은 백로를 의인화하여 지은 것으로, 비교적 짧은 전이다. 동명이 은거하고 있을 때 쓴 것으로 보이는 이 글은 가전(假傳)과 탁전(托傳)의 요소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 동명은 이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정신적 자유를 갈구하는 내밀한 목소리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소차류(疏箚類 : 12, 13 권)

10 편의 상소와 1 편의 차자, 총 11 편의 소차가 실려 있어 다른 문집의 소차류에 비해 상당히 적은 분량이다. 그러나 이들 소차 가운데에는 당대의 현실 상황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동명의 현실적인 식견을 엿볼 수 있는 상소와 임금을 바로잡기 위한 충정을 엿볼 수 있는 상소가 있어 주목된다.

이들 상소 가운데 특히 주목해 보아야 할 상소는, 병자년(1636, 인조 14) 봄에 국가가 처한 상황에 위기의식을 느껴 당대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올린 상소인 〈병자년에 올린 상소[丙子疏]〉와 역시 병자년 봄에 권경(權憬)을 대신하여 지어 올린 상소로, 흔히 '어적십난소(禦敵十難疏)'라고 칭해지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은 상소[代人疏]〉이다.

〈병자년에 올린 상소〉에서 동명은 국가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선결되어야 할 열 가지 조건을 말하였다.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지은 상소〉에서는 외적, 특히 청나라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한 가장 시급하고도 어려운 열 가지 사항을 '혹인(或人)'이 묻고 대답하는 문답식으로 기술하였다. 이 두 상소의 주된 내용은 '무비야말로 오늘날에 가장 시급한 일로,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軍士), 무기(武器), 보루(堡壘)를 잘 갖추고 훌륭한 장군(將軍)과 군주(君主)가 필요하다.'라는 것이다.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이 상소문은 그의 평소 국방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중국 병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들 상소에서 동명이 당시 조정에서 취하고 있던 대비책으로는 청나라 군사를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 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지적한 것을 보면, 그 글대로 대비책을 세웠다면 병자호란의 양상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보일 정도로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동명의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당대 조정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로부터 몇 달 뒤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삼전도(三田渡)의 굴욕이라는 국가적인 치욕을 당하였다.

제문비지행장류(祭文碑誌行狀類 : 13~18 권)

대상 인물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인 제문(祭文)과 대상 인물의 행적을 기술하고 공덕을 기리는 글인 신도비명(神道碑銘), 묘지(墓誌), 묘표(墓表), 묘갈(墓碣), 비문(碑文) 및 대상 인물의 일생을 전기적으로 상세히

서술한 행장(行狀) 등이 《동명집》에는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동명의 문장 솜씨가 빼어나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듯 표덕지문(表德之文)이 그의 손에서 많이 나오게 된 것이다.

제문은 모두 4 편이 수록되어 있다. 대상 인물은 조익(趙翼)과 이정귀(李廷龜), 동생인 정성경(鄭星卿), 종제(從弟)인 정뇌경(鄭雷卿), 장인인 강홍중(姜弘重)이다. 이 가운데 조익에 대한 제문은 왕세자를 대신하여 지은 것이다.

비갈(碑碣)과 묘지(墓誌)는 모두 56 편이 수록되어 있다. 신도비명의 대상 인물은 유홍(兪泓), 이증(李增), 이덕형(李德泂), 정뇌경 등이다. 이 외에도 안향(安珦)의 유허비(遺虛碑)인 〈문성공 안 선생의 옛터 비[文成公安先生舊基碑]〉, 〈국사 도선의 비[國師道詵碑]〉, 〈금강산 송월당대사의 비명[金剛山松月堂大師碑銘]〉, 〈선화당대사의 비문[禪華堂大師碑文]〉, 〈보개산 취운 선사의 비[寶蓋山翠雲禪師碑]〉, 〈춘파당 선사의 비[春坡堂禪師碑]〉 등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1 편이 수록되어 있는 행장의 대상 인물은 장유(張維)이다.

이 가운데에 특히 대상 인물의 비중이 크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유홍(兪泓)의 신도비명을 손꼽을 수 있다. 선조 당시의 중요한 현안이었던 종계변무(宗系辨誣)와 관련된 사항과 임진왜란의 상황 등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 유홍의 행적과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된다.

장유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쓴 장유의 행장을 통해서는, 문장 솜씨뿐만 아니라 인조조의 정치 상황에 대한 파악은 물론, 주자학이 만연했던 당시에 양명학(陽明學)을 중시하였던 장유의 학문 및 한문사대가(漢文四大家)의 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문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다. 〈문성공 안 선생의 옛터 비〉를 통해서는 유교에 대한 동명의 생각을, 〈국사 도선의 비〉 등의 글을 통해서는 동명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파악할 수 있다.

4) 시풍(詩諷 : 19~26 권)

〈시풍〉은 제목에 드러나 있듯이 시를 이용하여 쓴 풍간(諷諫)이다. 법편(法篇) 36 편과 징편(懲篇) 68 편, 도합 104 편의 글이 전체 8 권 분량에 실려 있다. 전체가 26 권인 동명의 시문집 가운데 8 권을 차지하고 있으니, 약 3 분의 1 에 해당된다. 〈시풍〉은 동명에게 그만큼 중요한 글이며, 우리나라 문집 가운데 《동명집》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다.

〈시풍〉은 인조 말년 동명이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며 저술에 몰두할 때 지었다가 인조가 승하한 뒤 왕위에 오른 효종에게 바친 글이다. 이 글은 당대의 문학가는 물론 우리나라 전체의 문학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독특한 형식과 내용을 지닌 글이다. 체재는 크게 법편과 징편으로 나뉘어 있으며, 중국 역대 임금의 명호(名號)를 제목으로 삼았다. 선정(善政)을 하여 본받을 만한 임금은 법편에, 실정(失政)을 하여 경계할 만한 임금은 징편에 실었다. 법편에 실린 임금은 위로 요(堯)부터 아래로 송 인종(宋仁宗)까지 총 36 명이며, 징편에 제시된 임금은 위로 하(夏)나라 태강(太康)부터 아래로 송 휘종(宋徽宗)까지 총 68 명이다. 각 편들은 제각기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으로는 대략 3 단계의 체제를 가지고 있다. 먼저 제목으로 삼은 대상 임금의 행적을 간략히 서술하고, 다음으로 대상 임금의 주요 행적과 관련하여 동명 자신의 주장을 펴는 일종의 논설문을 적당한 소제목을 붙여서 서술하며, 마지막으로 그 글의 내용에 부합하는 《시경》의 시 구절을 인용하여 전체 내용을 마무리하였다.

〈시풍〉은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임금을 소재로 삼고 있다는 점이 동명의 한계를 보여 주는 것이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동명의 처지에서는 풍자와 찬미의 대상이 우리 역사의 인물이 아니기에 과거 역사에 대한 시비 판단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펼쳐낼 수 있었다. 그러므로 소재를 따져 〈시풍〉의 의미를 약화시킬 필요는 없다.

〈시풍〉은 동명의 문학에서 양적으로나 성과 면에서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글이다. 특히 문학을 바라보는 동명의 관점과 그가 인식한 문학가의 사회적 역할을 잘 보여 주는 글로, 동명 연구에서 빠뜨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글이다.

5) 부록(附錄)

부록 상(上)에는 동명의 동생인 옥호자(玉壺子) 정성경(鄭星卿)의 《옥호자유고(玉壺子遺稿)》와 남악(南岳) 정인경(鄭麟卿)의 《남악유고(南岳遺稿)》가 실려 있다. 《동명집》 맨 앞에 수록되어 있는 최석정(崔錫鼎)의 서문에서 《동명집》이 중국의 두군(竇群) 오형제의 글을 모은 《첩주집(疊珠集)》을 모방하여 편집하였다고 밝히고 있듯이, 엄밀히 말하면 《동명집》은 동명의 글만 모아서 편집한 것이 아니라, 삼형제의 글을 모아 편집한 문집인 것이다.

《옥호자유고》에는 오언절구, 칠언절구, 오언율시, 오언고시, 칠언율시, 칠언고시의 순으로 모두 21 수의 시가 실려 있으며, 《남악유고》에도 같은 순서로 총 49 수의 시가 실려 있다. 이들 시를 보면 대개 동명의 시 제목과 비슷한 제목의 시가 많으며, 시풍 역시 비슷한 시가 많다. 이들의 시를 통해 동명 집안의 시풍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동명 집안의 교유 관계도 파악해 볼 수가 있다.

부록 하(下)에는 동명과 관련된 제문(祭文)과 만장(挽章) 및 동명의 언행록(言行錄)이 수록되어 있다. 제문은 현종이 치제(致祭)하기 위해 지은 구음(具鋆)의 치제문(致祭文)이 가장 먼저 수록되어 있으며, 이후 이훤(李蘐)・권유(權愈)・홍만종(洪萬宗) 등이 지은 제문이 수록되어 있다. 만장(挽章)에는 석지형(石之珩)・강석규(姜錫圭) 등이 지은 글이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에는 강빈(姜彬)이 지은 동명의 언행록이 실려 있다.

여기에 수록된 제문이나 만장을 통해 동명의 교유 범위와 동명의 문인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언행록이다. 언행록은, 동명에 대한 상세한 연보(年譜)는 물론이고 행장이나 묘지명 등 동명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글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조선왕조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을 참고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는 동명의 행적을 그나마 알 수 있게 해 주는 글이다. 그런즉 동명을 연구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하는 글이다.

6. 동명에 대한 기존의 연구 성과

동명의 문학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검토해 보면, 문학사(文學史) 속의 단편적인 서술과 몇 편의 학위 논문 및 소논문뿐이어서, 동명이 이룬 문학적 성취에 비해서는 상당히 소략한 편이다. 또한 남은경을 제외한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명의 시(詩)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동명의 문학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문(文)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김태준(金台俊)의 《조선한문학사》, 이가원(李家源)의 《한국한문학사》, 문선규(文璇奎)의 《한국한문학사》 등의 개설서(槪說書)에서 동명의 문학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하였다. 여기에 서술된 내용은 동명의 작품을 전반적으로 읽어 보았거나 깊이 연구한 결과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대부분 조선조 역대의 시화(詩話) 내용을 인용하기만 한 것으로, 동명에 대한 정확한 평가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 이후의 문학사에서는 동명의 시 몇 편을 실제로 분석하면서 그의 문학적 성격을 서술하였다.

조동일은 《한국문학통사》에서 동명의 시 〈등능한산성(登凌漢山城)〉을 예로 들었다. 이 시를 수도 서울의 번성함을 노래한 신도가류(新都歌類)를 이은 작품으로 파악하였으며, 이 작품을 근거로 태평성대를 구가

하며 당시에 '위기의식을 부정한 집권층의 문인'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동명의 문학에 대한 조동일의 서술은 시 제목부터 잘못되었고, 시에 대한 해석의 오류가 많다.

본격적인 연구는 1988 년 윤미길의 〈정두경 연구〉(원대논문집 제 22 집, 1988)가 나온 이후에 비로소 진행되었다. 그 이후 김상일의 〈동명 정두경의 시세계〉(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와 〈동명 정두경의 정치적 불우와 도선(道仙)에의 경도〉(한국문학연구 제 15 집, 1992), 박태성의 〈동명 정두경 시 연구〉(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1), 남은경의 〈동명 정두경 문학의 연구〉(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유성준의 〈이조 정두경 시의 도선풍고〉(중국연구 제 24 집, 1999), 권오웅의 〈동명시에 나타난 의식의 양상〉(한문학연구 제 14 집, 1999), 유근안의 〈정두경 악부시 연구〉(한국어문학 48 집, 2002), 임준철의 〈한시 의상론과 조선중기 한시 의상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송재소의 〈동명 정두경의 시〉(시와 시학, 2005), 여운필의 〈동명 정두경의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 제 10 집, 2006) 등이 이어졌다.

전문 연구자들 가운데 동명 연구에 관한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한 연구자는 남은경이다. 남은경은 국내에는 공개된 것이 없고 오직 일본의 도서관에만 소장되어 있는 중간본 《동명집》을 발굴하여 국내에 소개하였다. 또 이 중간본을 바탕으로 생애 및 시와 문, 나아가서 〈시풍〉까지를 포괄한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남은경 등의 전문 연구자들에 의해 동명의 문학, 특히 시문학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논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논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용된 시 가운데 원시(原詩)를 잘못 해석하고 그에 따라 해설 역시 잘못된 부분이 있어 새로운 연구가 요구된다.

7. 동명집 번역의 기본 원칙

해제(解題)를 작성하면서 번역의 기본 원칙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동명집》 해제는 역자인 필자가 쓰는 것인 만큼, 번역의 기본 원칙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여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본 《동명집》은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에 의거하여 번역하였다.

교감(校勘)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번역에 이용된 대본인 중간본 《동명집》과 한국고전번역원에서 구두를 찍어 간행한 초간본 《동명집》을 비교하여, 추가되거나 빠진 부분에 대해 교감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문집에 실린 글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비교하여 교감하였다. 둘째, 마모된 글자나 흐린 글자 등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틀린 글자만 교감하였으며, 어느 정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거나 통용되는 글자에 대해서는 교감하지 않았다. 셋째, 대본의 글자가 분명하더라도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근거를 달아 교감하였으며,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는 글자는 문리(文理)에 의거하여 교감하였다.

번역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문(韻文)의 번역은 운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언시의 경우에는 4, 4, 5 조의 운율을 기본으로, 칠언시의 경우에는 4, 4, 4, 4 조의 운율을 기본으로, 장단구로 되어 있는 나머지 시나 악부, 부 및 운문의 형태로 되어 있는 명(銘)이나 제문 등의 번역은 해당 운문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언시나 칠언시의 운율에 따라 번역하였다. 번역문에는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았다. 둘째, 산문(散文)은 각 문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번역하였다. 변려문은 특성을 고려하여 각 문장이 대구(對句)의 형태가 유지되도록 번역하였으며, 상소문이나 묘갈 등은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두고 번역하였다. 셋째, 용어는 일반 독자들보다는 연구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선택하였다. 고사(故事)에 관련된 용어나 역사 용어, 제도 용어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번역을 위하여 지나친 의역을 하지 않고 대부분 그대로 썼다.

주석(註釋)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본에 소자(小字)로 되어 있거나 두주(頭註)로 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이 교감 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번역문에 노출시키지 않고 소주와 두주임을 밝히고 주석으로 처리하

였다. 교감 사항의 경우에는 교감주를 달았다. 둘째, 글이 지어진 배경을 알 수 있도록 각 글의 제목에 대해 가급적 상세한 주석을 달았으며, 고사나 제도 용어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주석을 달았다. 셋째, 이제까지 연구된 학계의 성과를 반영하여 주석을 달되, 연구자들의 설을 그대로 인용하여 주석 처리 하였다. 넷째, 시 제목에 나오는 인물의 주석은 자나 호 등을 주석의 표제어로 삼지 않고 이름을 주석의 표제어로 삼았다.

8. 맺음말

17 세기 우리나라 문학사(文學史)에 큰 영향을 끼치고, 이후 문단의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동명 정두경(鄭斗卿)의 문집 편찬 과정과 그의 일생, 사상과 문학, 《동명집》의 내용과 가치에 대해서 대략 살펴보았다. 이어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와 번역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문집 26 권과 부록 1 권, 도합 27 권으로 이루어진 《동명집》은, 크게는 원집(原集), 〈시풍(詩諷)〉, 부록(附錄)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집은 운문(韻文), 여어(儷語), 산문(散文)으로 나뉘고, 〈시풍〉은 법편(法篇)과 징편(懲篇)으로 구분되어 있다. 부록 상에는 동생들의 저술인 《옥호자유고(玉壺子遺稿)》와 《남악유고(南岳遺稿)》가 실려 있고, 하에는 동명에 대한 만장(挽章)과 제문(祭文), 언행록(言行錄)이 실려 있다.

《동명집》은 당시 다른 사람들의 문집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동명 삼형제의 문집을 한 문집으로 묶었다. 둘째, 당대의 다른 문집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書)가 한 편만 수록되어 있다. 셋째, 다른 문집에는 보이지 않는 여어(儷語)와 〈시풍〉이 별도의 항목으로 편집되어 있다.

동명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를 보면, 동명이 이룬 문학적 성취에 비해서는 소략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동명의 사상이나 문학에 대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실체에 접근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논문에서 인용된 원시(原詩)의 해석이나 해설 등에 있어서는 미흡한 편이다. 그러한 가운데서 연구자 남은경은 중간본 《동명집》을 발굴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시에 대해서는 물론 문에 대해서까지 폭넓은 연구를 진행하여, 연구의 지평을 넓혔다. 본 번역서의 출간을 계기로 동명의 실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현재 동명의 연구에서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동명에 대한 상세한 연보(年譜)가 없다는 것이다. 동명의 일생을 재구성할 수 있는 연보 작성과 아울러 동명의 작품 연보(作品年譜) 작성이 필요하다. 학계의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제5권 / 오언율시(五言律詩)

장령 신달도에 대한 만시 2수〔申掌令 達道 挽 二首〕

13世 달도(達道) 父 : 흘(仡)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만오공파(晩悟公派)

素幔歸鄉土。悲哉此大夫。路無驄馬避。原有鶺鴒孤。報主心空在。憂時病不蘇。漢宮丹檻裏。誰更伏靑蒲。

旅櫬載歸船。家山路杳然。落帆江雨外。飛旐嶺雲前。感慨匡君略。騫騰射策年。曩時俱逆旅。沾洒向秋天。

하얀 휘장 고향으로 돌아가거니 / 素幔歸鄉土
슬프고도 슬프구나 그대 대부여 / 悲哉此大夫
길엔 총마 피해 가는 사람이 없고 / 路無驄馬避
언덕에는 척령 새만 외로이 있네 / 原有鶺鴒孤
임금 은혜 갚으려는 맘만 있어서 / 報主心空在
때 근심해 병이 낫지 아니하였네 / 憂時病不蘇
한나라 궁 붉은 난간 그 속에서는 / 漢宮丹檻裏
누가 다시 청포 위에 엎드리려나 / 誰更伏靑蒲

공의 널을 실은 배가 돌아가거니 / 旅櫬載歸船
선산 향해 가는 길은 아득하구나 / 家山路杳然
비 내리는 강 바깥서 돛을 내리고 / 落帆江雨外
구름이 낀 고개 앞엔 명정 날리리 / 飛旐嶺雲前
우리 임금 바로잡을 마음먹은 건 / 感慨匡君略
과거 시험 급제하던 그해였었네 / 騫騰射策年
지난 일들 모두 흘러 지나갔거니 / 曩時俱逆旅
눈물 속에 가을 하늘 바라보누나 / 沾洒向秋天

제13권 / 소차(疏箚)

신홍망과 조석윤을 전석해 주기를 청하기 위해 올린 상소〔請全釋申弘望趙錫胤疏〕

15 世 홍망(弘望) 父 : 지제(之悌) 祖父 : 몽득 (夢得)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삼가 소신은 직책이 언관(言官)의 자리에 있는데, 눈병이 한창 극심하여 일을 논하는 반열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전하께서 조석윤과 신홍망의 죄를 감하여 중도(中道)로 옮기게 하였습니다. 신은 삼가 성상의 비답을 보고 기쁘기 그지없었습니다. 신이 기쁘게 여긴 것은 두 신하 때문이 아니라, 성인이 죄를 용서해 주는 도를 전하께서 얻은 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기에 병으로 인해 집안에 엎드려 있으면서도 감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신하의 일에 대해서 신은 다 진달드리고자 합니다.

신홍망과는 신이 평소에 전혀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지난번 능에 행행할 때 한 번 그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신홍망이 이시매(李時楳)를 탄핵하였는데, 신이 그 상소를 보고는 배를 잡고 크게 웃었습니다. 사마천(司馬遷)이 말하기를 "이오(夷吾)는 차꼬를 차고 있었고, 백리(百里)는 소를 먹였으며, 중니(仲尼)는 광(匡)에서 포위당하였고, 진채(陳蔡)에서 얼굴빛이 창백했다. 이들은 모두 도(道)가 있는 어진 사람들이었는데도 오히려 이런 재앙을 당하였다. 그런데 더구나 중간쯤의 재주를 가지고 난세의 말류(末流)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겠는가." 하였습니다. 이시매가 선현들을 거론하여 스스로를 해명한 것도 역시 이런 뜻입니다. 어찌 털끝만치라도 선현을 욕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까. 신홍망이 이를 꼬투리 잡아서 말한 것은 역시 가소로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말이 선정(先正)에 관련되니 반드시 통문(通文)과 상소가 분분하게 올라올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영남 유생들의 풍습입니다. 신홍망 역시 영남 사람이니, 그의 마음이 전적으로 당론(黨論)을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러니 아주 먼 변방으로 유배 보내는 것은 결단코 올바른 율을 적용한 것이 아닙니다.

조석윤은 신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입니다만, 이번의 이 상소 역시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사람을 헐뜯었으니 같은 자리에 앉는 것은 참으로 온당치 못합니다. 그러나 소장에 드러내기까지 하였으니, 조석윤의 마음은 몹시 편협한 것입니다. 그러나 《춘추좌씨전》에 이르기를 "한 가지 잘못을 가지고 큰 덕을 엄폐하지는 않는다." 하였습니다. 조석윤의 효우(孝友)와 청백(淸白)은 옛사람 가운데서나 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날 초상을 당해 초토(草土)에 있을 적에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몸이 수척해져 원기(元氣)가 크게 손상되고, 병의 뿌리가 아주 깊어졌습니다. 비록 병석에 몸을 의탁한 상태는 아니지만, 필경에는 구료하기 어려운 병이 들 것입니다. 그 질병이 염려스럽고 그 사람이 아깝습니다.

현재 재변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상께서 내리신 비답에 이르기를 "이처럼 재변을 두려워해야 할 때에는 너그러운 은전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아아, 이 한마디 말이 재변을 물리치기에 충분합니다. 먼 변방에 유배된 것과 중도의 지역에 유배된 것은

참으로 동일 선상에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대성인(大聖人)이 뇌우(雷雨)를 본받아서 죄를 용서해 주는 뜻은 아닙니다. 이 점이 바로 신이 이른 바 아직도 미진한 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은 성상의 은혜를 매우 많이 입었으니, 티끌만치라도 그에 대해 보답하고자 합니다. 신이 비록 형편없기는 하지만, 임금을 속이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세(遊說)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삼가 성상께서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은 황공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삼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이 상소에 대해 알았다고 답하였다.

[주-D001] **전석(全釋) :** 이 부분이 대본에는 '全擇'으로 되어 있는데, 뜻이 통하지 않기에 '擇'을 '釋'으로 바로잡아 번역하였다. 전석은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는 것을 말한다.

[주-D002] **이오(夷吾)는 …… 창백했다 :** 이오는 제(齊)나라의 명상(名相)인 관중(管仲)의 자이다. 관중이 일찍이 공자(公子) 규(糾)를 따랐는데, 공자 규가 외국을 떠돌 때 거(莒) 땅에서 뒤에 환공(桓公)이 된 공자 규의 형인 소백(小白)을 활로 쏜 일이 있었다. 그 뒤에 공자 규는 소백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며, 관중 역시 소백에게 사로잡히게 되었다. 그러자 관중의 죽마고우로 소백의 편에 섰던 포숙아(鮑叔牙)가 소백에게 관중을 천거하였다. 이에 소백이 관중을 등용한 다음 매우 신임하면서 모든 일을 관중과 상의해서 처리하여 끝내 패업을 이루었다. 백리(百里)는 춘추 시대 진(秦)나라의 재상으로 있었던 백리해(百里奚)를 가리킨다. 백리해는 우(虞)나라 사람으로, 우공(虞公)을 섬겨 대부가 되었다가 우나라가 진(晉)나라에게 망하자 초(楚)나라로 달아나 소 먹이는 일을 하고 있었다. 진 목공(秦穆公)이 그가 어질다는 소문을 듣고는 암양 다섯 마리의 가죽을 몸값으로 주고 신하로 삼았는데, 진 목공이 오패(五霸)의 한 사람이 된 데에는 백리해가 보필한 힘이 컸다. 흔히 오고대부(五羖大夫)라고도 한다. 중니(仲尼)는 공자로, 일찍이 천하를 떠돌아다니다가 광(匡) 땅에 이르렀을 때 그곳 사람들이 공자의 모습이 악인인 양호(陽虎)와 비슷하다고 하면서 포위하였었다. 또 공자가 천하를 떠돌아다니다가 진(陳)나라와 채(蔡)나라 사이에서 곤액을 당하였는데, 그때 "사람이 외뿔소도 아니고 범도 아닌데 어찌하여 이 너른 들판에서 곤욕을 당하게 하는가.[匪兕匪虎 率彼曠野]" 하였다.

[주-D003] **사마천(司馬遷)이 …… 하였습니다 :** 《사기》 권 124 〈유협열전(遊俠列傳)〉에 나오는 말이다.

[주-D004] **뇌우(雷雨) :** 임금의 은혜를 뜻하는 말이다. 《주역》 〈해괘(解卦) 상(象)〉에 이르기를 "뇌우가 일어남이 해이니, 군자가 이를 보고서 허물이 있는 자를 사면하고 죄가 있는 자를 용서한다.[雷雨作 解 君子以 赦過宥罪]" 하였다.

동주집(東州集)

이민구(李敏求)

1) 명문가의 자제

동주(東州) 이민구는 1589 년(선조 22) 정월 14 일에 태어났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자시(子時), 호는 동주 또는 관해도인(觀海道人)이다. 태종(太宗)의 서자(庶子) 경녕군(敬寧君) 비(裶)가 6 대조이고, 조부(祖父)는 병조 판서에 오른 이희검(李希儉)이다. 아버지 이수광(李睟光)은 이조 판서를 역임하고 영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어머니 안동 김씨(安東金氏)는 의금부도사 김대섭(金大涉)의 딸이다. 맏형 이성구(李聖求)는 영의정을 역임하였으며, 요절한 형 이의현(李義賢)과 권경(權儆)에게 출가한 누이가 있었다.

이민구는 어려서부터 대단히 총명하였다. 그는 스스로 "여섯 살 때 옆 사람이 읽는 수천 글자의 글을 틀리지 않고 외웠으며, 일곱 살 때는 문장을 엮을 줄 알았고 시부(詩賦)를 지었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총명했던 그는 1609 년(광해군 1) 진사시와 1612 년 증광 문과(增廣文科)에서 장원을 차지하였다. 진사시 및 문과의 회시(會試)와 전시(殿試)에서 장원한 이민구를 두고 이수광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중국 사람이 일찍이 말하기를 "회시에서 장원하는 것은 천하의 더없는 재주이고, 전시에서 장원하는 것은 천하의 더없는 복이다. 재주와 복이 모두 온전한 사람은 드물다."라고 하였다. 중국에 인재가 많지만 과거에 세 번 장원한 사람은 오직 상로 한 사람뿐이니 어찌 어려운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나라는 근세에 오직 이이만이 생원시와 회시와 전시에서 장원했을 뿐이다. 이외에는 듣지 못하였는데 변변찮은 아들 민구가 진사시와 회시와 전시에서 장원하였으니 이는 요행으로 된 일이다.

이처럼 이민구는 조선왕실의 후예이며, 조부와 부친이 판서를 역임한 명문가의 자제였다. 그는 왕실의 후예로서 늘 자부심이 있었는데, 시집(詩集) 권 7 의 〈회포를 서술한 일백 운[述懷一百韻]〉에서 조선왕조의 개창과 자신의 선대를 언급한 사실이 대표적 예이다.

2) 사환(仕宦) 이력(履歷)

이만부(李萬敷)가 찬(撰)한《식산집(息山集)》권 21 〈이조참판동주이공묘갈명(吏曹參判東州李公墓碣銘)〉에 의하면 이민구는 1612 년에 문과에 장원하고, 예조와 병조의 좌랑이 되었다. 그의 나이 25 세 때의 일이다. 그러나 당시의 행적을 추적할 만한 기록이《동주집》에는 없다.

1622 년 정월에 일본에서 사신이 도착하게 되자, 그에 앞서 1621 년 겨울 이민구는 선위사(宣慰使)의 신분으로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부산에 갔다가 이듬해 9 월에 조정으로 돌아왔다. 당시 지은 시를 수록한 것이 전집(前集) 권 1 의 선위록(宣慰錄)이다.

이민구는 문과에 장원한 인재였으나 광해군 당시 그의 관직은 화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위사에 임명되었을 때의 상황을 기록한 다음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이민구는 전도유망한 신진 관료라기보다는 실세 권력자와는 일정한 거리가 있었던 인물이다.

당시에 일본 사신이 나오게 되어 있었는데 남도에 허황된 경보가 있어서 사람들이 모두 피난 준비를 하였다. 그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모두 가지 않으려고 하므로 폐기되었던 민구를 다시 등용하여 보낸 것이다.

그러나 1623 년 인조반정으로 정국이 바뀌자 이민구의 관직 생활도 변화의 양상을 보인다. 반정 뒤에 이민구는 교리와 지평, 응교를 역임하였고, 사가독서(賜暇讀書)의 기회도 얻었다. 1624 년(인조 2) 이괄이 반란을 일으키자 도원수 장만(張晩)의 종사관으로 종군하였으며, 반란이 평정된 뒤에는 경상도 관찰사에 임명되었다. 이민구는 "당시 36 세였으니, 중흥 후 임명된 방백 가운데 가장 젊었다."라고 기록하였는데, 젊은 나이로 관찰사가 된 자부심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1625 년 내직(內職)으로 돌아와 승지, 대사간, 이조 참의, 좌부승지 등을 역임한 이민구는 같은 해 7 월 임천 군수(林川郡守)로 좌천되었다. 당시의 상황을 이민구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영남 유생이 통문을 돌리며 경거망동하므로 체포하여 심문하였다. 나는 저들은 이미 선비라는 이름이 있고, 또 물을 것이 없으니 매질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아뢰었다. 이에 임금께서 사사로이 비호한다고 의심하여 임천 군수로 좌천시키셨다.

《인조실록》을 참조하면 경상 감사 원탁(元鐸)이 유생 이유도(李有道)에게 형신(刑訊)을 가하여 죽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유도의 친척 이홍중(李弘重)이 유생들과 함께 통문을 돌려 경사 감사를 비방하다가 체포되어 형신을 당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좌부승지 이민구는 무더운 날씨 때문에 이홍중의 건강이 상할 것을 염려하여 형신을 멈추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가 이홍중을 비호한다는 오해를 받아 좌천되었다.

임천 군수에서 체직(遞職)되어 조정으로 돌아온 이민구는 대사간, 대사성, 이조 참의, 도승지, 병조 참판, 이조 참판, 대사헌 등을 역임하고, 1635 년 7 월에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였다. 당시 지은 작품을 모은 것이 관동록(關東錄)이다.

1636 년에는 감군 어사 황손무(黃孫茂)의 접반사에 임명되었다. 당시 지은 작품을 모은 것이 관서록(關西錄)인데, 그 소서(小序)에서 이민구는 황손무에 대해 "기질이 거만하고 대단히 굳세며 도도하여 비위 맞추기가 어려웠다."라고 평하였다. 그런데 황손무가 지은 두 편의 시를 화운하여 이민구가 "의관은 아직도 은나라의 백색을 본받고, 초목은 멀리 태산의 푸르름에 이어졌네."라고 하자 황손무가 "성당(盛唐)의 풍운(風韻)을 지니고 있다. 마땅히 서둘러 글로 새겨서 대아(大雅)의 명성을 울려 알리라." 하고는 각별히 이민구를 예우했다고 한다. 이를 통해 이민구의 문재(文才)를 조금이나마 파악할 수 있다.

이처럼 이민구는 문과에 장원한 인재이지만 인조반정 이전에는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다가 인조반정 이후에 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간에 임천 군수로 좌천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경상도와 강원도의 관찰사를 맡았고, 문학적 능력을 인정받아 황손무의 접빈을 담당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순탄한 관직 생활을 영위하였다.

3) 강화도 함락과 유배

1636 년(인조 14) 12 월, 청 태종(淸太宗)이 이끄는 군사가 조선을 침입함으로써 병자호란이 발생하였다. 12 월 9 일 압록강을 건넌 청나라 군사는 임경업이 지키는 백마산성을 피해 곧장 한양으로 진격하였다.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을 계획하였으나 길이 막혀 가지 못하고 도중에 방향을 바꿔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으며, 인조보다 앞서 피난에 나선 봉림대군(鳳林大君) 일행만이 강화도로 피난하였다.

강화도 피난 행렬의 검찰사를 맡은 사람은 인조반정의 일등공신 김류(金瑬)의 아들 김경징(金慶徵)이었고, 이민구는 부검찰사의 직책을 맡았다. 김경징을 검찰사로 임명하면서 인조는 김류에게 그가 적임자인지 물었는데, 김류는 "경징이 다른 재능은 없으나 적을 막고 성을 지키는 일에 어찌 감히 그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강화도는 청나라 군대에 의해 함락되었고, 강화 유수 장신(張紳)과 검찰사 김경징, 부검찰사 이민구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이민구는 평안북도 영변으로 유배됨으로써 인생의 큰 변곡점을 맞이하였다. 북쪽 변방의 적객(謫客)이 된 이민구는 그가 꿈꾸었을 삶의 지향을 상실한 채 끝내 재기하지 못하고 불우한 삶을 살아야만 했다.

검찰사 김경징에 대한 인조의 믿음이 부족했듯 이민구 역시 부검찰사로 적임자가 아니었다는 평가가 대두되었다. 사건의 결과에 근거하고 당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평가이기에 온전히 신뢰할 수는 없지만 김경징과 이민구에 대한 비판은 여러 자료에서 발견된다.

이 때 검찰사 김경징은 원훈 김류의 아들로서 교만하여 스스로 잘난 체하였고, 부사 이민구는 일개 문인이었는데, 이들은 말하기를 "강화는 대강이 있는 천연의 요해지이므로 걱정할 것도 없다." 하며 밤낮으로 연회를 즐기면서 군대의 일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않았다.

당시에 판윤 김경징과 참판 이민구와 유수 장신 등이 검찰의 명을 받아 진지를 수비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으나 날마다 술에 빠져서 방어에 관한 대비책을 염두에 두지 않다가 오랑캐가 강을 건너자 세 장수는 전함을 타고 멀리 달아나서 국가의 운명이 멸망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이민구는 문인에 불과할 뿐 군무를 아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평가인 동시에 강화도의 지리적 이점만을 믿고 대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밤낮으로 연회를 즐겼다거나 술에 빠져 지냈다는 말은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록 그대로 신뢰하기가 어렵다.

호서의 관군이 패전했다는 보고가 이르자 분사가 또 이민구로 하여금 호서로 나가 안찰하도록 하였는데 이민구가 강가에서 배회하며 즉시 출발하지 않고 그 처자를 데리고 가고자 하였다.

병자호란 당시 포위된 남한산성을 구원하기 위해 충청도 관찰사 정세규(鄭世規)가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죽었다는 소문이 있었으므로, 당시 강화도에서는 이민구를 충청도로 보내 관찰사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민구는 충청도로 가는 것을 망설였고, 처자를 함께 데려가려고 했다는 기록이다.

이처럼 이민구의 강화도 행적을 지적한 기록은 그가 군무에 어둡고, 수비 대책을 세우지 않은 채 연회만을 즐겼으며, 겁을 내어 달아나고, 충청도로 가지 않으려 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이민구 본인의 입장은 세간의 평가와 달랐다. 그는 정세규에게 보낸 편지에서 강화도 함락 당시의 정황을 진술하였다. 세간에서는 그가 군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지만 이민구는 빈궁(嬪宮) 일행이 강화도로 들어온 이상 검찰사와 부검찰사의 임무는 완수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무엇보다 그가 군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남한산성으로부터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며칠 뒤에 무인 최상원이 남한산성으로부터 밀랍으로 봉한 글을 가지고 도착하였습니다. 유지에 이르기를 "수륙의 방비를 모두 유수 장신에게 위임하니 간섭하는 문제가 없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이틀 뒤에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 승려가 또 남한산성으로부터 왔는데 유지의 내용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대개 행

조에서 밖의 포위망이 단단하므로 최상원이 전달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앞의 유지를 다시 내린 것이었습니다.

수륙의 방어를 모두 장신에게 일임한다는 유지(有旨)가 두 차례나 도착하였으므로, 군무에 관한 모든 책임은 장신에게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다. 세간에서는 이민구가 겁을 먹고 숨으려고만 했다고 했지만 이민구는 도리어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금상께서 당시 봉림대군이셨는데 외사에 나와 여러 재신들에게 이르시기를 "공들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적정을 살펴보라." 하셨는데 좌우의 사람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대답하지 않으니 제가 속으로 비루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를 "제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다만 수하에 병사가 없으니 적의 실태를 살필 수는 있겠으나 적을 막는 일은 어찌한단 말입니까?" 하였습니다.

봉림대군의 지시에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이를 비루하게 여겼다는 이민구의 진술은 그에 대한 세간의 평가와 상반된다. 세간에서는 그를 직책을 도외시한 인물로 평가했지만 이민구는 도리어 강화도에 머물렀던 재신들이 소극적이었으며 자신은 위험을 무릅쓰고 적정을 살피기 위해 자원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처자식을 탈출시키려 했다는 세간의 말에 대해서도 "한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전란의 불구덩이 속에서 희생되어 하나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며, 사실과 다름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실제로 이민구는 강화도에서 아들 이원규(李元揆)와 이중규(李重揆)를 잃었으며, 부인도 적의 포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청도로 가지 않으려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민구는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였다. 당시 강화도에 피난했던 윤방(尹昉)이 충청도 관찰사의 생사를 알 수 없으므로 이민구에게 충청도로 가서 임무를 맡아달라고 하였다. 이민구는 이에 동의하고 장신에게 배편과 식량 준비를 부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튿날 출발하려고 할 때 윤방이 사람을 보내서 충청도 관찰사가 무사하므로 갈 필요가 없다는 소식을 전해왔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민구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민구가 눈물을 흘리며 가려고 하지 않았다.〔敏求涕泣不行〕"라거나 "이민구가 가려는 의사가 없어서 눈물을 흘리며 두려워하기까지 하였다.〔敏求殊無意行, 至涕泣危懼。〕"라는 등의 말에 대해 반박하였다. 남한산성과 연락이 끊기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분분하여 불안했던 강화도보다는 전란의 피해가 거의 없는 충청도로 가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가지 않으려고 했겠냐는 것이 이민구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당시 강화도에 피난했던 김광환과 윤선거가 생존해 있으니 그들에게 물어본다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민구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 하더라도 강화도 함락의 책임은 누군가가 짊어져야만 했다.

김경징, 장신, 이민구, 강진흔, 변이척 등을 잡아다 국문한 끝에 김경징은 강계(江界)로, 이민구는 영변(寧邊)으로 정배(定配)하고, 장신에게는 사약(死藥)을 내리고, 강진흔과 변이척은 목을 베었다.

사실 처음에는 장신과 김경징을 정배(定配)하려 하였으나 사헌부와 사간원의 탄핵이 거세게 일어났으므로 두 사람이 모두 사형되었다. 결국 주요 책임자 가운데 이민구만 목숨을 보존하여 영변으로 유배된 것이다.

이민구 스스로는 강화도에서 목숨을 부지한 것이 하늘이 도운 것이라고 술회했지만 한번 유배객이 된 그는 재기하지 못한 채 초야의 문인으로 인생의 후반부를 보내야만 했다. 세간의 평가와 이민구의 주장 가운데 무엇이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는 지금 판명할 수 없지만, 병자호란과 강화도 함락은 그야말로 하

늘이 정한 일이라서 그의 삶 절반을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나락으로 내몰고 말았다. 결국 이민구는 영변과 아산에서 10 년 이상의 세월을 유배객의 신세로 지내야만 했다. 당시 지은 작품은 철성록(鐵城錄)과 아성록(牙城錄)에 수록되었다.

4) 서호(西湖)에서 보낸 말년(末年)

1647 년(인조 25) 4 월 이민구는 드디어 유배에서 풀려났다. 그러나 그의 해배가 순조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의금부의 계사(啓辭)에 따라 이민구를 석방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사헌부에서는 반대 의견으로 맞섰다.

이민구의 죄를 당초 사형에서 감하여 안치시킨 것은 상의 특별한 명령에서 나온 것으로 그가 죽지 않은 것은 요행일 뿐이었습니다. 내지로 양이한 것도 너무 지나친 것인데, 지금 어찌 완전히 풀어 주어 아무 죄가 없는 사람처럼 하겠습니까.

강화도 방어의 주요 책임자들이 모두 사형된 점을 감안하면 이민구가 목숨을 부지한 것은 사헌부의 주장대로 임금의 은혜이며 요행이었을 것이다. 거기다가 영변의 적소를 아산으로 옮겨 주었으니 사형된 사람의 경우와 비교하면 법률의 적용이 공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이제 해배한다면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는 격이니 사헌부의 반대는 당연한 것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해배된 이민구는 서울로 돌아와 현재의 마포구 주변에 해당하는 서호(西湖)에서 생활하였다. 그의 나이 59 세로 이미 노년에 접어든 때였다. 서호에서 지낸 그의 말년은 큰 변화 없이 문장으로 소일하는 시간이었다. 당시 그의 바람은 서용(敍用)이었다. 조정에서도 그의 서용이 논의되었다.

이민구가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려 종사에 죄를 얻은 것은 김경징, 장신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데 혼자 형장(刑章)을 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첩을 도로 주라는 명이 뜻밖에 나왔으니, 신하로서 이토록 죄를 지고도 다시 사판을 더럽히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빨리 이민구에게 직첩을 도로 주라는 명을 거두소서.

장신과 김경징은 강화도 방어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형되었는데,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같은 죄를 범한 이민구를 서용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민구의 서용이 허락되었는데, 이 일에는 김광욱(金光煜), 한흥일(韓興一), 이경여(李敬輿), 조익(趙翼) 등의 역할이 컸다. 김광욱이 이민구의 문재(文才)가 뛰어나므로 그를 서용할 것을 진언하자, 한흥일이 동조하였다. 이에 효종은 "죄에는 수범과 종범이 있는 것인데 나도 그의 재능을 아깝게 여긴다.〔罪有首從, 予亦惜其才。〕"라고 하고는 대신들이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효종이 이민구를 종범(從犯)으로 판단하였다는 점과 그의 문재(文才)를 높이 평가하였다는 점이다. 강화 유수 장신과 검찰사 김경징을 수범(首犯)으로 분류하여 그들을 사형시킨 것은 정당하다는 논리로, 이민구가 사형을 면한 것도 요행인데 그를 서용한다면 법 적용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반대 의견을 무마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민구의 문학적 능력은 효종조차도 인정하는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

효종이 대신들의 논의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하자 당시 영의정과 우의정으로 있던 이경여와 조익은 "이민구가 죄로 폐기된 지 이제 14 년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패군한 사람이 끝내 수용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민구가 영원히 폐기되고 있는 것은 실로 원통한 일입니다."라고 하여 이민구의 서용을 적극 찬성하였다. 패군의 책임을 졌던 사람들이 다시 등용되었지만 이민구만 서용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의

서용을 적극 동조한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민구 스스로도 언급한 바 있다. 자신과 함께 견책된 사람들 중에는 같은 당의 사람들이 도와주어 죄적(罪籍)에서 벗어나 다시 환로에 오른 경우가 많은데, 이민구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가혹하게 적용하여 죽음으로 내몰려고만 한다고 한탄하였다.

이민구의 문재(文才)를 아낀 사람들의 도움으로 서용이 결정되었으나 끝내 반대 의견에 저지되어 그의 서용은 취소되었다. 이후로도 그의 서용이 논의되었으나 끝내 조정에 다시 나가지 못한 채 1670 년(현종 11) 82 세의 나이로 불우한 삶을 마감하였다. 저서로 《동주집》, 《간언귀감(諫言龜鑑)》, 《독사수필(讀史隨筆)》, 《당률광선(唐律廣選)》이 있다.

부인 해평 윤씨(海平尹氏)와의 사이에서 2 남 1 녀를 두었는데 두 아들은 병자호란 당시 강화도에서 사망하였고, 딸은 신익성(申翊聖)의 아들 신변(申昪)에게 출가하였다. 뒤에 정명수의 처제와의 사이에서 만규(萬揆), 억규(億揆), 말규(末揆)를 낳았는데 만규는 요절하였다. 시집(詩集) 권 19 의 〈염만아(殮萬兒)〉는 당시에 지은 작품이다.

2. 《동주집》의 구성

《동주집》은 크게 전집(前集), 시집(詩集), 문집(文集), 별집(別集)으로 구성되었다. 이민구의 자서(自序)에 의하면 그의 저술은 현재 남아있는 작품보다 훨씬 방대하였으나 전란을 겪으면서 소실되었다고 한다. 현재 남아 있는 작품은 그가 생전에 직접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전집은 1622 년부터 1636 년까지 그가 관직에 있을 때 지은 작품을 연차(年次)에 따라 편차한 것이다. 1637 년 영변에 유배된 이후의 작품을 엮은 것이 시집인데, 전집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한 권씩으로 구성하였다. 이민구가 관직에 나오기 이전의 작품, 즉 1621 년 이전의 작품을 모은 것이 별집이다. 문집은 운문 이외의 산문 작품을 모아 문체별로 편차하였다.

《동주집》은 이민구가 생전에 정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간행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누판고(鏤板考)》에 이 책의 판목(板木)이 함흥 감영(咸興監營)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민구의 형 이성구의 아들 이당규(李堂揆)가 1679 년에 함경도 관찰사를 역임한 바 있으므로 당시에 간행한 것이 아닐까 추정된다. 초간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奎 6139, 6742)과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고, 보사후쇄본(補寫後刷本)이 장서각(4-5938)과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291) 등에 소장되어 있다.

1) 전집(前集)

전집은 선위록(宣慰錄), 종군록(從軍錄), 영남록(嶺南錄), 가림록(嘉林錄), 묘유록(卯酉錄), 동유록(東遊錄), 관동록(關東錄), 관서록(關西錄) 등 모두 8 권으로 구성되었다. 각 권마다 소서(小序)가 있어서 창작 배경 이해에 도움을 준다.

선위록은 1622 년(광해군 14) 일본 사신을 맞이하기 위해 이민구가 부산에 다녀올 때 지은 작품을 모은 것이다. 외숙과 종제가 마련한 수원의 전별연 자리에서 지은 작품으로부터 시작하여 부산으로 가면서 경유한 지역과 만난 사람들을 소재로 작품을 남겼다. 〈동래잡영(東萊雜詠)〉은 모두 20 수인데 당시 그 지역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식하마십절(食蝦蟆十絶)〉은 이민구가 더위를 먹어 설사병을 앓게 되었을 때 지은 작품으로, 당시 여정의 어려움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종군록은 인조반정 후 도원수 장만(張晩)의 종사관이 되었을 때 지은 작품을 모은 것인데, 1624 년(인조 2) 이괄(李适)의 반란 때 지은 작품도 수록되었다. 장만의 부임 행차가 출발하는 모습을 읊은 〈장원수출

사가(張元帥出師歌)〉를 시작으로 임지로 가는 여정을 읊었고, 이괄의 난을 진압할 당시의 모습을 읊은 〈안현대첩(鞍峴大捷)〉으로 마무리하였다.

영남록은 1624 년 이괄의 난을 진압한 뒤에 경상도 관찰사로 부임하게 되었을 때의 작품을 모았다. 3 월에 임지로 가서 이듬해 4 월 돌아올 때까지의 작품이다. 첫 작품 〈수복후배영남방백사조(收復後拜嶺南方伯辭朝)〉는 서울을 수복한 뒤에 영남 방백에 임명된 기쁨을 3 수로 읊었다. 〈전고한행(前苦寒行)〉과 〈후고한행(後苦寒行)〉은 악부의 형식으로 혹한의 추위를 읊은 작품으로 이민구의 작시(作詩) 역량을 잘 보여 준다. 지리산을 유람하며 지은 작품도 동유록 및 관동록의 작품과 함께 그의 산수유람 문학을 연구하는 데 좋은 자료이다.

가림록은 이민구가 좌부승지에서 좌천되어 임천 군수로 부임했을 때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그가 임천 군수에 임명된 것은 1626 년의 일인데 1627 년 정묘호란이 발생하자 호소사 김장생(金長生)의 휘하에서 창의사(倡義使)를 겸하기도 하였다. 면직된 뒤에 수원에서 머물면서 지은 작품도 포함되었다. 〈문복(聞服)〉은 올빼미 소리를 듣고 지은 작품으로 가의(賈誼)의 〈복조부(鵩鳥賦)〉를 연상시킨다. 〈증남당주인(贈南塘主人)〉과 〈지졸당팔영용택당운(趾拙堂八詠用澤堂韻)〉은 민성휘(閔聖徽)・민성복(閔聖復) 형제와 관련된 작품으로 이민구의 교유 관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

묘유록은 1627 년 정묘년과 1633 년 계유년 사이에 지은 작품을 엮은 것이다. 중국의 역대 역사를 읊은 〈영사(詠史)〉 3 수가 눈길을 끈다. 〈치발음(齒髮吟)〉은 백발로 변해가는 머리와 빠지는 치아를 읊은 악부 형식의 작품이다. 〈차임허팔백언(次任許八百言)〉은 이민구의 시 가운데 장편에 속하는 작품이다. 〈기이판관임경성사십운(寄李判官任鏡城四十韻)〉과 〈대설여인인동부삼십운(大雪與隣人同賦三十韻)〉도 장편 대작이다.

동유록은 1631 년 이민구가 허보(許宲), 신익성(申翊聖), 이소한(李昭漢)과 함께 금강산 유람을 다녀오면서 지은 작품을 수록하였다. 당시 일정은 총 26 일이 소요되었으며, 작품은 200 여 편에 이른다. 동유록 소재의 작품들은 유람의 과정에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승경(勝景)을 읊은 것이 대다수이지만, 금강산이 갖는 상징적 의미로 인하여 불교에 관한 이민구의 인식을 파악하는 데도 유익한 자료이다.

관동록은 1635 년 이민구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여 지은 작품을 엮은 것이다. 〈추월대(秋月臺)〉의 원주(原註)에는 추월대라는 명칭을 이민구가 명명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 이름은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하면서 이민구는 다시 금강산에 올랐는데 동유록에 수록된 작품과 비교해보면 첫 번째 유람 당시를 회상하는 작품이 다수 포함되었다.

관서록은 1636 년(인조 14)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가지고 온 황손무(黃孫茂)를 맞이하기 위해 김익희(金益熙), 이행진(李行進)과 함께 관서 지방에 다녀오면서 지은 시를 수록하였다. 여기 수록된 작품은 당시 관서 지방의 피폐한 상황을 보여주기도 한다.

2) 시집(詩集)

시집은 총 24 권이다. 1637 년 이민구가 영변에 유배된 뒤로 철성록이라는 제목으로 7 권, 아산으로 이배된 뒤에는 아성록이라는 제목으로 4 권, 해배되어 서호에 머물러 지낸 만년의 시를 서호록이라 하여 11 권, 1658 년 이후의 시를 착륜록이라 하여 2 권으로 엮었다.

철성록 1 은 영변 유배 생활의 첫 해에 지은 작품을 모은 것이다. 형 이성구, 사위 신변, 사돈 신익성 등에게 보낸 시가 있고, 적소(謫所)에서의 궁핍한 생활과 약산(藥山) 등 주변의 승경을 읊은 작품이 주를 이룬다. 〈천랑행(天狼行)〉은 병자호란이 발생하여 치욕을 겪게 된 상황을 읊으면서 모든 것을 정해진 운명으로 치부한 작품이다.

철성록 2 는 1638 년, 이민구의 나이 50 세가 되는 해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이를 상기하듯 이민구는 자신이 지비(知非)의 나이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다며 도잠(陶潛)의 시를 차운하여 마음을 달래는 시를 가장 앞에 두었다. 두 손자 현상(玄賞)과 현형(玄熒)이 방문했을 때의 기쁨과 그들이 돌아갈 때 이별의 아픔을 읊은 시는 조손(祖孫)의 애틋한 정이 느껴진다.

철성록 3 은 1639 년의 작품을 모았다. 늙어가는 신세를 읊은 〈아쇠편(我衰篇)〉, 가뭄과 무더위의 고통을 읊은 〈고열행(苦熱行)〉·〈고열(苦熱)〉, 혹한의 고통을 읊은 〈고한행(苦寒行)〉 등에서 유배객의 어려운 생활을 느낄 수 있다. 〈철성칠가(鐵城七歌)〉와 〈영변후이십수(寧邊後二十首)〉 등은 철성록 2 의 〈영변이십수(寧邊二十首)〉와 함께 영변의 경물(景物)을 읊은 대표적 작품이다.

철성록 4 는 1640 년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경진원조대설(庚辰元朝大雪)〉, 〈구한입추일시우(久旱立秋日始雨)〉, 〈기이우한(旣而又旱)〉, 〈입추후팔일우우(立秋後八日又雨)〉, 〈하회민한십절구(夏晦悶旱十絶句)〉 등은 폭설, 폭우, 가뭄이 반복되었던 당시의 실상과 백성들의 고통을 읊었다. 〈끽즙채(喫葅菜)〉, 〈사회이십운(寫懷二十韻)〉, 〈병기(病起)〉 등은 이민구의 생활과 소회를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패강가증백희직(浿江歌贈白希稷)〉은 강물을 비유로 들어 백희직에게 학문에 정진할 것을 권유한 시이다. 이는 이민구가 영변에서 후진 양성에도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인데, 중앙 지식인의 유배가 지방 인재 양성 및 문화 전파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보여주기도 한다. 〈희신랑래회(喜申郎來會)〉는 사위 신변이 방문했을 때의 기쁨을 노래한 것으로, 유배지에서 외롭게 지내다가 사위와 함께 지내는 즐거움을 사실적으로 읊고 있다.

철성록 5 는 1641 년의 작품을 모은 것이다. 〈한열(旱熱)〉과 〈오월회일대우십절구(五月晦日大雨十絶句)〉, 〈임우(霖雨)〉, 〈고우(苦雨)〉, 〈대설행(大雪行)〉 등은 천재(天災)의 고통을 읊은 작품이다. 〈백발(白髮)〉, 〈낙치(落齒)〉는 노년의 소회를 읊었다. 〈증백희설(贈白希契)〉, 〈송백희익부감시본현(送白希益赴監試本縣)〉은 이민구가 백희직 형제에게 학문에 정진하도록 당부한 사실과 실제로 향시에 합격한 일을 읊은 작품이다. 〈증장응운(贈張應雲)〉, 〈증양지호(贈梁之濠)〉 역시 후학을 권면한 시이다.

철성록 6 은 1642 년의 작품을 수록하였다. 〈송유자석규질심양(送猶子碩揆質瀋陽)〉은 심양에 볼모로 가는 조카 이석규(李碩揆)를 전송하며 지은 시이다. 이석규는 이민구의 형 이성구(李聖求)의 넷째 아들이다. 이성구는 1641 년 영의정이 되었는데, 당시 조선은 구경(九卿)의 아들을 청나라에 볼모로 보내기로 약속한 상황이었다. 이성구의 둘째 아들 동규(同揆)는 막 속환(贖還)되었기 때문에 차마 다시 보낼 수 없었고, 셋째 아들 당규(堂揆)는 평소 병이 많았다. 이에 석규가 자청하여 자신이 가겠다고 나섰는데, 당시 그의 나이 15 세였다. 병자호란 뒤 수치스러운 사회상의 일면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철성록 7 은 1643 년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민구가 영변에서 생활한 마지막 해에 해당한다. 〈술회일백운(述懷一百韻)〉은 이민구의 시 가운데 가장 장편의 시로, 왕실의 후손으로서의 자부심과 유배객으로 겪는 고초 등을 서술하였다. 〈황(蝗)〉은 메뚜기의 피해를 읊은 작품이다. 신변에게 시집간 딸이 아들 신필화(申弼華)를 데리고 왔다가 돌아갈 때 지은 작품은 딸과 외손자에 대한 이민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몽은이아산(蒙恩移牙山)〉은 아산으로의 이배 명령을 받고 지은 작품이며, 이후의 작품은 영변을 떠나 아산으로 가면서 지은 것들이다.

아성록 1 은 아산으로 이배된 첫 해에 지은 작품을 모았는데, 당시의 상황과 자신의 심회를 간략히 적은 소서(小序)가 함께 기록되었다. 첫 작품 〈계미지월회일도아산(癸未至月晦日到牙山)〉을 통해 이민구가 1643 년 11 월 그믐에 아산에 도착했음을 알 수 있다. 〈송양생천리종아일년환향(送兩生千里從我一年還鄕)〉은 영변에서 아산으로 이민구를 따라 왔던 김대진(金大振)과 김원(金瑗)을 전송하는 시이다. 이민구에게 배우기 위해 아산까지 따라왔던 두 사람의 열정이 느껴진다. 신익성이 세상을 떠나자 〈곡회옹(哭淮翁)〉 4 수를 지어 애도하였다.

아성록 2 는 1645 년에 지은 작품을 모은 것이다. 〈소현세자애시(昭顯世子哀詩)〉는 소현세자를 애도한 작품이다. 〈피역사사지파천(避疫四徙至坡川)〉, 〈역려행(疫癘行)〉 등은 전염병이 창궐했던 당시의 모습을 보여 준다.

아성록 3 은 1646 년의 작품을 엮은 것이다. 〈만아왈……(萬兒曰……)〉의 '만아(萬兒)'는 이민구가 첩과의 사이에서 얻은 이만규(李萬揆)의 말을 듣고 지은 작품인데, 서호록 8 의 〈염만아(殮萬兒)〉를 참조하면 이만규는 16 세의 나이로 요절하였다.

아성록 4 는 1647 년의 작품을 모은 것인데, 이 해에 이민구는 해배되어 아산을 떠났다. 해배 당시의 소회를 적은 작품이 〈임금의 은혜로 풀려났다. 정축년(1637, 인조 15) 4 월에 서울을 떠난 때로부터 금년 정해년(1647) 4 월까지 꼭 11 년이다. 이때 오래도록 가물다가 마침 단비가 내렸다.〔蒙恩疏釋 自丁丑四月去國 距今丁亥四月 恰十一年 時久旱 適得澍雨〕〉이다.

서호록은 이민구가 해배되어 서울로 돌아와서 생활할 당시의 시를 모은 것이다. 서호록 1 의 소서(小序)에 의하면 이민구는 1647 년 5 월에 서울로 돌아왔다. 그러나 친척과 친구들도 대부분 세상을 떠나고, 노년의 우환만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때였다. 다행히 허보(許寶)의 집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면서 자주 왕래했던 것으로 보인다.

서호에 지낼 당시 이민구는 이미 60 에 가까운 나이였으므로 서호록의 작품에는 만시(輓詩)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목성선(睦性善), 심광한(沈光漢), 민성휘(閔聖徽), 김류(金瑬), 변삼근(卞三近), 남이웅(南以雄), 유성증(兪省曾), 이공익(李公益), 조카사위 한오상(韓五相) 등이 그 대상이다. 〈억야홀왈……(億也忽曰……)〉은 이민구의 넷째 아들 이억규(李億揆)에 관한 시로, 아성록 3 의 〈만아왈……(萬兒曰……)〉, 착륜록 1 의 〈최소금년춘……(最少今年春……)〉과 함께 노년에 얻은 세 아들의 기특한 말을 주제로 하였다.

서호록 5 의 〈도봉산가기한오상(道峰山歌寄韓五相)〉은 조카사위 한오상을 격려한 작품이다. 서호록 7 의 〈옛사람들이 오십에 자식 낳는 것을 경계하였는데 지금 나는 어찌 다만 이 나이를 넘긴 정도이겠는가. 등불 아래에서 막둥이의 재롱을 보며 재미삼아 짓다.〔古人戒五十生子 今余奚但過之 燈下見最少娛嬉 戲書〕〉는 막내아들 이말규(李末揆)를 보면서 지은 작품인데, 이민구는 1653 년 65 세의 나이에 이말규를 낳았다. 서호록 8 의 〈염만아(殮萬兒)〉는 아들 이만규의 죽음을 애도한 시인데, 그 원주(原註)에서 아들이 살아 있을 때의 모습과 그가 지은 작품을 언급하며 슬픔을 표현하였다. 〈장성산임강(葬成山壬岡)〉은 이만규를 장사할 때 애도한 작품이다.

착륜록은 1658 년 이후의 작품을 엮은 것으로, 당시 이민구의 나이는 70 세였다. 착륜록 1 의 소서에서 이민구는 《장자(莊子)》 〈천도(天道)〉에 실려 있는 윤편(輪扁)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민구가 70 세 이후의 작품을 엮어 착륜록이라 명명한 것은 윤편의 말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3) 문집(文集)

문집은 이민구의 산문을 모은 것으로 전체 10 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권에는 교서(敎書)와 차(箚) 각 1 편, 서(書) 6 편이 수록되어 있다. 교서는 인조반정 뒤에 반정의 정당성을 알리는 내용이다. 차는 이민구가 찬한 《간언귀감(諫言龜鑑)》을 올리면서 충간의 수용이 중요함을 역설하였다. 〈답정판서서(答鄭判書書)〉는 정세규(鄭世規)에게 보낸 편지로, 강화도 함락 당시 이민구의 행적을 스스로 밝힌 중요한 자료이다.

2 권은 서(序) 31 편을 수록하였다. 유성룡(柳成龍), 이호민(李好閔), 김성일(金誠一), 심희수(沈喜壽), 신익성(申翊聖), 정예남(鄭禮男), 오억령(吳億齡) 등의 문집 서문이 있고, 이민구 자신이 지은 《독사수필(讀史隨筆)》의 서문도 포함되어 있다.

3 권은 기(記) 22 편과 발(跋) 8 편이 수록되었다. 〈원주객사중건기(原州客舍重建記)〉와 〈원주향교중수기(原州鄕校重修記)〉는 이민구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당시 지은 작품이다. 〈동회옹풍악유기발(東淮翁楓嶽遊記跋)〉은 1631 년 신익성이 금강산 유람을 다녀온 뒤에 작성한 유람기의 발문인데, 당시 이민구도 함께 유람하였다.

4 권은 8 편의 설(說)과 25 편의 제문(祭文)과 2 편의 애사(哀辭)를 엮었다. 〈문불가이지속분공졸설(文不可以遲速分工拙說)〉은 글을 짓는 속도만으로 공졸(工拙)을 구분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민구의 문집에는 그의 문학론을 파악할 만한 자료가 많지 않은데, 이 글은 문학에 대한 이민구의 견해를 직접 언급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제문은 심광세(沈光世), 이정귀(李廷龜), 형 이성구(李聖求), 신익성(申翊聖), 장인 윤휘(尹暉), 이지정(李志定), 허보(許寀), 정세규(鄭世規), 유정량(柳廷亮)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5 권은 상량문(上樑文) 7 편, 잠(箴) 1 편, 명(銘) 2 편, 전(傳) 1 편, 부(賦) 4 편으로 구성되었다. 상량문은 청선당(聽蟬堂), 미경당(美景堂)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청평공주(淸平公主), 인평공주(寅平公主), 동강공주(東平公主), 흥평공주(興平公主)의 집에 관한 상량문을 모두 지었다는 점이 흥미롭다. 〈포구주자전(浦口舟子傳)〉은 강화도 함락 당시 배에 태워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에 관한 글로, 정세규에게 보낸 편지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부 가운데 〈남정부(南征賦)〉는 경상도 여러 고을의 역사와 인물, 자연환경 등을 읊은 장편 대작으로, 이민구 문학의 정수라 할 수 있다.

6 권은 4 편의 행장(行狀)을 수록하였는데, 아버지 이수광(李睟光), 김육(金堉), 정탁(鄭琢), 이호민(李好閔)에 관한 글이다.

7 권은 5 편의 신도비명(神道碑銘)과 6 편의 비명(碑銘)을 수록하였다. 대상 인물은 이광정(李光庭), 권철(權轍), 윤의립(尹毅立), 심우승(沈友勝), 황근중(黃謹中), 김육(金堉), 권반(權盼), 형 이성구(李聖求), 법견 법사(法堅法師), 태능 법사(太能法師), 태호 법사(太湖法師) 등이다.

8 권은 18 편의 묘지명(墓誌銘)을 수록하였다. 대상 인물은 한준겸(韓浚謙), 권반(權盼), 김대현(金大賢), 노도형(盧道亨), 이언영(李彦英), 김근(金瑾), 한후기(韓後琦)의 처 안동 권씨(安東權氏), 권적(權蹟), 목서흠(睦敍欽), 큰아들 이원규(李元揆), 둘째아들 이중규(李重揆), 유정규(劉定揆), 숙인 정씨(淑人鄭氏), 정휘옹주(貞徽翁主), 한후기(韓後琦), 오단(吳端), 홍종록(洪宗祿) 등이다.

9 권은 묘갈명(墓碣銘) 28 편, 10 권은 묘갈명 19 편을 수록하였다. 대상 인물은 이윤수(李潤壽), 조경진(曺景禛), 이유달(李惟達), 윤경립(尹敬立), 권점(權點), 이공익(李公益), 서사원(徐思遠), 목낙선(睦樂善), 김성발(金聲發), 정호(鄭灝), 이운근(李雲根), 고인계(高仁繼), 최흡(崔翕), 최복양(崔復揚), 허보(許寀), 이후근(李厚根), 정효성(鄭孝成), 정백창(鄭百昌), 이생인(李生寅), 윤유일(尹惟一), 엄황(嚴愰), 정선흥(鄭善興), 유정량(柳廷亮), 오백령(吳百齡), 장인 윤휘(尹暉) 등이다.

4) 별집(別集)

별집에는 시만 수록하였다. 이민구가 진사시에 합격한 15 세 때에 지은 작품이 첫 번째로 수록되었으므로, 1603 년의 작품부터 수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작품으로는 1620 년(광해군 12) 10 월 12 일에 지은 시가 있으므로 대략 18 년 동안의 작품을 수록한 것이다.

〈의고(擬古)〉는 모두 25 수로 별집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송허동강반가루귀명주(送許東岡搬家累歸溟州)〉는 허보(許寀)가 강원도 강릉으로 돌아갈 때 지어준 작품인데, 1610 년 발생한 과거 부정 사건과 관계된 작품으로 추측된다.

3. 이민구에 대한 평가

이민구는 어려서부터 촉망받는 인재였다. 진사시와 회시, 전시에 장원을 차지한 그를 아버지 이수광은 내심 이이(李珥)와 비교하기도 하였다. 광해군 당시에는 중용되지 못했으나 인조반정 이후에 요직을 역임하면서 문재(文才)를 인정받았다. 그러나 병자호란의 발생과 강화도 방어 실패는 그의 인생에 있어 큰 전환점이 되었으니, 운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후 그는 유배객과 야인의 신세로 지내며 삶을 마쳐야만 했다.

그가 해배되었을 때 서용(敍用)의 논의가 있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뛰어난 문재가 아깝다는 것이었다. 그만큼 이민구의 문재는 높이 평가되었다. 이유원(李裕元)은《임하필기(林下筆記)》에서 조선의 시인으로 서거정(徐居正), 김종직(金宗直), 김시습(金時習) 등 34 명을 거명하였는데, 이민구도 아버지 이수광과 함께 그 속에 포함되었다. 정약용(丁若鏞)의 글에는 채제공(蔡濟恭)의 말임을 전제로 "우리들의 시맥은 호주 채유후, 동주 이민구 이후로 오직 송곡 이서우가 그 정통을 얻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이민구를 채유후(蔡裕後)와 함께 남인 시단의 종장으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서 이민구의 문학적 위상을 단적으로 볼 수 있다.

이익(李瀷)은 이민구의 형 이성구의 문집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지봉의 두 아들은 모두 연벽과 쌍주라는 칭찬이 있었다. 분사 상공은 아우 관해옹과 더불어 수준의 고하를 쉽게 논할 수 없었으니, 이른바 곤륜산 북쪽에서는 까치에게 던지는 돌이 모두 옥이라는 경우에 해당한다. 오직 관해옹은 사장에서 문재를 발휘하여 그가 지은 문과 시, 장편, 단장이 상자에 넘치고 시렁에 가득하였다.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이목을 놀라게 하였으니, 세상에 간행되어 집집마다 전송되고 있다.

이민구가 산문과 운문에 두루 뛰어났고, 당시 사람들에게 그 문재(文才)를 인정받았다는 증언이다. 이민구의 문재는 조정에서도 인정하여 중요한 일을 맡겼다.

대제학 최명길이 아뢰기를, "부총 정룡이 우리나라 사람에게서 받은 시편의 첫머리에 쓰려고 서문을 지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의 뜻은 상국에 가서 과시하려는 것인 듯합니다. ..... 부제학 이민구는 재주와 생각이 풍족하고 영민한데다가 고문을 잘하니, 서문을 이 사람에게 짓도록 시키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로 하여금 속히 짓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동주집》 문집 권 2 에 〈부총병정룡황화집서(副摠兵程龍皇華集序)〉가 실려 있는데, 위의 글은 이민구가 이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이민구에 앞서 적임자로 언급된 인물이 장유(張維)이고, 최명길 스스로는 고문을 익히지 못해 갑자기 지을 수 없다며 사양하였다. 그러면서 이민구를 고문에 능한 인재로 추천하여 인조의 윤허(允許)를 받았다.

이처럼 이민구는 당대는 물론 후대의 인물들에게 인정받는 문재(文才)를 지닌 인물이었다. 그러나 강화도 사건으로 인해 불우한 말년을 보내야만 했다.《현종실록》에 수록된 이민구의 졸기는 그의 삶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검찰은 애당초 전쟁하는 장수가 아니었고 보면 이민구에게는 김경징과 같은 죄도 없었는데, 어찌 같은 부류로 논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대간의 논계가 여러 달 그치지 않았으니, 그 또한 너무 각박하였다. ..... 그 뒤 양조에서 서용하라는 은전이 있었으나, 그때마다 대간의 논계로 인하여 명령을 도로 거두었다. 묻혀 지낸 지 30 년에 마침내 불행하게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의 문장을 대단히 아깝게 여겼다.

이 평가는 첫째, 부검찰사 이민구를 장수와 동일한 법률로 처벌할 수 없고, 둘째, 대간의 반대로 인해 서용되지 못하였고, 셋째, 그의 문장을 아깝게 여겼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결국 이민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란과 당파 갈등으로 인해 뛰어난 문재(文才)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한 것이다.

이민구는 스스로 "강화도가 전복되던 날을 말하지 말라〔莫說江都顚覆日〕"라고 읊은 바 있는데, 강화도 함락은 그의 삶을 '액궁(厄窮)'으로 몰아넣은 운명적 사건이었다. 그의 문재가 당대에는 제대로 쓰이지 못했지만 그의 문학 작품은 《동주집》으로 남아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으며, 다수의 연구 논문도 제출되었다. 향후 세밀한 논의를 통해 그의 문학이 조명되기를 바란다.

[주-D001] 동주(東州) …… 태어났다 : 李敏求, 《東州集》 〈東州先生前集序〉, "東州翁亦自號觀海道人, 萬曆己丑正月十四日生。"

[주-D002] 맏형 …… 있었다 : 李睟光, 《芝峯集》 卷 23 〈亡室貞夫人金氏墓誌銘〉 참조.

[주-D003] 여섯 …… 지었다 : 李敏求, 《東州集》 〈東州先生前集序〉, "生六歲, 誦旁人所讀書數千字不錯。七歲, 解綴文作詩賦。"

[주-D004] 중국 …… 일이다 : 李睟光, 《芝峯類說》 卷 4 〈官職部・科目〉, "中朝人嘗言'會元天下才, 殿元天下福, 才福兼全者寡矣。' 以皇朝人才之盛, 而擧三元者, 唯商輅一人, 豈不難哉? 我國近世, 唯李珥爲生員及會試殿試壯元, 此外無聞。而迷豚敏求, 亦爲進士及會試殿試壯元, 是出僥倖耳。"

[주-D005] 1612 년에 …… 되었다 : 李萬敷, 《息山集》 卷 21 〈吏曹參判東州李公墓碣銘〉, "壬子, 又三魁擢第, 始郎禮兵二曹。"

[주-D006] 1622 년 …… 돌아왔다 : 李敏求, 《東州集》 前集 卷 1 〈宣慰錄小序〉, "天啓壬戌歲正月, 日本使南堂僧玄方至。余膺宣慰之任, 以前歲冬, 先往釜山迎勞, 至九月始還。"

[주-D007] 당시에 …… 것이다 : 《光海君日記》 13 年 2 月 17 日 기사, "時, 日本使將至, 南中虛警, 人皆荷擔。故時人皆不欲行, 乃起廢以遣。"

[주-D008] 사가독서(賜暇讀書)의 기회도 얻었다 : 《仁祖實錄》 元年 10 月 28 日 기사, "命選文學之臣李敏求、趙翼、任叔英、吳翻、李明漢、鄭百昌、金世濂、張維、李植、鄭弘溟等十人, 賜暇讀書湖堂。"

[주-D009] 당시 …… 젊었다 : 李敏求, 《東州集》 前集 卷 3 〈嶺南錄小序〉, "時年三十六, 爲中興方伯最少也。"

[주-D010] 영남 …… 좌천시키셨다 : 李敏求, 《東州集》 前集 卷 4 〈嘉林錄小序〉, "時有嶺南儒生因通文妄擧, 逮捕訊治。臣言彼旣以儒爲名, 且無可問, 考掠非宜。上疑其容私庇護, 貶守林川。"

[주-D011] 이에 …… 좌천되었다 : 《仁祖實錄》 4 年 潤 6 月 6 日 기사 참조.

[주-D012] 김경징을 …… 대답하였다 : 李肯翊, 《燃藜室記述》 卷 26 〈仁祖朝故事本末〉 참조.

[주-D013] 이 때 …… 않았다 : 安鼎福, 《順菴集》 卷 26 〈宣敎郎贈司憲府持平巴麓黃公行狀〉, "時撿察使金慶徵, 卽元勳塗之子, 驕傲自重。副使李敏求是一箇文人, 謂以長江天塹, 不足爲憂, 日夜耽樂, 置軍事於度外。"

[주-D014] 당시에 …… 하였다 : 鄭蘊, 《桐溪集》 卷 4 〈奉常寺正李公墓誌銘〉, "時判尹金慶徵、參判李敏求、留守張紳等, 受撿察之命, 當鎭守之任, 而日荒于酒, 謾不念防守之事。虜旣渡江, 則三將者乘戰艦遠走, 致令國步幾滅。"

[주-D015] 호서의 …… 하였다 : 尹拯, 《明齋遺稿》 卷 43 〈叔祖弼善府君家狀〉, "湖西官軍敗報至, 分司又令敏求出按湖西, 敏求徘徊江上, 不卽發, 欲幷其妻孥而去。"

[주-D016] 빈궁(嬪宮) …… 판단하였다 : 李敏求, 《東州集》 文集 卷 1 〈答鄭判書書〉, "嬪宮始由廣城津入江都。檢察之職, 只管道路舟船供頓, 而旣入島, 臣等實爲冗官。"

[주-D017] 수륙의 …… 것이었습니다 : 위와 같은 글, "居數日, 武人崔尙元自山城齎到蠟書, 有旨曰 : '水陸防備, 專委留守張紳, 俾無掣肘之患。' 間兩日, 不記名僧人又自山城來到, 有旨同前。蓋行朝慮外圍嚴密, 尙元不得達, 更申前旨云。"

[주-D018] 금상께서 …… 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글, "今上時爲鳳林大君, 出御外司, 普謂諸宰, '公等一人先往覘賊'。左右嘿不應, 僕私心鄙之。對曰 : '下官請先出, 但手下無見兵, 覘賊則可, 禦敵奈何?'"

[주-D019] 처자식을 …… 말 : 李尙馨,《天默遺稿》 卷 2〈論江都三臣箚〉, "慶徵、紳則其老母置之鋒刃上, 而曾不顧念。敏求則逃生最先, 謀出妻子,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주-D020] 한 집안의 …… 없었다 : 李敏求,《東州集》 文集 卷 1〈答鄭判書書〉, "一家百口倂熠於烽焰, 尺口無遺。"

[주-D021] 이민구가 …… 않았다〔敏求涕泣不行〕 : 金尙憲,《淸陰集》 卷 26〈伯氏議政府右議政仙源先生神道碑銘〉.

[주-D022] 이민구가 …… 하였다〔敏求殊無意行, 至涕泣危懼。〕 : 金尙憲,《淸陰集》 卷 26〈伯氏議政府右議政仙源先生神道碑銘〉.

[주-D023] 김경징 …… 베었다 : 趙慶男,《續雜錄》 卷 4〈丁丑上〉 참조.

[주-D024] 사실 …… 사형되었다. :《仁祖實錄》 15 年 2 月 22 日 기사 참조.

[주-D025] 의금부의 …… 있었지만 :《仁祖實錄》 25 年 4 月 13 日 기사, "以義禁府審理啓辭, 命放罪人李敏求等十四人。"

[주-D026] 이민구의 …… 하겠습니까 :《仁祖實錄》 25 年 4 月 26 日 기사, "李敏求之罪, 當初減死安置, 特出於上命, 其不死幸耳。量移內地, 亦已過矣。今豈可全釋, 便爲無罪之人哉?"

[주-D027] 이민구가 …… 거두소서 :《仁祖實錄》 27 年 3 月 10 日 기사, "李敏求忘君負國, 得罪宗社, 與金慶徵、張紳少無差別, 而獨免刑章。今者職牒還授之命, 出於意外。人臣豈有負罪至此, 而復玷仕版者乎? 請亟收李敏求職牒還授之命。"

[주-D028] 김광욱이 …… 동조하였다 :《孝宗實錄》 1 年 7 月 16 日 기사, "李敏求文才可惜, 而廢棄已久。値此大霈, 赦罪收用, 未爲不可。"

[주-D029] 죄에는 …… 여긴다〔罪有首從, 予亦惜其才。〕 :《孝宗實錄》 1 年 7 月 16 日 기사.

[주-D030] 영의정과 …… 일입니다 :《孝宗實錄》 1 年 7 月 16 日 기사, "領議政李敬輿、右議政趙翼以爲 : "李敏求罪廢, 今十四年矣。從前敗軍之人, 終被收用, 則敏求永廢, 實涉冤矣。"

[주-D031] 자신과 …… 한탄하였다 : 李敏求,《東州集》 文集 卷 1〈答鄭判書書〉, "同時蒙譴之人, 壞事負國不止一二, 而朋黨私交, 情親意密, 遊辭飾說, 營救百端, 因得以洗丹書而升靑雲者比比。獨於下流, 衆怒叢怨, 擠之於必死之地, 擬之以大何之律。"

[주-D032] 동주집은 …… 있다 : 朴憲淳의《東州集》 해제 참조.

[주-D033] 이석규는 …… 15 세였다 : 蔡濟恭,《樊巖集》 卷 50〈贈吏曹參判行戶曹佐郎李公墓碣銘〉 참조.

[주-D034] 조선의 …… 포함되었다 : 李裕元,《林下筆記》 卷 30〈我朝詩派〉, "我朝詩人, 自徐居正, 後有金宗直、金時習、成侃、李胄、朴誾、李荇、申光漢、鄭士龍、奇遵、朴祥、林億齡、林亨秀、朴淳、盧守愼、黃廷彧、高敬命、崔慶昌、白光勳、李達、車天輅、李安訥、權韠、崔岦、林悌、金宗直、任錪、李春英、李睟光、許筠、李春元、李植、李敏求、鄭斗卿也。"

[주-D035] 우리들의 …… 얻었다 : 丁若鏞,《茶山詩文集》 卷 14〈跋畫櫻帖〉, "吾黨詩脈, 自湖洲【蔡裕後】、東州【李敏求】以來, 唯松谷李瑞雨得其宗。"

[주-D036] 지봉의 …… 있다 : 李瀷,《星湖全集》 卷 50〈分沙集序〉, "芝峯之子二人, 有聯璧雙珠之譽。分沙相公與其季觀海翁, 未易軒輊, 所謂昆崙之北抵鵲皆玉也。唯觀海翁癢技詞場, 若文若詩長篇短章, 溢篋盈架, 騰口舌而震耳目, 刊而行之, 家傳而戶誦。"

[주-D037] 대제학 …… 따랐다 :《仁祖實錄》 12 年 2 月 2 日 기사, "大提學崔鳴吉啓曰 : '程副摠索序文, 幷諸所求詩篇, 其意蓋欲誇示上國。……副提學李敏求, 才思贍敏, 能爲古文, 序文之託, 此實可合。請令從速撰出。' 上從之。"

[주-D038] 검찰은 …… 여겼다 :《顯宗實錄》 11 年 2 月 19 日 기사, " 檢察初非戰將, 則敏求無慶徵之罪, 論罪豈可同科? 而臺啓積累月不已, 其亦太刻矣。……其後兩朝皆有恩敍, 因臺啓輒還收。沈淪三十餘年, 卒厄窮以死, 世多惜其文章。"

[주-D039] 강화도가 …… 말라〔莫說江都顚覆日〕 : 李敏求,《東州集》 詩集 卷 7〈贈平山李使君聖淵〉.

[주-D040] 다수의 …… 제출되었다 : 부유섭,「동주 이민구와 남인시맥의 전개」,『한국한시연구』 8 집, 한국한시학회, 2000. ; 김영주,「동주 이민구의 문학론 연구」,『동방한문학』 20 집, 동방한문학회, 2001. ; 김은정,「신익성의 金剛山 유람과 문학적 표현」,『진단학보』 98 집, 2004. ; 박수천,「동주 이민구의 시세계」,『한국한시작가연구』 10 집, 한국한시학회, 2006. ; 허현주,「동주 이민구의《당률광선》 연구」,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이남면,「동주 이민구의 생애와 시세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이남면,「아산의 유배문학 : 李敏求의〈牙城錄〉」,『우리문학연구』 41 집, 우리문학회, 2014.

능주 목사로 나가는 장령 신열도를 전송하다〔送申掌令悅道牧綾州〕

13世 열도(悅道) 父 : 흘(仡)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난재공파(鑾齋公派)

嶺表富瑰材。府庫實不貧。明珠滄海產。北走充上珍。靈氛未消歇。間發多秀民。到今數遺寶。申氏越常倫。舂容淸廟音。永懷太古人。御史任紀綱。搏擊喪吾眞。豈無一荒郡。尙阻王澤親。雖靡愷悌政。庶回蔀屋春。策勵期會間。臥閣兼濟身。朝恩果微願。出佩銅符新。綾城湖右僻。去駕朱斑輪。南方舊稱豪。觸事生緇磷。操持造化地。必令甿俗淳。赤子苟饑渴。但笑勿a094_215c怒嗔。嚴寒振京國。氷雪浩無垠。梅花冬候暖。言邁莫逡巡。窮交抵白首。別離慘精神。長歌激危涕。鵂鶹催向晨。惻愴天日臺。幽魄埋靈均。北風爲我起。颯颯吹澗蘋。

영남에 뛰어난 인재 많아 / 嶺表富瑰材
그 부고 실로 넉넉하지 / 府庫實不貧
진주가 푸른 바다에서 생산되어 / 明珠滄海產
북으로 달려와 귀한 보배 되지 / 北走充上珍
신령한 기운 사라지지 않아 / 靈氛未消歇
간간히 일어나 빼어난 백성 많았네 / 間發多秀民
지금까지 남겨진 보배 세어 보면 / 到今數遺寶
신씨는 보통보다 뛰어났네 / 申氏越常倫
용용한 〈청묘〉의 소리 / 舂容淸廟音
길이 태고의 사람 그립게 했는데 / 永懷太古人
어사가 기강 바로잡는 책임 맡아 / 御史任紀綱
탄핵으로 나의 참을 잃었네 / 搏擊喪吾眞
어찌 황량한 고을 하나 없으랴만 / 豈無一荒郡
아직도 임금의 은택 막혔네 / 尙阻王澤親
비록 화락한 정사 아니라도 / 雖靡愷悌政
거의 초막집의 봄 돌이키리 / 庶回蔀屋春
기회의 사이에 가다듬어 / 策勵期會間
관아에 누워 두루 구제할 몸이라네 / 臥閣兼濟身
조정의 은혜 과연 작은 바람이었으니 / 朝恩果微願
외직 맡아 새로 동부 찼네 / 出佩銅符新
능주는 호우의 외진 곳인데 / 綾城湖右僻

가는 수레 붉은 무늬의 바퀴로구나 / 去駕朱斑輪

남방은 예부터 거친 고을로 일컬어지니 / 南方舊稱豪

일마다 검게 물들고 닳을 일 생기네 / 觸事生緇磷

바로잡아 교화를 이루어 가는 곳에 / 操持造化地

반드시 백성들의 풍속 순박하게 하시게 / 必令甿俗淳

백성들 진실로 주리고 목마르니 / 赤子苟饑渴

웃기만 하고 노하거나 꾸짖지 마시게 / 但笑勿怒嗔

호된 추위가 서울에 진동하여 / 嚴寒振京國

얼음과 눈이 끝없이 펼쳐졌는데 / 氷雪浩無垠

매화 피고 겨울 날씨 따뜻하리니 / 梅花冬候暖

먼 길 떠나며 머뭇거리지 마시라 / 言邁莫逡巡

곤궁한 사귐 늘그막까지 이르니 / 窮交抵白首

이별 앞에서 마음 서글프다 / 別離慘精神

긴 노래에 눈물만 흐르는데 / 長歌激危涕

괄갈이 새벽을 재촉하네 / 鴷鶡催向晨

서글프다 천일대 / 惻愴天日臺

그윽한 혼백이 영균처럼 묻혔네 / 幽魄埋靈均

삭풍이 우리를 위해 일어나 / 北風爲我起

씽씽 도랑물의 마름에 불어오리라 / 颯颯吹澗蘋

東州集 詩集卷十八 一

盛春真難有沉痾忽欲無惟知感投璧只似誦連珠露冷調瓊屑永寒動玉壺台光近河漢併及鈞臺徒

送申尊令悅道牧綾州

嶺表留瓊材府庫實不貪明珠滄海產北走充上珍靈氣未消歇閒蔵多秀民到今數遺賢申氏越常倫眷容清廟音永懷太古人御史任紀綱摶擊憂吾真豈無一荒郡尚阻 王澤親雖靡惟悕政庶回蔀屋春策勵期合同升閣燕濟身朝 恩果微願出佩銅符新綾城湖右僻去駕朱斑輪南方舊稱豪觸事生緇磷操持造化地必令甿俗淳赤子苟饑渴但笑勿怒嗔嚴寒振京國氷雪浩無垠梅花冬候暖言邁莫逡巡窮交抵白首別離慘精神長歌激危涕鴷鶡催向晨惻愴天日臺幽魄埋靈均北風爲我起颯颯吹澗蘋

送申翰林最宰狼川

自古賢達士未盡爲斯世乘時各樹立豈兒淪昏乃惟降仕殊天意存感厲鶚窮既相兄增益亦不細所以鈞築徒汲汲開聖慧申君秉靈性弱齡負文藝青雲始一舉逸翮俄中滯忽起宰十室深峽實洞節瑽山射虎穴造郭藤蘿翳峥嶸翰林居夢落荒江裔

목재집(木齋集)

- 홍여하의 글쓰기 방법과 경서 해석 -

전재동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I. 들어가는 말

17 세기는 중국의 명(明)・청(淸) 교체, 일본의 막부(幕府) 정권 탄생 등 동아시아의 질서가 급변하는 중이었으며, 조선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광해군과 북인정권의 몰락, 인조반정, 병자호란 등의 와중에서, 지식인들은 절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처럼 내우외환의 시기를 살았던 17 세기 지식인들에게는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문제가 어느 시대보다 절실하게 다가왔다. 이 명제는 당시의 지식인들에게 선택이 아닌 당위였으며, 그 속에서 많은 지식인들은 전통적으로 구현해 오던 유교 문화의 재건, 혹은 계승을 그들의 의무로 삼았다.

당시 조선의 정계는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과 남인의 연합 정권이 예송(禮訟)을 거치면서 점차 서인(西人) 일색으로 굳어져 갔다. 그러다가 서인들은 노론과 소론으로 갈라지면서 내분을 보였고, 남인들은 1694 년(숙종 20) 갑술옥사(甲戌獄事) 이후 정계에서 일시 사라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혼란의 와중에서도 당시의 지식인들은 주자학을 강화하여 조선 사회의 이념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공통점이 있었다.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도 이 시기를 살아간 영남 지식인 중의 한 사람이다.

홍여하의 본관은 부림(缶林 지금의 군위군 부계면), 자는 백원(百源), 호는 목재・산택재(山澤齋)이다. 그는 홍귀달(洪貴達)의 5 대손으로, 안동부 성동리, 즉 지금의 문경시 영순면 율리에서 홍호(洪鎬)와 장흥 고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홍여하는 20 세 전에 조부의 권유로 성균관에서 유학하였으며, 35 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로 대과에 급제하여 검열(檢閱)・봉교(奉敎)・장령(掌令)・감찰(監察) 등의 관직을 역임했다. 그러다 39 세가 되던 해에 올린 상소가 송시열(宋時烈)을 비방했다는 모함을 받아 함경도 영변(寧邊)의 판관(判官)으로 좌천되고, 이듬해에 충청도 황간(黃澗)으로 유배되었다. 그 무협 효종이 승하하자 해배(解配)되고, 이후 홍여하는 관직을 버리고 고향 율리로 돌아와 저술과 강학활동에 매진하였다.

홍여하의 생애는 관직에 있는 기간보다는 독서와 강학으로 보낸 시기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고향에 머물면서《목재집》12 권을 비롯하여《휘찬여사(彙纂麗史)》・《동사제강(東史提綱)》 등의 많은 저술을 남겼다.《휘찬여사》는 그의 나이 20 세 무렵에 완성된 것으로《고려사(高麗史)》의 미흡한 부분을 나름대로 보충하여 기전체(紀傳體)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동사제강》은 서거정(徐居正)이 편찬한《동국통감(東國通鑑)》에 자신의 의견을 주석으로 덧보탠 것이다. 두 책은 기존의 역사서에서 다루지 않았던 기자조선(箕子朝鮮), 마한(馬韓)의 정통성, 삼한(三韓)의 왕조 계승 문제, 고려조 일신(逸臣)들의 전기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어 조선 시대에 간행된 사찬(私撰) 역사서로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홍여하는《사서발범구결(四書發凡口訣)》・《용학구의(庸學口義)》・《의례고증(儀禮考證)》・《해동성원(海東姓苑)》 등을 저술하여 경학(經學)・인물・제도(制度) 등에도 해박한 지식을 피력하였다.

이처럼 홍여하의 학문은 역사・문학・철학을 비롯하여 경서 해석, 인물 전장에 대한 고찰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선행 연구자들은 홍여하가 편찬한《휘찬여사》・《동사제강》을 바탕으로 그의 역사 인식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서간문과 잡저류를 통해 문학론을 구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

들을 충실하게 수용하여 본고에서는 홍여하의 글쓰기 방법과 경서 해석 양상 및 특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II. 홍여하의 문학론과 시세계

《목재집》은 12 권 6 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맨 앞에 1693 년(숙종 19) 권유(權愈, 1633~1704)가 지은 서문(序文)이 있고, 목록은 없다. 전체 구성은 권 1~2 시(詩), 권 3 소(疏), 권 4 서(書), 권 5~6 설(說)・책제(策題)・서(序)・기(記)・발(跋)・잠(箴)・명(銘)・송(頌)・찬(贊)・상량문(上樑文), 권 7~8 제문(祭文)・갈명(碣銘)・행장(行狀), 권 9 독서차기(讀書箚記)・잡저, 권 10《동사제강(東史提綱)》의 범례・《휘찬여사(彙纂麗史)》의 범례 및 각 지(誌)・전(傳)・세가(世家) 등에 실린 총론(總論), 권 11~12 부록(附錄)이다.《목재집》은 1677 년경부터 편찬이 시작되어 홍여하의 아들 상문(相文)과 상민(相民)이 이현일(李玄逸)에게 행장을 부탁하였다. 1689 년 기사환국으로 남인이 집권하면서 홍여하는 이현일의 진달로 부제학에 추증되었고, 1693 년에는 상주(尙州) 근암서원(近嵓書院)에 종향되었다. 아울러 같은 해에 권유가 문집의 서문을 완성하였으니, 이로 보아 1693 년을 즈음하여 문집의 편차가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숙종(肅宗) 연간에는 문집이 간행되지 못하고 후손 대귀(大龜)가 죽은 1737 년(영조 13) 이후에 현전하는 문집이 간행되었다.

현전하는《목재집》은 규장각(奎 6181), 국립중앙도서관(한 46-가 1720), 장서각(4-6004) 등에 추각본이 소장되어 있는데, 초간본의 간행 이후 〈의례소(議禮疏)〉와 이에 딸린 〈의례경전상복고증(儀禮經典喪服考證)〉 54 판(板)을 권 4 로 편집하여 추각(追刻)해 끼워넣고 이후 권차를 뒤로 미루어 놓은 것이다. 추각된 〈의례소〉는 1666 년(현종 7) 율리 은거 시절 경상도의 유생을 대신하여 지은 것인데,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들의 예론을 부정하고 비판하면서 저자의 예론을 펴 나간 내용이다.

홍여하의 학문은 그의 문학론과 시작(詩作) 양상, 경학관 등에 자세하므로 이 장에서는 시작과 문학 이론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1) 시작(詩作) 및 글쓰기 방법

16 세기 영남학파의 종장(宗匠)이었던 이황(李滉)은, 주자학의 정수가 그가 남긴 서간문에 있다고 하면서, 주자의 서간문 가운데 요체가 될 만한 1000 여 편을 선별하여《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로 편집하였다. 이후 이 책은 주자학을 학습하는 데 필독서로 인식되었는데, 이런 현상은 후인들이 조선 학자들의 학문을 탐구하기 위한 좋은 지침이 되었다. 즉 특정 개인의 학문을 연구하는데 서간문의 분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며, 이는 홍여하에게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다. 홍여하가 사우(師友)나 후배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의 글쓰기 방법과 문학을 대하는 입장 등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더러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이구(李榘)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이른바 '두 가지 일'이란 사서집주(四書集註)를 읽을 때 반드시 먼저 구법(句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진신(搢紳) 선생들이 몽학(蒙學)을 가르칠 때에는 번번이 이 구법을 입으로 전수하기에 어릴 때부터 모두들 이미 잘 압니다. 지금 그들이 저술한 글을 보니 타고난 재주는 깊고 얕음이 있지만, 큰

줄기는 마치 한사람의 손에서 나온 듯합니다. 일반인들의 글도 이 구법을 알고, 조어(助語)나 자법(字法)도 모두 사서법(四書法)을 씁니다.....한 가지 경우를 예로 들어 증명해 보겠습니다. 《맹자》를 읽으면 매 장마다 대지(大旨)가 있습니다. 《맹자집주》에서는 장장(章章)마다 대지를 끌어내면 번거롭기 때문에 첫 장 중에 대지를 간파하는 법을 게시(揭示)해 독자들이 예에 따라 깊이 연구하면 저절로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곱 편 글의 뜻 중에 제일 중요한 뜻입니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독서와 글쓰기에 있어 사서집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구는 홍여하보다 7살 연상으로 젊은 시절 홍여하의 공부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다. 이구는 충북 괴산(槐山)에서 출생했으며, 병자호란 이후 문경 산양(山陽)으로 이주하였다. 그의 외조부는 황희(黃喜)의 7세손 황시간(黃時幹)으로, 서애 유성룡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이구가 주장한 이기설(理氣說)은 율곡의 그것을 부정하고 퇴계의 설을 옹호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상에서 거론한 몇 가지 사항으로 미루어 보아 이구의 학문은 이황과 유성룡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홍여하는 이구에게 보낸 답장에서, 중국 사람들은 사서집주의 구법(句法)에 훤하여 문장을 쓸 때 조어(助語)나 자법(字法)도 모두 사서집주를 따른다고 했다. 이 말은 사서집주가 문장 작법의 준칙이라는 뜻이다. 홍여하가 문장을 지을 때 사서집주를 강조한 것은 비단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제자 이선(李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지난번 물었던 작문(作文)과 구법(句法)은 올바르면서도 합당한 맥락을 선점(先占)해야 하며, 그런 뒤에 교(巧)·졸(拙)을 따져야 하네. 맥락이 어긋나면 비록 공교롭더라도 무익하니, 사서집주의 혈맥(血脈)을 익숙히 보는 것만 못하네."라고 하여 사서집주의 혈맥에 익숙해지는 것이 작문과 구법을 터득하기 위한 선결 과제임을 설파하였다.

홍여하의 글쓰기 방법은 《사기(史記)》·《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등의 선진고문(先秦古文)을 강조하였다는 사실을 두 번째로 지적할 수 있다. 조선 전기까지만 하더라도 고문을 익히기 위한 전범(典範)은 《고문진보》였으며, 당연히 그 당시의 고문도 한유와 유종원을 중심으로 한 당송고문(唐宋古文)이었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 명나라 전후칠자(前後七子)의 의고적(擬古的) 문풍에 영향을 받아 독서의 대상도 《사기》·《장자》·《맹자》·《전국책(戰國策)》·《춘추좌씨전》 등으로 확대되어 당송고문에서 진한고문(秦漢古文)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 중기 문풍의 변화는 전후칠자의 영향이라기보다 조선 지식인들의 주체적 판단에 입각하여 당송고문과 진한고문을 넘나드는, 창조적이면서도 복합적인 문체를 구현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홍여하 역시 조선 중기의 문풍 변화에 홀로 고립되지는 않았다. 사실 홍여하가 활동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의 영남 학자들 가운데서는 홍여하처럼 문장 작법이나 구법 등에 관심을 기울였던 이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홍여하는 독서나 문장을 지을 때 조어법이나 구법 등에 정밀해야 함을 강조했는데, 그가 주장한 독법과 문장 작법의 두 번째 기준은 《사기》와 《춘추좌씨전》 등을 철저하게 익히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다음의 편지를 통해 알 수 있다.

지금은 무슨 책을 읽고 있습니까? 《사기》는 읽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이미 읽었다면 《춘추좌씨전》도 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중략) 《춘추좌씨전》만 읽고 《사기》를 읽지 않으면 반드시 껄끄러우면서도 막히는 근심이 있고, 《사기》만 읽고 《춘추좌씨전》을 읽지 않으면, 탁월하면서도 격렬하여 장엄하게 물결치는 듯하지만 재단하여 간결하게 함이 부족합니다. 반드시 취해서 서로 의지한 이후에 그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해야지 두 가지 근심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기》를 읽기는 좋아하지만, 《춘추좌씨전》을 읽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춘추좌씨전》은 조리와 맥락을 위주로 하여 정교함이 《사기》보다 훨씬 낫

습니다. 우리 동방의 글은 비록 때때로 좋은 곳이 있기도 하나 조응(照應)의 정밀하고 명확함이 온전히 부족함은 《춘추좌씨전》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용문은 홍여하가 이윤해(李允諧, 1645~?)에게 보낸 것으로, 이윤해는 홍여하의 벗 정도응(鄭道應)의 사위이다. 인용문은 《사기》와 《춘추좌씨전》의 상관관계를 따진 것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병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춘추좌씨전》만 읽고 《사기》를 읽지 않으면 '껄끄러우면서도 막힌다.〔澁滯〕'는 단점이 있고, 반대로 《사기》만 읽고 《춘추좌씨전》을 읽지 않으면 '장엄하게 물결치는 듯하지만, 재량하여 간결하게 함이 모자란다.'는 흠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 당시 학자들은 《사기》를 읽는 데 몰두하여 《춘추좌씨전》을 등한시한 것 같다. 그 때문에 홍여하는 《춘추좌씨전》이 조리가 명확하고 맥락이 정교하기 때문에 결코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던 것이다.

홍여하의 《춘추좌씨전》 강조는 인용문에 바로 이어지는 글에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는 "한 문공(韓文公)은 《춘추좌씨전》이 과장되다고 여겼는데, 그 말에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치우치게 믿다가 결국 이 말을 옳다고 여기니, 또한 어리석은 사람 앞에서 꿈을 해설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래에 가만히 창려(昌黎) 일생의 글을 분석해 보니, 모두 《춘추좌씨전》으로부터 밖으로 연출해 냈음이 분명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어찌 다만 한자(韓子)뿐이겠습니까. 회암(晦庵)의 사서집주 문법과 혈맥도 모두 《춘추좌씨전》의 문호 가운데서 나온 것만 진실로 뚜렷한 내력이 있습니다."라고 하여 《춘추좌씨전》을 비판했던 한유(韓愈)나 주자 모두 《춘추좌씨전》을 근거로 하여 문장을 지었다고 주장하였다.

홍여하의 《사기》·《춘추좌씨전》 강조는 그의 시를 통해서도 여실하게 드러난다. 그는 〈감흥〉이라는 시를 통해서 "동방의 풍속은 순후하고 어지니, 추로(鄒魯)보다 못하지 않네. 한스럽기는 문장이 고루하여 오늘까지 풍아(風雅)에 부끄러운 것이네. 사법(史法)은 도무지 그 효과가 없고, 시격(詩格)은 어긋나 더욱 촌스럽네. 후세 현인을 위하여 고하노니, 노력하여 좌마(左馬)를 배우시라."라고 했다. 이 시에서 홍여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풍속이 어질고 순박해서 노나라에 버금가지만, 문장을 짓는데 《춘추좌씨전》과 《사기》를 익히지 않아 사법(史法)은 효과가 없고, 시격은 뒤처진다고 한탄하였다.

홍여하의 글쓰기는 문장 속에서의 조응(照應) 관계를 중시한 점을 세 번째 특징으로 들 수 있다. 한유는 조선 시대를 통틀어 고문(古文)을 논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다. 물론 그는 진한(秦漢)의 고루함을 타파하고 당송(唐宋)의 새로운 고문을 개척하여 창도하였다. 하지만 조선의 문장가들이 진한고문과 당송고문의 적절한 조화를 추구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한유는 소홀하게 다루어질 수 없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홍여하도 한유의 문장 작법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음에서 확인해 보도록 한다.

한비(韓碑)를 읽는 방법은 체제(體制)가 대략 세 가지입니다. 묘지(墓誌)의 소문(小文)은 비록 수십 행(行)을 벗어나지 않지만, 수미(首尾)가 긴밀하게 연관되어 반드시 서로 호응하는 곳이 있으니, 예를 들어 '모두 남방의 현령이 되었다.〔俱爲縣令南方〕', '영아(嬰兒)는 변(汴)이다.〔嬰兒汴也〕', '풍영(酆郢)은 모두 강남에 있다.〔酆郢皆在江南〕'는 유입니다. 또 노동미지문(盧東美誌文) 같은 것은 관건(關鍵)의 상밀(詳密)·중복(重複)이 글자 글자마다 상응하기 때문에 다시 지을 수 없는 명문(銘文)입니다. 〈평회서(平淮西)〉,〈서언왕(徐偃王)〉의 대문(大文)은 서말(序末)이 상응될 필요가 없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명문(銘文) 안에서 거듭 감회를 펼치고, 하나하나가 서문과 함께 상응하면서도 관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편(篇)의 대소를 막론하고 명문(銘文)의 기두자(起頭字)는 번번이 서문(序文)의 기두(起頭)에서 취해 씁니다. 이 때문에 공

감서(孔戡序)의 첫머리에서 공군(孔君)이라 칭하고, 명문의 서두에 '진실로 의로운 공군이여.〔允義孔君〕'라고 했습니다. 장철(張徹)은 첫머리에 이름을 칭했기 때문에 명문에서도 '오호라, 철이여.〔嗚呼徹也〕'라고 했습니다. 자후(子厚)는 첫머리에 자후라 칭했기 때문에 명문에서도 '생각하건대 자후의 집안은〔是惟子厚之室〕'이라고 했습니다. 맹정요(孟貞曜)·평회서·서언왕비(徐偃王碑)도 모두 똑같습니다. 익숙하게 보아서 이 방법에 훤하면 사서주의 문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용문은 홍여하가 박진규(朴鎭圭)에게 보낸 답장의 일부이다. 이글에서 홍여하는 한유의 묘지문을 읽기 위해서는 세 가지 체재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수미가 호응되는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파악할 것. 둘째, 묘지명에 쓰인 핵심어는 글자마다 상응하는 곳이 있다는 것. 셋째, 명문의 기두자는 서문에서 취해 쓴다는 점이다. 이 같은 세 가지 체재를 증명하기 위해 홍여하는 〈하남령장군묘지명(河南令張君墓誌銘)〉·〈예연명(瘞硯銘)〉·〈당하중부법조장군묘갈(唐河中府法曹張君墓碣)〉·〈고공원외노군묘명(考功員外盧君墓銘)〉·〈평회서비(平淮西碑)〉·〈구주서언왕묘비(衢州徐偃王墓碑)〉·〈공사훈묘지명(孔司勳墓誌銘)〉·〈급사중청하장군묘지명(給事中淸河張君墓誌銘)〉·〈유자후묘지명(柳子厚墓誌銘)〉 등을 인용하였다.

홍여하가 주장한 한비(韓碑)의 세 가지 체재는 그 분석 방법에 있어 단어나 문장의 상관관계나 조응을 중요시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하남령장군묘지명〉의 주인공 장서(張署)의 묘지명에 '모두 남방의 현령이 되었다.〔俱爲縣令南方〕'라는 구절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장서는 하남(河南) 사람으로 문사(文詞)가 있어 과거에 급제하였고, 한유와 함께 감찰어사로 재직하다가 언사(言事)의 잘못으로 장서는 임주로, 한유는 연주(連州)로 좌천되었다. 그 당시 이방숙(李方叔)도 남방으로 좌천되었는데, 이 사실을 한유는 〈하남령장군묘지명〉의 서두 부분에 '구위현령남방(俱爲縣令南方)'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말미에 다시 한 번 '구위현령남방(俱爲縣令南方)'이라고 기록하여 수미가 조응이 되도록 하였다. 기두자의 서문에 있는 단어를 가져와 본문에서도 그대로 쓴다는 세 번째 법칙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홍여하의 문장 작법을 홍대귀(洪大龜)는 〈행장〉에서 "부군의 문장은 사서오경(四書五經)을 근본으로 삼고, 《춘추좌씨전》·《국어(國語)》·《사기》·《한서(漢書)》를 보익(輔益)으로 삼았고, 주자의 집주(集註)를 준칙(準則)으로 삼았다."라고 한 것은 믿을 만하다고 하겠다.

(2) 작시(作詩) 양상과 그 특징

《목재집》을 살펴보면, 홍여하는 23 세부터 시를 지었으며, 본격적인 시작(詩作) 활동은 41 세가 되던 해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시는 문집 권 1 · 2 에 수록되어 있는 것이 총 255 제 370 수이며, 교유 인물들의 문집에 수록된 시를 모두 포함하면 총 400 수 가까이 된다. 《목재집》에 수록된 370 수의 한시를 작성된 시기 순으로 살펴보면,〈우음(偶吟)〉·〈정이국창찬(呈李菊窓燦)〉·〈증최방옹척(贈崔放翁倜)〉·〈술회(述懷)〉·〈봉정이택당식(奉呈李澤堂植)〉〈부화택당(附和澤堂)〉·〈만음희정이대방구(漫吟戱呈李大方榘)〉·〈제수월암(題水月庵)〉·〈만이대방(挽李大方)〉·〈만이용궁대규(挽李龍宮大圭)〉 등 10 여 수는 35 세 이전에, 〈증황옥상빈(贈黃玉相霦)〉·〈대명전춘일조조(大明殿春日早朝)〉·〈차독락원운봉정용주조선생(次獨樂園韻奉呈龍洲趙先生)〉·〈영가요이수위윤순보집작(永嘉謠二首爲尹純甫鏶作)〉·〈증채대제학유후이봉교명익장사지행(贈蔡大提學裕後李奉敎溟翼藏史之行)〉·〈송서감사재이필원부호서(送徐監司載爾必遠赴湖西)〉·〈북유(北遊)〉·〈망동해(望東海)〉·〈영금강산(詠金剛山)〉 등을 비롯하여 〈북관고사(北關故事)〉까지 30 여 수는 관직에 있을 때 지은 것이다. 이를 통해서 홍여하의 시는 그의 나이 41 세를 넘어서 창작된 것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다.

목재의 시는 주변 인물들과의 교유 관계를 통해 창작된 것이 다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평생의 지기였던 정도응(鄭道應, 1618~1667)을 비롯하여 김계광(金啓光, 1621~1675)・전익구(全翼耉, 1615~1683)・이휘일(李徽逸, 1619~1672)과 이현일(李玄逸, 1627~1704) 형제・이명익(李溟翼, 1617~1687) 등과 주고받은 시가 많다. 또 경상 감사를 비롯하여 상주 목사・안동 부사・문경 현령 등 고을살이하러 내려온 인물들과도 교유의 폭을 넓혔다. 이 과정에서 목재는 서로의 내방을 감사하는 시를 짓기도 하고, 전별에는 송별시로 전별의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 이들의 죽음에는 만시(輓詩)로 추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다.

홍여하의 시 가운데에는 영사시(詠史詩)도 주목할 만하다. 그는 20 대에 서거정의 《동국통감》에 주석을 붙여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을 편찬하였으며, 고려 이후의 역사를 기년체로 엮어 《휘찬여사》를 편찬하였다. 목재는 우리나라 상고사(上古史)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기자동래(箕子東來)에 대한 사실이 기록된 문헌을 낱낱이 검토하여 그 시시비비를 따졌다. 또 한백겸(韓百謙)이 《해동역사》에서 마한(馬韓)이 평양(平壤)을 복환(復還)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지적하였고, 권근(權近)의 변한설(弁韓說)에 오류가 많다고 배척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역사관은 〈술회(述懷)〉・〈의고팔수(擬古八首)〉・〈고정전가송대동승남재원후위별(古井田歌送大同丞南載元垕爲別)〉 등의 시에 오롯이 남아 있다.

《목재집》에 수록된 시 가운데 독서시(讀書詩)로 분류될 수 있는 〈천군(天君)〉・〈제양명집후(題陽明集後)〉・〈감흥(感興)〉・〈우음(偶吟)〉・〈도원송맹자칠편불착일자숙부가탄잉송주씨증문광공시노론이십편관송주주반지구여감이성일절(道原誦孟子七篇不錯一字叔父嘉歎仍誦朱氏贈文匡公詩魯論二十篇慣誦珠走盤之句余感而成一絶)〉・〈안자(顔子)〉・〈독사서집주법시김경겸최여안기중십일절(讀四書集註法示金景謙崔汝安基重十一絶)〉・〈주역본의(周易本義)〉・〈경서구독이언다파쇄유감(經書句讀俚諺多破碎有感)〉・〈감회삼십일절(感懷三十一絶)〉・〈독주자절요유감(讀朱子節要有感)〉・〈독서작문법시아조(讀書作文法示兒曹)〉 등의 장편시는 그의 학문 세계를 그대로 보여 주는 것들이다. 이 가운데 〈천군(天君)〉은 심(心)을 의인화하여 경(敬)을 통한 극기(克己) 공부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제양명집후(題陽明集後)〉는 모든 사람마다 학문의 수준이 있음을 은근히 내비추어 양명의 학문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감흥오수(感興五首)〉는 우리나라의 풍속이 중국에 못지않다고 주장하며, 유성룡(柳成龍)의 충정은 제갈공명에, 행실은 사마광(司馬光)에 견줄 수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홍여하의 독서시 가운데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독사서집주법시김경겸최여안기중〉 11 수이다. 이 시는 목재가 사서집주를 읽고 느낀 점을 김계광과 최기중에게 알려 주는 내용으로, 목재의 경학관과 경서 해석 태도 등이 집약되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홍여하의 시 세계는 평소 폭넓은 독서를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사물에 대한 깊은 성찰과 사우(師友)와의 교유를 통한 절차탁마(切磋琢磨) 등의 몇 가지 양상으로 표출되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찰(省察)과 수양(修養)을 통한 실천(實踐)을 강조하였다.

홍여하가 대과에 급제하여 벼슬살이를 시작한 1655 년(효종 6)부터 황간으로 쫓겨난 1660 년 사이 조선 조정에는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을 정도로 파란이 일고 있었다. 소현세자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른 효종은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북벌(北伐)을 추진하여 신하들의 반감을 샀으며, 기해년(1659)의 예송으로 신하들 간에도 남・서인 간의 반목이 표면화되기도 했다. 이러한 정쟁(政爭)의 와중에 홍여하도 결국 관직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맞게 되고, 고향에 은거하면서 안으로 쌓이는 울분과 당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를 시로 표출하였다.

홍여하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은거할 결심을 하게 된 데에는 외직인 경성 판관(鏡城判官)으로서의 출척과 황간 유배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경성에 있을 때 꿈에서 퇴계 선생을 뵙고, 마

음에 응어리졌던 것이 풀렸다고 했다. 이때부터 퇴계가 깨달은 참 이치를 궁구하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자주 잠을 통해 퇴계를 만나려고 했다. 경성에서의 자득(自得)을 목재는 다음과 같은 시로 노래하였다.

〈안질로 책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성성법을 일삼다〔眼疾廢書 日事惺惺法〕〉

장백산 바다 북쪽 백강 동쪽에서 / 長山海北白江東
신세는 바람에 날리는 쑥 같아라 / 身世飄飄若轉蓬
백년 인생 나그네 삶을 마치지 못했지만 / 未了百年長作客
만리를 주인옹과 함께 왔네 / 同來萬里主人翁
공부한 뒤에는 실천을 필요로 하니 / 工程後面都要實
앞길의 명리는 부질없음을 간파했네 / 名利前頭看破空
공자와 안연의 참 즐거움을 얻음에 / 領取孔顔眞樂在
안중에 봄바람 불지 않는 날 없으리라 / 眼中無日不春風

인용한 시 〈안질로 책을 보지 못하고 날마다 성성법을 일삼다〔眼疾廢書 日事惺惺法〕〉에서 말하는 성성법(惺惺法)이란 마음이 혼매(昏昧)하지 않고 밝게 깨어 있도록 하는 수양법을 말한다. 이 말은 《심경》 〈역곤지육이조(易坤之六二條)〉 주에 "송(宋)나라 사양좌(謝良佐)가 '경(敬)은 항상 성성(惺惺)하게 하는 법이다.' 하였고, 서엄(瑞巖)이라는 승려가 매일같이 자신에게 '주인옹은 깨어 있는가?'라고 묻고서, 자신이 '깨어 있노라.〔惺惺〕' 하고 답하면서 마음을 다스렸다."라는 데서 유래하였는데, '주인옹'은 마음을 의인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성이란 잠들거나 혼매하지 않고 늘 또렷하게 깨어 있는 마음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경성 판관으로 재직하면서 홍여하는 부세(賦稅) 절감, 축성(築城), 효과 있는 부(府)의 운영 등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노력은 실효를 거둔 것은 일부이고 대부분 상급자들에게 묵살되었던 것 같다. 결국 그는 함경도 병사절도사 권우(權遇)와 관찰사 조계원(趙啓遠)의 장계로 파직되어 황간 유배길에 오르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홍여하는 유배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종(顯宗)의 즉위로 사면의 은총을 입게 되었다. 고향에 돌아온 얼마 동안 홍여하는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이 이처럼 지극하여도 조정에서는 홍여하를 부르지 않았다. 자신의 의지와 현실에 괴리가 있음을 느낀 홍여하는 이런 답답한 마음을 성찰(省察)과 수양(修養)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홍여하는 평소 출처(出處)에 유난히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였다.

〈우연히 짓다〔偶題〕〉

어릴 때부터 경서 공부로 머리 다 세었는데 / 童習群經白盡頭
훌훌 털어버리니 유유자적하기만 하여라 / 忽敎擺脫儘優游
호연히 돌아섰던 맹자도 애초 유세가 어려웠고 / 浩然鄒聖初難說
우뚝한 안회도 어찌할 바 몰라 탄식했네 / 卓爾顔生歎末由
원형이정의 천기가 운행되어 / 亨利貞元元會運

추동춘하에 하・상・주가 이어졌네 / 秋冬春夏夏商周
앎과 실천이 상응할 곳을 논하자면 / 若論行解相資處
이런 이치는 응당 실제에서 구해야 하리라 / 此理應從實地求

인용한 시 〈우연히 짓다〔偶題〕〉에서 홍여하는 탐구와 성찰을 통해 자득한 결과 실지(實地)를 구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공부임을 역설하고 있다. 셋째 구에서 말한 맹자에 관한 일은 《맹자》 〈공손추 하〉에 보인다. 맹자가 제(齊)나라에서 도(道)를 행할 수가 없게 되자, 부득이 그곳을 떠나면서 제나라 왕이 혹시라도 개심(改心)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천천히 가서 3 일 밤을 묵은 다음에야 주(晝) 땅으로 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제나라 왕으로부터 아무런 개심의 흔적이 없으므로, 그제야 비로소 호연히 떠나갈 뜻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다. 넷째 구의 안연에 대한 일은 《논어》 〈자한(子罕)〉에 보이는데, 안연이 크게 탄식하며 "부자의 도는 우러러볼수록 더욱 높고 뚫을수록 더욱 견고하며, 바라볼 때 앞에 있더니 홀연히 뒤에 있도다.....부자의 도가 내 앞에 우뚝 서 있는 듯하기에, 그를 따라가고자 하나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한 말이 있다.

위에서 인용한 시를 통해서, 홍여하가 터득한 자득(自得)은 철저한 자기 검속을 바탕으로 실천과 실지(實地)를 강조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논어》 수장(首章)에서도 말했듯이, 자득은 같은 공부를 하는 벗과의 토론을 통해 그 효과가 더해진다. 또 홍여하처럼 마음속에 울분을 쌓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표출하거나 해소할 무언가가 필요하다.

둘째, 유람(遊覽)과 교유(交遊)를 통해 울울한 마음을 위로하였으며 자신의 처지에 안분자족(安分自足)하려고 노력하였다.

홍여하는 고향에 은거하면서 소요(逍遙)와 사색으로 하루를 보낼 때가 많았다. 그러다 시간을 내 벗들과 계회(契會)를 조직하여 산천을 유람하기도 하고, 승경(勝景)을 찾아 심신을 달래기도 했다. 홍여하의 시작(詩作) 배경에 벗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정도응(鄭道應)과의 관계는 보다 특별한 점이 있다. 정도응은 호가 무첨재(無忝齋)이며, 우복(愚伏) 정경세(鄭經世)의 손자이다.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셋째 아들 수암(修巖) 유진(柳袗, 1582~1635)의 사위이며, 회재(晦齋) 이언적(李彦迪)의 외증손이다. 정도응은 일찍이 과거를 단념하고 학문에 힘쓰다가 학행이 알려져 31 세가 되던 1648 년(인조 26)에 유일(遺逸)로 징소(徵召)되어 교관(敎官)에 임명된 이래, 단성 현감(丹城縣監) 등을 역임하였다.

홍여하는 정도응이 조정의 부름을 받고 올라갈 때 출처를 신중히 하라는 조언을 보태기도 하고, 단성 현감으로 부임해 왔을 때는 같이 지리산을 유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보아 홍여하가 정경세・조경(趙絅)・유진(柳袗)・이준(李埈) 등 17 세기 안동-상주-문경-예천 등 경상북도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여러 인물들과 폭넓은 교유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도응의 역할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의 시를 통해 홍여하의 교유 관계를 자세히 분석해 보기로 한다.

〈생일 날.....이어서 지난해 외롭고 적막했던 마음을 언급하였다〔初度日.....仍及去年孤寂之意〕〉

단장한 여러 사람 술잔을 권하니 / 紅粧千指勸金巵
소인묵객들 시 한 수 지음이 어떠한가? / 爭似騷人賦一詩

얼마나 다행인가, 정다운 벗 자리 가득하니 / 何幸情朋來滿座
북관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도다. / 絶勝身在北關時

인용한 시 〈생일 날……이어서 지난해 외롭고 적막했던 마음을 언급하였다〔初度日……仍及去年孤寂之意〕〉는 4 월 10 일 홍여하의 생일날 벗들과 한자리에 모여 단란한 모임을 가진 뒤의 감회를 서술한 것이다. 이날 모인 사람은 황덕승(黃德承)・정도응・전익구(全翼耉) 등이었다. 황덕승은 본관이 장수이며, 홍여하의 장인 황덕유(黃德柔)의 동생이다. 전익구는 본관이 용궁(龍宮)이며, 일생을 출사하지 않고 상주 화서에 가암(可庵)을 짓고 독서와 강학으로 보냈다. 당시 홍여하의 생일날 모인 사람들은 요즘말로 홍여하의 '절친'이라 하겠는데, 이날의 느낌을 '북관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정다운 벗들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이다.

홍여하의 교유 관계에서는 전익구도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다. 홍여하가 참석한 계회에는 거의 빠짐없이 전익구가 등장하며, 서간문에서도 《주자서절요》와 《주역본의》 등을 익히기 위해 전익구에게 질정하는 대목이 자주 엿보인다. 홍여하는 가암에 은둔하고 있는 전익구에게 가암의 여덟 경치를 노래한 〈가암팔경(可庵八景)〉과 가암의 내력을 기록한 〈가암기(可庵記)〉를 보내기도 했다.

홍여하의 교유 관계를 고찰함에 있어 팔경시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할 필요가 있다. 당시 홍여하가 사귄 이들은 대부분 출사를 아예 포기했거나, 아니면 일찍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들이 정한 거처를 기리는 의미에서 홍여하는 그곳을 방문한 뒤 승경을 팔경시로 남겼는데, 가암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이 밖에 유성룡의 손자 유원지(柳元之)의 졸재(拙齋)를 노래한 〈졸재팔영(拙齋八詠)〉, 검간(黔澗) 조정(趙靖)의 후손 조원윤(趙元胤)이 상주 낙동면 승곡(升谷)에 건축한 죽파헌(竹坡軒)의 승경을 노래한 〈죽파헌팔영(竹坡軒八詠)〉 등이 있다. 또 홍여하는 황간 유배 당시 원촌리에 있는 월류봉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뛰어난 여덟 곳을 노래한 〈냉천팔영(冷泉八詠)〉을 남기기도 했다.

홍여하와 그의 벗들이 계회 장소로 정한 곳은 상주-문경-예천 일대의 서원이나 절이 대부분이었다. 김천의 직지사(直旨寺), 문경의 수월암(水月庵), 상주의 도남서원(道南書院), 예천의 삼강서원(三江書院), 문경의 근암서원(近嵓書院)도 그중의 하나로 도남서원을 방문했을 때를 살펴보기로 한다.

〈여러 벗들과 도남서원을 방문하다〔與諸友訪道南〕〉

중수한 서원을 찾아왔더니 / 重修白鹿試來尋
웅장한 건물 놀랍게도 산림처럼 우뚝하네 / 輪奐驚瞻聳嶽林
벽에 보관해 온 시서는 화재에 없어져도 / 藏壁詩書遭煨燼
집 가득 훌륭한 지역 인물들 모였네 / 滿堂賢雋集紳衿
염계 푸른 물은 주자의 학문을 품었고 / 一般意思濂溪翠
낙수 깊은 물은 정자를 연원으로 했네 / 千古淵源洛水深
선인들의 풍류가 이제 적막하게 되어 / 前輩風流今寂寞
다가올 상심 탄식 진정 금하기 어렵겠네 / 到來傷歎政難禁

인용한 시 〈여러 벗들과 도남서원을 방문하다〔與諸友訪道南〕〉의 도남서원은 1594 년(선조 27) 상주시 내남면에 창건한 서원으로 정몽주(鄭夢周)・김굉필(金宏弼)・정여창(鄭汝昌)・이언적(李彦迪)・이황(李滉)・

노수신(盧守愼)・유성룡・정경세 등을 배향하였고, 1677 년(숙종 3)에 사액되었다. 서원의 이름을 도남으로 한 것은 송(宋)나라의 양시(楊時)가 정호(程顥)에게 배우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정호가 좌객(坐客)들에게 '내 도가 남으로 가는군.'이라고 한 데서 기인하였다. 배향된 인물과 임란 중에 창건되었음을 감안하면 창건 당시에는 매우 큰 규모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홍여하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일부 건물이 퇴락하여 중수하고 있었다.

첫 구의 백록(白鹿)은 주희가 남강군 지사(南康軍知事)로 부임하여 강학(講學)한 백록동서원(白鹿洞書院)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서원을 지칭하는 말이다. 넷째 구의 신금(紳衿)이란 지방에 거주하는 지식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신(紳)은 관직을 가지고서 은퇴하여 고향에 살고 있는 사람을, 금(衿)은 청금(靑衿) 곧 생원(生員)을 뜻한다. 다섯째 구에서 말한 '일반의사렴계(一般意思濂溪)'란 《근사록(近思錄)》의 주염계와 관련된 고사이다. 주염계가 살던 곳의 창 앞에 풀이 무성히 자라도 베지 않기에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었더니, "나의 의사와 같다.〔與自家意思一般〕"라고 하였다. 이 말은 풀도 나와 마찬가지로 살려는 의사가 있음을 뜻한다. 여섯째 구절의 낙수는 원래 주(周)나라의 도읍지였던 낙읍(洛邑) 부근을 가리키는 말로, 주공(周公)이 낙읍에 도읍을 정한 뒤 송대(宋代)에 이르러 정호(程顥)・정이(程頤) 형제가 나와 유학의 연원을 계승했다. 본문에서는 낙동강 즉 우리나라 혹은 영남 지역을 가리킨다.

여러 벗들과 함께 방문한 도남서원이 예전에는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유학의 학맥을 계승했다고 자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건물만 화려할 뿐 전배들이 남긴 유풍(遺風)이 그저 적막하기만 할 뿐이다. 유배와 좌절을 겪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머지 기댈 곳은 벗들뿐이다. 하지만 홍여하는 후학들에게 거는 기대마저 버릴 수는 없었다.

〈김경겸에게 드리다〔贈金景謙〕〉

나의 선조와 그대의 선조는 / 吾祖與承旨
나란히 연방에 급제했었네 / 聯翩占榜蓮
나에게 이르러 이제 사대에 / 及余方四世
그대와 다시 같은 해에 급제했네 / 得子復同年
어리석은 나는 문자에 서투르고 / 鹵莽金根誤
향기로운 그대는 자질이 아름답네 / 芬芳玉樹姸
오직 돈독하고 후한 교분의 정을 / 唯將敦厚誼
남겨 자손들에게 전해 주세 / 留與子孫傳

인용한 시 〈김경겸에게 드리다〔贈金景謙〕〉는 김계광(金啓光, 1621~1675)에게 보낸 것이다. 김계광은 자는 경겸, 호는 구재(鳩齋)이다. 두 사람의 친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진 바는 없으나, 마을 대소사를 의논하기도 하고, 계회의 모임을 주관하는 등으로 볼 때, 어려서부터 홍여하와 교유를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김계광은 홍여하가 황간으로 유배될 무렵인 1660 년(현종 1) 대과에 급제하여 풍기 군수로 다시 고향으로 오게 되었다.

홍여하는 두 사람의 친분을 드러내기 위해 수련(首聯)에서 선조들이 나란히 생원진사시에 급제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선조'는 눌암(訥庵) 홍언국(洪彦國)을 가리키며, '그대의 선조'는 삼당(三塘) 김영(金瑛)을 가리킨다. 이들은 모두 1495 년(연산군 1)에 생원진사시에 합격하였다. 바로 뒤를 이어 김계광과 자신도 1654 년(효종 5)에 모두 생원진사시에 합격한 사실을 말하였다. 그러면서 자신은 문장에

서투르다고 겸하(謙下)한 뒤, 김계광의 자질이 아름다움을 칭송하였다. 연방(蓮榜)으로 맺어진 교의(交誼)는 후대에 기록을 전할 만큼 값진 것으로, 두 사람의 우의는 아마도 상정(常情)을 벗어나는 특별한 점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대대로 맺어 온 친분을 후손들에게까지 길이 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를 마무리하였다.

셋째, 동사(東史)에 대해 지극한 관심을 보였으며, 사법(史法)의 확립이 시작(詩作)에 필수불가결하다고 여겼다. 모두에서 홍여하는 약관의 나이에 《휘찬여사》를 편찬하였으며, 말년에 고향 율리에서 《동사제강》을 마무리하였음을 언급하였다. 《휘찬여사》는 《고려사》의 주요 기사를 축약하고 중국의 기사를 보탰으며, 열전에 새로운 인물을 추가하여 논찬을 가한 책이다. 그러므로 이 책은 단순히 《고려사》를 축약한 것이 아니라, 춘추필법을 기준으로 주자가 정립한 강목법(綱目法)에 따라 우리나라 역사서의 편찬이라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홍여하는 활재 이구에게 편지를 보내 사서(四書)의 구법(句法)과 우리나라 역사서 편찬에 대해 조언을 구한 바 있다. 홍여하는 이구뿐만이 아니라 정도응・이휘일(李徽逸) 등 가까운 친구들에게도 편지를 보내 자신이 편찬하고 있는 책을 질정하였다. 간혹 모자라는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 수소문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홍여하는 자신만의 독특한 역사 인식 태도와 역사관을 정립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동사제강》의 범례에서 "구사(舊史)는 모두 단군(檀君)부터 기원을 삼았지만 여기서는 잘라내 기자(箕子) 이하부터 기원을 삼는다."라고 하거나 "신라의 소지왕후(照智王后)에 대한 한 조목은 본사(本史)에는 없으며, 역시 이속(俚俗)의 함부로 전한 것에서 나와 그 속임은 일로 증명하기에 매우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삭제한다."라고 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실증할 수 없는 사실은 철저하게 부정하는 태도를 견지하였다. 이와 같은 목재의 역사관을 시를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한다.

〈역・시・사법을 평하여 목내지와 이사징 두 학사에게 부치다〔評易詩史法 寄睦來之李士徵二學士〕〉

남아의 대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 男兒大業受命初
동방에서 태어났지만 또한 헛되지 않네 / 生此東韓亦不虛
만리 떨어진 산하는 구주 밖에 있고 / 萬里山河禹貢外
천년의 예악은 기자가 남긴 것이라네 / 千年禮樂箕疇餘
선비가 《주역》을 말함에 오묘함에 이름이 많고 / 碩儒譚易多臻妙
시인이 시를 말함에 나의 시흥 일으키네 / 騷客言詩或起余
다만 사가의 문로가 어긋남이 있으니 / 祇有史家門路錯
심법을 발휘하여 그것을 바로잡아야지 / 發揮心法正須渠

인용한 시 〈역・시・사법을 평하여 목내지와 이사징 두 학사에게 부치다〔評易詩史法 寄睦來之李士徵二學士〕〉는 목내선(睦來善)과 이원정(李元禎)에게 보내는 것이다. 본문의 우공(禹貢)은 《서경》의 편명으로 중국 구주(九州)의 지리와 산물에 대하여 쓴 글이다. 기주(箕疇)는 기자(箕子)의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말하는데, 홍범구주는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큰 법칙으로 맨 처음 하우씨(夏禹氏)가 낙수(洛水)에서 나온 신귀(神龜)에게서 얻었다. 이것이 대대로 전해지다가 기자가 무왕(武王)의 물음에 대답한 이후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한다. 인용한 시에서 홍여하는 중국의 성대한 문물을 대표하는 《주역(周易)》과 《시경(詩經)》은 오묘하면서도 후인들의 감흥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만, 이것을 기록한 사가(史家)들이 잘못 전수하였기에 마음을 다해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다. 그래서 첫 구에서 비록 자신은 조선에서 태

어났지만, 도를 실천하고 전수할 수 있다는 주체적 존재로서의 자각은 다를 바가 없다는 의지를 표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시작 양상은 다음의 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적을 보고 느낌이 있어〔觀史有感〕〉

대의가 있는 군신 사이에 / 大義君臣際
어찌 외모로 함을 용납하랴 / 寧容外貌爲
소공은 자기 자식을 버렸고 / 召公捐己子
저구는 다른 아이를 구했다네 / 杵臼貟他兒
진짜 조씨가 여전히 보존되고 / 眞趙猶存處
종주의 대의가 멸실되지 않았지 / 宗周不滅時
왕명을 받은 여러분께 말하노니 / 爲言諸受託
도리가 마땅히 이와 같아야 하네 / 道理合如斯

인용한 시〈사적을 보고 느낌이 있어〔觀史有感〕〉에서 말하는 사적은 《사기》를 가리키며, 본문의 고사는 모두 《사기》 〈주본기(周本紀)〉에 수록되어 있다. 소공이 자식을 버린 일은 여왕(厲王)과 관련이 있다. 여왕 3 년에 반란이 일어나자 여왕이 체(彘) 땅으로 달아나고 태자 정(靜)은 소공의 집에 숨었다. 국인(國人)들이 이 소식을 듣고 소공의 집을 에워싸니, 소공이 자신의 아들로써 왕태자를 대신하게 하여 태자는 마침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넷째 구의 저구(杵臼)는 춘추 시대 진(晉)의 공손저구(公孫杵臼)를 가리킨다. 조삭(趙朔)이 도안가(屠岸賈)에게 멸문(滅門)의 화를 당할 때, 조삭의 문객이었던 공손저구가 조삭의 친구인 정영(程嬰)과 함께 조삭의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의하였다. 정영에게는 조삭의 진짜 아들을 안고 산중에 도피하여 화를 면하게 하고, 공손저구 자신은 다른 사람의 영아를 데리고 거짓으로 조삭의 아이라고 위장하여 산중에 숨어 있으면서 정영에게 자신을 도안가에게 밀고(密告)하게 하였다. 그래서 공손저구 자신은 다른 사람의 아이와 함께 도안가에게 잡혀 살해당하고, 조삭의 진짜 아이는 정영에 의해 무난히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다. 여섯째 구는 주 선왕(周宣王)이 옹립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소공과 주공(周公)에 얽힌 고사이다. 공화(共和) 14 년에 여왕이 죽고 태자 정이 소공의 집에서 성장하였다. 소공과 주공이 왕으로 옹립한 태자 정이 곧 선왕으로, 선왕이 즉위하자 소공과 주공이 선왕을 받들어 정사를 보필해서 다시 제후들의 종주가 되었다.

홍여하의 영사시(詠史詩)에는 간혹 기자(箕子)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 홍여하가 생각하는 기자는 동방에 문물을 전수했으며, 군신 간에 대의명분을 지킨 절사(節士)의 표상이다. 우리나라의 정몽주(鄭夢周)나 우탁(禹倬) 같은 인물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후대의 사가(史家)들이 이를 제대로 전수하지 않아 자신의 당대에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하고 있음이 개탄스러웠던 것이다.

넷째, 시를 통해 홍여하는 사설(邪說)을 배격하고 주자학을 옹호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17 세기 조선조 학술계에서 부각되었던 하나의 문제는 바로 사설(邪說), 즉 이단 배격에 관한 것이었다. 이단이라는 용어는 《논어》 〈위정(爲政)〉에서 공자가 "이단을 전공하면 해가 될 뿐이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다. 한대(漢代) 이전의 전통적인 해석에서는 전국 시대에 활동했던 양주와 묵적 등이 이단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송대에 이르러 주자는 정자(程子)의 해석을 받아들여 이단의 범위를 불교까지 확장했다. 조

선조에 들어와서 이황(李滉)은 불교를 이단으로 간주했던 주자의 설을 보다 확장하여 양명(陽明)의 설까지 이단으로 여겨 배척하고자 했다. 이황의 이 같은 주장은 향후 조선 학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쳐, 조선 중기 학자 계곡(谿谷) 장유(張維)로 하여금 "온 나라의 학문이 오로지 정주학 일색"이라고 탄식하게 할 정도였다.

17 세기 후반에 이르러 서인계와 근기남인계의 예송 논쟁은 결국 학문의 순정 문제로 비화되어 상대방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여기서 다시 이단에 대한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근기남인계의 학자 중 윤휴(尹鑴)는 《효경》으로부터 사서・육경에 이르기까지 유가의 제경서에 대한 주석 작업을 추진했는데, 그 해석 체계가 주자와는 사뭇 다른 점이 있었다. 예를 들어 《효경》의 경우 주자가 주장했던 《효경간오(孝經刊誤)》를 부정하고 한대(漢代)의 금고문(今古文) 《효경》을 저본으로 삼았으며, 《대학》의 경우 주자의 《대학장구》 대신 고본(古本) 《대학》을 바탕으로 해설했다. 또한 《중용》도 33 장으로 분장한 《중용장구》와는 달리, 전체를 10 장으로 재구성하여 그 의미를 천착했다. 그러나 송시열(宋時烈)은 윤휴의 이와 같은 경서 해석 태도를 매우 불순한 것으로 생각했다. 심지어 "난적(亂賊) 윤휴(尹鑴)가 사설(邪說)을 주창함으로부터 주자를 업신여기고 경의(經義)를 훼손하였다."라고 신랄하게 공박하였다.

서인과 남인을 막론하고 17 세기 학술사에서 학자들의 공통적 관심이 사설(邪說)을 물리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당시 사설이 그만큼 횡행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홍여하에게 있어 사설(邪說)은 곧 양명학(陽明學)을 뜻하는 것이다. 홍여하가 양명학을 대하는 태도를 다음 시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양명집 뒤에 쓰다〔題陽明集後〕〉

학문의 과정은 오르는 차례가 있으니 / 學問工程有階梯
모름지기 애써 양지를 말하지 말라 / 莫須辛苦說良知
혹 상승의 경지를 사람마다 알게 하려면 / 倘敎上乘人人曉
일관의 도를 먼저 번지에게 말해야 하리 / 一貫先將語樊遲

인용한 시 〈양명집 뒤에 쓰다〔題陽明集後〕〉에서 말하는 일관(一貫)과 번지(樊遲)에 대한 이야기는 《논어》 〈이인(里仁)〉에 보인다. 공자가 증자에게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는다."라고 하니, 증자는 그저 "예"라고 대답하였다. 문인이 증자에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에 대해 묻자, 증자는 "선생님의 도는 충(忠)과 서(恕)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증자가 공자의 말을 알아들은 것이다. 또 〈자로(子路)〉 편에서 번지(樊遲)가 공자에게 농사일을 배우고 싶어 하자 공자가 "나는 노련한 농사꾼보다 못하다."라고 한 내용이 실려 있다. 이는 모두 그 사람의 수준에 알맞은 가르침을 강조한 것으로, 학문의 차제(次第)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후대의 주자가 《대학장구》에서 《소학》-《대학》-《논어》-《맹자》의 순으로 독서의 과정을 세운 것과 같은 논리이다.

하지만 명대의 학자 왕수인(王守仁)은 이 같은 차제를 무시하고 양지론(良知論)을 주장하였다. 주지하듯이 양지란 태어나면부터 가진 고유한 지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양명은 양지를 극대화하는 것〔致良知〕을 주장하여 주자의 '즉물궁리(卽物窮理)'를 반박하였다. 홍여하는 왕양명의 양지론을 정면으로 반박하여 유가에서 내세운 학문의 공정이 정당함을 주장하였다. 홍여하의 양명설 비판은 양지론에 그치지 않았다. 양명은 주자(朱子)의 문집 가운데서 34 편의 서간문(書簡文)을 선별해 분석한 다음 이른바 '주자만년정론설(朱子晩年定論說)'을 주장했다. 이 글의 핵심은 주자의 경서 해석 및 성리학 이론에는 초년(初年)과 만

년(晩年)의 차이가 있으며, 그중에서 만년의 설을 정론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주자의 만년 생각이 동시대를 살았던 육구연(陸九淵, 1139~1192)이나 왕양명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양명의 이와 같은 주장은 자신의 학문을 정당화하는 한편 기존의 주자학자들을 이단으로 몰아가기 위한 의도였다.

홍여하는 양명이 주장한 주자만년정론설도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다. 홍여하는 〈양명집 주자만년정론 뒤에 쓰다〔題陽明集朱子晩年定論後〕〉와 〈존성재기(尊性齋記)〉이라는 글을 통해 양명이 주장한 존덕성(尊德性)은 진존덕성(眞尊德性)이 아니라고 했다. 앞의 글에서 홍여하는 양명의 논리가 매우 성글며, 학문의 단계는 차제와 공정이 매우 중요함을 주장하였다. 또 〈존성재기〉에서 홍여하는 명대의 학자들이 주자가 '도문학(道問學)'을 강조하고 양명이 '존덕성'을 강조한 것으로 오해하여, 마치 양명이 존덕성을 추구하는 학문 경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여하의 사설 배격과 주자 존숭은 다음의 시에서 보다 명확해진다.

〈우연히 읊다〔偶吟〕〉

정숙하면 마음이 저절로 한결같나니 / 整肅心自一
경 공부에 가장 절실하고 급하다네 / 於敬最切急
근엄하고 삼감이 경의 도는 아니지만 / 儼恪非敬道
경에 이르려면 이로부터 들어가야 하네 / 致敬從此入
가장 뒤의 주부자는 / 最後朱夫子
경을 말할 때 외자가 가깝다 했네 / 說敬畏爲近
이 뜻이 더욱 정밀하고 절실하니 / 此義尤精切
지극하도다, 만고의 가르침이여 / 至哉萬古訓

인용한 시 〈우연히 읊다〔偶吟〕〉 첫째 시 첫 구는 정이(程頤)가 "다만 외모를 정제하고 엄숙히 하면 마음이 곧 순일(純一)해지니 순일해지면 저절로 그릇되고 괴벽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라고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넷째 구는 《주자어류》에 "경에 대한 설은 많은 말이 필요 없다. 단지 '정제엄숙(整齊嚴肅)'과 '엄위엄격(嚴威儼恪)'과 '동용모 정사려(動容貌 正思慮)'와 '정의관 존첨시(正衣冠 尊瞻視)'와 같은 이 몇 마디 말에 대해 충분히 음미하면서 실제로 공부를 해 나간다면, 이른바 '직내(直內)'와 '주일(主一)'의 상태가 자연히 이루어져서 굳이 안배할 필요도 없이 몸과 마음이 숙연해지며 안과 밖이 여일하게 될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유래한 것으로, 정제엄숙 이하 정의관 존첨시까지의 말들은 정이가 주일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들이다. 인용한 시는 모두 6수인데, 그중 2수만 제시한 것이다. 두 번째 시에서 '가장 뒤의 주 부자'라고 한 것은 앞에서 불교와 노장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이다. 주자가 경(敬)을 외(畏)로 풀이한 것은 《주자대전》 〈여백공에게 보낸 편지〔與呂伯恭書〕〉에 보인다.

인용한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홍여하에게 가장 절실한 공부는 주자가 말한 경(敬)이다. 이 경은 주자와 관련된 문헌에서는 '주일무적', '정제엄숙' 등의 여러 가지 말로 형언되지만, 홍여하가 생각하는 경의 뜻은 외(畏)이다. 이 외 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아마도 '경외(敬畏)'가 가장 근사한 의미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홍여하는 "만약 힘써 공부하길 논하려면, 첫째는 오직 경 공부라 하리라."라고 하여 공부의 첫째 과정과 목표를 '경'이라고 했던 것이다.

III. 홍여하의 경학관과 경서 해석 양상

홍여하는 독서와 사색을 통해 《사서발범구결(四書發凡口訣)》·《용학구의(庸學口義)》 등의 다양한 저술을 남겼다. 그러나 현전하는 자료는 《휘찬여사》·《동사제강》밖에 없으며, 상기에서 언급한 자료들 중 일부가 문집에 산견(散見)된다. 이 가운데 문집의 독서차기(讀書箚記)에 수록된 《사서발범구결》·《용학구의》는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사서(四書)와 《주역》을 분석한 자료이다. 특히 《용학구의》는 주자 성리학의 핵심적 이념을 수록한 《대학장구대전》과 《중용장구대전》을 다룬 책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다음의 편지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도록 한다.

《용학구의(庸學口義)》에 대해 말씀하셨더군요. 가만히 《중용》·《맹자》 등의 주석(註釋) 방법을 보니, 모두 첫 대문(大文)을 강령(綱領)으로 삼고 아래 문장은 절절(節節)마다 서로 호응하여서 관건(關鍵)이 매우 긴밀하면서도 담긴 물처럼 새지 않았습니다. 주 선생(朱先生)의 긴요함과 정력(精力)이 모두 이곳에 있는데, 집안의 아이들은 비록 몇 번을 가르쳐 주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 조응(照應)이 긴요한 곳은 생략과 첨가를 이끌어 주어야 함을 면치 못합니다. 또 들으니, 원(元)의 제유들도 역시 《사서구의(四書口義)》를 초학자에게 전수하는데, 그 책을 볼 수 없었습니다. .....거듭 가르쳐 주신 뜻을 어깁니다만, 우선 《중용구의(中庸口義)》를 보냅니다. 삼가 바라건대, 하람(下覽)하신 뒤 그중 오류가 있는 곳은 일일이 가르쳐 주시되, 다른 사람들이 엿보아 외간의 비방을 야기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인용문은 홍여하가 유원지(柳元之, 1598~1674)에게 답한 편지의 일부이다. 이 편지에서 홍여하는 자신이 편찬한 《용학구의》를 유원지가 검토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제명(題名)을 《용학구의》라 한 것은 주자의 제자인 진순(陳淳, 1159~1223)이 편찬한 《사서구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홍여하는 중국 학자들이 학문의 지결(旨訣)을 입으로 전수하는 것으로 매우 동경하였다. 그래서 자신도 이를 본떠 제명에 구의(口義)라는 단어를 부기한 것으로 짐작된다.

〈독서차기〉를 통해 나타난 홍여하의 경학을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한다면 '주자설(朱子說)에 대한 신뢰(信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홍여하는 비록 남명(南冥)처럼 "주자가 다 해 놓았으니, 더 이상 첨언할 것이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주자설 신뢰는 상당했다. 홍여하는, 중국 사람들은 글을 쓸 때 전통적으로 전수되던 구법(句法)에 정통하고 주자의 사서 주석법을 제대로 익혔기에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 했다. 이는 사서집주법(四書集註法)이 작법(作法)의 모범이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통해 홍여하가 문장의 작법과 경서의 주석법을 별개로 인식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홍여하는 문장 작법의 준거를 사서집주에 두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구수(口授)와 사서집주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적한 대로 온전한 문장을 짓기가 어려운 것이다.

홍여하의 경학 자료를 살펴보면, 주자 해석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찾아보기 어렵다. 《맹자》〈고자 상(告子上)〉에 "지금 모맥(麰麥)을 파종하고 덮되.....일지(日至)의 때에 이르러 모두 익는다.[今夫麰麥 播種而耰之.....至於日至之時 皆熟矣]"라는 대목이 있는데, 이 구절의 '일지지시(日至之時)'를 주자는 "성숙하는 시기를 당함을 이른다.[謂當成熟之期也]"라고 풀이하였다. 홍여하는 이러한 주자의 해석을 "아마도 태양이 하지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써야 될 것 같은데, 의심나지만 감히 억지로 주장하지는 못하겠기에 우선 기록해 둔다."라고 하였다. 이 단락은 홍여하의 경서 해석 가운데 주자설에 의심을 품은 유일한 대목이다. 이처럼 홍여하의 학문은 주자학에 대한 천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양상을 몇 가지 사례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자의 집주는 선진고문(先秦古文)을 인용하였다. 앞 장에서 홍여하가 독서에 있어 《사기》와 《춘추좌씨전》을 중요하게 여겼음을 언급하였는데, 그가 《사기》와 《춘추좌씨전》을 중요시한 까닭은 두 텍스트가 바로 진한고문(秦漢古文)의 모범(模範)이기 때문이다. 두 텍스트 이외에도 진한고문의 모범으로 인식되는 것은 육경(六經)을 비롯하여 《장자》·《국어》 등 다양하다. 홍여하는 주자 역시 집주를 편찬하면서 선진(先秦)의 글을 자주 인용하였음을 지적하였는데,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동자는, 주자의 주석은 선진 이상의 말을 썼지 한 글자라도 양한(兩漢) 이후의 글이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 가령 예를 들어 《대학장구》 서문 가운데에 '삼천 명의 문도'는 공안국(孔安國)의 말을 썼으며, 보망장(補亡章)의 '태학에서 처음 가르칠 때'는 〈학기(學記)〉의 말을 썼으며, 《논어집주》 자공방인장(子貢方人章)의 '말은 박절하지 않으면서도 뜻만은 이미 지극하다.'라는 조기(趙岐)의 말을 썼으며, 다른 것도 이와 비슷하다."라고 했다. 동자가 말하기를 "어찌 반드시 다 그렇겠습니까."라고 했다. 당시 동자는 〈적벽부(赤壁賦)〉를 읽고 있었다. 내가 말하기를 "'돌아가서 아내와 상의한다.〔歸而謀諸婦〕'라는 구절은 우맹(優孟)의 말을 쓴 것이니, 어찌 '노선생의 글이 내력이 없다.' 하겠느냐."라고 했다.

인용문은 〈사서발범구결〉 중의 일부로, 〈사서발범구결〉은 전문이 동자(童子)에게 홍여하가 가르침을 주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대학장구》와 《논어집주》에 쓰인 어휘들이 모두 진한고문의 언어를 인용한 것임을 강조하였다. 홍여하는 《대학장구》 서문에 "삼천 명의 문도들이 그 설을 들었는데, 오로지 증자가 전한 것이 그 핵심을 깨우쳤다.〔三千之徒 皆莫不其說 而曾氏之傳 獨得其宗〕"라는 말이 《상서주소(尙書註疏)》 〈상서서(尙書序)〉에서 공안국이 "제왕의 제도가 탄연하게 명백하여 행할 수 있기에 삼천 명의 문도들에게 시행하니 모두 그 뜻을 전수받았다.〔帝王之制 坦然明白可擧 而行三千之徒 幷受其義〕"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음을 밝혔다.

보망장(補亡章)은 《대학장구》 전문 5장의 이칭이며, 〈학기〉는 《예기》의 편명이다. 《대학장구》 전문 5장의 주석에 "태학에서 처음 가르칠 때에 반드시 배우는 자들로 하여금……그 극(極)에 이름을 구하지 않음이 없게 하는 것이다.〔大學始敎 必使學者……以求至乎其極〕"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학기〉에 "태학에서 처음 가르칠 때 피변과 제채로 함은 도를 공경함을 보인 것이다.〔大學始敎 皮弁祭菜 示敬道也〕"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자공방인장(子貢方人章)은 《논어》 〈헌문(憲問)〉에 보이며, 조기(趙岐, 108~201)는 후한(後漢)의 경학가로 《맹자장구》를 편찬하였다. 자공방인장의 주석은 《맹자장구》 서문에 "맹자는 비유에 장점이 있었는데, 말이 박절하지 않았지만 뜻은 이미 지극하였다.〔孟子長於譬喩 辭不迫切 而意已獨至〕"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이처럼 홍여하는 집주에 쓰인 어휘들이 모두 《예기》·《상서주소》·《맹자장구》 등 진한(秦漢) 이전 학자들의 언어에 근거하고 있다고 했다. 요즘처럼 어휘 검색 방법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이처럼 출전과 유래를 정확히 제시하는 것은 매우 놀랄 만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홍여하는 진한 이전의 언어 가운데서도 등급이 있음을 아울러 주장하였는데, 다음의 예문에서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논어집주》에서 많은 부분에 공자의 말을 써서 공자의 말을 풀이한 것이 가장 오묘하다. 그다음으로는 "벗은 인(仁)을 돕는 것이다."라는 증자(曾子)의 말을 쓴 대목과 "나중에 깨달은 자는 반드시 먼저 깨달은 자를 본받아야 한다."라는 맹자의 말을 쓴 대목과 "비록 어리석은 자와 불초(不肖)한 자의 미치지 못함보다 나을 것 같다."라는 자사(子思)의 말을 쓴 대목이 또한 오묘하다. 그다음으로는 "저며 썬 것을 회(膾)라고 한다."라는 구절과 "왕이 아니면 체(禘)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라는 《예기》의 말을 쓴 대목과 "줄

어들기를 두 열씩 할 뿐이다."라는 자산(子產)의 말을 쓴 대목이다. 그다음은 "이목구비처럼 모두 밝은 바는 있지만 서로 통할 수는 없다."라는 장자(莊子)와 순자(荀子)의 말을 쓴 대목이 있는데, 모두 선진(先秦) 이상의 말을 썼기 때문이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논어집주》가 공자의 말을 인용한 곳이 가장 오묘하고, 공자의 제자, 춘추전국 시대의 명현 순으로 언어의 오묘함이 덜하다고 했다. 경서의 주석에서 경전으로 경전을 주석하는 이른바 '이경증경(以經證經)'은 주석가들 사이에는 보편적인 주석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이경증경'은 흔히 자신의 주장에 신뢰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쓰이지만 홍여하는 '이경증경'에도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특히 홍여하는 '이경증경'의 하나로 같은 텍스트 내에서 앞이나 뒤의 문장을 끌어와 주석하는 방법을 수제(收提)와 첩제(貼提)로 구분할 정도로 '이경증경'에 관심을 두었다.

주자는 당대(唐代) 구경(九經) 중심의 경학 체계를 《대학》·《논어》·《맹자》·《중용》 중심의 사서(四書) 체재로 재편하였다. 이 과정에서 《예기》의 한 편명이었던 《대학》과 《중용》을 독립 텍스트로 분리하여 편장을 나누고, 손수 서문을 써서 그 내력을 밝혔다. 특히 주자는 〈대학장구 서〉에서 유가의 도통이 공자-증자-자사-정자(程子 정이천(程伊川))로 계승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홍여하의 《논어집주》 차등적 순위 매김도 이러한 주자학적 경학 체계를 은근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주자의 집주는 경문 첫 구절의 기능을 중시하고 편제(篇題) 및 제사(題辭)의 조응(照應) 관계를 부각하였다. 주자가 《예기》에서 〈대학편〉과 〈중용편〉을 분리하여 독립적인 텍스트로 삼고, 이를 《논어》·《맹자》와 합쳐 사서로 만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주자가 편찬한 《대학장구》는 기존의 《예기》 〈대학〉 한편을 경문 1장과 전문 10장으로 분장(分章)한 것인데, 이 분장이 후대의 학자들에게 논란이 되었다. 조선의 학자들 가운데 장현광이나 노수신 같은 이들도 주자의 분장을 의심하여, 독자적인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주자의 《중용장구》는 총 33편으로 분장한 것으로, 《대학장구》의 그것과는 체계를 달리한다. 즉, 《중용장구》는 경문과 전문을 구분하지 않고, 대지를 총 6단락으로 나누어 모두 경문으로 인식하였다. 물론 주자의 이 같은 《중용장구》 분장은 대지를 4단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견이 제시되었지만, 중국의 주자학파는 대체로 6대지설(大旨說)을 따랐던 것으로 보이며 《중용장구대전》에도 6대지설이 타당한 견해로 소개되어 있다.

조선의 학자 가운데 정여창(鄭汝昌)은 주자의 《중용장구》 가운데 1장에 부분적 의심을 보였다. 그는 《중용장구》 1장 "천명을 일러 성이라 한다."라는 구절의 장구 "하늘이 음양과 오행으로 만물을 화생(化生)함에 기(氣)로 형체를 이루고 이(理) 또한 거기에 부여한다."라는 구절의 '이역부언(理亦賦焉)' 네 글자를 의심했다. 그는 "어찌 후기(後氣)의 이(理)가 있겠는가?"라고 하여 '이역부언'이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은 후일 퇴계가 참고할 정도로 조선의 학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었던 것 같다. 하지만 홍여하는 정여창의 이런 의심은 잘못이며, 주자의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일두(一蠹) 선생이 '이역부언(理亦賦焉)'이라는 네 자가 온당하지 않다고 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반복해 생각해보니, 노선생[朱子]이 성(性) 자·도(道) 자·명(命) 자·덕(德) 자를 풀이한 유는 저절로 완성된 용례가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사서 가운데 덕 자는 한 곳도 득(得)이라는 글자가 없는 곳이 없으니, 여기서의 부(賦) 자는 명(命) 자를 따라 놓이게 되었음이 아마도 의심이 없을 것이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정여창이 부(賦) 자를 이(理) 자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서 오류를 범했다고 했다. 홍여하는, 주자가 경서를 해석하면서 性(본성)·命(천명)·德(덕성, 도덕) 등의 추상명사는 보다 정심하여 특별한 용례를 두었다고 했으며, 그 실례로 덕(德) 자의 풀이를 들었다. 홍여하는 주자의 집주 가운데 덕 자의 풀이에는 반드시 득(得)이라는 글자가 있음을 주목하였는데, 홍여하의 이런 주장은 사서집주의 어휘를 검색해 보면 신빙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중용장구》의 논란이 되는 구절은 부(賦) 자가 이(理) 자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경문의 '천명(天命)'이라는 글자는 받는다고 했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정여창의 설이 잘못되었음에 역점을 둔 것이 아니라, 사서는 경문 첫 구절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정여창의 실수도 바로 경문과 주자 주석의 상관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암시하면서 경문 첫 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어릴 때 《중용》을 읽다가 늘 과불급(過不及)·불견불문(不見不聞)·도불원인(道不遠人) 등의 글자를 보면 층층이 솟고 겹겹이 쌓여 눈이 아찔하고 마음에 의심이 들었다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조례가 분명함을 깨닫게 되어 다른 책과 《중용》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해석하였다. 대개 장의 첫 대문이 대지가 되고 두 번째 대문 이하는 모두 첫 대문의 뜻을 해석한 것으로, 예를 들면 미발(未發)은 천명지성(天命之性)이 되고, 중절(中節)은 솔성지도(率性之道)가 되고, 치중화(致中和)는 수도지교(修道之敎)가 되는데, 장장마다 이것과 비슷하다. 비은(費隱)·도불원인·소위불원외(素位不願外) 등의 장에서도 모두 이런 예를 썼다. 다른 책도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이 많으나, 매 장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중용장구》 제 1 장의 첫째 구절과 4, 6 구절과의 상관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중용장구》 제 1 장은 총 여섯 구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넷째 구절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에서 미발은 천명지성을, 중절은 솔성지도를 부연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또 여섯째 구절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의 치중화는 수도지교를 부연 설명한 것이다. 이런 양상은 《중용장구》 제 12 장, 제 13 장, 제 14 장도 마찬가지이다. 아울러 《중용장구》뿐만이 아니라 《맹자집주》 또한 같은 구조로 이해될 수 있다.

《맹자》도 오히려 이와 같으니, 맹자가 말한 첫 번째 화두(話頭)는 곧바로 아래 장의 대지이다. 매 장(章)마다 이를 모방하였다고 《맹자집주》에서 말했는데, 배우는 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맹자》의 구조가 맹자의 언설을 장의 대지로 제일 앞에 두고 두 번째 구절부터는 첫 구절을 부연 설명한 것이라 했다. 이는 자신의 주장이 아니라, 《맹자집주》 〈양혜왕 상(梁惠王上)〉에 "인(仁)이란 마음의 덕이자 사랑의 이치이다. 의(義)란 마음의 제어함이자 일의 마땅함이다. 이 두 구절은 제 1 장의 대지이고 아래 장은 상세하게 말한 것이다. 이후도 대부분 이것을 모방하였다."라고 한 주자의 설에 근거하였다. 즉 주자는 사서 각 편마다 앞부분에 대지를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대지와 호응되게 주석을 진행하고 있음을 주목하였다.

그래서 홍여하는 편제(篇題)와 제사(題辭)가 경문(經文)과 긴밀하게 조응하는 점도 주자의 경서 해석이 우수한 이유 중의 하나로 들었다. 편제란 집주에서 편명(篇名)과 경문이 시작되는 사이에 달아 놓은 주석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논어집주》 〈학이(學而)〉의 "차위서지수편(此爲書之首篇)"과 〈위정(爲政)〉의 "범이십사장(凡二十四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제사는 《소학》처럼 텍스트나 편의 성격과 핵심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글이다. 홍여하는 "《논어집주》의 편제는 다(多) 자와 개(皆) 자로 안목(眼

目)을 삼았다."라고 하고 "편제가 없는 곳은 모두 그 가운데 소제사가 있다."라고 하였다. 또 《논어》의 〈향당(鄕黨)〉과 《맹자》의 〈공손추 하(公孫丑下)〉의 편제가 유사한 점에 착안하여 "〈공손추 하〉편은 《논어》의 〈향당〉과 같고, 〈만장(萬章)〉은 《논어》의 〈공야장(公冶長)〉과 같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언급은 모두 집주에 제시된 편제와 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본심의 덕이 없어질 것이다.〔本心之德亡矣〕"라는 구절과 "덕행은 근본이다.〔德行本也〕"라는 구절과 "복례의 근본은 아니다.〔非復禮之本〕"라는 구절과 "그러나 예악의 근본에 통달했다고 할 수 있다.〔然可謂達禮樂之本〕"라는 구절의 몇 개 본(本) 자는 모두 편제의 무본(務本) 자와 호응하며 다른 편도 이것을 모방했다.

인용한 대목은 모두 《논어집주》 〈학이〉에 보이는데, "本心之德亡矣"는 "巧言令色 鮮矣仁"의 주석이며, "德行本也"는 "弟子入則孝 出則弟 ....."의 주석이며, "非復禮之本"과 "然可謂達禮樂之本"은 "禮之用 和爲貴 ....."의 주석이다. 〈학이〉 편제에 "이 편은 책의 머리 편이 된다. 그러므로 기록한 내용이 모두 근본을 힘쓰는 뜻이 많다.〔此爲書之首篇 故所記多務本之意〕"라는 말이 있다. 주자는 《논어》 〈학이〉 편제에서 무본(務本)이라 하여 〈학이〉가 본(本)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피력하였다. 그래서 〈학이〉의 집주에는 유달리 본 자가 많다고 하는 것이 홍여하의 주장이다.

홍여하는 편제가 단순히 한 편의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간혹 편제는 앞뒤 편을 연결하는 핵심 어휘를 발췌하여 거기에서 숨어 있는 뜻을 드러내는 기능도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 제 1 장에서 제 3 장에 이르기까지는 "근본에 힘쓴다.〔務本〕"라는 구절의 남은 뜻이다. "배움에 뜻을 둔다."라는 구절 이하는 모두 도(道)로 들어가는 문이며 덕을 쌓는 터전이니, 배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위정〉말단의 두 장(章)은 예악(禮樂)을 말했기 때문에 〈팔일(八佾)〉에서 결국 예악의 일에 대해 말했던 것이다. 이는 《논어》에서 혈맥(血脈)이 관통하는 곳이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논어》의 첫째 편부터 셋째 편까지인 〈학이〉·〈위정〉·〈팔일〉의 상관 관계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중에서도 〈위정〉의 기능을 중시하였는데, 〈위정〉은 〈학이〉와 〈팔일〉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다. 인용문에서 주장한 홍여하의 설을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위정〉 제 1 장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而衆星共之"와 제 2 장 "詩三百 一言以蔽之 曰思無邪" 및 제 3 장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은 〈학이〉 2 장 "君子務本 本立而道生"과 관련이 있다. 〈위정〉 제 4 장 "吾十有五而志于學"은 〈학이〉 편제의 '務本'과 관련이 있다. 〈위정〉의 마지막 두 장 "子張問 十世可知也"와 "子曰 非其鬼而祭之 諂也"는 〈팔일〉의 핵심 어구인 예악(禮樂)과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논어집주》에서는 〈팔일〉 편제에 "전편 끝의 두 장을 통합하여 모두 예악의 일을 논하였다.〔通前篇末二章 皆論禮樂之事〕"라고 했다. 이를 종합해보면 〈위정〉은 마치 수학의 교집합처럼 〈학이〉와 〈팔일〉의 가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주자 집주는 문리(文理)를 바탕으로 하여 어휘(語彙)의 용례를 세밀하게 구분하였다. 선행연구자에 따르면, 《논어집주》에 구현된 주석(註釋) 방법은 크게 음주(音註)와 훈주(訓註)로 양분할 수 있으며, 음주는 14 가지, 훈주는 8 가지 유형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여기에 제시된 음주는 모두 육덕명(陸德明)의 《경전석문(經典釋文)》의 음주를 80% 이상 반영한 것으로, 주자가 당대(唐代) 이전의 어음으로 음주를 단 것

은 음운(音韻) 자체보다 자의(字義)의 변별을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있다. 굳이 선행 연구자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주자의 집주는 음주-훈주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말미에 자신의 의견을 부기하였다. 음주는 유형이 14 가지나 될 정도로 다양한 어휘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 '某謂某也'나 '某猶某' 등 위(謂) 자나 유(猶) 자를 써서 경문에 제시된 어휘를 풀이하기도 한다. 여기에 쓰인 단어는 주자가 고안해 낸 독특한 것으로 집주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기도 한다.

홍여하도 주자가 구가한 음주와 훈주의 주석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여하는 자칫 동의어나 허사로 간주하기 쉬운 글자들도 그 용례의 정밀한 구분을 주문하였는데, 예를 들어 언(焉) 자와 야(也)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주역》〈건괘(乾卦) 단(彖)〉 본의(本義)에 "건(乾)이라는 이름과 하늘의 상(象)이 모두 바뀌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 것

건괘에서는 "개불역언(皆不易焉)"이라 하고 곤괘(坤卦)에서는 "개불역야(皆不易也)"라고 했으니, 야(也) 자는 결사(決辭)로 곤괘가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인용문은《주역본의》건괘와 곤괘를 풀이한 대목이다. 홍여하는 이 대목에서 건괘는 "개불역언"이라 하고 곤괘에서는 "개불역야"라고 하여 언(焉) 자와 야(也) 자에 주목하였다. 홍여하의 설명에 따르면, 건괘는 곤괘와 짝으로 설명했기에 문장의 끝부분에 연결의 기능을 지니는 언(焉) 자를 사용하였고, 곤괘는 종결의 뜻을 지니므로 야(也) 자를 썼다는 것이다. 이는 종결형 어조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주역본의》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이외에도《주역》해석에서 볼 수 있는 정확한 어휘 구분은 접속사 이(而) 자의 순・역접 기능, 비(否) 자 등을 풀이한 대목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홍여하의 집주 분석은 훈주에 있어 보다 세밀해진다. 주자는 집주를 통해 송대 이전의 고주(古注)와 정이천・여조겸・범조우 등 송대 여러 학자들의 설을 다양하게 인용하여 주석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아울러 '우안(愚案)', '차언(此言)'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자신만의 새로운 해석을 피력하기도 했는데, 홍여하는 이 경우에 쓰인 어휘에도 차이가 있음을 주목하였다. 언(言) 자와 개(蓋) 자의 경우를 예로서 살펴보기로 한다.

구(句)를 해석할 때에는 모두 해석한 곳에 합치하게 했는데, 언(言) 자를 첫 머리에 쓰기도 하고, 개(蓋) 자를 첫 머리에 쓰기도 하며, 곧바로 말하기도 했다. 언(言) 자를 쓴 곳은 억양(抑揚)과 운절(韻折)이 대문(大文)과 흡사하고, 개(蓋) 자를 쓴 곳은 자기의 견해를 대강 제시하였기 때문에 감히 그것이 반드시 그렇다고 확정하지 않았다. 곧바로 말한 곳은 자기의 견해가 정당(正堂)하기 때문에 언 자도 없고 또한 개 자도 없다.

인용문은 집주에서 언 자와 개 자, 그리고 같은 맥락이지만 두 글자를 쓰지 않고 곧바로 설명해 나간 경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주자는 집주에서 특정 단어의 음주(音注)를 제시하고 곧바로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렇게 설정한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 대목에서 등장하는 글자가 바로 언 자와 개 자이다. 언 자는 경문과 주석문의 운절과 억양이 일치하는 경우에, 개 자는 경문과 주석문에 차이가 있어 주자의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약간 자신이 없을 경우에 썼다고 했다. 아울러 경문과 주석문이 차이가 있지만 자신의 의견에 확신이 있을 경우에는 개 자를 쓰지 않고 곧바로 그 이유를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집주의 훈주는 언 자나 개 자처럼 문맥과 조리에 관련된 글자 이외의 경우에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홍여하는 집주에서 풀이한 글자는 특별한 이유가 있음을 주목하고,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용례로 밝혔다.

자훈(字訓)의 범례는 한 자에 원래 한 가지 뜻만 있는 경우는 풀이하지 않았으니, 예를 들어 충신효제(忠信孝悌)의 유이다. 한 가지 뜻인데도 풀이한 경우는 선언(善言)이나 덕행(德行)에 근본을 둔 경우이다. 그 나머지 한 글자가 두 가지 뜻을 통용한 경우에는 모두 풀이하였는데, 예를 들면 선(鮮) 자는 소(少) 자와 명(明) 자의 뜻을 겸하기 때문에 풀이하였고, 회(懷) 자는 염(念) 자와 포(抱) 자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풀이하였다. 두 가지 뜻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글자마다 풀이하였는데, 예를 들어 《대학장구》에서 "도(道)는 언(言)이다."라는 유와 《논어집주》에서 "군자는 지위로 말한 것이다."라는 유이다.

인용문에서 홍여하는 집주의 훈주 대상은 특정 단어에 풀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양분할 수 있다고 했다. 먼저 충신효제(忠信孝悌) 같은 글자는 이견이나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풀이하지 않았다고 했다. 굳이 해석이 필요한 글자는 비슷한 의미의 두 가지 뜻으로 통용되거나, 전혀 다른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해당 어휘의 용례를 직접 제시하며 풀이하였다고 했다. 후자는 《대학장구》 전 3 장 "如切如磋者 道學也", 전 10 장 "道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의 도(道) 자를 언(言) 자로 풀이한 경우와 《논어》 〈양화(陽貨)〉의 "君子學道則愛人 小人學道則易使也"라는 구절을 《논어집주》에서 "君子小人 以位言之"로 풀이한 것을 용례로 들었다.

IV. 마무리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홍여하의 문장론과 문장 작법, 시 세계, 경학관, 경서 해석 양상 등을 검토해 보았다. 홍여하는 선진고문(先秦古文)을 바탕으로 한 글쓰기 방법을 최상으로 여겼으며, 주자의 사서집주를 경서 해석의 기준으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론과 경학관은 퇴계의 사후 17 세기 영남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홍여하의 문학과 경학은 주자의 문학 이론 혹은 경서 해석 방법을 맹목적으로 존숭하는 것이 아니라, 주자의 그것이 왜 옳고 좋은지에 대한 근거를 치밀하면서도 세세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할 만하다.

17 세기 조선 지식인들의 주자학 현양은 기호나 영남을 막론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송시열처럼 철저하게 주자학을 천명하고자 한 학자도 경학과 사학(史學) 등의 분야에 집중하였을 뿐, 홍여하처럼 문학론이나 시 세계 등에서도 주자를 중심에 둔 이는 드물다. 게다가 홍여하의 주자 존숭은 송시열의 그것보다 치밀하면서도 분석적이다. 예를 들어 송시열은 주자의 경서 해석에는 초년(初年)과 만년(晩年)의 설(說)이 있으며, 이 중에서 만년의 설이 정설(定說)이라 하면서 주자설의 미진한 점을 보완하려 했다. 그렇지만 이런 주장은 이른바 왕양명이 주장한 '주자만년정론설(朱子晩年定論說)'과 유사한 점이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홍여하는 주자만년정론설까지 치밀하게 분석하여 주자의 해석에 빈틈이 없음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주장으로 후일 홍여하를 영남의 사대문장가로 조심스럽게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아쉬운 것은 홍여하의 학문은 그의 부친 홍호(洪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짐작되나, 이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점이다. 홍여하는 홍귀달-홍언충-홍호로 이어지는 가학(家學)의 연원(淵源)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아울러 홍여하가 제시한 부세(賦稅)의 방법, 축성(築城)과 국방 등에 대한 분석이 덧보태지면 그의 학문에 대한 총괄적인 고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D001] 휘찬여사 …… 있다 : 김현영, 〈글로벌리즘 시대에 있어서 《휘찬여사》의 의미〉, 《국역휘찬여사》, 군위문화원, 2012.
김선화, 〈홍여하(洪汝河)의 역사인식(歷史認識)〉,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1987.
김영택,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의 역사의식(歷史意識)과 문학관(文學觀) 연구(研究)〉, 안동대학교 석사논문, 2004.
신항수, 〈17 세기 중반 홍여하(洪汝河)의 전제인식(田制認識)〉, 《한국사상사학》 8, 사상사회연구소, 1987.
장윤석, 〈17 세기 영남(嶺南) 남인(南人) 오운(吳澐)과 홍여하(洪汝河)의 역사 인식(歷史認識)〉, 경북대학교 석사논문, 2007.
한영우, 〈17 세기 중엽 영남남인(嶺南南人)의 역사(歷史) 서술(敍述)-홍여하(洪汝河)의 《휘찬여사(彙纂麗史)》와 《동국통감제강(東國通鑑提綱)》, 《조선후기사학사연구》, 일지사, 1989.

[주-D002] 경학 …… 피력하였다 : 권진옥, 〈목재(木齋) 홍여하(洪汝河)의 산문비평(散文批評) 일고(一考)〉, 《Journal of Korean Culture 17》, 한국어문학국제포럼, 2011.
전재동, 〈독서시(讀書詩)를 통해 본 홍여하(洪汝河)의 경서(經書) 해석(解釋)〉, 《대동한문학》34, 대동한문학회, 2011.
전재동, 〈홍여하(洪汝河)의 시세계(詩世界) 연구(研究) - 문학론(文學論)과 작시(作詩) 양상(樣相) 분석(分析)을 중심으로 ->, 《대동한문학》 37, 대동한문학회, 2012.

[주-D003] 이구가 …… 있다 : 설석규, 〈활재 이구의 이기심성론 변설과 정치적 입장〉, 《조선시대사학보》 4, 조선시대사학회, 1998.
김용헌, 〈활재 이구의 율곡 비판〉, 《율곡사상연구》 6, 율곡학회, 2003.
김용헌, 〈활재 이구의 이원적 심성정설〉, 《철학연구》 25, 고려대 철학연구소, 2000.

[주-D004] 홍여하는 …… 강조했는데 :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재동, 〈독서시를 통해 본 홍여하의 경서 해석〉, 《대동한문학》 34, 대동한문학회, 2011 참고.

[주-D005] 지금은 …… 때문입니다 : 《목재집》 권 4 〈답이구성윤해(答李九成允諧)〉

[주-D006] 가암팔경과 …… 했다 : 전익구, 《가암집》 권 2 〈기증가암팔경시(寄贈可庵八景詩)〉 및 〈가암기(可庵記)〉 참고.

[주-D007] 서원의 …… 기인하였다 : 《송사(宋史)》 권 428, 열전(列傳) 187 도학 이(道學二).

[주-D008] 난적 …… 공박하였다 : 《남당집(南塘集)》 권 34 〈한수재권선생행장(寒水齋權先生行狀)〉 참고.

[주-D009] 경에 …… 것이다 : 《주자어류(朱子語類)》 권 12, "敬之說 不必多言 但熟味整齊嚴肅 嚴威儼恪 動容貌 整思慮 正衣冠 尊瞻視 此等數語 而實加功焉 則所謂直內 所謂主一 自然不費安排 而身心肅然 表裏如一矣"

[주-D010] 조선의 …… 했다 : 전재동, 〈17 세기 전반 영남지역 경학 연구〉, 《동양한문학연구》 29 집, 동양한문학회, 2009.

[주-D011] 정여창(鄭汝昌)은 …… 있겠는가 : 정여창, 《일두집(一蠹集)》 권 3 〈찬술(讚述)〉, "鄭汝昌取朱子中庸章句 天以陰陽五行化生萬物 氣以成形 而理亦賦焉 曰 安有後氣之理乎"

[주-D012] 논어집주에 …… 했다 : 이영호, 〈論語集註의 註釋方式과 그 經學史的 繼承樣相〉, 《동양학》 제 35 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4, 3-7 쪽, 참고.

[주-D013] 여기에 …… 있다 : 이재석, 〈四書章句集註 音註의 훈고학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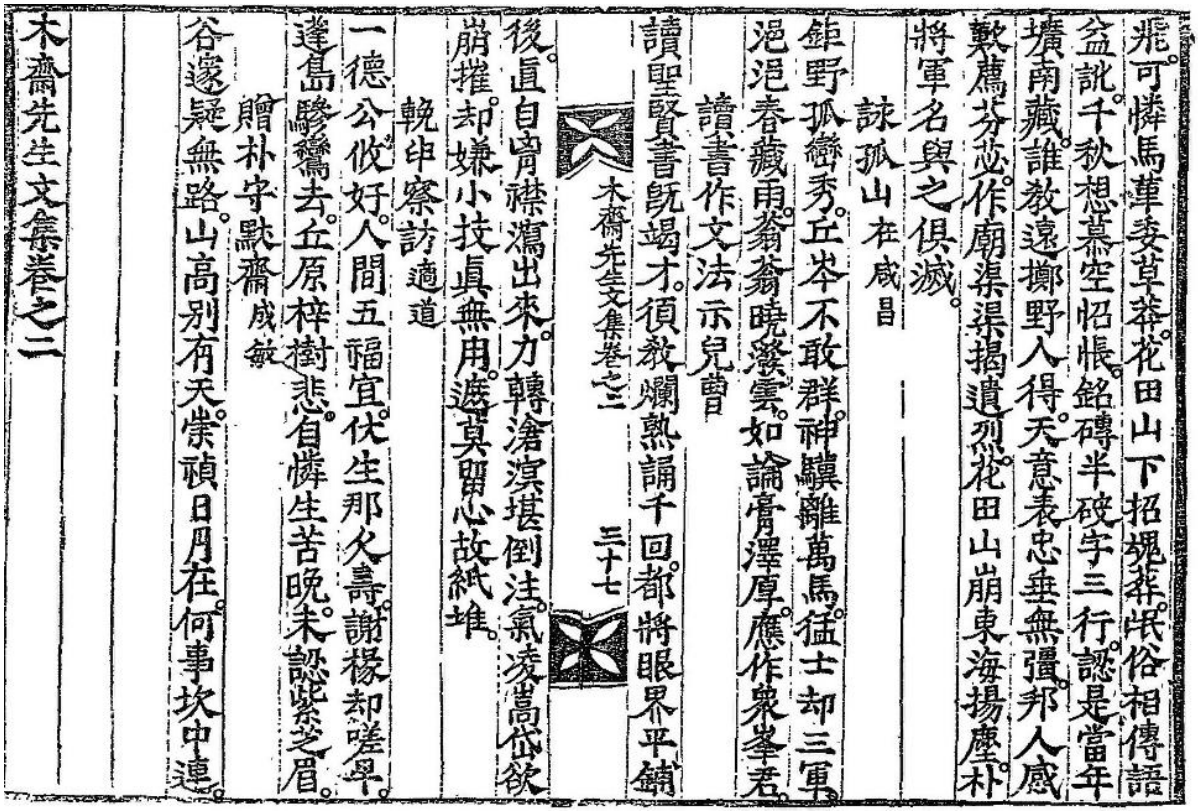
목재집 제2권 / 시(詩)

찰방 신적도 에 대한 만사〔輓申察訪 適道〕

13世 적도(適道) 父 : 흘(仡) 祖父 : 원록 (元祿) 읍파(邑派)호계공파(虎溪公派)

一德公攸好。人間五福宜。伏生那欠壽。謝椽却嗟早。蓬島驂鸞去。丘原梓樹悲。自憐生苦晩。未認紫芝眉。

순일한 덕을 잘 닦았기에 / 一德公攸好
인간세상에서 오복을 누려야 하리 / 人間五福宜
복생이 어찌 장수하지 않았으랴 / 伏生那欠壽
사연도 낮은 신분 한탄 했었지 / 謝椽却嗟卑
난새 타고 봉도로 떠나가니 / 蓬島驂鸞去
선영의 가래나무가 처량하네 / 丘原梓樹悲
가엾어라 늙도록 고생하였어도 / 自憐生苦晚
자지미로 인정받지 못했네 / 未認紫芝眉


木齋集 卷二
悲可憐馬革委草莽花田山下招魂葬俚俗相傳語
盆訛千秋想慕空昭帳銘磚半破字三行認是當年
壙南藏誰教遠擲野人得天意表忠垂無彊邦人感
歎薦芬蕊作廟渠渠揭遺烈花田山崩東海揚塵朴
將軍名與之俱滅
詠孤山在咸昌
鉅野孤巒秀丘岑不敢群神驥離萬馬猛士却三軍
浥浥春藏雨翁翁曉聚雲如論膏澤厚應作衆峯君
讀書作文法示兒曾
讀聖賢書既竭才須教爛熟誦千回都將眼界平鋪
後眞自胷襟瀉出來力轉滄溟堪倒注氣凌嵩岱欲
崩摧却嫌小技眞無用遮莫留心故紙堆
乾申察訪適道
一德公攸好人間五福宜伏生那欠壽謝椽却嗟卑
蓬島驂鸞去丘原梓樹悲自憐生苦晚未認紫芝眉
贈朴守默齋成敏
谷邃疑無路山高別有天崇禎日月在何事坎中連
木齋先生文集卷之二
木齋先生文集卷之二 三十七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

I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는 양천(陽川) 허균(許筠 1569~1618)의 시문집이다.

허균은 자를 단보(端甫), 호를 교산(蛟山)이라 했는데, 성소(惺所) 또한 그의 별칭이다. 초당(草堂) 엽(曄)의 제 3 자로 태어나, 악록(岳麓) 성(筬)·하곡(荷谷) 봉(篈)은 백중(伯仲)이요, 난설헌(蘭雪軒)은 그의 자씨(姊氏)였으니, 실로 규운(奎運)이 허씨 일문에 췌집(萃集)되었던 것이다. 특히 그는 총명이 절륜하고 문장이 환발(煥發)하여 일세를 용동(聳動)케 했다.

그는 선조(宣祖) 27 년(1594)에 등제(登第)하여 사로(仕路)에 첫걸음을 내딛었고, 동(同) 30 년(1597)에는 정시(庭試)에 장원의 영광을 차지한 바 있었다. 그 후 광해군(光海君) 10 년(1618)에 모반(謀反)의 혐의로 서시(西市)에서 처형되었는데, 이때 나이 50 이었다.

그의 생애는 참으로 감람 험희(坎壈險巇)하였다. 출사(出仕)한 이래 비방과 모함이 꼬리를 물어 곤돈 낙척(困頓落拓)하여 십수 년을 낭료(郎僚)의 신세로 부침(浮沈)하다가 급기야 말년에 대북파(大北派)와 접근하면서 취진(驟進)하여 형조 판서(刑曹判書)·우참찬(右參贊)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의 존재는 마침내 권신(權臣) 이이첨(李爾瞻)으로 하여금 좌시(坐視)할 수 없게 하였다. 결국 정치 권력의 와중(渦中)에서 그는 참혹한 최후를 마친 것이다.

II

이 문집이 세상에 남아 있게 된 것만도 그 자신의 비운(悲運)에 견주어 보면 다행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가 구금당하기 직전에 여서(女婿)인 이사성(李士星, 동고〈東皐〉 이준경〈李浚慶〉의 손자)의 집으로 미리 보내두게 하였던 것이다. 당시 사세가 자신에게 불리함을 알았고, 또 일단 구금되면 도저히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이와 같이 조처한 것이다.

그의 문집은 진작 그가 자수로 알뜰히 편차(編次)해 두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던 명(明) 나라 주지번(朱之蕃)이 그의 시문(詩文)을 읽어 보고 감탄하여 전집(全集)을 보여달라고 청한 바 있었다 한다. 그는 광해군(光海君) 5 년(1613)에 문집 1 부(部)를 중국으로 보냈는데 그가 죽기 5 년 전의 일로서 중국에 문집을 보낸 것은 주지번의 요구에 응한 것이다.

그는 주지번에게 문집을 보내면서,

"해내(海內) 대방가(大方家)의 일언(一言)을 빌려 책머리를 장식하고 싶다."

고 부탁한 바 있다. 그래서 당대 중국의 일류 문사(文士)인 이정기(李廷機)가 서문(序文)을 짓게 되었는데, 지금 권수(卷首)에 실려 있는 것이 바로 그 글이다.

"그의 문(文)은 우여 완량(紆餘婉亮)하여 왕감주(王弇州)의 만경(晩景)과 비슷하고, 시(詩)는 창달 섬려(鬯達贍麗)하여 변화천(邊華泉)의 청치(淸致)가 있다."

이는 이정기가 쓴 서문에 나타난 허균의 시문에 대한 주지번(朱之蕃)의 평어(評語)이다.

그 후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끝내 이 문집은 인행(印行)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었다. 역명(逆名)의 신원을 벗지 못한 허균의 처지로서는 오히려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간신히 외손가(外孫家)에 비장(祕藏)한 것만이 유전(流傳)하게 되었는데 그것마저도 현재 전하는 책과 맞추어 보면 그전대로의 전질(全帙)은 아닌 듯하다.

임상원(任相元, 호 염헌〈恬軒〉, 숙종조 문과〈文科〉, 승지〈承旨〉)의 교거 쇄편(郊居瑣篇)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나는 이사성(李士星)의 아들로부터 허균의 문집을 빌려 보았다. 집(集)은 무릇 15 권인데 그 중 2 책은 모두 변려(駢儷)로서 남이 빌려가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사성의 아들이란 교산(蛟山)의 외손 이필진(李必進, 자 퇴부〈退夫〉, 호 수암〈守菴〉)인데《성소부부고》에 발문을 붙여 자기 외조부를 변명한 사람이다. 임상원이 이 이필진에게 직접 빌려 보았을 때 이미 변려(駢儷)의 권(卷)은 망실되었다는 것이다. 과연 지금 전하는 문집을 보면 두 책 분량의 변려문은 전혀 나타난 바 없다. 그리고 이필진의 발문에 보이는 갑진명주고(甲辰溟州藁)·서관행록(西關行錄)·계축남유초(癸丑南遊草)·을병조천록(乙丙朝天錄) 또한 현존 문집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다소의 일실(逸失)은 있었지만 그런 대로 유고(遺稿)의 대부분은 살아남았다.

III

이정기(李廷機)의 서문에서는 이 책을《부부고 사부(覆瓿藁四部)》라 칭하고 있다. 원래 서명이 이러했다고 생각된다. 사부(四部)란 본문이 시부(詩部)·부부(賦部)·문부(文部)·설부(說部)로 나뉘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 사부고(四部藁)가 모두 26 권으로 편차되어 있으며《한정록(閒情錄)》은 부록으로 붙어 있다.

다음에 내용의 개략을 간단히 소개해 둔다.

시부(詩部)〈권(卷) 1~2〉

시고(詩稿)는 시가 지어진 경로에 따라 편목(篇目)을 묶어 그것을 연대순으로 배열했다. 그가 처음 중국 사행(使行)에 따라갈 때 지은 정유조천록(丁酉朝天錄)으로부터 시작하며, 궁사(宮詞)·화사영시(和思穎詩)·속몽시(續夢詩)·억기시(臆記詩) 등이 끝에 있다.

부부(賦部)〈권 3〉

동정부(東征賦) 등 9 편과 훼벽사(毁璧辭) 등 2 편의 사부(辭賦)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문부(文部)〈권 4~21〉

서(序)·기(記)·전(傳)·논(論)으로부터 척독(尺牘)에 이르기까지 각체의 문장을 문체(文體)별로 구분해서 수록하고 있다.

설부(說部)〈권 22~26〉

여기에는 잡록(雜錄)·필기(筆記)에 해당하는 성옹지소록(惺翁識小錄)·성수시화(惺叟詩話)·도문대작(屠門大嚼)이 수록되어 있다.

성옹지소록(惺翁識小錄) : 광해군(光海君) 2 년(1610) 전라도 함열(咸悅)로 유배(流配)되었을 당시 쓴 것이다. 기왕에 자신이 견문(見聞)했던바 현사(賢士) 대부(大夫)의 행적(行迹) 및 국고(國故)에 비익이 될 만한 사실(事實), 기타 기문(奇聞) 이도(異覩)를 수록(隨錄)하고 있다.

성수시화(惺叟詩話) : 이 역시 함열(咸悅) 배소(配所)에서의 작(作)이다. 앞서 그는 조선 시대의 시(詩)를 선(選)하여《국조시산(國朝詩刪)》을 편한 바 있었거니와, 그 일련의 작업으로 우리나라 상하(上下) 8 백여 년 동안의 제가(諸家)의 시(詩)를 96 칙(則)에 걸쳐 간정(簡精)하게 평설(評說)한 것이다.

도문대작(屠門大嚼) : 이 또한 함열(咸悅)에 있을 때 엮은 것이다. 팔도(八道)의 진미(珍味)와 산진 해착(山珍海錯)의 백종(百種) 명산(名産)에 대해서 소개하고 품평(品評)한 특이한 저서이다.

부(附) 한정록(閒情錄)〈권 1~17〉

고금(古今)의 군적(群籍)에서 박채(博採)하여 은둔(隱遁)·고일(高逸)·한적(閒適)·퇴휴(退休)·유흥(游興)·아치(雅致)·숭검(崇儉)·임탄(任誕)·광회(曠懷)·유사(幽事)·명훈(名訓)·정업(靜業)·현상(玄賞)·청공(淸供)·섭생(攝生)·치농(治農)의 16 문으로 나누어 엮은 것이다. 대개 사대부(士大夫)의 한정(閒情)에 속

하는 내용이지만, 치농(治農)의 부문(部門)은 농사・원포(園圃)・양잠・가축 등 실용(實用)에 관계된다. 그가 수차 중국에 사행(使行)으로 갔을 때 서책을 광범하게 수집해와서 그것을 기초로 엮은 것인바, 특히 갑인년(1614)・을묘년(1615) 두 차례 북경(北京)에 갔을 때 가재(家財)를 던져 서적을 거의 4 천여 권이나 구득해 와서 이 책을 엮는 데 도움이 컸다고 한다.

IV

근자에《성소부부고》의 필사본이 영인으로 간행된 바 있었다. 물환성이(物換星移)한 오늘날 교산(蛟山)의 문학과 사상에 대한 학계 및 일반의 관심이 매우 고조되어 있다. 이에 부응하여 '민족문화추진회'에서는 다시 이것을 국역(國譯) 출판키로 하였다. 그래서 필자가 이의 국역을 맡음과 아울러 위와 같은《성소부부고》의 경로를 약술(略述)하여 해제에 갈음하는 바이다.

번역의 대본은 국립도서관본으로 하고, 그 밖에 규장각본(奎章閣本)・홍문관본(弘文館本)・연세대학본(延世大學本)・고(故) 박종화본(朴鍾和本) 등을 참고로 하였다.

허균(許筠)

정의

조선시대 첨지중추부사, 형조참의,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 문인.

요약문

허균은 조선시대 첨지중추부사, 형조참의, 좌참찬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문인이다. 1569년(선조 2)에 태어나 1618년(광해군 10)에 사망했다. 어려서부터 문재에 뛰어났고 학문은 유성룡에게, 시는 이달에게 배웠다. 명 사신 접대에 종사관으로 기용되어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으며, 명나라에도 여러 차례 다녀왔다. 광해군 즉위 후 대북파에 가담하여 폐모론을 적극 주장했다. 유학 외에 불교와 도교 등에도 깊은 관심을 보인 비판적 개혁사상가로서 여러 이론을 개진했고, 사회모순을 비판한 소설「홍길동전」,「한정록」등의 작품을 남겼다

개설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단보(端甫), 호는 교산(蛟山)·학산(鶴山)·성소(惺所)·백월거사(白月居士). 아버지는 서경덕(徐敬德)의 문인으로서 학자·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엽(曄)이다. 어머니는 강릉 김씨(江陵金氏)로서 예조판서광철(光轍)의 딸이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통신사의 서장관으로 일본에 다녀온 성(筬)이 이복형이다. 문장으로 이름 높았던 봉(篈)과 난설헌(蘭雪軒)과 형제이다.

생애와 활동사항

허균은 5 세 때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해 9 세 때에 시를 지을 줄 알았다. 1580 년(선조 13) 12 세 때에 아버지를 잃고 더욱 문학 공부에 전념했다. 학문은 유성룡(柳成龍)에게 배웠다. 시는 삼당시인(三唐詩人)의 하나인 이달(李達)에게 배웠다. 이달은 둘째 형의 친구로서 당시 원주의 손곡리(蓀谷里)에 살고 있었다. 그에게 시의 묘체를 깨닫게 해주었다. 인생관과 문학관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후 허균은「손곡산인전(蓀谷山人傳)」을 지어 그를 기렸다.

허균은 26 세 때인 1594 년(선조 27)에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을과로 급제하고 설서(說書)를 지냈다. 1597 년(선조 30)에는 문과 중시(重試)에 장원을 했다. 이듬해에 황해도도사(都事)가 되었으나 서울의 기생을 끌어들여 가까이했다는 탄핵을 받고 부임한지 6 달 만에 파직됐다.

그 뒤에 춘추관기주관(春秋館記注官)·형조정랑을 지냈다. 1602 년(선조 35)사예(司藝)·사복시정(司僕寺正)을 역임했다. 이 해에 원접사이정구(李廷龜)의 종사관이 되어 활약했다. 1604 년(선조 37)수안군수(遂安郡守)로 부임했으나 불교를 믿는다는 탄핵을 받아 또다시 벼슬길에서 물러났다.

허균은 1606 년에 명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을 영접하는 종사관이 되어 글재주와 넓은 학식으로 이름을 떨쳤다. 누이 난설헌의 시를 주지번에게 보여 이를 중국에서 출판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공로로 삼척부사가 됐다.

그러나 세 달이 못 되어 불상을 모시고 염불과 참선을 한했다는 탄핵을 받아 쫓겨났다. 그 뒤에 공주목사로 기용되어 서류(庶流)들과 가까이 지냈다. 또다시 파직 당한 뒤에는 부안으로 내려가 산천을 유람하며 기생 계생(桂生)을 만났다. 천민 출신의 시인 유희경(柳希慶)과도 교분이 두터웠다.

허균은 1609 년(광해군 1)에 명나라 책봉사가 왔을 때에 이상의(李尙毅)의 종사관이 됐다. 이 해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가 되고 이어 형조참의가 됐다. 1610 년(광해군 2)에 전시(殿試)의 시험을 주관하면서 조카와 사위를 합격시켰다는 탄핵을 받아 전라도 함열(咸悅)로 유배됐다. 그 뒤에 몇 년간은 태인(泰仁)에 은거했다.

허균은 1613 년(광해군 5) 계축옥사에 평소 친교가 있던 서류출신의 서양갑(徐羊甲)·심우영(沈友英)이 처형당하자 신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이첨(李爾瞻)에게 아부해 대북(大北)에 참여했다. 1614 년에 천추사(千秋使)가 돼 중국에 다녀왔다.

그 이듬해에는 동지 겸 진주부사(冬至兼陳奏副使)로 중국에 다녀왔다. 두 차례의 사행에서 많은 명나라 학자들과 사귀었으며 귀국할 때에『태평광기(太平廣記)』를 비롯해 많은 책을 가지고 왔다. 그 가운데에는 천주교 기도문과 지도가 섞여 있었다고 한다.

허균은 1617 년(광해군 9)좌참찬이 됐다. 폐모론을 주장하다가 폐모를 반대하던 영의정기자헌(奇自獻)과 사이가 벌어졌고 기자헌은 길주로 유배를 가게 됐다. 그 아들 기준격(奇俊格)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하여 허균의 죄상을 폭로하는 상소를 올리니 허균도 상소를 올려 변명했다.

1618 년(광해군 10) 8 월 남대문에 격문을 붙인 사건이 일어났다. 허균의 심복 현응민(玄應旻)이 붙였다는 것이 탄로 났다. 허균과 기준격을 대질 심문시킨 끝에 역적모의를 하였다 하여 허균은 그의 동료들과 함께 저자거리에서 능지처참을 당하였다.

사상

허균은 국문학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홍길동전」을 지은 작가로 인정되고 있다. 한때 이론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그보다 18 년 아래인 이식(李植)이 지은『택당집(澤堂集)』의 기록을 뒤엎을 만한 근거가 없는 이상 그를「홍길동전」의 작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의 생애와 그의 논설「호민론(豪民論)」에 나타난 사상을 연결시켜 보면 그 구체적인 형상화가 홍길동으로 나타났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허균의 문집에 실린 「관론(官論)」·「정론(政論)」·「병론(兵論)」·「유재론(遺才論)」 등에서 민본사상과 국방정책과 신분계급의 타파 및 인재등용과 붕당배척의 이론을 전개했다. 내정개혁을 주장한 그의 이론은 원시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것으로 백성들의 복리증진을 정치의 최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균은 유교집안에서 태어나 유학을 공부한 유가로서 학문의 기본을 유학에 두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이단으로 지목되던 불교·도교에 대해 깊이 빠져들었다. 특히, 불교에 대해서는 한때 출가하여 중이 되려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다.

불교의 오묘한 진리를 접하지 않았더라면 한평생을 헛되이 보낼 뻔했다고 술회를 하기도 하였다. 불교를 믿는다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아 파직당하고서도 자기의 신념에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음을 시와 친구에게 보낸 편지글에서 밝히고 있다.

허균은 도교사상에 대해서는 주로 그 양생술과 신선사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은둔사상에도 지극한 동경을 나타냈다. 은둔생활의 방법에 대하여 쓴 「한정록(閑情錄)」이 있어 그의 그러한 관심을 보여 주고 있다.

허균 자신이 서학(西學)에 대하여 언급한 것은 없으나 몇몇 기록에 의하면 중국에 가서 천주교의 기도문을 가지고 온 것을 계기로 하늘을 섬기는 학문을 했다고 한다. 이 점은 그가 새로운 문물과 서학의 이론에 남다른 관심을 보였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허균은 예교(禮敎)에만 얽매어 있던 당시 선비사회에서 보면 이단시할 만큼 다각문화에 대한 이해를 가졌던 인물이며, 편협한 자기만의 시각에서 벗어나 핍박받는 하층민의 입장에서 정치와 학문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나간 시대의 선각자였다.

평가

허균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한편에서는 총명하고 영민하여 능히 시를 아는 사람이라 하여 문장과 식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그 사람됨에 대해서 경박하다거나 인륜도덕을 어지럽히고 이단을 좋아하여 행실을 더럽혔다는 등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의 생애를 통해 보면 몇 차례에 걸친 파직의 이유가 대개 그러한 부정적 견해를 대변해 주고 있다.

저서

허균은 그의 문집 『성소부부고(惺所覆瓿藁)』를 자신이 편찬해 죽기 전에 외손에게 전했다. 그 부록에 「한정록」이 있다.

그가 25 살 때에 쓴 시평론집 『학산초담(鶴山樵談)』은 『성소부부고』에 함께 실려 있는 「성수시화(惺叟詩話)」와 함께 그의 시비평 안목을 보여 주는 좋은 자료가 되고 있다.

시를 보는 그의 감식안은 시선집 『국조시산(國朝詩刪)』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평가받고 있다.

허균의 저서 『국조시산』에 덧붙여 자신의 가문에서 여섯 사람의 시를 뽑아 모은 『허문세고(許門世藁)』가 전한다.

이 밖에
『고시선(古詩選)』·『당시선(唐詩選)』·『송오가시초(宋五家詩抄)』·『명사가시선(明四家詩選)』·『사체성당(四體盛唐)』 등의 시선집이 있었으나 현재 전하지 않는다.

또, 임진왜란의 사실을 적은 「동정록(東征錄)」은 『선조실록』 편찬에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고 하지만 역시 현재에 전하지 않는다. 저술했다는 기록만 있고 현재 전하지 않는 저작으로 「계축남유초(癸丑南遊草)」·「을병조천록(乙丙朝天錄)」·「서변비로고(西邊備虜考)」·「한년참기(旱年讖記)」 등이 있다.

제18권 / 문부(文部) 15 ○ 기행 상(紀行上)

조관기행(漕官紀行)

14世 지제(之悌) 父 : 몽득(夢得) 祖父 : 응규 (應奎) 귀파(龜派)오봉공파(梧峰公派)

壬申。就鎭南軒。同方伯看陳雜戲。長竿走繩跳床諸伎悉奏。向夕。大夫人食早柿。因噎冒扶入。初夜疾甚殆。余與亞使蔡衡，中軍李弘嗣，判官申之悌。達宵坐軒以俟。

13일(임신) 진남헌(鎭南軒)에 나가 방백과 함께 장간(長竿 장대놀이)·주승(走繩 줄타기)·도상(跳床 높이뛰기) 등 여러 가지 재주 놀음을 모두 보여주었다. 저녁 무렵에 대부인(大夫人)이 설익은 감을 먹은 것이 체하여 부축하고 들어가더니 초저녁에 병이 매우 위태로워졌다. 나는 부사(副使) 채형(蔡衡), 중군(中軍) 이홍사(李弘嗣), 판관(判官) 신지제(*申之悌*)와 밤새도록 동헌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다.